

호남선현문집국역총서 5

후창집 3

後滄集

김택술 지음

한국학호남진흥원

俱皆有思非深文良
外以不言之教與弟
觀益重之益字更覺
衣兄謂震誣師之定

而已在變出之初癸亥矣是時吾固不須為兄慮而兄
丙子冬得震所證先師墓籍之許及李裕與書謂誣
所守之見及其被弟墓與稿之非一例李書之絕無
所終無柰難不服於理到之言則又棄證據明非
論而允庵先生嘗有依違兩間者終必入於
不在公列白義河陰陽黑白

일러두기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후창집(後滄集)》으로 하였다.
2. 내용이 간단한 역주는 간주(間註)로, 긴 역주는 각주(脚註)로 처리하였다.
3. 한자는 필요한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었으며, 운문(韻文)은 원문을 병기하였다.
4.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랐다.
5. 이 책에 사용한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번역문과 음이 같은 한자를 묶는다.
 - [] : 번역문과 뜻이 같으나 음이 다른 한자를 묶는다.
 - “ ” : 대화 등의 인용문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 또는 강조 문구를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 」안의 재인용을 묶는다.
 - 《 》 : 책명 및 각주의 근거(典據)를 묶는다.
 - 〈 〉 : 책의 편명 및 운문 산문의 제목을 묶는다.
 - ▣ : 원문의 결자 빈자리를 비워 둠을 나타낸다.

《후창집》 제13권 後滄集 卷之十三

잡저 雜著

	번역본	원문
주리와 주기에 대한 대답 主理主氣對	10	398
기질성에 대한 문답 氣質性問答	12	398
스스로 경계하는 열 가지 조목 自警十則	16	400
기미년 생일 아침에 스스로 경계함 己未生朝自警	22	402
선친의 휘일에 감회를 적어 스스로 경계하고 아울러 아이들에게 보임 先君諱日書感自警兼示兒輩	24	402
스승의 상 때에 동문들에게 두루 고함 師喪時輪告同門	25	403
우연이 기록하다 偶書	27	403
경진년 생일 아침에 감회를 기록함 庚辰生朝識感	37	407
자기설 自欺說	39	407
자기설 제2 自欺說第二	42	408
우설로 스스로 경계함 憂說自戒	43	409
‘년’자설 辨字說	45	409
백졸설 百拙說	48	410
네 아들의 명과 자에 대한 설 四子名字說	49	411
박쥐에 대한 설 蝙蝠說	50	411

시냇가에 은거한 것에 대한 설 溪隱說	51	411
농사지며 은거한 것에 대한 설 耕隱說	52	412
솔잎을 먹은 것에 대한 설 啖松說	54	412
김성원의 자에 대한 설 金聲遠字說	56	413
최이구와 이관의 자에 대한 설 崔以求以貫字說	59	414
허정로 이종의 명과 자에 대한 설 許正老而中名字說	60	414
이사진의 자에 대한 설 李士進字說	61	415
귀질 극범의 자에 대한 설 龜姪克範字說	63	415
정통론 상 正統論上	64	416
정통론 하 正統論下	67	417
숙손통론 叔孫通論	68	417
한 문제가 두광국을 승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변론 漢文帝不相竇廣國論	71	418
한 문제가 옥배를 얻고 개원한 것에 대한 변론 漢文帝得玉杯改元論	73	419
직불의가 금을 사서 보상해준 것에 대한 변론 直不疑償金論	75	419
등유가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한 변론 鄧攸棄子論	77	420
우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변론 買牛山論	79	420
거실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변론 不得罪於巨室論	82	421
가규 家規	83	422

선조의 자취에 대해 생각하고 물음 先蹟思問	87	423
나라 안의 여러 김씨에게 두루 고하는 글 徧告國中諸金氏文	93	425
종중에 통고하는 글 通告宗中文	95	426
집안사람들에게 보임 示家衆	100	428
쌍백당 이 충숙공이 지은 매죽당 부군의 묘갈명을 읽고 讀雙柏堂李忠肅公所撰梅竹堂府君墓碣銘	101	428
‘고’자의 음과 뜻 告字音義	102	428
겨울 국화를 보고 감회를 기록함 見冬菊識感	107	430
세속에서 문자의 호칭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변론 世俗文字稱號誤用辨	108	430
남산재에서 제군에게 보임 南山齋喻諸君	115	432
덕천서사 규약 德川書社規約	121	434
강규 講規	131	437
교과 규칙 敎課規則	132	438
시고 규칙 試考規則	134	439
대암서사에서 제군에게 보임 臺巖書社示諸君	136	440
우연히 기록하다 偶錄	137	441
예설쇄록 禮說鎖錄	145	443
선사 장례 때의 홀기 先師襄禮時笏記	146	443

《후창집》 제14권 後滄集 卷之十四

잡저 雜著

	번역본	원문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두루 알림 徧告同門僉公	156	448
삼가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알림 敬告同門諸公	159	449
동문의 동지들에게 돌려 알림 輪告同門同志	161	450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돌려 알림 輪告同門僉公	163	450
오진영이 서병갑에게 보내려던 편지에 대한 변론 吳震泳擬與徐柄甲書辨	166	451
재변론 再辨	170	453
전발설에 대한 변론 傳鉢說辨	173	454
오진영이 이원재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吾震泳答李遠齋書辨	176	455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吳震泳答吳士益書辨	183	458
권순명이 이원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변론 權純命與李遠齋書辨	187	459
오진영이 사림에 화를 끼쳤을 때의 완행일기 震泳禍士日完行日記	189	461
또 又	193	462
여안에게 고함 告汝安	200	464
나를 따라 공부한 여러 제자들에게 고함 告從學諸子	200	464
여안 및 어려움을 함께한 집안의 자제들에게 고함 告汝安及同難家子弟	201	465

둘째와 셋째 두 아우에게 고함 告仲叔二弟	201	465
큰아이 형복에게 고함 告長兒炯復	201	465
둘째 아이 형태에게 고함 告次兒炯泰	202	465
세째 아이 형관에게 고함 告參兒炯觀	202	465
오진영 당의 여러 사람에게 고하려고 함 擬告震黨諸人	202	465
감사에게 보내려던 편지 擬與檢事書	203	466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吳震泳答吳士益書辨	203	466
김세기의 흉악한 글을 보고나서 觀世基凶文	212	469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觀吳震泳答金聖章書	216	471
전사건의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를 제2조로 첨부함 附田士涓<觀吳震泳答金聖章書>第二條	217	471
전사순이 이신현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나서 觀田士順與李愼軒書	218	472
선사의 문고를 읽고 느낌이 있어 표출하고 삼가 안설을 붙이다 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	221	473
《송자대전》을 읽고 느낌이 있어 표출하고 삼가 안설을 붙이다 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	257	489
오준선 씨의 유고 중에 어떤 사람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觀吳氏駿善稿中答人書	272	495
간재 선생 사고 습유 편집 범례 良齋先生私稿拾遺編輯凡例	274	496
간재 선생 연보 편집 범례 良齋先生年譜編輯凡例	275	497
정미재의 문집을 보고나서 觀鄭薇齋集	277	497
오진영이 찬술한 <정절사전>의 뒷부분 의론에 대하여 논하다 論吳震泳所撰《鄭節士傳》後論	279	498

오진영이 김윤청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觀吳震泳答金允淸書	281	499
전사견이 김세기의 편지를 조목별로 변론한 것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 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	283	499
《신라김씨세보》중 의심스러운 점을 논변하다 《新羅金氏世譜》中辨疑	300	505

《후창집》 제15권 後滄集 卷之十五

잡저 雜著

	번역본	원문
간재선생사고진주본고변록 艮齋先生私稿晉州本考辨錄	304	508
김용승의 <망고현천문> 대한 변론 金容承望告玄阡文辨	370	533
김용승의 <백천재기언>을 보다 觀金容承百千齋記言	392	541

《후창집》 제13권

《後滄集》卷之十三

잡저 雜著

주리와 주기에 대한 대답 [간재 선생이 <주리주기문>을 짓고 치대하게 하였다. 1903년]

主理主氣對【艮齋先生, 作主理主氣問令置對. 癸卯】

무릇 정학(正學)은 주리(主理)이고 이학(異學)은 주기(主氣)이지만, 주리자(主理者)는 일찍이 기(氣)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공자로부터 송나라 유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심(心)을 기에 속하게 하였고, 또 마음이 주재(主宰)가 된다는 논의 있었다. 주기자(主氣者)는 일찍이 이(理)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불씨(佛氏)는 “여래(如來)가 성(性)이다.”¹⁾라고 하였고, 고자(告子)는 “생(生)의 본능을 성이라 한다.”²⁾라고 하였으며, 또 “식색(食色)이 성이다.”³⁾라고 하였다. 육상산(陸象山)⁴⁾은 ‘이 이가 이미 나타났다.’⁵⁾ 라는 말을 하였고, 왕양명(王陽明)⁶⁾은 ‘심(心)의 본체가 곧

1) 여래(如來)가 성(性)이다 : 여래는 범어(梵語)로 타타아가타(tatha-gata)라고 한다. 부처의 10가지 이름(如來十號) 가운데 하나로, 여실히 오는 자 또는 진여에서 오는 자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여래는 부처[佛]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부처가 될 성품[佛性]을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다[一切衆生悉有佛性]고 말한다.

2) 생(生)의 …… 한다 :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나온다.

3) 식색(食色)이 성이다 : 《맹자》 <고자 상>에서 고자가 말하기를 “식색이 성이니, 인은 내면에 있고 외면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의는 외면에 있고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食色性也, 仁內也, 非外也, 義外也, 非內也.]”라고 하였다.

4) 육상산(陸象山) : 육구연(陸九淵, 1139~1193)이다. 호는 상산(象山) 또는 존재(存齋)이고, 자는 자정(子靜)이다. ‘마음이 곧 이(理)이다.[心卽理]’라는 설을 주장하였고, 유교의 고전인 육경(六經)도 ‘내 마음의 주각(註脚)’이라 하였다.

5) 이 …… 나타났다 : 《상산집(象山集)》 권4 <상산어록(象山語錄)>에서 육상산이 “선생이 눈으로 맞이하여 보고 ‘이치가 이미 드러났다.’[先生目逆而視之曰: ‘此理已顯也。]”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6) 왕양명(王陽明) : 왕수인(王守仁, 1472~1528)으로, 양명은 그의 호이다. 이름은 수인(守仁)이고, 자는 백안(伯安)이며, 시호는 문성(文成)이다. 주자학에 대해 그는 독자적인 유학 사상을 내세우고 특히 육상산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천리이다.⁷⁾’라는 말을 하였으니, 그들이 한 말을 가지고 살펴보면 주리자가 반대로 주기 같고, 주기자가 반대로 주리 같다.

그러나 그 실상을 궁구해보면 텅 비고 밝은 영각(靈覺 영묘한 깨달음)은 불씨의 이른바 성이며, 지각(知覺)하고 운동(運動)하는 것은 고자의 이른바 성이며⁸⁾, 육상산의 이른바 차리(此理)는 마음의 징영(澄瑩 맑고 밝음)함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왕양명의 이른바 천리는 마음의 양지(良知)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이 사가(四家)가 인식하고 있는 이와 성은 바로 우리 유가(儒家)의 이른바 기이고 심이다. 그러므로 우리 유가는 그들을 주기로 처리한다.

우리 유가가 비록 성이 이, 심이 기에 속한다고 여기지만, 발휘하고 운용하여 일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기에 의지하니, 이는 마음이 일신의 주재가 되는 까닭이다. 비록 마음이 주가 되지만 일찍이 스스로 주가 되지 않고, 반드시 성에 근원하여 일신을 주재하니 또한 어찌 주리가 아니겠는가. 노자와 불가(佛家)가 기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기를 이로 여겼으므로 다시 말할 만한 기가 없기 때문이다. 율옹(栗翁 이이(李珣))의 이른바 ‘기를 검속(檢束)한다.’⁹⁾라는 말은 기의 본연(本然)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 기가 그 본연을 회복하면 성은 회복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을 회복하는 것은 주리이고 기를 이로 여기는 것은 주기인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니, 주기의 이름을 버리고 주리의 실(實)을 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의지하여 따라야 할 바를 알 수 있을 것이다.

7) 심의 …… 천리이다 : 《왕문성전서(王文成全書)》 권5 <답서국용(答舒國用)>에서 왕양명이 말하기를 “무릇 심의 본체가 곧 천리이고, 천리의 밝은 영각이 이른바 양지이다.[夫心之本體即天理也, 天理之昭明靈覺, 所謂良知也.]”라고 하였다.

8) 지각(知覺)하고 …… 성이며 : 《맹자집주(孟子集註)》 <고자 상>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생은 인물이 지각하고 운동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生指人物之所以知覺運動者而言.]”라고 하였다.

9) 기를 검속(檢束)한다 : 《율곡전서(栗谷全書)》 권10 <답성호원(答成浩原)>에서 율곡이 말하기를 “성현의 수없이 많은 말은 다만 사람들에게 기를 검속하게 하여 기의 본연을 회복하게 한 것일 뿐이다.[聖賢之千言萬言, 只使人檢束其氣, 使復其氣之本然而已.]”라고 하였다.

기질성에 대한 문답【1915년】

氣質性問答【乙卯】

객이 나에게 묻기를 “성탕(成湯)¹⁰ 이후 성현들이 성(性)에 대해 논한 것은 순선(純善)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말했을 뿐이다. 정호(程顥)와 장재(張載) 두 선생에서부터 처음으로 기질성(氣質性)의 설이 있었으니¹¹), 이른바 기질성이란 것은 과연 어떠한 성인가?”라고 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이른바 기질성이라는 것은 다만 본연성(本然性)이 기질을 따라 저절로 하나의 성이 될 뿐이고, 본연성 밖에 다시 기질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개 사람이 태어날 때 천지의 이(理)를 받은 것은 성이 되고 천지의 기(氣)를 받은 것은 기질이 된다. 이(理)는 형체 없는 물(物)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성이 되고 혼연히 지선(至善)하여 도모하는 바가 없다. 그러나 기는 형체 있는 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어서 기질이 되고 온갖 가지런하지 않아 작용이 무상하다.

지선하면서 작위함이 없는 것이 가지런하지 않으면서 작용하는 것께 운용되지만, 관섭(管攝)하거나 검제(檢制)할 방법이 없다. 이에 혼연한 지선의 체가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지 않고, 기질에 따라 온갖 가지런하지 않음이 있는 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기질지성으로 지목한다. 그 명칭이 비록 정호와 장재에서부터 시작되어 확립되었을지라도, 실제로는 공자의 성상근(性相近)¹²), 한자(韓子) 한유(韓愈)의 성삼품(性三品)¹³), 주자(周子

10) 성탕(成湯) : 은(殷)나라 첫 임금인 탕왕(湯王)이다. 본명은 이(履) 또는 천공(天工)이다. 하(夏)의 걸왕(桀王)을 쫓아내고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다.

11) 정호(程顥)와 …… 있었으니 : 장재가 《정몽(正蒙)》〈성명편(誠明篇)〉에서 말하기를 “형이 있는 다음에 기질지성이 있다.[形而後有氣質之性]”라고 하였고, 정호는 《이정유서(二程遺書)》 권1에서 “생은 성이라 이른다. 성이 곧 기요, 기가 곧 성이니 이것을 생이라고 이른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형기(形氣)를 품부 받으면 이치에 선과 악이 있게 된다.[生之謂性. 性即氣, 氣即性, 生之謂也. 人生氣稟, 理有善惡.]”라고 하였다. 《근사록(近思錄)》 권1 <도체(道體)〉에도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다.

12) 성상근(性相近) : 《논어》〈양화(陽貨)〉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성은 서로 가까우나 습은 서로 멀다.[性相近也, 習相遠也.]”라고 하였다.

13) 성삼품(性三品) : 《창려문집(昌黎文集)》 권11 <원성(原性)〉에서 한유(韓愈)가 말하기를 “성에는 상중하 세 가지 등급이 있으니, 상품은 선할 뿐이고, 중품은 인도하여 위나 아래로 가게 할 수 있으며,

주돈이(周敦頤)의 성강유선악(性剛柔善惡)¹⁴⁾의 세 말이 이미 정호와 장재 이전에 설파되었다.”라고 하였다.

객이 묻기를 “그렇다면 본연성이 기질을 따라 가지런하지 않은 성이 되니, 순선(純善)한 본체가 또한 속박되고 착상(鑿喪)되어서 남음이 없는가?”라고 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어찌 일찍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지 않는가. 지극히 밝고 뜨거운 본체가 저렇게 빛나고 불지만, 구름에 가리고 안개에 막히며 날씨가 써늘하고 한기가 얼어붙게 되면 지극히 밝은 것은 흐려지기도 하고 캄캄해지기도 하며, 지극히 뜨거운 것은 서늘해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가지런하지 않은 흐림, 캄캄함, 서늘함, 차가움은 바로 구름, 안개, 날씨, 한기의 소치이기 때문에 밝고 뜨거운 태양의 본체에는 본래 손상됨이 없다.

이 때문에 사람의 치우침과 온전함 및 선함과 악함은 모두 기질이 하는 것이고, 성의 본체는 본래 그대로임을 알 수 있다. 주자가 말하기를 ‘이가 어떻게 악하겠는가. 이른바 악이라는 것은 기이다.¹⁵⁾’라고 하였고, 임천 오씨(臨川吳氏)¹⁶⁾가 말하기를 ‘타고난 기가 맑고 혼탁하며 재질(材質)이 어둡고 밝으니, 이는 고자(告子)의 이른바 생(生)의 본능을 성이라 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은 실제로는 기이다.¹⁷⁾’라고 하였으며, 울곡 선생(栗谷先生 이이(李珣))이 말하기를 ‘기가 치우치면 이도 치우치는데 치우친 것은 이가 아니고 바로 기이며, 기가 악하면 이도 악한데 악한 것은 이가 아니고 바로 기이다.¹⁸⁾’라고 하였으니, 이 세 가지 설은 바꿀 수 없는 의논이라고

하품은 악할 뿐이다.[性之品有上中下三, 上焉者善焉而已矣, 中焉者可導而上下也, 下焉者惡焉而已矣.]”라고 하였다.

14) 성강유선악(性剛柔善惡) : 《통서(通書)》〈사 제칠(師第七)〉에 주돈이가 말하기를 “성은 강유와 선악의 중일뿐이다.[性者剛柔善惡中而已矣.]”라고 하였다.

15) 이가 …… 기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 〈성리 일(性理一)〉에 나온다.

16) 임천 오씨(臨川吳氏) : 오정(吳澄, 1249~1333)이다. 호는 초려(草廬)이고 자는 유허(幼清)이며, 무주(撫州) 송인(崇仁) 사람이다. 송(宋)나라가 망한 뒤 원(元)나라의 국자감 승(國子監丞)이 되었다.

17) 타고난 …… 기이다 : 《성리대전(性理大全)》 권31 〈성리 삼(性理三)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보인다.

18) 기가 …… 기이다 : 《울곡전서》 권10 〈서 이(書二) 답성호원(答成浩原)〉에 나온다. 그러나 대본의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객이 묻기를 “그렇다면 기질은 기질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니 기질성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발휘하고 운용하는 곳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니 품수(稟受)¹⁹⁾할 때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정자(程子 정이천)가 ‘천성인 유완(柔緩)과 강급(剛急)은 타고난 것이다.’²⁰⁾라는 가르침을 두었고, 율옹(栗翁 이이)은 ‘원초(元初)에 기질성을 타고났다.’는 설을 두었는가.”라고 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치우침과 온전함 및 선함과 악함은 비록 기질이 한 것이지만, 기질이 치우치거나 온전하거나 선하거나 악하면 성도 따라서 치우치거나 온전하거나 선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성과 뒤섞어 혼란하게 말하면 ‘기질성’이라고 말한다. 성의 치우침과 온전함 및 선함과 악함은 비록 발휘되어 운용되는 곳에서 볼 수 있지만, 치우치거나 온전하거나 선하거나 악한 것은 탁박(濁駁)하고 가지런하지 않은 기를 받았기 때문에 기를 주로 하여 근원을 궁구하여 말한다면 ‘원초에 품부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말미암아 말한다면 정호와 이이 두 선생의 가르침은 거의 막히는 곳이 없다.”라고 하였다.

객이 묻기를 “근래에 기질성을 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 그 기질에 따라 각각 다른 이를 받으니 이것이 기질성이 되고, 그중에서 단지(單指)²¹⁾하면 이것이 본연성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내가 일찍이 그러한 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그대의 말과 같다면 논자의 이 설은 결국 이치에 어긋나고 참을 어지럽히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여, 내가 대답하기를 “하늘이 물(物)을 낳음에 근본을 하나로 하게 하였는데, 만일 이 말과 같다면 이것은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이다. 본연지성은

“氣之惡則理亦惡，所惡非理也，乃氣也.”는 《율곡전서》 원문에는 “기가 온전하면 이도 온전한데 온전한 것은 이가 아니고 기이다.[氣之全則理亦全，而所全非理也，氣也.]”라고 되어 있다.

19) 품수(稟受) : 선천적으로 재능이나 성품을 타고나는 것이다.

20) 천성인 …… 것이다 : 정이천(程伊川)이 “지금 사람들이 ‘천성이 유완하고 강급한 것은 모두 이처럼 타고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품수한 것을 뜻한다.[今人言天性柔緩天性剛急，皆生來如此，此訓所稟受也.]”라고 한 말이 《성리대전》 권30 <성리 이(性理二) 기질지성(氣質之性)에 보인다.

21) 단지(單指) : 기질(氣質)은 제외하고 이(理)만을 가리켜 말한다는 뜻이다.

천하일원(天下一原)의 성이고 기질지성은 만물부제(萬物不齊)의 성인데, 일원의 성과 부제의 성을 똑같이 품수할 때에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근본을 둘로 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먼저 부제의 성을 받음을 생각하고 뒤에 일원의 성을 가리켰다. 따라서 이것은 기질성을 본(本)으로 삼고 본연성을 말(末)로 삼아 본말이 뒤바뀌고 천하의 일이 전도(顛倒)되어 창피한 것이니, 어느 곳인들 편안하겠는가.

이미 처음 태어날 때 다른 이[異理]의 성을 받았다면 이른바 성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물마다 각각 다를 것이다. 이미 다른 성이 어떻게 갑자기 형체를 바꾸고 삼시간에 태를 변하여 단지할 때에 사람들이 모두 같고 물들이 모두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 단지에서 본연성이라고 한 것은 고기에 붙은 흑과 소금에 절인 건어물에 불과하니, 어찌 족히 말할 거리가 되겠는가.

무릇 성을 말하면서 다른 이[異理]를 받은 것으로 주를 삼으면 대성(大聖), 군자(君子), 중인(中人), 하우(下愚)가 모두 처음 태어날 때 똑같이 정해져서 교유(矯糲) 잘못을 바로잡음)와 극치(克治)²²⁾의 공을 베풀 곳이 없다. 그렇다면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²³⁾’의 가르침, 맹자가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었다.²⁴⁾’는 뜻, 정자(程子)의 ‘기질을 이겨 본성을 회복한다.’는 가르침, 장자(張子 장재)의 ‘기질을 변화시킨다.²⁵⁾’ 설이 일체 파탄(破綻)을 면치 못할 것이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로써 궁구해보면 논자의 설이 이치에 어긋나고 참을 어지럽히는 잘못에서 벗어나려고 하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22) 극치(克治) :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릇된 생각을 이겨 내어 물리치는 것이다.

23) 극기복례(克己復禮) : 《논어》〈안연(顏淵)〉에 안연이 인(仁)을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극기복례를 할 수 있다면 온 천하 사람들이 그 인을 허여할 것이다.[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라고 하였다.

24) 맹자가 …… 일컬었다 : 맹자가 성선(性善)에 대해 말하였는데, 말했다 하면 반드시 요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었다.[孟子道性善，言必稱堯舜.]”라는 내용이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온다.

25) 기질을 변화시킨다 : 《장자전서(張子全書)》 권12 〈어록(語錄)〉에 “학문하는 큰 이익은 스스로 기질의 변화를 구하는 데 있다.[爲學大益，在自求變化氣質.]”라고 말한 내용이 보인다.

스스로 경계하는 열 가지 조목 [1908년]

自警十則【戊申】

면재(勉齋)²⁶⁾가 말하기를 “스스로 자책하여 말에 나타내는 것은 말하지 않으면서 간절히 마음에 자책하는 것만 못하다.²⁷⁾”라고 하였다. 일찍이 내가 이 말을 음미하고, 겨우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매번 문장을 짓고 안(案)을 짜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비웃었다. 그런데 지금 마음에 경계할 것을 인하여 갑자기 스스로 명(銘)을 지어 경계하는 뜻을 담은 것을 생각하였으니, 이는 탕왕(湯王)과 무왕(武王) 이후로 혹 이를 폐기한 적이 없다. 나는 생지(生知)²⁸⁾가 아니니 어떻게 일체의 법을 사용하겠는가. 마침내 지금 바로 힘써야 할 것과 몸소 미치지 못한 것 10칙을 써서 이로써 훗날에 진퇴의 실재를 증험할 것이다. 무신년(1908) 6월 그믐날에 기록한다.

큰 뜻 제1

大志 第一

지(志)라는 것은 성인(聖人)이 되는 시작이니,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²⁹⁾”라고 하였고, 뒤의 ‘법도에 넘지 않았다.³⁰⁾’라고 한 것은 다만 그 처음을 종결지은 것일 뿐이다.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뜻이 크면 재주도 크고 사업도 크다.³¹⁾”라고

26) 면재(勉齋) : 황간(黃幹, 1152~1221)의 호이다. 남송 복주(福州) 민현(閩縣) 사람이다. 자는 직경(直卿)이고,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주희(朱熹)의 문인이자 사위이다.

27) 스스로 …… 못하다 : 《논어집주대전(論語集註大全)》〈공야장(公冶長)〉 소주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28) 생지(生知) :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말한다. 《논어》〈술이(述而)〉

29) 나는 …… 두었다 : 《논어》〈위정(爲政)〉에 나온다.

30) 법도에 …… 않았다 : 《논어》〈위정〉에 나온다.

31) 뜻이 …… 크다 : 장재가 《정몽(正蒙)》〈지당(至當)〉에서 “뜻이 크면 재주도 크고 사업도 크기 때문에 클 수 있다고 한다.[志大則才大, 事業大, 故曰可大.]”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뜻이 크면서 대성(大成)하지 못한 자는 있어도 뜻이 크지 않으면서 대성한 자는 없다.

어찌 소장부(小丈夫)처럼 뜻을 세우겠는가. (소장부는) 문장을 과시하여 세상에 자랑하고, 공을 세우고 이름을 드러내어 교만함이 가득하다.

부지런히 힘쓰 제2

勤勵 第二

모든 일에 부지런하면 성공하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실패하니, 성인은 근심하고 부지런히 힘쓰며 두려워하여 이를 온전하게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게으르고 안일함에 빠져 이를 잃는다.

농사 짓는 자는 덩고 비가 올 때에도 몹시 힘들고 고생스럽게 일해야 곳간이 차고, 베 짜는 자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장(丈)과 필(疋)을 얻으며, 장인은 종일토록 부지런히 애써 노력해야 수레와 가마가 완성된다.

상인은 시세를 좇아 급히 달려가야 재화(貨)가 남으니, 선비의 부지런함은 성인이 되는 기초이다.

그러므로 천지에 간단(間斷)³²⁾이 있으면 만물이 없어지고, 학문에 간단이 있으면 온갖 행동이 무너진다.

《주역》에 말하기를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쉬지 않는다.”³³⁾고 하였다.

독서 제3

讀書 第三

도는 어디에 실려 있는가? 책에 실려 있으니 책을 마땅히 읽어야 한다. 책을

32) 간단(間斷) : 계속되던 것이 잠시 그치거나 끊어지는 것이다.

33) 하늘의 …… 않는다 : 《주역》 <건괘(乾卦) 상전(象傳)>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

읽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이를 사용하여 앞에 이르려고 하며, 앞에 이르는 것은 이를 행하고자 해서이다.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봉사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배에 선사(船師)가 없는 것과 같아서 실패하지 않는 자가 드물다.

주공(周公)은 아침에 백 편을 읽었고, 중니(仲尼)는 《주역》 책을 묶은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으니³⁴⁾ 무엇 때문인가? 이분들은 한가하고 편안할 때에 돌이켜 독서를 생각한 것이다.

《주역》에 말하기를 “군자가 이를 본받아 옛 성현들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아서 자신의 덕을 쌓는다.”³⁵⁾”라고 하였다.

효도와 우애 제4

孝友 第四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이에 능한 자가 드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순함에 방법이 있으니, 자기 몸에 돌이켜 보아 성실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순하지 못할 것이다.”³⁶⁾”라고 하였으니, 어찌 스스로 성실한지를 돌이켜 보지 않는단 말인가.

지성이 있으면 금석(金石)도 뚫을 수 있는데, 하물며 쉽게 감동하는 천속(天屬 천륜(天倫))에 있어서이겠는가.

《시경》에 이르기를 “날이 밝도록 잠을 못 이루고, 부모님 두 분을

34) 중니(仲尼)는 …… 끊어졌으니 : 공자가 만년에 《주역》 읽기를 좋아해서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위편삼절’의 유명한 이야기가 《사기(史記)》 권47 <공자세가(孔子世家)에 실려 있다.

35) 군자가 …… 쌓는다 : 《주역》 <대축(大畜) 상전(象傳)에 “하늘이 산속에 있는 것이 대축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옛 성현들의 말씀과 행실을 많이 알아서 자신의 덕을 쌓는다.[天在山中, 大畜, 君子以, 多識前言往行, 以畜其德.]”라고 한 데서 나왔다.

36) 아버지에게 …… 것이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벗에게 믿음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순하지 않으면 벗에게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에게 순함에 방법이 있으니, 자기 몸에 돌이켜 보아 성실하지 못하면 아버지에게 순하지 못할 것이다.[信乎朋友有道, 不順乎親, 不信乎朋友矣. 順乎親有道, 反諸身不誠, 不順乎親矣.]”라고 하였다.

생각하노라.³⁷⁾”고 하였으니, 이는 어버이에 대한 효가 아니겠는가. “형제가 화합하고 나서야 화락하고 또 즐길 수 있다.³⁸⁾”라고 하였으니, 이는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겠는가.

효는 어느 것이 큰가? 양지(養志)³⁹⁾가 크다.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선생에게 드시게 하는 것을 중니(仲尼 공자(孔子))는 효라고 하지 않으셨는데⁴⁰⁾, 하물며 이러한 것도 오히려 잘하지 못하는 자에 있어서이겠는가.

옛날에 유우(有虞 순(舜)임금)는 상(象)을 유비(有庖)에 봉해 주었으며⁴¹⁾, 우홍(牛弘)은 (죽은) 소를 포(脯)를 뜨라고 하고 (소를 죽인 동생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으니⁴²⁾, 하물며 정상적인 상황에 처한 자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허물을 고침 제5

改過 第五

최상은 허물이 없는 것이고 그다음은 같은 허물을 다시 범하지 않는 것이며⁴³⁾,

37) 날이 …… 생각하노라 : 대본에는 “夙夜匪懈, 以事二人”으로 되어 있는데 《시경》 원문에 이러한 말은 없고, 문맥을 살펴볼 때 《시경》〈소아(小雅) 소완(小宛)〉에 “날이 밝도록 잠을 못 이루고, 부모님 두 분을 생각하노라.[明發不寐, 有懷二人.]”라고 한 말에서 나왔으므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8) 《시경》〈소아 상체(常棣)〉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39) 양지(養志) : 부모를 봉양할 때에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쁘게 해드리는 효를 행한다는 말이다.

40) 그 …… 않으셨는데 : 《논어》〈위정(爲政)〉에 자하(子夏)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를 섬김에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 어려우니,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대신하고 술과 밥이 있으면 선생에게 드시게 하는 것을 일찍이 효라고 할 수 있겠는가.[色難, 有事弟子服其勞, 有酒食先生饌, 曾是以爲孝乎?]”라고 하였다.

41) 옛날에 …… 주었으며 : 《맹자》〈만장 상(萬章上)〉에 순임금이 이복동생인 상을 유비에 봉해 주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42) 우홍(牛弘)은 …… 않았으니 : 수(隋) 나라 이부 상서(吏部尙書) 우홍(牛弘)의 소를 동생 우필(牛弼)이 술김에 쏘아죽였는데, 우홍은 그저 포를 뜨라고 하고는 동생을 질책하지 않고 태연하게 책을 계속 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소학(小學)》〈선행(善行)〉에 실려 있다.

43) 같은 …… 것이며 : 《논어》〈옹야(雍也)〉에 공자가 “안회가 학문을 좋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노여움을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서 죽고 말았다.[有顏回者好學, 不遷怒, 不貳過, 不幸短命死矣.]”라고 하였다.

그다음은 허물을 고치면서 허물이 없고자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같은 허물을 다시 범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소인(小人)은 허물을 꾸민다.

허물을 고치는 것은 배우는 자의 일이니, 고치고 또 고치면 점점 허물이 없는 데까지 이를 것이지만,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허물을 꾸미는 데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⁴⁴⁾”고 하였다.

몸단속 제6

檢身 第六

마음은 안이고 몸은 밖이니, 안이 옳으면 어찌 몸을 함부로 하겠는가. 어찌 일찍이 맨 몸을 드러내고 팔을 걸어붙이는데도 마음이 사납지 않고, 다리 뻗고 앉거나 벌떡 드러눕는데도 마음이 거만하지 않은 자를 보았는가.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되니, 몸을 단속하지 않으면 마음이 바르지 않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행동이 법도를 잃으며, 행동이 법도를 잃으면 몸 또한 따라서 망한다. 증자(曾子)의 삼귀(三貴)⁴⁵⁾, 안씨(顔氏 안연(顔淵))의 사물(四勿)⁴⁶⁾, 중궁(仲弓)의 이여(二如)⁴⁷⁾는 모두 몸을 단속하는 데서 나왔다.

44) 《논어》〈학이(學而)〉에 나온다.

45) 증자(曾子)의 삼귀(三貴) : 증자가 《논어》〈태백(泰伯)〉에서 “군자가 귀중히 여기는 도가 세 가지 있으니, 용모를 움직일 때에는 사나움과 태만함을 멀리하며, 안색을 바르게 할 때에는 신실함을 가까이하며, 말을 할 때에는 비루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君子所貴乎道者三，動容貌，斯遠暴慢矣，正顏色，斯近信矣，出辭氣，斯遠鄙倍矣.]”라고 하였다.

46) 안씨(顔氏)의 사물(四勿) : 《논어》〈안연(顔淵)〉에서 공자가 안연에게 말하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마라.[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라고 하였다.

47) 중궁(仲弓)의 이여(二如) : 《논어》〈안연〉에, 중궁이 인을 물었는데 공자가 대답하기를 “문을 나갔을 때에는 큰 손님을 뵈는 듯이 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큰 제사를 받을 듯이 하며,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出門如見大賓，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於人.]”라고 하였다.

넓은 도량 제7

恢量 第七

성인은 천지와 서로 같으니, 일월(日月), 성신(星辰), 산악(山嶽), 하해(河海), 인물(人物), 조수(鳥獸)를 그 안에 수용하여 나아가도 밖이 없고 들어와도 안이 없다. 따라서 양으로 천지에 대해서 말하는 자는 천지를 작게 여기는 것이다.

한 번 얻고 한 번 잃으며, 한 번 험뜯고 한 번 칭찬하면 마음을 괴롭히거나 기세를 올리기도 하니, 슬프다!

겸손하게 낮춤 제8

謙卑 第八

《주역》에 “하늘의 도는 가득 차면 이지러지게 하고 겸손한 것을 더해주며,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고 겸손한 데로 흐르며,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치고 겸손한 것에 복을 주며,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한다.⁴⁸⁾”라고 하였으니, 심오하다! 사람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높은 체하는 자를 사람들은 낮게 여기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사람들은 높게 보니, 저 하찮은 재주를 가지고 매번 높고 대단한 체하는 자들은 매우 사려 깊지 못하다.

이 때문에 바다가 백천(百川)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그 낮음 때문이고, 산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은 그 높음 때문이다.

48) 하늘의 …… 좋아한다 : 《주역》〈겸괘(謙卦) 단전(象傳)〉에 나온다.

강하고 굳셈 제9

剛毅 第九

천근의 무거움을 지는 자는 강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굳세지 않으면 중도에 그친다.

인(仁)은 선비의 천근과도 같은 것이니 유약하고 해이한 자는 이를 어찌할 수 없을 뿐이다.

높이고 물리침 제10

尊攘 第十

《춘추(春秋)》의 대의는 수십 가지이지만 존양(尊攘)⁴⁹⁾이 크다.

지금 오랑캐가 가득 차서 우리가 장차 그들에게 배척될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만 그들의 제도를 따르지 않고 죽어야 할 뿐이니, 이것이 바로 물리치는 것이다.

기미년 생일 아침에 스스로 경계함

己未生朝自警

내가 어려서 조속하다고 일컬어지고 타고난 바탕이 실제로 허약하여 30세가 못 되어 초라하게 늙은 안색이 있었고, 작약(作噩)⁵⁰⁾의 다독(荼毒)에 정신이 이미 쇠약해지고 집서(執徐)⁵¹⁾의 거듭된 화(禍)에 기혈(氣血)도 다하였다. 게다가 10년 동안 가난과 병이 서로 계속 이어져 경학(經學)

49) 존양(尊攘) : 존중화 양이적(尊中華攘夷狄)의 준말로,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뜻이다.

50) 작약(作噩) : 고갑자(古甲子)에서, 십이지(十二支)의 열째인 유(酉)를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문맥을 살펴볼 때 기미년(1919) 이전인 기유년(1909)으로 보인다.

51) 집서(執徐) : 고갑자에서, 십이지의 다섯째인 진(辰)을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문맥을 살펴볼 때 병진년(1916)으로 보인다.

하는 사람으로서 견디지 못하였고, 금일의 패업(敗業)에 이르러 방황이 극에 달했다. 이 해(1919) 6월 6일은 내가 태어난 날인데, 부모를 그리워하는 슬픔으로 집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루 전에 화양(華陽)에 들어가 간옹(艮翁 전우(田愚))을 모시고 서론(緒論 강론(講論))을 들으면서 스스로 위로하였다.

다음 날 아침에 세수하고 빗질할 때에 갑자기 하나의 흰 물건이 오른쪽 귀밑머리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티끌로 생각하여 닦아냈는데 제거되지 않았고, 실오라기라고 생각하여 잡아당겼는데 나오지 않았으니, 분명히 이는 한 가닥 흰 모발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모발이 흰 것은 간혹 진짜가 아닌 것이 있으나, 오직 귀밑머리가 흰 것은 때가 되지 않으면 희지 않는 만큼 참으로 흰 것이라고 들었다. 아! 모발이 흰 것은 늙었다는 징후이고 늙었다는 것은 죽음의 징후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죽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다.

안연(顏淵)의 덕으로도 29세에 머리가 희었고, 문장가인 반악(潘岳, 247~300)은 32세에 백발이 되었는데, 내가 올해 36세이니 어찌 슬퍼하겠는가. 슬픈 점은 고인(古人)과 같은 덕과 문장이 없는 것이고 일찍 머리가 센 것은 고인과 같을 뿐이다. 게다가 생각건대 집안이 대대로 명이 짧아 고조와 증조 이후로 모두 61세를 채우지 못했고, 돌아가신 부친과 조부의 빼어남과 건장함으로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온갖 근심과 화를 다 겪은 잔약하고 용렬한 나 같은 자가 어찌 감히 수명이 늘어 덕을 쌓고 학문을 닦아 물려주신 몸을 이루어 조상을 욱보이는 일이 없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거둬 슬퍼할 만하다.

비록 그렇지만 맹자가 “요절하거나 장수함에 의심하지 않고 몸을 닦으면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명을 세우는 일이다.”⁵²⁾”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금일에 해야 할 일은 오직 힘써 성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와 복에 자신을 신칙하며, 조상의 뜻을 대대로 이어나가 불효를 면하는 데 있을 뿐이다. 곁에서 흰 것을 뽑아내라고 권하는 자가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듣지 않은 것에는 두 가지

52) 요절하거나 …… 일이다 :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나온다.

이유가 있으니, 공도(公道)⁵³⁾는 사람들이 억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이고, 이를 남겨 두어 거울을 잡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자료를 갖추려는 것이 하나이다.

선친의 휘일에 감회를 적어 스스로 경계하고 아울러 아이들에게 보임 【1934년 1월 21일】

先君諱日書感自警兼示兒輩【甲戌元月二十一日】

내가 올해 51세가 되었다. 비록 갑자기 바로 죽더라도 이미 요절은 면한 것이니, 다시 무엇을 한스러워하겠는가. 게다가 생각건대 부친과 조부 이상 4대는 장수한 분이 없고, 내 현재의 나이가 선친의 졸년(卒年)을 꼭 채웠다. 그러나 선친의 후실(厚實 너그럽고 성실함)로도 오히려 회갑(回甲)의 수를 누리지 못했으니, 잔약하고 용렬한 내가 어찌 감히 선친보다 오래 살기를 바라겠는가. 다만 선친께서 임종할 때 나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내 부친이 내 조부보다 11세 더 장수했고 지금 내 나이가 내 부친보다 8세가 더 많으니, 네가 나보다 10년 더 산다면 마땅히 60세가 넘을 것이고 네 아들이 또 마땅히 70세가 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이 매우 슬픈 것은 여러 대에 단명한 것을 아파하여 후대에 더 살기를 기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보면 또 어찌 조금 더 살아서 죽지 않고 10여 년쯤 연명하여 선친의 말을 증험하게 하고 싶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정력(精力)을 아끼고 기르며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도리에 감히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지금은 오랑캐가 명령을 내려 머리를 깎이게 되는 화가 가까이 닥쳐왔고, 백성들이 먹고살기 어려워 굶어 죽기 직전이니, 이는 바로 인인(仁人)과 지사(志士)가 이치와 몸, 이 둘을 온전히 할 수 없는 때이다.

53) 공도(公道) : 나이가 들어 머리가 희는 것을 말한다. 두목(杜牧)의 시에 “세간에 공정한 것은 오직 백발뿐, 귀인의 머리라고 해서 너그럽게 해 주지 않는다.[公道世間惟白髮, 貴人頭上不曾饒.]”라는 구절이 있다. 《번천시집(樊川詩集)》 권4 <송은자(送隱者)>

내가 비록 아무것도 이론 것이 없지만 30년 동안 독서를 한 사람이고, 너희들이 비록 힘써 농사짓고 집안일을 해나가면서 눈앞의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또한 유문(儒門)의 자손이다. 따라서 내가 만약 몸과 목숨을 아껴 오랑캐의 제도를 따르고, 너희들이 만약 굶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불의(不義)한 물건을 먹으며, 이것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몸을 보존하고 아끼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비록 60세, 70세까지 살아서 선친의 말을 증험하더라도 도리어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 더 낫고, 그러한 증험은 증험이 아닌 것과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맹자가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나는 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⁵⁴⁾”라고 이르지 않았는가. 이제 오랑캐의 제도에서 벗어나고 더러운 물건을 물리쳐 북쪽 창문 아래서 늙어 죽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生)을 버리고 의(義)를 취해야 한다. 이것이 또 선친이 평소 나에게 가르쳐준 뜻이니, 나와 너희들이 마땅히 소리 없는 가운데서 듣고 분수에 넘는 것을 깊이 살피야 한다. 진실로 그렇게 하는 자는 거의 후대에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이고 그 장수하지 못한 수명은 선친이 바라던 바와 같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험하지 못한 것도 증험한 것과 같을 것이니, 어찌 감히 힘써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오늘은 선친께서 돌아가신 날이기에 감회가 있어 이를 쓰노라.

스승의 초상 때에 동문들에게 두루 고함【1922년】

師喪時輪告同門【壬戌】

무릇 사람으로서 가르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니, 나를 도로써 가르쳐 사람을 만들어 준 자가 어찌 스승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먹고 살게 해 준 군부(君父)와 똑같이 한 몸으로 여겨 치상(致喪), 방상(方

54) 두 가지를 …… 취하겠다 : 《맹자》〈고자 상〉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 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다면, 나는 고기를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하겠다.[魚我所欲也, 熊掌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魚而取熊掌者也.]”라고 하였다.

喪), 심상(心喪)을 3년 동안 하니, 모두 예서(禮書)에 드러나 있습니다.⁵⁵⁾ 그렇다면 스승의 3년 상은 바로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세풍(世風)에는 고금의 다름이 있고, 예속(禮俗)에는 통변(通變)의 마땅함이 있으니, 선현이 이에 정을 따르고 능력을 헤아리는 논의를 둔 것은 실정에 맞지 않게 억지로 따르는 것이 도리어 예를 범하여 죄를 짓는 데 이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격을 낮추어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사문(斯文)이 불행하여 우리 선생(先生 간재)께서 갑자기 후학을 버리셨으니, 스승을 잃은 아픔이 어찌 그 다함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동문 중에 바꿀 수 없는 정전(正典)을 똑같이 따를 수 없어 혹 어쩔 수 없이 격을 낮추어 나아가게 한 것을 따르는 자가 만일 3년 상을 치르되 예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실로 죄줄 만하고, 이미 3년 상을 하지 않으면서 다시 잘못이 있다면 더욱 죄줄 만합니다. 이는 바로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서로 힘써 노력해야 하는데 두렵게도 예를 무너뜨리고 스승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가마(加麻)⁵⁶⁾에 이름을 기록하고도 나가서는 저잣거리에서 술과 고기를 먹는 자가 간혹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러한 일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이와 같으니 장차 다가올 미래도 알 수 있고, 밝은 데서도 이미 그러한데 어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짓을 논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속이고 스승을 속이며,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여 조롱과 비웃음을 사고 명교(名教)를 무너뜨림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고인(古人)이 이르기를 “사군자가 한번 실수하면 나머지는 불만한 것이 없다.”

55) 치상(致喪) …… 있습니다.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부모를 섬기는 데는 숨기는 일은 있어도 범하는 일이 없으며, 좌우에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방소가 없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음에 이르며, 3년 상을 지극히 한다. 군주를 섬기되 범하는 일은 있어도 숨기는 일은 없으며, 좌우로 나아가 봉양하되 일정한 방소가 있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음에 이르며, 상을 부모의 3년 상에 준한다. 스승을 섬기되 범하는 일도 없고 숨기는 일도 없으며, 좌우에 나아가 모시는데 일정한 방소가 없으며, 부지런히 일하여 죽음에 이르며, 심상(心喪) 3년을 한다. [事親有隱而無犯,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致喪三年. 事君有犯而無隱, 左右就養有方, 服勤至死, 方喪三年. 事師無犯無隱, 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 心喪三年.]”고 나온다.

56) 가마(加麻) : 문인(門人)이 스승의 상(喪)에 심상(心喪)을 입는 표시로 겉옷에 삼베 조각을 붙이는 것인데, 여기서는 심상을 입는 사람의 명단을 기록하는 가마록(加麻錄)을 가리킨다.

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처세할 때 한번 잘못하면 만사가 와해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생각이 이러한 데까지 이르니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이에 첨좌(僉座 여러분)에게 두루 고하니, 오직 깊이 살펴 실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힘쓰기를 바랍니다. 신명(身名)을 무너뜨리고 인기(人紀)⁵⁷⁾를 어기는 지경에 이름이 없으면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우연히 기록하다

偶書

내가 매번 일에 응하여 마땅함을 잃으면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이 여러 날 동안 가시지 않았는데, 이는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병을 얻는 것이니, 어째서인가. 이미 처음에 잘 살피지 못한 병이 있고, 뒤에 다시 유소(有所)의 병⁵⁸⁾이 있기 때문이다. 무릇 일에 응할 때에는 반드시 정밀하게 살피서 착오가 없는 것이 가장 좋고, 일에 마땅함을 잃었을지라도 경계하여 누우치기만 하고 마음에 오랫동안 남겨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그다음이 된다.【병오년(1906)】

부지런함은 집안을 일으키는 복록(福祿)이고 게으름은 몸을 망치는 짐독(鳩毒)⁵⁹⁾이다.

공경하는 마음을 한번 세우면 온갖 사특함이 물러나 순종하고, 나태한 마음이 한번 싹트면 온갖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공경과 나태의 사이가 흥망의 기틀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가(齊家)의 어려움이 치국(治國)보다 심하니, 치국자는 교화로 인도하여 행해지지 않으면 형벌을 두어

57) 인기(人紀) :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58) 유소(有所)의 병 : 《대학장구(大學章句)》 전(傳) 7장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데 방해하는 네 가지를 말하였는데,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身有所忿懣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고 하였다.

59) 짐독(鳩毒) : 짐새의 깃에 있는 맹독(猛毒)이다.

그 부족함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는 교화가 행해지지 않아서 형벌을 쓰고자 하면 은애(恩愛)가 먼저 떠나니, 은애가 이미 떠나면 어떻게 제가가 있겠는가. 이 때문에 제가의 어려움이 치국보다 심하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운행(運行)은 강건하여 쉬지 않고 능히 만물을 내지만 두루 하지 않음이 없으며, 성인의 마음은 부지런하고 힘써 행하여 나태하지 않고 능히 만사에 응하지만 빠뜨리는 것이 없으니, 사람은 능히 하늘을 본받아 하늘과 하나가 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이라고 이를 수 있다.

남과 사귄 때에 나에게 있는 도리를 다했는데도 맞지 않으면 또한 그만둘 뿐이다. 그러나 반드시 회호(回互)⁶⁰⁾하여 남들이 좋게 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이는 자기를 굽혀서 남을 따르는 것이다. 맹자가 “하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⁶¹⁾”라고 말한 것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무신년(1908)】

상(喪)을 틈타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에 대해서는 송(宋)나라 사마온공(司馬溫公)⁶²⁾이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⁶³⁾라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근세에 상기(喪紀 상례의 기율)이 완전히 무너져 상이 있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 자는 열에 한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편안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때에 미쳐 권도(權道)를 행하라고 장려한다. 그런데도 혹 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예를 지키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때를 잃어 오활(迂闊)하다고 비웃으니, 이러한 일이 어찌 우리나라 초기에 정법(定法)이 없어서 그러한 것이겠는가. 다만 군상(君相)이 일찍이 진실한 마음으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뿐이다.

60) 회호(回互) : 잘못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변명하는 일이다.

61) 하고자 …… 한다 :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보인다.

62) 사마온공(司馬溫公) : 중국 북송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이다. 자는 군실(君實), 호는 우부(迂夫), 우수(迂叟)이고 사마온공이라고도 한다.

63) 나라에 …… 있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는 자는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其居喪,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라고 하였다. 《소학(小學)》〈가언(嘉言)〉

역법(曆法)에 윤달을 두지 않으면 한서(寒暑)가 계절에 맞지 않고 세공(歲功)⁶⁴⁾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는 제요(帝堯)가 “아! 너희 희씨와 화씨야.⁶⁵⁾”라고 말한 이유이다. 지금 이른바 양력(陽曆)은 윤달을 두지 않아서 1년의 윤달이 모두 12개월 안으로 나누어 들어간다. 그러므로 1년이 꼭 366일이 되고 절기도 어긋남이 없다. 그러나 제요의 역법에서 12개월로 나눈 것은 해가 29일 반강(半强 1일의 3/4)을 운행하여 달과 만나서 삭(朔)이 된다. 그래서 한 번 합삭(合朔)⁶⁶⁾하는 것을 ‘1월’이라 하고, 두 번 합삭하는 것을 ‘2월’이라고 이른다. 그런데 저들의 양력은 합삭을 취하지 않아 해는 해이고 달은 달인데도 오히려 억지로 이름하여 ‘1월’, ‘2월’이라고 하니 매우 부당하다.

저들은 우리의 역법이 달[月]의 삭망(朔望)을 취하여 12개월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음력(陽曆)이라 하고, 저들의 역법은 다만 태양[日]으로 수를 계산했기 때문에 이를 양력(陽曆)이라 한다. 그러나 이는 천지의 도는 음양이 서로 의지해야 생성할 수 있고 양 단독으로는 만물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을 매우 알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저들은 우리나라를 병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양이 음을 겸한다는 뜻을 취하여 명명하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서 그러한 칭호를 좇는다. 심지어 부첩(簿牒)⁶⁷⁾과 서사(書詞 편지)에 저들의 연월일(年月日)을 사용하고 그 위에 우리나라의 연호(年號)를 더하니 매우 미혹한 일이다.

《논어》에서 ‘인(仁)자(字)가 오로지 성리(性理)를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64) 세공(歲功) : 한 해의 농사나 수확이다.

65) 아! …… 화씨야 : 《서경》〈우서(虞書) 요전(堯典)〉에서 제요(帝堯)가 말하기를 “아! 너희 희씨와 화씨야. 1년은 366일이니, 윤달을 사용해야 사시를 정하여 해를 이룬다.[咨! 汝羲暨和. 曆三百有六旬有六日, 以閏月, 定四時成歲.]”라고 하였다.

66) 합삭(合朔) : 해와 달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합삭은 대략 매달 음력 초하루 전후에 일어난다. 《후한서(後漢書)》〈율력지(律曆志)〉

67) 부첩(簿牒) : 관아의 장부와 문서이다.

위【행한다.】인(爲仁)⁶⁸⁾, 성인(成仁)⁶⁹⁾, 이인(利仁)⁷⁰⁾과 같은 인이 이러한 경우이니, 이는 본래 있는[自在] 것으로인위(人爲)와는 관계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인심(人心)이 성취한 바의 덕을 가리킨 것이 있는데, 선의인(鮮矣仁)⁷¹⁾, 삼인(三仁)⁷²⁾, 언득인(焉得仁)⁷³⁾, 미지기인(未知其仁)⁷⁴⁾과 같은 인이 이러한 경우이니, 이것은 한다[爲之], 이룬다[成之], 편안히 여긴다[安之], 이롭게 여긴다[利之]는 공을 아울러 모두 포함하여 말한 것이다. 이 두 항목의 뜻은 명백할 뿐만 아니고, 《논어》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 가운데 허다한 ‘인’자를 다만 두 가지 뜻에서 간파한다면 바로 많은 일을 줄일 수 있다.

성리의 인은 마음에 갖춰진 이(理)이니, 주자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⁷⁵⁾”라고 주석(註釋)한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성덕(成德)의 인은

68) 《논어》〈학이(學而)〉에서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군자는 근본을 힘쓰니, 근본이 확립되면 도가 발생한다. 효와 제라는 것은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君子務本，本立而道生，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라고 하였다.

69) 성인(成仁) : 《논어》〈위령공(衛靈公)〉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지사와 인인은 살기를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志士仁人，無求生以害仁，有殺身以成仁.]”라고 하였다.

70) 이인(利仁) : 《논어》〈이인(里仁)〉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인자는 인을 편안히 여기고 지자는 인을 이롭게 여긴다.[仁者安仁，知者利仁.]”라고 하였다.

71) 선의인(鮮矣仁) : “말을 좋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하는 사람은 인한 이가 드물다.[巧言令色，鮮矣仁.]”라고 공자가 《논어》〈학이〉에서 말하였다.

72) 삼인(三仁) : 《논어》〈미자(微子)〉에 “미자는 떠나가고, 기자는 종이 되고, 비간은 간하다가 죽었다. 공자가 ‘은나라에 세 인자가 있었다.’라고 하였다.[微子去之，箕子爲之奴，比干諫而死。孔子曰：‘殷有三仁焉。’]”라는 말이 나온다.

73) 언득인(焉得仁)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자장(子張)이 초(楚)나라 영윤(令尹)을 지낸 자문(子文)과 제(齊)나라 대부 진문자(陳文子)에 대해서 공자에게 묻자 “모르겠다. 어찌 인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未知，焉得仁?]”라고 답한 내용이 나온다.

74) 미지기인(未知其仁) : 《논어》〈공야장〉에 맹무백(孟武伯)이 공자에게 자로(子路)가 인하냐고 묻자 “유는 천승의 나라에서 그 군정을 다스리게 할 수는 있거니와, 그가 인한지는 알지 못하겠다.[由也，千乘之國，可使治其賦也，不知其仁也.]”라고 답한 내용이 나온다.

75) 마음의 …… 이치이다 : 《맹자집주》〈양혜왕 상(梁惠王上)〉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인은 마음의 덕이고 사랑의 이치이다.[仁者，心之德，愛之理.]”고 하였다.

마음에 현존하는 이이니, 주자가 “사욕이 없어 그 덕이 있는 것이다.⁷⁶⁾”라고 말한 것과 “이치에 합당하고 사심이 없다.⁷⁷⁾”라고 주석한 등속이 이러한 경우이다.

어떤 이가 의심하여 “인은 오성(五性)⁷⁸⁾의 일원(一原)이고 형이상자(形而上者)⁷⁹⁾인데, 만약 성덕의 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가 마음에 현존하는 것으로 형이하(形而下)에 속하는 것이니, 어찌 온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로써 덕을 주관하여 그 성인(成仁)의 공을 논하면 진실로 마음이 능히 하는 것이니, 형이하자에 속할 수 있고, 만약 이로써 인을 주관하여 그 현존의 이(理)를 논하면 바로 이것은 마음에 갖춰진 본성이니, 저절로 마땅히 형이상에 속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논어집주》의 ‘도체는 무위(無爲)하다.⁸⁰⁾’라는 것은 이기(理氣)의 계분(界分 경계(境界))에 나아가 도체의 본색(本色)을 말한 것이고, 《주자어류(朱子語類)》의 ‘이(理)에 동정(動靜)이 있다.⁸¹⁾’라는 것은 이기가 유행(流行)하는데 나아가 이가 기(氣)의 주재(主宰)가 됨을 말한 것이다. 비록 ‘무위’라고 했지만 주재하지 않는 주재가 되는 데 해가 되지 않고, ‘동정’이라 했지만 무위의 본체는 진실로 본래 있는 것이다.【갑인년(1914)】

76) 사욕이 …… 것이다 : 《논어집주》〈용야(雍也)〉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인은 마음의 덕이니, 마음이 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욕이 없어 그 덕이 있는 것이다.[仁者心之德, 心不違仁者, 無私欲而有其德也.]”라고 하였다.

77) 이치에 …… 없다 : 《논어집주》〈공야장〉에서 주자가 스승에게 “이치에 합당하고 사심이 없으면 인이다.[當理而無私心則仁矣.]”라고 들은 말을 가리킨다.

78) 오성(五性) : 오상(五常)으로,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말한다.

79) 형이상자(形而上者) : 《주역》〈계사 상(繫辭上)〉에 “형이상자를 도라 하고 형이하자를 기라 한다.[形而上者謂之道, 形而下者謂之器.]”라고 하였다.

80) 도체는 무위하다 : 《논어집주》〈위령공(衛靈公)〉에서 주자가 “인심은 지각이 있고, 도체는 무위하다.[人心有覺, 而道體無爲.]”라고 하였다.

81) 동정(動靜)이 있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4 <태극도(太極圖)〉에 “양이 동하고 음이 정한 것은 태극의 동정이 아니고 단지 이에 동정이 있는 것이다.[陽動陰靜, 非太極動靜, 只是理有動靜.]”라고 하였다.

‘사람이 요순(堯舜)이 아니니, 어찌 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⁸²⁾[人非堯舜, 豈能盡善]라는 8글자는, 이로써 남을 용서하면 괜찮지만, 이로써 스스로를 용서하면 몸을 해치는 짐독(鴆毒)⁸³⁾이 될 것이다.【병진년(1916)】

실수한 것이 조금 무겁더라도 무심(無心)에서 나왔다면 그 허물이 되는 데 해롭지 않고, 그 실수가 비록 가벼울지라도 유심(有心)에서 나왔다면 악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부유함은 덕을 쌓는 것보다 부유한 것이 없고, 가난함은 들은 것이 적은 것보다 가난한 것이 없으며, 즐거움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보다 즐거운 것이 없고, 슬픔은 자신을 해치는 것보다 슬픈 것이 없다.

죄를 꾸짖어 자책하는 것이 비록 없을 수 없지만, 만일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는 마음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 번 넘어져서 천 리 길을 그만두고, 점으로 오염되었다고 하여 입는 옷 전부를 버리는 것이니, 세상에 이와 같은 자가 많은 것은 잘못이다.

우리나라의 선현(先賢) 중에 학문을 논설하여 사람들에게 감발(感發) 감동하여 분발(奮發)하는 취지를 있게 한 자로는 퇴계(退溪 이황(李滉))만한 자가 없고, 성리(性理)를 환히 밝혀서 사람들에게 원위(源委 본말(本末))의 자세함을 알게 한 자로는 울곡(栗谷 이이(李珣))만한 자가 없다.

내 입장에서 구산옹(臼山翁)⁸⁴⁾을 보면, 명리(名理)를 분석한 것은 진실로 확실히 아는 견문에서 나왔고, 반드시 치심(治心)과 성기(省己)에 나아가 자세하게 체득하고 알 아내어 학자들에게 의거하여 착수할 곳이 있게 하였으니, 퇴계의 논학(論學)과 울곡의 명리(明理)를 합하고 하나로 하여 소유한 자는 구옹(臼翁 간재)일 것이다.

궁핍할수록 더욱더 그 뜻을 굳건히 해야 하고, 가난할수록 더욱더 그 청렴을 지켜야 하며, 세상이 혼란할수록 더욱더 그 절개를 힘써야 한다.

치국(治國)에 하나의 ‘인(仁)’자가 부족하면 나라가 망하고, 치가(治家)에

82) 사람이 …… 있겠는가 : 《이태백문집(李太白文集)》 권25 <표(表) 여한형주서(與韓荊州書)>에는 “사람이 요순이 아니니, 누가 선을 다할 수 있겠는가.[人非堯舜, 誰能盡善.]”라고 나온다.

83) 짐독(鴆毒) : 짐새의 깃에 있는 맹독(猛毒)을 말한다.

84) 구산옹(臼山翁) : 간재(良齋) 전우(田愚, 1841~1922)의 여러 가지 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의 ‘예(禮)’자가 부족하면 집안이 망하며, 치신(治身)에 하나의 ‘경(敬)’자가 부족하면 몸이 죽게 된다.

누더기를 입고 굶주리는 것은 슬퍼할 만한 것이 아니고, 슬퍼할 만한 것은 아버지를 생전에 봉양할 때 자미(滋味)⁸⁵⁾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장례를 모실 때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다. 자로(子路)의 탄식⁸⁶⁾은 실제로 자신이 직접 겪어온 것에서 나왔고, 공자의 기쁨을 다하고⁸⁷⁾ 재산에 맞게 하라⁸⁸⁾는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분수에 따라 정성을 다하고 형편에 따라 이치에 맞게 한 것이니, 입언(立言)하여 사람을 가르치는 성인의 법은 진실로 마땅하다. 슬퍼하는 정과 같은 것은 비록 가령 성인이 그러한 상황에 당했더라도, 어찌 이러한 감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는 마음을 기르고 홀로 즐거운 곳을 찾는다.”⁸⁹⁾”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비록 두려움, 근심, 슬픔이 있을지라도 이로써 그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되고, 마땅히 도의(道義)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말이 도에 어긋나고 행실이 의에 어그러지는 것을 아는 때에 이르면, 바야흐로 장차 닦우치고 부끄러워할 것이니, 이른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또 어디에서 볼 수 있겠는가. “잘못을 하고 이를 제대로 알면 곧 기뻐할 수 있고, 잘못을 알고 이를 잘 고치면 곧 즐거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겠다.

85) 자미(滋味) :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다.

86) 자로(子路)의 탄식 : 자로가 “슬프다, 가난이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봉양할 수 없고, 돌아가신 뒤에는 예를 행할 수 없구나.[傷哉, 貧也! 生無以爲養, 死無以爲禮.]”라고 말한 내용이 《예기(禮記)》〈단궁 하(檀弓下)〉에 나온다.

87) 기쁨을 다하고 : 자로가 가난하여 효도를 제대로 못한다고 탄식하자, 공자가 “콩죽을 끓여 먹고 물을 마실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다한다면, 이것이 바로 효이다.[啜菽飲水, 盡其歡, 斯之謂孝.]”라고 한 내용이 《예기》〈단궁 하〉에 나온다.

88) 재산에 …… 하라 : 《예기》〈단궁 하〉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머리와 발의 형체만 엮습하여 바로 장사지내며, 덧널이 없더라도 자기의 재산에 맞게 하면 이것을 예라고 한다.[斂首足形, 還葬而無槨, 稱其財, 斯謂之禮.]”라고 하였다.

89) 항상 …… 찾는다 : 《명유학안(明儒學案)》 권61 〈동림학안 사(東林學案四)〉에 “출세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고 곤궁하게 사는 것을 수처로 여기지 않으며, 항상 희신을 기르고 홀로 즐거운 곳을 찾는다.[不榮通, 不醜窮, 常養喜神, 獨尋樂處.]”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사군자(士君子)의 훌륭한 명성은 평소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쌓은 뒤에 얻지만, 간혹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생각하고 성찰하지 않은 때에 잃기도 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외면의 허물과 내면의 사특함을 지극히 치밀하게 성찰할 때에, 이 마음이 두려워하고 위태로워 바늘방석과 바닥에 물이 새는 배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구속되어 편치 않은 병이 있음을 아는 것 같은 것과 어지럽고 해이해져 뉘우치고 한탄해도 망각(罔覺)해버리는 것 가운데, 후자와 전자를 바꾼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겠는가. 하물며 이를 말미암아 익힌다면 결국 광반(廣胖)의 즐거움⁹⁰⁾이 있겠는가.

부유하고 영달하면서 의(義)를 행하는 것은 물길을 따라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아 일은 절반만 하지만 공은 배가 되고, 빈궁하면서 의를 행하는 것은 물길을 거슬러 배를 운행하는 것과 같아 부지런히 노력은 하지만 얻는 것이 적다. 행동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이 밝지 못하기 때문이고, 아는 것이 밝지 못한 것은 평소에 강(講)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해서인가. 그 사람이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어찌하여 그 사람에게 직접 고하지 않는가. 이것은 충실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라면, 어찌하여 안으로 마음을 성찰하여 반드시 입으로 말하지 않는가. 이것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면 상대방과 나의 품평(品評)은 저절로 공론(公論)이 있어 나의 말이 우열(優劣)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어리석은 것이다. 따라서 한 가지 일을 하여 여러 악이 갖추어지는 것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악은 남의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갖춰진 것이 없음은 진실로 마땅하다. 다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언행에 과오(過誤)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게다가 앞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 세도

90) 광반(廣胖)의 즐거움 : 《대학장구》 전 6장에 “부는 집을 윤택하게 하고, 덕은 몸을 윤택하게 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퍼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히 해야 한다.[富潤屋, 德潤身, 心廣體胖. 故君子必誠其意.]”라는 내용이 나온다.

(世道)에 해를 끼치면 어쩔 수 없이 이를 말해야 한다.

부유하면서 날마다 그 어버이에게 삼생(三牲)⁹¹⁾을 받들어 올리는 자가 그 뜻을 잘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가난하면서 직접 자미(滋味)⁹²⁾를 극진히 하는 자가 뜻을 잘 봉양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 않다.

동일한 명(名)이지만 명리(名利)와 명절(名節)의 차이가 있다. 인(仁)을 빌리고 의(義)를 꾸미며, 진심을 숨기고 명예를 구하여 남이 알아주기를 구하는 것은 명리이니,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千乘)의 나라를 양보할 수 있다⁹³⁾’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충을 수립하고 효도를 실천하며, 자신을 선하게 하고 덕을 세워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것은 명절이니, ‘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⁹⁴⁾’는 것이 이러한 경우이다.

매사에 제1등의 도리를 구하여 거기에 처하고자 하면, 제1등을 비록 반드시 얻지는 못할지라도 그다음이 되는 것을 잃지 않는다. 만일 ‘내가 어찌 감히 제1등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선 제2등을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한다면 제2등을 결코 얻을 수 없어 제일 낮은 등급을 얻게 될 것이니, 뜻을 세울 때 높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곽거(郭巨)가 아들을 묻으려고 한 일⁹⁵⁾에 대해 방손지(方遜志)⁹⁶⁾는

91) 삼생(三牲) : 세 가지의 희생으로, 소, 양, 돼지를 말한다.

92) 자미(滋味) : 맛이 좋고 영양분이 많은 음식이다.

93) 명예를 …… 있다 : 《맹자》〈진심 하(盡心下)〉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승의 나라를 양보할 수 있거니와, 만일 그러할 만한 사람이 못 되면 한 그릇의 밥과 국에도 얼굴빛에 드러난다.[好名之人, 能讓千乘之國, 苟非其人, 簞食豆羹, 見於色.]”라고 하였다.

94) 종신토록 …… 싫어한다 : 《논어》〈위령공〉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종신토록 이름이 일컬어지지 않는 것을 싫어한다.[君子疾沒世而名不稱焉]”라고 하였다.

95) 곽거(郭巨)가 …… 일 : 후한(後漢) 때의 효자 곽거가 가난한 형편에 노모를 극진히 잘 봉양하였는데, 노모가 항상 세 살 된 손자에게 자기 밥을 덜어서 먹였다. 그러자 곽거와 아내가 노모 봉양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아이를 묻으려 하였는데, 갑자기 땅속에서 황금 가득한 가마솥(金釜)이 나왔다. 그래서 아이 묻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와서 노모를 잘 봉양하고 아이도 잘 키웠다고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 권411.

96) 방손지(方遜志) : 손지는 방효孺(方孝孺, 1357~1402)의 호이다. 중국 명나라 초기의 학자이다. 자는 희직(希直), 희고(希古)이고, 청렴하고 강직하여 사람들은 그를 방정학(方正學)이라고 불렀다.

“부모를 불의에 빠뜨렸으니⁹⁷⁾ 죄가 막대하다.”라고 말하였다. 내 생각에 곽거는 참으로 죄가 있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 죄를 주고 그의 마음에 대해서는 죄를 주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곽거가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다만 아버지가 있는 줄만 알고 자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아울러 하늘을 감동시켜 명예를 구하려는 뜻이 없었으니, 그의 마음에 어찌 일찍이 죄가 있었겠는가.

그가 도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이렇게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였으니, 이에 행적에는 죄가 있는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仁)을 알 수 있다.⁹⁸⁾”라고 하였고, 또 “인을 좋아하기만 하고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어리석게 된다.”⁹⁹⁾라고 하였으니, 이는 곽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실상 없는 이름은 하늘이 반드시 이를 싫어하여 반드시 파탄(破綻)내는 날이 있을 것이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면 하늘이 반드시 원통하게 여겨 반드시 씻고 결백하게 해 주는 때가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뒤에야 효자(孝子)가 되며, 나라가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뒤에야 충신(忠臣)이 되며, 지아비가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뒤에야 열녀(烈女)가 되며, 도가 있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한 뒤에야 진유(眞儒)가 된다.

선비가 쇠락한 시대에 태어나 도의(道義)를 배우고 싶다면, 마땅히 먼저 참는 것과 굶는 것을 배워야 한다.

허물이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알면 이는 기뻐할 만하고, 허물이 있지만 스스로 아는 것도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길 만하다. 불행하게도 슬퍼할 만한 것은 허물이 있는데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일 것이다. 다른 사람이

97) 부모를 …… 빠뜨렸으니 : 《맹자집주》 <이루 상(離婁上)>에 조씨(趙氏)가 말하기를 “예에 따르면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부모의 뜻에 아첨하고 무조건 따라서 부모를 불의에 빠뜨리는 것이 첫째이다.[於禮有不孝者三事，謂阿意曲從，陷親不義一也.]”라고 하였다.

98) 허물을 …… 있다 : 《논어》 <이인(里仁)>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허물은 각각 그 유대로 하는 것이니,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인을 알 수 있다.[人之過也，各於其黨，觀過斯知仁矣.]”라고 하였다.

99) 인을 …… 된다 : 《논어》 <양화(陽貨)>에 나온다.

알고 있는 허물은 꾸짖음을 받아 고칠 수 있고, 스스로 알고 있는 허물은 마음속으로 자책하여 고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허물은 영원히 고칠 수 있는 날이 없을 것이다.

한때의 분발은 처음에는 쉽지만 중도에 그만두지 않는 것이 어렵고,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는 쉽지만 평생 잘 마치기는 어렵다. 자질이 좋아 선을 행하기는 쉽지만 허물을 고쳐 의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허물을 고쳐 의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만 기질을 변화시켜 덕을 이루는 것이 어렵다.

성인은 천리에 합하고 현자는 천리를 받들며, 군자는 천리를 두려워하고 학자는 천리를 찾으며, 중인은 천리에 어둡고 소인은 천리를 어긴다.

벗 한 명이 나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변화가 날로 심해지니 나는 다만 굶어 죽는 것이 두렵네.”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선비는 마땅히 이러한 세상에서 다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야 하니, 굶어 죽지 않는다면 그 욕됨이 굶어 죽는 것보다 심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 벗이 매우 옳다고 하였다.

경진년 생일 아침에 감회를 기록함

庚辰生朝識感

올해 경진년(1940)은 내 나이가 57세이고, 오늘 아침 6월 6일은 바로 내 생일이다. 예전 20여세 때에 선친이 관상쟁이를 불러서 내 관상을 보게 하였는데, 관상쟁이가 나의 평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고 끝에 “수(壽)가 57세에 불과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선친이 기뻐하지 않고 그만두었다. 올해가 바로 그때에 해당되고 해가 또 장차 반이 되어가는데, 관상쟁이의 말이 참으로 증험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심(心)은 신(身)의 주인이니 심신이 모두 오래 산 뒤에야 장수라 이를 수 있고, 신은 죽었지만 심이 살아서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하여 이름이 오랫동안 전해질 수

있다면 역시 장수이다. 반면에 심이 죽고 신이 산다면 비록 백년 동안 오래 살지라도 다만 어리석은 자일 뿐이니, 장수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무엇을 심에 생사(生死)가 있다고 이르는가? 심이 스스로 능히 스스로 주관하여 성리(性理)와 예법(禮法)을 따르는 것을 생이라 이르고, 스스로 주관하지 못하여 기의 욕심과 습염(習染)¹⁰⁰에 부림을 당하는 것을 사라 이른다.

나는 자질이 아름답지 않고 학문도 거칠고 잘못되었으며, 마음이 스스로 단속하지 못해서 허물과 악이 날로 쌓이고, 마음이 스스로 제재(制裁)하지 못하여 언행이 더욱 어그러지며, 마음이 근심과 걱정애 매여서 질병이 침범하고, 마음이 게으름에 빠져서 육신의 추위와 굶주림이 심하며, 마음이 남을 용납하지 않아서 원망과 미움이 눈 앞에 가득하고, 마음에 덕화(德化)가 부족하여 처자가 명령을 어겨서 마음속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으니, 과연 온전한 죽음에 이르지 않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시변(時變)이 날로 극심하여 닥친 상황을 헤아리기 어려우니, 또한 앞으로 수립할 것도 고인(古人)이 성취(成取)한 것과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 삶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마음이 산 뒤에 기뻐할 만하고, 죽음은 내가 싫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마음이 죽은 뒤에 싫어할 만하다. 그러니 내 마음이 만일 지난날을 징계하여 후일을 삼가되 탁월하게 일체의 기의 욕심과 습염을 주관하여 그 사이를 간섭하는 일이 없게 하고, 단호하게 오직 성리와 예법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표준으로 삼는다면, 일일귀인(一日歸仁)¹⁰¹과 조문석가(朝聞夕可)¹⁰²의 성인의 말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관상쟁이로 하여금 죽을 날을 증험하는 날을 말하게 할지라도 살아있는 해와 같을 것이다.

이는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선친이 평소에 바라던

100 습염(習染) : 습관이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깊이 배는 것을 말한다.

101 일일귀인(一日歸仁) : 《논어》〈안연(顔淵)〉에서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을 행하는 것이니, 하루라도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여하는 것이다.[克己復禮爲仁，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02 조문석가(朝聞夕可) : 《논어》〈이인(里仁)〉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夕死可矣.]”라고 하였다.

것이니, 혼령이 저승에서 감동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흑시라도 이와 반대가 된다면, 비록 수가 모기(耄期)¹⁰³에까지 올라서 관상쟁이로 하여금 증험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결국 마음이 죽는 데에 도움이 없을 것이니, 어찌 족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자기설 [1919년]

自欺說【己未】

무릇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데도 이와 반대로 자신에게 베푸는 것으로는 ‘자신을 꾸짖음[自責]’, ‘자신을 다스림[自治]’, ‘자신을 원망함[自怨]’, ‘자신을 비웃음[自笑]’ 같은 등속이 진실로 많다. 그런데 유독 ‘자신을 속인다[自欺]’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기(欺)는 이쪽에서 저쪽을 어둡게 하는 것을 이른다. 한 사람인데 과연 누가 속이고, 누가 속는 것인가?

이에 《대학》의 경문(經文) 및 장구(章句)를 취하여 반복하고 숙독한 뒤에, 자기(自欺)는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속인다는 것을 알았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이르는가. 선은 마땅히 실천하고 악은 마땅히 제거해야 하는 것은 지(知)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른바 뜻이 그 지를 채워 성실하게 하지 못하면, 이는 뜻이 지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지도 마음의 지이고, 뜻도 마음의 뜻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겠다.

묻기를 “그렇다면 과연 지가 뜻에게 어두워짐을 당하는가?”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지는 지이고 뜻은 뜻일 뿐이니, 어찌 어두워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묻기를 “어두워지지 않는다면 어찌 이것을 기라고 이르는가.”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내가 비록 어둡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실제로 어둡게 한다면, 어떻게 이것을 기라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의 간과 폐를 보듯 훤히 꿰뚫어보는 군자가 한가하게 지내는 소인에게 속지 않았으면, 이를 두고 소인이 군자를 속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옳겠는가.”라고 하였다.

103) 모기(耄期) : 8, 90세부터 100세까지의 나이를 말한다.

문기를 “그렇다면 뜻이 성실하지 않을 때 지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이때를 당하여 뜻은 한창 용사(用事)하고, 지는 공을 이루고 떠나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 어떻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문기를 “이 지(知)는 과연 충분히 다하여 한 점의 누도 없는가?”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그렇다. 성의(誠意)는 격물(格物)과 치지(致知) 이후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그 지를 지극히 함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다만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에 자기(自欺)의 여부가 정해진다. 이는 분명히 성의 가운데의 일이니, 비록 지에 누를 끼치려고 하지만 가능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문기를 “이것은 그렇지만, 그대는 어찌 《주자어류(朱子語類)》와 《혹문(或問)》을 보지 않는가. 지가 미진(未盡)하면 자기(自欺)에 이르니 자기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 선은 참으로 좋아할 만하고 악은 참으로 미워할 만한 줄을 모른다면,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¹⁰⁴⁾ 이와 같은 등속은 장차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가?”라고 하기에, 답하기를 “이것은 과연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대학장구》의 ‘자기라고 이른 것은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해야 함을 알지만, 마음의 발하는 바가 성실하지 못함이 있다.¹⁰⁵⁾’라는 문장을 가지고 보면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미 ‘선을 하고 악을 제거해야 하는 것을 안다.’라고 말했으니, 이 지가 어찌 일찍이 거짓되고 미진한 지이겠는가.

또 ‘마음의 발한 바에 미진한 것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실하지 못한 것이다. 과연 뜻이 스스로 재앙을 짓고 지와 죄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만약 《대학장구》를 정론(定論)으로 삼는다면 후학들이 여기에

104) 자기는 …… 것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6 <대학 삼(大學三)>에서 주자가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사람이, 선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선을 실천하지 못하고, 악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에 그만두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自欺是箇半知半不知底人, 知道善我所當爲, 却不十分去爲善, 知道惡不可作, 却是自家所愛, 舍他不得, 這便是自欺.]”라고 하였다.

105) 《대학장구》 전(傳) 6장 성의(誠意) 부분에서 주자가 주석한 내용이다.

저절로 의지하여 따를 것이 있을 것이다. 또 공부의 차례와 사리의 구경(究竟)으로 미루어 보면 말할 만한 것이 있다.

무릇 세상에서 지를 다하지 못하여 뜻을 성실히 할 수 없는 자가 진실로 많으니, 이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자이다. 군자는 ‘무심코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이를 용서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는 자에 이르러서는 바로 이미 알면서 스스로 성실히 하지 못한 자이니, 이런 경우는 마땅히 유심(有心 의도적인)의 사사로움으로 귀결시켜 용서하지 않는 조목에 두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 지가 미진한 자는 진실로 그 뜻을 성실하게 할 수 없지만, 지가 미진한 데서 사사로움이 있는 자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르러서는 진실로 의심이 없을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대학장구》의 장(章) 밖의 주에 ‘심체의 밝음이 미진하면 발하는 바가 성실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게 된다.¹⁰⁶⁾’라고 이른 것은 결국 지(知) 한쪽을 중시한 설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바로 성의(誠意)를 따로 세우고 단독으로 전하여 치지(致知)와 연결시키지 않았으니, 이는 사람들이 윗 장을 이어 통틀어 상고하지 않거나, 치지를 먼저 하지 않고 다만 뜻을 성실히 하려고 하면 크게 해가 될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부터 근원을 미루어 지의 미진에 대해 말하면 뜻을 성실히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자기는 바로 성실하지 않는 진장(眞贗 확실한 증거물)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연대해서 말해나간 것이고, 심체의 밝음이 미진한 것으로써 스스로 속이는 것의 실병(實病 실제의 병)을 말한 것은 아니다. 수절(首節) 《대학장구》의 자기의 해석 가운데 넣지 않고 장(章) 밖에 둔 것으로 보면 자기의 실병을 볼 수 있으니, 그 아래 글에서 이른바 ‘이미 밝게 알았더라도 이를 삼가지 않으면¹⁰⁷⁾[已明而不謹乎此]’이라고 말한 한 구는 여기에 해당시킬 수 있다.”라고 하였다.

106) 심체의 …… 된다 : 《대학장구》 전 6장의 맨 끝부분에는 “심체의 밝음이 미진한 바가 있으면 그 발하는 바가 반드시 실제로 그 힘을 쓰지 못하여 구차하게 스스로 속임이 있게 된다.[蓋心體之明, 有所未盡, 則其所發必有不能實用其力, 而苟焉以自欺者.]”라고 되어 있다.

107) 이미 …… 않으면 : 《대학장구》 전 6장 맨 끝부분에 “그러나 혹 이미 밝게 알았더라도 이를 삼가지 않으면, 그 밝힌 것이 또 자기의 소유가 아니어서 덕에 나아가는 기초로 삼을 수 없다.[然或已明而不謹乎此, 則其所明又非己有, 而無以爲進德之基.]”라는 주자의 주가 나온다.

자기설 제2 [1919년]

自欺說 第二【己未】

내가 이미 앞에서 설을 지었는데 나에게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가 자기(自欺)라고 여기는 것은 지(知)의 과실이 아니니, 지가 뜻을 성실하게 하는데 조금도 간섭함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아! 무슨 말인가? 천하에 어찌 지가 지극하지 않은 성의(誠意)가 있겠는가. 또 어찌 내가 전에 뜻이 성실하지 않은 것이 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던가. 대체로 고금의 학자 중에 지가 지극하지 못하여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또 지가 비록 지극할지라도 실제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있다. 지가 지극하지 못하여 정성스럽지 못한 자로 말하면 정성스럽지 못한 것은 정성스럽지 못한 것이지만 자기는 아니니, 무엇 때문인가? 그 견해가 도달하지 못하여 실제로 속인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가 비록 지극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힘을 쓰지 않는 자에 이르러서는 바로 자기이니, 무엇 때문인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아서 본심(本心)의 밝음을 속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자기(自欺)는 지의 과실이 아니라 바로 뜻의 사사로움이다.’라고 한다.

만약 자기가 지의 지극하지 못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가 지극한 자는 저절로 마땅히 자기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없는 것이 어찌 뜻이 이미 성실한 자가 아니겠는가? 이와 같다면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 한 장으로 이미 족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다시 성의와 정심(正心) 이하의 허다한 공부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주 선생(朱先生 주자)이 진실로 ‘지가 이미 지극해지면 뜻이 성실해질 수 있다.¹⁰⁸⁾’라고 하였고, 일찍이 ‘지가 이미 지극하면 뜻이 저절로 성실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108) 지가 …… 있다 : 《대학장구》 경(經) 1장에서 주자가 “지가 이미 지극해지면 뜻이 성실해질 수 있고, 뜻이 이미 성실해지면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다.[知既盡則意可得而實矣, 意既實則心可得而正矣.]”라고 주석하였다.

우설로 스스로 경계함 [1940년]

憂說自戒 [庚辰]

근심은 칠정(七情)¹⁰⁹에서 같은 종류를 찾아보면 ‘두려움[懼]’에 해당되니, 사람에게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근심에 군자와 소인의 구분이 있으니,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도를 근심하고 가난은 근심하지 않는다.¹¹⁰”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가난을 근심하는 자는 소인이 아닌가. 예를 들어 요(堯)의 근심은 홍수를 만나는 것¹¹¹이고, 순(舜)의 근심은 백성들을 금수의 핍박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¹¹², 공자의 근심은 덕이 닦아지지 못하는 것이고¹¹³, 자사(子思)의 근심은 도학의 전함을 잃는 것이며¹¹⁴, 맹자의 근심은 순임금과 같지 못한 것이니¹¹⁵, 이러한 것들은 도를 근심한 것이다.

109) 칠정(七情) : 《예기》〈예운(禮運)〉에 “무엇을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희노애구애오욕이다. 이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고도 능한 것이다.[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弗學而能.]”라는 말이 나온다.

110) 군자는 …… 않는다 : 《논어》〈위령공〉에 실려 있다.

111) 요(堯)의 …… 것 : 《서경》〈요전(堯典)〉에 “넘실대는 홍수가 바야흐로 해를 끼쳐서, 광대하게 산을 에워싸고 언덕을 넘어 질펀하게 하늘까지 잇닿았으므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으니, 능히 다스릴 만한 자가 있으면 다스리게 하리라.[湯湯洪水方割, 蕩蕩懷山襄陵, 浩浩滔天, 下民其咨, 有能俾乂.]”는 말이 나온다.

112) 순(舜)의 …… 것이며 : 《서경》〈순전(舜典)〉에 “누가 나의 산택의 초목과 조수(鳥獸)를 순히 다스리겠는가.[疇若予上下草木鳥獸?]”라고 순임금이 말하였고,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순이 익으로 하여금 불을 맡게 하여 익이 산택에 불을 질러 태우자 금수가 도망가 숨었다.[舜使益掌火, 益烈山澤以焚之, 禽獸逃匿.]”라고 맹자가 말하였다.

113) 덕이 …… 것이고 : 《논어》〈술이(述而)〉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덕이 닦아지지 못함과 학문이 강습되지 못함과 의를 듣고 옮겨 가지 못함과 불선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나의 근심거리이다.[德之不修, 學之不講, 聞義不能徙, 不善不能改, 是吾憂也.]”라고 하였다.

114) 자사(子思)의 …… 것이며 :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 “《중용》은 무엇 때문에 지었는가? 자사자가 도학의 전함을 잃을까 근심하여 지었다.[中庸何爲而作也, 子思子憂道學之失其傳而作也,]”라고 한 주자의 말이 나온다.

115) 맹자(孟子)의 …… 것이니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순임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순임금은 천하에 모범이 되어서 후세에 전해질 만한데, 나는 여전히 향인이 됨을 면하지 못했으니, 이는 근심할 만한 일이다. 근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순임금과 같아지도록 노력할 뿐이다.[舜人也, 我亦人也, 舜爲法於天下, 可傳於後世, 我猶未免爲鄉人也, 是則可憂也. 憂之如何? 如舜而已矣.]”라고 하였다.

세상 사람들의 근심은 벼슬이 높지 않고, 집이 부유하지 않으며, 이름을 떨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러한 것들은 가난을 근심하는 등속이다. 배우는 자들도 마땅히 근심하는 때가 있어야 하니, 반드시 스스로 나의 이러한 근심이 도를 근심하는 것인가, 가난을 근심하는 것인가를 살피고 힘써 붙들여 주고 억눌러서 군자를 향하고 소인을 등지도록 애써야 한다. 또한 비록 도를 근심하는 것에서 나왔을지라도 마땅히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유소(有所)의 병¹¹⁶⁾이 되는지와 미치지 못하여 대응하는 방법에 소홀한지를 살펴서, 힘써 가감하여 절도에 맞은 뒤에라야 바로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근래에 너의 근심은 세상이 오랑캐로 변하고, 도가 밝혀지지 않으며, 학문이 발전하지 않고, 스승이 무고(誣告)를 당하며, 집이 보호되지 못하고 자손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며, 질병이 침범해 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근심으로 속이 타고 모습이 바짝 야윈 데까지 이르렀으니, 이러한 것이 과연 확실히 모두 세도(世道)와 스스로 닦는 것과 스승을 높이는 것과 승선유후(承先裕後)¹¹⁷⁾와 아버지가 주신 몸을 아끼는 것을 위한 데에서 나와 군자의 근심이 되는지, 아니면 혹 자신과 명예의 사사로움에서 뒤섞여 나와 소인의 근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것들은 맹렬히 성찰하고 통렬히 헤아려야 하니, 비록 모두 도심(道心)에서 나왔을지라도 어찌 군자가 근심 때문에 안으로 마음을 애태우고 밖으로 바짝 야위어 이처럼 되는 데 이른단 말인가. 이는 유소(有所)의 병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데에 나아가 슬퍼하고 슬퍼하니, 도리어 소인이 되지 않겠는가. 《주역》에 말하기를 “군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써 저녁까지 두려워한다.”¹¹⁸⁾

116) 유소(有所)의 병 : 《대학장구》 전 7장에서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데 방해하는 네 가지를 말하였는데, “마음에 분노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며,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그 바름을 얻지 못한다.[身有所忿懣則不得其正, 有所恐懼則不得其正, 有所好樂則不得其正, 有所憂患則不得其正.]”고 하였다.

117) 승선유후(承先裕後) : 선조를 계승하여 후손에게 복을 주는 것이다.

118) 군자가 …… 두려워한다 : 《주역》〈건괘(乾卦)〉 구삼효(九三爻) 문언(文言)에 “군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힘쓰고 힘써 저녁까지도 두려워하면 위태로우나 허물이 없다.[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無

라고 하였는데, 이는 참된 군자의 근심이니 그대는 힘써 노력하라!

‘변’자설 [1940년]

‘辨’字說 [庚辰]

〈열명(說命)〉에서 처음으로 지(知)와 행(行)을 상대하여 거론하자¹¹⁹⁾, 사람들은 모두 “성인의 학문은 지와 행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자는 대성인(大聖人)이니, 박학(博學), 심문(審問), 신사(慎思), 명변(明辨), 독행(篤行)¹²⁰⁾은 학문의 큰 조목이다. 대성(大聖 공자)이 학문의 큰 조목을 세우는데 지와 행 두 글자를 상대시키지 않고, 바로 학문사변(學問思辨)¹²¹⁾ 네 글자를 행(行 독행) 한 글자에 상대시켰지만, 학문사(學問思)¹²²⁾ 세 글자는 또한 모두 명변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변(辨)’자는 바로 ‘지(知)’자를 대신하는 말로, ‘행(行)’자의 정확한 상대가 되니, 변이 바로 지이고 지가 바로 변이기에 또한 성문의 학문은 변과 행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용》의 명변(明辨)이 바로 《대학》의 치지(致知)이다.”라고 말하겠다. 행은 한 조목일 뿐인데 변이 네 조목을 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행은 오직 일심(一心)의 추기(樞機)¹²³⁾와 관계되지만, 변은 대부분 온갖 이치의 두서(頭緒)를 일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지의 방법을 논하면 천하의 물리를 궁구하지 않음이 없고, 성의(誠意)의 요점을 말하면 ‘스스로
———
답.]’라고 하였다.

119) 〈열명(說命)〉에서 …… 거론하자: 《서경》〈열명〉에서 부열(傅說)이 말하기를 “아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어렵다.[非知之艱, 行之惟艱.]”라고 하였다.

120) 박학(博學) …… 독행(篤行):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0장에 “이를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물으며, 신중히 생각하고, 밝게 분변하며, 독실히 행해야 한다.[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라고 하였다.

121) 학문사변(學問思辨): 박학, 심문, 신사, 명변이다.

122) 학문사(學問思): 박학, 심문, 신사이다.

123) 추기(樞機): 사물의 관건이나 핵심, 근본을 뜻하는 말로,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언행은 군자의 추기이다.[言行君子之樞機.]”라고 하였다.

속이지 마라[毋自欺]’는 세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배우는 자들이 평생 하는 독서(讀書), 강의(講義), 잠심(潛心), 연기(研幾 기미를 궁구함), 종사(從師), 문학(問學), 자우(資友 벗에 의지함), 광문(廣聞), 입론(立論), 진견(陳見 견해를 말함), 기의(記疑)¹²⁴, 대오(待悟) 등 허다한 일들이 ‘변’자 공부의 아님이 없다. 행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들어 조처하는 것으로, 다만 심력(心力)을 전일하게 하면 가능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덕(成德)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행도(行道)’라고 하지 않고 ‘지도(知道)’라고 하니, 《주역》의 〈문언(文言)〉에서 말한 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知)’ 한 글자로 덮였다. 무릇 세상에서 성인에 대해 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무슨 일이든지 두루 통하여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중용》에서는 순임금을 ‘대지(大知)’라고 일컬었으니¹²⁵, 그 의사의 귀추를 알 수 있다.

예로부터 성현이 스스로 행했던 사업에 이르러서는,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어 향원(鄉原)¹²⁶을 미워했고, 맹자는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치고¹²⁷ 제동(齊東)¹²⁸을 배척하였으며, 주자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편찬하여 육구연(陸九淵)¹²⁹과 진량(陳亮)¹³⁰을 논하였으며, 우리 선사

124) 기의(記疑) : 의심나는 곳을 기록하는 것이다.

125) 《중용》에서는 …… 일컬으니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6장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순임금은 매우 지혜로운 분이다.[舜其大知也與!]”라고 하였다.

126) 향원(鄉原) : 《논어》〈양화(陽貨)〉에서 공자가 “향원은 덕의 적이다.[鄉原德之賊也.]”라고 하였다.

127) 양주(楊朱)와 …… 물리치고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선성의 도를 보호하여 양주와 묵적을 물리치고, 부정한 말을 추방하여 사된 학설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吾爲此懼，閑先聖之道，距楊墨，放淫辭，邪說者不得作。]”라고 하였다.

128) 제동(齊東) : 《맹자》〈만장 상(萬章上)〉에서 맹자가 “이것은 군자의 말이 아니고, 제나라 동쪽 야인들의 말이다.[此非君子之言，齊東野人之語也。]”라고 말한 데서 나온 말로, 이는 제나라 동쪽에 사는 야인들이 길에서 퍼뜨리는 근거 없는 말을 뜻한다.

129) 육구연(陸九淵) : 1139~1193. 자는 자정(子靜)이고, 호는 상산(象山) 또는 존재(存齋)이다. ‘마음이 곧 이(理)이다.[心即理]’라는 설을 주장하였다. 유교의 고전인 육경(六經)도 ‘내 마음의 주각(註脚)’이라 하여 주자와 대립하였다.

130) 진량(陳亮) : 1143~1194. 송대(宋代)의 사상가이다. 원래 이름은 여능(汝能)인데 뒤에 량(亮)으로 개명하였다. 자(字)는 동보(同甫)이고 학자들이 용천 선생(龍川先生)이라고 불렀다. 주희(朱熹)가 진량에게 편지를 보내서 ‘의리쌍행(義利雙行), 왕패병용(王霸並用)’ 8글자에 대해 경계했다는 내용이 《회암집(晦庵集)》 권36 〈여진동보(與陳同甫)〉에 나온다.

간옹이 심종(心宗)을 논박하고¹³¹⁾ 김평묵(金平默)¹³²⁾의 뇌문(誄文 제문(祭文))을 물리치는 데 이르러서는¹³³⁾, 한 번도 ‘변’자로 뜻을 주로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대개 이러한 분들은 평소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에 성위(誠僞)의 기미와 사정(邪正)의 구분을 자세히 헤아려서 조금의 사특함이 혹시라도 잠복해 있지 않게 하였고, 목전에서 응접할 때에 득실(得失)과 당부(當否)의 관계를 정밀히 살펴서 혹시라도 과실이 남아 있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또한 사람의 선악, 덕의 진가(眞假), 학문의 정이(正異), 말의 허실(虛實)에 스스로 지나쳐 버려 자기 시비의 본심을 어둡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니, 이를 두고 내외가 서로 합하고 심사(心事)가 일치한다고 이르는 것이다. 군부(君父)와 성현과 사우(師友)와 관계된 것과 같은 것은 일이 또 특별하여 더욱 그만둘 수 없다. 괴이하다! 지금의 학자들은 옛날 현성(賢聖)이 행한 것을 스스로 힘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람들이 부사(父師)의 무고(誣告)를 분변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는 마음과 이기려는 기개로 돌려서 이를 경시하니, 어찌면 이러한 사람들은 평소에 마음의 숙특(淑慝 선악)과 일의 가부(可否)를 분변한 적이 없기에 또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은 지의 단서이다.¹³⁴⁾”라고 하고, 또 “시비지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¹³⁵⁾”라고 하였으니, 사람으로서

131) 심종(心宗)을 논박하고 : 간재는 성사심제(性師心弟)를 기본 강령으로 하여, 심을 이(理)와 스승로 보는 심종을 자신의 저서 여러 곳에서 반박하고 있다.

132) 김평묵(金平默) : 1819~1891. 호는 중암(重菴)이고, 자는 치장(杼章)이다.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133) 김평묵(金平默)의 …… 이르러서는 : 김평묵이 임헌회(任憲晦)의 제문을 지었는데, 여기에 기롱하는 뜻이 있었다. 이에 간재와 임헌회의 아들 임진재(任震宰)가 편지를 보내 절교를 선언하고 제문을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간재집 전편(良齋集前篇)》 권2 <답유치정(答柳穉程)>.

134) 시비지심은 …… 단서이다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요, 수오지심은 의의 단서요, 사양지심은 예의 단서요, 시비지심은 지의 단서이다.[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라고 하였다.

135) 시비지심이 …… 아니다 : 《맹자》 <공손추 상>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부끄럽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無惻隱之心, 非人也, 無羞惡之心, 非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그 지를 다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알지 못하고서 행할 수 있는 자가 있겠는가. 이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평상시에 말하는 지와 행에 대해서도 말하기 어렵거늘, 하물며 성문(聖門)의 학문은 변과 행일 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듣는 사람과 이를 함께 말할 수 있겠는가. 슬프구나!

백졸설 [1939년]

百拙說 [己卯]

마음은 두 갈래로 쓸 수 없고, 재능은 겸하여 이룰 수 없다. 이 때문에 세상 물정에 능숙한 자는 마음공부에 졸렬하고, 이익을 꾀하는 데 능숙한 자는 이(理)를 밝히는 데 졸렬하다. 세상의 권세와 이익은 백가지 일 뿐만이 아니고 내 심신의 이치는 다만 하나인데, 돌아보면 사람들은 모두 많은 것에 능숙하고 적은 것에 졸렬하니 또한 이상하다.

그러나 오직 최군 여중(汝重)¹³⁶⁾은 그렇지 않고 백가지에 졸렬하고 한 가지에 능숙하려고 하여,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곳을 ‘백졸(百拙)’로 편액(扁額)하였으니, 마음을 쓰는 것과 재능을 이루는 것에 대해 경중(輕重)해야 할 것을 알았다고 이를 만하다. 게다가 백가지에 졸렬한 자는 비록 당장에는 부족할지라도 합산하면 항상 여유가 있으니, 무엇 때문인가? 한 가지에 능숙한 재능이 있으면 간절함으로 번다함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백졸은 거의 여기에 가까우니, 나는 백졸이 졸렬하지 않음을 알겠다.

人也, 無辭讓之心, 非人也, 無是非之心, 非人也.]”라고 하였다.

136) 여중(汝重) : 최태일(崔泰鎰, 1899~?)의 자이다. 호는 백졸(百拙), 본관은 전주이고, 간재 전우의 제자이다. 저서에 《백졸사고(百拙私稿)》 5권 3책이 있다.

네 아들의 명과 자에 대한 설 [1939년]

四子名字說【己卯】

아, 너희들 형복(炯復), 형태(炯泰), 형관(炯觀), 형겸(炯謙)아! 형복은 조부가 직접 명명(命名)했고, 형태와 형관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명명했으며, 형겸은 생전에 미치지 못하여 부친이 지어주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字)인 수(修), 중(中), 부(孚), 명(鳴)으로 말하면 3개는 간옹(艮翁 간재)이 정해준 것이고, 명은 바로 내가 지은 것이다. 오직 너희들의 이름과 자는 복희씨의 괘에 근본하였고, 문왕(文王)의 단사(象辭)¹³⁷⁾를 사용하였으며, 주공(周公)과 공자의 상(象)¹³⁸⁾을 취하여 부사(父師)의 명명을 받았으니 중요한 것이다.

복은 수신(修身)하여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¹³⁹⁾이며, 태는 빛나고 커서 중도(中道)에 합하며¹⁴⁰⁾, 관은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존경하게 하는 것이며¹⁴¹⁾, 겸은 마음에 정(眞)과 길(吉)을 얻어¹⁴²⁾ 세상에 올리는 것이다. 수는 닦지 않고 방탕한 것은 복이 아니며, 중은 중이 아니고 치우치는 것은 태가 아니며, 부는 정성을 다하지 않고 거짓으로 하는 것은 관이 아니며, 명은 울릴만한 실상이 없으면 겸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바로 성현(聖賢)의 가르침을 업신여기고 부사의 명명을 모멸하여, 아름답고 훌륭한 이름과 자가 도리어 죄구(罪具)가 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계하지

137) 문왕(文王)의 단사(象辭) : 문왕이 붙인 말로, 이는 한 괘(卦)의 길흉을 판단한다.

138) 주공(周公)과 …… 상(象) : 상은 괘(卦)의 상하 두 상과 두 상의 육효(六爻)로 주공이 붙인 말이고, 공자의 글인 ‘상왈(象曰)’은 상의 전(傳), 즉 <상전(象傳)>이 된다.

139) 수신(修身)할 …… 것 : 《주역》<복괘(復卦) 상전> 초구(初九)에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옴은 이로써 수신하는 것이다.[不遠之復, 以修身也.]”라고 하였다.

140) 빛나고 …… 합하며 : 《주역》<태괘(泰卦) 상전> 구이(九二)에 “‘거친 것을 포용해 주고 중도에 합한다.’는 것은 빛나고 큰 것이다.[包荒得尙于中行, 以光大也.]”라고 하였다.

141) 정성이 …… 것이며 : 《주역》<관괘(觀卦) 단사(象辭)>에 “관은 손만 씻고 제수를 올리지 않았을 때처럼 하면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존경하리라.[觀, 盥而不薦, 有孚, 顒若.]”라고 하였다.

142) 마음에 …… 얻어 : 《주역》<겸괘(謙卦) 상전> 육이(六二)에 “‘겸손함을 올림이니, 정하고 길하다.’는 것은 중심에 얻은 것이다.[鳴謙貞吉, 中心得.]”라고 하였다.

않을 수 있겠는가.【형태는 자가 극중(克中)인데 본군(本郡) 청하 권공(靑霞權公)의 휘를 피하여 극성(克成)으로 고쳤다.¹⁴³⁾】

박쥐에 대한 설【1939년】

蝙蝠說【己卯】

나의 새로 지은 초가집이 소나무 숲속에 있는데, 학동(學童)이 담벼락 사이에서 동물 한 마리를 잡았다. 이를 우족(羽族)¹⁴⁴⁾이라고 이르자니 깃이 없으나 능히 날 수 있고, 모족(毛族)¹⁴⁵⁾이라고 이르자니 발이 없으나 능히 달릴 수 있었다. 몸 양쪽 곁에 손바닥 만한 크기의 얇은 살이 있는데 그 사이가 단단한 근육으로 되어 있어, 펼치면 두 날개가 되어 날 수 있고 거두어들이면 네 발이 되어 달릴 수 있으니, 기이하고 이상하다. 그러니 우족인지 모족인지, 난다고 해야 할지 달린다고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내가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옛날에 곤륜산(崑崙山)에서 우족과 모족 사이에 큰 전쟁을 일어나 서로 살상하였고, 이 때문에 원수 사이가 되어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곤충이 있었으니 달릴 수도, 날 수도 있지만, 우족과 모족에게 한 번도 싸움에 도와준 적 없이 오직 자신만의 보존을 도모하였다.

어느 날 모충(毛蟲)이 그 곤충이 잘 날아다닌다는 말을 듣고 가서 따져 묻기를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냐.”라고 하니, 그 곤충은 두 날개를 접고 네 발을 나누어 만들고는 날쌔게 달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우족이겠는가. 나는 너희들과 똑같다.”라고 하였다. 또 어느 날 우충(羽蟲)이 그 곤충이 잘 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따져 물으니, 그 곤충은 곧 두 날개를 펼쳐 훨훨 날면서 말하기를 “누가 나더러 모족이라 하느냐. 너희들과 무슨

143) 청하 권공(靑霞權公) : 권극중(權克中, 1585~1659)이다. 본관은 안동(安東), 호는 청하, 자는 정지(正之)이다.

144) 우족(羽族) : 날아다니는 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45) 모족(毛族) : 털을 가진 네발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원수이겠느냐.”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우족과 모족에게 모두 싫어하는 틈이 없었으니, 그 이름을 ‘박쥐[蝙蝠]’라 한다. 네가 바로 이와 같은가? 네가 진실로 이와 같다. 아! 오늘날 시비의 논쟁에 지조 없이 오락가락하는 선비들이 또 너에게서 처세술을 본받았나 보다.

시냇가에 은거한 것에 대한 설 [1947년]

溪隱說【丁亥】

객이 나를 찾아와 묻기를 “공자가 말하기를 ‘천지가 닫히면 현인(賢人)이 은둔한다.¹⁴⁶⁾’고 하였고, 또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¹⁴⁷⁾’라고 하였다. 현인이 이미 세상에 항상 있지 않고 그러한 자를 또 볼 수 없다면, 이른바 ‘은자(隱者)’라는 것이 어찌 지극히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근세 이후로 사대부를 배우는 사람으로부터 서민과 시정인(市井人)에 이르기까지 ‘은(隱)’을 표방하는 자가 많은가.”라고 하기에, 내가 이를 위해 알아듣도록 타일러 말하기를 “이는 그 설을 얻을 수 있지 있지 않겠는가. 현인이 비록 항상 있지 않다고 하지만, 《논어》에서 ‘태사(太師) 이하 8인이 제(齊)나라로 가고 한(漢)나라로 들어갔다는 것¹⁴⁸⁾과 일어나 은거한 자가 일곱 사람이라는 것¹⁴⁹⁾’으로 본다면, 당시에 이미 많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일세(一世)의 현재

146) 천지가 …… 은둔한다 : 《주역》〈곤괘(坤卦) 문언전(文言傳)〉에 나온다.

147) 은거하여 …… 못했다 : 《논어》〈계씨(季氏)〉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은거하여 그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며 그 도를 행하는 것을 나는 그러한 말만 들었고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 吾聞其語矣, 未見其人也.]”라고 하였다.

148) 《논어》에서 …… 들어갔다는 것 : 《논어》〈미자(微子)〉에 “태사 지는 제나라로 가고, 아반간은 초나라로 가고, 삼반료는 채나라로 가고, 사반결은 진나라로 가고, 복을 치는 방숙은 하내로 들어가고, 소고를 흔드는 무는 한중으로 들어가고, 소사 양과 경쇠를 치는 양은 해도로 들어갔다.[大師摯適齊, 亞飯干適楚, 三飯繚適蔡, 四飯缺適秦, 鼓方叔入於河, 播鼗武入於漢, 少師陽, 擊磬襄入於海.]”라는 내용이 나온다.

149) 일어나 …… 사람이었다 : 《논어》〈헌문(憲問)〉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일어나 은거한 자가 일곱 사람이다.[作者七人矣.]”라고 하였다.

(賢才)가 될 만하였으니, 아마도 반드시 성인에 버금가는 대현(大賢)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은 ‘의를 행하며 그 도를 행한다.’라는 것을 모두 들어서 말한 것이고, 다만 은거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세상에서 표방하고 스스로 자랑하여 실상 없이 이름을 흠친 자는 진실로 말할 것이 없다. 그러나 말세에 태어나서 마음으로 옛것을 보존하고 사모하는 것은 현인의 덕이며, 구하는 것은 도의(道義)의 뜻이지만 몸이 이미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면, 처한 곳에 따라 ‘은’으로써 스스로 이름하는 것이 어찌서 불가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질문한 자가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깨닫고 말하기를 “예예. 이는 《논어》를 숙독하지 못한 잘못이다. 만일 이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냇가에 지내면서 ‘계은(溪隱)’으로 일컫는 부풍(扶風 부안(扶安))의 김공 같은 자가 어찌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라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바로 나의 뜻이다. 이 김공은 모습은 예스럽고 마음은 도타워 남과 다름이 없고, 성품은 경적(經籍)을 좋아하며, 덕은 향당에서 신임을 받고 있으니, 비록 옛날 8인과 7인의 부류와 견주더라도 누가 낮고 못한가. 말세에 위학(僞學)으로 함부로 차지한 탐욕스런 자들이 부끄러워 죽게 할 바를 알게 할 수 있으니, 참으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농사지으며 은거한 것에 대한 설【1947년】

耕隱說【丁亥】

내가 부풍(扶風)의 부곡(富谷)을 지나다가, 벗 정덕중(鄭德重)이 거처하는 곳에 편액을 했는데 ‘경은(耕隱)’으로 한 것을 보고 묻기를 “함께 짝이 되어 밭을 갈았던 장저(長沮)와 걸익(桀溺)¹⁵⁰⁾은 옛날에 은거할 때에 중도에 지나치고 정도를 잃은 자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이들을 사모하는가.”

150) 장저(長沮)와 걸익(桀溺) : 춘추 시대 초나라 은자(隱者)이다. 이들에 관한 내용이 《논어》〈미자(微子)〉에 나온다.

라고 하니, 주인이 놀라서 말하기를 “내가 창평(昌平)에서 와서 이 땅에서 농사지은 지가 이미 30년이 되었으니, 다만 사실을 기록한 것은 모두 우연한 뜻이 아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장저와 결익에 혐의가 있다면, 빨리 이를 없애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상심하지 말라. 본래 일에는 이름은 같지만 실상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동일한 학문이지만 위기(爲己)와 위인(爲人)¹⁵¹⁾의 구분이 있고, 동일한 인정(仁政)이지만 행동으로 하고 거짓으로 하는 다름이 있다. 그러니 저들이 은거하여 농사지으며 조수(鳥獸)와 함께 무리지어 산 것이 그대가 은거하여 농사지으면서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기르는 데 책임을 다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겠는가.

게다가 지금 자네는 피로하여 이제 막 야전(野田)의 농사를 그만두고, 연전(硯田 문필)의 농사에 전념하여 문청공(文淸公)¹⁵²⁾의 가학(家學)을 이었다. 그리고 마침 나라가 새롭게 되었으니, 마음과 힘이 쇠하지 않고 평소의 뜻을 굳세게 실천하여 포부를 펼칠 날이 있다면, 어찌 일찍이 공부한 예학(禮學)으로써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¹⁵³⁾ 대종백(大宗伯 예조 판서)의 다스림을 도와서 이루지 못할 줄을 알겠는가. 만일 이처럼 된다면 비록 오랫동안 경(耕)에 은거하고 싶어도 그렇게 될 수 없으니, 그대로 써두고 기다려라.”고 하였다.

151) 위기(爲己)와 위인(爲人) : 《논어》〈현문〉에 “옛날의 학자들은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였는데, 지금의 학자들은 남을 위한 공부를 한다.[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라는 공자의 말이 나온다.

152) 문청공(文淸公) : 정철(鄭澈, 1536~1593)의 시호이다. 본관은 연일(延日), 자는 계함(季涵), 호는 송강(松江)이다. 우의정, 좌의정, 전라도체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부친은 돈녕부판관 정유침(鄭惟沈)이다.

153) 상하를 …… 안정시키는 : 《주역》〈이괘(履卦) 대상전(大象傳)〉에 “위의 하늘과 아래의 못이 이(履)이니, 군자가 이를 보고 상하를 분별하여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킨다.[上天下澤履, 君子以, 辨上下, 定民志.]”라고 한 데서 나온 말로, 상하존비(上下尊卑)의 위계질서를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솔잎을 먹는 것에 대한 설 [1926년]

啖松說【丙寅】

‘백이(伯夷)와 숙제(叔齊)가 고사리를 췌다.¹⁵⁴⁾’라는 말이 경전에 보이지 않자,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있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심하는 자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그 믿음이 너무 깊어 꾸짖기를 매우 가혹하게 하는 자는 심지어 백이 숙제가 주나라의 풀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결론적으로 모두 사리에 통달한 의론이 아니니, 경전에 없다고 문득 의심한다면 《사기》는 지을 필요가 없고, 《사기》를 온전히 믿는 것은 또한 《사기》가 없는 것만 못하다. 대개 먹지 않은 것은 주(周)나라의 녹이며 주나라의 곡식이 아니다. 곡식을 먹는 것도 해될 것이 없는데 하물며 풀이겠는가. 사람이 콩과 곡식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고사리를 항상 먹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고 믿는 사이에 백이와 숙제의 심사(心事)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뿌리, 줄기, 껍질, 잎은 어느 것인들 마땅하지 않겠는가마는, 반드시 맛이 쓴 고사리를 먹고, 캔 것은 반드시 고사리이며, 수양산(首陽山)에서 생산되어야 거기에 맞다고 취하며, 또 기꺼이 다른 물건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아! 돌아보건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도적에게 아부하여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은 살이 찌서 돼지처럼 비대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얗게 말라 죽은 누에처럼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떠있다. 그리고 선비 중에 더욱 심한 자는 자신의 고갈된 재원 때문에 식도(食道 음식의 도)를 끊고 자신을 해치기도 하니, 이는 백이와 숙제의 절개를 기다릴 것도 없고 스스로 어쩔 수 없이 초목(草木)을 먹어야 한다.

내가 근년에 산재(山齋)에 여러 번 여행했었는데 도처에 만 그루의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일찍이 듣건대 솔잎을 복용하면 사람에게 몸이 가볍게 하고

154) 백이(伯夷)와 …… 췌다 : 《사기(史記)》 권61 <백이열전(伯夷列傳)>에 “무왕이 이미 어지러운 은나라를 평정하자 천하가 주나라를 숭상하였는데, 백이와 숙제는 이를 부끄럽게 여겨 의리상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고사리를 캐서 먹고 살다가 아사(餓死)하였다.[武王已平殷亂, 天下宗周, 而伯夷叔齊恥之, 義不食周粟, 隱於首陽山, 采薇而食之, 及餓且死.]”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기를 보하며, 심장을 깨끗이 하고 졸음을 적게 하며, 중풍을 치료하고 습기를 제거하며, 담(痰)을 제거하고 해충을 죽이며, 장부(臟腑)를 편안히 하고 근골(筋骨)을 튼튼하게 한다고 하니, 진실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양약(良藥)이다. 무엇보다 흉년에 요기(療飢)할 수 있고, 먼 길에 양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정작 오늘날 우리가 한없이 크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가할 때 한 번 시험 삼아 복용해 보았다. 매번 먹을 때 조금씩 잘게 찢어 두세 손가락을 입에 넣고 맑은 물을 마시고 삼켜 넘기자, 시원하게 장에 있는 찌꺼기가 씻어지는 것 같았고, 펄펄 겨드랑이에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과연 때가 지났는데도 배고프지 않았으니, 궁하여 굶주린 자에게 잠깐의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전에 들었던 것이 거짓이 아님을 믿게 되었다. 이에 동지들에게 고하기를 “사람은 이미 백이와 숙제가 아니고 지역도 수양이 아니지만, 솔잎과 고사리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동일하다. 게다가 쓴 것을 먹는 것과 항상 먹지 못하는 근심이 없고, 삶을 지키고 병을 제거하는 유익함이 있다. 이것은 사람은 비록 같지 않지만 물건은 다시 도리어 나오니, 어찌 우리들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또한 가지 말할 것이 있으니, 맹자가 말하기를 ‘백세 위에 분발하거든 백세의 아래에서 그 풍도를 들은 자가 흥기하지 않는 자가 없다.’¹⁵⁵⁾”라고 하였다. 이에 내가 감히 ‘진실로 능히 저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솔잎을 먹는 자들은 처음부터 백이와 숙제의 풍도(風度)를 듣지 못한 자가 아니다.’¹⁵⁶⁾”라고 말하겠다. 동지들이여, 힘써 노력하라!”라고 하였다.

155) 백세(百世) …… 없다 : 《맹자》〈진심 하(盡心下)〉에 “백세 위에 분발하거든 백세의 아래에서 그 풍도를 들은 자가 흥기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성인이 아니고서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奮乎百世之上, 百世之下, 聞者莫不興起也, 非聖人而能若是乎?]”라는 말이 나온다.

156) 백이(伯夷)와 …… 아니다 :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맹자》〈진심 하〉에서 맹자가 “백이의 풍도(風度)를 들은 자는 완악한 지아비가 청렴해지고, 나약한 지아비가 뜻을 세우게 된다. [聞伯夷之風者, 頑夫廉, 懦夫有立志.]”라고 하였다.

김성원의 자에 대한 설 [1924년]

金聲遠字說【甲子】

갑자년(1924) 11월 15일 갑자(甲子) 날은 나와 공유한 김씨 수요(秀堯) 종돌(鍾突)이 관례를 치른 때이다. 이미 관례를 치르고 중당(重堂 조부모)의 명을 받들어 나에게 자(字)를 묻기에 내가 ‘성원(聲遠)’으로 공경하게 하고 또 말하기를 “무릇 종(鍾)은 기물(器物) 가운데 큰 것이니, 기물이 크면 소리가 길고, 소리가 길면 멀리 들리는 것은 이치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그러하니, 도가 그 몸에 쌓이고 가르침이 천하에 행해져 훌륭한 명성이 백세(百世)에 길이 이어지는 것이 어찌 사람의 울림이 아니겠는가. 인류가 생긴 이래로 성인들이 크게 이룬 것을 모아서 요임금과 순임금을 존경하고, 탕임금과 문왕을 빛낸 자는 오직 공자이니, 사람으로서 울림이 큰 것이라고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부자를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¹⁵⁷⁾’고 하였고, 한유(韓愈)는 ‘그 소리가 크게 멀리 들렸다.¹⁵⁸⁾’고 하였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로부터 이후는 현철(賢哲)들의 크고 작은 울림이 비록 같지 않지만 큰 것에 나아가 말해보면, 삼강령(三綱領), 팔조목(八條目)¹⁵⁹⁾, 일성(一誠), 삼덕(三德)¹⁶⁰⁾으로서 도학(道學)의 표준을 밝힌 것은 증자와 자사의 울림이다. 인육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것¹⁶¹⁾과, 선성(先聖)의 도를 보호하여 이단을

157) 하늘이 …… 것이다 : 《논어》〈팔일(八佾)〉에 의(儀) 땅의 봉인(封人)이 공자를 뵈고 나와 공자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천하가 무도해진 지 오래되었으니, 하늘이 장차 부자를 목탁으로 삼을 것이다. [天下之無道也久矣, 天將以夫子爲木鐸.]”라고 하였다.

158) 그 …… 들렸다 :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송맹동야서(送孟東野序)〉에서 한유가 말하기를 “주(周)나라가 쇠퇴해지자 공자의 무리들이 소리를 냈으니, 그 소리가 크게 멀리 들렸다. [周之衰, 孔子之徒鳴之, 其聲大而遠.]”라고 하였다.

159)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 : 《대학》의 세 가지 강령과 여덟 가지 조목이다. 삼강령은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이고, 팔조목은 격물(格物), 치지(致知), 성의(誠意), 정심(正心),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이다.

160) 일성(一誠)과 삼덕(三德) : 성은 《중용》의 핵심이고, 세 가지 덕은 《중용장구》 제20장에 “지, 인, 용 이 세 가지는 천하의 공통된 덕이다. [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161) 인육을 …… 것 : 《맹자》〈양혜왕 하(梁惠王下)〉에 맹자가 호색(好色)하는 마음이 왕도정치와

물리치는 7편의 웅변(雄辯)¹⁶²⁾으로 백세에 밝게 드러나게 한 것은 맹자의 올림이다. 그리고 말이 인멸(湮滅)된 것을 태극도(太極圖)에서 열어주고, <서명(西銘)>을 지어 완고한 자들을 바로잡아 준 것은 주돈이(周敦頤)¹⁶³⁾와 장재(張載)의 올림이다.

그리고 전해지지 않던 것을 전해오는 경전에서 얻어 수사(洙泗)¹⁶⁴⁾의 전통을 다시 잇고, 백가(百家)의 논을 절충하여 경전의 뜻을 하늘의 해와 별처럼 밝게 드러나게 한 것은 정자(程子 정명도와 정이천)와 주자(朱子)의 올림이고, 도의 근원을 철저히 밝히고 왕을 도울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춘추(春秋)》의 대의를 잡고 인심(人心)을 바로잡은 것은 율곡(栗谷 이이(李珥))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올린 것이니, 우리나라의 공자와 주자이다. 율곡과 우암의 뒤를 이어 근세에 올린 자는 구산옹(臼山翁)¹⁶⁵⁾이니, 덕성을 높이고 심종(心宗)을 깨뜨린 올림이 이것이다.

성원은 풍채가 좋고 준수하며 재주는 민첩하고 뜻은 돈독하며, 목소리가 맑고 온화하여 좋아할 만하니, 어찌 결국 작은 그릇이 될 자이겠는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은 공자, 맹자, 정자, 주자, 율곡, 우암의 책이고, 사숙(私淑)하고 있는 것은 구산옹의 뜻과 가르침이다.

내가 바라건대 옛사람의 모범을 본받아 자신을 비우고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도탑게 쌓아 이를 드러내어 광원(廣遠)한 창언(昌言 훌륭한 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齊)나라 선왕(宣王)을 설득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집주에서 맹자의 이와 같은 대답은 “모두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皆所以遏人欲而存天理.]”라고 해석하였다.

162) 선성(先聖)의 …… 웅변(雄辯):《맹자(孟子)》를 말하며, 7편(篇)은 《맹자》의 ①<양혜왕 상(梁惠王上)>·<양혜왕 하(梁惠王下)>, ②<공손추 상(公孫丑上)>·<공손추 하(公孫丑下)>, ③<등문공 상(滕文公上)>·<등문공 하(滕文公下)>, ④<이루 상(離婁上)>·<이루 하(離婁下)>, ⑤<만장 상(萬章上)>·<만장 하(萬章下)>, ⑥<고자 상(告子上)>·<고자 하(告子下)>, ⑦<진심 상(盡心上)>·<진심 하(盡心下)> 편을 말한다.

163) 주돈이(周敦頤) : 1017~1073. 자는 무숙(茂叔)이고 시호는 원공(元公)이다. 그가 염계(濂溪)에 살았으므로 염계 선생이라고도 한다. 이학(理學)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태극도설(太極圖說)>을 지었다.

164) 수사(洙泗) : 춘추 시대 노(魯)나라에 있는 두 개의 강 이름이다. 공자가 이 사이에서 제자들을 모아 놓고 학문을 강론하였다고 하여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뜻한다.

165) 구산옹(臼山翁) : 구산은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호이다.

과 범범(飗飗)¹⁶⁶한 문장이 되게 하라. 이 천지가 오랫동안 어둡고 만백성이 혼몽(昏夢)한 때를 당하여 맑은 새벽녘에 백 척 높이의 누각 위에서 장장(鏘鏘)¹⁶⁷하게 한 번 큰 종을 치면 맑은 소리가 울려 퍼져서 멀리 6주(洲)와 8방에까지 미쳐 천하의 귀먹은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일깨울 날이 장차 있을 것이니, 바야흐로 바람을 향해 귀 기울여 기다릴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내가 일찍이 듣건대 진정한 영웅은 전금임리(戰兢臨履)¹⁶⁸에서 우레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일찍이 연못처럼 고요한[淵默] 가운데서 나오지 않음이 없다고 하니, 이는 도울림을 크게 하여 소리를 멀게 하는 자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전금연묵[戰兢淵默]’ 4글자 가운데 본래 무한한 일이 있으니, 앞에서 ‘옛사람을 본받아 도탑게 쌓는다.’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성원아, 힘써 노력하라! 몸을 강건하게 하고 마음을 크게 하여 그 도량을 확충하고, 스스로 그 기물(器物)을 손상시켜 작게 하지 말라.

공자가 ‘입신양명하여 부모를 드러나게 해드린다.¹⁶⁹’라고 하고, 《시경》에 ‘길이 천명에 합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다.¹⁷⁰’라고 하였다. 천명에 합하여 몸을 이루고 훌륭한 명성을 드리워 부모를 드러나게 해드린다면 하늘이 이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성원의 관례를 치르고

166) 범범(飗飗) : 중용(中庸)에 맞는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 29년 조에 춘추 시대 오(吳)나라 계찰(季札)이 위(魏)나라의 시를 듣고 말하기를 “범범하다. 크면서도 요약되고 겸소하여 행하기 쉽다.[飗飗乎! 大而婉, 險而易行.]”라고 하였고, 두예(杜預)는 주에서 ‘범범’을 ‘중용의 소리[飗飗, 中庸之聲.]’라고 풀이하였다.

167) 장장(鏘鏘) : 맑고 높은 소리를 말한다.

168) 전금임리(戰兢臨履) : 《시경》 <소아(小雅) 소민(小旻)>에 “전전공공하여 심연에 임하듯 얇은 얼음을 밟듯 한다.[戰戰兢兢, 如臨深淵, 如履薄冰.]”라고 말한 것에서 나온 것으로, 매사를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69) 《효경(孝經)》 <개종명의장(開宗明義章)>에 “이 몸은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고, 입신출세하고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드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끝이다.[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라는 말이 나온다.

170) 길이 …… 길이다 : 《시경》 <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덕을 닦을지이다. 길이 천명에 합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니라.[無念爾祖, 聿修厥德. 永言配命, 自求多福.]”라고 하였다.

자(字)를 지을 때에 이러한 설을 지어 힘쓰게 하여 장수와 큰 복을 누리라는 축원을 대신한다.”라고 하였다.

최이구와 이관의 자에 대한 설 [1925년]

崔以求貫字說【乙丑】

공자가 말하기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구하였다.¹⁷¹⁾”라고 하였으니, 민렬(敏烈)로 이름을, 이구(以求)로 자(字)를 지은 것은 이 때문이다. 또 말하기를 “우리의 도는 한 가지 이(理)로써 만 가지 일을 관통한다.¹⁷²⁾”라고 하였으니, 이 때문에 일섭(一變)으로 이름을, 이관(以貫)으로 자를 지은 것이다.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게 된¹⁷³⁾ 공이고,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한 것은 마음과 이치에 간격이 없는 묘함이다.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한 것은 체(體)이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용(用)이며,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한 것은 성(誠)이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경(敬)이며,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한 것은 돈화(敦化)¹⁷⁴⁾이고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천류(川流)¹⁷⁵⁾이다.

그러나 부지런히 구하면 상하로 통하고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하면 지극한 곳에 나아가니,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구하는 데 노력하여 점차 한

171) 옛것을 …… 구하였다 : 《논어》〈술이(述而)〉에서 공자가 “나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안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여 부지런히 그것을 구한 자이다.[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라고 하였다.

172) 우리의 …… 관통한다 : 《논어》〈이인(里仁)〉에서 공자가 “삼아! 우리의 도는 한 가지 이(理)로써 만 가지 일을 관통한다.[參乎! 吾道一以貫之.]”라고 하였다.

173) 마음이 …… 된 : 공자가 《논어》〈위정〉에서 “70세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74) 돈화(敦化) : 《중용장구》 제30장에 “큰 덕은 화를 돈후하게 한다.[大德敦化]”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175) 천류(川流) : 《중용장구》 제30장에 “작은 덕은 냇물의 흐름이다.[小德川流]”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가지 이치로 관통하는 데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구하는 것은 시작하는 일이고 한 가지 이치로 관통하는 것은 마치는 일이니, 시작과 끝이 서로 돕는 것이 사람 중에 형제가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이제 형을 이구로, 동생을 이관으로 한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느냐. 서로 의지하는 형제로서 서로 도움을 주는 학문을 익힌다면 마땅히 이르지 못할 리가 없을 것이니, 두 최군이여 힘써 노력하라!

허정로 이중의 명과 자에 대한 설 [1927년]

許正老而中名字說【丁卯】

허군(許君)은 그 이름이 정로(正老)인데 그의 부친이 처음 지어준 뒤에 스스로 ‘명갑(明甲)’ 혹은 ‘원서(元瑞)’로 고쳐서 불렀으니, 모두 뜻을 취하지 않았다. 어느 날 허군이 초명(初名)을 회복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부친이 명명해주신 것이다.”라고 하고, 사실을 들어 나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훌륭하다! 아버지를 여의고 이름을 고치는 것은 또 예가 아니니¹⁷⁶⁾,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그 지어준 이름을 버린다면 장차 어떤 자식이 불효를 면한다고 이르겠는가. 내가 ‘이중(而中)’으로 공경하게 했는데 괜찮은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그를 위해 말하기를 “정(正)이란 천하의 직도(直道)이고 중(中)이란 천하의 지선(至善)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이다.’¹⁷⁷⁾라고 하였고, 유자(劉子 유강공(劉康公))가 말하기를 ‘사람은 중을 받아 태어난다.’¹⁷⁸⁾라고 하였으니,

176) 이미 …… 아니니 : 《예기(禮記)》〈곡례 하(曲禮下)〉에 “군자가 이미 고가 되었으면 이름을 고치지 않고, 이미 고가 되어 갑자기 귀하게 되었다라든 아버지들을 위해 시호를 짓지 않는다.[已孤不更名, 已孤暴貴, 不爲父作諡.]”라고 하였다.

177) 사람이 …… 정직이니 : 《논어》〈옹야(雍也)〉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는 정직이니,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사는 것은 죽음을 요행히 벗어난 것이다.[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라고 하였다.

178) 사람이 …… 태어난다 : 《춘추좌전(春秋左傳)》성공(成公) 13년 조(條)에서 유강공이 이르기를, “내가 들으니 백성은 천지의 중을 받아 태어나니, 명이라는 것이다.[吾聞之, 民受天地之中以生, 所謂

똑같이 인생의 명맥(命脈)이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정은 선악 두 길로 나아가 사(邪)에 상대하여 말하지만, 중은 선[善] 한 길에 나아가 과불급(過不及)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정하면서 중하지 않은 자는 간혹 있지만, 중하면서 정하지 않은 자는 있지 않으니, 이러한 뜻은 옛 현인이 이미 말하였다.

내가 원하건대 그대는 혹시라도 중하지 않으면서 정하지 말고 반드시 정하면서 중해야 한다. 정하면서 중하고자 하려면, 의(義)를 정밀하게 하고 인(仁)을 익히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내가 원하건대 이중은 부지런히 글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라. 아! 부친이 정으로 지어주고 스승이 중으로 공경하게 하였으니, 힘써 노력하라, 이중이여!”라고 하였다.

이사진의 자에 대한 설 [1929년]

李士進字說 [己巳]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70세에 법도에 넘지 않았다.¹⁷⁹⁾’는 것은 비록 성인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가르친 말이다. 그러나 주자는 이를 ‘반드시 홀로 그 나아감을 깨달았으나, 다른 사람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¹⁸⁰⁾’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아마도 ‘나이가 높을수록 덕도 더욱 높아진다.¹⁸¹⁾’라고 말한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비록 성인의 학문이

命也.]”라고 하였다.

179) 15세에 …… 않았다 : 《논어》〈위정〉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15세에 학문에 뜻을 두었고 …… 70세에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좇아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吾十有五而志于學 ……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고 하였다.

180) 반드시 …… 것이다 : 《논어집주》〈위정〉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이는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반드시 홀로 그 나아감을 깨달았으나, 다른 사람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是其日用之間, 必有獨覺其進而人不及知者.]”라고 하였다.

181) 나이가 …… 높아진다 : 한(漢)나라 양웅(揚雄)의 《법언(法言)》〈효지(孝至)〉에 “나는 그것을 전에서 들었으니, 늙으면 경계함이 얻음에 있고, 나이가 높을수록 덕도 더욱 높아져야 공자의 무리일 것이다.[吾聞諸傳, 老則戒之在得, 年彌高而德彌邵者, 是孔子之徒與.]”라는 말이 나온다.

나이를 따라 진보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거늘, 하물며 보통사람에게 있어서이겠는가.

옛날에 20세가 되면 관례(冠禮)를 행하고, 관례를 행한 뒤에 비로소 성인(成人)으로서의 책임을 요구한 것은 그의 학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진보하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씨의 아들 강년(康年)이 나이 14세에 관례를 하고 그 스승 가석(可石) 박공이 사진(士進)으로 자(字)를 지어주었는데, 나에게 그 의미를 대신 기술하게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사진은 진실로 훗날하게 빼어나면서 조숙한 자이다. 다만 널리 배우며 효제(孝悌)의 도리를 힘써 행하는 것이 옛사람의 약관(弱冠) 때와 같은지 모르겠다.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학문이 함께 진보하는 자는 천지가 부여한 이기(理氣)를 잃지 않고, 부모가 생성해준 은애(恩愛)를 저버리지 않아서 등근 얼굴에 네모난 발로 우뚝 똑바로 서서, 아래를 굽어보고 위를 우러러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학문이 진보하지 않은 자는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많이 허비하여, 다함이 없는 양식을 먹으면서도 남을 이롭게 하는 품행과 재능이 없고, 오랫동안 해와 달의 광명을 보고 풍정(風霆)의 고동(鼓動)을 듣고도 사물의 이치에는 견문이 어두워 천지와 부모가 생성해주고 가르쳐 길러준 은혜를 저버리고, 신묘한 마음과 선한 본성으로서 온갖 이치를 갖춘 천품을 스스로 버린 채 다만 조교(曹交)처럼 키만 크고¹⁸²⁾ 원양(原壤)처럼 늙음¹⁸³⁾으로써 오만하게 스스로 높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이다.

사람이 스스로 처할 곳을 택하는 자는 장차 어디에 처해야 하겠는가.

182) 조교(曹交)처럼 …… 크고 : 《맹자》〈고자 하(告子下)〉에 “조교가 묻기를 ‘사람은 모두 요순이 될 수 있다 하니,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니, 맹자가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조교가) ‘제가 듣건대 문왕은 (신장이) 10척이고, 탕입금은 9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신장이 9척 4촌이지만 곡식만 먹을 뿐이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曹交問曰: ‘人皆可以爲堯舜, 有諸?’, 孟子曰: ‘然.’ ‘交聞 文王十尺, 湯九尺, 今交九尺四寸以長, 食粟而已, 如何則可?’.]”라고 한 데서 나왔다.

183) 원양(原壤)처럼 늙음 : 《논어》〈현문〉에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고, 장성해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없고, 늙어서도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다.[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라고 하면서 친구 원양을 꾸짖은 공자의 말이 나온다.

지금 사진은 나이가 비록 적지만 오히려 성인이 학문에 뜻을 두었던 때에 이르렀고, 비록 기품(氣稟)이 가지런하지 않아서 차례를 따라 정진할 수 없지만, 한결같이 성인이 마음과 본성을 돌아본 것처럼 한다면 성인과 똑같이 될 것이다. 만일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장성해서부터 늙을 때까지 차근차근 부지런히 자신의 재능을 다하여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비록 중도에 맞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이다. 스승 가석(葛)자를 지은 뜻이 어찌 여기에 있지 않겠는가. 사진은 힘써 노력하라!

귀질 극범의 자에 대한 설 [1922년]

龜姪克範字說【壬戌】

거북아! 너는 사령(四靈)¹⁸⁴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낙서(洛書)¹⁸⁵는 큰 이치인데 하늘이 반드시 너에게 이를 드러내고, 우(禹)임금과 기자(箕子) 같은 성인이 이를 취하여 <홍범(洪範)>¹⁸⁶을 부연(敷衍)하였으니, 기이하도다.

형귀(炯龜)야! 너는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자가 아니냐. 인도(人道)가 <홍범>에 크게 갖춰져 있는 만큼 반드시 이를 능히 다한 뒤에 가장 신령스러운 자가 되는 데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니, 쉽겠는가. 그러므로 형귀의 이름에 ‘극범(克範)’으로 자(字)를 지었으니, 이 <홍범>을 능히 잘하여 많은 사람들보다 걸출하기를 영귀(靈龜)가 (모든) 곤충 중에 빼어난 것과 같게 하라. <홍범>의 도가 광대하여 요령으로는 어렵다. 절실하고 가까운 일에 착수하되 마땅히 이오사(二五事)¹⁸⁷로부터 시작해야 하니, 이는 또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거북이는 장수하는 동물이고, 수(壽)는

184) 사령(四靈) : 네 가지 신령한 동물로, 용(龍), 봉황(鳳凰), 기린(麒麟), 거북을 말한다.

185) 낙서(洛書) : 하(夏)나라 우(禹)임금이 홍수(洪水)를 다스릴 때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의 등에 쓰여 있었다는 글이다.

186) <홍범(洪範)> : 낙서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서경》<주서(周書)>의 편명이다.

187) 이오사(二五事) : 《서경》<홍범>에서 홍범구주(洪範九疇)의 한 조목으로, 모(貌), 언(言), 시(視), 청(聽), 사(思)를 말한다.

〈홍범〉의 오복(五福)¹⁸⁸⁾ 가운데 으뜸이니, 거북이처럼 (장수하고) 〈홍범〉에 능하면 이른바 ‘길이 천명에 합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다.’¹⁸⁹⁾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설을 지어서 장수와 복의 축원을 대신한다.

정통론 상 [1944년]

正統論上【甲申】

정(正)은 천하를 정도로써 얻은 것이고, 통(統)은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니, 비록 통일했지만 정도로써 얻지 않았다면 정통(正統)이 될 수 없고, 비록 정도로써 얻었지만 통일하지 못했다면 정통이 될 수 없다. 한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아 이러한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삼대(三代 하운주(夏殷周)) 이외에 정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漢)나라와 명(明)나라뿐이다. 예를 들면 당(唐)나라가 정치를 밝히고 송(宋)나라가 관인(寬仁)을 숭상하여 국운을 장구하게 누렸지만, 그들이 정도로써 얻지 않은 것은 동일하니 또한 정통에 들어갈 수 없다.

문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범례(凡例)에 어긋나는 것이니¹⁹⁰⁾, 어찌하겠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의리(義理)는 천하의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리를 잘 살펴보는 자는 오직 옳은 것만을 좇고,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는지는 묻지 않는다. 《자치통감강목》에서 이미 진(秦)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가 정도로써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들 나라가 능히 통일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인정한

188) 오복(五福) :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호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으로, 수가 첫 번째이다.

189) 길이 …… 길이다 : 《시경》〈대아(大雅) 문왕(文王)〉에 “너의 조상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 덕을 닦을지이다. 길이 천명에 합하는 것이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 길이니라.[無念爾祖, 聿修厥德. 永言配命, 自求多福.]”라고 하였다.

190)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의 …… 것이니 :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서는 당나라를 정통으로 분류하였다.

것은¹⁹¹⁾ 이러한 예를 미룬 것이다. 만일 신(新)을 세운 왕망(王莽)¹⁹²⁾이 처형되지 않고 나라를 자손에게 전해주었다면¹⁹³⁾ 또한 장차 정통으로 인정하겠는가. 이 때문에 나는 《자치통감강목》을 미완성의 책이라고 본다. 주자도 진실로 수정(修正)하지 못한 것을 한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무릇 《시경》 중에서 정(正)이 될 수 없는 것은 변풍(變風)과 변아(變雅)¹⁹⁴⁾가 되니, 진(秦)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당(唐)나라, 송(宋)나라를 변통(變統)이라 이르면 진실로 옳을 것이다.

사군자가 입론(立論)할 때 마땅히 충분히 지당(至當)한 것으로 귀결시켜 선에 권장하는 바를 두고 악에 징계하는 바를 두게 하면, 저 사지(私智)와 강한 힘으로 못하는 것이 없이 천하를 취하는 자일지라도 오히려 후세의 사책(史策)에서 비난하고 주벌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예를 들면 조조(曹操)가 한나라 제위(帝位) 결을 배회하면서도 감히 바로 취하지 못한 것과 같다.¹⁹⁵⁾ 그러나 선비 가운데 붓을 잡은 자가 다만 정(正)과 부정(不正)을 궁구하지 않고 그 이론 것만 보고 정통으로 인정한다면 무엇을 권장하고 경계할 것인가. 만일 《자치통감강목》을 편찬하는 날에 이러한 말로써

191) 《자치통감강목》에서 …… 것은 : 주자는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서 “무릇 정통은 주(周)나라, 진(秦)나라, 한(漢)나라, 진(晉)나라, 수(隋)나라, 당(唐)나라를 이른다.[凡正統, 謂周秦漢晉隋唐.]”라고 하였다.

192) 왕망(王莽) : B.C.145~A.D.23. 전한의 정치가이다. 자는 거군(巨君)이다. 자신이 옹립한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제위를 빼앗아 국호를 신(新)으로 명명하였다. 한(漢)나라 유수(劉秀)에게 피살되었다. 재위 기간은 823년이다.

193) 신(新)을 …… 전해주었다면 :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서는 왕망을 ‘찬적(篡賊)’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정통에게서 찬위(篡位)했지만 자손에게 전하지 못한 것을 이른다.[謂篡位于統, 而不及傳世者.]”라고 하였다.

194) 변풍(變風)과 변아(變雅) : 《모시(毛詩)》〈대서(大序)〉에 “왕도가 쇠퇴하여 예의가 폐해지고 정교가 잘못되니 나라마다 정치가 다르고 집집마다 풍속이 달라져서 변풍과 변아가 지어졌다.[至于王道衰, 禮儀廢, 政教失, 國異政, 家殊俗, 而變風變雅作矣.]”라고 하였다. 《시경》에서 변풍(變風)은 〈괘풍(邶風)〉부터 〈빈풍(邠風)〉까지 13개국의 작품을 가리키며, 변아(變雅)는 〈소아(小雅) 유월(六月)〉 이후의 작품을 이르는 변소아(變小雅)와 〈대아(大雅) 민로(民勞)〉 이후의 작품을 이르는 변대아(變大雅)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195) 조조(曹操)가 …… 같다 : 조조는 중국(中國) 후한(後漢) 말기(末期)의 무장(武將)으로서 제위를 차지하고 싶어하면서도 명분과 의리를 두려워하여 찬탈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그의 아들 조비(曹丕)가 찬탈하였다.

명백히 아뢰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면, 주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를 따르지 않았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라고 하였다.

묻기를 “그대의 말과 같다면 후세에 다시는 정통이 없이 몇천 년의 변통 가운데 지나가 버릴 것이니,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90일간의 봄에 맑은 날이 항상 적고 예로부터 어지러운 날이 항상 많으니, 세상에 변이 많고 정이 적은 것도 이러한 이치이다. 우선 변통이라고 말하지 말라. 비록 무통(無統)¹⁹⁶이라도 어찌하겠는가. 육조(六朝)¹⁹⁷, 오계(五季)¹⁹⁸와 지금의 천하는 다만 무통일 뿐이다. 그러나 한나라가 망한 때부터 명나라가 일어날 때까지 천여 년에 비로소 정통이 있게 되었으니, 또한 어찌 후대에 결국 정통이 없는 것을 근심하겠는가. 만일 지금 세상에 정도로써 천하를 얻어 왕노릇 하는 자가 있다면, 어찌 정통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묻기를 “이러한 것은 옳다. 또 주자가 천하를 통일시키지 못하면 또한 정통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자치통감강목》에서 촉한(蜀漢)의 정통에 대해서 다른 말이 없으니¹⁹⁹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비록 천하를 잃고 겨우 한쪽 모퉁이를 보존하였지만, 그 선대의 전통이 그래도 남아 있어 진실로 없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빼앗을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비방하겠는가. 다만 《자치통감강목》에서 동주(東周)의 임금²⁰⁰이

196) 무통(無統) : 《자치통감강목》의 범례에서 무통(無統)은 주(周)와 진(秦) 사이 24년, 진(秦)과 한(漢) 사이 4년, 한(漢)과 진(晉) 사이 16년, 진(晉)과 수(隋) 사이 170년, 수(唐)와 당(隋) 사이 5년, 오대(五代) 53년을 이른다.

197) 육조(六朝) : 양자강 남쪽의 건강(建康)에 도읍을 정한 오(吳)와 동진(東晉), 그리고 남조(南朝)의 송(宋), 제(齊), 양(梁), 진(陳)을 가리킨다.

198) 오계(五季) : 오대(五代)이다. 당말(唐末)의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를 가리킨다.

199) 촉한(蜀漢)의 …… 없으니 : 사마광은 《자치통감(資治通鑑)》에서 한 헌제(漢獻帝)가 폐위된 건안(建安) 25년부터 위(魏)를 정통으로 삼았는데, 주자는 《자치통감강목》에서 위의 기년(紀年)을 버리고 유비(劉備)가 세운 촉한을 정통으로 삼았다.

200) 동주(東周)의 임금 : 평왕(平王)이 견융(犬戎)을 피해 동쪽 낙읍(洛邑)으로 수도를 옮겼는데, 이후를 ‘동주(東周)’ 혹은 ‘성주(成周)’라고 한다. 이때부터 주 왕실의 힘은 약해졌고 정권은 제후에 의해 유지되어 제후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는 춘추시대로 접어들었다.

정통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하였다.

문기를 “동진(東晉)과 남송(南宋)은 어떠한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는 또한 마땅히 서진(西晉)과 북송(北宋)을 계승한 변통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정통론 하 [1944년]

正統論下【甲申】

문기를 “만일 중국의 백성들이 몰살되고 있는데, 이적(夷狄)²⁰¹의 임금이 들어와 주인이 되어 인과 덕으로 포악한 난을 제거하고 온 백성을 다스려 천하를 모두 소유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여 임금으로 삼을 것이다. 또 선왕(先王)의 도를 준수하여 윤상(倫常)과 예악이 한결같이 바른 데서 나온다면 마땅히 정통으로 인정해야 하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춘추(春秋)》의 의리가 그렇지 않은가. 이적이 중국(中國)으로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우하고, 중국이 오랑캐로 들어가면 오랑캐로 대우하니²⁰², 이것은 판단할 수 있다. 대개 중화(中華)와 오랑캐의 구분은 도와 부도(不道), 예와 비례(非禮)에 있고, 지역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늘이 낳아주고 땅이 길러주는 바이니,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이 사람이다. 오성(五性)²⁰³, 칠정(七情)²⁰⁴, 구구(九竅)²⁰⁵, 백해(百骸)²⁰⁶는 (이 중에서) 한쪽은 온전하고

201) 이적(夷狄) : 동방(東方)의 오랑캐와 북방(北方)의 오랑캐를 말한다.

202) 이적이 …… 대우하니 : 《고문진보전집(古文眞寶後集)》 권2 <원도(原道)>에서 한유(韓愈)가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제후가 오랑캐의 예법을 사용하면 오랑캐로 대우하고, 오랑캐가 중국으로 나아가면 중국으로 대우하였다.[孔子之作春秋也, 諸侯用夷禮則夷之, 夷而進於中國則中國之.]”라고 말한 내용이 나온다.

203) 오성(五性)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을 가리킨다.

204) 칠정(七情) : 희(喜), 노(怒), 애(哀), 구(懼), 애(愛), 오(惡), 욕(欲)을 가리킨다.

205) 구구(九竅) : 사람의 몸에 있는 아홉 개의 구멍을 가리킨다.

206) 백해(百骸) : 온몸을 이루는 모든 뼈를 가리킨다.

다른 쪽을 빠진 것이 아니니, 어찌 내외와 원근의 다름이 있겠는가. 도와 예에 맞으면 비록 오랑캐의 종족일지라도 중화와 같고, 도와 예에 맞지 않으면 비록 중화의 종족일지라도 오랑캐와 같으니, 정통을 이루었는데도 오직 지역과 인종을 구별하여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이 어찌 천지의 지극히 공평한 마음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묻기를 “여후(女后 황후)는 어떠한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하늘이 부여한 남녀의 모습과 음양은 이미 정해졌고, 대소(大小), 장단(長短), 동정(動靜), 강약(強弱)은 원래 준비의 지위가 있는데, 어찌 여자가 장부의 위에 올라 임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는 여치(呂雉)²⁰⁷와 무조(武曌)²⁰⁸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뒤에 큰 변고가 될 것이니, 비록 현명하고 지혜로움이 있을지라도 지아비와 아들이 천자가 되는 것을 정당하게 보좌해야 할 뿐이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임금이 되었다면 이는 이미 큰 변고이니, 또 무슨 정통의 여부를 논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숙손통론【1908년】

叔孫通論【戊申】

근씨(靳氏 근재지(靳裁之))가 말하기를 “선비의 등급에 세 가지가 있으니, 도덕(道德)에 뜻을 둔 자는 공명(功名)이 그 마음을 괴롭힐 수 없고, 공명에 뜻을 둔 이는 부귀(富貴)가 그 마음을 괴롭힐 수 없으며, 부귀에만 뜻을 둔 자는 못하는 것이 없다.²⁰⁹”라고 하였으니, 공자가 말한 고루한 사람이다. 한

207) 여치(呂雉) : ?~B.C.180. 한 고조의 황후이다. 고조를 보좌하여 진(秦)나라 말기에서 한(漢)나라 초기의 국난을 수습하였으나, 고조가 죽은 뒤 실권을 장악하여 유씨 일족을 압박하여 그의 사후에 여씨(呂氏)의 난을 초래하였다.

208) 무조(武曌) : 624~705. 당나라 고종의 황후이다. 중국 역사에서 유일한 여제(女帝)로 고종을 대신하여 실권을 쥐고, 두 아들을 차례로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으며, 스스로 제왕의 자리에 올라 국호를 주(周)로 고치고 성신 황제(聖神皇帝)라 칭하였다.

209) 선비의 …… 없다 : 《논어집주》〈양화(陽貨)〉에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漢)나라의 숙손통(叔孫通)²¹⁰이 예악(禮樂)을 만들려고 할 때 이를 따르지 않는 노(魯)나라 유생들에 대해 고루한 선비라고 하였는데, 내 입장에서 논하면 노나라 유생들이 고루한 선비가 아니고 숙손통이 고루한 선비이다.

도학(道學)이 쇠퇴한 때로부터 열국(列國)의 시대에 자신의 재능을 자랑하여 좋은 값에 팔려 하고, 무덤가에서 구걸하면서 배불리 먹는 선비가 서로 이어졌다. 아침에는 위(魏)나라에서, 저녁에는 진(秦)나라에서 신하가 되고, 오늘은 제(齊)나라를, 다음 날은 초(楚)나라를 섬겼으니, 그 권모(權謀)와 변설(辯說)하는 무리를 진실로 도리로 일일이 꾸짖을 수 없다.

숙손통 같은 경우에는 성현의 글을 외우고 본받은 몸으로서 분서갱유(焚書坑儒)한 조정을 섬겨서 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하는 아부의 말을 바치고²¹¹, 유관(儒冠)에 오줌을 눈 자에게 굽혀²¹²서 초(楚)나라 복식의 짧은 옷으로 바뀌 입었으니²¹³, 구차하게 녹과 이익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파리가 냄새를 맡고 개가 쌀겨를 핥는 것과 같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진나라에 아부하여 그것을 얻었고, 끝내 얻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면 초나라로 돌아갔으며, 초나라에서 얻지 못하면 또 한나라로 돌아갔다.

‘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한다.’는 말을 보니, 생사(生死)가 앞에 닥치면 부(父)와 군(君)을 시해할지라도 장차 좇을 것이고, ‘초(楚)나라 복식의 짧은 옷으로 바뀌 입었다.’는 행위를 보니, 부귀(富貴)를 얻을 수 있다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좌임하는 오랑캐의 풍습을 따를지라도 꺼리지 않을 것이니,

210) 숙손통(叔孫通) : 진(秦)나라 말에서 한(漢)나라 초기에 활동한 문신이다. 호는 직사군(稷嗣君)이다. 한 고조(高祖) 때 조의(朝儀)를 제정하였으며, 혜제(惠帝) 때 종묘(宗廟) 등의 의법(儀法)을 정하고 태자 태부(太子太傅)를 지냈다.

211) 쥐가 …… 바치고 : 진승(陳勝)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숙손통이 이들의 무리를 쥐가 도둑질하고 개가 도둑질하는[鼠竊狗盜] 정도여서 근심할 것이 못 된다고 속이자 진이세(秦二世)가 기뻐하였다. 《사기》 권99 <숙손통열전(叔孫通列傳)>

212) 유관(儒冠)에 …… 굽혀 : 《사기》 권97 <역생육가열전(酈生陸賈列傳)>에 “패공이 유사를 좋아하지 않아 제객(諸客) 가운데 유관을 쓰고 오는 자가 있으면, 매번 패공이 그 관을 벗기고 그 안에 소변을 보았다.[沛公不好儒, 諸客冠儒冠來者, 沛公輒解其冠, 溲溺其中.]”라는 말이 나온다.

213) 초(楚)나라 …… 입었으니 : 《사기》 권99 <숙손통열전>에 “숙손통이 유생의 옷을 입고 있어 한왕이 몹시 싫어했다. 이에 그 옷을 바꿔 짧은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초나라의 복식이라 한왕이 기뻐했다.[叔孫通儒服, 漢王憎之. 乃變其服, 服短衣, 楚制, 漢王喜.]”라는 말이 나온다.

조금 전에 이른바 ‘비루한 사람은 못하는 것이 없는 자이다.’라고 한 것은 숙손통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노나라 유생이 ‘공이 열 명의 임금을 섬기고, 면전에서 아첨하여 귀함을 얻었다.’라고 꾸짖은 것은 바로 죄를 헤아려 범죄의 실정을 알아낸 것이다. 그가 만일 양심이 있다면 장차 부끄러워 죽을 겨를도 없을 것이거늘 도리어 고루한 선비라 이르고 이들을 비웃었다. 이는 노나라 유생이 시세를 좇지 않으려는 것이 고루함이 되는 줄만 알고, 자신의 더러운 행실이 고루함이 되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또한 우습지 않은가.

이 때문에 나는 “숙손통이 예악을 제정하는 것은 바로 백정의 집에서 예불(禮佛)하고, 기생의 집에서 《예기(禮記)》를 읽는 것이다.”라고 하겠다. 아! 선유(先儒) 중에 숙손통을 도적 같은 선비로 여기는 자가 있으니, 내가 도적 같은 선비에 대해서 또 무슨 논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다만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말하기를 “숙손통은 시대의 요구에 맞춰 급한 일을 생각했으며, 예를 만들고 진퇴를 시세의 변화에 맞추어 마침내 한나라 유학의 종정(儒宗)이 되었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길은 원래 구불구불한 것이니, 아마 숙손통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²¹⁴⁾”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태사공의 잘못된 장려를 괴이하게 여겼으니, 분서갱유한 진나라를 섬기고 면전에서 아부하는 말을 바친 자를 유종(儒宗)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아침에는 진나라를 섬겼다가 저녁에는 초나라를 섬기고, 저녁에는 초나라를 섬겼다가 아침에는 한나라를 섬긴 자를 유종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법복(法服)을 버리고 짧은 옷을 입은 자를 유종이라고 이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동중서(董仲舒)²¹⁵⁾와 유향(劉向)²¹⁶⁾ 등 제유(諸儒)도 그를 높여서 한나라의 유종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

나는 후세 사람들 가운데 시세(時勢)를 바라면서 행동이 개나 돼지와 같은데도 스스로 법도를 제정하여 천하에 이익과 혜택을 준다고 여기며

214) 숙손통은 …… 것이다 : 《사기》 권99 <숙손통열전>에 나온다.

215) 동중서(董仲舒) : B.C.176~B.C.104. 호는 계암자(桂巖子)이고, 중국 전한(前漢)의 유학자이다.

216) 유향(劉向) : B.C.77~B.C.6. 자는 자정(子政)이고 중국 전한 시대의 학자이다.

뻔뻔하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실로 태사공이 숙손통을 칭찬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이러한 것을 논한 것은 숙손통 때문이 아니고 태사공 때문이다.

한 문제가 두광국을 승상으로 삼지 않은 것에 대한 변론 [1926년] 漢文帝不相竇廣國論【丙寅】

두루 함께 하는 것을 공(公)이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사(私)라 하며, 이(理)를 따르는 것을 공이라 하고 정(情)을 따르는 것을 사라 하니, 공은 본디 공이고 사는 본디 사이다. 그런데 또한 공 같으면서도 공이 아니고 사 같으면서도 사가 아닌 것이 있으니, 의도를 갖고 공을 행하는 것은 공 같으면서도 공이 아니고, 혐의(嫌疑)를 피하지 않은 것은 사 같으면서도 사가 아닌 것이다.

한 문제(漢文帝)가 두광국(竇廣國)을 승상으로 삼지 않은²¹⁷⁾ 경우는 의도가 있는 공이고 혐의를 피하는 사일 것이다. 천하의 치란(治亂)은 승상에게 달렸고, 승상의 훌륭한지 여부는 덕에 달렸으니, 그 쓰고 버리며 임용하고 파직하는 것을 마땅히 천하와 함께 공정하게 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이 현명하다면 친해도 쓰고 소원해도 써야 하지만, 그 사람이 현명하지 않다면 친해도 쓰지 말고 소원해도 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 진실로 친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는 자를 잘못 써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정을 따르는 사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한 친하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을 버리고 쓰지 않아서 의도를 두고 혐의를 피하는 사로 귀결되어서도 안 된다.

두광국의 현명함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이미 어질고 덕행이 있다고 하였으니, 마음속으로 조정의 신하 중에서 그보다 나은 자가 없다고 여겼을

217) 한 문제(漢文帝)…… 않은 : 《사기(史記)》 권96 <장승상열전(張丞相列傳)>에 “효 문제가 황후의 아우 두광국(竇廣國)을 승상으로 삼을 생각을 하고 말하기를 ‘천하 사람들이 내가 그를 편애한다고 할까 두렵다.’라고 하였다. 두광국은 재능이 있고 덕행이 있기 때문에 그를 승상으로 삼고자 한 것이었으나, 오랫동안 이 일을 생각한 후에 옳지 않다고 여겼다.[孝文帝欲用皇后弟竇廣國爲丞相曰: ‘恐天下以吾私廣國.’ 廣國賢有行, 故欲相之, 念久之不可.]”라는 내용이 나온다.

것인데, 다만 황후의 동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사롭게 편애한다고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생각하다 임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천하의 치란과 관계된 막중한 승상을 임용하지 않고 이리저리 따지고 헤아린 구구한 일개 뜻을 굽혀 따른 것이니, 그 공을 하고자 한 것이 실제로는 공이 아니고, 사를 없게 하고자 한 것이 바로 참으로 사가 되었다. 그러니 자기 하나의 몸도 오히려 이처럼 어찌할 수 없는데, 어찌 죽히 현명한 자들을 모두 등용하여 천하를 태평성대에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요임금이 그 사위에게 천하를 전해 준 것²¹⁸과 무왕이 그 아우에게 총재(冢宰)를 맡긴 것²¹⁹을 보지 않는가. 아우와 사위의 친함은 황후의 동생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세상 사람들은 요임금과 무왕에게 사사로움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고, 순임금과 주공이 함부로 받았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순임금과 주공의 재능이 맡길 만하여 요임금과 무왕의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다. 내 생각에 문제가 혐의를 피하여 두광국을 등용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일찍이 도를 묻고 선을 밝히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체득한 것이 없어서 내적으로 스스로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혹자가 문기를 “척원(戚畹)²²⁰의 화는 국세(國勢)에 있어서 반드시 이르는 것이니, 문제가 이렇게 한 것은 여러 여씨의 난²²¹을 거울삼아 기미와 조짐을 막으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써 방비하였는데도 오히려 왕망(王莽)의 화²²²가 있었으니, 문제가 미리 내다보고 알았다고 이를 수 있을 것이다.”

218) 요임금이 …… 것 : 《서경》〈우서(虞書) 요전(堯典)〉의 소서(小序)에 “옛날 제요(帝堯)가 충명하고 문채나고 사려가 깊어 덕이 천하에 충만하였는데, 장차 지위에서 물러나 우순(虞舜)에게 양위(讓位)했다.[昔在帝堯, 聰明文思, 光宅天下, 將遜于位, 讓于虞舜.]”라고 하였다.

219) 무왕이 …… 것 : 《서경》〈주서(周書)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주공이 총재로 있으면서 백공[百官]을 바로잡았다.[惟周公位冢宰, 正百工.]”라고 하였다.

220) 척원(戚畹) : 척리(戚里)와 같은 말로, 임금의 내척과 외척을 뜻한다.

221) 여러 …… 난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황후(皇后)인 여태후(呂太后)가 죽자, 주발(周勃)과 진평(陳平) 등이 함께 도모하여 여산(呂產)과 여녹(呂祿)을 주살하고, 모든 여씨의 남녀를 모두 잡아 참살(斬殺)하였다. 《한서(漢書)》 권97 〈외척전상(外戚傳上)〉

222) 왕망(王莽)의 화 : 왕망은 한나라 효원황후(孝元皇后)의 생질이었었는데, 뒤에 평제(平帝)를 시해하고 유자영(孺子嬰)을 세워 섭정하면서 가황제(假皇帝)라고 칭하였다. 뒤이어 찬탈하고 국호를 신(新)이라고 하였는데, 재위 15년 만에 광무(光武)의 정벌을 받고 죽음을 당했다. 《한서(漢書)》 권99 〈왕망전(王莽傳)〉

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후대의 근심거리를 염려하여 현명한 사람을 등용해서 다스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뒷날 목이 메일 것을 걱정하여 먼저 스스로 음식 먹기를 그만두는 것이니, 어찌 옳은 것이겠는가. 게다가 종실(宗室)에는 관숙(管叔)과 채숙(蔡叔)²²³이 있고, 소원한 자로는 동탁(董卓)²²⁴과 조조(曹操)²²⁵가 있었으니, 예로부터 국가에 재앙을 미친 자가 어찌 모두 척원이겠는가. 그러나 문제의 염려가 이러한 데에서 나왔다면 그러한 견해가 비록 반드시 옳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마음은 알 수 있을 뿐이니 내가 어찌 구차하게 헐뜯겠는가. 다만 하나의 ‘사(私)’자를 높힌 것이 됨을 벗어날 수 없을 뿐이니, 이는 문제가 문제가 되는 까닭일 뿐이기에 나의 의론이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 문제가 옥배를 얻고 개원한 것에 대한 변론 [1926년]

漢文帝得玉杯改元論【丙寅】

원(元)을 바꿀 수 있는가.²²⁶ 원을 바꿀 수 있다면 명(名)과 실(實)이 문란해진다. 옥을 보배로 여길만한가. 옥을 보배로 여길만하면 보배로 여기는 것은 현인이 아니다.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가. 수명을 연장할 수

223) 관숙(管叔)과 채숙(蔡叔) :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두 아우이다. 무왕이 죽고 성왕(成王)이 어려서 주공(周公)이 섭정하자, 관숙과 채숙이 주공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뒤에 은(殷)나라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과 함께 모반하였는데, 주공이 성왕의 명을 받들어 관숙과 무경을 죽이고, 채숙을 내쫓았다. 《사기》 권35 <관채세가(管蔡世家)>, 《서경》 <주서 금등(金縢)>, <주서 채중지명(蔡仲之命)>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224) 동탁(董卓) : 139~192. 중국 후한(後漢)의 정치가이다. 자는 중영(仲穎)이다. 농서군(隴西郡) 임조현(臨洮縣) 출신이다. 소제(少帝)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헌제(獻帝)를 옹립한 뒤에 공포정치를 행해 후한(後漢)의 멸망을 가속화하였다. 그러나 폭정을 일삼아 반동탁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으며, 결국 양자인 여포(呂布)에게 죽임을 당했다.

225) 조조(曹操) : 155~220. 중국(中國) 후한(後漢) 말기의 무장(武將)이다. 본성은 하후(夏侯)이고 자는 맹덕(孟德)이다. 황건적의 난을 다스려 군공(軍功)을 세웠다. 원소(袁紹)와 같이 도적과 흉노를 토벌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동탁(董卓)의 사후 정권을 장악하였다.

226) 원(元)을 …… 있는가 : 기년(紀年)을 고쳐 쓰는 것으로, 왕조가 바뀌어 연호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있다면 요절과 장수를 의심하는 것이니, 도를 해치고 폐를 끼침이 크다. 당시 세상의 군주는 진실로 꾸짖을 것이 없지만, 한 문제(漢文帝)는 고급에 현군(賢君)이라고 일컫는 자인데도 ‘연수(延壽)’라는 글자가 새겨진 하나의 옥배(玉杯)를 얻고 갑자기 원년(元年)을 바꿔 버렸으니²²⁷⁾, 내가 일찍이 그가 실리(實理)에 우매하여 신기한 기물에 미혹된 것에 대해서 애석하게 여겼다.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어진 이를 장수하게 하는 것이 비록 이치상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지만 하늘이 정성스럽게 명하여 주는 것이 아니다. 요임금, 순임금, 삼왕(三王)²²⁸⁾의 덕이 저처럼 성대하지만 어찌 일찍이 하늘이 이와 같은 신기한 기물을 내리고 목숨을 늘려주며 복을 내려주었다고 경전에 드러난 것을 보았는가. 가령 문제가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은 신물(神物)을 직접 보았을지라도 이를 아득히 알 수 없는 것으로 부쳐야 할 뿐이다.

만일 혹시 이를 하늘이 준 것으로 믿는다면 더욱 겸손하고 공손하며 힘써 노력할 것을 생각하여 결국 신의 은혜에 부응(副應)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갑자기 이 물건을 보고 문득 ‘상제가 나의 덕을 보고 이러한 큰 상서로움을 내려주었다.’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는 신원평(新垣平)²²⁹⁾의 거짓을 살필 겨를도 없이 만족스럽게 자만하여 옛날의 법을 파괴하고, 오히려 원년(元年)을 바꿔버리는²³⁰⁾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면 그리도 미혹하고 교만한가.

227) ‘연수(延壽)’라는 …… 버렸으니 : 《사기》 권10 〈효문본기(孝文本紀)〉에 “(문제) 17년(B.C.163년)에 옥으로 된 잔을 얻었는데 ‘임금이 장수하리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천자는 이 해를 원년(元年)으로 바꾸고 전국에 연회를 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그 해에 신원평(新垣平) 사건이 발각되어 삼족을 멸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228) 삼왕(三王) : 하(夏)나라의 우(禹)임금, 은(殷)나라의 탕(湯)임금, 주(周)나라의 문왕(文王)과 무왕(武王)을 가리킨다

229) 신원평(新垣平) : 한 문제(漢文帝) 때 망기술(望氣術)을 가지고 문제에게 등용되어 벼슬이 상대부(上大夫)에 이르렀다. 나중에 그의 말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나서 멸족되었다.

230) 원년(元年)을 …… 바꿔버리는 : 한 문제 17년(B.C.163년)에 후원(後元) 원년으로 정하였다. 이를 후원년(後元年)이라고 하였고 그 전에는 숫자 앞에 ‘전(前)’자를 붙였다. 따라서 문제 때에 전과 후, 두 개의 연호가 있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이후로 원정(元鼎)²³¹과 신작(神爵)²³²의 등속이 어지럽게 일어나, 무제(武帝)의 말기에 선장(仙掌)이 백량대(柏梁臺)에 우뚝 서 있고²³³ 임금이 바닷가를 두루 돌아다녀 재물과 화폐를 낭비하여 천하의 재화가 모두 고갈되어 거의 멸망하게 되었으니, 애초에 문제가 이러한 것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문제가 몸소 현묵(玄默)²³⁴을 닦고 절검(節儉)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한나라에서 제일 정치를 잘한 군주인 것만 알고, 그가 신이한 보물에 미혹되어 복을 받고 법을 파괴하여 후세에 무궁한 폐단을 열어준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을 지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어찌 악한 마음이 있었겠는가. 그가 학문의 기회를 놓쳐서 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아! 왕자(王者)는 다른 사람보다 배우지 않으면 매우 안 되는 것이 이리하다.

직불의가 금을 사서 보상해준²³⁵ 것에 대한 변론[1926년] 直不疑償金論【丙寅】

군자가 만사에 응하는 것은 정직[直]일 뿐이니, ‘옳은 것은 옳다.’, ‘그른

231) 원정(元鼎) : B.C.116년부터 B.C.111년까지 6년 동안 사용되었던 한 무제의 다섯 번째 연호이다. 《한서(漢書)》 권64 <오구수왕전(吾丘壽王傳)>

232) 신작(神爵) : B.C.61년부터 B.C.58년까지 한 나라 선제(宣帝)가 쓴 연호의 하나이다. 신작(神雀)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연호를 개정했다. 《한서》 권89 <순리전(循吏傳) 황패(黃霸)>

233) 선장(仙掌)이 …… 있고 : 한 무제(漢武帝)가 백량대(柏梁臺)를 쌓고 구리 기둥[銅柱]을 세워 이슬을 받는 선인장(仙人掌)을 그 위에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사기》 권12 <효무본기(孝武本紀)와 《후한서(後漢書)》 권40 <반표열전(班彪列傳)>에 보인다.

234) 현묵(玄默) : 사려가 깊고 과묵한 것을 뜻한다.

235) 직불의(直不疑) …… 주었다 : 한 문제 때 직불의가 낭관(郎官)으로 있었는데, 같은 방에 기숙하는 동료 낭관(郎官)이 자기의 금인 줄 착각하고 타인의 금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금을 잃어버린 낭관이 직불의를 의심하자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금을 사서 보상해 주었는데, 나중에 고향에서 돌아온 낭관이 금을 돌려주자 의심한 낭관이 크게 부끄러워했다는 내용이 《사기》 권103 <직불의열전(直不疑列傳)>에 나온다.

것은 그르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이라 한다. 직불의가 금을 사서 같은 방을 쓰던 낭관(郎官)에게 보상해 준 일에 대해 고금의 사람들이 ‘장자(長者)²³⁶⁾’라고 칭송하지만, 나는 정직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자는 미생고(微生高)가 식초를 빌려 어떤 사람에게 준 것 때문에 정직하지 않다고 여겼으니²³⁷⁾, 직불의가 금을 사서 낭관에게 보상해 준 것은, 그 마음이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생색을 낸 것은 아니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하여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알리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금을 잃어버린 낭관은 시정(市井)의 무뢰한 사람이 아니고, 직불의는 평소 더러운 행실로 일컬어짐이 없었지만, 관사(館舍)는 출입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을 잃어버린 낭관이 직불의를 의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직불의가 화내지 않고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니, 만일 사실대로 ‘내가 애초에 가져간 일이 없다.’라고 고했더라면, 그가 응당 억지로 사람을 다그치지 않았을 것도 짐작하여 헤아릴 수 있다. 얼마 있다가 단서가 드러나고 바로 의심을 받자마자 곧바로 사과하고 그에게 금을 보상해주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천성이 다투지 않는 것에는 뛰어나지만 정직하게 해야 하는 일에는 소홀해서일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과 다투면서 사이가 틀어지고, 사소한 이익 때문에 옥송(獄訟)을 일으키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남이 이제 막 나에게 악명을 뒤집어씌우려고 하는데 금과 재물로 보상하여, 당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 심복(心服)하게 하고 후대 사람들을 감동시켰으니, 그 아량과 높은 풍도는 탁월하여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장자’라고 기리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나 관유(寬柔)하고 인후(仁厚)한 사람을 ‘장자’라고 이르고, 이치에 합당하고 도를 다하는 사람을 ‘군자(君子)’라고 이르니, ‘군자’라고 하지 않고 ‘장자’라고 한 것은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236) 장자(長者) : 덕망 있고 노성(老成)한 사람을 말한다.

237) 미생고(微生高)가 …… 여겼으니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누가 미생고를 정직하다 하는가? 어떤 사람이 초를 빌리려 하였는데, 그가 이웃집에서 빌려다가 주는구나.[孰謂微生高直? 或乞醯焉, 乞諸其隣而與之!]”라고 하였다.

등유가 아들을 버린 것²³⁸⁾에 대한 변론 [1908년]

鄧攸棄子論【戊申】

아버지와 아들은 하늘이 정한 인륜이기 때문에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하니,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다면 모두 천리를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등유가 아들을 버리고 조카를 보존한 것을 천리를 어기고 불인(不仁)한 것으로 여기고, 또 상하 천여 년 동안 붓을 잡고 사람에 대해 논한자들 가운데 한마디 말로 깎아내려 배척한 자가 없는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혹자가 말하기를 “아들은 자기 한 사람이 사사로이 사랑하는 바이고, 형제는 부모의 아들이다. 등유가 자신의 아들을 버린 것은 죽은 아우의 아들을 온전히 하려고 한 것이니, 이는 자기의 사사로운 사랑 때문에 형제의 인륜을 해친 것이 아니라고 이를 수 있다. 정자(程子 정이천)가 이른바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자식보다 가볍다.’²³⁹⁾라고 한 것으로 말하면 바로 천리를 어기고 불인(不仁)한 것인데 지금 도리어 등유에게 이러한 죄를 뒤집어씌우니, 또한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한다.

등유가 아들을 버린 것은 진실로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지만 그 사이에서 일을 처리할 때 이치에 어긋나 자신도 모르게 절로 대죄(大罪)에 빠졌으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는가. 부모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보다 소중할지라도 천지의 큰 법으로 말하면 아들과 조카는 절로 경중이 있는데, 하물며 생사와 존망의 상황에서 어찌 차마 반대로 자기의 아들을 가볍게 여겨 버리고 조카를 소중하게 여겨 보존한단 말인가. 군자는 일을 처리할

238) 등유(鄧攸)가 …… 것 : 진(晉)나라 등유가 영가(永嘉) 말년에 석능(石勒)의 병란 때에 아들과 아우의 아들 수(綏)를 업고 피난하다가 둘을 모두 보호할 수 없겠 되자, 자기 아들은 버려 죽게 하고 먼저 죽은 동생의 아들을 대신 살렸는데, 그 뒤에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자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는 내용이 《진서(晉書)》권90 <등유전(鄧攸傳)>에 나오고, 《소학》<선행(善行)>에도 실려 있다.

239) 부모의 …… 가볍다 : 이천 선생이 이르기를 “유독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도리어 자신의 자식보다 가벼워, 심한 경우는 원수처럼 여기기도 한다. 온 세상이 다 이러하니, 몹시 미혹된 일이다. [獨愛父母之子, 却輕於己之子, 甚者至若仇敵. 舉世皆如此, 惑之甚矣.]”라고 하는 내용이 《이정유서(二程遺書)》권18과 《소학》<가언(嘉言)>에 나온다.

때에 미래의 성패를 묻지 않고, 오직 의리가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뿐이다. 그때를 당하여 등유를 위해 생각해 본다면, 아들과 조카를 모두 데리고 둘 다 온전히 하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아들과 조카가 모두 온전히 살 수 있었다면 진실로 좋았을 것이다.

설령 아들이 살고 조카가 죽었더라도 이미 죽은 아우를 저버린 것이 아니고, 조카가 살고 아들이 죽었더라도 천륜에 유감이 없으며, 불행히 둘 다 온전하지 못했더라도 이는 바로 나의 도를 다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한 몸의 소중한 것[아들]을 떼어놓아 도적들이 전쟁 중인 곳에 버렸으니, 이런 짓을 차마 하였단 말인가. 이런 짓을 차마 하였단 말인가.

만일 그 조카가 죽은 형의 아들로 종묘의 제사를 주관하는 자라면, 의가 있는 곳에 정(情)은 때로 빼앗긴다²⁴⁰⁾는 것을 혹시 행할 수 있어 오히려 등유를 위한 변명의 여지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천리를 어기고 불인하다는 이름을 덮어씌우고 싶지 않더라도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주자가 《소학》에 기록하려고 하지 않았는데²⁴¹⁾, 결국 유자징(劉子澄)²⁴²⁾이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240) 의가 …… 빼앗긴다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대인은 말은 믿게 하기를 기필하지 않고, 행실은 과단성 있게 하기를 기필하지 않으며, 오직 의가 있는 데로 한다.[大人者，言不必信，行不必果，惟義所在.]”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주자는 《맹자집주》에서 “대인은 언행이 먼저 믿게 하고 과단성 있게 하기를 기필하지 않으며, 다만 의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른다.[大人，言行，不先期於信果，但義之所在，則必從之.]”라고 하였다.

241) 주자가 …… 않았는데 : 주희는 이 일에 대해 유자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식을 나무에 매어놓고 간 일은 너무 심한 일인 듯하니, 이런 일은 마땅히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 그 일을 다 제거할 생각이 없다면, 자식을 버린 앞의 이야기만 제거해도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35 〈여유자징서(與劉子澄書)〉

242) 유자징(劉子澄) : 유청지(劉淸之, 1134~1190)이다. 남송 임강군(臨江軍) 사람으로 자정은 그의 자이고, 호는 정춘선생(靜春先生)이다. 주희의 문인으로 《소학》을 편찬할 때 주희의 감수 아래 유자징이 편집에 참여하였다.

우산을 매입한 것²⁴³에 대한 변론 [1940년]

買牛山論【庚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에 모두 “성인(聖人)은 반드시 미리 안다.”라고 하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성인이 반드시 미리 안다면, 요임금이 사흉(四凶)²⁴⁴을 등용하지 않았을 것이고,周公(周公)은 관숙(管叔)과 채숙(蔡叔)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²⁴⁵이며, 공자는 진(陳)나라와 송(宋)나라에서 곤액(困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²⁴⁶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성인이 미리 아는 것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중용》에서 ‘지성(至誠)의 도는 미리 알 수 있다.’²⁴⁷”라고 말하였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사람들이 ‘알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다. 주자가 ‘미리 알다.[前知]’를 해석할 때 정상(禎祥), 요열(妖孽), 시귀(蓍龜), 사체(四體)²⁴⁸에 대해 이치가 먼저 나타나는 것이라 하고 ‘오직 지극히 성실한 자라야 살필 수 있다.’²⁴⁹”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는 이치가

243) 우산(牛山)을 …… 것 : 《후창집(後滄集)》 권10 <최여중에게 보낸 편지[與崔汝重]>에 “그대의 선조 만육 선생이 우산을 매입했다는 설이 수백 년 동안 유전되면서 충절에 누가 됨이 많았지만, 오직 그대가 처음으로 변명한 의론을 발명하여 지금 이후에 의혹이 제거되고 사라졌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우산을 매입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244) 사흉(四凶) : 공공(共工), 환도(驩兜), 삼묘(三苗), 곤(鯀)을 말한다. 요임금이 이들을 등용하였는데 9년이 되어도 공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내용이 《서경》<우서(虞書) 요전(堯典)>에 나온다.

245)周公(周公)은 …… 것 : 무왕(武王)이 은(殷)나라를 정벌한 후, 관숙과 채숙에게 은나라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은나라 무리들과 반란을 도모했다는 내용이 《사기》<주본기(周本紀)>에, 이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周公이 처벌했다는 내용이 《서경》<주서(周書) 채중지명(蔡仲之命)>에 나온다.

246) 공자가 …… 것이다 : 공자가 진나라를 지나가다가 광(匡) 땅의 사람들이 양호(陽虎)라고 여겨 구류하였고, 송나라에 가서는 사마(司馬)인 환퇴(桓魋)가 죽이고자 했다는 내용이 《사기》<공자세가(孔子世家)>에 나온다.

247) 지성(至誠)의 …… 있다 : 《중용장구(中庸章句)》 제24장에 나온다.

248) 정상(禎祥) …… 사체(四體) : 《중용장구》 제24장에서 “국가가 장차 일어나려면 반드시 상서로운 조짐이 있으며, 국가가 장차 망하려면 반드시 요괴스러운 일이 있어, 시초점과 거북점에 나타나며, 사체에 동한다.[國家將興, 必有禎祥, 國家將亡, 必有妖孽, 見乎蓍龜, 動乎四體.]”라고 한 말을 줄인 것이다.

249) 이치가 …… 있다 : 《중용장구》 제24장의 집주(集註)에서 주자가 말하기를 “무릇 이러한 것은 모두 이치가 먼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오직 성실함이 지극하여 조금의 사사로움과 거짓이 심목(心

먼저 나타난 것을 통하여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일종의 신기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치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비록 요임금과 주공, 공자일지라도 미리 아는 것에 능하지 못한 것이 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학문하여 미리 아는 데 이른 뒤에 도통하여 성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조상을 존경하고 현인을 숭상하는 자들이 전해가며 서로 사모하고 본받아 혹 사리를 궁구하지 않은 데 이르고, 건강부회하고 유전(流傳)시켜 마침내 실적을 이루었다. 그래서 도리어 존경하는 분을 불성(不誠)과 부지(不知)로 귀결시켰으니, 어찌 미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세상에서 만육(晩六) 최 선생(崔先生)²⁵⁰이 우산을 매입하였다고 말하는 일에 대해 일찍이 의심하여, ‘태조(太祖 이성계)로 하여금 이 때에 탄마음을 품게 하였다.’라고 여겼다. 뛰어난 지략가인 태조는 기밀이 치밀하지 않으면 계략이 누설되어 일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했을 것인데, 도리어 대풍가(大風歌)²⁵¹를 부르면서 미리 속마음을 드러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설사 선생이 태조에게 탄마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면, 선생은 충신이니 마땅히 근심을 제거하여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태조를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국토를 매입할 것을 요청하며 먼저 스스로 절개를 굽혀 마음을 허락하였으니, 뒷날 은둔할 땅과 신하가 되지 않았다는 명성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은 더욱 이치에 가깝지 않다. 게다가 선생은 유자(儒者)이다. 유문(儒門)의 선행은 충(忠)이 대절(大節)이 되는데, 만일 선생에게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어찌 유문에서 선을 밝히고 선을 택하여 지성(至誠)과 전지(前知)의 도를 다하겠는가.

目)의 사이에 남아 있지 않은 자라야 이에 그 기미를 살필 수 있다.[凡此皆理之先見者也。然唯誠之至極而無一毫私偽留於心目之間者，乃能有以察其幾焉。]”라고 한 말을 줄인 것이다.

250) 만육(晩六) 최 선생(崔先生) : 고려말 조선 초의 두문동 72현 중의 한 사람인 최양(崔養, 1351~1424)이다.

251) 대풍가(大風歌) : 원래 한 고조(漢高祖)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고 고향인 패군(沛郡)에 돌아가 크게 잔치를 베풀면서 노래한 시인데, 여기서는 이성계가 고려를 차지하려고 한 야심을 품고 노래한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서(漢書)》 권1 <고제기(高帝紀)>에 나온다.

게다가 만일 태조가 실제로 대풍가를 불러 탄마음을 품었다면, 소문이 나라 안에 드러났다고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이치가 먼저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니, 어찌 선생만이 알아서 이를 족히 귀하게 여겼겠는가. 또한 그러한 설이 통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나는 분명하게 선생에 대해 결코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설을 믿고 말하는 자들은 아마도 세상의 풍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선생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이유를 궁구해보면 성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미리 아는 도가 있을지라도 인사(人事)에 대해서 미리 알지 못하는 것은 성현이 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 아! 이는 진리를 아는 자와 함께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자,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말은 이지촌(李芝村)²⁵²의 췌어(瑣語 자질구레한 말)에서 나왔고 후대 사람들이 대부분 준용(遵用) 하는데, 그대가 감히 어찌 이처럼 할 수 있는가.”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옛사람이 이르지 않았던가. 사책에 근거하는 것이 경문(經文)에 근거하는 것만 못하고, 경문에 근거하는 것이 이치에 근거하는 것만 못하다.²⁵³ 이 때문에 매산(梅山)²⁵⁴은 망복(罔僕)²⁵⁵이라는 말에 근거하여 사마천의 《사기》에서 기자(箕子)를 봉했다는 것에 대해 논변하였고²⁵⁶, 맹자는 지극한 인(仁)의 이치에 근거하여 <무성(武成)>에서 절굿공이를 떠내려가게 했다[漂杵]는 것에 대해 의심하였거늘²⁵⁷, 하물며 한때 들은 대로 자유롭게

252) 이지촌(李芝村) :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이희조(李喜朝)를 말한다.

253) 사(史)에 …… 못하다 : 명(明)나라 말기 학자 여신오(呂新吾)의 말이다.

254) 매산(梅山) :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호이다. 본관은 남양(南陽)이고, 초명은 공필(兢弼)이다. 자는 백응(伯應), 백림(伯臨)이고,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255) 망복(罔僕) : 망국(亡國)의 신하로서 새 왕조의 신복(臣僕)이 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은(殷)나라가 망할 무렵 기자(箕子)가 “은나라가 망하더라도 나는 남의 신복이 되지 않으리라.[商其淪喪, 我罔爲臣僕.]”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서경》〈상서(商書) 미자(微子)〉

256) 매산(梅山)은 …… 논변하였고 : 이에 관한 내용이 《매산집(梅山集)》 권28 <숭인사기(崇仁祠記)>에 나온다.

257) 맹자는 …… 의심하였거늘 : 무왕(武王)이 주(紂)를 정벌할 때에 “피가 흘러서 절굿공이를 떠내려가게 했다.[血流漂杵]”라는 글이 《서경》〈주서(周書) 무성(武成)>에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맹자가 “《서경》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할 것이다. 나는 <무성>에서 두세 쪽만 취할 뿐이다. 인자한 사람은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지극히 인자한 사람이 지극히 불인한

쓴 것으로 사책도 아니고 경문도 아닌 자질구레한 말에 있어서이겠는가. 이러한 뜻을 나도 전수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하였다.

선생의 후손이 장차 《실기(實紀)》를 중간(重刊)하려 할 때 나에게 이 안(案)을 가지고 물었는데, 강의(講義)와 관계된 일이라 생각하여 침묵하지 않고 참람함과 경솔함을 잊어 삼가 논하여 위와 같이 답했다.

거실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변론【1940년】

不得罪於巨室論【庚辰】

맹자가 말하기를 “거실(巨室 대신의 집안)에 원망을 사지 말아야 한다.²⁵⁸⁾”라고 하였는데, 주자는 이를 해석하여 “원망을 산다는 것은 몸이 바르지 못하여 원망과 노여움을 사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등퇴암(鄧退菴 등림(鄧林))은 이를 해석하여 “원망을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아 원망을 사지 않는 것을 이르고, 법을 왜곡하여 받드는 것이 아니다.²⁵⁹⁾”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선비들은 그렇지 않으니, 사문(斯文)의 시비(是非)에 대해 이미 마음속으로 그 곡직(曲直)을 알고 있지만, 또한 다시 때로 말과 얼굴빛에 나타내면서 곧바로 번번이 핑계를 대며 말하기를 “맹자가 거실에 원망을 사지 말라고 이르지 않았던가. 가령 저들이 바르지 않고 잘못되었을지라도 나이가 많고 박식하며 패거리가 많으니, 또한 사림(士林) 가운데 거실이다.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원망을 사겠는가.”라고 한다.

아! ‘거실’, ‘거실’이 어찌 아버지와 스승보다 높기에 아버지와 스승은

사람을 정벌하였으니, 어떻게 그 피가 흘러서 절굿공이를 떠내려가게 할 수 있었겠는가.[盡信書，則不如無書。吾於武成，取二三策而已矣。仁人無敵於天下。而至仁伐至不仁。而何其血之流杵也?]

말한 내용이 《맹자》〈진심 하(盡心下)〉에 나온다.

258) 맹자가……한다:《맹자》〈이루 상(離婁上)〉에 나온다.

259) 등퇴암(鄧退菴 등림(鄧林))은……아니다: 이는 등림의 말이 아니고, 주희에게 수학한 진식(陳植, ?~?)의 《목종집(木鐘集)》 권2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다.

버릴 수 있고 거실은 버려서는 안 되겠는가. 이는 바로 그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노여움을 피하고, 정리(正理)를 버리면서 원망을 사지 않으며, 법을 왜곡하면서 거실을 받드는 것이니, 이러한 것이 어찌 맹자의 뜻이겠는가. 성인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를 아름답게 포장하여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룬다면, 그 죄가 어찌 다만 성인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이겠는가. 또 어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선비답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가규 [1944년]

家規【甲申】

제사(祭祀)는 자손의 정성을 모아 조상의 신령을 이르게 하는 것이니, 자손의 행위는 항상 조상에게 명을 듣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는 바로 인륜의 궁극(窮極)이고 가정의 대관(大關 매우 중요함)이기 때문에 정성껏 제사 지내면 자손이 번창하고, 정성 없이 제사 지내면 자손이 쇠퇴하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당(祠堂)은 제사 지내는 장소이니, 정성껏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없다면 사당을 세우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군자가 장차 궁실(宮室)을 지으려고 할 때 먼저 사당을 세우니, 매우 가난할지라도 기필코 힘을 다해 세워야 하고, 거실 한쪽 구석의 벽장에 사판(祀版 신주(神主))을 구차하게 안치해서는 안 된다.

제사는 시제(時祭)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비록 가난할지라도 시제를 지내야 하지만, 전혀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봄과 가을에 두 번 행하는 것도 괜찮다. 사당의 삭망참(朔望參)²⁶⁰은 만일 가난이 심하면 옛날에 ‘사는 월반전(月半奠)이 없다.²⁶¹’라고 하는 예에 따라 삭참만 행해도 괜찮다.

사당의 신주를 받드는 사람은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배알(拜謁)하는 예를

260) 삭망참(朔望參) : 삭망참례(朔望參禮)로,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간단한 제사이다.

261) 사는 …… 없다 : “사는 보름에 은전을 올리지 않는다.[土月半不殷奠]”라는 말이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에 나온다.

행한 뒤에 집안사람들에게 각자 자기의 일을 행할 것을 명한다.

저녁에는 잠자리를 보살피 드리고 아침에는 문안 인사를 올리는 것은 자손이 부조(父祖)를 섬기는 간소한 예절로 본래 큰일이 아니었는데, 근대 이후에 윤리가 땅에 떨어져 이를 행하는 자도 매우 적으니 매우 한심하다. 이러한 것도 행하지 않으면 어찌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를 행하되 새벽에 주인이 사당에 배알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한다.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지내야 한다.²⁶²⁾” 라고 하였는데, 지금의 풍속은 상중에 제사 지낼 때 이외에는 주부(主婦)가 아헌례(亞獻禮)를 행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이는 본받아서는 안 되니 더욱 반드시 예에 따라 행해야 한다.

상중에 예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의 자식이라고 이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반드시 ‘너무 가난하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사농공상(士農工商)에게는 각자 자신의 업(業)이 있으니, 선비 이외에 어떻게 최질(衰絰)²⁶³⁾을 하고 흠덩이처럼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마음으로 슬퍼하면서 스스로 예법을 범하지 않으면 이는 괜찮다.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이르러서는 인류가 아니라고 이르더라도 괜찮다.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²⁶⁴⁾”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다시 논하지 않겠다.

관혼상제(冠婚喪祭)는 모두 대사(大事)인데 속어에서 다만 혼인만을 대사라고 일컫는 것은 진실로 이치가 있으니,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구혼(求婚)의 방법은 온공(溫公)이 논한바 ‘사위나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및 가법(家法)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부귀만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²⁶⁵⁾’라는 것과 같은 등의 설은 더할 것이 없으니, 이는

262) 제사는 …… 한다 : 《예기》〈제통(祭統)〉에 나온다.

263) 최질(衰絰) : 상중에 입는 삼베옷을 말한다.

264) 나라에 …… 있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는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라고 하였다. 《소학》〈가언(嘉言)〉

265) 사위나 …… 된다 : 사마온공이 《소학》〈가언〉에서 “무릇 혼인을 논의할 때 마땅히 그 사위나

마땅히 따라서 행해야 한다. 그리고 선대의 문벌과 덕행이 없고 한갓 부귀한 자에 이르러서는, 당장에 소소한 칭찬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함께 혼인하지 않는 것이 지극히 옳다.

사람들은 반드시 혼인할 때 생기(生氣)를 보아야 하고 그 선대를 묻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이른바 생기라는 것은 자손이 번성하고 식도(食道)가 넉넉한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 일반적인 집안과 한미한 집안은 생기에만 전념하는데 사대부 집안은 사기(死氣)를 모으는구나.

나는 부부란 두 성(姓)의 합이라고 들었고 같은 성의 합이라고는 듣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신라와 고려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동성끼리 혼인하여 오랑캐의 풍속을 바꾸지 못한 것은 진실로 통한스러운 일이다. 나라에 이미 금한 것이 있는데 선배들은 또 무엇 때문에 함부로 행하였단 말인가. 내가 혼인을 주관한 이후 절대 행하지 않아 이미 가법이 되었으니, 만일 뒷날 자손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이는 그 부조(父祖)의 죽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스스로 오랑캐로 돌아가는 것을 달게 여기는 것이다.

장지(葬地)는 무덤을 파내어 팔아넘기는 산을 매입하지 말고【일찍이 이미 파간 것은 논할 것도 없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선산이나 금한 땅에 투장(偷葬)하지 말며, 평장(平葬)하는 것은 시신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 이를 ‘적자(賊子)’라고 한다.

선대의 지장(誌狀)²⁶⁶을 남에게 함부로 말기지 말라는 것은 선사(先師) 간재(杆在)의 가규(家規) 중의 말인데, 진실로 이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를 표출하였다.

종손(宗孫)은 조상의 사당을 받드는 자이니, 종손을 공경하는 것은 조상을 존중하는 것이다. 무릇 생전의 봉양과 사후의 장례에 관계된 것은 모두 마땅히 종손을 먼저 하고 지자(支子)²⁶⁷와 서자를 뒤에 해야 하며, 언어와 배움(拜揖)하는 것도 한 층 더 공경해야 한다.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및 가법(家法)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야 하고, 그 부귀만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凡議婚姻,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及家法何如, 勿苟慕其富貴.]”라고 하였다.

266) 지장(誌狀) : 지문(誌文)과 행장(行狀)을 말한다.

267) 지자(支子) : 맏아들 이외의 아들이다.

서자와 서손도 똑같이 내 부조(父祖)의 혈기를 받았으니, 마땅히 천시하고 소원하게 해서는 안 된다. 명분(名分)은 하늘이 정한 것이고 사람의 사사로움을 쓴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우하는 예절도 너무 헤아림이 없어서는 안 되니, 만일 그들에게 예법을 범하게 하면 결국 적자를 능멸하게 될 것이다.

빈궁(貧窮)함을 핑계하여 자식에게 문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 자식을 해치고 스스로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끊는 것이니, 어찌 그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행하여 그 아버지를 해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종족의 남녀가 내외를 통하는 한계는 삼종(三從 8촌) 숙질(叔姪)의 처에 이르고, 사종(四從 10촌) 수숙(嫂叔)²⁶⁸에서부터는 서로 보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속에서 출가한 고모, 손위 누이, 손아래 누이, 딸이 죽은 뒤 그 남편이 재취(再娶)한 처에 대해 ‘아고(芽姑)’, ‘아자(芽姊)’, ‘아매(芽妹)’, ‘아녀(芽女)’라 이르고 서로 보면서 왕래가 빈번하며, 그들이 또 그 남편의 전처(前妻)의 친척들을 부르는데도 부형(父兄)과 제질(弟姪)로써 하여 부끄러움이 없다. 심한 경우 친정으로 보면서 해마다 빠짐없이 찾아가 문안 인사를 하는 자도 있어서, 그 망령되고 도리에 어긋나며 추하고 무람없음이 더할 수 없이 심하니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

붕우(朋友)는 10년 이상이 많으면 자(字)를 불러서는 안 되지만 나이가 뒤이면 한 번 절해도 괜찮다. 《예기(禮記)》에 “10년 이상이면 형처럼 섬겨라.²⁶⁹”고 하지 않았는가.

값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예를 삼가라. 이는 음덕과 지극히 착한 행실이 되어 하늘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니,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268) 수숙(嫂叔) :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를 이른다.

269) 예에 …… 섬기라 :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나이가 배가 더 많으면 아버지처럼 섬기고, 10년이 더 많으면 형처럼 섬기며,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되 조금 뒤쳐져서 따라간다.”라고 하였다.

선조의 자취에 대해 생각하고 물음

先蹟思問

고려의 제도에서 군사(郡事)²⁷⁰는 군수(郡守)와 같은 것이 아니라 10여 개, 혹은 7, 8개의 군을 도맡아 다스린다. 군에는 본래 수령이 있으니, 호남의 경우 익산 군사(益山郡事), 영광 군사(靈光郡事), 고부 군사(古阜郡事) 등이 있고, 관직은 본조(本朝)의 관찰사(觀察使)와 같아 중임(重任)인데, 《명은집(明隱集)》²⁷¹에서 관직이 낮다고 한 것은 고증을 잘못된 것이다.

임오년(1882) 족보²⁷²에 “침지공(僉知公)²⁷³은 세종조(世宗朝)에 문과에 급제하였는데, 이시애(李施愛)의 난²⁷⁴ 때에 재능으로 선발되어 다시 무과에 합격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시애의 난은 세조조(世祖朝)에 있었으니 임오년의 족보에서 세종이라 이른 것은 오류이고, 정미년(1907) 족보에서 이를 답습했으니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

임오년 족보에 “매죽당공(梅竹堂公)²⁷⁵은 덕을 숨기고 벼슬하지 않았다. 이에 성종(成宗)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사람은 만일 그 고결함을 드러내주지 않으면 일세의 유풍(儒風)이 장차 사라질 것이다.’고 하고, 매(梅)와 죽(竹)

270) 군사(郡事) : 고려와 조선 초기에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인 군(郡)의 장관(長官)이다. 판군사(判郡事), 지군사(知郡事)를 두루 이르는 말이다.

271) 《명은집(明隱集)》 : 김수민(金壽民, 1734~1811)의 저서이다.

272) 임오년(1882) 족보 : 《후창집(後滄集)》 권20 <가승서(家乘序)>에 “부령(부안) 김씨는 처음에 만력(萬曆) 갑신년(1584)년에 대보(大譜)가 있었고, 그 후 각파에서 여러 족보를 만들었다. 우리 직장공파는 인릉(仁陵 순조(純祖)) 계사년(1833), 홍릉(洪陵 고종(高宗)) 임오년(1882)과 정미년(1907)에 편찬한 세 개의 족보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273) 침지공(僉知公) : 김보칠(金甫漆, ?~?)이다. 직장공(直長公) 김취(金玉+就)의 차남이다.

274) 이시애(李施愛)의 난 : 세조의 중앙집권 정책으로 함길도의 특혜가 없어지자 불만과 위기감이 누적된 토호층이 난을 일으킨다. 세조 13년인 1467년 5월에 이시애의 선동으로 일어난 이 반란은 조선 초기 최대의 반란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반란군 2만여 명은 정부의 토벌군 5만여 명을 상대로 저항하다가 그해 8월 진압되었다.

275) 매죽당공(梅竹堂公) : 김종(金宗, 1471~1538)이다. 매죽당은 그의 호이고, 자는 사양(士仰)이다. 1519년(중종 14)에 기묘사화가 일어나 당대의 명사들이 대거 화를 당하자 과거를 포기하고 향리인 부안으로 돌아가 은거하였다.

을 그리고 옥배(玉杯)를 가져다가 그 모양을 새겨서 하사하며 ‘우리나라에 군자는 오직 김중뿐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계사년(1833) 족보에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사년 족보가 나오기 130년 전에 공과의 시간적 거리가 매우 멀지 않은 쌍백당(雙柏堂) 이공(李公)²⁷⁶이 지은 묘갈명에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러한 내용이 만일 사실이라면 어찌 묘문(墓文)에 실리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정미년 족보를 편찬할 때에 문중의 장로들께 아뢰고 삭제하였다.

매죽당공의 배위(配位)는 채씨(蔡氏)이고 외조부는 교리 남평인 조휘(曹彙)²⁷⁷인데, 계사와 임오 두 족보에서 대제학 박중림(朴仲林)²⁷⁸으로 기록하였고, 주부공(主簿公)은 배위가 조씨(趙氏)이고 외조부는 생원 남원인 양균(楊均)인데, 영웅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²⁷⁹으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채씨와 조씨의 두 족보를 조사해보았는데, 박공 중림은 채씨의 부친인 채석경(蔡碩卿)²⁸⁰의 외조부이고, 영웅대군은 조씨의 부친인 조숙기(趙淑琦)의 외조부였으니, 이는 진실로 살피지 않고 잘못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위로 일세(一世)를 건너 취록(取錄)했는데 두 곳이 모두 똑같았으니, 어쩌면 그리도 묘한가. 이는 혹여 명위(名位)가 드러난 사람을 잠깐 보고 자기도 모르게 흠모하여 상하의 세계(世系)를 살피지 못한 것일 것이다. 박공은 정미년 족보에서 이미 개정(改正)했는데, 영웅대군은 아직 미치지 못했다.

276) 쌍백당(雙柏堂) 이공(李公) : 이세화(李世華, 1630~1701)이다. 쌍백당은 그의 호이다. 시호는 충숙(忠肅)이고, 자는 군실(君實)이다.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후창집(後滄集)》 권12〈분재 문중에 보냄[與粉齋門中]〉에서 후창은 “매죽당공의 묘갈은 외손인 명현 쌍백당의 손에서 나왔다. [梅竹堂公墓碣, 出於外孫名賢有如雙柏堂之手者.]”라고 말하였다.

277) 조휘(曹彙) : 생물연대 미상. 관직은 승문원교리(承文院校理)이고, 남평(南平)인이다.

278) 박중림(朴仲林) : ?~1456. 본관은 순천(順天)이고, 호는 한석당(閑碩堂)이다.

279) 이염(李琰) : 1434~1467. 세종의 여덟째 아들이고, 이름은 이염(李琰)이다.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다. 1441년(세종 23) 영흥대군(永興大君)에 봉해지고, 1443년에 역양대군(歷陽大君), 1447년에 영웅대군으로 개봉(改封)되었다. 시호는 경효(敬孝)이다.

280) 채석경(蔡碩卿) : 1438~1498. 본관은 평강(平康)이다. 성종(成宗) 1년(1470) 경인(庚寅) 별시(別試) 을과(乙科) 2위로 과거에 급제하였다. 관직은 부사(府使)이다. 외조부는 박중림이고 장인은 조휘이다.

참봉공(參奉公)²⁸¹의 배위는 청주 김씨이고, 부친은 진사 김경일(金敬一)²⁸²이다. 일찍이 함평 이씨(咸平李氏)의 세계(世系)를 보니, 죽음 만영(竹陰萬榮)²⁸³과 죽곡 장영(竹谷長榮)²⁸⁴의 부친 이석(李碩)에게 사위 김경일이 있었는데 연대가 어느 정도 맞았다. 그래서 정미년의 족보를 편수하는 날에 김씨의 외조를 함평 이석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씨의 세계에서 김경일의 본관을 청주로 기록하지 않았으니, 반드시 그러한 것을 어찌 알았겠는가. 그래서 뒤에 다시 집에 보관하고 있는 족보에서 산정(刪正)하였을 뿐이다. 그러다가 고창군 조산리(造山里)에 사는 김자순(金子順)이 청주 김씨라는 것을 듣고 오직 이 일만을 위하여 가서 그 족보를 보았는데, 이는 파보(派譜)이고 대동보(大同譜)가 아니었기에 고증할 수 없었으니 한탄할 만하다.

직절공(直節公)²⁸⁵의 부친 휘 장(鏘)은, 임오년 족보에서 ‘남대(南臺)에 선발되었다.’고 하였는데 정미년 족보에서 이를 답습하였으니, 이 4글자[被選南臺]는 무엇을 이룬 것인가. ‘대(臺)’라는 것은 사헌부(司憲府)인데, 남대는 문과로 출신(出身)하지 않고 은일(隱逸)과 남행(南行 음직(陰職))으로 사헌부의 관직을 삼았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남대를 매우 중시하여 인가(人家)에 드물게 있다. 그런데 이미 대관(臺官)이라면 장령(掌令), 지평(持平), 집의(執義), 감찰(監察) 같은 것에 대해 어째서 명칭을 근거하여 바로 쓰지 않고, 다만 ‘선발되었다.[被選]’고만하여 사람들이 속으로 깊이 생각하게 하는가. 어찌면 단지 선망(選望)에만 들고 실직(實職)을 얻지 못한 것인가.

직절공의 아들 휘 찬(瓚)의 ‘영백(嶺伯 경상도 관찰사)’과 ‘호참(戶參)’이 또한 임오년 족보에 처음 나오는데, 정미년 족보에서 이를 답습했다. 이전 족보에 있는 벼슬을 나중의 족보에 기록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이 근거한

281) 참봉공(參奉公) : 김영무(金英武, ?~1592)이다. 자는 문중(文仲)이다.

282) 김경일(金敬一) : 1556~? 자는 덕부(德孚)이고, 거주지는 고부(古阜)이다.

283) 죽음 만영(竹陰萬榮) : 이만영(李萬榮, 1510~1547)이고, 죽음은 그의 호이다.

284) 죽곡 장영(竹谷長榮) : 이장영(李長榮, 1521~1589)이고, 죽곡은 그의 호이다.

285) 직절공(直節公) : 김치원(金致遠, 1572~?)이다. 매죽당공의 증손으로, 자는 사의(士毅)이고 호는 탁계(濯溪)이다.

문자를 분명히 쓰고 난 뒤에야 후대 사람들의 의심이 없을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서계공(西溪公)²⁸⁶의 손자 좌망공(坐忘公)²⁸⁷ 휘 현(灝)은 자가 호호(浩浩)인데, 임오년 족보에 사계(沙溪) 김 선생(金先生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는 반드시 《우암집(尤菴集)》에 정선 군수(旌善郡守)를 대신하여 김현(金灝)이 사계(沙溪) 선생의 제문을 지었다는 제목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는 족보의 기록에 ‘선생의 장례에 글을 짓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나 역시 젊었을 때 《우암집》을 보고 임오년 족보의 기록을 믿어 죽계(竹溪)²⁸⁸ 선조의 묘갈(墓碣)을 참관 김학수(金鶴洙)²⁸⁹ 공에게 부탁하던 날, 좌망공이 사계를 사사한 일을 글에 실기에 이르렀고, 죽계공의 여운(餘韻)이 미친 바와 두 집안의 세의(世誼)를 두루 말하였다. 그 뒤에 다시 널리 조사해보았는데, 우암이 대신해서 제문을 지었다는 김공은 바로 관향이 광산(光山)이고, 자는 지언(止彦)으로 우암과 친척 형제가 되는 자이니, 만일 《우암집》에 근거하여 좌망공을 사계의 문인으로 안다면 잘못이다. 게다가 사계는 명종 무신년(1548)에 태어났고 좌망공은 선조 계사년(1593)에 태어났으니, 좌망공이 사계보다 45세가 적은데 스승과 제자의 나이에 해당될 수 있겠는가. 또 (좌망공이) 문장에 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경사(京師)에서 벼슬살이할 때 혹여 사계의 문하에 출입했는지도 알 수 없으니, 세상에는 진실로 성과 이름이 같으면서 동문(同門)이 된 자가 있다.

매당공(梅堂公)²⁹⁰ 가장(家狀)에 이르기를 “모재 김공(慕齋金公)²⁹¹이 준 시에 ‘매당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니[不見梅堂久], 마음속에 비린한

286) 서계공(西溪公) : 김협(金鉞, 1546~?)을 지칭하는데, 서계는 그의 호이다.

287) 좌망공(坐忘公) : 김현(金灝, 1593~1653)의 호이다.

288) 죽계(竹溪) : 김횡(金鉉, 1541~1590)의 호이다.

289) 김학수(金鶴洙) : 1849~? 본관은 광산(光山)이고, 경기도 여주 출신이다.

290) 매당공(梅堂公) : 김점(金坵, ?~1560)이고, 매당은 그의 호이다.

291) 모재 김공(慕齋金公) :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고, 모재는 그의 호이다.

생각이 생기네.[胸中鄙吝生]²⁹²⁾ 척심정(滌心亭) 아래의 물은[滌心亭下水] 고금에 한결같이 맑네.[一樣古今淸].”라고 하였는데, 《모재집》에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일찍이 모재의 후손 병암(炳庵) 김준영(金駿榮)²⁹³⁾ 어른을 찾아뵙고 이를 외우자, 병암이 《모재속집(慕齋續集)》 초건(草件)²⁹⁴⁾에 수록하였다.

그 뒤에 매번 ‘모재는 선배이고 매당은 후배이니, 고금에 한결같이 맑다는 시는 매당이 죽은 뒤에 지어진 것 같다.’라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으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내가 이러한 질문은 인하여 살펴보고 생각해보았는데, 매당의 생년은 알 수 없으나 그는 4형제 중 셋째이니²⁹⁵⁾, 막내 동생 운강공(雲江公)²⁹⁶⁾보다 많아봐야 5, 6세 연장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운강공은 가정(嘉靖)²⁹⁷⁾ 무자년(1528)에 태어났고, 모재는 성화(成化)²⁹⁸⁾ 무술년(1478)에 태어났으니, 운강공이 모재보다 50세가 적고 매당은 44, 45세쯤 적을 것이다.

나이가 이미 한참 많고 지위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친구 사이에 하는 것처럼 시를 줄 수 있겠는가. 게다가 하물며 가장(家狀)에서 ‘만년에 척심정을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때 모재가 어찌 생존했겠는가. 또 나아가 ‘고금에 맑네.[古今淸]’라는 시는 죽은 뒤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진실로 사람들의 질문과 같다면 어찌 더욱 부당하지 않겠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292) 마음속에 …… 생기네 : 후한(後漢) 때에 황헌(黃憲)의 인품이 매우 훌륭하여 그와 동군(同郡) 사람인 진번(陳蕃)과 주거(周舉)가 항상 서로 말하기를 “잠시라도 황생을 보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린한 생각이 싹튼다.[時月之間, 不見黃生, 則鄙吝之萌復存乎心.]”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어진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후한서(後漢書)》 권83 <황헌전(黃憲傳)>

293) 김준영(金駿榮) : 1842~1907.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자는 덕경(德卿)이며, 호는 병암(炳庵)이다.

294) 초건(草件) : 시문 등의 초벌로 쓴 원고이다.

295) 그는 …… 셋째이니 : 매당공의 부친 김석옥(金錫沃)의 묘갈명에 “자녀는 아들이 4명이니, 김희(金喜), 김선(金善), 김점(金埈), 김계(金啓)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고봉집(高峯集)》 권3 <증 호조참판 김공 묘갈명(贈戶曹參判金公墓碣銘)>

296) 운강공(雲江公) : 김계(金啓, 1528~1574)이고, 운강은 그의 호이다.

297) 가정(嘉靖) : 명나라 세종(世宗)의 연호(1522~1566)이다.

298) 성화(成化) : 명(明)나라 헌종(憲宗)의 연호(1465~1487)이다.

이 시는 다른 사람이 지은 것인데, 모재의 시라고 잘못 안 것이다. 전에 동상(東湘)²⁹⁹ 허공(許公) 진동(震童)의 문집에 매당에게 준 시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상련(上聯)은 이른바 모재의 시와 완전히 똑같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다.

하련(下聯)에서는 ‘오늘 밤 서로 대화하니[今宵相對話], 마음이 활연(豁然)³⁰⁰히 맑네.[心肺豁然清]’라고 하였다. 무릇 매당과 모재는 연대의 선후가 서로 이와 같은데, 세마(洗馬) 이공(李公) 도중(度中)³⁰¹이 살피지 않고 묘갈명과 행장에 시어(詩語)를 실었고, 병암은 모재의 본손으로서 또한 그렇게 하였다. 두 공은 모두 박식하고 단아한 선비로 일컬어지는데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나처럼 소홀하고 거칠면서 또 젊은 경우에 있어서이겠는가.

농암공(農巖公)³⁰²이 병자호란 때에 부친 참봉공(參奉公 김곡(金穀))을 따라서 왕등도(旺登島)로 들어갔다고 대대로 전해 내려왔다. 그래서 본손(本孫)이 들은 것을 기록한 말 중에 이미 이러한 말을 실었고, 우리 선사 간옹(良翁 간재)도 <관농암김공유허기(觀農巖金公遺墟記)>³⁰³를 짓게 되었다. 그러나 김공(金公) 성갑(聖甲)이 지은 행장(行狀)을 조사해보면, 공은 만력(萬曆)³⁰⁴ 기미년(1619)에 태어나 17세에 부친상을 당했다고 하였으니, 17세면 바로 병자년(1636) 전년인 을해년(1635)이다. 그렇다면 병자년에 부친을 따라 섬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어찌 절로 근거 없는 말로 귀결되지 않겠는가. 대개 세상의 소문을 믿을 수 없는 것에 이와 같은 것이 있다.

299) 동상(東湘) : 허진동(許震童, 1525~1610)의 호이다. 자는 백기(伯起)이다.

300) 활연(豁然) : 시원하게 터진 모양이다.

301) 이공(李公) 도중(度中) : 매당공(梅堂公)의 행장(行狀)과 묘갈명(墓碣銘)을 지었다.

302) 농암공(農巖公) : 김택삼(金宅三, 1619~1703)의 호이다. 자는 계용(季用)이다.

303) <관농암김공유허기(觀農巖金公遺墟記)> : 《간재집전편속(良齋集前編續)》 권5에 실려 있다.

304) 만력(萬曆) : 명(明)나라 신종(神宗)의 연호(年號, 1573~1620)이다.

나라 안의 여러 김씨에게 두루 고하는 글 [1931년]

徧告國中諸金氏文【辛未】

삼가 생각건대 사람이 태어날 때 남녀의 구분이 있고, 남녀가 있기에 부부가 있으며, 부부가 있고 난 뒤에 부자(父子), 군신(君臣), 장유(長幼), 붕우(朋友)가 있으니, 부부는 인륜의 시작이고 만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이를 중시하여 혼인의 예를 제정할 때 반드시 다른 성[異姓]에서 찾게 한 것은³⁰⁵⁾ 음탕을 방지하여 금수(禽獸)와 같이 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책(史策)을 조사해보니 비록 치란(治亂)이 한결같지 않고 오름(汚隆 쇠퇴)과 융성이 무상하지만, 위로 제왕으로부터 아래로 사서(士庶)에 이르기까지 예법을 넘고 범했다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동성(同姓)인 오씨(吳氏)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예에 맞지 않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를 숨겨 오맹자(吳孟子)³⁰⁶⁾라고 하였습니다. 왕망(王莽)³⁰⁷⁾이 왕씨(王氏)를 아내로 맞이하고 찬적(篡賊)한 소행에 이르러서는 애초에 굳이 말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왕망이 이미 한(漢)나라를 찬탈한 뒤에 유씨(劉氏)를 모두 왕씨로 고쳤는데 그의 며느리 유씨는 고치지 않았으니, 이는 왕망도 오히려 동성이 혐의가 됨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성(先聖)의 엄한 예법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는 평소 예의(禮義)의 나라로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이르러서는 매우 엄정하지 않아서 동성혼(同姓婚)이 대부분 본관이 다름을 핑계하여 행해졌습니다. 이는 신라와 고려의 나쁜 풍습으로 인하여 여속(餘俗)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니, 중화인에게 오랑캐의 풍습을 취했다고 기롱(譏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조대전(國朝大典)》에 이미 ‘본관이

305) 성인이 …… 것은 : 《예기》〈방기(坊記)〉에서 공자가 “아내를 취하되 동성을 취하지 않는 것은 분별을 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取妻不取同姓, 以厚別也.]”라고 한 말이 나온다.

306) 노(魯)나라 …… 오맹자(吳孟子) : 노나라와 오나라는 같은 희성(姬姓)이기 때문에 오맹희(吳孟姬)라고 해야 하는데, 노나라 소공이 그것을 꺼려 송(宋)나라에서 시집온 것처럼 오맹자라고 했다는 내용이 《논어》〈술이(述而)〉에 나온다.

307) 왕망(王莽) : B.C.145~A.D.23. 전한의 정치가이다. 자는 거군(巨君)이다. 자신이 웅립한 평제(平帝)를 독살하고 제위를 빼앗아 국호를 신(新)으로 명명하였다. 한(漢)나라 유수(劉秀)에게 피살되었다.

다르지만 성이 같으면[貫異姓同] 혼인하지 말라.’는 글이 있으니, 마땅히 모두 구관(舊貫)³⁰⁸을 바꿔 다 함께 새로워질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위에서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아래에서 실제로 행하지 않아, 다만 이름만 있고 일이 없어 그대로 인습하고 구차히 하여 어둡고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명가(名家)와 덕이 높은 자로 불리더라도 귀결점이 같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이루다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우암(尤菴) 송 선생(宋先生 송시열(宋時烈))이 말하기를 “본관이 다르고 성이 같은 경우 우리나라 풍속에서는 통혼(通婚)을 혐의하지 않으니, 예법에 죄를 지음이 깊다. 조정에서 금지 조항을 행하여 예법으로써 백성을 인도하는데도 백성이 이에 따르지 않음이 옳은가.³⁰⁹”라고 하였으니, 이 말은 엄격하고 발라 본받을 만합니다.

우리 김씨는 비록 본관이 많지만 모두 똑같이 경순왕(敬順王)³¹⁰에게 나왔으니, 상하 장계(長季)의 구분과 소목(昭穆)의 차례가 분명히 사첩(史牒)에 있습니다. 이에 가장 서로 먼 자도 40세(世) 이내의 동조(同祖)에 지나지 않으니, 본관을 얻기 전의 세계에 대해 상고할 수 없는 집안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결국 모두 대보공(大輔公)³¹¹을 근본으로 하여 근원이 같음[同源]이 매우 분명합니다. 이 때문에 성은 같지만 근원은 다른 타성들과는 경우가 다르니, 더욱 본관이 다름[異貫]을 핑계하여 통혼해서는 안 됨이 분명합니다.

비록 근원이 다르지만 수로왕(首露王)³¹²의 후손일 경우에는 혐의스러운 일을 멀리하는 도리에 있어 또한 일체 논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대개

308) 구관(舊貫) : 예전부터 내려오던 관례이다.

309)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07 <답김노원(答金魯源)>에 나온다.

310) 경순왕(敬順王) : ?~979.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바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311) 대보공(大輔公) : 김알지(金閼智, 65~?)이다. 경주 김씨(慶州金氏)의 시조이다.

312) 수로왕(首露王) : ?~199. 김해 김씨(金海金氏)의 시조이다. 삼국시대 금관가야의 제1대(재위 42~199) 왕이다. 수릉(首陵)이라고도 한다. 탄생과 치적에 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 <가락국기>에 실려 있다.

이러한 것을 예로 금지한 것이 이미 성인에게서 정해졌고 또한 나라의 법전에 명시되어 있으니, 결코 ‘선대에서 이미 행해졌고 명가와 덕이 높은 자들이 통행하는 관례이다.’라고 말하며 미처 개정하지 않은 것을 따라서는 안 됨이 또 분명합니다. 제가 몽매하고 비루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항상 이러한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자녀와 제질(弟姪)의 혼례를 여러 차례 주관할 때 이르러서는 모두 반드시 이성(異姓)에서 구할 것을 영원히 가법(家法)으로 삼았는데, 매우 마음에 온당함을 느꼈습니다.

이는 구구한 제가 감히 보통 사람과 달라 스스로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나라 안의 여러 성 가운데 근원이 같음이 분명한데도 통혼이 많은 것은 우리 김씨 만한 경우가 없으니, 이는 예에 맞지 않는 부끄러움과 중화인의 기용을 우리 김씨가 많이 살 것이므로 참람하고 경솔함을 헤아리지 않고 감히 이미 먼저 시행한 것으로서 전국의 김씨 여러분께 두루 고하여 함께 예전(禮典)을 준수하는 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 깊이 궁구하고 정밀히 살펴 이구동성으로 말하여 서로 응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힘써 행하여 일세(一世)의 미속(美俗)을 이루고 천고의 비루한 풍속을 씻어낸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종중에 통고하는 글 [1937년]

通告宗中文【丁丑】

삼가 생각건대 사람의 태어남은 반드시 조상에 근본하니, 근본이 있는 곳을 어찌 감히 오래되고 멀다고 하여 혹 이를 잊고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삼려(三閭)는 고양(高陽)의 후손임을 서술하였고³¹³⁾, 주(周)나라 사람들은 제곡(帝嚳)의 체(禘) 제사의 일을 거행하였으니³¹⁴⁾, 후대 사람들이

313) 삼려(三閭)는 …… 서술하였고 : 삼려는 초(楚)나라의 삼려대부(三閭大夫)를 지낸 굴원(屈原)을, 고양은 전욱(顛頊)을 일컫는 말이다. 굴원은 《이소경(離騷經)》에서 “(굴원은) 고양제의 후예이며, 내 아버지는 백용이라 한다.”라고 하여 고양의 후예임을 서술하고 있다.

314) 주(周)나라 …… 거행하였으니 : 《예기》〈제법(祭法)〉에 “주(周)나라 사람은 제곡에게 체제사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찌 본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신라 말에 경순왕(敬順王)³¹⁵이 나라를 고려에 넘기려 하자 태자(太子)³¹⁶가 간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충신, 의사와 함께 죽음으로써 스스로 지키다가 힘이 다한 뒤에야 그만두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천년의 종묘사직과 수천 리 강토를 하루아침에 남에게 주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들어주지 않자, 통곡하고 개골산(皆骨山)에 들어가 베옷과 초식(草食)으로 여생을 마쳤다는 것이 신라 역사에 실려 있으니³¹⁷, 개골산은 바로 지금의 금강산(金剛山)입니다.

그의 빛나는 충정과 늠름한 기상은 일월과 빛을 다투고 천지에 걸쳐있어 천고가 지나도록 짝이 없고, 오직 후한(後漢)의 북지왕(北地王)³¹⁸과 나란히 견줄만합니다. 이 때문에 ‘동경의 의열[東京義烈]이요 북지의 영풍³¹⁹[北地英風]’이라는 말이 매월당(梅月堂) 김공(金公)³²⁰이 손으로 새긴 데서 나왔고, ‘늠름한 한 왕자여[凜凜一王子], 아름다운 이름이 천추에 홀로 남았네. [命名獨千春]’라는 말이 사가(四佳) 서공(徐公)³²¹의 시구(詩句)에서 나와

지내고 후직에게 교제사를 지내며, 문왕을 조로 삼고 무왕을 종으로 삼았다.”라고 하였고, 《예기》〈대전(大傳)〉에 “왕이 아니면 체제사를 지내지 못하니, 왕자는 그 시조를 출생시킨 제왕에게 체제사를 지내고 그 시조로서 배향한다.”라고 하였다.

315) 경순왕(敬順王) : ?~979 :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서 나라를 고려 태조에게 바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316) 태자(太子) :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첫째 아들 마의태자(麻衣太子) 김일(金鎰)이다.

317) 옛날 …… 있으니 : 《삼국유사(三國遺事)》 권2 <기이 제이(紀異第二) 김부대왕(金傅大王)〉에 나온다.

318) 후한(後漢)의 북지왕(北地王) : 후한은 촉한(蜀漢)이고 북지왕은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후주(後主) 유선(劉禪)의 아들 유심(劉諶)이다. 촉이 위(魏)나라의 침공을 받고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유선은 항복할 것을 결심했으나 유심은 항복하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했다. 유심은 자신의 말이 수용되지 않자 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고 먼저 처자를 죽인 다음 스스로 자살했다. 《삼국지(三國志)》 권33 <촉서 삼(蜀書三) 후주전(後主傳)〉

319) 동경의 …… 영풍 : 동경은 신라의 수도 경주를 뜻하고, 북지의 영풍은 마의태자의 곳곳하고 의연한 태도를 칭송한 표현이다.

320) 매월당(梅月堂) 김공(金公) :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이다.

321) 사가(四佳) 서공(徐公) :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의 공론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령(扶寧 부안) 김씨는 그의 후손으로, 가첩(家牒)에 실려 있는 것은 이미 세상에 전해졌고, 게다가 나라 안의 많은 문헌에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 오래되고 멀어 자세히 알기 어렵다고 여겨서 이를 근본하지 않으면 안 됨이 분명합니다. 무릇 가르치고 기쁨에 전수 받을 바가 있기 때문에 맹자는 ‘사람들은 어진 부형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³²²⁾’라고 하였으니, 의열이 매우 뛰어난 조상이 위에 있고 자손의 본보기가 유래한 바가 있다면 또 마땅히 어떠한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우리 김씨의 정학(正學), 직도(直道), 순충(純忠), 탁절(卓節)에 훌륭한 사람이 대를 이어 끊어지지 않은 것은 본래 이 조상에서부터 왔음을 또한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난으로 망한 때에 일이 대부분 겨를이 없고, 도망하여 피한 뒤에 사손(嗣孫)이 멀리 살게 되었는데, 개골산은 천하의 궁벽한 곳입니다. 비로봉(毘盧峯)의 북쪽³²³⁾과 관음봉(觀音峯)의 서쪽은 개골산의 궁벽한 곳으로 능묘가 있는 곳인데, 의물(儀物)이 갖춰지지 않고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지 못한 것이 거의 숙량홀(叔梁紇)의 장지(葬地)를 알기 어렵고³²⁴⁾, 신릉군(信陵君)의 무덤이 사라지기 쉬운 것 같이³²⁵⁾ 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의(忠義)를 사모하고 영이(靈異 혼령)에 감응하여 사찰의 승려와 산골의 백성이 앞다투어 풀을 베고 청소하여 공경하고 보호하기를 <소남

322) 사람들은 …… 즐거워한다 : 《맹자》 <이루 하>에서 맹자가 “도에 맞게 행하는 자가 도에 맞게 행하지 못하는 자를 길러주고, 재주 있는 자가 재주 없는 자를 길러 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진 부형이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 故人樂有賢父兄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23) 비로봉(毘盧峯)의 북쪽 : 비로봉에서 북쪽 능선을 따라 1.4km 정도 내려가면 길 서남쪽 비탈진 언덕에 마의태자릉(麻衣太子陵)이 있다.

324) 숙량홀(叔梁紇)의 …… 어렵고 :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기에 아버지의 묘를 알지 못했다.[孔子少孤, 不知其墓.]”라고 하였다.

325) 신릉군(信陵君)의 …… 같이 : 이백(李白)의 <양원음(梁園吟)>이란 시에 “옛날 신릉군은 호걸이요 귀인이었지만 지금 신릉군의 무덤엔 사람들이 농사짓고 있네.[昔人豪貴信陵君, 今人耕種信陵墳.]”라고 하였다.

(召南)의 당(棠)³²⁶과 현산(峴山)의 비(碑)³²⁷처럼 할 뿐만 않은 지 천여 년이 되었습니다. 근래에 와서 금강산의 명승(名勝)이 더욱 만국(萬國)에 알려져 기차와 전차가 다니므로 즐기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폭주하자, 산수(山水)의 기이한 절경 이외에 옛 명인(名人)의 유적을 더욱 앞다투어 보는 것을 유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산(名山)에 있어서는 금강산을 보고, 명인에 있어서는 태자의 유적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이에 한 언덕의 깊숙한 곳과 만년토록 숨겨져 온 무덤이 세상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이목에 가득 차 넘쳤으니, 공자의 집 벽에서 나온 서적³²⁸과 주나라 임금의 동쪽으로 왔다는 것 같은 것은 모두 듣는 사람을 놀라게 하여 보고 싶게 만드는데, 하물며 후손인 우리 김씨에게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번갈아 달려가 앞다투어 성묘하니 무덤에 탈이 없고 정백(精魄 닢)이 영원히 편안하여, 마치 당일의 충간(忠諫)과 통곡하는 소리를 듣는 것 같고, 천 리나 떨어져 있는 계림(鷄林)의 월성(月城)이 이곳에 있는 듯합니다. 무릇 대량(大梁)을 지나는 자가 혹은 이문(夷門)에 멈춰 서서 생각하고³²⁹, 구원(九原)에서 노는 자도 수회(隨會)와 배회합니다.³³⁰ 저 현자들은 아주

326) <소남(召南)의 당(棠) : 《시경집전(詩經集傳)》 <소남 감당(甘棠)에 “소백(召伯)이 문왕의 정사를 펼 때 혹은 감당나무 아래서 머물렀는데, 뒤에 백성들이 그의 덕을 그리워하였다. 그래서 그 나무를 아껴 차마 손상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327) 현산(峴山)의 비(碑) : 진(晉)나라의 양호(羊祜)가 양양(襄陽) 태수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었다. 그가 떠난 뒤에 그 지방 백성들이 그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현산에 양호가 평소 노닐며 쉬었던 곳에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세워 세시마다 제를 올렸다. 그 비석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기에 두예(杜預)가 이를 타루비(墮淚碑)라 이름하였다. 《진서(晉書)》 권34 <양호전(羊祜傳)>

328) 공자의 …… 서적 : 한(漢)나라 무제(武帝) 말에 노 공왕(魯恭王)이 공자의 구택(舊宅)을 헐어서 궁(宮)을 넓히려려고 하다가 그 벽(壁) 속에서 얻은 《고문상서(古文尚書)》, 《예기》, 《논어》, 《효경(孝經)》 등을 가리킨다. 《한서(漢書)》 권30 <예문지 권십(藝文志第十)>

329) 대량(大梁)을 …… 생각하고 : 《육신주문선(六臣注文選)》 권36에 “《사기(史記)》에 위(魏)나라에 후영(侯嬴)이라는 은사(隱士)가 있는데, 나이 70세에 집이 가난하여 대량의 이문 문지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태사공(太史公 사마천(司馬遷))이 지나다가 대량의 옛터를 보고 이른바 이문이란 것을 찾아 물어보니, 이문은 성의 동쪽 문이었다”라고 하였다. 후영은 위나라 신릉군(信陵君)의 빈객이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기(史記)》 권77 <위공자열전(魏公子列傳)에 보인다.

330) 구원(九原)에서 …… 배회합니다 : 《예기》 <단궁 하(檀弓下)에 “조문자(趙文子)가 숙예(叔譽)와

특별히 가깝지 않고 족류(族類)도 아닌데 오히려 그 지역을 인하여 느끼고 생각하거늘, 하물며 일기(一氣)가 서로 전해지고 고풍(高風)³³¹이 세상에 가득한 현조(顯祖)³³²에 대해 그 산소를 찾아가 돌보는 우리들이 어찌 슬퍼하고 추모하면서 공경히 받들 것을 도모하지 않겠습니까.

이보다 십수 년 전에 근처에 사는 경주 후손 김영필(金永弼)과 김영일(金永日)이 각각 돈을 내어 간략히 제사 지내는 것을 해마다 상례로 삼고 말하기를 “이분은 조상이니, 차마 직계(直系)와 방계(傍系)로써 달리 보지 못하겠다.”라고 하였고, 또 고성 현감(高城縣監)이 도와준 것으로 인하여 계를 만들고 이자를 받아 표석(表石)을 세웠으니, 그 마음이 매우 어쭙니다. 또 근래에 양호(兩湖)의 인사(人士)가 장차 큰 비석을 세우려는 것을 의논하고 말하기를 “이 산에 들어와서 이러한 일을 기념하지 않으면 이는 공연히 온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이 또한 높습니다. 무릇 덕을 좋아하는 마음은 사람들이 똑같아 친소(親疏)에 차이가 없으니, 저 어질고 의로운 자들의 이러한 거동은 본래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본손(本孫)의 경우 조상을 받들고 효를 생각하는 도리에 있어 똑같이 덕을 좋아할 뿐만이 아닌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의물(儀物)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는 일에 정성을 다하지 않아 방손(傍孫)과 타성(他姓)보다 못하면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되는 일로서 또한 장차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죽고 싶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회암(晦菴) 주 선생(朱先生 주자)은 제치 부군(制置府君)의 무덤을 잘 지키지 못한 것을 괴로워했는데, 이를 관리에게 하소연하여 흙을 쌓아 봉분을 높였고³³³, 우재(尤齋) 송 선생(宋先生 송시열)은 진사(進士)의 무덤이 실전

함께 구원의 무덤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누구를 따를까? 나는 수무자를 따를 것이다. 그는 임금을 이롭게 하면서도 자기 몸을 잊지 않고,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도 그 벼를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라고 한 말이 나온다. 수회는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대부(大夫)로 이름은 사희(士會)이며, 수무자(隨武子), 범무자(范武子)라고도 부른다.

331) 고풍(高風) : 고상한 풍채(風采)나 품격(品格)을 말한다.

332) 현조(顯祖) : 이름이 세상에 높이 드러난 조상을 말한다.

333) 회암(晦菴) …… 높였고 : 주자가 원조(遠祖) 21공(公) 및 제치 부군과 조비(祖妣) 두씨 부인(杜氏夫人)의 묘에 고하는 글에 ‘선조 무덤을 공경히 잘 지키지 못해 일찍이 타인의 소유가 되어 떨리고

(失傳)된 것을 한스럽게 여겨 단을 쌓아 제사를 지냈으니³³⁴⁾, 옛 철인들이 조상의 일에 대해서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음이 대개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에는 원래 묘가 있고 또 송사할만한 것이 없으니 주자와 우재의 때와 비교하면 일의 완급과 형세의 난이에 있어 일은 적게 해도 공은 배가 될 것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사정을 살피고 예를 헤아리며 널리 묻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전답을 두고 비석 세우는 것을 세사(歲事)의 원계(遠計)로 삼을 뜻을 종친들에게 공경히 고합니다. 오직 바라건대 여러분들께서 먼 조상을 추모하여 근본에 보답하는[追遠報本]도를 중시하고, 충렬을 사모하고 덕을 생각하는 의를 떨쳐, 기꺼이 성금을 내어 큰일을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다행이겠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보임 [1939년]

示家衆【己卯】

이러한 큰 흉년을 당하여 구학(溝壑)³³⁵⁾의 걱정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참상은 곳곳에서 눈에 가득하니 죽고 사는 것은 큰 문제이다. 보통 사람의 마음에 어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공자가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백성은 신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³³⁶⁾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신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두려웠는데, 유사에게 하소연하여 옛 모습을 회복하여 흙을 쌓아 봉분을 높이고 석물을 세웠다.’라고 한 말이 《회암집(晦庵集)》 권86 <축문(祝文) 제고원조묘문(祭告遠祖墓文)에 나온다.

334) 우재(尤齋)…… 지냈으니 : 진사는 우암의 9대조 송극기(宋克己)인데, 우암이 묘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신단을 설치해서 나란히 제향하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송자대전(宋子大全)》 권145 <구대조진사부군신단비기(九代祖進士府君神壇碑記)에 나온다.

335) 구학(溝壑) : 흉년과 기근 때문에 굶어서 도랑에 뒹굴어 죽는다는 말이다.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흉년과 기근에 군주의 백성 가운데 노약자들은 시신이 구렁에 뒹굴고 장성한 자들은 사망으로 흩어져 간 자들이 몇천 명이나 된다.[凶年饑歲, 君之民老弱, 轉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라고 맹자가 말한 데에서 나왔다.

336) 예로부터 …… 없다 : 《논어》 <안연(顏淵)에 나온다.

사람답게 되는 도이니, 한 집안으로 말하면 자식은 효도하고 아버지는 인자하며, 부부는 의롭고 형제는 우애하는 것이다. 지금 보건대 마을의 무지한 사람이 생사의 갈림길에 먼저 그 마음이 흔들려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고 스스로 생계의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설령 먹을 것을 구하여 살더라도 이미 사람답게 되는 도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는가. 신의가 없이 산다면 살아도 죽은 것과 같고, 신의를 지켜 죽으면 죽어도 살아 있는 것과 같다.

원하건대 우리 집안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궁구하고 마음을 굳건히 정하여 효자(孝慈)와 우의(友義)를 명맥(命脈)으로 삼고, 한 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뿌리, 줄기, 껍질, 잎사귀[根莖皮葉]로 식품[食料]을 만들어라. 그래서 차라리 신의를 지키다 죽을지언정 신의가 없이 사는 것을 구하지 말라. 게다가 죽고 사는 것에는 명이 있으니, 모여 산다고 하여 반드시 모두 죽는 것도 아니고, 나뉘어 흩어진다고 반드시 모두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어찌 괴롭게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신의가 없는 것을 범하여 끝내 신의를 지켜 사는 두 가지 얻음[兩得]을 잃어버리겠는가. 그 또한 두려워하고 유념해야 할 것이다.

쌍백당이 충숙공³³⁷이 지은 매죽당³³⁸ 부군의 묘갈명을 읽고 [1942년] 讀雙柏堂李忠肅公所撰梅竹堂府君墓碣銘【壬午】

삼가 생각건대 정릉(靖陵 중종)의 시대에 정암(靜菴) 조 선생(趙先生 조광조(趙光祖))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현인(賢人)들이 무리지어 나와 지치(至治 지극한 정치)를 일으킬 것을 기대하였다. 당시에 노천(老泉) 김공(金公

337) 쌍백당 이 충숙공 : 이세화(李世華, 1630~1701)이다. 쌍백당(雙柏堂)은 그의 호이다. 충숙(忠肅)은 시호이고 자는 군실(君實)이다. 조정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후창집(後滄集)》 권12 <분재 문중에 보냄[與粉齋門中]>에서 후창은 “매죽당공의 묘갈은 외손인 명현 쌍백당의 손에서 나왔다.” 라고 말하였다.

338) 매죽당 : 김종(金宗, 1471~1538)이다. 매죽당은 그의 호이고 자는 사양(士仰), 본관은 부안(扶安)이다.

김식(金湜) 같은 사람이 실로 정암과 덕과 공이 같았는데, 부군(府君)이 그들에게 천거를 받았으니, 함께 무리지어 나간 현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화(禍)가 일어나자 김공이 또 제일 먼저 정암과 함께 걸렸는데, 부군은 애초에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암, 노천과 함께 화를 입지 않았으니, 이에 기미를 보고 편안히 물러난 한 가지 일이 도리어 혹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부군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은자(隱者)였으니, 가첩(家牒)에서 ‘기묘사화(己卯士禍) 뒤에 은거하여 자폐(自廢)했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때부터 속세의 생각을 영원히 끊고 아울러 교유(交遊)를 그만둔 것으로서 말한 것이다. 묘갈명(墓碣銘) 서(序)에서 김공이 천거한 것만 말하고 기묘사화를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초연히 홀로 면했다는 뜻을 드러내려고 한 것임을 말할 필요가 없으니, 보는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고’자의 음과 뜻 [1944년]

告字音義【甲申】

선사(先師 간재)는 평소에 《논어》 곡삭장(告朔章) 대문(大文)³³⁹⁾ 아래 소주(小註)의 고고독반(告古篤反)³⁴⁰⁾에 근거하여 말하기를 “곡삭은 사당에 고유(告由)하는 예이니, 제사 지낼 때 축문에서 감히 밝게 고한다[敢昭告]의 ‘告’자의 음도 마땅히 이처럼 읽어야 한다. 무릇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고할 때의 고는 모두 마땅히 이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문하에 들어온 선비들이 이를 똑같이 준행(遵行)하였다.

내가 일찍이 <요왈장(堯曰章)>의 ‘감히 거룩한 상제께 밝게 아뢰입니다.’³⁴¹⁾

339) 《논어》…… 대문(大文) : 《논어》 <팔일(八佾)>에 “자공이 초하룻날 (사당에) 고유하면서 바치는 희생 양을 없애고자 하였다.[子貢欲去告朔之餼羊.]”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문은 이 부분을 말한다.

340) 고고독반(告古篤反) : ‘고(告)’는 ‘고(古)’와 ‘독(篤)’의 반절음(反切音)으로, ‘곡’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341) 감히…… 아뢰입니다 : 《논어》 <요왈(堯曰)>에 “나 소자 이는 검은 희생을 써서 감히 거룩한 상제께 밝게 아뢰입니다.[予小子履, 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의 ‘고’자를 들어서 질문하기를 “이는 다만 축사(祝辭)를 가리킬 뿐이니 예를 행할 것을 청하는[請行禮] 것과 비교되지 않고, 고독반의 주도 없으니 아마도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곡삭장에 이미 이러한 주(註)가 있으니 무릇 높이는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이를 본받은 것이니, 어찌 반드시 다시 주를 달아야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렇다면 봉우는 동료인데, 충곡선도장(忠告善道章)³⁴²에서 ‘공독반(工毒反)’으로 주를 단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선사가 말하기를 “봉우는 마땅히 서로 공경해야 하니, 어찌 높이는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답하기를 “봉우가 높이는 대상이라면 곡삭장에 이미 이러한 주가 있어 알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이를 본받았는데, 다시 ‘공독반’으로 주를 단 것은 어째서입니까?”라고 하니, 선사가 다시 답하지 않았고, 그때의 분위기가 엄해서 감히 다시 묻지 못하였다.

물러 나와 여러 자서(字書)와 경전을 조사해보았는데 알지 못하여 의혹만 많아졌고, 이 때문에 의심을 쌓은 지가 30년이 되었다. 《규장전운(奎章全韻)³⁴³》에서는 ‘고’자에 대해 ‘알리다[報], 아뢰다[啓]는 고도절(古到切)로, 청하다[請], 보이다[示]는 고옥절(古沃切)’로 주를 달았다. 《옥편(玉篇)》과 자전(字典)에서는 ‘보(報)’와 ‘계(啓)’는 같고, 말미나 휴가를 청하다[請告]는 또한 거성(去聲)이고 배알하기를 청하다[謁請]는 입성(入聲)인데, 〈곡례(曲禮)〉 출필곡(出必告)³⁴⁴의 글을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였으니, 이는 높이는 대상에게 고하는 것으로 입성이 되는 것은 옳다. 그러나 ‘보’와 ‘계’에 이르러서는 자전에서 이미 ‘위에 고하는 것은 곡이라 하고 (위에서 아래로)

342) 충곡선도장(忠告善道章) : 《논어》〈안연(顏淵)〉에서 공자가 “충심으로 말해주고 잘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 욕되지 말게 해야 한다.[忠告而善道之, 不可則止, 無自辱焉.]”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43) 《규장전운(奎章全韻)》 : 1796(정조 20)년에 왕명에 따라 이덕무(李德懋) 등이 규장각에서 펴낸 운서(韻書)이다.

344) 〈곡례(曲禮)〉 출필곡(出必告) : 《예기》〈곡례 상(曲禮上)〉에 “무릇 남의 자식된 자는 나갈 때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뵈는다.[夫爲人子者, 出必告, 反必面.]”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아랫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고(誥)이다.’라고 한 《광운(廣韻)》³⁴⁵⁾의 설을 인용하고, 또 《서경》의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아뢰었다.³⁴⁶⁾’와 《시경》의 ‘사씨에게 여쭙었다.³⁴⁷⁾’라는 것을 인용하여 이를 증명하였으니, 이는 또한 높이는 대상이 아닌가. 그런데도 거성이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가령 《시경》〈남산(南山)〉에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 이미 부모에게 아뢰었는데³⁴⁸⁾…….’라고 한 것의 입성은 진실로 높이는 대상이다. 그러나 간모(干旄)에 ‘무엇을 말해 주려는가.³⁴⁹⁾’라고 한 것은 오히려 대부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이를 수 있고, 그 나머지 가령 〈고반(考槃)〉에 ‘(남에게) 말하지 않기로 길이 맹세하네.³⁵⁰⁾’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은 어찌 높이는 대상이겠는가?

또 예컨대 〈기취(既醉)〉에 ‘공시(公尸)가 좋은 말로 고하였다.³⁵¹⁾’와 〈주역〉〈몽괘(蒙卦)〉에 ‘처음 묻거든 알려 주지만, 번독하면 일러 주지 않는다.³⁵²⁾’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신이 인간에게 알리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일러주는

345) 《광운(廣韻)》: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고대 운서이다. 원명은 《대송중수광운(大宋重修廣韻)》으로, 송대(宋代:960~1279)의 진팽년(陳彭年)과 구옹(邱雍) 등이 당시에 유행하던 운서와 자서를 종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346) 그의 …… 아뢰었다: 《서경》〈하서(夏書) 우공(禹貢)〉에 “우가 검은 규를 폐백으로 올리면서 (순임금에게)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아뢰었다.[禹錫玄圭, 告厥成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47) 사씨에게 여쭙었다: 《시경》〈주남(周南) 갈담(葛覃)〉에 “사씨에게 여쭙어, 친정에 갈 것을 말하라고 했노라.[言告師氏, 言告言歸.]”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48) 반드시 …… 아뢰었는데: 《시경》〈제풍(齊風) 남산(南山)〉에 “아내를 취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반드시 부모에게 아뢰어야 한다. 이미 부모에게 아뢰었는데 어찌하여 또 (욕심을) 극에 달하게 하는가.[取妻如之何? 必告父母. 既曰告止, 曷又鞠止?]”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49) 무엇을 …… 주려는가: 《시경》〈용풍(邶風) 간모(干旄)〉에 “저 아름다운 그대여, 무엇을 말해 주려는가.[彼姝者子, 何以告之?]”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0) 말하지 …… 맹세하네: 《시경》〈위풍(衛風) 고반(考槃)〉에 “홀로 자다 잠 깨어 누워, 즐거움 남에게 말 않기로 길이 맹세하네.[獨寐寤宿, 永矢不告.]”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1) 공시(公尸)가 …… 고하였다: 《시경》〈대아(大雅) 기취(既醉)〉에 “마침을 잘함이 시작이 있으니, 공시가 좋은 말로 고하였다.[晷終有愒, 公尸嘉告.]”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2) 처음 …… 않는다: 《주역》〈몽괘(蒙卦) 괘사(卦辭)〉에 “처음 묻거든 알려 주지만, 두 번 세 번 거듭 물으면 번독하니, 번독하면 일러 주지 않는다.[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경우인데도 입성이 되었다. <갈담(葛覃)>에 ‘사씨에게 여쭙었다.³⁵³⁾’와 <강한(江漢)>에 ‘문인(文人)에게 아뢰었다.³⁵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아뢰는 경우인데도 거성이 되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서경》 <우공(禹貢)>의 ‘그 일이 완성되었다고 아뢰었다.³⁵⁵⁾’, <탕고(湯誥)>의 ‘모두 죄가 없음을 상하의 신기에게 하소연하였다.³⁵⁶⁾’와 ‘상천과 신후에게 밝게 아뢰었다.³⁵⁷⁾’, <반경(盤庚)>의 ‘너희들은 어찌 나에게 고하지 않는가.³⁵⁸⁾’와 ‘그대들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크게 우리 고후에게 고한다.³⁵⁹⁾’, <서백감려(西伯戡黎)>의 ‘조이가 두려워하여 왕에게 달아나 아뢰었다.³⁶⁰⁾’, <무성(武成)>의 ‘황천과 후토에 고유한다.³⁶¹⁾’, <금등(金縢)>의 ‘태왕, 왕계, 문왕에게 고유하였다.³⁶²⁾’와 ‘내가 우리 선왕에게 고할 말이

353) 사씨에게 …… 여쭙었다 : 《시경》 <주남 갈담>에 “사씨에게 여쭙어, 친정에 갈 것을 말하라고 했노라.[言告師氏, 言告言歸.]”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4) 문인(文人)에게 아뢰었다 : 《시경》 <대아 강한(江漢)>에 “너에게 규찬과 검은 기장술 한 동이를 내려주며 문인(文人 문왕)에게 아뢰어 산천과 토지를 하사한다.[釐爾圭瓚, 秬鬯一卣. 告于文人, 錫山土田.]”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5) 그의 …… 아뢰었다 : 《서경》 <하서(夏書) 우공(禹貢)>에 “우가 검은 규를 폐백으로 올리면서 (순임금에게) 그의 일이 완성되었다고 아뢰었다.[禹錫玄圭, 告厥成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6) 모두 …… 하소연하였다 : 《서경》 <상서(商書) 탕고(湯誥)>에 “하나라 왕이 덕을 멀하고 위세를 부려 모두 죄가 없음을 상하의 신기에게 하소연하였다.[夏王滅德作威, 并告無辜于上下神祇.]”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7) 상천과 …… 아뢰었다 : 《서경》 <상서 탕고(湯誥)>에 “상천과 신후에게 밝게 아뢰어 하나라에 죄를 내릴 것을 청하였다.[敢昭告于上天神后, 請罪有夏.]”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8) 너희들은 …… 않는가 : 《서경》 <상서 반경 상(盤庚上)>에 “너희들은 어찌 나에게 고하지 않고, 서로 부언으로 선동하여 사람들을 공동(恐動)시키고 빠지게 하는가.[汝曷弗告朕, 而胥動以浮言, 恐沈于衆?]”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59) 《서경》 <상서 반경 중(盤庚中)>에 나온다.

360) 조이가 …… 아뢰었다 : 《서경》 <상서 서백감려(西伯戡黎)>에 “서백이 여 나라를 이기자, 조이가 두려워하여 왕에게 달아나 아뢰었다.[西伯既戡黎, 祖伊恐奔告于王.]”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1) 황천과 …… 고유한다 : 《서경》 <주서(周書) 무성(武成)>에 “상나라의 죄를 지극히 하여 황천과 후토와 지나가는 곳의 명산, 대천에 고유한다.[底商之罪, 告于皇天后土所過名山大川.]”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2) 태왕 …… 고유하였다 : 《서경》 <주서 금등(金縢)>에 “주공이 여기에 서서 벽을 놓고 규를 잡으며 태왕, 왕계, 문왕에게 고유하였다.[周公立焉, 植璧秉珪, 乃告太王王季文王.]”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없을 것이다.³⁶³⁾, <입정(立政)>의 ‘천자의 자리를 이은 임금께 고합니다.³⁶⁴⁾와 ‘마침내 감히 그 임금에게 고하고 가르쳤다.³⁶⁵⁾와 ‘모두 유자인 왕에게 아뢰었습니다.³⁶⁶⁾, <강왕지고(康王之誥)>의 ‘감히 천자에게 공경히 아뢰입니다.³⁶⁷⁾, <주역> <익괘(益卦)>의 ‘공에게 아뢴 때 규를 쓰듯 하리라.³⁶⁸⁾와 ‘공에게 고함에 따를 것이다.³⁶⁹⁾, <논어>의 ‘애공(哀公)에게 고하였다.³⁷⁰⁾와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다.³⁷¹⁾, <맹자>의 ‘자로가 이 말을 고하였다.³⁷²⁾와 ‘유사 가운데에 아뢴 자가 없었다.³⁷³⁾와 ‘제가 인군께 아뢰었습니다.³⁷⁴⁾

363) 내가 …… 것이다 : 《서경》 <주서 금등>에서 주공(周公)이 “내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우리 선왕에게 고할 말이 없을 것이다.[我之弗辟, 我無以告我先王.]”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4) 천자의 …… 고합니다 : 《서경》 <주서 입정(立政)>에서 주공(周公)이 “손을 이마에 대고 머리를 조아려 천자의 자리를 이은 임금님께 고합니다.[拜手稽首, 告嗣天子王矣.]”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5) 마침내 …… 가르쳤다 : 《서경》 <주서 입정>에서 주공이 “옛사람들은 이 도를 잘 행하였으니 …… 마침내 감히 그 임금에게 고하고 가르쳤다.[古之人迪 …… 乃敢告教厥后.]”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6) 모두 …… 아뢰었습니다 : 《서경》 <주서 입정>에 “나 단은 이미 남에게서 받은 아름다운 말을 모두 유자인 왕에게 아뢰었습니다.[予且已受人之徽言, 咸告孺子王矣.]”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7) 감히 …… 아뢰입니다 : 《서경》 <주서 강왕지고(康王之誥)>에 “태보와 예백이 함께 나아가 서로 읊하고 모두 재배하고 머리를 조아려 말하기를 ‘감히 천자에게 공경히 아뢰입니다.’라고 하였다.[太保暨芮伯, 咸進相揖, 皆再拜稽首曰: ‘敢敬告天子.’]”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8) 공에게 …… 하리라 : 《주역》 <익괘(益卦)> 육삼효(六三爻)의 효사에 “진실한 정성이 있고 중도로 해야 공에게 아뢴 때에 규를 쓰듯 하리라.[有孚中行, 告公用圭.]”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69) 공에게 …… 것이다 : 《주역》 <익괘> 육사효(六四爻)의 효사에 “중도로 하면 공에게 고함에 따를 것이다.[中行, 告公從.]”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0) 애공에게 …… 고하였다 : 《논어》 <현문>에 “공자가 목욕을 하고 조정에 나아가 애공에게 고하였다.[孔子沐浴而朝, 告於哀公.]”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1) 감히 …… 없다 : 《논어》 <현문>에서 공자가 “내가 대부의 뒤를 따르기 때문에 감히 고하지 않을 수 없다.[以吾從大夫之後, 不敢不告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2) 자로가 …… 고하였다 : 《맹자》 <만장 상(萬章上)>에 “자로가 이 말을 고하자 공자가 말하기를 ‘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였다.[子路以告, 孔子曰: ‘有命.’]”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3) 유사 …… 없었다 : 《맹자》 <양혜왕 하(梁惠王下)>에 “유사 가운데에 아뢴 자가 없었으니, 이는 윗사람들이 태만하여 아래 백성들을 해친 것입니다.[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4) 제가 …… 아뢰었습니다 : 《맹자》 <양혜왕 하>에 “악정자가 맹자를 뵈고 말하기를 ‘제가 인군께 아뢰니, 인군께서 와서 뵈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樂正子見孟子曰: ‘克告於君, 君爲來見也.’]”

와 ‘공도자가 이 말을 아뢰었다.³⁷⁵⁾’와 ‘진자가 시자의 말을 아뢰었다.³⁷⁶⁾’와 ‘고자가 이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³⁷⁷⁾’와 ‘서자가 이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³⁷⁸⁾’와 ‘제(齊)나라 선왕(宣王)에게 아뢰었다.³⁷⁹⁾’라고 한 등속은, 어떤 경우에는 임금과 스승에게 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조(父祖)와 천지에 고하여 그 높이는 대상이 이보다 막중함이 없는데, 아울러 모두 거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또한 마땅히 ‘곡삭장의 주를 예로 삼아 반드시 주를 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야 하겠는가. 아마 이러한 이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구구한 내가 주제님께 생각하기를 “‘고’자의 거성과 입성은 원래 상하에 구분이 없으나, 다만 경전에서 이를 찾는다면 일삼을 것이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곡삭’, ‘출곡’, ‘충곡’은 ‘청하다’, ‘보이다’의 뜻이고, 《시경》과 《주역》에서의 입성은 같은 운(韻)을 취하고 다른 뜻은 없으며, 그 나머지는 모두 원래 상하에 구분이 없다.”라고 여긴다. 그러니 축문에서 반드시 입성이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자신할 수 없는 것이다. 삼가 의심스러운 것을 기록하여 뒷날 다시 더욱 사색하여 마침내 스승의 가르침을 깨달을 자료로 삼노라.

겨울 국화를 보고 감회를 기록함 見冬菊識感

내가 갑자년(1924) 겨울에 (고부(古阜)) 우일면(雨日面) 남산재(南山齋)에

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5) 공도자가 …… 아뢰었다 : 《맹자》〈공손추 하(公孫丑下)〉에 나온다.

376) 진자가 …… 아뢰었다 : 《맹자》〈공손추 하〉에 “진자가 시자의 말을 맹자에게 아뢰었다.[陳子以時子之言告孟子.]”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377) 고자가 …… 아뢰었다 : 《맹자》〈공손추 하〉에 나온다.

378) 서자가 …… 아뢰었다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온다.

379) 제(齊)나라 …… 아뢰었다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맹자가 제나라 선왕(宣王)에게 아뢰었다.[孟子告齊宣王.]”라고 한 말에서 나왔다.

머물고 있었다. 때가 10월 상순이라 산에 달이 휘영청 밝고 북풍의 찬바람이 사람에게 몰아치기에 뜰 가를 배회하면서 세모(歲暮 연말)의 감회를 견디기 어려웠다. 이때 마침 김군 장환(長煥)이 나에게 한 떨기 노란 국화를 주었는데, 찬란한 황금빛 꽃이 중양(重陽 음력 9월 9일)의 자태에 손색이 없었다. 이에 내가 한숨 쉬며 탄식하고 말하기를 “가을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향기로운 많은 꽃이 다 시들어 서리 맞은 국화가 너무 귀할 만한데, 하물며 눈 속의 국화에 있어서이겠는가. 오늘날의 선비는 눈 내리는 날의 국화이니, 누가 능히 거둬들인 변란을 두루 다 겪으면서도 절조를 더욱 엄하게 하여 너와 함께 돌아가겠는가. 무릇 국화에 대한 사랑은 정절(靖節)³⁸⁰의 뒤에 생겼으니, 우리가 어찌 감히 말하겠는가. 다만 오늘날 인류가 짐승처럼 되고 윤리가 식은 재처럼 사라져버렸으니, 어찌 다만 참절(僭竊)한 재앙 속에 었혀사는 노비³⁸¹일 뿐이겠는가. 내가 원하건대 많은 국내 지사들은 향기를 품고 절개를 지켜서 아홉 번 죽어도 변치 않으며, 지금 세상의 겨울 국화가 되어 이에 정절의 가을 국화보다 빛남이 있기를 맹세하라.”라고 하였다.

세속에서 문자의 호칭을 오용하는 것에 대한 변론

世俗文字稱號誤用辨

공자가 ‘인(仁)하지만 말재주가 없다.’라는 질문에 답하기를 “어찌 말재주를 쓰겠는가. 넉넉한 말재주로 남의 말을 막아서 자주 남에게 미움만 받을 뿐이다.³⁸²”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말재주가 없는 것은 바로 미덕(美德)

380) 국화에 …… 정절(靖節) : 정절은 도잠(陶潛, 365~427)의 시호이다. 자는 연명(淵明) 또는 원량(元亮)이다. 도연명은 국화를 매우 좋아하였다. 국화는 그의 많은 작품에 보이는데, 《도연명집(陶淵明集)》 권2 <화곽주부(和郭主簿)>에서는 “우뚝 서리 아래 걸물이 되었다.[卓爲霜下傑]”라고 국화를 칭송하기도 하였다.

381) 참절(僭竊)한 …… 노비 :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말한다. 후창이 이 글을 쓴 때가 갑자년(1924)인데, 이미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져 온 나라의 백성이 일제의 가혹한 통치 아래에 있었다.

382) 인(仁)하지만 …… 뿐이다 :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나온다.

이다. 고금에 문인들이 대부분 말재주가 없다는 것으로 자칭(自稱)하는데 이는 미덕으로 자처하는 것이니, 어찌 겸사(謙辭)이겠는가. 문인뿐만 아니라 중세 이후 현유(賢儒)도 대부분 이와 같았다. 그러나 후대의 사람들은 결코 그대로 따라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남의 조카를 일컬어 ‘함씨(咸氏)’, ‘영함(令咸)’, ‘종함(從咸)’, ‘당함(堂咸)’이라 하니, 이는 무슨 의의(義意)가 되는가. 완함(阮咸)³⁸³은 본래 완적(阮籍)³⁸⁴의 조카이니, 다른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게다가 완적과 완함은 숙질(叔姪) 간으로, 예법의 밖에서 스스로 거리낌없이 행동하였으니, 본래 사모할 만한 현자가 아닌데, 차용하여 체면을 세워주는 자가 어떻게 이로서 남을 일컬어 해를 끼치는가. 심지어 그 조카를 ‘함씨’, 그 숙부를 ‘완장(阮丈)’, ‘종완장(從阮丈)’, ‘당완장(堂阮丈)’으로 일컫는데 이르러서는, 한번은 그 이름을 듣고, 한번은 그 성을 들었으니 더욱 지극히 가소롭다.

증자가 자리를 바꾼 것은³⁸⁵ 비록 바름을 얻었다고 하지만, 결국 그가 자리를 바꾸기 전에는 스스로 살피지 못한 일이니, 촛불을 잡고 있던 동자(童子)가 아니었다면 혹 거의 바름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후대 사람들은 다만 마땅히 그가 바름을 얻은 것을 사모하여 배우고, 그 전에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결국 이는 증자가 홀로 행한 일일 뿐인데, 어찌하여 후대에 유현(儒賢)이 몰(沒)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지 않은데도 관례로 역책을 일컫는가. 상례의 형식(易)과 슬퍼하는 마음[戚]은³⁸⁶ 모두

383) 완함(阮咸) : 생몰연대 미상.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와 서진의 문인으로, 자는 중용(仲容)이다.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이다. 죽림칠현의 다른 한 사람인 완적의 조카이다. 술을 잘 마셨으며 종종 완적과 함께 음주를 즐겼다. 이 때문에 당대의 선비들에게 질시를 받았다.

384) 완적(阮籍) : 210~263. 자는 사종(嗣宗)이다. 위나라 진류(陳留) 사람이다. 아버지는 후한(後漢) 말의 명사이자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완우(阮瑀)이다. 성격이 호방하고 예법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다.

385) 증자가 …… 것 :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증자가 병으로 누워 위독했다. 그런데 구석에 앉아 촛불을 잡고 있던 동자가 ‘빛나고 화려하니 대부(大夫)가 사용하는 자리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증자가 듣고 두려운 기색을 띠고 한숨을 내쉬었다. 동자가 반복하여 말하자, 증자가 ‘바른 것을 얻고서 죽으면 그뿐이다.’라고 붙들어 일으키고 자리를 바꾸었는데, 다시 자리에 누워 안정되기도 전에 몰(沒)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386) 상례의 …… 마음[戚]은 : 《논어》〈팔일(八佾)〉에서 공자가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중도(中道)를 잃은 것인데, 요즘 사람들은 거상(居喪)을 잘한 사람을 일컬어 바로 ‘이척(易戚)이 모두 지극하다.’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마땅히 ‘감정과 형식이 모두 지극하다.[情文備至]’라고 해야 한다.

아들의 죽음에 곡하다가 실명(失明)한 것은³⁸⁷⁾ 자하(子夏)의 지나친 부분인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잃은 사람을 일컬어 바로 ‘상명지통(喪明之痛)’이라 하니, 이러한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잃고 동이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른 것은 장자(莊子)의 방탕함이니³⁸⁸⁾, 또 아내를 잃은 사람을 일컬어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고 해서 안 된다.

마씨(馬氏)의 5형제 가운데 마량(馬良)³⁸⁹⁾의 자는 계상(季常)인데, 자라면서 눈썹이 하얗게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씨의 오상(五常) 가운데 흰 눈썹[白眉 마량]이 가장 뛰어나다.³⁹⁰⁾”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남의 백형(伯兄)을 ‘백미(白眉)’로 일컫고 ‘가장 뛰어나다.’는 뜻을 취했으니, 아름다운 호칭인 듯하다. 그러나 ‘백미’는 결국 사람의 모습이 변이(變異)한 것이니, 이러한 호칭은 남의 형을 공경하는 도리가 아니다.

상고시대에 푸른 매화[青梅], 풀명자나무[査上] 위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녀의 혼사를 정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떤 책에서 나왔는지

검소해야 하고, 상은 형식적으로 잘 치르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해야 한다.[禮與其奢也，寧儉，喪與其易也，寧戚.]”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

387) 아들의 …… 것은 : 《예기》〈단궁 상〉에 “자하가 아들을 잃고 실명하였다.[子夏喪其子，而喪其明.]”라고 한 데서 나왔다.

388) 아내를 …… 방탕함이니 : 《장자(莊子)》〈외편(外篇) 지락(至樂)〉에 “장자의 아내가 죽어서 혜자(惠子)가 문상을 갔는데, 장자가 마침 두 다리를 뺀고 앉아 동이를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莊子妻死，惠子弔之，莊子則方箕踞，鼓盆而歌.]”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

389) 마량(馬良) : 187~222. 자는 계상(季常), 백미(白眉)이다. 삼국시대 촉한의 장수이고, 마씨의 5형제 가운데 장남이다. 눈썹이 흰색이라 백미(白眉)라고도 불렸다.

390) 당시 …… 뛰어나다 : 《삼국지(三國志)》권39 〈촉서(蜀書) 마량전(馬良傳)〉에 “마량은 자가 계상으로 양양 의성 사람이다. 그의 집에 5형제가 있었는데 모두 재주가 출중했다.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씨의 오상 가운데 흰 눈썹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하였다. 마량이 눈썹에 흰 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컬어졌다.[馬良字季常，襄陽宜城人也。兄弟五人，並有才名，鄉里爲之諺曰：‘馬氏五常，白眉最良.’ 良眉中有白毛，故以稱之.]”라고 말한 데서 나왔다.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세속에서 신랑과 신부의 부모가 서로 ‘사돈(查頓)’으로 부른다고 하니, 이는 무의미한 말이다. 그렇다면 만일 풀명자나 무위가 아닌 꽃 아래[花下]에서 머리를 조아렸다면 마땅히 ‘화돈(花頓)’으로 일컬어야 하는가.

‘윤(胤)’은 자서(字書)에 ‘계통을 잇다[繼]’, ‘잇다[嗣]’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윤’은 장자(長子)를 일컫는 것이니, 지금 세속의 서찰과 언어에서 남의 아들을 일컬을 때 장자와 차자(次子)를 묻지 않고 공통으로 ‘윤우(胤友)’, ‘윤군(胤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이다. 10년 전에 내가 사는 고을의 임 박사(林博士)가 박모(朴某)에게 편지를 보냈었는데, 그 차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윤군이 와서 배웠다. ……”라고 말하였다.

이때 마침 박모의 장자가 죄를 범해 밖에 피해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집 안의 문서를 탐색하다가 임 박사의 편지를 찾고는 와서 따져 물었다. 이에 임 박사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차자를 가리켰고, 그의 장자는 애초에 무관하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자서에서 ‘윤’은 장자의 칭호이고 공은 박사인데, 어찌 글자의 뜻을 모를 리가 있는가. 이는 임시로 말을 바꾼 것이니,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 뒤에 박모의 장자를 잡고 난 뒤에야 임 박사가 무사할 수 있었다. 그가 비록 오랑캐이지만 오히려 자학(字學)에 정밀함이 이와 같았다.

내구(內舅)의 아들이 내종(內從)이고 고(姑)의 아들이 외종(外從)인데, 지금 통속적으로 대부분 바꾸어 부르니, 이는 무엇 때문인가? 세속에서 내구를 외숙(外叔)으로 부르기에 그 아들을 외종으로 부른다. 이미 이를 외종으로 불렀으니, 절로 마땅히 고의 아들을 내종으로 불러야 한다. 비록 그렇지만 이는 크게 옳지 않다. 모(母)의 형제가 구(舅)가 되는 것은 예경(禮經)에 드러나 있고, 그 ‘내구’라고 이르는 것은 외구(外舅)와 구별한 것이다. 이미 ‘내구’라고 하였으니, 그 아들 되는 자가 어찌 내종이 되지 않겠는가. 이 아들이 이미 내종이 되었다면, 출가외인인 고의 아들이 어찌 외종이 되지 않겠는가.

부(父)의 처를 ‘모(母)’라 하고 부의 자매(姊妹)를 ‘고(姑)’라 한다. 따라서 고는 다만 마땅히 ‘고’로 일컬을 뿐이니, 만일 ‘고모(姑母)’라고 일컬으면

온당치 않다.

세속에서는 처의 형제를 ‘처남(處娚)’으로 부르는데, 남(娚)이 자서(字書)에 보이지 않으니 마땅히 ‘처형(妻兄)’, ‘처제(妻弟)’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처의 자매(姊妹)를 ‘처형’, ‘처제’라고 일컫는 것은 어째서인가? 이것은 마땅히 ‘처자(妻姊)’, ‘처매(妻妹)’라고 해야 한다.

여자 가운데 나보다 먼저 태어난 자를 손윗누이[姊]라 하고, 나보다 뒤에 태어난 자를 누이[妹]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세속에서 그다지 분별하지 않고 손윗누이의 남편을 ‘매부(妹夫)’, ‘매형(妹兄)’이라 하고, 손윗누이의 집을 ‘매가(妹家)’라 한다. 부녀자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장부로서 장년에 이른 자도 그렇게 부르니 이는 큰 망발이고, 매형이라고 이른 것은 더욱 우습다. 이미 ‘매(妹)’라고 하였는데 또 어찌 ‘형(兄)’이라고 하는가. 마땅히 ‘자부(姊夫)’라고 해야 한다. 만일 ‘자형(姊兄)’, ‘매제(妹弟)’라고 이른다면 겨우 말이 된다.

‘수(嫂)’는 형의 아내이니, 세속에서 ‘제수(弟嫂)’라고 일컫는 것은 터무니없다. 마땅히 ‘제부(弟婦)’라고 해야 한다.

시문(詩文) 사이에 세속 사람들이 ‘경성(京城)’을 ‘장안(長安)’, ‘낙양(洛陽)’으로 일컫는 것은 잘못이다. 장안과 낙양은 본래 그 지역이 있는데 어느 곳에 해당되는가. 사실을 기록하는 글 및 장문(狀文)이나 갈문(碣文)을 지을 때 더욱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𦵑)’는 지황(地黃)이니, 지황은 가라앉아 내려가는 성질이 있기에 풀 초(艸)를 좃고 아래 하(下)를 좃는다.³⁹¹⁾ 그런데 요즘에는 ‘변[𦵑]’이 되었으니³⁹²⁾, 예를 들어 ‘생변[生 생지황]’, ‘숙변[熟 숙지황]’, ‘변개(卞介)’라고 하는 것은 약성(藥性)에 있어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의 합장(合葬)은 <단궁(檀弓)>에서 무덤 안의 관

391) 풀 …… 좃는다 : ‘𦵑’자가 풀 초와 아래 하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다.

392) ‘변(卞)’이 되었으니 : ‘𦵑’는 ‘지황 하’인데, ‘下’자가 ‘卞’자로 잘못 읽히면서 ‘변[卞]’이라는 한국식 한자가 생긴 듯하다. 따라서 ‘숙하(熟𦵑)’가 맞고 ‘숙변[熟卞]’은 잘못이지만, ‘숙변’을 ‘숙하’의 변한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우리 사전에서도 ‘숙변’과 ‘숙하’를 모두 인정하여 이 두 단어를 서로 유의어로 보았다.

(棺 속 널)과 곽(槨 걸 널)의 이합(離合)으로써 말하였다.³⁹³⁾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분묘(墳墓)의 합봉(合封)과 각봉(各封)으로써 말하니, 인가(人家)의 묘도문자(墓道文字)에 사용하는 것은 사실에 근본한 것이 아니다.

옛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다만 그 자손만 보았을 경우, 그 아들을 평범한 사람이나 용렬한 사람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문 위에 ‘봉(鳳)자를 써서 붙이고 돌아갔다.³⁹⁴⁾ 그러나 글자가 비록 걸보기에 좋지만 실제로는 범조(凡鳥)³⁹⁵⁾이기에 당나라 시에 ‘문에 이르러 감히 범조(凡鳥)라고 쓰지 못한다.³⁹⁶⁾[到門不敢題凡鳥]’라고 이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서찰에 ‘봉’자를 쓰고 돌아오는 것을 무난하게 사용하니, 이는 범조로 남의 자손을 대우하는 것이다.

양자로 나아가 과방(過房)³⁹⁷⁾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경전에는 보이지 않고, 조조(曹操)³⁹⁸⁾가 하후승(夏侯嵩)³⁹⁹⁾의 후사가 된 데에서 처음으로 보인다.

393) 노(魯)나라와 …… 말하였다 : 춘추 시대에 노나라와 위나라에서 합장하였는데, 그 방식이 달랐다는 것을 말한다. 《예기》〈단궁 하〉에서 공자가 말하기를 “위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분리하였고, 노나라 사람들의 합장은 합하였는데, 노나라 방식이 더 좋다.”라고 하였고, 소(疏)에 “부는 합장이다. 분리한다는 것은 걸 널 속에 어떤 물건으로 두 속 널의 사이를 격리시키는 것이다. 노나라 사람들은 합하였으니, 이는 두 속 널을 함께 걸 널 속에 두고 다른 물건으로 격리시키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394) 옛사람들은 …… 돌아갔다 : 《세설신어(世說新語)》〈간오(簡傲)〉에 “진(晉)나라 여안(呂安)이 (절친) 혜강(嵇康)을 찾아갔는데, 마침 혜강은 없고 그의 형 희(喜)가 나와서 맞이하였다. 그러자 여안은 방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문 위에 ‘봉’자를 써서 붙이고 떠났다.[安後來，值康不在，喜出戶延之。不入，題門上作鳳字而去.]”라고 말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손이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 뜻이다.

395) 글자가 …… 범조(凡鳥) : ‘봉’자를 파자(破字)하면 범조가 된다. 이는 시원참은 새라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이나 용렬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396) 당나라 …… 못한다 : 왕유(王維)의 〈춘일여배적과신창리방여일인불우(春日與裴迪過新昌里訪呂逸人不遇)〉라는 시에 나온다.

397) 과방(過房) : 아들이 없을 경우 형제 또는 일가의 친척을 양자로 삼는 일, 또는 그 사람을 말한다.

398) 조조(曹操) : 155~220. 중국(中國) 후한(後漢) 말기(末期)의 무장(武將)이다. 본성은 하후(夏侯)이고 자는 맹덕(孟德)이다. 황건(黃巾)의 난(亂)을 다스려 군공(軍功)을 세웠다. 원소(袁紹)와 같이 도적과 흉노(匈奴)를 토벌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여, 동탁(董卓)의 사후 정권을 장악하였다.

399) 하후승(夏侯嵩) : 본래 조조의 아버지 조숭(曹嵩 ?~194)이다. 자는 거고(巨高)다. 성은 본래 하후씨(夏侯氏)였는데, 환관 조등(曹騰)의 수양아들이 되었다.

생각건대 그것(과방)은 이성(異姓)의 후사가 된 경우에만 사용하고, 동성(同姓)의 후사가 된 경우에는 사용하지는 안 된다고 본다.

진 강공(秦康公)이 그 외삼촌을 전송하여 위양(渭陽)에 이르렀기에⁴⁰⁰ 다른 사람의 외삼촌을 ‘위양장(渭陽丈)’이라고 일컫는다. 주자가 사자(獅子)를 그려 외손(外孫)에게 주었기에⁴⁰¹ 외손을 ‘사손(獅孫)’으로 일컫는데, 모두 사용하지는 안 된다. 만일 외삼촌을 전송하여 낙양(洛陽)에 이르렀다면 마땅히 ‘낙양장(洛陽丈)’이라고 해야 하고, 외손에게 호랑이를 그려주었다면 마땅히 ‘호손(虎孫)’이라고 해야 하는가.

좌태충(左太冲)이 <삼도부(三都賦)>를 지었는데, 황보밀(皇甫謐)⁴⁰²의 서문(序文)을 얻은 뒤에 문장의 명성이 더욱 성대해졌다.⁴⁰³ 세상에서는 황보밀을 ‘현안 선생(玄晏先生)’으로 일컫기 때문에 문집의 서문을 ‘현안지탁(玄晏之託)’, ‘현안지역(玄晏之役)’이라고 하니, 요즘 사람들이 묘도문자(墓道文字)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공자가 옛날에 머물렀던 관사(館舍) 주인의 상(喪)을 만나 참마(驂馬)⁴⁰⁴를 벗겨 부의(賻儀)하게 하자, 문인이 너무 중하다고 의아해하였다. 공자가

400) 진 강공(秦康公)이…… 이르렀기에 : 춘추 시대 진 강공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삼촌 중이(重耳), 즉 진 문공(晉文公)을 전송할 때에 “내 외삼촌을 전송하여 위양에 이르렀노라. [我送舅氏, 曰至渭陽.]”라고 노래한 내용이 《시경》<진풍(秦風) 위양(渭陽)>에 나온다.

401) 주자가…… 주었기에 : 주희가 사위 황간(黃幹)에게 한 폭의 사자 그림을 보내면서, ‘외손 황로(黃輅)가 떨쳐 일어나 포효하는 사자를 닮기 바란다.’라고 하는 내용이 《주자대전 속집(朱子大全 續集)》 권1 <답황직경(答黃直卿)>에 보인다. 또 《서산문집(西山文集)》 권35 <화사첩(畫師帖)>에 “주 문공이 육담미가 그린 사자상을 그 외손 황로에게 보내 주었다. 황로의 자는 자목이니, 면재의 장자이다. [朱文公以陸探微所畫師子像, 遺其外孫黃輅. 輅字子木, 勉齋長子也.]”라는 내용이 나온다. 육담미는 육조(六朝) 시대 송(宋)나라의 유명한 화가이다.

402) 황보밀(皇甫謐) : 215~282. 위(魏)나라와 진(晉)나라 사이의 의사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사안(士安)이고 어릴 때 이름은 정(靜)이며, 현안 선생(玄晏先生)이라 자호(自號)하였다.

403) 좌태충(左太冲)이…… 성대해졌다 : 태충은 좌사(左思)의 자이다. 서진(西晉)의 시인이다. 좌사가 10년 동안 구상하여 <삼도부(三都賦)>, 즉 <촉도부(蜀都賦)>, <오도부(吳都賦)>, <위도부(魏都賦)>를 지었는데, 황보밀이 서문을 써주어 칭찬하자 부귀한 자들이 서로 다투어 베풀어서 낙양의 종이값이 폭등했다는 고사가 전한다. 《진서(晉書)》 권92 <문원전(文苑傳) 좌사(左思)>

404) 참마(驂馬) : 《예기》<단궁 상>의 주에 “수레에 멩을 맬 때, 가운데 두 마리는 복마(服馬), 양쪽 바깥의 각각 한 마리는 참마가 된다. [駕車者, 中兩馬爲服馬, 兩旁各一馬爲驂馬.]”라고 하였다.

말하기를 “내가 한 번 (관사의 주인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으니, 나는 이유 없이 눈물 흘리는 자를 싫어한다. 소자들아, 부의를 행하라.⁴⁰⁵⁾” 고 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미 곡을 하고 나와서 눈물을 흘렸는데, 만일 부의를 하지 않으면 이 눈물은 이유 없이 다만 흘리는 것이니, 이 어찌 인정(人情)에 마땅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부의의 예를 행한 뒤에라야 바로 인정에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남의 만사(挽詞)⁴⁰⁶⁾에 바로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린다.[涕無從]’라는 말을 쓰고 말하기를 “눈물이 갑자기 나오기에 ‘무종(無從)’이라 한다.”라고 하니, 그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근심스러워할 만하다. 무릇 이유 없이 눈물 흘리는 것은 공자가 미워한 것이니, 어찌 다른 사람을 애도하는 말에 사용할 수 있겠는가.

남산재에서 제군을 깨우쳐줌 [1924년]

南山齋諭諸君【甲子】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받은 것 가운데에 순수한 성(性), 신령스럽고 밝은 마음, 바르고 준수한 몸이 있고, 자기에게 속한 윤리 가운데에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가 있다. 성은 마땅히 길러야 하고 마음은 마땅히 보존해야 하며, 몸은 닦아야 하고 아버지는 자애롭고 아들은 효도하며, 임금은 인자하고 신하는 공경하며, 부부는 분별이 있고 장유는 차례가 있으며, 붕우는 신의가 있어야 하니, 이는 모두 우리 몸에 절실한 직무이기 때문에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본래 태나면서부터 아는 뛰어난 성인의 자질이 아니면 반드시 선각자에게 배워야 하고 사우(師友)에게 물은 뒤에야 본분을 다하는 방법을 알 수 있으니, 이는 학문의 이름이 세워진 이유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405) 공자가 …… 행하라 : 《예기》〈단궁 상〉에 나온다.

406) 만사(挽詞) : 죽은 사람을 슬퍼하여 지은 글이다.

학문의 본의(本意)를 모르고, 이는 문달(聞達)⁴⁰⁷을 구하는 것이고 이록(利祿)을 구하는 것이며, 현묘(玄妙)함을 바라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에 겨우 몇 부의 경전을 읽고 조금의 수고로움을 하고는 이름과 봉록이 창성하지 않고 기이한 효과가 이르지 않으면 갑자기 학문을 포기하고 권모술수와 공명의 길로 쫓아가니, 천년의 실학(實學)의 폐해짐이 모두 이 때문인데, 하물며 지금의 세상에 있어서이겠는가.

큰 성인(大聖)에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윤리와 강상은 사람을 죽이는 짐독(鴆毒)⁴⁰⁸으로 돌리는데, 넓고 넓은 천지에서 한 자 되는 주름진 소매가 달린 도포를 입은 그대들이 이러한 때에 적막한 물가에 모여 부지런히 글을 읽으니, 직분을 다하면서도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 것을 깊이 아는 자가 아니면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다만 서로 장점을 관찰하여 본받는 선(善)⁴⁰⁹이 없고, 쓸쓸한 처지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기만 하니, 어찌 거들어줄 한마디 말이 없겠는가.

내가 듣건대 군자의 학문은 처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마치는 것이 어렵고, 예기(銳氣)를 떨쳐 일으키는 것이 다만 귀한 것이 아니고 지성(至誠)으로 투철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려울 만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성(性)과 심(心)과 신(身)이 없으면 바야흐로 이를 기르고 보존하며 닦는 공이 없고,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봉우가 없으면 바야흐로 자애[慈], 효(孝), 인자[仁], 공경[敬], 분별[別], 차례[序], 신의[信]의 도가 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천하에 신심(身心)과 윤속(倫屬)⁴¹⁰ 없는 사람이 없으니, 도와 공을 마땅히 배우고 물어서 잠시도 버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주자가 이르지 않았던가. “한숨이 남아 있는 순간까지 이 뜻이 조금이라도 해이해짐을 용납하지 않는다.”⁴¹¹”라고 하였다. 이는 그대들과 생사를 함께

407) 문달(聞達) :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말한다.

408) 짐독(鴆毒) : 짐새의 깃에 있다는 맹독(猛毒)이다.

409) 서로 …… 선(善) : 대본의 ‘相觀之善은 《예기》〈학기(學記)〉에 “서로 장점을 보고 배워 착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을 마라고 한다.[相觀而善之謂摩.]”라고 한 데서 나왔다.

410) 윤속(倫屬) : 천문(天倫)의 친속(親屬)을 말한다.

411) 한 …… 않는다 : 《논어집주》〈태백(泰伯)〉에서 주자가 “인이란 인심의 온전한 덕이니, 반드시

하는 영부(靈符)와 진결(眞訣)⁴¹²이니, 보배롭게 간직하고 또 유념하라. 이를 비유하면 오곡이 풍년일 때에 많은 곡식을 갈무리하는 일은 오히려 쉽게 할 수 있지만, 흉년이 들어 굶주린 해에 많은 곡식의 종자를 저장하여 다가오는 해의 파종에 대비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것과 같다.

앞으로 그대들의 성취가 어떨지는 오직 재능의 고하(高下)와 노력의 심천(淺深)에 달려 있으니, 내가 감히 예언하지 않겠다. 가령 크게 성취하지 못하여 공자가 말한 삼사중품(三士中品)⁴¹³과 맹자가 말한 이중사하(二中四下)⁴¹⁴에 그치지라도, 그 세도(世道)에 도움 되는 공이 어찌 갑자기 다스림과 교화가 아름답고 밝은 때의 한 대군자(大君子)보다 못하겠는가. 이 때문에 내가 “오늘 그대들 몇 사람이 뒷날 온 백성의 생활종자(生活種子)이다.”라고 말하겠다. 이러한 데까지 생각이 이르렀으니, 어찌 매우 중요하지 않겠으며, 어찌 감히 잠시라도 머뭇거리겠는가.

오직 학문의 실체는 신심(身心)과 윤리에 있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행하고 여력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⁴¹⁵”라고 하였고, 맹자가 말하기를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⁴¹⁶”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현(聖賢)이 세운 만대의 표준이다. 그런데 근래 이후로 밖을 중시하고 안을 경시하여 실제적인 것을 버리고 공허한 것을

몸으로써 체행하여 힘써 행하려고 한다면 책임이 중하다고 이를 만하고, 한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이 뜻이 조금이라도 헤이해짐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멀다고 이를 만하다.[仁者人心之至德，而必欲以身體而力行之，可謂重矣，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可謂遠矣.]”라고 하였다.

412) 진결(眞訣) : 진법(眞法) 또는 비결(秘訣)이란 뜻으로, 도를 전하는 정수(精粹)를 말한다.

413) 삼사중품(三士中品) : 《논어》〈옹야(雍也)〉에 “중등 인물[中人] 이상의 사람에게는 높은 것을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으나, 그 이하의 사람에게는 이를 말해 줄 수 없다.[中人以上，可以語上也，中人以下，不可以語上也.]”라고 공자가 말한 내용이 나온다.

414) 이중사하(二中四下) : 《맹자》〈진심 하(盡心下)〉에서 맹자가 자신의 제자 악정자(樂正子)를 평하여 “악정자는 두 가지의 중간이요, 네 가지의 아래이다.[樂正子，二之中，四之下也.]”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선인(善人)과 신인(信人)의 사이에 위치하고, 미인(美人), 대인(大人), 성인(聖人), 신인(神人)의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15) 행하고 …… 한다 : 《논어》〈학이(學而)〉에 나온다.

416) 학문의 …… 뿐이다 :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나온다.

숭상하며, 몇 조항의 명리(名理)⁴¹⁷로 화로의양(畫蘆依樣)⁴¹⁸하고, 몇 편의 사장(辭章)으로 작은 기교를 부린다. 그리고 곧바로 우뚝 선각(先覺)으로 자처하고 사람들도 우뚝한 선각으로 대우하여 더이상 그의 심술과 덕행이 어떠한가를 묻지 않으니, 아! 이는 학문의 적(賊)이다.

원컨대 그대들은 학문의 적을 몹시 미워하고, 성인의 표준에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효제충신(孝弟忠信)에 종사하라. 그리고 성찰하여 극기복례를 하는데 실제로 체행하라. 게으름 없이 부지런히 하여 참되게 쌓고 오랫동안 노력한다면 하학(下學)이 이름에 어찌 상달(上達)할 날이 없겠는가. 하물며 여사(餘事)⁴¹⁹인 이른바 문사(文辭)에 있어서랴.

붕우(朋友)는 덕업(德業)에 있어 필요로 하여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오륜(五倫)의 한 조목에 해당되는데, 후대에 우도(友道)가 모두 없어져 서로 필요로 하여 이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간혹 배척하여 실패하니, 너무나 통탄스럽다. 지금 그대들은 동당(同堂)에서 도와 뜻과 업을 함께 하니, 그 정의가 두텁지 않겠는가. 오직 원하건대 서로 권면하고 각자 채찍질하여 성찰하며, 학문을 믿고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말며,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과실을 보고도 바로잡아주지 않는 일이 없게 하며, 선을 보고도 싫어하거나 꺼리지 말라. 연이은 산봉우리는 양쪽으로 솟아나 더욱 높고, 두 개의 못이 붙어 있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어 더욱 깊어지니, 말세의 나쁜 풍습을 한번 깨끗하게 씻고 각자 그대들의 아름다운 덕을 공경하라.

법복(法服)을 언행보다 우선시 한 자는 공자(孔子)이고⁴²⁰, 의관(衣冠)을

417) 명리(名理) : 위진(魏晉) 시대의 청담가(清談家)들이 사물의 명(名)과 이(理)를 분석하며 시비(是非)와 동이(同異)를 따지던 것을 가리킨다.

418) 화로의양(畫蘆依樣) : 호로(葫蘆 조롱박) 모양만을 본떠서 그려 낸다는 뜻으로, 참신함이 없이 단순히 남을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유설(類說)》 권17 <동헌필록(東軒筆錄)>에 나온다.

419) 여사(餘事) :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말한다.

420) 법복(法服)을 …… 공자이고 : 《효경(孝經)》 <경대부장(卿大夫章)>에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면 감히 입지 않으며,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면 감히 말하지 않으며, 선왕의 덕행이 아니면 감히 행하지 않는다.[非先王之法服, 不敢服, 非先王之法言, 不敢道, 非先王之德行, 不敢行.]”라는 말이 나온다.

참시(瞻視)보다 우선시 한 자는 주자(朱子)이니⁴²¹⁾, 이는 진실로 학문의 수제(首題 표제(標題))이다. 이는 태평한 세상에서도 오히려 삼가는데 이 오랑캐를 만난 날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한가하게 지낼 때에도 내팽개치지 않는데 경전을 대독(對讀)할 때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청컨대 그대들은 항상 폭이 넓은 소매의 상의(上衣)를 입고, 한편으로는 옛것을 본받고 지금의 것을 끊는 뜻을 확고히 하며, 한편으로는 밖을 제어하여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으로 삼되, 표방한다고 하여 이를 꺼리거나 외면을 꾸민다고 하여 이를 경시하지 말라. 내가 장차 의복을 삼가는지 않는지를 가지고 그대들의 진수(進修)⁴²²⁾를 시험할 것이다.

한 번 예를 잃으면 이적(夷狄)에 들어가고, 두 번 잃으면 금수(禽獸)에 들어가니, 이것은 금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내가 원하건대 그대들은 몸단속할 때 시동처럼 앉고 재계하는 것처럼 서며, 발은 무겁게 하고 손은 공손하게 하는 곡례(曲禮)⁴²³⁾를 삼가며, 집에서 지낼 때 관례(冠禮), 영상(迎相)⁴²⁴⁾, 초상(初喪)을 삼가고 멀리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네 가지 예를 다하라. 그래서 점점 훗날에 행동거지와 주선(周旋)이 예에 맞게 되면 나라의 예법을 주창해 밝히고, 더러운 이 세상을 깨끗이 씻어서 태평성대에 올려놓는 것이 그대들에게서 나오지 않을 줄을 어찌 알겠는가. 힘써 노력하라!

학문하는 방도는 진실로 생각을 성실히 하여 실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또 조용히 심신을 수양하는 공부(本原)가 본원(本源)이 된 뒤에야 행동할 때 품절(品節 절도(節度))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그 지극한 것을 논하면 진실로 갑자기 말할 수 없지만, 분수에 따라 공을 베풀어 점차 효험을 보는 것에 이르러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사색하고 번뇌하며 강송(講

421) 의관(衣冠)을 …… 주자이니 : 주자의 <경재잡(敬齋箴)>에 “그 의관을 바르게 하고 그 시선을 존엄하게 하며, 잠심하여 거처하고 상제를 대하듯이 하라.[正其衣冠, 尊其瞻視, 潛心以居, 對越上帝.]” 고 하였다.

422) 진수(進修) : 진덕수업(進德修業)의 줄임말로, 덕을 쌓고 학업을 닦는 것을 말한다.

423) 곡례(曲禮) : 구체적인 소절목(小節目)의 위의(威儀)로, 《예기》 <예기(禮器)>에 “곡례가 3천 가지이다. [曲禮三千]”라고 하였다.

424) 영상(迎相) : 도와줄 아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친영을 의미한다. 《의례(儀禮)》 <사혼례(士婚禮)>

誦)하고 근로(勤勞)한 뒤에, 눈을 감고 바르게 앉아 이 마음을 맑게 보존하고, 긴장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으며, 잊지도 말고 조장하지도 말아야 하니, 이것이 그 공부이다. 이렇게 해나가서 익숙해지면 마치 달이 하늘에 떠 있어 사방이 모두 환하게 밝고, 물결 없는 연못에 한 웅덩이가 자재(自在)한 것 같은 기상(氣象)을 거의 볼 것이니, 어찌 쾌활하지 않겠는가.

글자의 모양은 천지의 이상(理象)에 근본하고, 글자의 소리는 음양의 성률(聲律)에 맞는다. 따라서 만일 하나의 점획(點畫)과 발음의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바로 다른 글자와 소리가 되니, 문외(文義)의 횡결(橫決 단절)과 인사(人事)의 오패(誤敗 오판하여 그르침)는 오히려 작은 일이다. 심한 경우 혹 천지가 뒤집히고 윤리가 뒤바뀌어 거꾸로 되는 지경에 이른다. 예를 들면 동쪽과 서쪽, 통함과 막힘이 바뀌면 해와 달의 출입하는 길이 바뀌고, 부(夫)와 부(婦), 평성과 거성이 섞이면 남녀의 명칭이 자리가 다르게 되니, 어찌 크게 걱정하고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니겠는가.

천지가 만물을 내는 것과 성인이 만사에 응하는 것은 모두 정성[誠]이니, 천지와 성인도 그러한데 배우는 자가 정성스럽지 않고도 이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니, 정성스럽지 못하면 사물이 없게 된다.”⁴²⁵⁾”라고 하였다. 이상 고한 내용이 비록 잡다하지만 과연 그대들이 정성으로 행한다면 또한 족히 수신하고 법을 행하여⁴²⁶⁾ 학문하는 실제에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말한 것은 무의미하게 되고 들은 것은 잊어버린 것 같아, 피차에 도움 될 것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 것이니,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425) 성은 …… 끝이다 : 《중용장구》〈제25장〉에 보인다.

426) 법을 행하여 : 《맹자》〈진심 하〉에서 맹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법을 행하여 명을 기다길 뿐이다. [君子行法以俟命而已矣.]”라고 하였다.

덕천서사 규약【1925년】

德川書社規約【乙丑】

거처

居處

‘거(居)’는 내 몸을 두는 것이고, ‘처(處)’는 내 몸을 처하는 것이다. 내 몸은 천지가 낳고 부모가 물려주신 것이니, 난잡하고 더러운 데 처하여 정숙(整肅)하고 정결(淨潔)한 도를 버린다면, 자신의 몸을 게으르게 하여 상제와 아버지의 명을 더럽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몸을 병들게 하여 상제와 아버지의 은혜를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는 거처를 장엄하게 하지 않는 것을 불효⁴²⁷라 하였고, 율옹(栗翁 이이(李珥))은 ‘거처는 병들지 않을 정도면 된다.⁴²⁸’는 것으로 문인(門人)을 가르쳤으니, 학문에 뜻을 두고 수신(修身)하는 자가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매일 일찍 일어나 실당(室堂)을 쓸고 닦으며, 창과 벽의 먼지를 털고 뜰과 계단에 물을 뿌려 깨끗이 하되 모두 힘써 정결하게 하라.

사람마다 정해진 위치가 있으니, 업무에 종사할 때나 한가하게 지낼 때나 손님을 접대할 때, 항상 그곳에서 머물러 있던 자리를 떠나거나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궤안(几案), 서책(書冊), 지연(紙硯), 의건(衣巾)과 기타 짐물(什物)은 가지런히 정돈해서 거두어 두되 각각 부류에 따라 각각 일정한 곳에 둔다.

각각의 사람들이 신발을 벗을 때에는 반드시 정해진 곳에 두되 한 줄로 가지런히 늘어놓고【동쪽을 위로 한다.】, 잘못하여 타인의 신발을 신지 말며, 신발 없이는 계단이나 섬돌을 다니지 말라.

427) 공자는 …… 불효 : 이는 공자의 말이 아니고 증자(曾子)가 말한 것으로, 《예기》〈제의(祭義)〉에 “이 몸은 부모의 유체(遺體)이니, 부모가 남겨주신 몸으로 행하되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거처를 장엄하게 하지 않는 것은 효가 아니다.[身也者, 父母之遺體也. 行父母之遺體, 敢不敬乎? 居處不莊, 非孝也.]라고 하였다.

428) 거처는 …… 된다 : 이이가 《격몽요결(擊蒙要訣)》 권3 〈지신장(持身章)〉에서 “거처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병들지 않을 정도면 그만이다.[居處不可安泰, 不病而已.]”라고 하였다.

종이는 한 조각 남은 것과 문드러진 작은 것일지라도 삼가 땅에 버리지 말라.【글자가 적혀 있는 종이는 더욱 삼가라.】 떨어뜨린 것이 있으면 그때마다 수습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이를 소각하라.

붓과 먹으로 창과 벽을 더럽히거나 침과 콧물로 계단과 섬돌을 오염시키는 등속은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

위의

威儀

공경으로 몸을 간직하면 위엄이 있어 남들이 절로 두려워하고, 예의가 있어 남들이 절로 본받으니 이를 ‘위의(威儀)’라 이르고, 긍장(矜莊) 조심스럽고 엄숙함)하고 수식(修飾) 외면을 꾸밈)하여 반드시 남들이 두려워 본받게 하려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는 밖을 제재(制裁)하여 중심(中心)을 기르는 것이니, 용모와 말투는 덕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덕(實德)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위의를 삼가야 하니, 볼만한 위의가 없으면 반드시 덕이 없는 자이다.

이 때문에 공자는 후중(厚重)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는 것을 학문이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여겼으니⁴²⁹⁾,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는 덕과 학문의 부험(符驗)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화(禍), 복(福), 수(壽), 요(夭)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례(儀禮)》에 “너의 위의를 공경하면 영원히 큰 복을 받을 것이다.⁴³⁰⁾”라고 하는 것을 관례(冠禮)를 올리는 자에게 빌고, 북궁문자(北宮文子)는 영윤(令尹)이 위의가 없기에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다고 했으니⁴³¹⁾,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429) 공자가 …… 여겼으니 : 《논어》〈학이〉에서 공자가 “군자가 후중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도 견고하지 못하다.[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라고 하였다.

430) 너의 …… 것이다 : 《의례》〈사관례(士冠禮)〉에 “좋은 달 좋은 날에 너의 옷을 거듭 입히니, 너의 위의를 공경하고 너의 덕을 맑게 하고 삼가면 만년토록 장수하고 영원히 큰복을 받을 것이다.[吉月令辰, 乃申爾服, 敬爾威儀, 淑慎爾德, 眉壽萬年, 永受胡福.]”라고 하였다.

431) 북궁문자(北宮文子)는 …… 했으니 : 북궁문자는 춘추 시대 위(衛)나라의 대부로 이름은 타(佗)이다. 그가 초나라에 있을 때 위나라 군주인 양공(襄公)에게 “초나라 영윤위(令尹圍)가 위의(威儀)가

매일 일찍 기상하여 세수하고 머리를 빗으며 의관을 갖추고, 응당 행해야 할 예를 행하며 각자 자리에 나아가 업무에 종사하라.

제생(諸生 여러 유생)은 반드시 폭이 넓고 소매가 있는 상의(上衣)를 입되, 질병, 복역 및 취침할 때가 아니면 벗지 말라.

앉을 때 무릎을 꿇고 앉거나 반좌(盤坐)【반좌는 바로 편히 앉는 것이니, 두 발을 무릎 아래로 거둬들여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외에 다른 법을 허용하지 않는다. 어깨와 등을 세워 곧게 하고 기대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없게 한다. 서 있을 때는 바르고 곧게 하며 두 손을 맞잡고 발을 나란히 하여 짝다리 짚는 습관을 없게 한다. 다닐 때는 가볍게 하지 말고 느릿느릿하지 말며, 아울러 팔을 흔들고 뒷짐을 지며 좌우를 돌아보지 말라.

말을 할 때는 차분하고 세심하게 분명히 하고, 빠르거나 고음으로 하지 말며, 또한 처음이나 분명하지 않게 하지 말라. 동료들 사이에 섞여 장난치거나 웃지 말며, 속어[俚語]와 패담(悖談)⁴³²을 하게 되면 결코 선비의 부류가 아니다.

남초(南草 담배)의 폐해는 선배들이 자세히 논하였으니, 독서하는 자는 더욱 통렬하게 끊어야 한다. 거만한 습관으로 성현을 대하고, 악취를 사장(師長)에게 맡게 하며, 불사르는 것을 서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모두 잠시라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우선 바로 지금 급한 것을 가지고 말하였으니, 그 자세한 것은 《예기》〈곡례(曲禮)〉, 〈소의(少儀)〉, 〈옥조(玉藻)〉, 《관자(管子)》〈제자직(弟子職)〉 등의 편을 스스로 일일이 준행(遵行)해야 한다.

예수 禮數

예(禮)라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 사람에게 확립된 것이니, 예가 없으면

없어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양공(襄公) 31년 조에 보인다.

432) 패담(悖談) : 사리에 그릇되게 말하는 것, 또는 그런 말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잠시도 몸에서 버릴 수 없으니, 조정에는 조정의 예가 있고 향당에는 향당의 예가 있으며, 가정에는 가정의 예가 있으니, 학사(學舍)에 어찌 학사의 예가 없겠는가. 사장(師長), 생도(生徒), 장유(長幼), 관동(冠童)⁴³³이 서로 함께 하는 예가 있어야 한다.

또 생각건대 “배우는 것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인데 오래도록 부모를 찾아뵙지 않았다.⁴³⁴”라고 한 것은 양원종(陽元宗 양성(陽城))이 경계한 것이고, “수십 권의 책을 읽고 어른을 능멸하고 홀대한다.⁴³⁵”라고 한 것은 안지추(顔之推)⁴³⁶가 미워한 것이니, 이른바 예라는 것을 학사에서 부지런히 하고 가정과 향당에서 소홀히 한다면 옳겠는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계하고 힘써 노력하라!

매일 일찍 일어나 제생(諸生)은 사장(社長)에게 읍례(揖禮)를 행하고, 또 반을 나누어 서로 마주하여 읍하되 저녁에도 이처럼 한다.【의식은 홀기에 보인다.】 하룻밤 이상 묵으면서 학사(學舍)에 이르지 않으면 진퇴할 때 모두 사장에 절을 하고 단일(單日)이면 읍을 한다. 사장이 일이 있어 출입할 때는 제생이 절을 하거나 읍을 하는데, 또한 하룻밤 이상 묵을 때와 단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학업을 함께 하는 사람이 하룻밤 이상 묵어 서로 보지 못하면 모였을 때와 헤어질 때 모두 서로 읍을 한다.

사장에게 절하거나 읍할 때 1렬로 질서 있게 동쪽 가에 서서【사람이 많으면 겹줄로 선다.】 일제히 공경을 다하여 흑시라도 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존장(尊長) 앞에서도 그러하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

433 관동(冠童) : 관례를 한 사람과 관례를 하지 않은 아이라는 뜻으로, 남자 어른과 남자아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434 학문하는 …… 않았다 : 당나라의 양성(陽城)이 국자사업이 되어 학생들을 불러서 “모든 학문하는 자들이 배우는 까닭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다. 계군 중에 오랫동안 부모를 찾아뵙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한 말이 《소학》〈선행(善行)〉에 나온다.

435 수십 권 …… 홀대한다 : 《안씨가훈(顔氏家訓)》〈면학(勉學)〉에서 안지추(顔之推)가 “어떤 사람이 수십 권의 책을 읽고는 곧 스스로 높고 큰 체하여 어른을 능멸하고 홀대하며 동료들을 경시하고 오만하니,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기를 원수나 적과 같이 대하고, 그를 싫어하기를 부영이나 울썩미처럼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436 안지추(顔之推) : 531~602. 북제(北齊) 사람으로 자는 개(介)이다. 그가 《안씨가훈(顔氏家訓)》을 지었다.

특별히 공경의 예를 행하되 언어는 동등하게 한다. 동자(童子)는 관자(冠者)와 나이가 서로 비슷할지라도 감히 호명하여 벗으로 교제하지 못한다.

학사에서 묵은 자는 다음 날 아침에 귀가하여 반드시 부모에게 절을 해야 하니, 혹여 전에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미적거리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이 없게 하라.

존장(尊長)을 뵈면 학사와 다른 곳을 가리지 않고 공경과 겸손을 다하되 조금도 거만한 태도가 없게 하며, 평소에 절을 드리는 곳이 길 위일지라도 절을 한다. 【세속에서 간혹 도로 위라고 하여 예를 생략하는데 이는 매우 옳지 않다.】

빈객이 오면 공손히 삼가 절하고 읊하며, 맞이하고 보내는 절차는 따뜻하고 관대하게 인사를 하며, 말을 주고받을 때 학문이 있어 예의바른 사람이면 강론하고 질문하여 유익함을 취하고, 심지어 평범하게 여관을 하는 사람과 상공(商工)인이 들러 주더라도 감히 조금도 오만한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교도

交道

붕우(朋友)가 오륜(五倫)에 있는 것은 오행(五行)의 토(土)와 같아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의 인륜이 이를 기다려 퍼지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는 인도(人道)의 중요함이 되는 이유이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벗에 의지하지 않고 이룬 자가 없으니, 이러한 뜻을 안다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벗을 취하여 이를 의지하여 자기를 이루지 못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유익한 벗이 셋이 있다.⁴³⁷⁾”고 하였고, 증자가 말하기를 “벗으로써 인을 돕는다.⁴³⁸⁾”고 하였으며, 맹자가 말하기를 “책선은 붕우의

437) 유익한 …… 있다 : 《논어》〈계씨(季氏)〉에 보인다.

438) 벗으로써 …… 돕는다 : 《논어》〈안연(顔淵)〉에 보인다.

도이다.⁴³⁹⁾”고 하였으니, 이러한 뜻을 안다면 지금 사람들이 서로 사귀는 것이 바른 방도가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뜻을 둔 바는 도(道)이고 구하는 바는 인(仁)이니, 성기(聲氣)가 감응하고 풍운(風雲)이 모여 따르듯이 서로 의지하는 것이 가볍다고 이를 수 없다. 안물(顔勿)⁴⁴⁰⁾, 증성(曾省)⁴⁴¹⁾, 녹법(鹿法)⁴⁴²⁾, 남약(藍約)⁴⁴³⁾을 아침에 본받아 따르고 저녁에 익혀 성대하게 외우면 그 도가 없다고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어려운 것은 서로 겸손하고 게으르지 않으며 오랫동안 공경하는 것인데, 요점은 ‘誠’ 한 글자에 달려 있기에 조금이라도 정성스럽지 못하면 하는 바가 없는 것과 같으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이가 많으면서 학문이 높은 자와 나이가 적으면서 학문이 낮은 자 및 나이가 서로 비슷하면서 학문에 고하(高下)가 있는 자는 서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아야 하니, 그러면 서로 발전하여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혹여 나이는 많으나 학문이 낮은 자와 나이는 적으나 학문이 높은 자가 서로 함께하면 매번 어긋나서 서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근심하니, 반드시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벗하는 것은 그 덕을 벗하는 것이고 알아주는 것은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니, 반드시 마음속에 쌓은 답을 툭 터놓고 가식(假飾)하지 않아야

439) 책선은 …… 도리이다 : 《맹자》〈이루 하(離婁下)〉에 보인다.

440) 안물(顔勿) : 《논어》〈안연〉에서 공자가 안연에게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마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고 한 것을 말한다.

441) 증성(曾省) : 《논어》〈학이〉에서 증자가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몸을 살핀다.[吾日三省吾身.]”라고 한 것을 말한다.

442) 녹법(鹿法) : 백록동서원 학규(白鹿洞書院學規)의 준말로, 당(唐) 나라 초기에 이발(李潑)에 의해서 세워진 백록동서원이 송(宋) 나라 때에 이르러 이미 황폐해졌는데, 주희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만든 규약을 말한다.

443) 남약(藍約) : 남전(藍田) 여씨향약(呂氏鄉約)의 줄인 말로, 남전은 중국 섬서성(陝西省)의 고을 이름이고, 여씨향약은 송나라 때 남전에 살던 여대충(呂大忠), 여대방(呂大防), 여대균(呂大鈞), 여대림(呂大臨) 등 형제 네 사람이 그 고을 사람들과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자치 규범이다. 《소학》〈선행(善行)〉

한다. 남에게 선행이 있으면 내면으로 진실로 사모하고 기뻐하여 다만 면전에서 지나치게 칭찬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성심(誠心)으로 면전에서 깨우쳐주고 물러나서 남에게 말하지 말라. 자기에게 선행이 있어 남들이 칭찬해주면 지나치게 겸손하여 남의 호의를 저지하지 말고, 잘못이 있어 남이 이를 바로잡아주면 겉으로 따르면서 속으로 싫어하여 남의 덕의(德意)를 저버리지 말라.

모이면 이미 무리를 지어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의 성품이 어떻게 다 똑같겠는가. 항상 자신의 일에 때때로 불만이 있다면, 남의 일에 어찌 마음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협심(協心)해야 하니, 이른바 “아름다워 포용하는 것이 있다.⁴⁴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과정⁴⁴⁵⁾

課程

여사인(呂舍人)⁴⁴⁶⁾이 말하기를 “학업은 반드시 엄격히 과정을 세워야 한다.⁴⁴⁷⁾”고 하였고, 한문공(韓文公 한유(韓愈))이 말하기를 “학업은 근면함에서 정진(精進)되고 노는 데서 황폐해진다.⁴⁴⁸⁾”고 하였으며, 공자가 말하기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대업(大業)이라고 이른다.⁴⁴⁹⁾”고 했으니, 오직 엄격하고 근면해야 풍부하게 소유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천지는 쉼 없이 지극히 성실하기에 조화(造化)가 운행되고, 성인은 쉼 없이 부지런히 힘써 노력하기에 대덕(大德)이 확립되거늘, 하물며 우리들에

444) 아름다워 …… 있다 : 《서경》〈진서(秦誓)〉에 “그 마음씨가 아름다워 남을 포용하는 것과 같은 점이 있다.[其心休休焉, 其如有容焉.]”라는 말이 나온다.

445) 과정(課程) : 일정 기간 중에 교육하거나 학습해야 할 과목의 내용과 분량을 말한다.

446) 여사인(呂舍人) : 여본중(呂本中, 1084~1145)이다. 남송 수주(壽州) 사람이다.

447) 학업은 …… 한다 : 《소학집주(小學集註)》〈가언(嘉言)〉에 나오는 말이다.

448) 학업은 …… 황폐해진다 : 《창려문집(昌黎文集)》 권12 〈진학해(進學解)〉에 나온다.

449) 풍부하게 …… 이른다 : 《주역》〈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나오는 말이다.

있어서이겠는가. 아, 《주역》에 “힘쓰고 힘쓴다.⁴⁵⁰⁾”고 하였고, 《중용》에 “독실하다.⁴⁵¹⁾”고 하였으며, 《서경》에 “부지런히 한다.⁴⁵²⁾”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은 본받을 만하다. 강송(講誦)과 기사(記寫 기록하여 씀)의 종류는 수업에 없어서는 안 되기에 아래와 같이 방식을 정했다.

매일 인정(寅正 오전 4시)에 기상하여 의관을 갖추고 묘시에 글을 배우며, 진초(辰初 오전 7시)에 아침 식사를 한다. 진정(辰正 오전 8시)에 글자를 쓰고 사시에 독서하며, 오초(午初 오전 11시)에 휴식하면서 토론하고 오정(午正 낮 12시)에 독서하며, 미초(未初 오후 1시)에 점심을 먹는다. 미정(未正 오후 2시)에 글자를 쓰고 신시에 독서하며, 유초(酉初 오후 5시)에 휴식하면서 토론하고 유정(酉正 오후 6시)에 독서하며, 술초(戌初 오후 7시)에 저녁 식사를 한다. 술정(戌正 오후 8시)과 해초(亥初 오후 9시)에 혹은 글을 논하고 혹은 예를 익히며, 혹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혹은 시문을 짓되 각자 편의대로 하며, 해정(亥正 오후 10시)에 독서하고 취침한다.【가을과 겨울에는 신시에 저녁 식사를 하고, 유시에 글을 논하고 예를 익히며,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시문을 지으며, 술시에 독서하고 해시에 취침한다.】

매일 각자 독서하는 곳으로 나아가 과정 세우는 것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도 여러 번 읽어서【적어도는 백번 이하가 아니다.】 반드시 외워야 한다.

매달 보름과 그믐에 강을 행하는 사장(社長)은 보름 동안의 과정 가운데서 각각 1장(章)을 뽑아 통(通), 약(略), 조(粗), 불(不)⁴⁵³⁾을 정하여, 음(音)과 의(義)를 모두 통한 자는 상(上)으로, 의를 통한 자를 그다음, 음을 통한 자를 그다음으로 한다.【강규에 별도로 보인다.】 매달 7일에 6일치의 과정을 연속해서 읽고 14일, 22일, 29일에도 모두 이처럼 하고, 작은달에는 28일에

450) 힘쓰고 힘쓴다 : 《주역》〈건괘(乾卦) 구삼(九三)에 “군자가 종일토록 힘쓰고 힘쓴다.[君子終日乾乾.]”라고 하였다.

451) 독실하다 : 《중용장구》 제13장에 “군자가 어찌 독실하지 않겠는가.[君子胡不慥慥爾!]”라고 하였다.

452) 부지런히 한다 : 《서경》〈익직(益稷)〉에서 우(禹)가 “나는 날마다 부지런히 할 것을 생각한다.[予日思孜孜.]”라고 하였다.

453) 통(通) …… 불(不) : 강생(講生)의 성적을 평가하는 4가지 등급이다.

5일치의 과정을 연속해서 읽는다.

한 책을 모두 읽을 때마다 며칠 동안 복습하여 읽고 사장 앞에서 외운다.

관자(冠者)는 7일 안에 장문(長文) 1편을 짓고, 매달 4차례 숙과(宿課)를 연속해서 읽으며, 날마다 사장 앞에서 근정(斤正)⁴⁵⁴한다. 동자(童子)는 매일 몇 줄의 일기를 쓰되, 하지 뒤부터 처서 앞까지 한다. 한창 더위가 심할 때 관자는 송독(誦讀)을 줄이고 저술을 더하며 3일 안에 장문 1편을 짓고, 동자는 이전대로 한다.

독서할 때는 반드시 바르게 앉아 몸을 흔들지 말고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으며, 높지도 낮지도 않게 명백하게 소리를 내어 읽되 반드시 본음대로 해야 한다. 글자를 쓸 때는 반드시 해서체로 바르고 전중(典重 전아하고 장중함)하게 하며, 가볍고 뽀족하거나 거칠고 조잡하게 하지 말며, 반드시 육서의 본형(本形)을 준수해야 한다. 작문할 때는 반드시 의리가 통창(通暢)하고 의취(意趣)가 심장해야 하며, 기발한 것을 숭상하거나 화려하게 하지 말라.

휴양

休養

《중용》에 “중(中)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⁴⁵⁵”고 하였고, 《논어》에 “시(詩)에서 흥기시키고 악(樂)에서 완성한다.⁴⁵⁶”고 하였으니, 담일(湛一)⁴⁵⁷하여 밝게 깨어있어 고요한 것은 본체의 중이 고요할 때 확립된 것이고, 감발(感發)하여 화순(和順)한 것은 시와 악의 효과가 덕성(德性)에

454) 근정(斤正) : 시문(詩文)을 다듬어달라고 청하는 것이다.

455) 《중용》에……근본이다:《중용장구》 제1장에 나오는 말이다.

456) 《논어》에……완성한다:《논어》〈태백(泰伯)〉에 나오는 말이다.

457) 담일(湛一) : 장재(張載)가 “담일은 기(氣)의 근본이고, 공취(攻取)는 기의 욕구이다.[湛一氣之本, 攻取氣之欲.]”라고 하였고, 주희가 해석하여 “담일이란 외물에 감촉하지 않았을 때의 담연(湛然)하고 순일(純一)한 상태이니, 이것이 기의 근본이다.[湛一是未感物之時, 湛然純一, 此是氣之本.]”라고 하였다. 《정몽(正蒙)》〈성명(誠明)〉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후대에 시와 악을 폐지한 때로부터 속사(俗士)가 정(靜) 공부에 어두워 힘은 분변하고 질의하며 글을 초록(抄錄)하는 데 지치고, 마음은 혼매하고 어지러운 데로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이 새도록 끊임없이 애쓰지만 전혀 본원(本原)을 맑게 하고 온갖 변화에 수용하며 우유함영(優遊涵泳)⁴⁵⁸하여 그 지극한 공효에 나아감을 보지 못하니, 너무나 한탄스럽다.

이제 원하건대 제군이 부지런히 학문을 닦다가 힘들고 불안한 여가와 오랫동안 틀어박혀 답답하고 괴로운 뒤에, 간혹 고요한 곳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편안하고 깨끗이 하여 허명(虛明)하고 순일(純一)한 본체를 세우며,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 바람을 쐬고 시가를 창화(唱和)하여 시원하게 씻어 없애는 공효를 찾아보아라.

매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독서 후에 각자 정좌(靜坐)와 징심(澄心) 공부를 익혀야 하니, 그 방법은 가볍게 비춰보고 돌아보며⁴⁵⁹ 마음을 화평하게 하는⁴⁶⁰ 것이 바로 이것이다.【정자는 “한나절은 정좌하고, 한나절은 독서 하라.”⁴⁶¹” 고 가르쳤으니, 정 공부에 뜻을 둔 자가 어찌 다만 두 차례 뿐이겠는가.】

매달 보름과 그믐에 강(講)에 응한 뒤나, 7일, 14일, 22일, 29일에 연속해서 숙과(宿課)를 읽은 뒤나, 매일 저녁 식사를 한 뒤에 간혹 산에 올라 바람을 쐬기도 하고, 뜰앞에서 달을 보며 걸기도 하면서 아울러 <관저(關雎)>와 <녹명(鹿鳴)>⁴⁶², 주자의 <초은조(招隱操)>⁴⁶³, 퇴계의 <도산육곡(陶山六

458) 우유함영(優遊涵泳) : 서두르지 않고 여유 있게 한가로이 오래도록 탐구하여 깊이 체득하는 것을 말한다.

459) 가볍게 …… 돌아보고 : 율곡은 정 공부를 할 때 미발(未發) 시의 기상을 경경조고(輕輕照顧) 하면 진학(進學)과 양심(養心)에 반드시 유익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율곡전서(栗谷全書)》 권21 <성학집요(聖學輯要) 3>

460) 마음을 …… 하는 : 《퇴계문집(退溪文集)》 권24 <답정자중(答鄭子中)> 에 이러한 말이 보인다.

461) 정자는 …… 하라 : 이는 정자가 한 말이 아니라 주자가 제자인 곽득원에게 한 말로,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16 <주자 십삼(朱子十三) 훈문인 사(訓門人四)>에 이러한 말이 나온다.

462) <관저(關雎)>와 <녹명(鹿鳴)> : 모두 《시경》의 편명이다.

463) 초은조(招隱操) : 《초사(楚辭)》 <초은사(招隱士)>에서 온 말이다. 원래 초은(招隱)의 곡조는 회남

곡)>⁴⁶⁴), 율곡의 <석담구곡(石潭九曲)>⁴⁶⁵) 등을 읊으며, 또 각자 시를 짓고 그중에서 매우 맑은 것을 읊는 것도 좋다.

강규 講規

강생(講生)은 일제히 모여 도포나 넓은 소매가 있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당(堂)의 북쪽 벽 아래에 남향으로 강장(講長)의 자리를 설치하고, 동쪽 벽 아래와 서쪽 벽 아래에 북쪽을 뒷자리로 하여 강생의 자리를 설치한다. 강생은 뜰 안에서 서로 읊례를 행하고 예를 마치면 강장은 자리에 올라서 앉고, 강생도 당에 올라 차례대로 나누어 동쪽과 서쪽으로 나아가 자리에 올라앉는다. 숙직하는 날에는 강장의 오른쪽 구석에 앉아서 강록(講錄)을 쓰고 책상과 책자를 강장 앞에 둔다.

강생은 차례대로 강장 앞으로 나아가 읊을 하고, 옷매무새 가다듬으며 바르게 앉는다. 강장은 보름의 과정(課程) 가운데서 1장(章)을 뽑고 배강(背講)⁴⁶⁶)을 명한다. 강생은 얼굴에 부끄러움, 마음에 두려움, 목소리에 떠들거림, 몸에 흔들림이 없이 편안히 낭랑하게 외우되, 반드시 명백하고 맑게 해야 한다. 강장이 듣는 것을 마치고 문의(文義)를 물으면 강생은 아는 대로 대답한다. 또 의심스럽거나 모르는 곳에 대해 질문하면【겉에

(淮南)의 소산(小山)이 지었다고 하는데, 그 뒤에 주자도 초은의 곡조로 지었다고 한다. <초은사>의 본래 의미는 은자를 세상으로 부르는 노래였는데, 후대에는 은거를 지향하는 의미로 쓰였다. 《주자대전(朱子大全)》 권1 <초은조>

464) 도산육곡(陶山六曲) : 퇴계 이황이 지은 12수의 연시조(聯詩調)를 <도산십이곡>이라고 하는데, 이별(李鵬)의 육가(六歌)를 모방하여, <육곡> 한 편에서는 ‘지(志)’를, 다른 한 편에서는 ‘학(學)’을 노래하였다.

465) 석담구곡(石潭九曲歌) : 《율곡전서》 권2에 실려 있는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를 이른다. 구곡담(九曲潭)은 황해도 해주에 있는 아홉 개의 승경(勝景)이다. 이이가 일찍이 이곳에서 강학하면서 주희의 <무이구곡(武夷九曲)>을 모방하여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466) 배강(背講) : 책을 보지 않고 뒤돌아 앉아서 외우는 것을 말한다.

있는 자도 참여하여 함께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이 허용된다.】, 강장은 자세히 깨우쳐주고 바로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을 정한다.

음(音)과 의(義)에 모두 통한 자는 통으로 하고, 의에만 통한 자는 그다음으로, 음에만 통한 자는 그다음으로 하되, 모두 락으로 하며, 어렵게 외워 많이 틀린 자는 조로 하고, 외우지 못한 자는 불로 한다. 강생이 또 읊하고 물러난다. 숙직하는 날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외웠던 장을 강록에 기록하되 통, 약, 조, 불을 함께 기록하고, 매번의 강록을 수렴하여 훗날의 평가를 대비하며, 각각의 사람들의 참여와 불참, 통, 약, 조, 불의 많고 적음으로 학업의 근만(勤慢)과 진퇴(進退)를 징험한다.

교과 규칙 [1925년]

敎課規則【乙丑】

一. 서사(書社) 학생의 학업 고하를 구분하여 갑을병정 4반을 정한다.

갑반 교과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춘추(春秋)》.

【원과(原課)】

《근사록(近思錄)》, 《성리대전(性理大全)》.【성리과(性理課)】

《의례(儀禮)》, 《예기(禮記)》, 《가례(家禮)》.【예과(禮課)】

《좌전(左傳)》, 《마사(馬史 사기(史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속자치통감강목(續資治通鑑綱目)》,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일본과 서양사도 본다. 사과(史課)】

《성학집요(聖學輯要)》, 《반계수록(磻溪隨錄)》.【정치과(政治課)】

《대전통편(大典通編)》.【당시에 시행되는 법률도 본다.】【법과(法課)】

팔대가(八大家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문장과(文章課)】

을반 교과서:

《대학》, 《논어》, 《맹자》, 《중용》.【원과】

《예기》, 《사례편람(四禮便覽)》.【예과】

《자치통감강목》, 《속자치통감강목》,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

《고문진보(古文眞寶)》.【문장과】

병반 교과서:

《소학(小學)》, 《대학》, 《논어》.【원과】

《사례편람》.【예과】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

정반 교과서:

《요결(要訣 격몽요결(擊蒙要訣)》, 《소학》, 《대학》.【원과】

《사례홀기(四禮笏記)》.【예과】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서적.【사과】

一. 원과는 주간(周間)에 행하고 간과(間課)【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는 야간에 행한다. 또 서(書), 수(數), 제술(製述) 3과를 두되, 서는 주간(周間)에, 수와 제술은 밤에 행한다.【야간 공부의 여러 목록은 모두 밤마다 과목을 돌려가면서 한다.】

一. 옛사람의 인재를 이루는 공부는 음악보다 큰 것이 없는데, 폐하고 이지러져 회복되기 어렵다. 이제 우선 다만 창가(唱歌)하여 악과(樂課)에 해당시켜 부디 감발(感發)의 생각에 도움이 되길 바라니, <부자송덕가(夫子頌德歌)>, <권학가(勸學歌)>, <오륜가(五倫歌)>⁴⁶⁷⁾가 있다.

一. 사생은 일찍 일어나 사장에게 읍례를 행하고, 또 분반별로 서로 읍한다. 사장은 갑반과 을반에게 원과를 수업하고, 갑반과 을반은 병반과 정반에게 원과를 나누어 수업한다.

467) <부자송덕가(夫子頌德歌)>…… <오륜가(五倫歌)> : 이 3편과 <석음가(惜陰歌)>는 유학가사(儒學歌辭) 4편으로 《사가집(四可集)》에 수록되어 있다.

一. 아침식사 후 학당에 올라갈 때에 사생 중 2인이 당상 북쪽을 향해서서 모두 <부자송덕가>를 부르고, 저녁 식사하기 전 학당을 내려갈 때에 <권학가>를 부른다.【2인도 당상에서 한다.】 강일에는 강습을 중지하고 시험을 본 뒤에 연속해서 <부자송덕가>, <권학가>, <오륜가>를 부른다.

一. 매달 1일과 15일 강을 행할 때 서로 읊례를 행한다. 갑반 이하는 사장 앞으로 나아가 지정에 따라 보름 동안의 원과 중에서 1장을 배송(背誦)⁴⁶⁸ 하고, 사장은 통, 약, 조, 불을 정한다.【강규는 별도로 보인다.】 강이 과하면 또 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 서과, 수과, 제술과를 시험하여 각 과에서 성적이 뛰어난 자에게 포상을 시행한다.

一. 근만부(勤慢簿)와 선과적(善過籍)을 두어 제생의 왕래가 일렀는지 늦었는지, 과정을 채웠는지 빼먹었는지, 심지가 부정한지 바른지, 언동이 공경스러운지 방자한지를 기록하여 품행의 고하를 증험하여 이로써 시험 보는 날의 승반(陞班)과 강반(降班)에 대비한다.

시고 규칙 試考規則

一. 시험 날짜는 매달 1일과 15일로 정한다.

一. 품행은 심신의 착함과 그렇지 못함을 살피고, 강송(講誦)은 통, 약, 조, 불을 보며, 성리과, 예과, 사과, 정치과, 법과, 수과는 문제를 뽑아 제공한 답안의 맞고 맞지 않음을 보고, 간문(看文)은 정밀함을 취하며, 작문은 글로 적어 잘못됨이 없는 것을 취하고, 서(書)는 바르게 쓴 것을 취하되 자학(字學)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점수의 다소(多少)를 병합하여 등급을 매긴다.

一. 품행 점수: 특등 15점, 1등 12점, 2등 9점, 3등 6점.

一. 강 점수: 특등【음과 뜻이 모두 순통(純通)⁴⁶⁹이다.】 12점, 1등【음과 의가

468) 배송(背誦): 책을 보지 않고 뒤돌아 앉아서 그 내용을 외우는 것을 말한다.

469) 순통(純通): 책을 외우고 그 내용에 통달한 것을 말한다.

모두 통이다.】 10점, 2등【음은 통이고 뜻은 약, 음은 약이고 뜻은 통이다.】 8점, 3등【음은 통이고 뜻은 조, 음은 조이고 뜻은 통, 음과 뜻이 약이다.】 6점, 4등【음은 통이고 뜻은 불, 음은 불이고 뜻은 통, 음은 약이고 뜻은 조, 음은 조이고 뜻은 약이다.】 4점, 5등【음은 약이고 뜻은 불, 음은 불이고 뜻은 약, 음과 뜻이 조이다.】 2점.

一. 성리과와 예과 점수: 특등 12점, 1등 9점, 2등 6점, 3등 3점.

一. 사과, 정치과, 법과, 문장과, 서과, 수과, 제술과의 점수: 특등 10점, 1등 8점, 2등 5점, 3등 2점.

一. 갑반: 121점을 얻은 자는 특등(特等)을 시상하고 별도로 특반(特班)이 되며, 80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60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40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褒狀 상장)을 시행하며, 20점 이하를 얻은 자는 을반에 강등한다.

一. 을반: 8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갑반으로 승반하며, 60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45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30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5점 이하를 얻은 자는 병반에 강등한다.

一. 병반: 7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을반으로 승급하며, 53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40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26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3점 이하를 얻은 자는 정반에 강등한다.

一. 정반: 69점을 얻은 자는 특등을 시상하고 병반에 승급하며, 43점 이상을 얻은 자는 1등을 시상하며, 34점 이상을 얻은 자는 2등을 시상하며, 22점 이상을 얻은 자는 3등의 포장을 시행하며, 11점 이하를 얻은 자는 무반(戊班)에 강등된다.

一. 갑반에서 3번 시험을 보아 모두 1등을 한 자는 특반에 올라가고, 을반, 정반, 병반에서 3번 시험을 보아 모두 1등을 한 자도 각각 승반(陞班)한다.

대암서사에서 제군에게 보임 [1926년]

臺巖書社示諸君【丙寅】

농부가 살이 익고 땀이 비 오는 듯하며, 손바닥과 발바닥에 굳은살이 박여도 수고로움을 모르는 것은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백공(百工 온갖 장인)이 공장에 있으면서 구상하고 애쓰되, 그러한 일을 잘하지 못한 경우 그만두지 않는 것은 기물(器物)을 정밀하게 만들고자 하기 때문이다. 적녀(績女 길쌈하는 여자)가 삼으로 실을 만들고 고치에서 실을 뽑을 때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자며, 척(尺)과 촌(寸)을 쌓아서 장(丈)과 필(匹)을 이룬다. 상인이 길에서 생각하며 견주어 헤아리는 데에 정신을 소모하면서도 꺼리지 않는 것은 행상(行商)⁴⁷⁰ 하여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어부와 수렵인은 깊은 숲으로 달려가고 큰 바다로 들어가 거의 호랑이와 고래의 먹잇감이 된 후에 얻는 것이 있다.

선비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편안히 지내면서 사민(四民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으뜸이 되니,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윤상(倫常)의 도를 익히고 정치와 교화의 방법을 궁구하여 이를 자신의 몸에 체득하고 남에게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생업을 편안히 하고 성품을 이루게 하며, 포부를 펼칠 수 있는 때를 얻으면 그 혜택이 성대하고, 비록 곤궁할지라도 풍의(風義 풍도와 의리)와 서론(緒論 조리 있는 언론)으로 오히려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선비이다. 그러므로 편안히 지내면서 으뜸이 되어도 너무 지나침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재를 살펴보면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어 먹는 것은 농부의 곡식이고, 입는 것은 길쌈하는 자의 베이며, 장인의 기물, 상인의 물품, 어부와 수렵인의 음식물을 의지하고 사용하니, 이는 백성의 줌으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다. 선비가 되려고 배우는 그대들은 명산(名山)의 큰 집에 양식을 가져가서 먹고, 계절에 맞게 옷을 입으며 모든 공구(供具 필요한 물품)가 여유롭지만, 이는 본디 당연한 것이라고 하여 스스로 편안하게 여긴다면, 어찌 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자가 경학과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크게 명실(名實)을 이루어 장차

470) 행상(行商) :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일이다.

퇴폐한 풍조에서 홀로 우뚝한 기둥이 되어 혼란한 세상에서 한 줄기 희망을 부지하면, 조만간에 천운이 안정되어 크게 인간 세상에 피함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소인은 몸을 수고롭게 하니,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수고롭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편안하다. 그런데 이제 미치지 못한 자질로 백성을 구제하는 바람에 응하니, 수고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만히 보건대 그대들이 마음을 쓰는 것이 도리어 농부, 장인, 상인, 소인의 노력만 못하니, 나는 그대들이 백성의 으뜸이 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혹 백성의 종이 될까 두렵다. 이와 같을 바에야 차라리 돌아가서 각자 농부, 장인, 상인의 한 가지 일을 하여 스스로 그 일에 부끄러움과 죄가 없는 것을 누리는 것만 못하니, 각자 두려워하고 힘써 노력할 줄을 알라. 옛사람이 이르기를 “용렬한 스승이 남의 자제를 가르치는 것은 용렬한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죄가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남의 스승된 자를 위한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이다. 내가 여기에 한 마디 덧붙여 말하기를 “제자가 스승을 어기고 자신을 가르치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꺼려 자신을 죽이는 것과 죄가 같다.”라고 하니, 이 또한 마땅히 남의 제자가 된 자를 위한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이다.

이를 통해서 반문해보면, 훌륭한 스승이 남의 자제를 이루어주는 것은 훌륭한 의사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공이 같고, 제자가 스승을 따라 자신을 이루는 것은 병든 사람이 의사를 믿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것과 공이 같으니, 이 또한 마땅히 남의 스승이 된 자와 남의 제자가 된 자를 위한 하늘의 복음(福音)이다. 형편없는 내가 그대들과 함께 따끔하고 매서운 교훈에 조심하며 복음에 나아가고자 한다.

우연히 기록하다

偶錄

요즘 세상에서 상기(喪紀)가 모두 무너져 견잡을 수 없는 유속(流俗)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고, 심지어 선비들까지도 더는 예법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자식의 상을 틈타 그 손자의

혼례를 치렀는데도 아무 재(齋)의 선생이 되는 데 해롭지 않다고 하여 문집을 간행하여 세상에 퍼내고, 상중(喪中)에 몰래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를 입언군자(立言君子)라고 하여 천 리를 붙좃아 달려가 금석문자(金石文字)를 요청한 자가 있으며, 상중에 첩을 들이고도 스승의 산소를 이장(移葬)할 때 재물을 낸 공인(功人)⁴⁷¹이 있다. 이목(耳目)의 미침이 이미 이와 같으니, 보고 듣지 못한 것도 헤아릴 수 있다.

아! 사마광(司馬光)이 이른바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⁴⁷²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진수(陳壽)가 불우했던 것⁴⁷³은 논할 만한 여지가 없으니 매우 한심하다. 기년복(寡年服) 중에 혼례를 치르지 않는 것에 이르러서는 또한 큰 예법에 관계되는데도 요즘 선비들 중에는 이를 준수하는 자가 전혀 없다. 심지어 “이는 삼년상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니 변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는 하지 않고, “나의 마음과 힘이 부족하다.” 하고 도리어 “예가 지나치다.”라고 하니, 이는 참으로 이른바 ‘더불어 말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아! 천하가 모두 변해도 선비가 변치 않는다면 장차 세상이 회복되는 문명(文明)해질 날이 있을 것인데, 지금 오히려 사대부의 의복을 입고 있는 자들이 몸으로 행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어찌 온 세상 사람들이 서로 오랑캐와 금수가 되지 않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초종지례(初終之禮)⁴⁷⁴에서 이미 소렴(小斂)하고 또 대렴(大斂)하는 것은 자식이 차마 그 아버지를 야박하게 대하지 못해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로써 시체를 방정하게 하고 관 속을 채워서 운구(運柩)할 때에 흔들리는 것과 뒷날 골절(骨節)이 흩어지는 폐해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습(襲)은 하지만 염은 하지 않고 바로 입관하면서 “교(絞)

471) 공인(功人) : 공복인(功服人)으로, 상복(喪服)의 오복(五服) 중 대공(大功)과 소공(小功)의 옷을 같이 일컫는 말이다. 대공복의 상기는 9개월이며 소공복은 5개월이다.

472) 나라에 …… 있다 :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상중에 있으면서 음악을 듣고 시집가고 장가는 자는 나라에 바른 법이 있다.[其居喪, 聽樂及嫁娶者, 國有正法.]”라고 하였다. 《소학》〈가언(嘉言)〉

473) 진수(陳壽)가 …… 것 : 진수는 중국 서진(西晉) 사람인데, 상중에 병이 나서 여중에게 환약을 만들게 한 일로 죄를 받고 첩제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다. 《소학》〈가언〉

474) 초종지례(初終之禮) : 초상이 난 때로부터 졸곡까지의 장례절차이다.

로 사자(死者)를 묶는 일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서로 옮겨가며 그 허물을 본받아 거의 풍속이 되었으니, 이는 교금(絞衾)⁴⁷⁵의 베를 사용하지 않는 데서 차마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만일 차마 어버이를 두터운 땅 속에 매장하지 못한다면 또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천하에 진실로 구걸하다가 길에서 죽은 자가 아니면 어찌 염하지 않은 주검이 있겠는가.

범 충선공(范忠宣公)⁴⁷⁶이 말하기를 “사람이 만일 명성을 좋아한다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선을 행할 길이 없을 것이다.⁴⁷⁷”고 하였는데, 내가 그 아래 덧붙여 말하기를 “만약 원망을 사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악을 미워하는 날이 없을 것이다.”고 하겠다.

도(道)를 배우는 것은 심술(心術)의 본원(本原)을 주로 삼아야 하니, 여기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 학문과 남보다 빼어난 행실이 있더라도 도를 배웠다고는 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스스로 잇속을 차리려 한다면 결국 도적의 일을 할 수 있다.

온갖 악이 모두 자신의 힘으로 먹고살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천(伊川)이 종통(宗統)을 빼앗은 일⁴⁷⁸은 대현(大賢)이 행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현자를 위해 숨긴 것이 무슨 서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폐해를 궁구해보면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는 것은 어버이기에 당연히 숨겨야 하고, 현자를

475) 교금(絞衾) : 소렴과 대렴 때 시신을 싸서 묶는 이불이다. 시신의 형체를 깊숙이 싸서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렴할 때 교금으로 싸기만 하고 묶지 않으며, 대렴 때 비로소 끈으로 묶는다.

476) 범 충선공(范忠宣公) : 범순인(范純仁, 1027~1101)으로, 충선은 그의 시호이다. 자는 요부(堯夫)이다.

477) 《송사(宋史)》 권314 <범순인열전(范純仁列傳)>에 나온다.

478) 이천(伊川)이 …… 일 : 정호(程顥, 1032~1085)와 정이(程頤, 1033~1108)의 후손 사이에 발생한 종통 문제이다. 정호가 아버지인 정향(程珦, 1006~1090)보다 먼저 죽자 정이가 종통을 계승하였고, 정이 사후에 종통이 적손(適孫)인 정앙(程昂)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이의 중자(衆子)인 정단언(程端彥)에게 돌아갔는데, 이는 정이의 유명(遺命)에 따른 것이었다는 내용이 《이정외서(二程外書)》 권7 <호씨본습유(胡氏本拾遺)>에 나온다.

위하여 숨기는 것은⁴⁷⁹⁾ 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숨기지 않아야 한다. 현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능히 의리(義理)를 다하기 때문인데, 현자가 뜻밖에 다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도 후대 사람들이 숨겨 다한 것으로 삼는다면 또한 어찌 무시하고 본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학자는 이를 버려두고 말하지 않아야 하지만 강론과 궁격(窮格 궁리와 격물)할 때에 이르러서는 끝내 숨겨서는 안 된다.

동일한 사심(師心)인데도 마음속에 갖추어진 바의 성리(性理)를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자기의 마음을 엄사(嚴師)로 삼는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고, 다만 영각(靈覺)을 가리켜 말한 것이 있으니, 이른바 사심이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예서(禮書)에 ‘지자(支子)⁴⁸⁰⁾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처자(妻)의 상(喪)을 주관한다.⁴⁸¹⁾’는 설이 있는데, 이것으로 전례를 삼아 지자 중에 거처를 달리하는 자가 각자 그 자녀의 혼례를 주관한다면 옳지 않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김성구(金聖九 김노동(金魯東))가 일찍이 나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에서 문장을 논하는 자들이 살아서는 서파(西坡)⁴⁸²⁾요 죽어서는 농암(農巖)⁴⁸³⁾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생전의 입장에서 말하면 서파의 문명(文名)이 매우 훌륭했던 반면에 농암은 알려진 것이 없고, 사후의 입장에서 말하면

479) 어버이를 …… 것은 : “존귀한 사람을 위해 기휘하고, 어버이를 위하여 숨기고, 현자를 위하여 기휘한다.[爲尊者諱, 爲親者諱, 爲賢者諱.]”라는 말이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민공(閔公) 원년 전문(傳文)에 나온다.

480) 지자(支子) : 말아들 이외의 아들을 말한다.

481) 지자(支子) …… 주관한다 : 《예기》〈분상(奔喪)〉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그 상을 주관한다.[父沒, 兄弟同居, 各主其喪.]”라고 하였고, 주(註)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형제가 함께 살더라도 각각 처자의 상을 주관하니, 주거를 함께 하는 것이 그와 같다면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따라서 알 수 있다.[父沒之後, 兄弟雖同居, 各主妻子之喪矣, 同宮猶然, 則異宮從可知也.]”라고 하였다.

482) 서파(西坡) :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의 호이다.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관지(貫之)이며, 문장에 뛰어나 동인삼학사(東人三學士)로 일컬어졌다.

483) 농암(農巖) :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호이다.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문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중화(仲和)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농암집》이 성행(盛行)한 반면에 《서파집》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때문에 후대 사람 중에 문장을 논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어서는 후창(後滄)이라는 말이 있을 것임을 알았습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아! 이게 무슨 말이나. 내가 글을 짓는 것은 말이 의미를 통하게 하고자 할 뿐이지만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성(誠)은 그 극치를 말하면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⁴⁸⁴⁾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말은 반드시 미덥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과감하게 해야 한다⁴⁸⁵⁾는 데에 있다. 경(敬)은 그 극치를 말하면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⁴⁸⁶⁾는 데에 이르고, 그 가까운 것을 말하면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는⁴⁸⁷⁾ 데에 있다.

경이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 상하를 통하고 시종을 이루는 도가 된다. 자사자(子思子)가 말하기를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다.⁴⁸⁸⁾”라고 하였으니,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그 가까운 것을 힘써 노력하여 그 극치를 기약해야 한다.

동성혼(同姓昏)을 미워하는 것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성자(姓字)가 같음을 미워하는 것이니,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하며⁴⁸⁹⁾, 기미(幾微)를 방지하고 조짐을 막는 것이다. 그래서 성자가 같으면

484) 억지로 …… 되는 : “성(誠)이라는 것은 억지로 힘을 쓰지 않아도 도에 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연히 도에 맞으니, 성인이다.[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라는 말이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온다.

485) 《논어》〈자로(子路)〉에 나오는 말이다.

486) 공손함을 …… 태평해진다 : 《중용장구》 제33장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함에 천하가 태평해진다.[君子篤恭而天下平.]”라는 말이 나온다.

487) 거처할 …… 공경하는 : 번지(樊遲)가 인(仁)을 묻자, 공자가 “거처할 때 공손히 하고, 일을 행할 때 공경하며, 남을 대할 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비록 오랑캐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라고 답한 내용이 《논어》〈자로〉에 나온다.

488) 성은 …… 끝이다 : 《중용장구》 제25장에 “성은 사물의 시작이며 끝이니, 성실하지 못하면 사물이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군자는 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 物之終始, 不誠無物. 是故君子誠之爲貴.]”라고 하였다.

489) 혐의를 …… 하며 : 《예기》〈예운(禮運)〉에 “이 때문에 예라는 것은 임금에게 치국의 중요한 수단

뿌리가 같지 않음을 분명히 알지라도 혼인할 수 없으며, 성자가 같지 않으면 뿌리가 같음을 알지라도 혐의할 것이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3대 이후에는 서로 여러 성과 혼인하였으니, 어찌 삼황(三皇)과 오제(五帝)에서 뿌리가 같음을 거론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나라로 말해보면 누가 다시 김씨와 권씨의 통혼(通婚)에 대해서 혐의하겠는가. 그러나 류씨, 차씨, 김씨, 허씨가 통혼하지 않는 것으로 말하면 지나친 것 같다.⁴⁹⁰⁾

우리나라의 동성혼은 신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동당(同堂)의 안에 있었으니 다시 말할 것이 없고, 고려는 왕가의 경우 신라와 같지만, 사대부에 있어서는 관향을 구별하였다. 우리 대한은 왕가의 후비(后妃)에는 동성이 없었으나 부마(駙馬 왕의 사위)는 있었고, 사대부는 동관(同貫)을 겨우 피했으나 이관(異貫)을 제멋대로 행했으니, 천여 년 동안 모두 오랑캐의 풍습을 면하지 못하였다.

조정암(趙靜菴 조광조(趙光祖)) 이후 구속(舊俗)이 크게 바뀌었고, 게다가 여러 번 동성이관(同姓異貫)에 대해 금혼(禁婚)하는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 나라 안의 대성(大姓)들은 오랑캐 풍습에 물든 이가 전혀 없었는데, 오직 김씨와 이씨 두 성이 대부분 면하지 못하였으니 통탄스럽기 그지없다. 말하는 자는 관향이 많고 수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지만, 국내 각 성씨를 가진 많은 사람의 수가 어찌 더욱 많지 않겠는가.

노(魯)나라 소공(昭公)이 동성에게 장가들었으니⁴⁹¹⁾, 예를 안다고 이를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반드시 그것을 숨겨 오맹자(吳孟子)⁴⁹²⁾라고 한 것은 동성혼이 수치스럽다는 것을 깊이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예를 아는 자일 것이니, 오히려 통행되는 예를 알면서도 태연하게

[大柄]이 되니, 이를 통해서 혐의를 분별하고 미세한 것을 분명히 한다.[禮者, 君之大柄也, 所以別嫌明微.]”라고 하였다.

490) 류씨 …… 같다 : 후창은 차씨와 류씨, 김씨와 허씨는 시조와 본관이 같지만, 성자(姓字)가 다르기에 통혼하지 못하는 것을 지나치다고 생각한 것이다.

491) 노(魯) …… 장가들었으니 : 노나라 소공이 동성(同姓)인 오(吳)에 장가들고는 그것을 꺼려 송(宋)나라 여자인 것처럼 꾸몄다는 내용이 《논어》〈술이(述而)〉에 나온다.

492) 오맹자(吳孟子) : 노나라와 오나라는 같은 희성(姬姓)이기 때문에 오맹희(吳孟姬)라고 해야 하지만, 송나라에서 시집은 것처럼 오맹자라고 했다.

수치심이 없는 자보다 낫다.

옛날에 남자는 30세에 장가들고 여자는 20세에 시집갔으니, 누이동생의 시집이 매번 오빠보다 먼저인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이동생이 오빠보다 먼저 시집가는 것을 도혼(倒婚)⁴⁹³이라고 하니, 이는 매우 옳지 않다. 예의 뜻에 근본하여 이를 논해보건대 오빠의 나이가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는데, 20세 넘는 시집 못간 누이동생보다 먼저 장가든다면 도혼이라 이를 수 있다.

왕용(王戎)이 거상(居喪)에 삼가 예를 잘 지키고 얼굴에 손상이 없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육효(肉孝)’라 하였고⁴⁹⁴, 완적(阮籍)이 몇 말의 술을 먹고 큰소리로 한 번 고향을 치며 야위고 쇠약해져 뼈만 앙상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를 두고 ‘골효(骨孝)’라 하였으니⁴⁹⁵, 두 사람을 견주어 헤아리면 허실과 우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완적이 극히 야위었으나 예법을 파기했고, 왕용이 야위지 않았으나 힘써 예제(禮制)에 미쳤으니, 자식 된 자는 절대 육효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겨 골효의 행실을 사모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얼굴에 손상이 없는 것이 효에 무슨 해가 되겠으며, 어찌 야위고 쇠약해져 생명을 해치는 자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뿐만 아니라 거상의 도는 경(敬)이 제일이고 애(哀)가 그다음이니, 만약 생명을 공경하여 예를 행하면서 하나하나 절도에 맞는다면, 상중에 있더라도 어찌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아도 부끄럽지 않다[仰不愧俯不作]는 내적 기쁨이 있지 않겠는가.

493) 도혼(倒婚) : 형제자매 중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이다.

494) 왕용(王戎)이 …… 하였고 : 왕용(234~305)은 진(晉)나라 때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한사람으로, 자는 준충(濬沖)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예법을 따르지 않고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피골이 상접하여 지팡이를 짚어야만 일어나곤 하였는데, 당시에 이를 두고 사효(死孝)라고 찬탄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다. 《진서(晉書)》 권43 <왕용전(王戎傳)> 그러나 본 글에서 왕용의 ‘사효’를 ‘육효’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

495) 완적(阮籍)은 …… 하였으니 : 완적(210~263)의 자는 사종(嗣宗)이고, 아버지는 후한(後漢) 말의 명사이자 건안칠자(建安七子)의 한 사람인 완우(阮瑀)이며, 혜강(嵇康)과 함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중심인물이다. 그가 모친상을 당해 거상 중일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술에 취하고 돼지고기를 먹기도 하였다. 《진서(晉書)》 권49 <완적열전(阮籍列傳)>

맹자가 참칭(僭稱)한 제나라 왕에게 신하라고 자처하고⁴⁹⁶, 주자가 오랑캐의 신하인 송 고종(宋高宗)을 섬긴 일⁴⁹⁷에 대해 평소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선사(先師 간재(良齋))의 문집을 읽고,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제후가 왕으로 참칭한 것이 이미 세속의 관례가 되었기에 맹자가 혐의하지 않고 그의 부름에 응했고, 고종이 비록 오랑캐의 신하일지라도 결국 조종자손(祖宗子孫)이기에 주자가 그를 보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의혹이 더욱 심해졌으니, 이미 속례가 되었기 때문에 혐의할 수 없다면, 결국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예를 들어 양화(陽貨)가 대부(大夫)로 참칭하였는데, 공자도 대부의 예로 대우해 준 것⁴⁹⁸은 맹자가 제나라 왕을 혐의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나 공자와 맹자가 처신한 것은 본래 묘한 도가 있었으니, 다만 선사께서 이른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니다. 송 고종이 조종 자손이 되는 것은 진실로 그렇지만 결국 오랑캐의 신하이니, 주자가 어찌 오랑캐의 배신(陪臣)⁴⁹⁹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병자(丙子)와 정묘(丁卯)의 호란 이후 제현(諸賢)이 또 모두 주자를 본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현들에게 반드시 미진(未盡)한 곳이 없기 때문이었었는데, 성현의 평소 의리로 이를 증명하면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이 또 이러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496) 맹자가 …… 자처하고 : 《맹자집주》〈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제선왕은 성이 전씨이고 이름은 벽강(辟疆)이니, 제후로서 왕이라고 참칭(僭稱)하였다.[齊宣王, 姓田氏, 名辟疆, 諸侯僭稱王也.]”라고 하였고, 이 장에서 맹자가 제선왕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이 나온다.

497) 주자가 …… 일 : 정강(靖康) 2년(1127)에 금 태종(金太宗)이 남침하여 북송은 멸망하고, 고종(高宗)이 강남에서 즉위하여 남송(南宋)이 세워졌는데, 신하로 자신을 낮추면서 금나라에 납공(納貢)했다. 주자는 송의 고종, 효종, 광종, 영종 네 조정을 거쳐 전운부사(轉運副使), 환장각대제(煥章閣待制), 비각수찬(秘閣修撰) 등의 벼슬을 지냈다. 《송사(宋史)》

498) 양화(陽貨)가 …… 것 : 《논어》〈양화〉에 이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499) 배신(陪臣) : 제후의 신하가 천자(天子)를 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가리키던 말로, 송 고종이 오랑캐의 신하로 낮추었으니 주자가 배신이 된다는 말이다.

예설쇄록 禮說鎖錄

사람들의 물음에 답함

答人問

유세차 운운. 삼가 아뢰건대 봉분(封墳) 수리에 경건하지 못하고, 묘위(墓位)⁵⁰⁰가 실전(失傳)되어 제향할 곳이 없으니, 정의(情誼)와 예의에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에 선배들이 이미 정한 논에 따라 삼가 몇 대 조고 모관 부군의 묘 곁으로 나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냅니다. 삼가 바라건대 혼령께서 영원히 여기에 의지하소서.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선조비(先祖妣)의 묘가 실전되어 고(考)의 묘 옆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고하는 말이다.】 을사년(1905)

유세차 운운. 삼가 아뢰건대 몇 대 조비 모봉 모씨의 분묘가 실전되어 제향할 곳이 없으니, 정의와 예의에 모두 결함이 있습니다. 이에 장차 부군의 묘 곁으로 나아가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고위(考位)에 고하는 말이다.】

하늘에서 나라에 재앙을 내려 섬나라 오랑캐가 능멸하여 짓밟고, 적의 예봉이 닿는 곳에 인민(人民)이 숨고 도망하여 선대의 묘사(廟祠)⁵⁰¹를 능히 받들어 지킬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지고 황망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상의 신주를 임시로 매장하는 일은 전현(前賢)의 설이 있어 지금 대란(大亂)을 만나 감히 임시로 묻습니다. 삼가 난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즉시 도로 봉안할 것이니,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고 가슴이 막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삼가 술과 과일을 차려 공경히 고하고 삼가 고합니다.【위는 난에 임하여 신주를 임시로 매장할 때 고한 말이다.】 무신년(1908)

500) 묘위(墓位) : 묘제의 비용을 위하여 경작하는 논밭을 말한다.

501) 묘사(廟祠) : 제사를 모시는 사당을 말한다.

선사 장례 때의 홀기【1922년 9월 13일 당시에 내가 집례를 담당하였는데, 전재 선생⁵⁰² 장례 때의 홀기를 인하여 가감하였다.】

先師襄禮時笏記【壬戌九月十三日, 時余當執禮, 因全齋先生, 襄禮時笏記增損.】

계빈(啓殯)⁵⁰³ ○내외 오복지친(五服之親)⁵⁰⁴ 및 문인들은 각각 위에 나아가 전(奠)⁵⁰⁵을 차린다. 축(祝)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손을 씻고 음식을 들게 하며【먼저 탁자를 조계(阼階)의 동남쪽에 설치하고, 전의 음식 및 술잔과 주전자를 그 위에 두고 수건으로 덮는다. 대야와 수건을 음식의 동쪽에 설치하되, 별도로 탁자를 두어 깨끗이 씻은 대야와 새로 뺀 수건을 그 동쪽에 설치한다.】, 동쪽 층계로 올라가 영좌(靈座)⁵⁰⁶ 앞에 이르러 포는 동쪽, 짓같은 서쪽에 놓게 한다. 축이 분향하고 술잔을 씻어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주인(主人 상주(喪主)) 이하는 슬픔을 다해 곡하고 재배한 다음 계빈한다.

조조(朝祖)⁵⁰⁷ ○집사자는 사당 앞 양쪽 계단 사이에 자리를 편다. 축이 영좌 앞에 이르러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일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주인과 중주인(衆主人)⁵⁰⁸은

502 전재 선생(全齋先生) : 임헌회(任憲晦, 1811~1876)이다. 자는 명로(明老)이며, 호는 고산(鼓山), 전재(全齋), 희양재(希陽齋)이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낙론(洛論)의 대가로서 이이(李瑀), 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그의 제자인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503 계빈(啓殯) : 장사지내기 위해 빈소(殯所)를 열고 관(棺)을 꺼내 오는 것을 말한다.

504 오복지친(五服之親) : 유복친(有服親)이라고도 한다.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또는 다섯 가지의 상례 복제를 말한다. 다섯 가지의 상례 복제는 즉 참취(斬衰), 자취(齊衰), 대공(大功), 소공(小功), 시마(緦麻)를 이른다.

505 전(奠) : 장례 때 죽은 사람의 영전에 제물(祭物)을 차려 놓는 것, 또는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506 영좌(靈座) : 혼백이나 신위(神位)를 모시는 자리이다.

507 조조(朝祖) : 발인(發柩) 하루 전에 영구(靈柩)를 모시고 사당으로 가서 조상을 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조묘(朝廟)와 같은 뜻이다. 이는 살아 있을 때 외출하려면 반드시 어른에게 고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세에는 가묘(家廟)가 협소하여 혼백으로 대신하였다.

508 중주인(衆主人) : 상주의 형제들을 가리킨다.

지팡이를 들고【땅에 짚지 않는다.】 서서 살핀다. 축이 혼백(魂帛)⁵⁰⁹을 모시고 앞서서 사당 앞으로 간다. 여러 집사는 제수 및 교의(交椅)⁵¹⁰와 탁자를 받들어 다음에 가고 명정(銘旌)⁵¹¹이 다음에 간다. 일하는 자들이 영구(靈柩)를 들고 다음에 가고 주인 이하는 따라가며 곡을 한다.

남자는 오른쪽【서쪽】으로 가고 여자【모두 개두(蓋頭)⁵¹² 차림을 한다.】는 왼쪽【동쪽】으로 가며, 복(服)이 중한 사람은 앞에, 복이 경한 사람은 뒤에 선다. 복이 없는 친척[無服親] 가운데 남자들은 복을 입는 남자들의 오른쪽에, 복이 없는 친척 가운데 여자들은 복을 입는 여자들의 왼쪽에 있되, 모두 주인과 주부의 뒤를 따른다. 사당에 이르면 중문(中門)을 연다. 일하는 자들이 양쪽 계단 앞의 자리 위에 관을 놓되 머리를 북쪽으로 하고 나간다.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영좌 및 전상(奠床)을 영구의 서쪽에 동향으로 차리게 한다. 주인 이하는 영구의 동쪽에 있되 서향하고, 주부 이하는 영구의 서쪽에 있되 동향하며, 모두 북쪽을 뒷자리로 하고【주인에게 모친이 있으면 주부의 왼쪽에 특별한 자리를 설치한다.】, 서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

영구를 청사(廳事 대청)로 옮김 ○집사자는 청사에 휘장을 치고 자리를 편다. 일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축이 북향하고 꿇어앉아 영좌에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고하기를 마치면 혼백을 받들며 영구를 인도하되 오른쪽으로 돈다.【동쪽에서 남쪽으로 돈다.】 주인 이하는 곡하며 따르기를 이전처럼【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있다.】 하여 청사에 이른다.

일하는 자들은 영구를 자리 위에 두되 머리가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나간다. 축이 영좌 및 전상【바로 이전의 전이다.】을 영구 앞에 남향으로 차린다. 주인

509) 혼백(魂帛) : 신주를 만들기 전에 임시로 모시나 명주를 접어 영위를 모셔 놓은 자리에 봉인하는 신위를 말한다.

510) 교의(交椅) : 신주(神主)나 혼백상자(魂帛箱子)를 놓는, 다리가 긴 의자를 말한다.

511) 명정(銘旌) : 장례식에 쓰이는, 붉은 천에 흰 글씨로 죽은 사람의 관직이나 성명 따위를 적은 조기를 말한다.

512) 개두(蓋頭) : 여인들이 머리에 쓰던 쓰개의 한 가지이다.

이하는 자리에 나아가【조조의 때처럼 하되 남쪽을 윗자리로 하고 천석(薦席)을 깔다.】앉아서 곡을 한다. 문인들은 계단 아래에 북향하여 동쪽을 윗자리로 하고 서되 겹줄[重行]로 하여 곡하며, 영상(靈床)을 치우고 바로 교대하며 곡한다.【만일 염하기 전이면 발인까지 이른다.】친척과 손님이 치전(致奠)⁵¹³하고 부의(賻儀)한다.

기물을 진설함 ○방상(方相)⁵¹⁴, 시자(侍者), 명정(銘旌)⁵¹⁵, 의탁(椅卓), 영거(靈車)⁵¹⁶, 만장(輓章)⁵¹⁷, 공포(功布)⁵¹⁸, 대여(大輿 큰 상여)【곁에 운불삼(雲轂)이 있다. ○밤에는 이를 거두어 보관했다가 이튿날 다시 진설한다.】의 순서이다.

조전(祖奠)⁵¹⁹ ○일포시(日晡時 저물녘)【저녁에 상식(上食)⁵²⁰을 올린 뒤이다.】에 조전을 차린다.【음식은 이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축이 분향하고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며 엎드렸다가 일어난다. 주인 이하는 재배하고 곡을 할 때 슬픔을 다한다. ○밤에 대문 안의 오른쪽에 햇불을 설치한다.

513) 치전(致奠) : 친척이나 친지가 상가에 가서 제수를 차려 놓고 제문을 읽으며 슬퍼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514) 방상(方相) : 방상씨(方相氏)라고도 한다. 주대(周代)의 관명으로 역귀(疫鬼)와 산천의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였다. 광부(狂夫)를 도사처럼 관복을 입혀 방상씨 가면을 쓰고 양손에 창과 도끼를 들고, 무서운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영구를 인도하였다. 묘지에 이르면 먼저 광 안으로 들어가 사방 모퉁이를 창으로 쳐 잡귀와 액을 쫓는다. 《주례(周禮)》〈하관(夏官) 사도 제사(司馬第四)〉, 《가례(家禮)》 권5 〈상례(喪禮) 진기(陳器)〉

515) 명정(銘旌) : 명기(銘旗)라고도 한다. 장사지낼 때 죽은 사람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품계, 관직, 성씨 등을 기재하여 상여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하관(下棺)이 끝난 뒤에는 관 위에 씌워서 묻는 기(旗)를 말한다.

516) 영거(靈車) : 관을 실은 수레를 말한다.

517) 만장(輓章) : 죽은 사람을 애도하여 지은 글을 천이나 종이에 적어 깃발처럼 만든 것으로, 장사를 지낼 때 상여 뒤에 들고 간다.

518) 공포(功布) : 관을 묻기 전에 관 위의 먼지를 털고 닦는 데 쓰는 삼베 형질이다. 발인할 때 명정과 함께 영여 뒤, 상여 앞에 세우고 가면서 상여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519) 조전(祖奠) : 발인 하루 전 저녁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520) 상식(上食) : 아침저녁으로 식사하기 전에 신위(神位) 앞에 차려 올리는 것, 또는 그 음식을 말한다.

영구를 옮겨 상여로 나아감 ○이튿날 상여꾼이 대여(大輦)를 중정(中庭)에 들이되 남향으로 하게 한다. 집사자는 조전을 거둔다. 축이 북향하여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하고 마침내 영좌를 옮겨서 곁에 둔다. 부인은 물러나 피한다. 역부(役夫)를 불러서 영구를 옮겨 상여로 나아간다. 이에 실되 머리를 남쪽으로 하게 하고 베로 만든 새끼줄로 묶어서 아주 견고하고 실하게 한다. 주인은 영구를 따라서 곡하며 내려와 신는 것을 지켜본다. 부인은 휘장 안에서 곡을 한다. 모두 실으면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영좌를 영구 앞에 남향하도록 옮겨두게 한다.

견전(遣奠)⁵²¹⁾ ○집사자는 전을 차린다.【찬(饌)은 이전의 의식과 같이 한다.】 축은 분향하고 술을 따르며 이를 마치면 북향하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고한다. 주인 이하는【부인은 거기에 참석하지 않는다.】 곡을 하고 재배하며 마침내 전을 거둔다.【집사자는 대로 만든 그릇에 남은 포를 담는다. ○식사 때 상식을 올린다.】

축이 혼백을 받들어 영거에 올리고 분향함 ○별도로 신주를 상자에 담아 혼백 뒤에 둔다. 집사자는 견전 때 남은 포를 영거에 들인다. 부인은 이에 개두 차림을 하고 휘장을 나와 계단을 내려와 서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재배한다.

영구가 떠남 ○방상(方相), 시자(侍者), 명정(銘旌), 의탁(椅卓), 영거(靈車), 만장(輓章), 공포(功布), 대여(大輦)【운불삼은 대여 양 곁에 있다.】가 차례대로 따라간다. 주인 이하는 곡을 하며 따라간다.【조조 때의 차례처럼 한다.】 복이 없는 친척이 다음이고, 문인이 다음이고, 빈객이 다음이다.

도중에 잠자고 머뭇 ○집사자는 영구 앞에 영좌를 차린다. 조석으로 곡을 하고 전을 올리며【석전(夕奠)을 올릴 때 견전에 올렸던 포를 치운다. 조전(朝奠)을 올린 뒤 올렸던 포를 싸서 영거(靈車)에 넣는다. 매일 이처럼 한다.】, 식사 때 상식(上食)을 올리고, 야간에는 주인 및 중주인이 모두 영구 옆에서 잠을 자며, 친척과 문인들이 함께 지켜주고 중정(中庭)에 횃불을 설치한다. 묘지에 도착함[及墓] ○(상여가) 도착하기 전에 집사자는 먼저 묘도(墓道)

521) 견전(遣奠) : 발인할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로, 노전(路奠), 노제(路祭)라고도 한다.

의 서쪽에 영악(靈輦)⁵²²을 설치하되 남쪽을 향하게 하고, (혼백을 안치할) 교의와 탁자를 놓는다. 친척과 빈객이 머무는 막차는 영악 앞 십수 보에 남향하여 있다.

방상이 도착함 ○창으로 광의 네 귀퉁이를 친다.

영거가 도착함 ○축이 혼백을 받들어 영악의 자리로 나아가고, 신주 상자는 혼백 뒤에 두며, 마침내 전을 차리고 물러난다.【조전에서 남은 포는 이때 이르러 바로 거둔다.】

영구가 도착함 ○집사자는 먼저 광(壙)의 남쪽에 자리를 펴고, 등(凳)⁵²³ 두 개를 놓는다. 영구가 도착하면 신고 있던 것을 풀어서 등상(凳上)에 안치하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결과(結裹)⁵²⁴를 제거한다. 축은 공포(功布)로 영구를 닦고 이금(倮衾)⁵²⁵으로 덮는다. 집사자가 명정을 취하여 강목(杠木)을 제거하고 영구 위에 놓는다. (각각) 자리에 나아가 곡을 한다. ○주인 및 오복친(五服親)은 광의 동쪽에 서서 서향하되 북쪽을 뒷자리로 하여 겹줄로 하고, 문인들은 광의 남쪽에 서서 북향하되 동쪽을 뒷자리로 하여 겹줄로 하고 모두 곡을 한다.

이에 하관함[乃窆] ○주인과 중주인은 곡을 그치고 직접 임하여 하관하는 것을 살펴봐야 하니, (하관하는 일은) 가장 세심하게 살펴 공을 들여야 하고 잘못하여 기울거나 떨어트리거나 움직이거나 흔들리게 해서 안 된다. 먼저 짧은 강목 2개를 사용해서 회격(灰隔) 위에 가로로 놓고, 또 긴 강목 2개를 사용하여 광(壙) 입구에 가로로 놓아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않게 한다. 명정(銘旌)과 구의(柩衣)를 거두어 곁에 둔다. 따로 긴 강목 2개를 사용하여 영구 위 양쪽 끝에서 가로로 들고, 베 2가닥을 사용하여 이를 접고 영구 밑 양쪽 끝에 씌워, 그 베 4곳의 끝을 수직으로 올려 가로로 들고 있는 강목의 허리에 매달아 묶는다.

522) 영악(靈輦) : 하관(下官)하기 전에 영구를 놓아두는 천막을 말한다.

523) 등(凳) : 괴임 나무[塊木]로, 영구를 받치는 것이다. 길이는 관의 너비에 준하고, 발의 높이는 34치로 한다.

524) 결과(結裹) : 영구를 끈으로 묶어 맨 것을 말한다.

525) 이금(倮衾) : 영구 위에 덮는 홑이불 같은 긴 베를 말한다.

하나의 강목마다 양쪽 끝에 베를 매어 일제히 그 강목의 4군데 끝을 들고, 영구를 옮겨 광 입구에 있는 2개의 강목 위에 놓아 그 사방(四傍)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바로 들고 있는 강목을 약간 들면서 광 입구에 있는 2개의 강목을 제거하고, 들고 있는 강목을 조금씩 놓아 내리면서 짧은 강목 위에 영구를 안치한다. 그리고 다시 매달려 있는 영구와 베의 길이를 헤아려 광 밑에 닿을 수 있게 한 뒤에 다시 처음처럼 맨다. 두 사람을 회격 상하에 나누어 서게 하여 손으로 영구의 네 귀퉁이를 눌러서 기울지 않게 하고, 또 강목을 조금 들어서 짧은 강목을 제거하고 그대로 조금씩 내린다.

이미 내렸으면 베를 풀고 강목을 제거하여 그 베를 빼내고, 흰 실(素絲)을 사용하는데 길이는 관과 같고 영구 위에 세로로 놓으며, 중앙은 옆으로 놓은 종이에 먹줄로 표시한 곳과 정확히 맞게 한다. 밀랍과 점사(粘絲)를 사용하여 양 끝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또 금정기(金井機)⁵²⁶ 면의 먹줄로 표시한 곳에 한 가닥 가는 새끼를 당겨 자세히 보아 실[絲]과 새끼[繩]가 서로 맞게 하여 그 바름을 살펴본 뒤, 실과 새끼 및 영구 상하에 표시한 종이를 제거한다. 설면자(雪綿子)⁵²⁷를 사용하여 영구 위의 먼지를 닦아서 깨끗하게 한다. 주인은 구의와 명정을 정돈하되 평평하고 반듯하게 하고 운불삽(鬮)은 광에 넣지 않는다.

증(贈)⁵²⁸ ○주인은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집사자가 검은 비단[玄]과 붉은 비단[纁]을 받들어 주인에게 준다. 주인이 이를 받들어 영구 위 동쪽에 두되 검은 비단이 위에, 붉은 비단이 아래에 있게 하며, 곡을 하고 재배하며 이마를 조아린다.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슬픔을 다해 곡을 한다.

회격(灰隔)⁵²⁹에 덮개를 덮음 ○회판(灰板)⁵³⁰을 회격 위에 놓고, 삼물(三

526) 금정기(金井機) : 금정틀이다. 묘의 구덩이를 팔 때 곳의 길이와 너비를 정하는 데 쓰는 틀이다. 굵은 나무로 우물 정자(井字) 모양으로 만든 것인데, 묘의 구덩이를 팔 때 이 틀을 땅에 놓고 그 안으로 파서 곳을 짓는다.

527) 설면자(雪綿子) : 풀솜이다.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어 만든 솜이다.

528) 증(贈) : 《예기》〈잡기 상(雜記上)〉의 주에 “증은 물품으로 관(椁) 안의 죽은 자를 송별하는 것이다.[贈以物送別死者於椁中.]”라고 하였다.

529) 회격(灰隔) : 광중(壙中)에 내려놓은 관 밖을 석회로 메워서 다지는 것을 말한다.

530) 회판(灰板) : 광중에 관을 넣고 그 밖에 얇은 판자를 광처럼 두르고 관과 판자 사이에 석회를 넣는 것을 말한다.

物)⁵³¹⁾을 고루 섞은 것으로 밍아서 채운다.【영구 안이 흔들리게 하지 않고, 다만 많이 사용하여 채워지기를 기다린다.】

흙을 채움 ○흙을 1자쯤 넣을 때마다 바로 가벼운 손놀림으로 촘촘하게 다진다.

토지신에게 제사함 ○축이 집사자를 인솔하여 묘소의 왼쪽에 신위를 설치하되 북쪽에 가깝게 하여 남행하게 하고 자리의 남쪽 끝에 찬을 차리며, 또 대야와 수건을 그 동남쪽에 설치한다. 고자(告者)【먼 친척이나 혹은 빈객이 말한다.】가 길복(吉服 평상복)을 입고 신위 앞에 북향하고 선다. 집사자는 그 뒤에 있고【서쪽을 뒷자리로 한다.】, 모두 재배한다. 고자와 집사자는 모두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는다. 고자는 신위 앞으로 나아가 꿇어앉는다.

집사자 한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서향하여 무릎을 꿇고, 또 한 사람은 잔을 들고 동향하여 무릎을 꿇는다. 고자는 주전자를 들어 술을 따르고 주전자를 돌려주고, 잔을 들어 땅에 붓고 다시 술을 따라서 신위 앞에 올린다.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축판(祝板)을 들고 고자의 왼쪽에 동향하여 서고 꿇어앉아 다음과 같이[云云] 축문을 읽는다. (축문 읽는 것이) 끝나면 (축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고자 이하는 모두 재배하고 거두어 나간다.

지석을 내림 ○광 안의 남쪽 [가까이]에 먼저 벽돌 한 겹을 깔고 지석을 그 위에 놓으며, 또 벽돌로 사방을 둘러싸고 그 위를 덮는다. 다시 흙을 붓는 것은 또한 1자 정도를 기준으로 삼되, 공이질을 치밀하게 하여 견고하게 다진다.

신주를 씌[題主] ○집사자는 영좌의 동남쪽에 서향으로 탁자를 설치하여 벼루와 붓과 먹을 그 위에 놓아두고【연적(硯滴)도 갖춘다.】, 탁자 맞은편에 대야와 수건 각각 2개【하나는 동쪽에 있는데 받침대가 있는 것으로 축이 씻는 것이고, 하나는 서쪽에 있는데 받침대가 없는 것으로 글씨를 쓰는 자가 씻는 것이다.】를 놓는다. 주인은 탁자 남쪽에 북향으로 선다. 중주인은 그의 왼쪽에서 조금 앞에 있다. 축이 손을 씻고 신주를 꺼내어 탁자 위에 놓혀 놓는다.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손을 씻고 서향하여 서서【혹 앉아서 쓰기도 하니,

531) 삼물(三物) : 석회, 모래, 황토를 말한다.

일에 편하게 한다.】 먼저 함중(陷中)⁵³²에는 ‘【고(故) 처사(處士) 전공(田公) 휘우(諱愚) 자자명(字子明) 신주(神主)】’라고 쓴다. 분면(粉面)⁵³³에는 ‘【현(顯) 조고(祖考) 처사 부군(府君) 신주, 효손(孝孫) 일효(鎰孝)⁵³⁴ 봉사(奉祀)】’라고 쓴다. 쓰기를 마치면 축이 신주를 합하여 받침에 꽂고 받들어 영좌에 안치하고, 혼백 상자를 그 뒤에 둔다. 분향하고 술을 따라 올린 후, 축문판(祝文板)을 들고 주인의 오른쪽으로 나아가 꿇어앉아【주인도 꿇어앉는다.】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축문을 가슴에 품고【남겨두었다가 초우(初虞)⁵³⁵ 때의 축문과 함께 태운다.】 일어나서 자기 자리로 간다. 주인 이하는 재배하고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

신주를 받들어 영거에 올림 ○축은 신주를 받들어 독(櫛)⁵³⁶에 들일 때, 갈개를 사용하고 다시 덮개를 하지 않으며, 덮지 않은 채로 영거에 올린다. 혼백 상자는 그 뒤에 있고【쓴 신주를 들고 남은 포로 전을 올린다.】, 분향한다.

영좌를 거두고 떠남 ○집사자는 영좌를 거두고 마침내 떠난다. 주인 이하 및 문인들은 곡하고 재배하며 묘소에 인사를 드리며, 곡하면서 따르기를 올 때의 의식처럼 한다. 다만 자제 한 사람을 남겨 두어 흙을 채우고 봉분 만드는 일을 살피게 한다.

반곡(反哭)⁵³⁷ ○주인 이하는 영거를 받들고 길에서 천천히 걸으며 곡하고 집에 도착하면 곡한다. 집사자는 먼저 영좌를 설치한다. 축이 신주 궤를 받들어 서계(西階)로 올라가 교의 위에 받들어 안치하고, 혼백 상자는 그 뒤에 안치한다. 주인 이하는 서계로 올라 영좌 앞에서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그친다.

532) 함중(陷中) : 신주 뒤쪽의 몸체 안쪽에 길게 파 놓은 홈이다. 망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칭호를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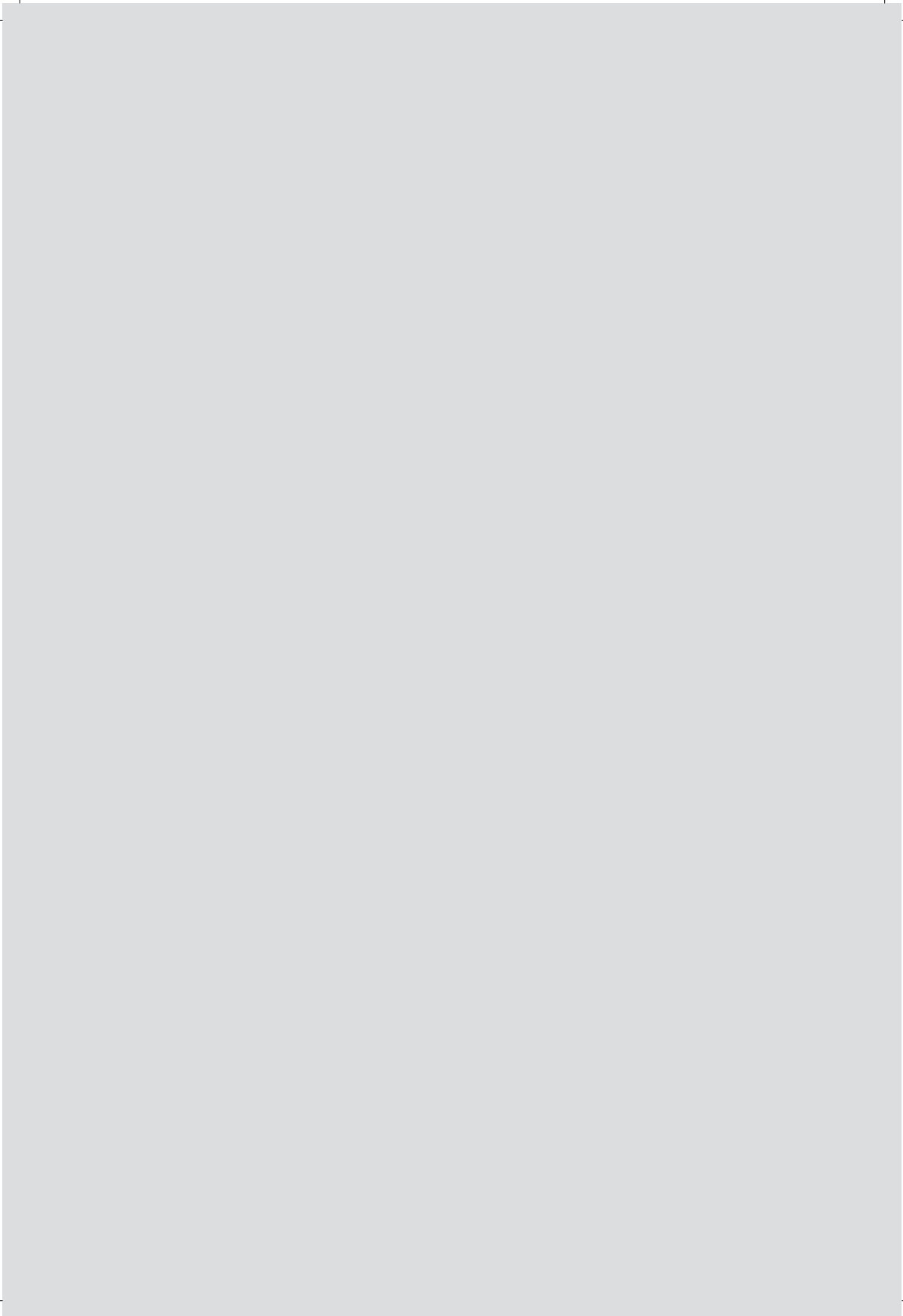
533) 분면(粉面) : 신주 앞면을 분(粉)가루와 아교를 섞어 발라 희게 만든 것이다.

534) 일효(鎰孝) : 전일효(田鎰孝)이다. 간재의 장손(長孫)이다.

535) 초우(初虞) : 장사지낸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혼령을 위하는 제사로, 장사 당일을 넘기지 않고 지낸다.

536) 독(櫛) : 신주를 넣어 두는 궤이다.

537) 반곡(反哭) : 묘지에서 장례가 끝난 다음 신주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과 돌아온 뒤에 곡하는 일로, 장례 의식의 한 가지 절차이다. 보통 집이 바라보이는 곳에서부터 곡을 시작하고 집에 도착하면 신주를 영좌에 모시고 다시 온 가족이 모여서 곡을 한다.



《후창집》 제14권

《後滄集》卷之十四

잡저

雜著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두루 알림 【59인이 연명하여 당시에 인쇄·배포한 글은 이 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침삭한 것이니, 읽는 사람은 상세히 살펴보라. 1924년 7월】

徧告同門僉公 【五十九人聯名當日印布文，就此本而衆共添刪者，覽者詳之。甲子七月】

일찍이 듣건대, 절의(節義)는 도학(道學)의 울타리고, 도학은 절의의 집이니, 절의가 있되 도학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도학이 있되 절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였다. 우리의 선사(先師)이신 간재(良齋) 선생의 도학과 절의는 본래 한 시대의 공론(公論)이 있을 만큼 트집을 잡을 것이 없었다. 그러나 오진영(吳震泳)⁵³⁸이 무함한 말과 글이 한번 나오므로부터 선사의 울타리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하였으니, 집이 어찌 홀로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아, 선사께서는 곤궁하고 지위가 없어 쌓은 경륜을 펼칠 수 없었지만 만년(晩年)에 이르러 좋지 않은 때를 만나 장기 서린 바닷가 머나먼 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정(自靖)⁵³⁹의 뜻을 바쳤으니, 빛나는 단심(丹心)과 늙름한 의리는 신명(神明)에게도 질정할 수 있다. 그런데 선사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마음과 정신이 깃든 수고(手稿)를 가지고 일제(日帝)에게 인허를 청원하여 간행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문인(門人)으로서 매우 사려 깊지 못한 것이다. 비록 먼 미래를 염려하고 오래도록 전함을 도모하는 것이 혹 매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선사께서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크게 나를 단죄하실 것이다. 내가 죄를 짊어질지언정

538 오진영(吳震泳) : 1868~1944.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본관은 해주(海州)이고, 자는 이견(而見)이며, 호는 석농(石農)이다. 충청북도 진천(鎭川) 출신이다. 안성(安城) 경양사(景仰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으로 《석농집(石農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39 자정(自靖) : 나라가 망했을 때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여 절개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 <미자(微子)>에 “스스로 의리에 편안하여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뜻을 선왕에게 바칠 것이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은둔하겠다.[自靖，人自獻于先王，我不顧行遜.]”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말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 저 오진영은 자기의 생각을 펴고자 감히 선사를 무함하고 끌어와 증거로 삼았다.

인허를 성토했던 김낙두(金洛斗)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금년 봄 3월에 선사께서 홀로 은행나무 아래 대나무 평상에 앉아 계실 때에 나에게 명하시기를, ‘세상은 알 수 없으니, 문고(文稿)는 그대가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하셨다.”라고 하였고, 또 이병은(李炳殷)⁵⁴⁰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소자(小子)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스스로 인허를 받았으면 글을 저술한 사람은 무관하다고 들었다. 이와 같다면 깊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듯하다.’ 하셨다.”라고 하였다. 이것들은 모두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에 대해 분부하셨음을 말한 것으로, 계해년(1923) 3월 11일에 화도(華島)⁵⁴¹에서 선사의 둘째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에게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는 데 뜻이 있으셨다.”라고 주장하며 말한 것과 서로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는 것은 곧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의 실상이고,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는 곧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는 것의 표상이다. 말과 글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지어내어 선사께서 다른 사람에게 인허를 받아 간행하도록 하셨다는 일을 성립시켰으니, 이는 선사에게 미루고 핑계대어 자신에 대한 성토틈를 막은 것이다. 이리하여 조롱과 모욕이 거리에 넘쳐나고, 헐뜯음과 꾸짖음이 하늘까지 퍼져서 희디흰 우리 선사의 태양처럼 빛나고 옥처럼 깨끗한 인품이 암흑처럼 어두워져 해명할 수 없게 되었으니, 선사를 무함한 죄가 또한 너무나 지극하다. 문하에 찾아와 직접 수학한 제자라면 어느 누군들 명목장담(明目張膽)⁵⁴²하여 변론하고

540) 이병은(李炳殷) : 1877~1960. 전라북도 완주(完州) 출신으로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는 자승(子乘)이며, 호는 고재(顧齋)이다.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문집으로 《고재집(顧齋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41) 화도(華島) :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계화도(界火島)를 가리킨다. 간재(良齋) 전우(田愚)는 한일합방 이후에 자정(自靖)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군산도(群山島)로 갔다가 이곳으로 옮겨 정착하면서 중화(中華)를 계승한다는 뜻에서 계화도(繼華島)라고 고쳐 불렀다.

542) 명목장담(明目張膽) : 눈을 밝게 하고 담을 넓힌다는 뜻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일을

성토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대체로 사랑하는 것 중에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몸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선계(先系)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선사께서 시체를 바다에 던지라 했던 맹서와 호적에 올리지 말라 했던 경계가 준엄할 뿐만이 아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대의(大義)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들보다 더 컸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독 문고에 대해서만은 인허를 구걸하는 것이 의리를 파괴하는 것이 되는 데 구애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헤어려서 하라고 분부하셨다면 이는 문고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버이로부터 물려받은 몸이나 선계보다 더 클 뿐만이 아니라, 또 관계된 대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다. 나는 선사의 학문이 결코 이와 같지 않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심적(心跡)상의 확실한 증거가 이미 뚜렷하고, 더욱이 만년에는 “급하게 문고를 간행하지 말라. 저들에게 인허를 구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두 통씩이나 손수 써서 정중하면서도 엄절하게 둘째 아들에게 주어 삼가 지키게 하였다. 하나는 “만약 청원하여 간행·배포한다면 이는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⁵⁴³⁾고 하였고, 하나는 “급급하게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들이 근거로 삼아 그를 배척하는 것이 오직 여기에 있으니, 그가 근거 없이 무함한 말과 글이 어찌 식자(識者)의 귀와 눈을 어지럽힐 수 있겠는가.

다만 말세의 풍속은 홍보기를 좋아하고, 떠도는 소문은 안정시키기 어려우며, 천 사람의 입을 거치면 공론이 되고, 오래도록 전해지면 사실이 되니, 진실로 그런 염려가 없을 수 없기에 변론하고 성토하는 것을 그치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가 식경보의(息黥補劓)⁵⁴⁴⁾하여 무함을 자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몸을

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543) 만약 …… 말라 :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艮齋先生文集後編續)》 권5 <고제자손검시제군(告諸子孫兼示諸君)에 “훗날 시변이 조금 안정되기 전에 만약 저들에게 청원하여 간행·배포할 계획을 한다면 결단코 이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혹 강권하더라도 너희들은 맹세코 부조의 마지막 명을 지켜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 이 종이를 따로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때를 기다려라.[異時時變稍定之前, 若請願於彼, 以爲刊布之計, 決是自辱. 諸人雖或強之, 汝等誓守父祖未命, 慎勿勉從也. 此紙別藏, 以俟後憑.]”라는 말이 보인다.

544) 식경보의(息黥補劓) : 얼굴에 찍힌 글자의 흔적을 지우고 잘린 코를 보수한다는 뜻으로 개과천선

새롭게 할 것을 바랬다. 그러나 끝내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것이 더욱 심하여 조금도 후회의 싹을 틔우지 않았고, 심지어 제사에서 쫓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그 무리들은 또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 이것도 한때의 말이고, ‘헤아려서 하라.’는 가르침도 한때의 말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선사에 대한 무함이 더욱 깊어져서 성토하는 일을 늦출 수 없는 이유이다. 이에 감히 우러러 통보하니,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이 한목소리로 함께 성토하여 선사의 대의를 밝히고 사문(斯文)의 한 줄기 맥을 부지해준다면 천만다행이겠다.

삼가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알림 【119인이 연명하였다. 1925년 11월】 敬告同門諸公【百十九人聯名. 乙丑十一月】

아, 사문(斯文)의 궁액(窮厄)과 변괴(變怪)가 거듭해서 나오더니 진주(晉州)에서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일이 있게 됨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다.

선사께서 문고(文稿)의 일로 유서(遺書)와 엄중한 훈계를 남기셨는데, 하나는 “청원하여 간행·배포한다면 결단코 이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맹세코 마지막 명을 지키고, 부디 마지못해 따르지 말라. 이 종이를 따로 보관하여 훗날 증빙할 때를 기다려라.”라고 하셨고, 다른 하나는 “염려할 만한 일이 있으니, 어찌 대번에 세상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겠는가. 또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 부디 정밀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 처리하라.⁵⁴⁵⁾”고 하셨다. 아, 이것은 선사께서 일생 동안 주장하신 것으로

(改過遷善)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자》〈대종사(大宗師)〉에 “조물주가 내 이마에 가해진 목형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수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劓, 使我乘成以隨先生耶?]

545) 염려할 …… 처리하라 :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良齋先生文集後編續)》 권5 <고문인겸시자손(告門人兼示子孫)〉에 “또 염려할 만한 일이 있다. 요즘 세상 사람의 마음은 사물을 사물로 보지 않고 오직 사람을 업신여긴다. 비록 노사(蘆沙)나 한주(寒洲)와 같은 명망으로도 또한 불태워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만났으니, 어찌 다른 사람과 자신을 헤아리지 않고 대번에 후세에 전하여 스스로 욕됨을 취하겠는가. 또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니 감히 종이와 먹 사이에 형용할 수 없다. 단지 자손에게

천지의 법칙이요, 《춘추(春秋)》의 의리이니, 무릇 떳떳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믿고 따르지 않겠는가.

불행하게도 오진영(吳震泳)은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데 급급하여 선사를 끌어들이고 증거를 무함하여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에 문고를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분부하셨다.” 하여 선사로 하여금 남의 의심을 깊이 받게 하였다. 유서를 보았음에도 오히려 누우쳐 자복하지 않고 도리어 공론의 성토를 받으며 발행되었던 인본(認本)이 팔리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겨 고소의 변고를 일으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지금 또 조홍순(趙弘淳) 등으로 하여금 다시 유훈(遺訓)을 침범하여 제멋대로 인허를 받아 간행케 함으로써 선사의 도의가 땅바닥까지 깎은 듯이 사라지게 하였다. 그가 거리낌 없이 저지른 호종(怙終)⁵⁴⁶의 악행은 진실로 이루다 주별할 수 없을 정도이거나 조홍순 등이 선사의 유훈을 버리고 오진영에게 붙어서 인허의 무함을 실행한 죄 또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선사의 유서에 또 “글을 버리거나 취하는 데에 기준이 없이 그것으로 일을 마치는 것은 불효(不孝)로 아버지를 섬기고 불의(不義)로 스승을 섬기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또 “정본(定本)에 한 편의 글도 함부로 첨가할 수 없으니, 만약 안면이나 사사로움에 얽매어 다시 변통을 행한다면 이는 잔인하게 아비와 스승을 죽이고 씩은 백골을 속이는 무지한 짓이다.”라고 하였다. 아, 저 오진영은 마음대로 글자를 고치고 사사로움에 얽매어 첨가해 넣었으며, 시대의 의리에 관계된 글이나 구절을 하나하나 삭제하여 전고

말하여 한두 사람에게 은밀히 전하게 할 뿐이다. 부디 정밀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 처리하라.[且有可慮之端，近世人心，未嘗以物視物，而惟人之是侮，雖以蘆寒之人地，且遭焚毀之說，奈何不量人己，遽欲傳世以自取辱也？又有難言之事，不敢形之於紙墨間者，只以言於子孫，使之密告於一二人而已，幸惟精思而審處焉。]”라는 말이 보인다.

546) 호종(怙終) :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끝까지 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서경(書經)》〈순전(舜典)〉에 “과오로 인하여 죄를 저지르거나 불운으로 인하여 죄를 저지른 자는 용서하여 풀어 주고, 믿는 구석이 있어서 죄를 저지르거나 반복해서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을 시킨다. [眚災肆赦，怙終賊刑]”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前稿)와 후고(後稿)⁵⁴⁷⁾를 훼손하고 선사께서 손수 교정하신 본(本)을 어지럽혔으니, 잔인하게 스승을 죽이려는 마음이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인가. 난본(亂本)을 사용하는 것을 들어주어 일을 마친 조홍순 등도 또한 “스승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증거를 무함하는 것은 선사를 무함하는 것이고, 유훈을 배반하는 것은 선사를 배반하는 것이다. 한 번 저지른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두 번 세 번 저지른 자가 어찌 사문(師門)의 난적(亂賊)이 아니며, 사람마다 함께 성토했 자가 아니겠는가. 오진영의 지시와 부추김을 받들어 앞뒤에서 바쁘게 뛰어다녔던 자들이 어찌 먼저 다스릴 난적의 무리가 아니겠는가. 돈을 보조하여 찬성했던 동문과 스스로 성토했지 못하거나 굳이 성토했 필요가 없다고 주창했던 자들이 어찌 모두 그의 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삼가 바라건대, 여러 군자들은 무함하고 배반한 죄를 일제히 성토했고 바뀌고 어지럽혀진 본(本)을 깨끗하게 수습하여 공경히 유서를 따르고 삼가 정본(定本)을 지킴으로써 유명을 어기고 썩은 백골을 속이는 죄에 함께 돌아가지 않는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동문의 동지들에게 돌려 알림 【1926년 5월】

輪告同門同志【丙寅五月】

근년 이래 오진영의 변고에 대해 오히려 무슨 말을 하겠는가. 첫 번째 변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는 것과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했고, 두 번째 변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검국(檢局)⁵⁴⁸⁾에 고소하여 무함을 변론한 사람들에게 재앙을 끼쳤으며, 세 번째 변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진주(晉州)에 인쇄소를 설치하여

547) 전고(前稿)와 후고(後稿) : 1906년에 산정(刪定)해 두었던 문고(文稿)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초고(草稿)를 합하여 산정한 25책을 ‘전고(前稿)’라 하고, 1913년 이후의 글을 산정(刪定)·편차(編次)한 것을 ‘후고(後稿)’라 하였다. 《한국문집총간 간제집 해제》

548) 검국(檢局) : 일제 강점기에 검사(檢事)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무함을 실행하였으니, 아, 그 흉악함이 지극하다 하겠다. 변론하여 성토하고 배척하여 절교한 우리들도 또한 스승을 높이는 직분을 거의 다했다고 이를 만하다.

근래에 들으니, 그가 또 선사의 총손(冢孫 만손자)인 전사인(田士仁 전일효(田鑑孝))에게 고소를 제기하여 잡아끌고 가서 가두어 놓고 징금(徵金) 칠백 원을 걸어 놓았다고 한다. 참으로 이른바 살무사와 도마뱀처럼 마음이 악랄하고 승냥이와 이리처럼 성정이 잔인하다 하겠다. 선사를 무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사의 만손자까지 해치는 데 이르렀으니, 선사의 만손자도 오히려 이렇게 하는데 선비들에게 화를 끼치는 것쯤이야 어찌 거리낄 것이 있겠는가. 이것을 말하면 입이 더럽혀 질 것이지만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런 결과를 불러들인 데에는 전사인도 또한 죄가 있다. 만약 전사인이 속임을 당한 것을 깨닫고 오진영을 배척했다면 빨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혹됨을 책망하고, 오진영의 죄상을 하나하나 들어서 사묘(祠廟 사당(祠堂))에 아뢰고 사우(士友)에게 알린 다음에 삼가 유서를 근거로 하여 통문으로 진주의 간행을 성토함으로써 철거하여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 뒤에 사문(師門)의 갖가지 큰일들이 실마리를 잡아 나아갈 수 있었다. 계책을 이렇게 내지 않고 도리어 용동(龍洞)에 간행소를 설치하여 그와 대적하였고, 대적하다 격파할 수 없게 되자 당시의 법을 빌려 고본(稿本)을 차압(差押)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할 수 없게 되자 끝내 또한 그의 허물을 본받아 인허를 내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어쩌면 그렇게도 어그러짐이 심한 것인가.

아아, 용동과 진주에서 인허를 받아 간행한 본(本)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선사의 뜻과 일이 더욱더 어두워졌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현동(玄洞)에서 초록한 본과 친정(親定)한 본을 조심스럽게 간직하였다가 때를 기다리고 기회를 타서 도모할 만하면 도모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숨이 다할 때까지 이것을 껴안고 있을 따름이다.

혹자는 이렇게 끝내고 만다면 사라져서 전할 수 없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 어찌할 것인지 의아해 할 것이다. 아, 사서(四書)와 육경(六經)이 처음

나왔을 적에 어찌 판본에 새겨 인쇄하는 법이 있었겠는가. 죽간과 칠만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중천에 뜬 태양과 별처럼 빛나고 있다. 우리 선사의 글은 심종(心宗)의 어지러움을 다스리고 성리(性理)의 바름을 돌이켜서 참으로 사서와 육경으로 올라가는 디딤돌과 사다리가 될 수 있으니 하늘이 돕고 귀신이 보호할 것이다. 나는 결단코 선사의 문집이 전해지지 않을 우환이 없을 것임을 알고 있다. 더욱이 종이와 먹으로 필사한 글이 전해지기 쉬움은 죽간과 칠에 견줄 정도가 아님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으며, 더욱이 천운(天運)이 순환하는 바는 도모하는 것 중에 앞날을 기약하기 쉬움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으로 자신할 수 있다.

동문의 여러 공들에게 돌려 알림 [1934년]

輪告同門僉公【甲戌】

맹자가 “나는 말을 안다.⁵⁴⁹⁾”라고 말하고서 피음사둔(誣淫邪遁)⁵⁵⁰⁾을 모두 거론한 것은 대체로 진실로 말을 알지 못하면 피음사둔이 올 때에 샅된 말을 바른 말로 여기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이것이 맹자가 반드시 먼저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기 전에 말을 안 이유이다. 훗날에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물리치고 널리 변론하기를 좋아하여 공이 성문(聖門)에 존재하고 덕이 후세까지 전해진 것은 모두 말을 아는 한 가지 일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끝내 또한 피음사둔에 귀결됨에도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것이니, 어찌 위태롭지 않았겠는가.

지난날 오진영이 선사의 분부라 일컬으면서 은행나무 아래서의 말을 만들어 냈을 때에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무함의 말인지 몰랐다. 무함의 말이라고 배척하는 사람이 있자 오진영은 “말에 구별이 부족했고, 말을 가림에 소홀했다.”라고 하였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이 치우치고 부정한

549) 나는 …… 안다 :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나오는 말이다.

550) 피음사둔(誣淫邪遁) : 말의 네 가지 폐단으로, 치우친 말과 방탕한 말, 사벽한 말, 도피하는 말을 이른다. 《孟子 公孫丑上》

말인 줄 몰랐다. 치우치고 부정한 말을 논박하는 사람이 있자 또 꾸며대는 말과 근거 없는 말로 이리저리 피하고 숨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취하고 버리는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심지어 그의 죄를 성토하는 것에 대해 지나친 행동이다거나 일을 만들어낸다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의론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모두 처음에 말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어 마침내 무함의 말을 보호하고 난적(亂賊)을 따르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오진영이 전에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말씀하신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세 가지 점에서 옳지 않으니, 그 첫 번째는 진실로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던 것입니다.⁵⁵¹⁾ 보내주신 편지에서 비록 제가 의론을 일으켜 처음 시작했다고 하셨지만 그에 앞서 여러 벗들이 의론하여 결정했던 것이고,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입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번 봄에 홀로 오래도록 앉아계시는 것이 마치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은지라 제가 종종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니, 하교하시기를, ‘문고를 어찌하고자 하는가?’ 하셨는데, 미처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한 50년 뒤에는 할 수 있을까?’ 운운하시더니, 또 ‘그대들처럼 노성(老成)한 사람이 다 떠나고 나면 다시는 관장할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모르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다. 이미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이다.”라고 하고서 이어서 “모르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하였으니, “헤아려서 하라.”는 말 속에는 본래 “말없는 가르침”의 뜻과 맥락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뒤에 김낙두(金洛斗)에게 답한 편지에서 “은행나무 아래에서 ‘헤아려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원래 서병갑에게 답한 편지에 근본을 두고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에 구별이 부족했고, 말을 가림에 소홀했다.”라고 말한 것은 폐간(肺肝)을 보는 듯 정상이 다 드러났으니, 어찌 굳이 말을 아는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이와 같음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서병갑에게 답한 편지가 나오기 전에 일찍부터 성토하여 다시는 어떤 의심도 없었던

551) 첫 …… 것입니다. 일제의 인가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가서 간재의 문집을 간행하려고 했던 일을 말하는 듯하다.

이유이다.

서병갑에게 답한 편지가 이미 나온 뒤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선사를 무함하고, 피음사둔이며, 근거 없이 꾸며대는 말인 줄 모르고 “그도 또한 선사를 높였다.”라고 말한다.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이 어찌 일찍이 요(堯)와 순(舜)을 높이지 않았겠는가. 그럼에도 맹자가 조금의 힘도 남기지 않고 마치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처럼 그들을 배척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대체로 근본적인 문제에서 미세한 잘못이 있게 되면 끝에 가서 생기는 폐단은 반드시 어버이와 임금을 없이 여겨 짐승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이었으니, 지난날에 요와 순을 높였던 일을 다시 말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지금 오진영은 이미 천 리만큼이나 잘못되었으니, 그 폐단이 이를 곳은 저절로 끝을 기다릴 것도 없이 알 수 있다. 유서를 거짓이라 말한 것과 선사의 문고를 차마 고친 것, 감히 사류(士流)에게 화를 끼친 것, 선사의 손자를 잡아 가두는 것 등 허다하게 그지없는 재앙과 극에 달한 악행들 또한 평범한 짐승의 짓일 뿐만 아니라 효경(梟獍)⁵⁵²⁾ 같은 짐승의 짓이다. 그런데도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말이 경박하고 지나쳤다.”는 것으로 끝내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와 스승에 대해 옳지 못하다고 여기는 마음⁵⁵³⁾이 있는 자가 아니겠는가. 어찌면 그렇게도 오늘날 세상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인가. 아, 괴이하다.

무릇 뜻을 함께하는 우리 선비들이 난적(亂賊)으로 귀결되지 않고 피음사둔의 무리가 되지 않는 데 뜻이 있다면 어찌 추성(鄒聖 맹자)의 밝은 가르침을 본받아 여러 말들을 두루 살펴보고 샅된 말인가 바른 말인가 궁구하여 배척할 것은 배척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함으로써 우리 선사께서 좋아하고 싫어했던 것이 방정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매우 다행이겠다.

552) 효경(梟獍) : 효(梟)는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새이고, 경(獍)은 아버지를 잡아먹는다는 짐승이다. 전하여 흉악해서 인륜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553) 부모와 …… 마음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순이 어버이 모시는 도리를 극진히 행하자 고수도 기뻐함에 이르렀다.[舜盡事親之道，瞽瞍底豫.]”라는 고사에 대해 북송의 이학가(理學家)인 나중소(羅仲素)가 《소학》〈가언(嘉言)〉에서 “다만 천하에 옳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只爲天下無不是底父母]”라고 한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오진영이 서병갑에게 보내려던 편지에 대한 변론 [1937년]

吳震泳擬與徐柄甲書辨【丁丑】

맹자가 말하기를, “그 말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실상을 숨길 수 있겠는가.⁵⁵⁴⁾”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회피하는 말에서 곤궁한 실상을 알 수 있다.⁵⁵⁵⁾”라고 하였는데, 지금 오진영의 이 편지를 보니 더욱 그 말이 참으로 맞다는 것을 알겠다.

그가 말하기를, “선사께서 전훈(田勳)의 말을 듣고 《병암집(炳庵集)》⁵⁵⁶⁾을 대신 인허를 받게 하였고, 김지암(金持庵)의 청 때문에 《오수(五粹)》⁵⁵⁷⁾을 대신 인허를 받게 하셨다. 다섯 현인과 병암(炳庵)을 위해 대신 인허를 받았다면 선사를 위해 대신 인허를 받는 것도 또한 후세 사람이 스스로 헤아려서 미루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말없는 가르침’이라 말한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이 한 편의 글 가운데 가장 크게 긴요하고 관건이 되는 말이다.

그러나 선사께서 전훈의 요청으로 대신 인허를 받게 했다는 말은 원래부터 믿을 것이 못 된다. 또 그의 설을 따라 말하면 지난날에 그의 무리인 최원

554) 그 …… 있겠는가 : 《맹자》〈이루 상(離婁上)〉에 “사람에게 있는 것 가운데 눈동자보다 진실한 것이 없으니, 눈동자는 그 악을 감추지 못한다. 가슴속이 바르면 눈동자가 또렷하고 가슴속이 바르지 못하면 눈동자가 흐릿하니,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고 그 눈동자를 살펴본다면 사람이 어떻게 실상을 숨길 수 있겠는가.[存乎人者, 莫良乎眸子. 眸子不能掩其惡. 胸中正, 則眸子瞭焉; 胸中不正, 則眸子眊焉. 聽其言也, 觀其眸子, 人焉廋哉?]

555) 회피하는 …… 있다 : 《맹자(孟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편벽된 말에서 가려 있는 실상을 알며, 정도에 지나친 말에서 빠져 있는 실상을 알며, 부정한 말에서 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 실상을 알며, 회피하는 말에서 곤궁한 실상을 알 수 있다.[諛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라고 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556) 병암집(炳庵集) : 전우(田愚)의 문인 김준영(金駿榮, 1842~1907)의 문집으로 전우가 서문을 썼다. 김준영은 본관이 의성(義城)이고, 자는 덕경(德卿)이며, 호는 병암(炳菴)이다. 전우보다 한 살이 적었으나 전우를 3번씩이나 찾아가 사제(師弟)관계를 맺었고, 간재(良齋)의 학설을 적극 지지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57) 오수(五粹) : 《오현수언(五賢粹言)》을 가리키는 것으로 임헌회(任憲晦)가 문인 전우(田愚)·신기선(申箕善) 등에게 명해 조광조(趙光祖)·이황(李滉)·이이(李瑋)·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 다섯 현인의 문집에서 명문을 발취해 1905년에 간행한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崔愿)은 “책을 간행하는 것에 대해 두루 논의한 것”을 말한 것이라 하였고, 【<읍고문(泣告文)>】 김세기(金世基)는 “병정(丙丁)년간에 업자(業者)가 대신 인허를 받은 것”을 말한 것이라 했으며, 【<읍고문(泣告文)>】 우형근(禹炯根)은 “옛 성인의 책, 이를테면 《시경(詩經)》·《서경(書經)》·《논어(論語)》·《맹자(孟子)》를 오늘날 세상에 간행한다 하더라도 옛 성인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음”을 말한 것이라 했다. 【<답현통(答玄通)>】 그러나 《병암집》을 의론해 간행했다는 말은 모두 없었다. 오진영은 “책 상인이 스스로 인허를 받고 책을 간행한 것”을 말한 것이라 했지만, 【<답전정재서(答田靜齋書)>】 또한 《병암집》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머리를 고쳐서 “전훈의 말이라 하지 않았던가? 《병암집》의 논의와 간행을 위해서 이런 분부가 있으셨다.”라고 하였다. 교묘하게 선사께서 이유흥(李裕興)에게 보낸 임술년(1922) 편지를 끌어다 이으려 했지만 편지 가운데 아주 조금도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없자, 또 스스로 단정하여 말하기를, “이 당시에 만약 전훈의 대신 인허를 받는다 말이 없었다면 비록 빨리 《병암집》을 간행하고자 한들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교묘하기는 교묘하다. 그러나 지난날에 두루 의논했던 책이 어찌 오늘날의 《병암집》이 될 수 있겠으며, 지난날의 병정년간이 어찌 오늘날의 임술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 여러 집안의 간소한 문집을 간행할 때에도 또한 대부분 인허를 받는 일이 없었으니, 단지 말이 되지 않음을 드러낼 뿐이다.

《오수(五粹)》를 대신 인허 받았다는 설이라 하는 것은, 문헌이 이미 보이지 않으니, 말은 고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증할 수 없는 것이고, 판주(板主)를 일찍이 행하지 않았으니, 일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이며, 감삭(勘削)은 당연히 있지 않았고, 다섯 현인은 또 오늘날의 사람이 아니니, 유례(類例)가 원래부터 같지 않아 애초에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증할 수 없는 말과 행하지 않은 일, 같지 않은 예를 가지고 억지로 실제의 고증과 실제의 일, 실제의 근거로 만들었으니, 단지 말이 되지 않음을 드러낼 뿐이다.

병암(炳庵)은 선사께서 심법(心法)을 전한 아우이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함은 인자(仁者)의 마음이다.⁵⁵⁸⁾ 간행·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계를 남겨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은 일을 심법을 전한 아우에게 베풀었겠는가. 선사의 인(仁)은 결코 이와 같지 않을 것이니, 병암을 위해 대신 인허를 받게 했다는 것은 단지 말이 되지 않음을 드러낼 뿐이다.

또 저 “대신 인허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신하는 것인가? 책을 저술한 사람을 대신하는 것인가? 그 자손을 대신하는 것인가? 그 문인을 대신하는 것인가? 선사께서는 인허를 받지 말라고 한 유서에서 “훗날[異時]”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자신이 죽은 뒤를 말한 것이다. 당신 자신이 인허를 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글은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고,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글이 제재를 받고 감삭을 당하는 것은 곧 몸이 모욕을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러한 글과 이러한 시기로 보면 자손이 인허를 받는 것도 또한 선사 자신이 욕되는 것이고, 문인이 인허를 받는 것도 또한 선사 자신이 욕되는 것이며, 업자가 인허를 받는 것도 또한 선사 자신이 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부터 선사를 위해서 대신 인허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작 말이 되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나는 그래서 “말을 들으면 곤궁한 실상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전훈이 《오수》를 대신 인허 받은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헤아려서 미루어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때문에 ‘말없는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이미 지극히 온당치 못한 것이다.

그가 처음 서씨에게 답할 적에 인허를 받는 것이 문집 간행의 첫 번째 옳지 않은 점으로 여겨서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다.”라고 말하였고, 또 말하기를,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맑고 깨끗한

558) 자기가 …… 마음이다. : 《논어》〈안연(顔淵)〉에 중궁(仲弓)이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문을 나갈 때는 큰손님을 뵈는 듯하며,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듯 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것을 자처하면서 선사를 더럽히고 욕보이는 것이 도리어 어떠한가? 나는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지어서 그의 무함이 더욱 깊어졌고, 이 〈의서(擬書)〉를 지어서 그의 죄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말한 것이다.

선사께서 묘적(墓籍)의 등록⁵⁵⁹⁾을 허락하신 것을 끌어다 증거로 삼은 것은 또한 변론할 것이 못 된다. 묘적은 등록하지 않으면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변고를 당하게 될 것이지만 문고는 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그것을 상자에서 꺼내 불에 태울 사람은 없을 것이니, 그가 이 두 경우를 나란히 놓고 똑같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어린아이도 속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걸핏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선사의 평소 말과 일을 끌어대며 번번이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증거로 삼으니, 통탄스럽다.

대체로 그가 변박과 성토를 당한 초기에는 그래도 때때로 가리고 숨기려는 모습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립시키는 것이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해져서 조금도 거리낌 없이 크게 쓰기도 하고 특별하게 쓰기도 하여 한 번만 쓰는 데 그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른바 “말없는 가르침”이라는 편지가 갑자기 서씨에게서 나오면서 자신의 무함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헤아려서 하라는 말과 비교해 더욱 분명하고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고, 용납할 곳이 없다면 차라리 이미 쏘아진 화살과 같은 이것을 끝마치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 터럭만큼도 선사를 염려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차마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내가 또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가 이미 말없는 가르침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의리로 삼아 선사께서도 꺼리지 않을 것으로 여겼다면 또 어찌하여 서씨가 이 편지를 발설한 것을 원수처럼 본 것인가? 아마 끝내 어찌할 수 없이 없던 것을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무함한 죄를 자복하여 사죄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름은 미워할 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발설한 것을 원수처럼 본 것이다. 이것이 그의 정상이니, 어찌 숨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괴이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애처롭게 여길

559) 묘적(墓籍)의 등록 : 일제 강점기 때 묘지의 위치, 제주(祭主)의 본적, 주소, 신분, 씨명 및 관리인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묘적계(墓籍屆)를 군의 헌병분견소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것이다.

현통(玄通)⁵⁶⁰ 중에 “만약 우리 선사께서 문고의 인허를 청원하도록 분부하셨다면 이는 마음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불충(不忠)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말을 가리켜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침범했다고 말하며 ‘적의 무리[賊輩]’라는 이름을 덧붙였다. 그렇다면 그는 주자가 “만약 고상하고 현묘한 도리를 지니고서도 성인이 이를 숨겼다면 이는 성인이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으로 불충불신(不忠不信)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또한 위로 감히 말할 수 없는 곳을 침범했다고 말하며 “운운(云云 적의 무리)”이라는 이름을 덧붙일 것인가? 그는 현동의 통문이 주자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것임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은 이것으로 다른 사람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하고, 무함을 변박하는 사람이 자신을 해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삼기 위한 것이니, 이것이 또 미워하고 주별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후세의 사람들이 반드시 모두 문리(文理)를 통달하지 못한 사람은 아닐 것이니, 틀림없이 그의 계책이 너무나 허술하고, 재주가 너무나 졸렬하며, 마음이 너무나 험악함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가소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근거 없는 말이나 꾸며낸 말, 이치에 어긋난 말, 악다구니는 모두 위에서 변론한 여러 말들을 예로 삼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아울러 그만 적는다.

재변론【1938년】

再辨【戊寅】

오진영은 이 편지에서 선사께서 묘적(墓籍)의 등록을 허락하셨던 일을 끌어와 문고의 인허에 대한 말없는 가르침의 분명한 증거로 미루어 삼고

560) 현통(玄通) : 《후창집》 권9 <답전사견(答田士狷)>에 “현동통문(玄洞通文)”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현동에서 보낸 통문을 가리키는 듯하다. 현동은 간재의 묘소가 있는 전북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마을이다.

말하기를, “참고 견디라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은 가죽과 비단[皮幣]⁵⁶¹⁾로 말씀하셨고, 선사는 묘적(墓籍)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차마 선조의 묘를 차마 지키지 않을 수 없어 묘적을 등록했다면 차마 선사의 원고를 차마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인허를 받는 것이 또한 무슨 죄가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묘적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앙에 대해 선사께서 “저 일제가 묘를 무너뜨리거나 파서 옮기는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벌인다면 이는 부조(父祖)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참고 견디는 요결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신 이유이다. 문고를 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널리 배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탈 없이 보관해 두면 저 일제가 문고를 찢어 파괴하거나 불에 태우는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벌이지 못하여 애당초 부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없을 것이니, “참고 견디는 요결을 사용하여 어쩔 수 없이 인허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말이겠는가. 나는 그래서 “묘적의 등록과 문고의 인허는 바로 연나라와 월나라처럼 서로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는 도리어 묘적의 등록을 문고의 인허에 대한 가르침으로 미루어 삼고서 또 말하기를, “주희와 송시열도 꺼리지 않았던 것을 선사께서 꺼리셨겠는가. 꺼리는 것이 진실로 의리라면 주희와 송시열이 먼저 꺼렸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인허에 대한 가르침을 선사께서 받은 바가 주자와 송시열 이래로 한결같이 의리에 부합한 것이라고 여기며 꺼리지 않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서(徐)씨가 이 편지를 발설한 것을 깊이 미워하면서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 또 ‘어찌하여 간행을 주창하고 인허를 주관한 것을 자신이 만약 스스로 끌어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선사를 위해 꺼리고자 한 것인가?

꺼리고자 했던 것과 꺼리지 않은 것 사이에 일이 있음을 알겠다. 대체로 그는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는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561) 가죽과 비단 : 옛적 국가 간의 외교에 사용하는 예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있으셨다.” 하였고, 【정재(靜齋)에게 대답한 말】 꺼리고자 하면서 말하기를, “여러 공들은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 못했고, 내 손으로 쓴 편지를 보지 못했다.” 하였다. 【〈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에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 하였고, 【〈김함재(金涵齋)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 하였다. 【〈호남의 여러분에게 답한 편지〉】 꺼리지 않고 말하기를, “선사께서 일찍이 깊이 구애될 것이 없다고 분부하셨다.” 하였고, 【이자승(李子乘)에게 답한 편지】 꺼리고자 하면서 “다른 글을 범범하게 말한 것이지 대고(大稿)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하였다. 【김세기(金世基)의 〈읍고문(泣告文)〉】 이것이 진실로 잠시 이랬다 잠시 저랬다 하며 간계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그의 장기(長技)이다. 그런데 지금 또 한 편의 글 내에서 주희와 송시열 이래 한결같이 의리에 부합한다는 것은 꺼리지 않은 것이고, 편지가 드러난 것을 깊이 미워하고 자신이 끌어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꺼리고자 한 것이다. 한번은 이랬다 한번은 저랬다 하며 간계를 부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이겠는가?

처음에는 꺼리지 않았다가 스승을 무함했다는 죄명을 듣는 것이 싫어지자 잠시 입장을 바꾸어 꺼리고자 하였고, 중간에 꺼리고자 하였다가 진장(眞贓 범행의 증거)이 잡히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또 끝에 가서는 차라리 얼굴을 드러낼지언정 꺼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의 정상이 결국 어땠겠는가? 어찌 그가 서씨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문집을 간행하는 일은 세 가지 점에서 옳지 못하니, 그 첫 번째로 진실로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내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또 그 편지에서 말하기를, “제가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으나 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도 또한 인허를 낼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끝에 가서 말하기를,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그도 또한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는데 선사께서는 옳지 않음을 모르셨다고 하고, 그도 또한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선사께서는 그럴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겠는가.

그가 이미 옳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니, 선사께서 더더욱 옳지 않음을 아시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이미 그럴 마음이 없었으니, 선사께서 더더욱 그럴 마음이 없으셨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렇게 말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선사를 끌어와 다른 사람의 변박을 막고, 죄를 벗어 선사에게 덮어씌우려는 계책이다. 그가 인허를 내는 것에 대해 진실로 옳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으로 제목을 세웠다면 무릇 이 편지 속의 “대신 인허를 받으셨다.”거나 “묘적을 등록하셨다.”, “참고 견디는 요결을 주희와 송시열이 말씀하셨다.” 등의 많은 말들은 모두 논제에서 벗어난 허황된 말일 것이다. 이와 같음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오히려 그것들을 말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보고 듣는 것을 현혹하고 어지럽혀서 세상 사람을 속여 넘기려는 계책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죄가 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무함이 아니라 사실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 이런 사람은 현혹하여 속이는 계책에 정확하게 걸려든 것이니, 내가 진실로 안타깝게 여긴다. 만약 “명철함으로 옳고 그름을 알 수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또 어찌할 수 없을 따름이다.

전발설에 대한 변론 [1915년]

傳鉢說辨【乙卯】

유문(儒門)의 이른바 ‘의발을 전한다.[傳鉢]’라는 것은 무엇인가? 불가(佛家)의 말을 빌린 것으로, 도통(道統)을 전하는 것을 ‘의발을 전한다.’라고 한다.

도통은 요(堯)와 순(舜)이 천하를 전하고 받는 것처럼 서로 직접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공자(孔子)와 주공(周公)은 시대가 달랐고, 정자(程子)와 맹자(孟子)는 세대의 격차가 넓었다.”

“그 말은 옳다. 그러나 같은 시대에 살다 스승은 나이가 들어 죽고, 제자는 어썩이 가장 뛰어났을 때 서로 전하고 받는 것이 ‘통(統)’이니, 면제(勉齋)와 주자(朱子), 한수(寒水)와 우암(尤庵)이 이런 경우가 아니겠는가?”

“다 그렇지는 않다. 증자(曾子)와 우암은 공자(孔子)와 사계(沙溪)가 죽었을 때에 나이가 적었고, 어썩도 또한 반드시 가장 뛰어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것인가?”

“도통은 덕에 있지, 시대가 앞뒤로 이어졌는지, 전수가 직접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있지 않다. 참으로 합당한 사람이라면 비록 시대가 뒤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도통은 진실로 그에게 있을 것이고, 만약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비록 직접 받았다 하더라도 도통은 그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매번 선사께서 의발을 전수해 준 사람을 변박하고 성토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오진영이 일찍이 말하기를, “귀산(龜山)은 의발을 이천(伊川)으로부터 전해 받았지만 주자는 그가 노(老)불(佛)에 빠졌다고 하였으며⁵⁶², 면제(勉齋)는 의발을 주자로부터 전해 받았지만 과재(果齋)는 그의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을 비난하였으니⁵⁶³, 의론의 옳고 그름은 의발을 전수했는가 전수하지 않았는가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가령 선사의 의발이 진실로 오진영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죄가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치는 데에 이르렀다면 변박하고 성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애당초 의발을 전수한 일이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선사께서 임종하실 때에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이 했던 것처럼 문인에게 중책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함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도리어 기미년(1919) 3월의 편지를 끌어와 도통을 전수한 증거로

562) 귀산(龜山) …… 하였으며 : 귀산은 정자(程子)의 문인 양시(楊時)를 가리킨다. 정자의 학문은 양시를 거쳐 나중언(羅從彦)에게 전해지고 다시 이통(李侗)을 거쳐 주자에게 전해졌다. 《宋史 권428 楊時列傳》 여기에 인용된 말의 출처는 상세하지 않으나, 주자의 〈중용서문(中庸序文)〉에 “정문(程門)의 제자들이 그 스승의 말을 위반하고 노·불에 빠진 자가 있었다.[程門弟子, 有或倍師說, 而淫於老佛者.]”라고 하였는데, 귀산도 그 중에 한 사람인 듯하다.

563) 면제(勉齋)는 …… 비난하였으니 : 면제는 황간(黃幹)의 호로, 주희(朱熹)의 사위이며 문인이다. 과재(果齋)는 이방자(李方子)의 호로 주희의 문인이다.

삼았다. 그러나 이 편지는 권면한 것이지 허여한 것이 아니니, 그 말이 옳은지 모르겠다. 또 이 해 겨울 선사의 함자를 거짓으로 서명하여 파리(巴里)에 던져준⁵⁶⁴ 뒤에 선사께서 즉시 최병심(崔秉心)⁵⁶⁵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뒤로 일어나지 않고 글이 없었던 것은 또한 가르침을 받은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었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서양(西洋)과 상해(上海)에 우리나라 유자(儒者)들의 서한이 있고, 모두 내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고 하네.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맹랑한 오진영이 전담 심부름꾼을 보내 와서 이름을 서명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내가 단연코 허락하지 않았었네.”라고 하셨다. 서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에 권순명(權純命)⁵⁶⁶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다공(茶公)은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몸이 먼저 머리를 깎았으니, 매우 통탄하고 분개한들 어찌하겠는가. 아무개가 나에게 그의 전철을 다시 밟게 하려고 하는데, 무슨 소견인지 모르겠네.”라고 하셨으며, 경신년(1920)에는 중대하고 바른 학맥을 근심하고 훗날의 일을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오이견(吳而見 오진영)이 끝내 일을 벌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셨으니, 지금 오진영의 무리인 권순명이 기록한 <화도치명록(華嶠治命錄)>에 실려 있는

564) 이 …… 던져준 :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유럽측에서도 전에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호서지방의 유종(儒宗)인 전 승지 김복한(金福漢)을 중심으로, 의병에 참여했던 김덕진(金德鎭)·안병찬(安炳瓚)·김봉제(金鳳濟) 등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하였는데, 전우(田愚)가 이 서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자 오진영이 몰래 스승의 이름을 서명하여 보낸 일을 말한다.

565) 최병심(崔秉心) : 1874~1957.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경존(敬存)이며, 호는 흥재(欽齋)이다. 전주 출신으로 이병우(李炳宇)·전우(田愚)의 문인이다. 1904년에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만동묘(萬東廟) 철폐로 인한 정향(丁享) 문제로 항거하다가 왜경들에 의해 괴산경찰서에 10여 일 간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염재야록(念齋野錄)》에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인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힌 서문을 쓴 일로 조희제와 함께 임실경찰서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흥재문집(欽齋文集)》 30권 14책이 있다.

566) 권순명(權純命) : 1891~1974.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고경(顧卿)이며, 호는 양재(陽齋)이다. 고부 출신으로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1910년 경술국치 뒤에 스승을 따라 서해의 군산도(群山島)·왕등도(旺燈島)·계화도(繼華島) 등지에서 15년 동안 학문에 몰두하여 화도주석(華島柱石)이라 불리었으며, 스승의 문집·예설(禮說)·연보(年譜)·척득(尺牘) 등을 편집·출간하였다. 고부 태산사(台山祠)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는 《양재집(陽齋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것이 이것이다. 또 이기환(李起煥)에게 편지를 보내 말씀하시기를, “나와
 종유했던 사람 중에 오직 김덕경(金德卿) 한 사람만이 도를 위반하지
 않고 훗날을 기대할 수 있으리라 희망했는데, 불행히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네. 나머지 여러 군들은 각기 하나씩 장점이 있지만 치우치고
 잡박한 병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훗날에 과연 정맥(正脈)을 잃지나
 않을까 모르겠네.”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무개가 일의 공적을
 추구하려다 남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성정(誠正)⁵⁶⁷ 공부와는 먼 것이네.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단지 식견이 부족해서이니, 식견이 낮으면 일이 모두
 비루해지네. 모름지기 토사법(吐瀉法)을 써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을
 것이네.”라고 하셨다. 무릇 선사께서 말씀하신 “일을 벌이다[事爲]”와 “일의
 공적[事功]”은 모두 파리장서의 일을 가리키는데, 이것들은 을사(乙巳) 연간에
 전화구(田華九)와 전경구(田敬九)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업(功業)
 을 중시하고 도의(道義)를 꾀하지 않는다고 오진영을 배척한 결안(結案)
 으로 총괄된다. 이와 같음에도 오진영과 그 무리들은 아직도 감히 선사께서
 의발을 전수했다는 것에 가탁하여 자신들을 대단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아, 내가 이것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그의 무리와 대적해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일깨우고, 선사의 전수가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이다.

오진영이 이원재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1927년 10월】

吾震泳答李遠齋書辨【丁卯十月】

선사께서전옹(全翁)⁵⁶⁸의문집에얼마나많은문자를산삭하고교정하셨습니다.

567) 성정(誠正) : 《대학장구》에 나오는 팔조목(八條目) 중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뜻한다.

568) 전옹(全翁) : 전재(全齋) 임헌희(任憲晦, 1811~1876)를 가리킨다. 본관은 풍천(豐川)이고, 자는 명로(明老)이며, 호는 고산(鼓山)·전재(全齋)·희양재(希陽齋)이다. 송치규(宋禪圭)·홍직필(洪直弼)의 문인으로 이이(李珣)·송시열(宋時烈)의 학통을 계승하여 간재(艮齋) 전우(田愚)에게 전수하였다.

그런데 심(沈)이나 이(李)와 같은 여러 사람들이 원수로 대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요? 이승욱(李承旭)이 “간재(艮齋)가 전용의 문집을 고쳤으니, 이것은 간재의 문집이지, 전용의 문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무함하고 모욕한 것을 집사께서는 혹 듣지 못하셨는지요?

선사께서 전용의 문집을 산삭하고 교정하셨던 부분은 산삭하고 교정해야 할 것들이었으니, 여러 사람들이 선사를 원수로 대한 것은 사사롭고 망령된 것이다. 오진영이 선사의 문고를 산삭하고 교정했던 부분은 진실로 대부분 산삭하고 바로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더욱이 첨가하고 고치기까지 하였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우리들의 변박과 성토는 공정하고 참된 것이다. 선사께서는 일찍이 전용의 글을 고친 적이 없으셨으니, 이승욱의 말은 진실로 대부분 무함과 모욕이다. 오진영은 실제로 선사의 글을 고쳤으니, 그가 고친 것은 어찌 간재의 문집이 아닌 오진영의 문집이 아니겠는가. 그가 망령되게 삭제하고 첨가하여 고친 부분은 <진본고변록(眞本考辨錄)>에 있으니, 그 사실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가져와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하나하나 들어 말할 겨를이 없다.

집사께서는 비록 “선사께서 직접 스스로 수정하셨다.”라고 하셨지만, 선사께서는 “후고(後稿)⁵⁶⁹가 겨우 책을 이루긴 했으나 정본(定本)은 아직 아니다.”라고 하셨고, “후고는 정신이 혼미하여 수정할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셨으며, “사고(私稿)를 정리하여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이견(而見 오진영)을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손수 써서 보내주신 서신이 정중하기까지 하셨으니, 이것이 어찌 내 스스로 한 말이겠습니까. 진실로 지금 보내주신 편지에서 말씀하신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비록 정리하여 바로잡게 하셨다는 분부가 자기 자신의 말에서 나온 것이

569) 후고(後稿) : 간재의 글 중에서 1913년 이후의 글을 산정(刪定)·편차(編次)한 것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아니라 하더라도 “정리하여 바로잡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과 어구가 겹쳐 늘어져 있는 것이나 고증과 근거가 사실에 어긋난 것, 글자가 빠진 것, 잘못된 것, 어긋난 것, 뒤섞여 있는 것 등의 부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지, 어찌 자기 마음대로 고쳐 짓도록 허여한 것을 말씀한 것이겠는가. 선사의 둘째 아들 정재(靜齋)가 항상 말하기를, “선인(先人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박죽천(朴竹川)의 신도비(神道碑)의 초고를 완성하시고 오진영에게 수정하여 윤색하도록 명하셨는데, 오진영이 조금도 겸양이나 삼감이 없이 고치고 삭제하여 거의 절반 정도를 줄여버리자 오진영이 떠난 뒤에 선인께서 ‘이와 같은 것은 오히려 묘갈(墓碣)로 삼기에도 부족하니, 모두 되돌려놓아라.’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으며, 선사께서 일찍이 나에게 훈계하시기를, “이견의 글은 기이함을 숭상하니, 부디 본받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 두 가지 경우를 보면 선사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는 매번 후고는 아직 정본(定本)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을 막는 파병(柵柄 칼자루)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이미 정본을 이루었다.”라는 가르침이 있는 전고(前稿)⁵⁷⁰⁾에 대해서도 또한 멋대로 손을 놀려댄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컨대 <분언(體言)>이나 <신혁군서(申赫均書)>, <전불관전(田不關傳)> 등의 글을 고치고 삭제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전고이다.】 여기에서 그의 말이 곤궁함을 볼 수 있다.

삭제해서는 안 되는데 삭제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거니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삭제하지 않는 것도 또한 죄가 됩니다.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모르면서 삭제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진실로 죄가 되거니와 삭제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삭제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은 더더욱 죄가 됩니다.

그는 대고(大稿)에서 삭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또

570) 전고(前稿) : 간재의 글 중에서 1906년에 산정(刪定)해 두었던 문고(文稿)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 수집해 둔 초고(草稿)를 합하여 산정한 25책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어려움 없이 첨가해 넣는 것을 차마 범하여 썩어 백골이 된 선사의 가르침을 속였으며, 게다가 자신의 생각으로 고치기까지 하였으니, 죄가 또 첨가한 것보다 더 크다. 우리들이 변론하고 성토했을 때에 삭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해 단죄했을 뿐만 아니라, 첨가하고 고친 것에 대해서 더더욱 단죄하였는데, 그는 도리어 요란하게 단지 삭제의 마땅함과 부당함을 말하며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것은 아마도 글을 교정함에 삭제하는 전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현혹하는 수단이다.

오늘날의 논변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훗날의 논변이 있을 것이고, 사람의 논변이 있지 않다면 반드시 하늘의 논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가 먼저 말했으니 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진본(眞本)⁵⁷¹이 이미 출간되었고, 수본(手本)도 또한 남아 있으니, 그것들을 들어 대조해보면 그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훗날의 논변과 하늘의 논변을 기다릴 것도 없이 즉시 오늘날의 사람들에 의해 논변될 것이다.

‘고쳤다[改]’라는 한 글자는 제가 아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선사를 무함했던 자는 이승옥의 무리였고, 이것으로 이놈을 무함했던 자는 집사가 가까운 사람이었으니, 이놈이 외람되게도 선사의 뒤를 따라 이런 죄목을 얻게 되어 분수에 영광입니다.

그가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또 옹정(甕井)에게 답한 편지에서는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 스스로 헤아려서 하도록 명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라고 선사를 무함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성토했을 때에는 곧바로 큰 소리 치며 말하기를,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내 손으로 쓴 것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어찌하여

571) 진본(眞本) : 1926년 10월에 간재의 문인 오진영(吳震泳)과 김정호(金楨鎬) 등이 진주(晉州)에서 활자(活字)로 간행한 간재의 문집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선사를 무함했다고 나를 무함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는데, 지금 “고쳤다 [改]’라는 한 글자는 내가 아는 바가 아닌데, 이것으로 이놈을 무함했다.” 라는 이것도 어감이 똑같다. 이것이 바로 그가 늘 해왔던 습관이니, 어찌 상대하여 변론할 것이 있겠는가. 다만 그가 일마다 매번 자신을 선사에게 비기는 것이 정말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아, 순(舜)·우(禹)를 본받았다는 왕망(王莽) 같은 사람이나 문왕(文王)에 의탁했다는 조조(曹操)와 같은 사람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는가.⁵⁷²⁾

훗날에 척안(隻眼)·거벽(巨擘)⁵⁷³⁾이 “이(李) 아무개가 오(吳) 아무개를 죽였다.”라고 크게 쓸 것이니, 집사께서 무덤 속에서 일어나신다 하더라도 아마 바꾸지 못할 것입니다.

척안·거벽은 수본(手本)이 바로 이것이니, 어찌 훗날을 기다릴 것이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벌할 수 있는 것이 《춘추(春秋)》의 법이니, 어찌 다만 이 아무개뿐이겠는가. 하늘의 태양이 환히 내려다보고 있으니, 무덤 속은 말하지 말라.

“심(心)이 곧 성(性)이요, 성이 곧 심이다.”라는 말은 모름지기 《주자대전(朱子大全)》 70권 끝에 나아가서 한 번 읽고, 열 번 읽고, 백 번 읽고, 천 번 읽어보면 확실히 정자의 말이고, 왕양명(王陽明)의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와서 공격하신다면 제가공손히 받겠습니다.

이 한 조목은 백 번 천 번 읽을 필요도 없이 오진영의 견해가 옳다. 그러나 문고를 어지럽힌 일을 견해가 옳은 것과 함께 논해서는 안 된다. 이원재는 무슨 까닭으로 고치고 첨가했던 많은 진장(眞贓 확실한 증거)들을 버려둔 채

572) 순(舜)·우(禹)를 …… 없었겠는가 : 순·우·문왕은 중국 고대 태평시대 때 성인으로 추앙받은 임금이고, 왕망·조조는 중국 역사에서 왕을 배반하고 왕위를 찬탈한 대표적 인물이다.

573) 척안(隻眼)·거벽(巨擘) : 학식이나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단지 이것을 들어 질문한 것인지 적어 괴이하다.

〈회퇴율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로 전 호남이 광광거려 일곱 성인이 모두 길을 잃었다⁵⁷⁴⁾고 들은 것 같습니다. 비록 환혼단(還魂丹) 한 알을 바치고 싶지만 아마도 명월주(明月珠)를 어두운 곳에 던져주는 꼴이 될 뿐일 것입니다.⁵⁷⁵⁾

변론이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에 보인다.

제가 도리어 절로 괴이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있는데, 사오 년 이래로 호남 사람이 나를 황천(黃泉)에 묻고자 하여 푸른 하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어지럽힐 때에 과연 머리 위로 푸른 하늘이 보이던가. 스스로 황천에 묻히고서 사람들이 묻고자 했다고 말하니, 이것이 참으로 괴이하고 우습다. 또 최원(崔愿)·김세기(金世基)·정운한(鄭雲翰)의 무리로 하여금 유서에 대해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편지를 위조했던 것⁵⁷⁶⁾처럼 위조한 것이라고 무함하게 하고, 무함을 변론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지극히 흥겹하고 아주 패악한 말로 무함하게 하였는데, 이 당시에 또한 과연 머리 위로 푸른 하늘이 보이던가. 다른 사람을 황천에 묻고서 다른

574) 일곱 …… 잃었다 : 《장자》〈서무귀(徐无鬼)〉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황제(黃帝)가 구자산(九茨山)에 가서 대외(大隗)를 만나 보고자 할 때, 황제(黃帝)를 모시는 일곱 성인이 양성(襄城)의 들녘에서 길을 잃어 물어볼 곳도 없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호남의 학자들이 진주본의 〈회퇴율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이 세 분들의 주장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

575) 환혼단(還魂丹) …… 뿐일 것입니다 : 이 분들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여 바로잡고 싶지만 도리어 논란만 키우게 될까 염려된다는 말이다. 환혼단(還魂丹)은 기사회생시키는 선약(仙藥)을 말하는데, 보통 중병을 치료하는 양약(良藥)의 뜻으로 쓰인다. 명월주(明月珠)를 어두운 곳에 던진다는 말은 밤중에 명월주를 행인에게 던져 주면 고맙게 생각하는 대신 칼을 먼저 뽑아 들려고 한다는 ‘명주암투(明珠暗投)’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史記 권83 鄒陽列傳》

576) 여자 …… 것 : 원문의 ‘여노석서(女奴石書)’를 번역한 것이다. 송나라 때 간신 하송(夏竦)이 자기를 배척한 석개(石介)를 무함하고자 여자 종으로 하여금 석개의 필체를 모방하여 위조 편지를 쓰게 했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람이 자기를 문었다고 말하니, 이것이 또 괴이하고 우습다.

전(田)의 인허를 받으려 했던 생각과, 최(崔)의 답서와, 성(成)의 투고(投稿) 등 병사를 옮겨가듯 허다한 공격들이 머리와 얼굴을 바꿔가며 번갈아 나오고 서로 생겨나더니 선사의 문고를 제멋대로 고쳤다는 커다란 죄목까지 뒤이어 나왔습니다.

단지 이른바 “은행나무 아래의 말”만 보더라도 이미 선사를 무함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이다.”라는 것은 과연 누가 쓴 것인가? 그럼에도 오히려 “전(田)이 인허를 받으려고 생각했다. 최가 답한 편지이다.”라고 하니, 만약 꿈속의 잠꼬대가 아니라면 바로 사람을 속여 다 귀머거리로 만들려는 것이니, 대단히 괴이하고 우습다. “성이 투고했다”는 것도 또한 말하지 말라. 아울러 사림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압송한 일도 두 강(姜)에게 핑계대지 말라. 정재가 그에게 보낸 편지가 어찌하여 검국(檢局)에 들어간 것인가? 처음에는 강과 절교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끝까지 절교하지 않은 것인가? “진주의 간행은 오 아무개가 주장한 것이다.”라는 글이 어찌하여 그의 무리에서 나온 것인가? 이조원(李祖遠)이 선사의 손자를 압송한 것이 통쾌하더냐고 권순명을 기롱했을 때 어찌하여 얼굴만 붉힌 채 답변하지 못한 것인가? 【이조원이 권순명을 기롱한 말은 이창난(李昌燠)이 전해 준 것이다.】

하늘이 혹 모진 목숨을 빌려준다면 또 무슨 죄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애써 일으키는 분란이 그칠 때가 없을 듯합니다. 일 많은 화아(化兒 조물주)가 나의 한 가닥 모진 목숨을 쥐고서 다수의 대담한 남자들을 가지고 노니, 이 때문에 괴이함과 웃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선사를 무함하고, 사림에 화를 끼쳤으며, 선사의 손자를 압송하고, 끝내 또 문고까지 고쳤다. 하늘이 만약 그로 하여금 늙도록 죽지 않게 한다면 또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 모르겠다. 일 많은 조화의 아이가 완고하고 대담한

남자 한 명을 낳고 그의 많은 무리들을 장난삼아 나오게 해서 세도(世道)에 화를 끼침이 그칠 때가 없으니,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러하니 웃을 마음이 들지 않고 단지 괴이함과 탄식만이 절절할 뿐이다.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9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己卯】

순명(純明妃)⁵⁷⁷⁾의 복제(服制)에 대해 운운하셨는데, 선사께서 병환이 없던 날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상복(喪服)을 입어야 하면 상복을 입고, 상복을 입지 않아야 하면 상복을 입지 않는 것이 바로 바른 예일 것입니다. 전에는⁵⁷⁸⁾ 관인(官人)으로 자처하여 상복을 입으셨고, 후에는⁵⁷⁹⁾ 스스로 사민(士民)과 같게 여겨 상복을 입지 않으시고 단지 백의관(白衣冠)만 착용하셨는데, 전후가 대문 안의 뜰과 대문 밖의 길처럼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요?” 하였습니다.

순명비는 예법에 의하면 원래 신하와 백성이 상복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주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하셨다. 때문에 선사께서 예법과 조령 사이를 참작하여 비록 백의립(白衣笠)의 복제를 갖추시긴 했지만 상복은 입지 않으셨다. 예법에 상복이 없기 때문에 상복을 입지 않으신 것이고, 상께서 조령으로 상복을 입도록 하셨기 때문에 백의립을 착용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변례(變禮)에 대처하면서도 정도를 얻은 것이다. 전에 상복을 입으셨던 것은 상복을 입는 예법이 있어 당연히 상복을 입어야 했기 때문이고, 뒤에 상복을 입지 않고 단지 백의립만 착용하셨던 것은 상복이 없는 것을 상복이 있는 것처럼 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몸으로 때에 따라 변례에 대처하신

577) 순명비(純明妃) : 순종(純宗)의 비(妃)인 순명효황후 민씨(純明孝皇后閔氏, 1872~1904)를 가리킨다.

578) 전에는 : 홍 대비(洪大妃), 즉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의 상을 가리킨다.

579) 후에는 : 순명비(純明妃)의 상을 가리킨다.

것이 아니라, 관인과 사민(士民)의 신분에 따라 전후를 다르게 처신하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모두 옳다.⁵⁸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전에는 관인으로 자처하시고 뒤에는 사민으로 자처하신 것이 동떨어지게 너무 차이가 나서 바르지 않는 것 같다고 논변하니, 식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공손하지 못한 것이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 다만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니, 비록 부모의 상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순명비는 초상이 고종(高宗) 갑진년(1904)에 있지 않았던가. 이 당시 선사께서는 나이가 64세였고, 신체가 여전히 강건하여 호남 수백 리 밖까지 나가셨다. 홍대비(洪大妃)⁵⁸¹⁾의 상중이었을 때에는 초하루와 보름에 상복차림으로 천암(天巖)과 예천(禮川)의 사이에서 망곡(望哭)⁵⁸²⁾하신 것을 못사람이 함께 보았다. 그러나 순명비의 상에는 상복을 입지 않으셨으니, 어찌 정밀한 의리와 깊은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선사께서 ‘지금은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비록 부모상(父母喪)이라 하더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하니, 나이와 사실에 근거해보면 이미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또 성인(聖人)께서

580) 모두 옳다 : 《맹자(孟子)》〈공손추하(公孫丑下)〉에 진진(陳臻)이 맹자에게 제(齊) 나라에서 준 돈은 받지 않고 송(宋)과 설(薛) 나라에서 준 돈은 받은 것에 대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나중에 받은 것은 잘못이며, 나중에 받은 것이 옳다면 지난번에 받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묻자, 맹자가 “모두 옳다. 송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장차 먼길을 떠날 일이 있었다. 길을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노자를 주는 법인데, 임금께서 ‘노자로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설 나라에 있을 때는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임금이 ‘경계할 일이 있으시다 들었기에 호위병을 두는 데에 쓰시라고 드립니다.’ 하면서 주었다. 내 어찌 받지 않는단 말인가. 제 나라의 경우는 해당되는 명목이 없었다. 해당되는 명목이 없는데 주는 것은 재물로 매수하는 것이다. 어찌 군자로서 재물에 매수될 수 있겠는가.[皆是也。當在宋也，予將有遠行。行者必以贖，辭曰：‘餽贖。’ 予何爲不受? 當在薛也，予有戒心。辭曰：‘聞戒，故爲兵餽之。’ 予何爲不受? 若於齊，則未有處也。無處而餽之，是貨之也。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581) 홍대비(洪大妃) : 헌종(憲宗)의 계비(繼妃)인 효정왕후 홍씨(孝定王后洪氏, 1831~1903)를 가리킨다.

582) 망곡(望哭) :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 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예법을 제정하여 비록 70세라 하더라도 최마복을 몸에 걸치게 하였는데⁵⁸³⁾, 평소에 예를 삼가신 선사 같은 분이 도리어 70세 전이고 몸에 질병도 없었던 때에 “나이가 많고 병이 심하여 부모의 상일지라도 상복을 입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가깝지 않으니, 더더욱 그것이 무함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너의 말이 옳은 듯하다.”라고 말한 것도 또한 알 수 있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한 정도가 또한 어찌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것보다 낮겠는가. 아, 선사를 무함하는 그의 습관이 본성이 될 정도로 익숙해져서 부딪치는 곳마다 모두 그렇기에 변박하자니 이루 다 변박할 수 없고, 주벌하자니 이루 다 주벌할 수 없다.

제가 또 여쭙기를, “그렇다면 단지 백의관만을 착용하신 것에 대해서 굳이 논변을 세워 그렇게 해야 하는 연유를 밝힐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니, 선사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 같다.” 하셨습니다.

해야 할 것을 알려준 다음에 또 그 그렇게 해야 하는 연유를 밝혀주는 것이 선사께서 평소에 사람을 가르쳐왔던 성법(成法)인데, 하물며 변례에 대처하여 정밀한 의리를 얻은 것임에야 더욱 어찌 성법을 버리고 분명하게 후세의 사람을 가르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또 “그런 것 같다[似然]”라는 두 글자는 선사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후대의 사람들이 전후의 일이 동떨어지게 너무 차이가 나서 반상락하(半上落下)⁵⁸⁴⁾한 격이라고 의아해 하지 않겠습니까.

583) 성인(聖人)이 …… 하였으니 :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거상(居喪)의 예법(禮法)에 대해 말하면 …… 60세에는 몸을 훼손하지 않아야 하고, 70세에는 최마복을 몸에 걸칠 뿐,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집안에서 거처한다.[居喪之禮, …… 六十不毀, 七十唯衰麻在身, 飲酒食肉, 處於內.]”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584) 반상락하(半上落下) : 처음 절반은 위에 있다가 나중에는 아래로 떨어졌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잘못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선사의 이 일은 예법과 조령, 상례와 변례의 사이를 참작하여 그 중도와 정도를 얻은 것이니, 백 대 뒤의 성인을 기다려 물어보아도 의혹하지 않을 것이라 이를 수 있다. 다만 그는 스스로 의심하여 후대의 사람도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이니, 이것이 또 후대에 현인과 성인이 없을 것이라 무함한 것이다.

마침내 “단지 백의관만을 사용했다……”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삭제한 것이지 고친 것이 아닌데 고명(高明)께서는 도리어 고친 것이라 단죄하시니,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구구한 저의 마음은 진실로 선사를 위한 데에서 나온 것이지 선사를 무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는 데 어렵지 않은 정당한 예의(禮意)인 것 같은데도 또한 이놈의 죄안(罪案)으로 삼으시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릇 글이란 비록 삭제만 하고 고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삭제한 곳이 금계(肯綮)와 안목(眼目)⁵⁸⁵이 된다면 곧바로 다른 의미가 성립하여 고친 것보다 더 심한 왜곡이 있게 된다. 지금 그가 “백의립” 운운의 열여덟 글자를 삭제함으로써 읽는 사람은 단지 현재 남아 있는 “제가 상복을 입은 것은 예전부터 미호(溪湖)⁵⁸⁶의 전례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라는 말만 보게 될 것이니, 어찌 지금의 상에도 또한 상복을 입었다는 말로 보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설사 진실로 그의 말처럼 삭제한 것이고 고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곧바로 다른 의미를 성립시킨 것이 고친 것보다 더 심해졌다. 더욱이 ‘상여(相與)’의 ‘여(與)’ 자를 어조사인 ‘여(歟)’ 자로 고쳐서 결안(結案)의 말을 이루고 중단(中斷)의 자취를 감추었으니, 그의 이른바 “삭제한 것이지 고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누구를 속이려는

585) 금계(肯綮)와 안목(眼目) : 금계는 뼈와 살이 접한 곳을 말하고, 안목은 사람의 감각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다. 전하여 사물의 핵심이나 요점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586) 미호(溪湖) :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는 백춘(伯春)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손자로, 모친의 배소(配所)에서 공부하였으며, 1725년(영조1)에 부조(父祖)가 신원(伸寃)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저서로 《미호집(溪湖集)》이 있다.

것인가? 하늘을 속이려는 것인가? 하늘과 사람은 끝내 속이지 못할 것이니, 스스로 무함과 폐약을 쏟아 낸 것일 뿐이다. 어찌 애잔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오히려 진실로 선사를 위한 것이라고 자처하니, 이런 정상이 미워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것이 정당한 죄안인데, 그는 스스로 죄로 여기지 않으니, 다른 것이야 더 무슨 말을 하겠는가.

권순명이 이원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변론 【1927년】

權純命與李遠齋書辨【丁卯】

옹정(甕井)의 편지가 간행을 어지럽혔습니다.

선사의 대고(大稿)는 도의(道義)가 실려 있는 것이니, 감삭(勘削)하여 인허를 받고 간행하는 것은 도의(道義)를 무너뜨리고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김함재(金涵齋) 어른님께서 인허를 금할 것을 이미 계화도의 논의에서 밝히시고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⁵⁸⁷에 회답(復書)하신 것은 바로 대고의 일을 완전하게 하고자 하신 것인데, 어찌하여 간행을 어지럽혔다고 하는가? 나는 선사의 도의가 그의 무리들에 의해 어지럽혀지고 파괴되는 것은 보았어도 함재 어른신이 간행을 어지럽힌 것은 보지 못했다.

상제(祥祭)를 지낼 때에 호남 사람들이 석농(石農 오진영)을 선사를 무함했다고 꾸며서 쫓아냈습니다.

‘꾸미다[構]’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꾸며서 만드는 것[構虛]’을 말한다. 오진영이 직접 썼던 “선사께서 홀로 계실 때 세상일은 알

587) 청도(淸道)의 간행소(刊行所) : 청도는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을 말한다. 간재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이곳에 간행소(刊行所)를 설치하고 간재집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수 없으니 문고를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거나 “저자(著者)는 상관(上管)이 없다.”, “깊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등의 말이 과연 “인허를 받을 생각이 있으셨다.”라고 선사를 무함했던 실안(實案)이 아닌 것인가?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또 인허를 내고 문고를 간행하는 것에 대해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르는 것입니다.”라고 운운했던 것은 당시에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쫓겨났다[逐]’라는 것은 ‘쫓김을 당한 것[被黜]’을 말한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오진영이 쫓김을 당한 것에 대해 논변하여 말하기를, “김용승(金容承)과는 반열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망곡(望哭)⁵⁸⁸을 행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갑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쫓겨났다’라는 글자를 불러내니, 이는 감추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서인가?

호남 사람들이 강(姜)의 고소에 대항할 때에 이르신께서 돈을 모으는 글을 짓고 그들을 고무하셨으니, 그렇다면 어르신은 호남의 근심이 아니라고 이를 만합니다.

고소는 비록 강의 이름으로 했지만 사실은 오진영과 권순명이 한 것이다. 고소가 나온 뒤에 정재(靜齋)가 재앙을 두려워하여 오진영에게 편지를 보내 강에게 《절요(節要)》를 허락하였는데, 오진영은 그 편지를 검국(檢局)에 넣어서 증빙 서류로 삼게 하였다. 서우일(徐禹一)【석환(錫煥)】이 통문에 참여했을 때에 권순명이 따지며 말하기를, “송사가 벌어지는 장소에서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지금 또 <급난록(急難錄)>에 이름을 적은 것에 대해 원재를 힐난하니, 이것이 정확한 증거이다. 그의 무리들은 매번 “강의 고소는 나와 상관(上管)이 없다.”라고 하였지만, 지금 이 편지로 보건대 어찌 이른바 “마음에 진실한 것은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아니며, 또 속담에 이른바 “봄 꿩은 스스로 운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호남 사람이 고소에 대항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우리의 의리를 지킨 것이고,

588) 망곡(望哭) : 곡을 할 장소에 가지 못할 경우 다른 곳에서 그쪽을 향해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그는 스스로 일어났다가 스스로 소멸한 것이니, 이는 안팎의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이다.

인허(認許)든 묵허(默許)든 똑같이 허락을 받는 것인데 청도는 성토하고 현동은 새로 설치했으며, 완주(完州)에서 인허를 받는 것은 죄가 없고 서울에서 인허를 받는 것은 죄가 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사실을 무함한 것이고, 완전히 의리에 어긋난 것이다. 오진영은 옹정에게 답한 편지에서 “장애에서 벗어날 방도가 있다고 들은 듯합니다. 그래서 이미 김경보(金敬父)에게 완산을 한번 다녀오도록 했습니다.”라고 하였고,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선사의 성대한 덕을 사람들이 진실로 함께 존송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낼 때 장애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굴레에서 벗어날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성기운(成璣運)⁵⁸⁹은 여러 차례 문고를 받들고 현동으로 가겠다는 편지를 썼다. 만약 현동과 청도에서 인허를 받는 것이 같다고 한다면 이른바 “굴레에서 벗어난다.”와 “장애가 없다.”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일을 가리키는 것인가? 청도를 버리고 현동으로 가겠다고 한 이유는 또한 무엇 때문인가? 그가 비록 붓과 혀를 어지럽게 제멋대로 놀려 잠시나마 사람들을 현혹할 계책을 펴고자 한들 어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오진영이 사림에 재앙을 끼쳤을 때의 완행일기

震泳禍士日完行日記

을축년(1925) 6월 2일에 박창암(朴蒼巖) 어른과 친척 동생 사의(士毅)와 함께 검국(檢局)의 조사를 받았다.

589) 성기운(成璣運) : 1877~1956. 일제 강점기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의 유학자로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순재(舜在)이며 호는 덕천(德泉)이다.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저서로 《덕천선생문집(德泉先生文集)》이 있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검사가 나에게 말했다.

“간재(良齋)를 섬긴 지 몇 년이나 되었는가?”

“23년이다.”

또 물었다.

“오진영을 아는가?”

“알고 있다.”

“강태걸(姜泰杰)을 아는가?”

“모른다.”

검사가 또 물었다.

“강태걸이 간재 사고(私稿)의 《정선(精選)》을 간행하는 것을 아는가?”

“그가 《절요(節要)》를 간행한다고 들었다.”

검사가 바로 인허장(認許狀)을 내보이며 말했다.

“《절요》가 아니라 《정선》이다.”

또 통문(通文)을 나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글을 지었는가?”

“그렇다.”

“최병심(崔秉心)이 교정한 것이 맞는가?”

“내가 지었으면 나의 글인데, 어찌 교정한 사람을 묻는 것인가?”

검사가 선사의 신해년(1911)과 계축년(1923)의 유서(遺書) 두 통을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이것은 누가 쓴 것인가?”

“선사께서 쓰신 것이다.”

“두 종이의 글자의 필체가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비록 같지 않은 것 같지만 똑같이 선사께서 쓰신 것이다.”

“어찌하여 통문을 발송해 강태걸의 인쇄를 금지시켰는가?”

“선사의 유훈(遺訓)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선사의 가르침 중에 옳지 못한 것이 있어도 또한 따르는 것인가?”

“선사께서는 의리로 사람을 가르치셨으니, 원래부터 옳지 못한 가르침은 없었다.”

“이른바 ‘유훈을 지킨다.[守訓]’라는 것은 무엇인가?”

“선사께서는 유서에서 ‘간행·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맹세코 말명(末命 유언(遺言))을 지키고 부디 억지로 남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진영은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거나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말로 선사를 무함했고, 또 그의 제자인 강태걸로 하여금 간행·배포를 청원하도록 했다. 이는 선사의 유훈을 어기는 일이고, 선산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만약 죄를 성토하고 간행을 금지시키지 않는다면 선사의 도의(道義)는 영원히 어두워질 것이고, 자손과 문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검사가 말하기를,

“선생의 유서는 한 때의 감정에서 나온 것이고, 강태걸이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문자(文字)를 백세토록 전하는 것이니, 어찌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자, 내가 말하기를,

“선사의 문자가 중요한 이유는 도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훈을 어긋나게 하고 마음을 몰라서 도의가 밝혀지지 않게 한다면 문고가 비록 전해진다 하더라도 어찌 선사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또한 글이 원본에 의지하지 않고 삭제해 빼거나 고쳐 지은 것들이 많이 있다. 또 책에 저작자(著作者)를 강태걸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강태걸의 문고이지, 어찌 간옹(艮翁 간재)의 문고라 할 수 있겠는가.”

검사가 말하기를,

“총독부(總督府)의 인허장이 이와 같은데 ‘패적(悖賊)’이라 하고,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고 하였으니, 하나는 명예손해(名譽損害)이고, 하나는 업무방해(業務妨害)이다.”

라고 하자, 내가 말하기를,

“패적은 오진영을 가리키는 것이지 강태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강태걸이 판매의 인허를 받고 널리 알려 말하기를, ‘오진영에게 알렸고, 오진영이 허락했다.’라고 하였기에, 인허를 금지한 통문에서 ‘오진영이 자신의 무리인 강태걸에게 시킨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와 같고

문맥이 이와 같으니, 오진영이 주인이고 강태결은 종이다. 무릇 일이란 주인이 그 공과 죄를 책임지는 것이지, 종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또 오진영은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해친 자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법률은 오진영에게 적용해야 한다. 업무방해도 또한 옳지 않다. 세상에 경영할 만한 업무가 매우 많은데 굳이 선사께서 유훈으로 인허를 받지 말라 하신 문고를 영업의 물건으로 삼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나의 금지는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니, 영업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이 진실로 아름답지만, 법률상으로 말하면 죄에 저촉되는 것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법률은 도덕으로 인해 세워지는 것이니, 도덕과 법률이 어찌 둘이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둘이 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충고의 말을 하는데, 마음을 돌리고 견해를 고쳐라. 그렇지 않으면 끝내 법률에 저촉되어 몸은 고초를 받게 될 것이고, 집안은 기울고 파산하게 될 것이다. 뒤늦게 뉘우친다 한들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고 선사의 유훈을 지키다 죽게 된다면 죽는다 한들 또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하였다. 검사가 내 앞에 종지와 붓을 놓으며 말하기를,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어라.”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무슨 일인가?”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피차가 똑같이 답한 말을 이 종이에 써서 증명하는 것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통문을 지은 사람이고, 나의 말은 모두 통문 안에 있는데, 다시 무슨 글로 증명할 것이 있겠는가.”

하고서 검사에게 할 말이 없자 내가 나왔다. 사의(士毅)는 대략 질문이 나와 같았지만 통문을 인쇄해 배포한 일에 대해 더 자세하였고, 창암(蒼巖) 어른은 또 사의보다 간략하였다. 모두 도장을 찍지 않고 나왔는데, 앞으로의 일은 예측할 수 없다. 아, 오진영 적도들의 재앙이 여기에 이르렀단 말인가.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단지 이치에 순응할 뿐, 또한 다시 어찌하겠는가.

검사가 먼저 오진영을 아느냐고 묻고, 다음에 강태걸을 아느냐고 물은 이것을 보면 검사는이 고소에 대해 이미 오진영이 주체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의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을 때에 모두 “어찌하여 고소의 주체인 오진영을 불러 따져 묻지 않고, 유독 우리들에게만 묻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검사는 “비록 오진영이 주관했다 하더라도 고소장에 열거된 사람은 그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지 않은 것이다. 만약 이곳 사람 중에서 반대로 오진영을 고소했다면 당연히 불러서 물을 것이다. 이것이 법률의 상례이다.”라고 운운하였다. 대체로 검사도 또한 분명하게 “고소의 주체가 오진영이다.”라고 하였는데, 음성(陰城 오진영)을 변호하는 자들은 억지로 “강태걸이지 오진영이 아니다.”라고 하니, 이것이 어찌 말이되겠는가. 이해 선달 그믐날에 추가하여 기록하였다.

또 又

내가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했던 일로 오진영의 피맺힌 원수가 되자, 오진영은 자신의 문도(門徒)인 강태걸로 하여금 고소를 일으키게 하여 올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미 전주(全州) 검사국(檢査局)에 세 차례나

불러 다니며 문답(問答)을 하였으니, 원통하고 분하며 부끄럽고 미운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비록 그렇지만 내가 했던 일은 의(義)이지 죄가 아니었고, 당시의 율법도 또한 이른바 ‘법’인지라 거의 끝났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데 뜻하지 않게 오진영의 칼날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당시의 율법이 헤아리기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11월 27일에 또 검사의 호출이 있었으니, 반드시 일이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같은 기한에 호출을 당한 사람은 족숙(族叔) 창(炤)·함(涵) 두 어른과 족제(族弟) 사의(士毅), 소상(蘇庠) 어른과 금재(欽齋) 형제였다. 기한 날짜에 금재의 동생인 경집(敬執)【병철(秉哲)】과 사의가 먼저 갔다가 돌아와서 말하기를,

“검사가 ‘만약 강태걸과 원만하게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법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물러가서 협의하게 하였는데, 이른바 ‘원만하게 화해하라.’는 것은 통문을 고쳐 짓는 것과 ‘절대로 사서 읽지 말라[切勿購讀]’라는 네 글자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다면 이른바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킨다.’라는 것이 도리어 유훈을 저버리고 무함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 되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허락할 수 없다.”

하였다. 그리고 한 통의 작은 글을 지어 어려움을 함께한 여러 공들에게 돌려 알기기를,

“들으니 검사가 즉시 강태걸과 화해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우리들이 죽음을 바칠 때입니다. 죽음을 바치면 선사가 있게 될 것이고 화해를 허락하면 선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선사가 있는 것과 선사가 없는 것 사이에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게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이에 12월 4일부터 때때로 현재 본군(本郡) 덕천면(德川面)⁵⁹⁰⁾에

590) 덕천면(德川面) : 현 전라북도 정읍시 중서부에 있는 면이다.

있는 만종서재(萬宗書齋)⁵⁹¹)에서 머물렀는데, 10일 닭이 처음 울 때쯤에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창 학도(學徒) 20여 명과 함께 깊이 잠을 자다가 놀라 깨고서 일어나 묻기를,

“이런 칠혹 같은 밤에 뭐하는 사람인데 방문하셨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평면(梨坪面)⁵⁹² 주재소(駐在所)의 일본과 한국의 순사(巡査)이다. 전주(全州)의 검사국(檢事局)에서 잡아들이라는 통지(通知)가 있었기 때문에 왔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오진영과 강태걸이 일으킨 재앙이다. 검사의 명령이 이처럼 화급(火急)하니, 지금 가면 반드시 큰 치욕을 당할 것이다. 이 치욕은 내가 맹세코 받지 않을 것이니, 단지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다. 선사를 위해 죽는 것이니, 죽는다 한들 다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다만 한스럽게 여기는 것은 세상의 도가 바르지 않는 것일 뿐이었다. 이에 내가 순사에게 말하기를,

“날이 어둡고 눈이 쌓여서 피차가 모두 길을 떠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날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좋겠지만 검사가 오전까지 도착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기면 나를 단죄할 것이니, 부디 양해하여 늦추지 말라.”

하였다. 내가 또 생각하기에 이미 일행이 되었는데, 어찌 굳이 너희들에게 죄를 짓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 마침내 길에 올랐다. 길을 나서 영달현(永達峴)을 지나 포자동(匏子洞)에 이르렀을 때에 순사에게 말하기를,

“선대의 묘가 여기 가까운 곳에 있으니, 내가 성묘하고 오겠소.”

하니, 순사가 허락하고서 공손히 묘 옆에 선 채 서로 가리켜 알려주며 말을 나누었다. 이에 내가 8대조비(代祖妣)·6대조고(代祖考) 및 조고비(祖考妣)의 묘에 나아가 절을 올리고, 끝으로 선고비(先考妣)의 묘에 이르러선 절을

591) 만종서재(萬宗書齋) : 현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우덕리에 위치해 있다.

592) 이평면(梨坪面) : 현 전라북도 정읍시 서북부에 있는 면이다.

마치자마자 나도 모르게 목이 매도록 통곡하였다. 선인(先人)께서는 불초한 나를 가르치다 학업을 마치는 것도 보시지 못하였고, 불초한 나는 학문을 이루기도 전에 먼저 선사의 일을 위해 죽게 되었음을 생각하니, 두산(斗山)⁵⁹³은 얼굴을 찡그린 듯하고, 달천(達川)은 흐느껴 울고자 하는 듯하였다.

성묘를 마치고서 또 앞서 걸어갔다. 길은 험하고 날은 컴컴했으며, 눈에 발이 빠지고 바람에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하였다. 열 번 구르고 아홉 번 넘어지며 천신만고 끝에 이평면(梨坪面) 주재소(駐在所)에 도착하니 동넙은 아직도 밝지 않았다. 주재소의 방이 쇠처럼 차가워 길을 따라왔던 최민렬(崔敏烈) 이하 20인과 둘째 아이 형태(炯泰)가 모두 추위에 벌벌 떨며 소름이 일어나니, 순사가 사람을 시켜 온돌에 숯을 태우게 했다. 나는 이에 붓과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옷의 띠에 “오늘의 일은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서 지하로 돌아가 선사를 뵈는 것만이 있을 뿐, 다른 것은 말할 것이 없다.”라고 크게 써서 검사에게 답할 말을 준비했다. 또 글을 써서 세 아우와 세 아들에게 분부하고, 또 나를 따라 배웠던 제자들과 희숙(希淑)·자유(子由)에게도 글을 써서 고하였으니, 대체로 자신의 분수에 따라 반드시 죽을 뿐이라는 내용이었다. 날이 이내 밝아지자 여호(汝昊)·여직(汝直)·형복(炯復) 및 재종숙(再從叔) 치현(致賢)·삼종형(三從兄) 경빈(京賓)·조자정(趙子貞) 아우가 와서 만났다.

순사가 또 길을 재촉하기에 앞장서서 나아갔다. 신태인역(新泰仁驛)에 이르러 전송하던 가족들은 돌려보내고, 최민렬(崔敏烈)·김상락(金常洛)·김용락(金庸洛)·나인상(羅仁相)·최정주(崔丁柱)·이병기(李炳基) 및 자정·형복만이 나를 따라 기차를 탔다. 한낮이 지나서야 전주(全州)에 도착했다. 검사국에 들어가니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강태걸과 더불어 원고와 피고 양쪽이 서로 화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률대로 할 것이다.”

하자, 나는 화해하라는 말은 마치 못 들은 척 하며 단지 말하기를,
“이른바 ‘법률’이란 것이 무슨 법률이오?”

593) 두산(斗山) :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덕천면소성면에 걸쳐있는 두승산(斗升山)을 가리킨다.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법률이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간재 선생께서 유서로 인허를 금한 것이 의리이다. 비록 친한 문인 자손(子孫)이라 하더라도 의리를 파괴하고 문고를 간행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강태걸이 문인의 문인으로서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여 유훈을 어기며 문고를 간행함으로써 간재 선생의 의리를 파괴하는 것이 어찌 온당한 일이겠는가. 선생께서 인허를 금지하며 의리를 지키신 문고는 원래 강태걸이 이익을 꾀하는 영업의 물건이 될 수 없다. 문고가 영업의 물건이 될 수 없는 이상, 방해의 유무(有無)를 따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법률을 침범한 것인지 모르겠다.”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피고의 생각은 그럴 듯하지만, 법률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말을 지어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어겨 문고를 간행한 자는 오진영이다. 이 때문에 통문을 보내 오진영을 성토했던 것이다. 오진영이 선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이니, 명예를 손상시킨 데 따른 법률은 오진영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도덕상으로 말하면 선사의 유훈을 지키는 것에 대해 어느 누가 홀륭하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그러나 법률상으로 말하면 법률을 침범한 것이 된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천하에 어찌 도덕과 어긋나는 법률이 있겠는가.”

하였다. 검사가 말하기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하고서 마지막으로 검사가 말하기를,
“만약 화해하지 않는다면 필연코 법률대로 할 것이다. 피고의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를 말하라. 피고는 통문을 지어 주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 물은 것이다. 오늘이 바로 법률로 판결하는 날이니, 두 가지

사이에서 빨리 하나를 말하라.”

하기에, 내가 얼굴빛을 바로하고 천천히 말하기를,

“나는 단지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만을 알 뿐이다.”

하고서 옷의 띠에 써 놓았던 것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이것을 보라.”

하며 그것을 한 번 읽으니, 검사와 서기(書記)가 서로 돌아보며 말이 없었다.

처음에는 조서를 받고, 다음에는 종이와 붓을 늘어놓았으나 끝까지 한마디 말도 기록하지 않자 나가게 하였다. 오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실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어쩌면 더 큰 치욕을 주려고 우선 느슨하게 처리한 것일 수도 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 여안(汝安)이 허둥대며 넘어질 듯이 달려와 도착한 것을 보니, 그가 애를 태웠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송기창(宋基滄) 아이가 뒤따라 도착하여 나를 놀라게 하며 감동시켰다. 이 아이는 올 해 나이가 15세인데 어제 가벼운 병세가 있어 밤에 서재에 오지 못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일을 듣고는 밥상을 대하고서도 먹지 않은 채 목이 메도록 통곡을 하며 말하기를,

“우리 스승의 지조(志操)를 내가 이미 적이 알고 있는데, 오늘 행차에 만약 치욕을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필연코 목숨을 버리실 것이니, 우리 스승께서는 아마도 이미 저세상으로 떠나셨을 것이다.”

하였으며, 결국에는 소매가 넓은 옷과 진흙 묻은 신발을 신고서 홀로 길에 오르며 말하기를,

“나는 우리 스승과 진퇴를 함께할 것이다.”

하고서 험난한 백 리 길을 걸어 칠혹 같은 밤에 이곳에 도착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추위를 무릅쓰며 두 끼니를 먹지도 못한 채 슬픔과 근심으로 수척해진 그의 모습에 사람들이 모두 떠들썩하게 찬탄하면서 말하기를,

“기특하구나.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린데도 스승을 존경하는 정성이 어쩌면 그렇게도 도타운 것인가.”

하고, 아울러 나에게 축하하며 말하기를,

“어떤 가르침을 펴서 이렇듯 감동해서 따르게 하신 것입니까?”

하니, 이에 대해 부끄럽기만 하였다.

11일. 따라 왔던 제군 및 자정·형복이 모두 떠나고, 나는 어제 풍한(風寒)이 빌미가 되어 거의 떨쳐 일어나 움직이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민열·기창과 함께 여관에서 몸을 조리하였다. 친족인 명익(明益)·문경(文卿)·명중(明中)·김군 백온(金君伯溫)이 모두 앞뒤로 보러 왔는데, 대체로 내가 구속과 치욕을 당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12일.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정암(貞庵)·함재(涵齋)·견암(堅庵)·나재(懶齋)·신헌(愼軒) 및 상제 최여중(崔汝重)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와 만났다. 희숙(希淑) 및 임정노(林貞老)도 또한 완주에 도착해서 나를 위로하려고 했는데, 서로 길이 어긋나 만나지 못했다. 【추후에 들으니 검사가 사람들에게 내가 옷 띠에 쓴 일을 이야기하며 “도는 본래 광대한데, 김모는 이처럼 좁으니,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 고금 천하에 어찌 오늘날의 문고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옛적 사람의 재앙은 이단의 부류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재앙은 같은 문하에 있고, 옛날 사람의 화는 자기 나라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화는 외국의 힘을 빌려 일어난다. 옛적 사람의 재앙은 단지 칼과 톱으로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귀양 보내는 형벌에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재앙은 머리를 깎거나 몸을 노역하는 형벌에 있으며, 옛적 사람의 재앙은 그래도 말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사람의 재앙은 말할 수 없고, 옛적에 의리를 취함은 그래도 쉬웠는데 오늘날에 의리를 취함은 더더욱 어렵다.

아,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본래 제자의 직분인데, 공교롭게도 매우 험악한 오진영·강태걸과 원수인 오랑캐가 권력을 잡은 이러한 때를 만나 온갖 모욕과 분노, 억울함을 실컷 받았으니, 무슨 사람의 일이 이러한 것인가. 비록 그렇지만 오히려 권면할 만한 일이 두 가지가 있으니, 위로는 선사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아래로는 내 몸을 잃지도 않았다. “화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과 “머리가 깎이는 치욕을 받지 않았다.”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후 잃었다면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니, 어찌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몽매한 선비의 스승에 지나지 않는데, 송기창은 일개 아이임에도 오히려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간옹은 도학의 종장(宗匠)인데, 오진영은 학문에 노숙한 사람임에도 거리낌 없이 간옹을 무함하고 배반하였다. 아, 사람의 선악이 이처럼 서로 동떨어질 수 있단 말인가?

여안에게 고함【1925년 11월 29일】

告汝安【乙丑十一月二十九日】

강을 건너는 일을 만약 이루었다면 치욕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의리도 잃지 않았을 것이네. 할 수 없는 것이야 없겠지만 당사자가 있지 않으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뻔쳐 미쳐갔을 것이네. 장검(張儉)이나 노천(老泉)의 일⁵⁹⁴⁾과 같은 것은 부끄러우니 백방으로 생각해도 단지 조용히 스스로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을 뿐이었네.

나를 따라 공부한 여러 제자들에게 고함【1925년 12월 10일】

告從學諸子【乙丑十二月十日】

성현(聖賢)의 학문은 대륜(大倫)과 대의(大義)을 다하는 것이니, 책을 읽는 것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이다. 군들이 따라 배운 사람은 나이고, 나의 스승은 간옹이니. 오늘날 나의 일은 간옹의 대의를 밝히고 스승과 제자의 대륜을 다하는 것이다. 군들은 내가 오늘 한 말을 잊지 말고 부지런히 힘쓰고

594) 장검(張儉)이나 …… 일 : 고소를 피해 달아나 친구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자결하는 일을 말하는 듯하다. 장검(115198)은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사람으로 중상시(中常侍) 후람(侯覽)과 그 모친의 죄악을 탄핵한 일로 후람의 미움을 받고 무고를 당해 친구 공포(孔褒)의 집으로 피신하였다가 공포가 이 일로 연좌되었다. 《後漢書 권67 黨錮列傳 張儉》 노천은 김식(金湜, 1482~1520)의 자인 듯하다. 그는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 등과 도학 소장파(道學少壯派)를 이루어 제도 개혁에 힘썼으나 기묘사화가 발생하면서 선산(善山)에 유배되었고, 신사무옥에 연좌되어 다시 절도로 이배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달아나 거창에 숨어 지내다가 자결하였다고 한다.

전전공공하여 흑시라도 대의와 대륜에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간옹의 가르침을 받들어 성현이 전한 것을 실추시키지 않는 것이다.

여안 및 어려움을 함께한 집안의 자제들에게 고함【1925년 12월】
告汝安及同難家子弟【乙丑十二月】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바름을 얻고서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⁵⁹⁵⁾”라고 하였으니, 이 가르침이 우리들이 오늘날 사용하기에 딱 맞는 말이다. 만약 부형(父兄)을 위해 어려움을 구하려는 자가 통문을 고치고 화해를 구걸하는 일을 멋대로 한다면 부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형을 죽이는 것이다.

둘째와 셋째 두 아우에게 고함【1925년 12월 10일】
告仲叔二弟【乙丑十二月十日】

가난을 편히 여기고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면서 자식을 가르치고 조카를 훈도할 것이며, 큰 절개를 힘써 지키고 자질구레한 일에는 관여하지 말게나.

큰아이 행복에게 고함【1925년 12월 10일】
告長兒炯復【乙丑十二月十日】

예전에 물들여진 습관을 혁파하고 새로운 덕으로 나아가거라. 죽으려할 때의 말을 너는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

595) 내가 …… 그만이다 :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비단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동자가 대자리로 바꾸기를 청하자, 증자가 불편한 몸을 일으켜 대자리로 바꾸면서 “내 무엇을 바라겠는가. 내 바름을 얻고 죽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吾何求哉? 吾得正而斃焉。斯已矣.]”라고 한 말이 《예기》〈단궁 상(檀弓上)〉에 보인다.

둘째 아이 형태에게 고함 【1925년 12월 10일】

告次兒炯泰【乙丑十二月十日】

어머니의 뜻을 받들며 형제들과 우애하고, 부지런히 주경야독하여 집안의 명성을 이어가거라.

세째 아이 형관에게 고함 【1925년 12월 10일】

告參兒炯觀【乙丑十二月十日】

성현의 학문에 힘써 네 아버지의 뜻을 마치도록 하라.

오진영 당의 여러 사람에게 고하려고 함 【1925년 12월 10일】

擬告震黨諸人【乙丑十二月十日】

오진영은 매우 악한 사람으로, 다시 사람의 도리로 책망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나머지 그의 당인이 되어 붙어있는 여러분들은 혹 미혹되었거나 혹 세력을 좇아서 스승을 잊어버리고 적에게 붙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 정상을 궁구하면 애잔할 뿐 미워할 것은 아니다. 만약 반성하고 뉘우쳐서 깃발을 되돌리고 창끝을 거꾸로 하여 속죄에 공이 있다면 어찌 굳이 지난 악행들을 돌이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일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니, 남의 손을 빌려 지하로 돌아가 선사를 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본래 선사의 무릎 아래에서 배웠던 사람들이기에 지금 돌아가 선사를 뵈는 날에 한 마디 말도 없이 끝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하니, 경계하고 깨우치기를 바라노라.

검사에게 보내려던 편지 【1925년 12월 20일】

擬與檢事書 【乙丑十二月二十日】

초 10일에 답한 것에서 이미 내 뜻을 다 말했다. 그 중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켜 선사에게 돌아가 뵙는다.[辨誣守訓 歸拜先師]’는 여덟 글자에서 내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또다시 부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간옹께서 인허를 금지한 문고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영업물건이 될 수 없으니, 방해의 유무를 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무함을 변론하고 유훈을 지키는 것은 제자의 직분으로 훌륭한 일이라 할 수 있고 나쁜 일이라 할 수 없으니, 법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더더욱 온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강제로 처단한다면 검사가 밝지 못 한 것이고 공정하지 못한 것이다. 화해를 허락하는 것은 스승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고소하는 것은 세속과 똑같은 것이니, 오히려 구차하게 벗어날 것을 구한다면 나 김택술은 인륜과 도의를 어그러뜨린 사람이 될 것이다.

오진영이 오사익에게 답한 편지에 대한 변론 【1938년】

吳震泳答吳士益書辨 【戊寅】

제가 서(徐)에게 답한 편지에서 맨 앞에 했던 말은 그가 살심(殺心)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대는 것으로 인해 적이 생각하기에 공연히 선사를 무함한 난적(亂賊)이라는 오명을 받는 것이 사실대로 바르게 말하여 존중하고 진압하는 것만 못하다 여겼기에 마침내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살심을 가지고서 온 나라에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댔다는 것은 무슨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인가? 만약 갑자년(1924) 가을에 통문을 보내 성토했던 것을 가리킨다면 오진영이 서에게 답한 편지에서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르는 것이다.”며 운운한 것이 임술년(1922) 겨울에 있었으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선사를 무함한 난적이라고 그를 성토했었던가. 단지 인허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함재(涵齋)의 한 통의 편지만이 있었을 뿐이다. 대체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굳이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아직 듣지 못했으니, 당시에 어찌 선사를 무함한 난적으로 그를 단죄할 리가 있었겠는가. 평소 사실을 환술을 부리듯 바꾸고 문자를 춤을 추듯 희롱하는 그의 습성이 언제나 이와 같으니, 이것은 아마도 태아 때부터 타고난 병으로 고치기 어려울 것이다.

그가 비록 ‘의(義)’를 빌리긴 했으나 어찌 일찍이 꿈에서라도 ‘의’라는 글자의 진면목 비슷한것을 보았겠습니까.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써서 스스로 선사에게 누를 끼치는 것에 지나지않습니다. 【만약 그가 미친 듯이 부르짖고 어지럽게 떠들어댄 일이 없었다면 어느 누가 인허를 받는 것을 죄로 여기겠습니까. 사계(沙溪)와 우암(尤菴) 등 여러 선생의 문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간행·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선사의 유서(遺書)가 의가 아니겠는가. 선사의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의가 아니겠는가. 유서를 베껴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을 스스로 무함과 패악을 쓴 것이라고 한다면 말이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어찌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 격이 아니겠는가.

신해년(1911) 유서는 반드시 살아생전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요청받음으로 인해서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술년(1922) 3월 16일에 어찌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간행·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욕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은 스스로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의 일을 논한 것이고,【전기진(田璣鎭)에게 들으니 왕도(旺島)에서 직접 모실 때에 문고를 간행할 것을 청하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업자(業者)가 대신 인허를 받으면 구애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병암(炳庵)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입니다.【이 가르침은 저와 두세 사람이 함께 직접 들은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무함이라면 하늘이 반드시 저를 죽일 것입니다.】병암이 만약 살아 계셨다면 반드시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였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미 ‘말없는’ 것이라고 했다면 후세 사람의 말인데, 어찌 당신의 큰 절개에 손상이 되겠습니까.

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처음 신해년의 유서가 나왔을 적에 혹 “이와 같은 유서는 우리 주머니 속에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가? 땅에서 솟은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정재가 지닌 유서는 감히 그것을 가리켜 간직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혹 “여자 종이 석개(石介)의 편지를 연습한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혹 “선사의 문하에는 선사의 필법을 모방하는 것에 일등선수가 많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말들은 총괄하면 위조(僞造)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얼마 뒤에 성토에 참여하지 않았던 원재(遠齋) 이희진(李喜璉)과 오진영을 지지하고 보호했던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⁵⁹⁶ 등이 소장하고 있던 유서가 계속해서 나오자 스스로 흉악한 입이 망령되고 간악한 꾀가 드러남으로써 죄를 피할 곳이 없게 되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신해년의 유서는 살아 계실 때에 문고를 간행하자는 요청으로 인해 나온 것이라 한 것이고, 또 전기진(田璣鎭)에게 들은 것을 끌어와 일컬으며 그것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이나 “마지막 유언”, “훗날의 증빙”이란 말들은 끝내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는 것들인데, 어찌할 것인가? 만약 전기진의 간행하자는 요청을 막기 위해서

596) 춘계(春溪) 송의섭(宋毅燮) :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춘계는 그의 호이다. 저서로는 《시문잡저(詩文雜著)》 10여권과 《동국강감(東國綱鑑)》 20여권이 있다. 《한국향토문화 전자대전》

나온 것이라면 유서 속에 “전기진에게 문고를 지키도록 하라.”는 말은 들어있어도 바로 전기진의 간행하자는 요청을 막는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어찌할 것인가? 이 말이 믿을 만한 것인가?

그는 이에 계책이 곤궁해졌음에도 오히려 다시 말하기를, “그렇지 않으면 임술년 3월 16일에 어찌하여 유서로 가르침을 보이지 않으시고,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인가?”하였다. 그렇다면 훗날의 증빙으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는 유서는 쓸모가 없고, 임시방편으로 없는 것을 날조한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은 힘이 있게 되었으니, 매우 통탄스럽다. 그러나 ‘홀로 계실 때의 명령’이 ‘유서’와 반대가 됨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이에 그가 숨기고 꺼려했던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와 “인허를 받을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또 곤궁해졌고, “업자가 대신 인허를 받으면 구애될 것이 없다.”와 “병암이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한 것이다.”라는 말은 계책이 막힌 나머지 또 다른 한 계책을 낸 것이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대신 인허를 받았다.”라는 설에 대해 몇 해 전에 그의 무리들은 “책을 간행하는 것에 대해 범범히 논의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병정 연간에 대강 《시경》·《서경》·《논어》·《맹자》를 지금 세상에서 간행한다 하더라도 옛 성인에게는 허물이 되지 않음을 범범히 논의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그는 “책장수가 스스로 인허를 받아 책을 간행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모두 《병암집(炳庵集)》에 대한 말은 없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말을 바꾸어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을 논의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던 것이 오늘날 병암의 일이 될 수 없고, 지난날의 《시경》·《서경》·《논어》·《맹자》가 오늘날의 《병암집》이 될 수 없는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

그러나 지난날에 “범범히 논의했다.”라고 말한 것은 당신의 대고(大稿)를 꺼린 것이니, 그래도 꺼리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의 일”이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병암께서 돌아가신 뒤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말 없는 가르침이다.” 하였다. 그가 또 곧바로 이런 논변을 대고에 대한 ‘말이 있는 가르침’으로 삼고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을 뿐만이 아닌 것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선사와 병암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니, 이른바 “《병암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곧 “당신의 문고를 허락함”을 말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계책을 억지로 성사시켰으니, 또한 기이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나 유서 중에 “훗날[異時]”과 “마지막 유언[末命]”, “훗날의 증빙[後憑]” 등의 말은 원래 살아 계실 때의 말로 간주할 수 없음은 끝내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자신을 옥보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죽은 뒤의 일을 말한 것이고, 이러한 글을 이런 때에 청원하는 것은 자신을 옥보이는 것이 됨을 말한 것이니, 처음부터 본인이 인허를 받는 것과 대신 남이 인허를 받는 것을 구분하지 않으신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⁵⁹⁷⁾”는 것은 학문의 큰 절목이다. 선사께서는 “결단코 자신을 옥보이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심법을 전한 뛰어난 제자에게 결코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니, 단지 그의 계책이 끝내 곤궁함을 드러낼 뿐이다.

선사께서 직접 당시에 금기시하던 문자를 선별하여 별집(別集) 한 책을 만드신 것은 과연 백 대 천 대 뒤 천지가 맑고 밝아진 날에 간행하려는 뜻이었습니까? 이 또한 말 없는 가르침이라 이를 만합니다. 의는 진실로 어진 사람을 위해 꺼림이 있겠지만, 이 일은 꺼릴 필요가 없으니,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의 말과 행동을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행할 것인지 간행하지 않을 것인지는 논변할 것이 없고, 당시에 금기시하는 문자가 사람의 눈과 귀에 장애가 되어 우연히 일을 만들까

597) 자기가……것 : 《논어》〈안연(顔淵)〉에 중궁이 인(仁)에 대하여 묻자 공자께서 “문을 나갈 때는 큰손님을 뵈는 듯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듯 하며, 자신이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베풀지 말아야 하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으며 집안에 있어서도 원망함이 없을 것이다.[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라고 답한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염려하셨기 때문에 별집 한 책을 만드신 것이다. 이는 선사께서 우환을 염려하신 뜻인데, 그는 도리어 그것을 “인허를 받아 간행할 생각이셨다.”와 “말없는 가르침”으로 삼았으니, 또 《병암집》을 빌려 논할 필요도 없이 곧바로 당신의 문고 일에 대해 화반탁출(和盤托出)⁵⁹⁸하듯 말하여 다시는 조금의 숨김도 없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소의 일을 줄일 수 있게 하였다. 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오현수언(五賢粹言)》·《예설(禮說)》·《병암집》을 미루어 이용하고 묘적(墓籍)으로 방증(旁證)하며 유서를 살아 계실 때의 일로 보는 등 허다한 공색한 계책과 회피하는 말에 마음을 수고롭게 했던 것인가? 어찌하여 일찍부터 이와 같이 하지 않고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거나 “인허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당신의 대고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을 듣지도 못했고, 내가 직접 쓴 글씨를 보지도 못했다.”는 등의 허다한 꺼림과 숨김에 힘을 낭비했던 것인가? 여기에서 이르러 일제히 드러났으니,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이 있겠는가. 아, 유서의 “간행·배포를 청원하는 것은 절단코 자신을 욱보이는 것이다.”라는 의리는 진실로 천지에 세워도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런 말로 선사를 무함하여 해친 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그 동안 사람과 하늘을 속인 죄 또한 주벌해야 할 것이다. 주희와 송시열이 어찌 일찍이 금나라와 청나라에 청원하는 말과 행위가 있었던가. 그런데도 그는 감히 “이 일은 주자와 송시열의 말과 행위를 근거하면 미루어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그가 논했던 “가죽과 비단[皮幣]⁵⁹⁹”으로 말한다면 주희와 송시열의 가죽과 비단은 진실로 금나라와 청나라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그의 이른바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라는 것도 또한 일본에 복수와 설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가? 유례(類例)가 같지 않고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선사를 무함하는데 그치지 않고 위로 주희와 송시열까지 언급한 죄 또한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598) 화반탁출(和盤托出) : 음식물을 쟁반째로 내놓는다는 뜻으로, 숨김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599) 가죽과 비단 : 국가 간의 외교 때에 사용하는 예물을 통칭하는 말이다.

저는 지산(志山)⁶⁰⁰에 대해 단지 양류(陽類 군자)라 일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을뿐, 일찍이 그의 대문으로 기어가서 모모가 했던 것처럼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고 모모를 배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김성장(金聖章)⁶⁰¹에게 답한 편지에서 비록 홍성(洪城)의 김복한을 양류라 일컬으며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긴 했지만, 여러 선생에게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또한 일찍이 아울러 말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분이 예의가 없고 공손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변론하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선사께서도 또한 김복한에게 답장을 보내 변론하고 책망하셨으며, 변론과 책망 속에 소원함과 절교의 뜻을 붙이긴 했지만 또한 그 부자(父子)에게 절교를 통고한 적은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문하에침범한 것이 있긴 하지만 모모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지은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분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의와 절개를 지켰으니, 또한 어찌 양류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선 지산이 양류인지 아닌지와 무례하고 공손하지 못한 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논하지 않겠다. 다만 그가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에 의거하건대, 이미 지산에 대해 우리 연원(淵源)과 선현(先賢)을 헐뜯고 배척했다고 말했다면 마땅히 절교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는 생존하신 동안에 절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에 절교를 당할 정도의 죄에 이르지 않은 것 같다. 성구(聖九)가 참조하는 말을 가벼이 믿고 상을 당했을 때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다.”라고 하면서 구구하게 돌아가신 뒤에 스스로 불기를 바라였다. 만약 성구의 부고를 받았다면 그가 어찌 기어가서 지산의 영전에 곡하지

600) 지산(志山) :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사서(司書)·성균관대사성·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01) 김성장(金聖章) : 김복한의 아들이다.

않았겠는가.

우리 문하의 사람들이 지산께서 생존해 계실 때에 찾아가 뵈고, 돌아가신 뒤에 조문했던 것은 지산이 편지로 스스로를 변명한 것에 대해 선사께서 답한 편지에서 양해를 허락하신 뒤였기 때문에 그 분이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경우에는 이미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지산을 배척하고서도 오히려 생존하신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스스로 아부했으며, 도리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찾아가 뵈 최경존(崔敬存)⁶⁰²에 대해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했던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운영(鄭胤永)⁶⁰³과 한 쌍이 된다고 단죄하였으니, 그의 마음이 더욱 험악스럽다. 아양을 떨며 글을 구걸했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고 배척한 것이 전에 최경존을 단죄했던 것과 말이 같으니, 또한 최경존을 가리키는 듯하다. 또 “아무개와 아무개”라고 하였는데, 나머지만 사람이 누구인가? 그가 김에게 답한 편지에서 “최병심(崔秉心)과 김택술(金澤述)이 사람을 끌어들여 함께 원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혹 나를 가리키는 것인가?

대체로 제문(祭文)으로 전용(全翁 임헌회)를 무함하려다 제문이 내쳐지고 절교를 당했던 가평(嘉平)의 김평묵(金平默)⁶⁰⁴에게 정운영

602) 최경존(崔敬存) : 전우(田愚)의 문인 최병심(崔秉心)을 가리키는 것으로, 경존은 그의 자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호는 금재(欽齋)이다.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603) 선사를 …… 정운영(鄭胤永) : 정운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었는데, 윤봉래가 편지의 내용이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운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良齋先生文集後編續 卷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604) 제문(祭文) …… 김평묵(金平默) : 김평묵(1819~1891)은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인이다. 간재의 연보에 “1877(고종14) 경축(37세) 11월, 임헌회에게 올린 제문에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음을 알고서 제문을 김평묵에게 돌려보내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鄭胤永)⁶⁰⁵이 글을 구걸한 것은 진실로 죄가 되지만,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지산에게 글을 받았던 우리 문하의 여러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는가. 만약 양해를 허락하시기 전이었다면 온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종중의 일로 글을 받은 것은 김세기(金世基)의 <산수화록(山水話錄)>이 있기 일 년 전인 신유년(1921) 봄에 있었던 일이고, 조문하러 간 것은 소상(小祥)⁶⁰⁶을 지내고 다섯 달이 지난 뒤인 을축년(1925) 가을에 있었던 일이다.

무릇 이 일은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는지 여부와 절교가 온당한 것인가 온당하지 않는 것인가를 보고서 결단해야 한다. 그가 이미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이유로 그 분을 배척하고서도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교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뒤에는 스스로 아부했던 것에 대해서는 공론으로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척했다는 죄를 받지 않고,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으로 인해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하지 않았음을 알고서 서로 증유한 것에 대해서는 스승을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다는 죄를 그에게 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 진실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

그리고 “홍성의 김복한이 비록 우리 문하를 범했다 하더라도 아무개와 아무개의 무리들이 사문과 연원에 죄를 얻은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 것도 또한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그가 아무개와 아무개를 미워한 것이 어찌 이른바 “우리 문하를 침범했다.”라는 사람과 서로 증유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해친 사람은 놓아주고 그와 증유한 사람을 잡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른바 “연원을 헐뜯고 배척했다.”라는 것은 이미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신 것과 서로 반대가 되니, 또한 여러 말로 논변할 것이 못 된다.

605) 정윤영(鄭胤永) : 1833~1898. 본관이 초계(草溪)이고, 자는 군조(君祚)이며, 호는 석화(石華)·후산(后山)이다.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김평묵·유중교·유시수·홍대심과도 교류하였다.

606) 소상(小祥) ; 사람이 죽은 지 1년 만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김세기⁶⁰⁷⁾의 흉악한 글을 보고나서 [1937년]

觀世基凶文【丁丑】

사람을 보고서 그 큰 것에 대해 논했다면 그 나머지 자잘한 행위들은 유추할 수 있으니 비록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다. 나는 글을 보고서 글을 논하는 것도 또한 그렇다고 생각한다.

김세기는 이 글의 벽두에서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洛學)⁶⁰⁸⁾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梅翁)⁶⁰⁹⁾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父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金承旨)⁶¹⁰⁾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셨다는 것으로 나의 첫 번째 대죄(大罪)를 삼았다. 그는 또 일찍이 지은 <우기(偶記)>에서 말하기를, “선사께서 홍성(洪城)의 김복한(金福漢)과 절교하신 것에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 전(田)·최(崔)·송(宋)이 이미 편지로 양해하셨다고 말하면서 온갖 수단으로 그를 돕고 보호한 것은 비록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의 이안(案)은 첩판과 같은 판정이라 이를 만한 것으로, 오진영이 일찍이 크게

607) 김세기(金世基) : 오진영의 문인이다.

608) 낙학(洛學) : 《간재선생문집 후편속(良齋先生文集後編續)》 권6 <논인수무분(論人獸無分)>의 내용에 근거하면 호락논쟁(湖洛論爭)에서 낙론(洛論)을 지지했던 학자들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논쟁은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간의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낙하(落下), 즉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낙론 또는 낙학이라 부르고, 한원진의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에 동조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호서(湖西)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론(湖論) 또는 호학(湖學)이라 불렀다.

609) 매옹(梅翁) :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가리키는 듯하다.

610) 김승지(金承旨) :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을 가리킨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며, 호는 지산(志山)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사서(司書)를 거쳐 성균관대사성·형조참의를 역임하였으며 1894년에 승정원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설(李僎)·안병찬(安炳燾) 등과 함께 항일의병을 일으켰고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된 이듬해에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일본군과 싸우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영남의 광종석(郭鍾錫)과 함께 호서 유림을 대표해 전국 유림 137명의 서명을 받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인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쓰기도 하고 특별하게 쓰기도 하면서 한번만 쓰지 않고 자주 써서 그에게 전해 주었던 것이다. 예컨대 홍성을 갔던 금재(欽齋 최병심(崔秉心))를 단죄하여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淵源)을 저버렸던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운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라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

그러나 오진영이 훗날 김성장(金聖章)⁶¹¹에게 답한 편지 한 통이 있었는데, “나는 지산 영감과 선대의 정의가 있고, 계다가 시대의 의리에 있어 큰 절개를 지니신 분이기엔 일찍이 거센 물결 속의 하나의 지주(砥柱)로 바라보면서 흠모했었네.…… 내가 스스로 헤아려보건대 평소엔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에 이르지 않은 듯하네. 그래서 지산 영감의 상을 듣고 여러 차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류가 없게 된 것이 비통하고, 우리들이 더욱 외롭게 된 것이 가슴 아프네.’라고 하였고, 또 때때로 사람들에게 ‘김성구(金聖九)⁶¹²가 가벼이 참조하는 말을 믿고 상을 당했을 때에 부고하지 않았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네.’……”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즉시 정운한(鄭雲翰)으로 하여금 특별히 김성구에게 전해주도록 하였으니, 자신이 가서 양해를 구한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김성구의 양해를 얻어 부고를 보내고 절교하지 않았다면 오진영도 또한 지산의 영전에 가서 절하였음이 틀림없었을 것이다.

지금엔 우선 지산과 절교해야 하는지 절교해서는 안 되는지와 선사께서 이미 양해하셨는지 하지 않으셨는지는 논하지 않고, 바로 오진영과 김세기의 말을 가지고 반대로 오진영의 죄를 다스린다면 나라를 망치게 했다고 낙학을 꾸짖고, 거짓된 학문을 했다고 매옹을 배척했으며, 선사를 단죄하고 남의 부자 사이를 어지럽힌 김승지를 종처럼 섬기며 상전으로 모셨던 자는 오진영이고, 홍성의 김복한을 돕고 보호함으로써 선사를 무함하고 유훈을 배반한 죄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는 오진영이며, 선사를 배반하고 연원을 저버린 것이 전재의 문인 정운영과 한 쌍이

611) 김성장(金聖章) : 김복한의 장자(長子)이다.

612) 김성구(金聖九) : 김복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되는 자는 오진영이다. 김세기는 이에 대해 어찌하여 오진영을 단죄하고 성토함으로써 온 나라에 널리 알리지 않는 것인가? 연원을 높이고 선사를 지키는 부분에도 또한 친함과 사사로움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그가 한창 오진영을 스승으로 여겨서 방몽(逢蒙)의 혐의⁶¹³)가 없지 않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말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한다면 어찌하여 다시는 문하에 이르지 않기를 그의 <우기> 중에서 논한 “사생(師生)간에는 변례로 대처한다.”는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인가? 오진영의 경우에는 감추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나의 경우에는 죄안(罪案)을 억지로 씌움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기를 바란다 한들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이 글 속의 큰 절박(節拍)⁶¹⁴)으로, 믿을 수가 없으니, 이와 같음이 있다면 그 나머지 허다하게 사람을 무함한 말은 유추하여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부상(父喪)과 모상(母喪)의 선후를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예법이 있는지 예법이 없는지를 알 수 있겠는가. 다른 것들도 모두 이와 유사하다.】 나의 이른바 “글을 보는 것은 사람을 보는 것과 같아서 먼저 그 큰 것에 대해 논했다면 나머지는 논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이 이 때문이다.

전재 선생의 대비(大碑)는 선사께서 글을 새겨 넣을 때에 여러 문하 사람들과 여러 날 상의하고 교정하여 직접 고친 다음에 열 자 되는 반듯한 빗돌에 크게 써서 큰 길 옆에 우뚝하게 세운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으며, 어느 누가 보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내가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⁶¹⁵) 중에서 전재의 비문을 고친 죄를 오진영에게 덮어씌웠다.”라고 하면서 눈을 멀게 하고, 입을 도려내며, 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독한

613) 방몽(逢蒙)의 혐의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하(夏)나라 사람인 방몽이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나은 자는 오직 스승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였다는 고사가 보인다. 이 고사로 인해 제자가 스승을 해치는 혐의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된다.

614) 절박(節拍) : 음악 내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절주와 박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문장의 규칙적 진행 과정을 비유한 말이다.

615)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 : 《후창선생문집(後滄先生文集)》 15권에 있다. 간재(艮齋) 전우(田愚)가 계화도에서 직접 편정한 화도본(華島本)과 오진영(吳震泳)이 진주에서 간행한 진주본(晉州本)를 대조하여 진주본의 부당함을 변론한 기록한 것이다.

말을 덧붙였다. 나의 <진본고변록>은 내 손으로 완성하여 내 집에 보관해둔 채 아직 간행하여 배포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일찍이 본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운운하였으니, 나는 세상의 군자들이 <진본고변록>을 고찰하고 이 글을 보지 않은 날에 그가 도리어 눈이 멀고, 입이 도려내지며, 팔이 절단되는 형벌을 받게 되더라도 바칠 말이 없을 것임을 알겠다.

<분언(體言)>⁶¹⁶⁾ 중 운운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선사께서는 원래 “친아들이 있음에도 족질(族姪)을 세워 후사로 삼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에서 마음을 모질게 먹고 도리를 헤치는 관습이다.”라고 짓고서, “친자는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라는 다섯 글자의 소주(小註)를 두셨는데, “서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친자”라고 한 다음에 따로 소주를 달아 놓으신 것은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도리에 해가 됨을 분명히 말하기 위함이니, 그 의리가 정밀하고, 그 뜻이 깊다. 그런데 지금 어찌 감히 다시 다른 설을 받아들여 굳이 오진영이 “친(親)” 자를 “서(庶)” 자로 고치고 소주를 삭제한 것을 옳게 여기며 그의 죄를 숨겨주고, 선사의 정밀한 의리와 깊은 뜻에는 어둠단 말인가? 그의 무리들이 문고를 고치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하는 것이 대개 이와 같은 것이지 않으니, 이것도 또한 그 나머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세기의 글에서 또 “내가 만약 권세를 얻게 된다면 사대부 집안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오진영이 이미 진천(鎭川)·전주(全州)·진주(晉州)의 경찰서 검사국에서 행하여 선비들을 일망타진하고 선사의 손자까지 묶어 가둔 것이다. 그가 지금 스스로 자신들의 못된 짓을 베끼고 있으니, 어찌 이른바 “자연히 바꿀 수 없는 공론”이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616) 분언(體言) : 간재가 66세(1906) 되던 해 11월 무성산(武城山)에서 지낼 때 완성한 글로, 심성(心性)·이기(理氣)·출처(出處)·예의(禮義) 등에 대한 단상(斷想)을 여러 해에 걸쳐 기록한 것이다. 《간재선생문집 전편(良齋先生文集前編)》 권12권13에 실려 있고, 별편(別編)에도 1조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38년】

觀吳震泳答金聖章書【戊寅】

주자가 말하기를, “군자가 사람을 다스릴 때에 그 사람의 도로 그 사람 몸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이 편지에 대해서 바로 오진영의 말로 오진영의 죄를 다스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 편지의 주된 뜻은 그가 본래 지산 부자(志山父子)에게 절교를 당할 만큼의 죄가 없는데 최 아무개와 김 아무개가 자신을 원수로 여겨 참언(讒言)을 했기 때문에 김성구가 자신과 절교하고 부고를 보내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다시 김성구가 의심을 풀기를 바라며 그의 대문으로 달려가 아부하고자 한 것이다.

지금은 우선 아무개와 아무개가 오진영을 원수로 여겨 참언을 했는지 여부는 논하지 않겠다. 그는 이 편지의 맨 처음에서 우리의 연원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지산의 죄목을 확정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선사를 저버리고 연원을 배반했던 전재(全齋 임헌회)의 문인 정윤영(鄭胤永)과 한 쌍이 된다는 것으로 지산을 만난 최경존(崔敬存)을 단죄하였다. 지산의 죄가 이와 같다면 비록 지산이 절교하지 않고자 하더라도 그가 절교하는 것이 마땅한데 도리어 지산 부자가 그와 절교한 것에 대해 원통하다고 말하며 구구하게 스스로 아부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지산은 유림(儒林)의 대가(大家)인지라 스승을 무함했다는 성토를 두려워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선사께서 양해를 허락하셨음을 생각하지 않고 연원과 선현을 헐뜯고 배척했다는 것으로 그 분을 단죄한 것이고, 김성구는 나이가 어려서 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친의 절의를 성대하게 말하면서 스스로 아부한 것이다. 이것은 간살맞고 속 좁은 사람들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일상적인 행태이니 또한 괴이하게 여길 것도 없다. 군자는 다만 당연히 지산이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그의 말을 가지고 그가 스스로 지산에게 아부하고자 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

그는 또 아무개와 아무개가 참언을 했다는 말을 선사를 무함했다는

성토에 연결시켜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 외에는 물증을 잡을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구애 받을 필요가 없다.”,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말없는 가르침” 등의 말은 원래 그의 혀끝과 붓끝에서 나온 것이니,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의 변론과 성토를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그의 혀와 붓에서 나온 말로 그가 선사를 무함한 죄를 다스릴 뿐이다.

전사견⁶¹⁷의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를 제2조로 첨부함[1936년]

附田士狷<觀吳震泳答金聖章書>第二條【丙子】

오진영이 김성장에게 답한 편지 중에 이른바 “우리 문화에 간행의 다툼이 있는 이후로 내가 받은 무함의 죄안(誣案)이 종남산(終南山)과 나란할 뿐만이 아니네. 이것이 비록 스스로 공경하고 삼가지 못해 불러들인 것이겠지만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 외에는 물증을 잡을 만한 것이 없네.”라는 것은 앞뒤로 있었던 그의 일과 그의 편지를 일제히 없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전체의 국면을 총괄해 묶어서 호남의 두세 사람의 큰 죄안으로 만든 것이다. 지금 또 그의 말을 따라서 호남의 두세 사람의 혀끝과 붓끝을 제외하고, 단지 그의 지금 이 편지 중에서 진상을 파악하여 그로 하여금 죄를 받게 한다면 원통함이 없을 것인가? 이미 “연원과 선현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라고 말했다면 의리를 끌어대기에도 겨름이 없을 것이 마땅한데, 지산 영감이 살아 계신 동안에 절교를 알렸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초상을 치른 뒤에는 여러 차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양류(陽類 군자)가 없어진 것이 비통하고, 우리 무리들이 더욱 외롭게 된 것이 가슴 아프네.”라고 하였으며, 또 돌아가신 뒤에 달려가 아부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김성구가 가벼이 참언(讒言)을 믿고서 상을

617) 전사견(田士狷) : 간재 전우의 손자인 전일중(田鎰中)을 가리킨다.

당했을 때에 부고하지 않으니, 사람을 부당하게 끊는 것이 이처럼 터무니없네.”라고 하였다. 과연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면 연원을 비방하고 배척했다는 말이 또 어찌 그의 편지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으로나 저것으로나 죄는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져 나와 더 이상 호남의 두세 사람의 허끝과 붓끝이 아닌 데에서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니, 세상의 월조가(月朝家 비평가)에게 한 마디 비평을 내려주길 청하노라.

전사순⁶¹⁸이 이신헌⁶¹⁹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나서 [1937년] 觀田士順與李愼軒書【丁丑】

작년 여름에 종이 뭉치 속에서 지난해 현동(玄洞)의 간행소(刊行所)가 설치되었을 때의 문부(文簿) 1계(帛)을 얻고, 이미 편집한 책자(冊子) 중에서 칼로 도려낸 <회·퇴·울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 전편(全編)을 얻었다. 붉은 점으로 글자를 헤아린 모양을 보니 확실히 문고(文稿) 중에서 도려낸 것이었다. 마침내 진본(眞本)과 대조해보니 한 구도 서로 어긋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다.

이곳에 보관하고 있는 등본 사고(謄本私稿)【죽은 동생이 보관한 것이다.】의 <분언(體言)> 가운데 “서자가 있다. 운운. 친아들이 있음에도 족질을 세워 후사로 삼는다.[有庶子云云有親子而立族姪爲嗣]”라는 한 구절이 “서자가 있다. 운운.[有庶子云云]”이라는 다섯 글자를 검은색으로 묶고, 끝에 “친아들은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라는 다섯 글자의 소주(小註)가 없으니, 이것은 또 누가 한 것인가? 진본(眞本)은 단지 “자운운유친(子云云有親)”의 다섯 글자를 삭제하고 “서자가 있는데 족질을 세운다. 운운.[庶子而立族姪云云]”이라고 했을 뿐이 니, 언제 한 글자라도 고친 적이 있던가. 이것으로

618) 전사순(田士順) :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손자인 전일건(田鎰健)을 가리킨다.

619) 이신헌(李愼軒) : 간재 전우의 문인 이기환(李起煥)을 가리킨다.

유추하면 다른 것도 또한 세 모퉁이를 반증하여 알 수 있으니, 어찌 굳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길고 짧음을 비교하고 다투어서변장자(卞莊子)가 틈을 엿보는 기회를 주겠는가.⁶²⁰⁾ 【정축(丁丑 1937)년 3월 3일】

현동본(玄洞本)의 후고초(後稿鈔)는 선사께서 임술년(1922) 여름에 직접 편수한 화도본(華島本)⁶²¹⁾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이 편지 안의 말과 같다면 이는 <삼선생설질의(三先生說質疑)>의 “갱안(更按)” 이하 334자의 문장이 본래 화도본에 실려 있었는데, 현동에서 초본을 만들 때에 화도본에 의거하여 베껴 넣었다가 바로 도려내고 이어 전본(前本)의 “연즉(然則)” 이하 122자의 옛 글을 기재했던 것을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남진영(南軫永)의 글에서 어찌하여 “개본(改本)이 원래 대고(大稿)에 들어있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개본이 선사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며, 어찌하여 “원고(原稿)에 의거하여 판각에 부쳤다.”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의론하여 판각에 부쳤다.”라고 말할 것인가? 오진영의 편지에서 어찌하여 “선사께서 원래 대고에 넣으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선사께서 명하시어 원고를 베껴 수본(手本)을 남진영에게 부쳐 보낸 것인데, 지금 첨가해 넣은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른바 “현동에서 간행할 때의 문부”는 정재(靜齋)와 전사견(田士猷)이 주관한 것이니, 만약 작년 여름에 문부 중에서 칼로 도려낸 종이를 얻었다면 어찌하여 감히 전사견에게 묻지 못하고, 지금 전사견이 죽은 뒤에서야 운운하는 것인가? 만약 과연 칼로 도려낸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이쪽에서 문고를 어지럽혔다는 죄로 진주본(晉州本)⁶²²⁾을 단죄하지

620) 어찌……있겠는가 : 같은 편끼리 조그만 이해득실을 위해 싸우다가 다른 편 사람에게 이득을 주고 만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변장자(卞莊子)는 춘추 시대에 용맹하기로 이름난 노(魯)나라 대부인데, 소를 잡아먹고 있는 두 마리 호랑이를 보고 사냥하려다 옆 사람의 조언에 따라 두 마리의 호랑이가 서로 싸워 기운이 빠질 때까지 기다린 뒤에 힘들이지 않고 두 마리를 모두 잡았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史記 卷70 張儀列傳》

621) 화도본(華島本) : 전우(田愚)가 계화도에서 지낼 때에 직접 편정한 원고를 가리킨다.

622) 진주본(晉州本) : 1926년 10월에 오진영(吳震泳)과 김정호(金楨鎬) 등이 진주(晉州)에서 활자(活

않고 도리어 현동본을 단죄하여 “어찌하여 굳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으로 그 실정을 알 수 있다.

전사순은 일찍이 사람들에게 신해년(1911) 유서는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 말하면서 “우리 조고(祖考 전우(田愚))의 문하에는 조고의 필법을 모방하는 것에 일등 선수가 많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말한 유서란 그의 부친 정재(靜齋)가 내놓아 배포한 것인데, 그의 말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인지상정으로 할 수 있는 말이겠는가. 사람이 이러하니, 지금 또 이렇게 운운 하는 것에 대해 또한 어찌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 있겠는가. 이신현(李愼軒)은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그의 말을 믿고서 ‘선생께서 자취와 몸을 숨기고 보호할 계책’이란 말에 대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현동에 있지 않아서 전혀 모르다고 스스로를 변론하고, 또 이 일이 무슨 연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 물으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분언(體言)〉 운운한 것은, 선사께서 ‘서자’라 말씀하시지 않고 반드시 ‘친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친아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세우는 것이 도리에 해가 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니, 이미 〈진본고변록(晉本考辨錄)〉에 상세히 기록하였다.

이신현이 전 편지에서 이르기를, “저쪽에서 ‘사고(私稿)를 정리하여 바로잡는 것은 전적으로 이견(而見 오진영)을 믿는다.[私稿釐正, 專恃而見]’ 여덟 글자로 못사람을 호령하니, 이 사람이 이 입으로 어떻게 항거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후고(後稿)에 있어서는 직접 교감하시지 못한 때라면 혹 이런 유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임술년(1922) 여름에 직접 교감하신 이후라면 이미 때가 지나서 근거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전고(前稿)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가 도리어 이를 빙자하여 어려움 없이 전고와 후고를 고치니, 매우 통탄스럽다. 또 “정리하여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어찌 고쳐 짓는 것을 말하겠는가.

字)로 간행한 간재집(艮齋集)을 가리킨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선사의 문고를 읽고 느낌이 있어 표출하고 삼가 안설을 붙이다

【1938년】

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戊寅】

학문의 폐단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구차하게 편안함을 흠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흥분하여 다투는 것입니다. 흥분하여 다투는 사람은 가슴 속이 편안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자기의 주장을 요구하여 지난 시대 성현의 말씀과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묻지 않고 한결같이 자기의 소견에 따라 멋대로 외치고 함부로 행동할 뿐입니다. 구차하게 편안함을 흠치는 사람은 도리어 단지 몸가짐을 삼가고 이름을 아껴서 눈으로 샅된 말과 그릇된 행동이 바른 도리를 깎아 먹는 것을 보고서도 감히 입을 열어 지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행한 곳도 또한 볼만한 것들이 많으니, 끝까지 구차스럽게 대충 할 생각만 합니다. 【<김봉수(金鳳岫)어른에게 보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근래 오진영의 일을 가지고 논하면 멋대로 외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문고를 인허 받는다는 것으로 선사의 절개를 무함하고, 자기의 의견으로 선사의 문고를 고치기까지 하였으니, 흥분하여 다투는 폐단이 끝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선사를 무함하는 패륜적 행동이 바른 도를 깎아 먹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서도 감히 입을 열어 지적하고 말하지 않는 자로 말하면 선사의 도를 보호하지 못한 죄와 선사의 도를 해치는 죄는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으니, 구차하게 편안함만을 흠치는 폐단이 끝내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이다. 선사께서 이 두 가지 폐단을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먼 미래를 염려해서일 것이다.

오로지 이익과 손해만을 살피는 폐단은 임금을 버리고 친부모를 뒤로 하며, 스승을 배반하고 벼를 파는 데에 이를 것입니다. 【<이어당(李晤堂)어른에게 답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은 일의 공적에 대한 마음과

명예·이익에 대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그 폐단이 임금을 잇고 원수를 받들며, 선사를 무함하고 벗에게 화를 끼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무릇 옛날 이래로 이단의 학문을 하는 선비는 후대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진실로 문 밖에 있지만,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묵씨(墨氏)는 요(堯)와 순(堯)을 종주로 삼았으니, 묵씨는 공자와 맹자의 방 안에 있는 것이고, 육씨(陸氏)는 추(鄒)나라와 노(魯)나라를 높였으니, 육씨는 정자와 주자의 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와같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유자(儒者)가 분별하고 물리쳤다는 말을 직접 들었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바른 학문으로 인식했던 것이고, 성현(聖賢)은 세상 사람들이 빠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수하는 원수처럼 그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누가 옳고 그른지 알 수 없고, 후대에 도를 아는 선비가 나와서 바로잡은 뒤에야 비로소 방안과 문밖, 샅됨과 바름의 구분이 있게 되어 다시는 합쳐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음성(陰城)의 오진영을 변박하는 것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그도 또한 선사를 높였는데, 어찌하여 방 안의 사람끼리 싸우는 것인가?” 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선사의 이 가르침을 본다면 어떻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 유가들이 이단을 변박하는 것은 다만 도리에 당연한 일로 여겨서 할 뿐이지, 우리의 말이 행해질지 행해지지 않을지, 다른 사람이 따를 것인지 거스를 것인지, 저들의 세력이 강한지 약한지를 비교하여 나아가거나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맹자와 주자의 시대에 저들이 진실로 그들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으니, 비록 맹자나 주자라 할지라도 또한 감히 온 천하에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곧바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음성의

오진영을 변박하는 것을 기롱하여 말하기를, “그의 사람은 많고 선생의 사람은 적으며, 그의 세력은 강하고 선생의 세력은 약하니, 선생이 비록 그를 변박할지라도 선생의 말이 행해질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선사의 이 가르침을 본다면 어떻다고 말할 것인가?

그들의 이간질하는 말과 조장하는 말, 무함하는 언사, 악다구니 소리는 변박할수록 더욱 심해져서 단지 자신만 답답하고 괴로울 뿐이니 망령된 말에 붙여두는 것만 못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옳음과 그름은 저절로 밝혀질 것이고, 비록 사람은 밝게 알지 못 한다 하더라도 또한 모름지기 하늘이 있으니, 내 심군(心君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년에 받아들여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안혼재(安渾齋)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오진영과 이승욱(李承旭) 및 그 일당의 무함하는 말과 악다구니 소리에 대해 또한 일찍이 선사의 이 가르침을 받아들여 사용함으로써 힘을 얻었다. 다만 그 일이 선사와 관계된 것은 끝까지 그만 둘 수 없을 뿐이다.

우리 어른께서 이른바 “전자로 보면 강론에서의 작은 과실로 여겨 참아야 하고, 후자로 보면 사문의 큰 번고로 여겨 힘껏 성토해야 한다. 다만 전모(田某 전우(田愚))가 진심으로 감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옆에서 본 사람들이 그것을 사심의 작용에서 나온 것이고 당연한 의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길까 염려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픈 부분을 찢었다고 이를 만합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은 김용승(金容承)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자기를 성토한 뒤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몇 해 전에 ‘놈’·‘농사꾼 늙은이’라 불렀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선사를 무시한 지가 오래되었다.” 하였다. ‘놈’·‘농사꾼 늙은이’, ‘선사를 무시함’은

얼마나 큰 죄인가? 그런데도 전자로 보면 작은 과실로 여겨 참을 뿐만이 아니었고, 게다가 여러 해 동안 그를 공경하고 믿으며, 아끼고 보호하였다. 심지어 선사의 문고를 교정할 유사(有司)로 정해 망첩(望帖)으로 그를 초빙까지 하였다. 자기를 성토했던 뒤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의 죄를 드러내 성토했었으니, 어찌 사심(私心)의 작용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김용승은 결국 선사를 배반하였으니, 그가 당연히 진심으로 감복한 사람이 아니었고, 단지 오진영의 심술(心術)이 그러할 뿐이었다.

김(金)이 처음 이런 괴이한 논의를 했을 적에 그 마음에 어찌 다시 꺼리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이렇게 감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애를 써서 물 리치려 했던 말이니, 그 공이 전혀 없었다고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이 처음에 “헤아려서 하라.”거나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 “말없는 가르침”, “하늘은 만물을 낳고 성인(聖人)은 법을 세우셨다.”, “꺼리지 않으시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 등의 말로 선사를 무함할 적에 그 마음이 어찌 다시 꺼리는 것이 있었겠는가. 뒤에는 도리어 “말에 구별이 부족했다.”거나 “말을 가림에 소홀했다.” 등의 말로 감출 생각을 하였다. 이것은 호남의 선비들이 애를 써서 물리치려 했던 말이니, 그 공이 전혀 없었다고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대체로 선생의 문집이 저 사람의 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절대로 선선생(先先生)께서 동문과 문인에게 처리하신 뜻이 아닙니다. 저는 선선생의 눈이 지하에서 감기지 못하실까 염려되니, 매우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조참판(趙參判)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선사께서는 숙재(肅齋)에 대해 그 분이 선사의 동문이 됨에도 오히려 문집이 다른 사람의 손 따라 나타났다 사라졌다하는 것을 매우 비통하고 한탄스럽게 여기셨고, 심지어 선생의

눈이 지하에서 감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날 군자들은 친한 스승의 문집이 다른 사람에 의해 무난하게 고쳐지고 삭제되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보면서 일찍이 통탄스럽게 여기는 뜻이 없는 것인가? 매우 괴이하다.

차라리 시호(諡號)가 없을지언정 시장(諡狀)은 결코 그 사람이 짓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임경유(任景孺)에게 보냄〉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몇 해 전에 내가 전일효(田鎰孝)⁶²³⁾가 오진영에게 선사의 행장(行狀)을 짓게 했다는 말을 듣고, 또한 말하기를, “차라리 행장이 없을지언정 행장을 결단코 선사를 무함한 사람이 짓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일이 사문(師門)과 관계되니, 한 줌의 숨이 아직 끊어지기 전에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선사의 무함을 변론하고 문고의 어지러움을 바르게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또한 이와 같을 뿐이다. 혹자는 일이 여러 해 오래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젠 그만두어도 된다고 하였다. 나에게 충고하는 사람이 선사의 이 말을 본다면 어떻다고 말할 것인가?

일찍이 명나라 유학자 고경일(高景逸)⁶²⁴⁾의 말을 보니, “기개와 절의가 있으면서 학문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학문을 하고서 기개와 절의가 없는 사람은 있지 않다. 학문을 하고도 기개와 절의가 없다면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의 교화에 해됨이 적지 않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아름답긴 하지만 미진한 점이 있다. 대체로 만약 기개와 절의가 없다면 원래부터 학문을 했다고 이를 수 없으니, 그 ‘학문’이라 한 것은 단지 밖으로 보이는

623) 전일효(田鎰孝) :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장손이다.

624) 고경일(高景逸) : 경일은 명(明) 나라 때의 학자요 정치가이며 동림당(東林黨)의 영수였던 고반룡(高攀龍, 1562~1626)의 호이다.

화려한 명성일 뿐이다. 【<왕사간(王司諫)에게 보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가령 음성 오진영의 말처럼 선사께서 진실로 인허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면 이는 이른바 “기개와 절의가 없다면 원래부터 학문을 했다고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니, 아아, 어찌 그렇겠는가. 어떤 사람은 음성의 오진영을 보호하고 본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심지어 “비록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 하더라도 선사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또 심지어 “인허를 받도록 분부한 뒤에 선사가 될 수 있으니, 만약 구구한 작은 신의와 절개에 얽매어 도를 후대에 전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군자라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 천리가 어두우지고 인심이 사악해짐이 이런 지경까지 이른 것인가?

지금 저 사람의 망극한 무함에 대해 내 마음에 돌이켜 구해보건대, 만약 조금이라도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싹이 보인다면 이것이 장애가 될 것이니 얼마나 괴롭겠는가. 어찌 이른바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자득하지 않음이 없다.”⁶²⁵⁾는 것이겠으며, 어찌 이른바 “마음이 평탄하여 여유가 있다.”⁶²⁶⁾는 것이겠는가. 내심 스스로 우리들이 바로 어려운 곳과 험한 곳에서 묵묵히 도를 체득하는 공부를 해나가야지, 단지 문자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네. 【<벗 이명(李明)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음성 오진영의 망극한 무함에 대해 나의 마음에 돌이켜 구해보건대 비록 스스로 원한과 두려움이 없다고

625) 어떤……없다 : 《중용장구》 제14장에 “군자는 현재 처한 위치에 알맞게 행동할 뿐이요, 그 이외의 것은 바라지 않는다. 현재 부귀하면 부귀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고, 현재 빈천하면 빈천한 처지에 알맞게 행동하며, 현재 이적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 상황에 알맞게 처신하고, 현재 환난의 가운데에 있으면 그 상황에 알맞게 처신한다. 따라서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는 것이다.[君子素其位而行, 不願乎其外. 素富貴, 行乎富貴, 素貧賤, 行乎貧賤, 素夷狄, 行乎夷狄, 素患難, 行乎患難. 君子無入而不自得焉.]”라는 말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626) 마음이……있다 : 《논어》〈술이(述而)〉에 “군자는 마음이 평탄하여 여유가 있고, 소인은 늘 걱정스러워한다.[君子坦蕩蕩, 小人長戚戚.]”라는 공자의 말의 일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생각하지만 “요컨대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자득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평탄하여 여유가 있다.”는 경지에 이른 뒤에야 끝날 것이다. 바로 어려운 곳과 험한 곳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한다는 선사의 가르침을 마치 오늘 얼굴을 대하고 명을 받드는 듯하다.

한쪽 사람들이 내가 선비가 상(喪)을 치르는 동안에 의(義)를 주창하는 것은 중도에서 지나친 것 같다고 말한 것이 절의를 배척함이 된다고 지적하며 꾸짖었습니다. 【〈김광국(金光國)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은 내가 그가 지은 <정절사전(鄭節士傳)>⁶²⁷ 뒷부분의 의론 가운데 중화와 오랑캐를 뒤섞어 말한 것에 대해 논변한 것으로 절의를 배척함이 된다고 지적하며 꾸짖었다. 선사께서 바로 의를 주창한 사람을 논변하신 것은 단지 그가 상을 치르는 사람이 중도에 맞는지 여부만을 논변하고 일의 옳고 그름을 논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꾸짖는 사람의 말이 오히려 부당하다. 하물며 나는 단지 그 글의 의론이 의를 해친 점이 있다는 것만 논변했고, 애초에 절사(節士)의 일은 거론하지도 않았으니, 꾸짖는 사람의 말이 어찌 더욱 부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아, 내가 선사의 뒤를 따라 절의를 배척했다는 죄목을 얻은 것은 분수에 영광이나, 단지 그의 마음 씀이 험악함을 볼 뿐이다.

이렇게 사문이 분열된 때에는 벼들이 비록 조그만 흙이 있다 하더라도 진실로 큰 번고가 아니라면 또한 잘못을 포용함으로써 교유의 도를 온전히 할 수 있어야 하니, 이것은 사실 주희와 송시열 두 선생의 뜻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선사의 이 편지를 끌어와 오진영과

627) 정절사전(鄭節士傳) : 정승원(鄭升源, 1868~1934)이 일제의 식발에 항거하여 목을 매 순절한 것에 대한 전기이다. 정승원의 자는 덕여(德汝)이고, 본관은 영일(迎日)로, 일제가 강제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자 1934년(67세) 10월에 “이 백의(白衣)와 백발(白髮)을 보존하여 지하로 돌아가 부모를 뵈 것이다.[存此白衣白髮, 歸見父母地下.]”라는 말과 절명시(絕命詩), 절명사(絕命詞)를 남겼다고 한다. 《石農集 권31 鄭節士傳》

김용승(金容承)을 단절한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아, 스승을 무함하고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니고 작은 흠이란 말인가. 어찌하여 선사께서 정윤영(鄭胤永)·신계(申桂)·이승욱(李承旭) 세 사람을 단절한 일을 보지 않는 것인가?⁶²⁸⁾ 여기에서 이른바 ‘작은 흠’이란 신이산(申梨山)이 가평 김평묵의 형편없음을 알면서도 단지 뚜렷하게 단절을 통고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일 뿐이다.

신이산은 매번 제문을 배척해 물리친 것에 대해 악한 마음을 격동하여 이루게 하고 재앙의조짐을 돋우어 일으켰다고 하는데, 내가 내심 생각하기에 이 일은 단지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논변해야지 격동시키고 촉발시켰는가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해(利害)상의 말인 듯합니다. 【<정명신(鄭命新)에게 답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 문인 중에 오진영과 김용승을 성토하고 단절한 것에 대해 악한 마음을 일으켜 이루게 하고 재앙의 조짐을 돋우어 일어나게 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가르침을 본다면 어떻다고 말하겠는가?

다만 신이산이 조정의 의론을 됴으로써 이승욱의 험뜯음이 더욱 방자해지고 김평묵의 세력이 더욱 성대해지게 하였으니, 이 때문에 오늘날의 재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리어 자신을 탓하지 않고 반대로 도를 곧게 하여 행한 사람에게 죄를 돌리니, 이것이 무슨 식견이고 의론인지 모르겠습니다.

628) 어찌하여…… 것인가? :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는 일이 있었는데, 윤봉래가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良齋先生文集後編續 권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 문하의 변고가 다만 중간에 선 자가 조정의 의론을 두었기 때문에 오진영의 무함이 더욱 방자해지고 김용승의 배반이 더욱 어그러져 큰 재앙을 이루게 한 것 또한 선사의 이 말씀과 같은 점이 있다.

지난번에 한 벗이 나를 보고 “그대가 제문을 물리치고자 한 것은 어설뿐 일이라 이를 만하다. 저들의 기세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에 임해서 이치의 옳고 그름을 보고서 진퇴를 결정해서는 안 되고, 단지 사람의 강약을 보고서 진퇴를 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학문이라 하겠습니까.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처음 음성의 오진영을 성토하고, 그 뒤로 여러 차례 변론을 마지않자, 사람들 중에 진실로 저들의 형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만두도록 권면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이치의 옳음과 그름을 보고 진퇴를 결정할 뿐, 사람의 강약을 보고 진퇴를 결정하지 않은 것고 또한 선사의 마음과 같았을 따름이다. 과연 전에는 고소의 재앙을, 뒤에는 무함의 치욕을 면치 못했으니, 지난날에 그만두도록 권면했던 자가 스스로 앞을 내다보는 명철함이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찌 그 사이에서 한 터럭만큼의 원망이나 후회가 있겠는가.

무릇 횡포와 패역이 오면 세상의 교화와 도술(道術)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또한 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석영(林奭榮)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오진영 쪽의 횡포와 패역이 울적에 선사를 무함하는 것과 문고를 어지럽히는 것에 관계된 것을 제외하고는 단지 일체 받아들였을 뿐, 변론하여 다스리지 않았다.

자경(子敬 김용구(金容九))이 명도(明道)는 왕안석(王安石)과 절교하지

않았고, 이천(伊川)은 소동파(蘇東坡)와 다투지 않았다⁶²⁹⁾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명도의 덕과 도량이 넓고 컸지만 만약 왕씨가 부모와 스승을 기롱하고 모욕했다면 그를 대우함이 반드시 달랐을 것입니다. 또한 저 김(金)과 유(柳)의 문인(門人)⁶³⁰⁾들이 소동파로 자처했다면 저 또한 그들과 다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자신들을 공자·주자의 정통을 전수받았다고 말하지만 성리(性理)의 의론과 출처(出處)·사행(事行)이 모두 성인의 가르침과 어긋나니, 유자(儒者)된 자로서 어찌 말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최종화(崔鍾和)에게 보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호남 사람이 음성의 오진영과 절교한 것은 그가 선사를 무함했기 때문이다. 그가 만약 평소의 고제(高弟)가 아니고, 또 전발(傳鉢)⁶³¹⁾로 자처하지 않았다면 호남 사람의 변론도 또한 굳이 이처럼 힘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가 전발의 고제로 자처하여 스승을 무함하였으니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써 변론한 것이다.

한쪽이 바르고 다른 한쪽이 치우치거나 한쪽이 공정하고 다른 한쪽이 사사로우면 반드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옆에서 본 사람들이 모름지기 시비하는 방향을 정밀하게 살피고, 또 모름지기 이쪽저쪽의 언사의 온순함과 포악함, 기세의 평온함과 험악함을 세밀하게 본 뒤에 좇을 것인지 등질 것인지 나의 길을 정하고, 도울 것인지 억누를

629) 명도(明道)는 …… 않았다 : 명도는 정호(程顥, 1032~1085)의 호이고, 이천은 정호의 동생인 정이(程頤, 1033~1107)의 호이며, 소동파는 소식(蘇軾, 1036~1101)을 가리킨다. 이들은 송 철종(宋哲宗) 원우(元祐) 연간에 왕안석(1021~1086)의 신법(新法)에 반대하며 구법(舊法)을 주창한 대표적 학자들로, 정이 형제는 낙당(洛黨)을 주도하고, 소식은 촉당(蜀黨)의 영수가 되어 학문에 기초한 치열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낙촉지쟁(洛蜀之爭)’이라는 호를 얻기까지 하였다. 《小學紺珠 名臣類下》

630) 김(金)과 …… 문인 : 김평묵(金平默, 1819~1891)에서 류중교(柳重教, 1832~1893)로 이어지는 문인을 가리키는 듯하다. 유중교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문인으로 이항로의 사후에 김평묵을 스승으로 섬겼다.

631) 전발(傳鉢) : 불가(佛家)에서 사용하는 전의발(傳衣鉢)의 줄임말로, 스승의 도학을 전수 받음을 비유한다.

것인지 나의 힘을 베푸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혹 양쪽을 옳게 여기거나 혹은 모두를 그르게 여기는 것은 선현이 기뻐한 “낙(洛)도 옳고 촉(蜀)도 옳으며, 원우(元祐)도 그르고 희풍(熙豐)도 그르다.⁶³²⁾”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천명(天命)의 이치겠으며, 성인의 법이겠습니까. 【<임장우(林章佑)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늘날 호남도 스승을 높였고, 영남도 스승을 높였으며, 영남도 일을 그르쳤고 호남도 일을 그르쳤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시비하는 방향을 살피지 않고, 또 언사의 온순함과 포악함, 기상의 평온함과 험악함을 보고서 좇음과 등짐, 도움과 억누름을 선사의 말씀처럼 하지 않는 것인가? 【정도현(鄭道鉉)이 김홍재(金弘粹)를 대하여 말하기를, “의론은 호남이 옳다.” 하였으며, 전기진(田璣鉉)이 나를 대하여 말하기를, “영남과 호남의 싸움에서 호남이 승리했다.”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호남이 영남에게 곤욕을 받아 고소의 화를 당하기까지 하였는데, 어찌하여 호남이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하자, 전기진이 말하기를, “‘싸움의 승리’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의 승리’에서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무슨 말인가?” 하니, 전기진이 말하기를, “호남의 문자는 주로 일을 의론하고, 영남의 문자는 주로 사람을 타격한다. 이것이 진실로 공론(公論)이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정도현과 전기진은 함께 영남에 거쳐하여 영남을 편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말이 이와 같았으니, 시비의 방향 및 말의 온순함과 포악함, 기세의 평온함과 험악함에 대한 구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끝내 좇음과 등짐, 도움과 억누름 사이에서

632) 낙(洛)도 …… 그르다 : 낙은 낙양(洛陽) 출신 정이(程頤)를 영수로 하는 낙당(洛黨)을 가리키고, 촉은 촉 출신인 소식(蘇軾)을 영수로 하는 촉당(蜀黨)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왕안석의 신법(新法)에 반대하고 구법(舊法)을 주장하면서 학문에 기초한 치열한 논쟁을 벌임으로써 ‘낙촉지쟁(洛蜀之爭)’이라는 호를 얻기까지 하였다. 원우는 철종(哲宗)의 연호인 원우 연간에 집권한 사마광(司馬光)의 구법당(舊法黨)을 가리키고, 희풍은 신종(神宗)의 연호인 희령(熙寧)·원풍(元豐) 연간에 득세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新法黨)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송나라 신종(神宗) 때부터 철종 때인 원우 연간에 이르기까지는 당쟁이 극심하였다. 《小學紺珠 名臣類下》

선택할 것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한탄스럽다.】

단지 전장(奠章)⁶³³을 조목조목 밝혀서 스승의 마음에 다른 뜻이 없었음을 알리면 되는데, 끝내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의 사이에서 과실로 인한 잘못[愆]과 일부러 지은 죄[愆]의 구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지 못했다. 이에 분열된 까닭을 버려두고 주위를 둘러보다 다른 곳으로 가서 의혹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 마치 흘러 떠도는 것들을 주어모아 내 몸을 더럽히고 후배를 현혹할 계책으로 삼은 듯하니, 마음을 쓰는 것이 구차하고 수고롭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관서(關西)의 제생(諸生)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만약 음성 오진영의 말에 진실로 선사를 무함한 사실이 없었다면 그의 무리들이 단지 오진영의 본문(本文)에 나아가 선사를 무함한 것이 아님을 조목조목 밝히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주변을 둘러보아 다른 곳으로 가서 의혹을 치장하고 꾸미는 것이 마치 터무니없는 것을 억지로 뒤집어써워 호남 사람을 더럽히고 한 시대를 현혹할 계책으로 삼은 듯하니, 마음을 쓰는 것이 구차하고 수고롭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더욱 스승을 무함한 죄가 유심(有心)의 일부러 지은 죄에서 나왔음을 볼 수 있다.

만약 화서(華西)⁶³⁴가 울옹(栗翁 이이(李珣))에 대해 진심으로 기뻐하고 성심으로 복종할 생각이 참으로 있었다면 그의 뛰어난 제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치에서 벗어난 일이니, 조금의 싹도

633) 전장(奠章) : 김평목이 임헌회에게 올린 제문(祭文)을 말하는 것으로, 제문 가운데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에게 거부당했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634) 화서(華西) : 이항로(李恒老, 1792~1868)의 호이다. 초명은 광로(光老)이고, 자는 이술(而述)이며, 본관은 벽진(碧珍)이다. 한성부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당시 과거시험에 환멸을 느끼고 과거를 포기한 채 향리에서 강학에 전념하여 최익현(崔益鉉)·김평목(金平默)·유중교(柳重敎) 등을 길렀으며, 천거로 동부승지·공조참판·경연관 등을 지냈다. 호남의 기정진(奇正鎭), 영남의 이진상(李震相)과 함께 조선 말기 주리철학의 3대가로 꼽힌다. 존왕양이(尊王攘夷)의 춘추대의(春秋大義)를 강조함으로써,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저서로는 《화서집》, 《주자대전차의집보(朱子大全疑輯補)》 등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만약 화서가 주자에 대해 독실하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 진실함이 참으로 있었다면 그의 뛰어난 제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치에서 벗어난 일이니, 조금의 싹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화문이자론(華門二子論)〉】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늘날과 후대 사람 중에 오진영의 일을 논하는 자가 어찌 “만약 간재(良齋 전우(田愚))가 참으로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과 인허에 대한 분부가 없었다면 그의 뛰어난 제자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치에 벗어난 일이니, 조금의 싹도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내가 깊이 두려워하여 어쩔 수 없이 변론하는 이유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나치게 염려한다고 지적하는데, 어찌면 그렇게도 식견과 사려가 없단 말인가.

윤철규(尹喆圭)가 거짓으로 칙령(勅令)을 전해서 빈사(賓師)를 유인해 쫓아낸 것⁶³⁵에 대해조정에서 비록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보(章甫 유생)들은 성토해야 한다. 【〈쇄묵(瑣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퇴계의 이른바 “통문(通文)을 돌려 상소하는 것은 유생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유생이 조정의 일에 간여한 것으로 말한 것이지, 사문(斯文) 중에 일이 있어도 서로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을 인용하여 호남 사람이 통문으로 오진영을 성토한 것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미 퇴계의 본래 취지를 잃은 것이다. 지금 또 선사의 말씀으로 보건대 장보들이 윤철규를 성토했던 것은 조정에서 그의 죄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조정의 일에 간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또한

635) 윤철규(尹喆圭)가……때: 빈사(賓師)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을 때에 송병선이 고종 황제에게 시정개혁과 일본에 대한 경계를 건의하여 동의를 받아내고 다시 대궐에서 상소하려고 하자, 경무사(警務使) 윤철규가 그를 속여 일본 헌병대로 넘겨 고향으로 이송시킨 일이 있었다. 고향으로 이송당한 후 송병선은 울분을 참지 못해 음독 자결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것을 허여한 것이니, 통문으로 오진영을 성토하는 것이 유생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식견이 없음을 더욱 알 수 있다.

유자(儒者)는 저서(著書) 수십 권에 곡필(曲筆)을 하여 고금(古今)의 한 사람도 원통하거나 억울하게 해서 안 된다. 이는 살리기를 좋아하는 천지(天地)의 마음을 받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니, 후대에 응당 어진 자손을 얻을 것이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오늘날에 사람을 논하면서 행적을 아울러 무함하는데 어찌 마음까지 논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늘의 형벌과 귀신의 질책에 관계된 것이니, 신중해야 한다.”⁶³⁶⁾ 하였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음성의 오진영과 그의 무리들은 선사에 대한 무함을 변론하는 것이 글의 혐의를 꾸미려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나를 무함한다. 내가 그에 대해 설사 진실로 혐의할 만한 행적이 있더라도 혐의를 피하여 무함을 변론하지 않는 것은 제자로서의 직분이 아니니, 진실로 이것으로 마음을 무함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애초에 혐의할 만한 행적이 없는데, 도리어 거짓을 꾸미고 뒤집어씌워서 억지로 애매모호한 행적을 만든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가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마는 “행적까지 아울러 무함하는데 어찌 마음을 논할 수 있겠는가. 하늘의 형벌과 귀신의 질책에 관계된 것”이라는 가르침을 돌이켜볼 것이다.

고금(古今)의 일을 낱낱이 헤아려보면 온갖 병폐는 그 근원이 어느 한 가지도 우리 유학자들이 소문(聞)과 현달(達)의 변별⁶³⁷⁾을 밝히지 못하고,

636) 오늘날 …… 한다 : 명나라 여곤(呂坤, 1536~1618)이 지은 《신음어(呻吟語)》 3권 〈응무(應務)〉에 나오는 구절이다.

637) 소문과 …… 변별 : 《논어》〈안연(顔淵)〉에 “현달[達]이란 정직함을 바탕으로 삼고 의(義)를 좋아하며, 남의 말을 살피고 얼굴빛을 관찰하며, 잘 헤아려 몸을 낮추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달(達)하며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달(達)한다. 소문[聞]이란 얼굴빛은 인(仁)을 취하나 행실은 위배되며, 그대로 머물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하면 나라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나며 집안에 있어도 반드시 소문이 난다.[夫達也者, 質直而好義, 察言而觀色, 慮以下人. 在邦必達, 在家必達.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 居之不疑. 在邦必聞, 在家必聞.]”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진실[誠]’과 ‘거짓[僞]’의 기미를 살피지 못하며,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은 이름을 구하는 것⁶³⁸)에 있어서는 최고의 완전한 도리로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한 데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고선사묘문(告先師墓文)>】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적은 이름을 구하는 것이 이미 온갖 병폐를 가져올 수 있는데, 하물며 선사께서 일찍이 음성의 오진영을 일과 공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의를 헤아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배척하신 것은 단지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적은 이름을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니, 훗날 “선사의 함자를 거짓으로 서명하여 먼 곳의 사람에게 던져 준 것”과 “선사를 무함하여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것”, “선사의 문고를 고치고 어지럽힌 것”, “일작(日雀)에게 돈을 구걸한 것”, “동문을 일말타진한 것” “선사의 손자를 압송하여 가두는 것” 등의 온갖 죄악을 빚어낸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저 역시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자신을 사사롭게 여기는 이치가 없겠습니까. 단지 스승을 높이고 도를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원망과 비방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보면서도 감히 평소의 지조를 바꾸어서 따르지 못하고 있으니, 그 정상이 또한 참으로 슬픔입니다. 만약 집사처럼 인품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했었다면 사문(斯文)에는 붙들어 세우는 도움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몸에는 주먹질과 발길질이 가해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께서는 스스로 편리한 곳을 차지하여 일을 맡을 마음은 없고 이렇게 외롭고 미천하며 비루하고 용렬한 사람에게 대신하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집사께서는 스스로 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들의 세력을 도와주시기까지 하시니, 더욱 옳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638) 일은 …… 구함 : 《맹자집주(孟子集註)》〈양혜왕 장구 하(梁惠王章句下)〉 제15장 장하주(章下註)에 “일은 가능함을 구하고, 공은 이름을 구하여 지혜와 도모의 말단에서 기필을 취하고 천리의 율바름을 따르지 않는 것은 성현의 도가 아니다.[凡事求可功求成, 取必於智謀之末, 而不循天理之正者, 非聖賢之道也.]”라는 내용이 보인다.

【<<신앙여(興申仰汝)에게 보냄>>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금 음성 오진영의 무함과 어지럽힘에 대해 만약 인품과 지위가 있는 동문의 노성(老成)한 사람이 변론과 성토의 일을 맡았다면 저쪽의 방자함을 거두어 선사의 도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모두 스스로 편리한 곳을 차지하고서 도리어 저들의 세력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나처럼 사람이 미천하고 말이 경솔한 자로 하여금 일을 맡게 함으로써 원망과 비방이 세상에 넘쳐나고 재앙과 근심이 몸에 가해지게 하는 것인가? 비록 스승을 높이고 도를 지키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만 정상이 또한 진실로 슬프다 하겠다. 아아, 옛적에 선사와 같은 인품과 지위로도 오히려 이러한 탄식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의 소자(小子)처럼 인품과 지위가 낮고 미천한 사람이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한쪽 사람이 또 저의 제문(祭文)에 있는 음양(陰陽)과 같은 마음과 행적이라는 말이 있는 것을 가지고 신(神)을 업신여긴 것이라 말하면서 이것을 큰 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음양(陰陽)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상반되듯 마음과 행적이 모순된다는 말⁶³⁹⁾은 농옹(農翁 김창협(金昌協))이 일찍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에게 비기어 반드시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입니다. 부친에게 사용했던 말을 선사에게는 베풀 수 없다고 말하니,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음성의 오진영이 호남의 통문(通文) 중에 “선사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고 불충을 반복했다는 말이니, 이 때문에 선사께서 반드시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를 하지 않으셨음을 깊이 밝히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위로 감히 말하지 못할 부분까지 언급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큰 죄로 삼았는데,

639)음양(陰陽)이 …… 말 : 《농암집(農巖集)》 11권 <상중구(上仲舅)>에 보인다.

어찌하여 선사의 이 가르침을 읽고서도 남에게 뒤집어씌운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인가? 대체로 그의 심술이 선사의 이른바 “한쪽 사람”과 한 께미에 께어져 있는 것이 자못 같은 기운을 전해 받고 같은 땃줄에서 태어난 것과 같다.

일찍이 배우지 않았다면 전혀 일이 없겠지만 지금 사우(士友)의 뒤를 따라 그 학설을 듣고서도 이와 같이 따지지 못하고 겨우 에둘러 따진다면 이는 성현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맹자가 남과 변론하고 논쟁한 것은 단지 사람들이 성인이 옳고 이단의 말이 그르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 것일 뿐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금 선사에 대한 무함을 변론할 때에 만약 화를 불러들일까 두려워하여 겨우 에둘러 따진다면 이는 성현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다. 변론을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선사께서 이러한 사실이 없고 그의 말이 무함임을 알기를 바란 것일 뿐이다.

제가 내심 옛보건대 집사의 뜻은 회니(懷尼)의 논쟁⁶⁴⁰과 호락(湖洛)의 변론⁶⁴¹을 징창(懲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릇 인물(人物)의 샷됨과 바름의 사이나 강론의 같음과 다름의 즘음에서 일체 화합을 주된 것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못 샷됨과 바름을 분별하고 같음과 다름을 나누어서 서로 뒤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연의 화합이고, 그렇게

640) 회니(懷尼)의 논쟁 : 회덕(懷德)에 거주했던 송시열(宋時烈)과 이성(尼城)에 거주했던 윤증(尹拯) 사이에서 일어난 사제 간의 대립을 말한다. 송시열이 윤증의 부친인 윤선거(尹宣舉)의 묘갈명(墓碣銘)을 지으면서 병자호란 때 강화도(江華島)에서 윤선거의 처신을 언급하자 윤증이 그것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송시열이 거절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제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여 훗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641) 호락(湖洛)의 논변 : 권상하(權尙夏)의 문인 한원진(韓元震)과 이간(李柬) 사이에서 시작한 논쟁을 말한다. 인물성상이론(人物性相異論)과 미발심체유선악론(未發心體有善惡論)을 주장한 한원진과 그에 동조했던 학자들이 대부분 호서(湖西) 출신이었기 때문에 호론(湖論)이라 하였고, 인물성구동론(人物性俱同論)과 미발심체본선론(未發心體本善論)을 주장한 이간과 그에 동조했던 학자들이 대부분 낙하(洛下 서울) 출신이었기 때문에 낙론(洛論)이라 하였다.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사의(私意)와 인욕(人欲)일 뿐이라는 것을 모르신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근래에 나와 전일중(田鎰中)이 오진영과 화평할 것을 권면하는 사람들이 어찌 선사의 ‘사의와 인욕’이라는 가르침에 송연(竦然)하지 않겠는가.

집사께서도 또한 그의 제문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스스로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처신하고자 할 뿐입니다. 이것이 만약 자기의 일에 관계된 것이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친과 스승이 모욕을 받았는데도 단지 한 구절의 냉정한 말로 끝내다니요.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의 무함이 단지 자기의 일에 관계된 것이라면 진실로 그 스스로 옳지 못하다는 것으로 처신할 뿐이지만, 선사와 관계된 것이라면 감히 한 구절의 냉정한 말로 끝내어 선사의 심법(心法)을 어그러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집사가 형제처럼 처우한다고 하지만 자기와 관계된 것이면 노여워하고, 선사와 관계된 것이면 편안하게 여기십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은 김용승(金容承)이 몇 해 전에 ‘놈’·‘농사꾼 늙은이’라 부르고, 마음속으로 오래도록 선사를 무시했을 때에는 일이 선현과 선사에게 있었기에 편안하게 여기더니, 선사를 무함했다고 자기를 성토했 때에는 일이 자기에 있게 되자 노여워하면서 비로소 그의 죄를 발설하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선사의 명령 앞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게 하였다. 선사의 이 말씀은 마치 오진영의 심술을 먼저 내다보고 미리 말씀하신 듯하다.

옛적에는 주자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주자의 문하 밖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주자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주자의 문하 안에 있습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옛적에는 스승을 무함하는 사람이 스승의 문하 밖에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스승을 무함하는 사람이 스승의 문하 안에 있다. 스승의 문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쉽게 변론하지 못한다. 그 말을 변론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변론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

오백풍(吳伯豐)⁶⁴²은 주자 문하의 안연(顏淵)이다. 경원(慶元 송 영종(宋寧宗) 연호) 연간에 수립한 것이 우뚝하여 사문의 칭찬을 자주 받았다. 우옹(尤翁 송시열)이 지은 창랑(滄浪)의 글에 이성보(李誠父)·오백풍 등의 말이 있었는데, 뒤에 대운(大尹 윤선거(尹宣舉))의 청으로 그것을 삭제하였다.⁶⁴³ 우옹이 빗대어 견준 것과 대운이 삭제를 요청한 것이 어찌 오백풍이 진실로 권세를 좇는 허물이 있었기 때문이겠는가. 단지 그에게 일찍이 한탁주(韓侂胄)에게 붙었다는 비방이 있었을 뿐이었다. 【<수현재우기(守玄齋偶記)>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사람들 중에 “오진영이 비록 선사를 무함했다 하더라도 선사가 진실로 이러한 사실이 없으니, 어느 누가 그것을 믿겠는가.”라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이는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이다. 오백풍이 비록 권세를 좇는 허물이 없고 단지 그가 일찍이 한탁주에게 붙었다는 비방이

642) 오백풍(吳伯豐) : 오필대(吳必大, ?~1198)로, 백풍은 그의 자이다. 주희(朱熹) 문하의 고제(高弟)였으나 일찍 죽었으며, 저서로 《사해집(師海集)》이 있다.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집권할 때에 오백풍이 벼슬에 임명되자 주희가 편지를 보내어 규경(規警)하였으며, 뒤에 주자의 학문을 위학(僞學)으로 규정하자 오백풍은 곧바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643) 우옹이 …… 삭제했다 : 이성보는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아들인 이신보(李信甫)이다. 송나라 간신 용대연(龍大淵)·증적(曾覿)이 집권할 때에 간관(諫官)의 직에 임명되자, 주희(朱熹)가 편지를 보내어 규경(規警)하였다. 창랑은 우계(牛溪) 성훈(成渾)의 아들이자 윤선거(尹宣舉)의 외삼촌인 성문준(成文濬)의 호이다.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 성문준에게 편지를 보내어 정인홍(鄭仁弘)에 대한 처신이 분명하지 못함을 책망하자 성문준이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이 일을 주희에게 의심받던 이성보와 오백풍의 일에 비교하여 창랑의 묘갈(墓碣)에서 “이성보·오백풍도 일찍이 주문(朱門)에 의심받았으나 끝내 명인이 되었으니, 일시의 득실로 천하의 선비를 단정할 수 없다.” 하였다. 이에 윤선거(尹宣舉)가 이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일을 말한다. 《宋子大全 권36 答尹汝望吉甫, 권174 成滄浪公墓碣銘》

있었다 하더라도 글의 저작에서 삭제를 당하는 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선사께서 비록 실제적인 허물이 없다 하더라도 어찌 일찍이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무함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후세 사람들에게 오백푹처럼 글에서 삭제당하는 일을 받지 않을 줄 알겠는가? 내가 적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절교를 알리는 편지는 난만(爛漫)·참치(參差)의 말⁶⁴⁴을 위주로 하였는데, 저쪽의 제문을 해명한 문자가 무려 수만 마디였지만 끝내 한 구절도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설파한것은 없고, 단지 송조(宋朝)의 네 현인⁶⁴⁵에 대해 교묘하게 사설(辭說)을 지어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한 세대를 현혹할 계책으로 삼았으니, 단지 이것으로 보건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호남에서 음성의 오진영을 변박하고 성토했던 글은 “인허를 받으려는 의향이 있으셨다.”와 “인허를 받도록 분부하셨다.”라는 말을 위주로 하였는데, 저쪽에서 해명한 말은 무려 수만 마디였지만 끝내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설파한 것은 없고, 단지 변박하고 성토했던 사람의 신상에 나아가 교묘하게 사설을 지어 죄안(罪案)을 억지로

644) 난만(爛漫)·참치(參差)의 말 : 《간재선생문집 전편속(艮齋先生文集前編續)》 6권 <독수재윤공행장(篤守齋尹公行狀)에 “감역(監役) 김평묵(金平默)이 선사(先師)에게 바친 뇌문(誄文)은 사문(師門)의 남은 도통과 출처어묵(出處語默)이 크고 작게 어긋났다는 것을 서두로 삼고, 중국에는 문인(門人)의 크고 작은 학설이 무성하여 진실로 사문(斯文)을 이었다는 것을 곁으로 삼았으니, 선사를 유문(儒門) 밖으로 몰아낸 것이 분명하다. 나와 공이 서공(徐公) 및 여러 동문들과 함께 회의하여 그의 뇌문을 물리쳤다.[金監役平默, 致誄先師, 以師門緒餘, 出處語默, 大小參差, 做頭, 終以門人小大爛漫, 允紹斯文, 爲結語, 其驅先師於儒門之外, 明矣. 愚與公與徐公及諸同門, 會議而逐之.]”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평묵(金平默)의 《제임전재문(祭任全齋文)》에 “사문의 남은 도통과 시사(時事)의 어묵이 …… 어찌 어긋남이 없겠는가. …… 크고 작은 학설이 무성하여 진실로 사문을 이었네.[師門緒餘, 時事語默, …… 豈無參差? …… 小大爛漫, 允紹斯文.]”라는 구절을 가리키는 듯하다.

645) 송조(宋朝)의 …… 현인 : 사마광(司馬光)·윤화정(尹和靖)·호안국(胡安國)·정이(程頤)를 말한다. 김평묵은 《제임전재문(祭任全齋文)》에서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를 이 네 현인에 견주어 “윤화정처럼 사설(師說)을 굳게 지키고, 부옹(涪翁 정이)을 범삼았네. 맑은 행실과 굳은 절개는 속수옹(涑水翁 사마광)과 같고, 한 겨울 송백(松柏) 같은 기상은 강후(康侯 호안국)의 기풍이 있었네.[和靖繁守, 涪翁之則. 清修苦節, 如涑水翁. 大冬松柏, 有康侯風.]”라고 하였다.

만들고 장황하게 늘어놓음으로써 한 세대를 현혹할 계책으로 삼았다. 단지 이것만 보더라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선사께서 인허를 받도록 분부한 적이 없었다고 여기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꺼리는 것이 있어 감히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있었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런데 오진영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사실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이라는 말이 나옴에 이르러서야 호남 사람들이 겨우 고소의 재앙에서 벗어나 고개를 떨어뜨리고 기운을 잃은 채 다시는 성토했 힘이 없게 되자 이에 오진영은 다시 서병갑에게 편지를 보내어 대담하게 분명히 말없는 가르침이 있었다고 큰소리치면서 꺼리는 바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문인과 자제들이 이와 같음을 보고서 다른 사람과 화합을 잃었다는 조그만 혐의를 피하면서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큰 의리를 잇는다면 스승과 제자의 인륜은 이로부터 폐지될 것이다. 스승과 제자의 인륜이 폐지되면 삼강(三綱)과 구법(九法)⁶⁴⁶도 또한 의지하여 설 곳이 없게 될 것이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과 화합을 잃었다는 조그만 혐의를 피하면서 선사에 대한 무함을 변론하지 않는 우리 문하의 여러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해 마음속으로 송연해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가르침을 보고서도 오히려 송연해할 줄 모르다면 성인의 이른바 “나도 어찌할 수 없다.⁶⁴⁷”라는 사람일 것이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이러한데도 물리치지 않는다면 정자·주자·율곡·우암의 도는 머지않아

646) 삼강(三綱)과 구법(九法) : 삼강은 유교 사회의 기본 덕목이 되는 세 가지 강령으로, 군신 간의 도리인 군위신강(君爲臣綱), 부자간의 도리인 부위자강(父爲子綱), 부부간의 도리인 부위부강(夫爲婦綱)을 말한다. 구법은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서경(書經)》〈주서(周書)〉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한다.

647) 나도 …… 없다 : 《논어》〈자한(子罕)〉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른 소리로 깨우쳐 주는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로 잘못을 고치는 것이 귀중하다. 완곡하게 이끌어 주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궁구하는 것이 귀중하다. 좋아하기만 하고 궁구하지 않거나 따르기만 하고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도 그런 사람은 어찌할 수 없다.[法語之言，能無從乎？改之爲貴。異與之言，能無說乎？繹之爲貴。說而不繹，從而不改，吾末如之何也已矣。]” 하였다.

행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선비 된 자로서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감히 한마디 말을 꺼내어 도를 지킬 계책으로 삼지 못한다면 성현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말 것이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이 무함하는데도 물리치지 않는다면 간옹(良翁 전주(田愚))의 도는 머지않아 행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의 제자로서 그런 상황을 보고서도 감히 한마디 말을 꺼내 도를 지킬 계책으로 삼지 못한다면 이는 간옹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말 것이다.

당세의 사람들에게 죄를 얻은 것은 바로 사문의 무함을 참지 못한 때문인데, 고상한 제문(祭文)을 들추어낸 것이라 말하고 마침내 창칼의 위협을 가하며 쫓아내기를 바라는데 이르렀습니다. 【<심치대(沈致大)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한쪽 사람들에게 죄를 얻은 것은 사문의 무함을 참지 못함 때문인데, 억지로 문고를 압류한 것이라 말하고 마침내 검국(檢局)⁶⁴⁸에 고소하여 큰 재앙을 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 옛적 선사와 오늘날 소자가 만난 재앙이 똑같구나.

근세 유자(儒者)들의 의론은 사람을 무함할 때에는 성인의 문하를 어지럽히는 적도와 왕가(王家)에 재앙을 끼치는 역도로 몰고, 사람을 칭찬할 때에는 고금에 유일한 사람이며 공자나 주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우니, 나는 그러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여긴다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의 무리들은 사람을 무함할 때에는 부모를 파멸시킨 적자(賊子)와 천고(千古)의 소인(小人)으로 몰고, 오진영을 칭찬할 때에는 식견과 문장이 선사보다 뛰어나며, 또 우옹(尤翁

648) 검국(檢局) : 일제 강점기 때 검사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송시열)과 동등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추켜세우니, 이것은 미워할 만한 나쁜 습관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의(私意)와 객기(客氣)에 빠져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분별없이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한 것이니, 미워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인보(仁父)⁶⁴⁹와 이견(而見 오진영)이 나에게 출사하여 나라의 보존을 도모할 것을권면하였는데, 이것은 공업(功業)을 중시하고 도의를 꾀하지 않는 것으로, 가릉(嘉陵)의 여러 사람들⁶⁵⁰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화(華)와 경(敬) 두 아이에게 부침〉】

지난번 이견이 처음 왔을 때에 맹사간(孟士幹)의 뜻을 전하며 “아무개 어르신이 한번 일어나시면 나라 안의 선비들이 모두 메아리처럼 호응할 것입니다. 또 서울에는 아무개와 아무개가 의지할 만하고, 대궐 내에는 모궁(某宮)이 통할 만합니다.” 하기에, 내가 “사군자가 큰일을 하면서 어찌 모궁을 좇아 일을 하겠는가?” 하였다. 이견이 다시 와서 “아무개 사람이근래에 이미 머리를 깎았으니, 이는 진실로 뜻밖입니다.” 하기에, 내가 “어진 무리들이 헤아려서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이와 같으니, 진실로 가소롭다.” 하였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여기에서 오진영【이견(而見)은 그의 자이다.】이 행한 것과 선사께서 물리친 것을 보면 그의 사람됨이 어떠한가? 이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훗날 스승의 함자를 거짓으로 서명하여 멀리 있는 사람에게 투척하여⁶⁵¹ 선사로 하여금 목멜 생각을 품고서 변고를 대비하시게 한 변고를 불러오게 한 것이다. 이 일 이전에는 선사께서 때로

649) 인보(仁父) : 김사우(金思禹, 1857~1907)의 자이다. 호는 용암(勇庵)이고,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石農集 권31 勇庵金公行狀》

650) 가릉(嘉陵)의 …… 사람들 : 가릉은 지금의 경기도 가평으로, 이곳에 거주한 김평묵(金平默)과 그의 문인 유중교(柳重敎)를 말하는 듯하다.

651) 훗날 …… 투척하여 : 1919년에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뒤에 유림들이 파리 강화회의에 연명으로 장문의 글을 지어 보낼 때, 오진영이 스승인 간재에게 여기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지만 간재가 참여하지 않자 오진영이 간재의 이름을 거짓으로 서명하여 보낸 일을 말한다.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뜻을 보내셨는데, 이 일 이후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며, 또 그의 도당인 권순명(權純命)이 기록한 <치명록(治命錄)> 중에 “오이견이 끝내 일을 만들까 우려하셨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도 그의 도당은 또다시 오진영은 선사의 의발을 전수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변박하고 성토하는 것은 선사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을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는 선사께서 사람을 알아보는 명철함이 일찍부터 이미 “도의를 꺾이지 않는다.”고 배척하신 것과 “끝내 일을 만들 것이다.”고 우려하신 것에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주자의 경우도 성리(性理)의 학문이 다르다는 까닭으로 마침내 임율(林栗)의 탄핵 상소를 만났고⁶⁵², 또 육구연(陸九淵)의 문인들이 원수처럼 보는 것을 당했는데⁶⁵³, 섭씨(葉氏)가 또한 일찍이 편지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꾸짖었으나 주자는 오히려 말을 다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한즉, 모름지기 저 사람이 남과 논쟁하는 것이 공공의 도의를 논쟁하는 것인지 사사로운 생각을 논쟁하는 것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논쟁하는 이유는 묻지 않고, 오직 논쟁하는 것만을 그르게 여길 뿐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국가의 정토(征討) 및 성인군자가 스스로 정도를 지키려다 다른 사람의 험뜰음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모함에 빠지는 것과 혹 누군가 정도를 해치는 것을 보고든 조정의 반열에 있으면 탄핵하고 초야에 있으면 배척 하려다 도리어 화를 만나는 것, 이러한 것은 마치 밭의 짐승을 잡아서 마른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난 형상⁶⁵⁴과 같은 것이니,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비록 천지조화의 기운으로도 또한 음기가 지극히 성대하고

652) 주자의 …… 만났고 : 임률(林栗)은 남송(南宋)의 학자로, 시강에서 당시 병부 낭관(兵部郎官)으로 있던 주자와 《주역(周易)》과 《서명(西銘)》에 대하여 토론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자 상소하여 주자의 도학(道學)을 공격한 일을 말한다.

653) 육구연(陸九淵) …… 당했는데 : 육구연의 제자였던 조건(曹建)이 주자의 문인이 되어 육구연의 학문을 버리고 주자의 학문에 전념하다 죽자, 주희가 그의 묘표(墓表)에 육구연과 관계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인해 육구연의 문인들이 크게 노한 일을 말한다. 《宋元學案 권18 滄洲諸儒學案》

654) 마른 …… 형상 : 《주역》 <서함괘(噬嗑卦) 육삼(六三)>에 “마른 고기를 씹다가 독을 만났으니, 조금 부끄럽긴 하나 허물은 없다.[噬腊肉，遇毒，小吝，无咎.]”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심지어 양기와 다투다 둘 다 패하여 함께 손상되는 이치가 있게 됨을 면치 못한다. 기수(氣數)의 융성과 쇠퇴가 이와 같다면 인사(人事)의 옳고 그름도 또한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는가. 설사 공부자(孔夫子)께서 지금의 시대에 사신다 하더라도 아마 면치 못하실 것이다. 만약 다른 사람과 논쟁한다는 혐의를 피하고자 한다면 군부(君父)에게 예의가 없고 성인(聖人)의 도에 화를 끼치는 것을 보고서도 공격하여 성토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공격하여 성토했으므로 그와 승부를 겨룰 필요가 없다는 말을 주창하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니, 그것이 국가와 세도(世道)에 해가 됨이 어찌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보다 백배나 크지 않겠는가. 아, 애통할 따름이다. 【〈쟁유공사설(爭有公私說)〉】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청컨대 우리 동문의 여러 사람들은 시험 삼아 생각해보라. 오진영이 인허를 받도록 분부한 것으로 무함하여 선사의 도의를 잃게 만든 것이 어찌 다만 성리의 학문이 다른 까닭 정도일 뿐이겠는가. 그가 고소한 재앙이 비록 혹독하다 하더라도 문인 된 입장에서 어찌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말을 다해 변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논쟁하는 것이 공(公)인지 사(私)인지 묻지 않고, 오직 논쟁만을 그르게 여겨서야 될 뿐이겠는가. 또 시험 삼아 생각해보라. 스승은 임금이나 부모와 같지 않은가? 어찌하여 사람과 논쟁한다는 혐의를 피하고자 하여 부모와 스승에게 예의가 없고 세도(世道)에 재앙을 끼치는 것을 보고서도 공격하여 성토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굳이 공격하여 성토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주창하는 것인가? 여러 사람들이 선사의 글을 익숙히 읽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인데도 오히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매우 괴이한 일이다. 이른바 “글은 글이고, 나는 나다.”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차마 오랑캐로 변절한 진상(陳相)을 본받아 추성(鄒聖 맹자(孟子))이 배척한 사람⁶⁵⁵⁾이 되겠습니까. 또 어찌 차마 부모와 스승에게 예의가 없음을

655) 오랑캐로 …… 사람 : 유학자(儒學者)인 진량(陳良)을 스승으로 섬겼던 진상이 등(藤)나라에서 만이(蠻夷) 출신 농가자류(農家者流) 허행(許行)을 만나고서 스승의 도를 배반하고 허행의 제자가

보고서도 팔짱을 낀 채 좌시하면서 감히 쫓아내지 못하여 민옹(閔翁 주자(朱子))이 싫어한 것⁶⁵⁶을 답습할 수 있겠습니까. 【<제전재선생문(祭全齋先生文)>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의 동문 천오백 사람 중에 오랑캐로 변절한 진상과 같은 사람은 진실로 말할 것이 없거니와 부모와 스승에게 무례함을 보고서도 팔짱을 낀 채 좌시하는 자들도 또 세상에 넘쳐나니 탄식을 금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감히 옛적부터 편안하지 못한 것은 단지 선사의 말씀처럼 민옹이 싫어한 것을 행하게 될까 두려워서이다.

지금 그의 글을 보니, 곧바로 소자(小子 제자의 겸칭)를 편벽되고 방탕한 말을 하는 음란하고 사악한 도당이라고 배척하였고, 또 쫓아내야 한다고 의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만약 선생의 가르침이 소자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 비록 구황(九荒)⁶⁵⁷에 쫓겨나 죽을지언정 마음은 진실로 달고 즐겁게 여겨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금 오진영의 도당과 김세기(金世基) 무리들의 글을 보니, 곧바로 이 몸이 스승의 명을 무함하고 미혹시켜

되자, 맹자가 “나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吾聞用夏變夷者，未聞變於夷者也.]”라고 진상을 비난한 고사가 《맹자》 <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인다.

656) 부모와 …… 것 : 송(宋)나라 간신 채확(蔡確)이 거개정(車蓋亭)에서 노닐 때 <하일유거개정(夏日遊車蓋亭)> 10수를 지은 일이 있었는데, 오처후(吳處厚)가 이 시는 선인황후(宣仁皇后)를 무방(誣謗)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공격(攻斥)하여 문언박(文彦博)이 채확을 영교(嶺嶠)로 내쫓으려 하자, 범순인(范純仁)이 문자를 들추어내는 것은 성대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고 말리면서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는 속담을 소홀히 하고, 받는 대로 돌려주기를 좋아한다는 경계를 위배하면 스스로 재앙과 실패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논한 것에 대해 주자가 “만약 후세에 군친(君親)에게 예의가 없음을 보고서도 팔짱을 낀 채 좌시하면서 쫓아내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이 말 때문일 것이다. [使後世見無禮於君親者，拱手坐視而不敢逐，則必此言之爲也.]”라고 비판한 내용을 가리킨다. 《朱子大全 권37 答鄭景望》

657) 구황(九荒) : 천하를 상징하는 구주(九州)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세상 끝을 비유하는 말이다.

남에게 억지로 죄를 씌우는 간흉(奸凶)이며, 상도(常道)를 어지럽히고 예의가 없는 패악한 무리라고 배척하였다. 또한 이미 검사국에 고소당하는 재앙까지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살아났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만약 선사의 도가 소자로 말미암아 떨어지지 않게 된다면 비록 죽더라도 후회가 없을 것이니, 또한 선사께서 당시에 전용(全翁 임헌회)에게 도리를 다한 마음과 같을 뿐이다.

오늘날 선비들이 대부분 묘적(墓籍)의 등록⁶⁵⁸⁾을 인허 받는 것을 명예와 절개를 손상시키는것으로 여겨 기꺼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절개를 위해 부조(父祖)의 유해(遺骸)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인정과 천리에서 마땅히 나올 바가 아닌 듯합니다. 그들이처음에는 우리 산 사람을 능멸해 죽일 것이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끝내는 반드시 묘를 파서 옮길 것입니다. 일단 묘가 파괴된다면 그 재앙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大典)》에 “시체를 더럽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죄가 같다.”고 하였으니, 자손이 묘적을 등록하지 않아 시체의 혼백으로 하여금 헤아릴 수 없는 변고를 당하게 한다면 이는 부조가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차마 할 수 있겠습니까. “통분을 참고 원한을 머금은 채 절박하여 마지못해 산다.⁶⁵⁹⁾”는 남긴 가르침을 마지못해 사용한 것입니다. 【〈송회연(宋晦淵)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이 매년 선사께서 묘적의 등록을 인허 받으신 것을 문고를 인허 받도록 한 가르침의 증거로 삼으니,

658) 묘적(墓籍)의 등록 : 일제 강점기 때 묘지대장인 묘적계등본(墓籍屆謄本)에 올리는 것을 가리킨다. 분묘의 위치, 사망자의 씨명(氏名), 사망년월일, 제주(祭主)의 주소와 씨명, 참고사항 등 묘지에 관한 제반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묘지 약도가 그려져 있다. 일제 통감부는 1912년에 식민지배와 경제적 수탈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 조사령(土地調査令)을 반포하면서 선조의 무덤에 대해서도 묘적을 등록하도록 강요했다.

659) 통분을 …… 한다 : 주희(朱熹)의 <여진시랑서(與陳侍郎書)>에 나오는 말이다. 남송(南宋)이 금(金)나라의 침략에 굴복하여 화친을 구걸하고 복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한 말이다. 《朱子大全 권24 與陳侍郎書》

이것이 어찌 온당한 것이겠는가. 묘적을 등록하지 않는 재앙은 부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됨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고는 간행하지 않고 필사하여 보관해두면 아무런 일이 없을 따름이니, 어찌 이른바 “부조가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다.”는 재앙이 있겠는가. 그가 억지로 끌어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진실로 그의 정상인데, 사람 중에 그의 말에 현혹되어 분별할 줄 모르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 매우 가소롭지 않은가.

질문하신 “제가 죽은 뒤에 누가 도를 전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저 스스로도 소견이 없는데, 다른 것이야 다시 어찌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정문(程門)의 제자들에 대해서 회옹(晦翁 주희(朱熹))은 그들이 스승을 배반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말하였으니 도를 전수하는 어려움이 심하다 하겠습니까. 병암(炳庵)⁶⁶⁰이 병이 없었을 때에 저는 그의 학문이 깊고 식견이 바르며, 지조가 굳고 덕이 두터워 위로 전옹(全翁 임헌회)의 실마리를 이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벼이 불행하게도 갑자기 저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중에는 아직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 구구한 제가 선숙(禪宿)⁶⁶¹의 눈물을 감당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노인오(盧仁棼)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여기에서 사람의 죽음을 애도함에 얼마나 말이 비통하고 슬픈가. 도를 전할 사람이 없음을 근심함에 얼마나 말이 심각하고 절실한가. 바로 공자가 안연(顏淵)을 잃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⁶⁶²”와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660) 병암(炳庵) : 김준영(金駿榮, 1842~1907)의 호이다. 자는 덕경(德卿)이고, 본관은 의성(義城)이며, 전우(田愚)의 문인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61) 선숙(禪宿) : 학식이 높은 노숙한 선승(禪僧)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서는 편지의 수신자인 노인오(盧仁棼)를 가리킨다.

662) 학문을 …… 못했다 : 《논어》〈용야(雍也)〉 애공문(哀公問)장에 나오는 말이다. 애공(哀公)이 제자들 가운데 누가 학문을 좋아하는지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안회라는 자가 학문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아직 학문을 좋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有顏回者,

하였다.⁶⁶³⁾”라는 탄식을 한 것과 천고토록 똑같은 심정일 것이다. 그런데 오진영은 어찌하여 차마 진본(晉本)⁶⁶⁴⁾에서 이것을 삭제해 없애버린 것인가. 아, 불인(不仁)함이 심하다. 일찍이 삼천(三千)의 제자들이 애공문(哀公問)과 안연사(顏淵死) 등의 장을 《노론(魯論)》⁶⁶⁵⁾에서 삭제해 없앴다고 하던데, 이런 이치가 있어서인가? 또한 큰 변고라 이를 만하다.

선사께서 신장(愼狀)⁶⁶⁶⁾을 삭제하도록 명하신 뜻은 글이 사실과 어긋났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단지 본가(本家)에서 글과 편지를 받고 답장이 없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네. 존선사(尊先師) 서(徐) 어른⁶⁶⁷⁾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우리 외가(外家)가 신원(伸冤)된 뒤 첫 유현(儒賢)의 글이기에 후대에 전하지 않을 수 없는것인데, 어찌 감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외가(外家)가 가난이 심하여 예물 없이 편지만으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어렵게 여겼기에 이 때문에 오래도록 답 장을 보내지 못했던 것이네. 선사께서 세상에 살아 계셔서 이런 곡절을 아뢰었다면 어찌 허락하지 않았겠는가. 이 때문에 눈물이 흐른다네.”하셨네. 내가 그 분의 효심을 중시하여 속편(續編)에 넣기로 논의하였는데, 서 어른께서 나로 하여금 원편(原編)에 넣을 것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신 것이네. 【임윤만(答任

好學，不遷怒，不貳過，不幸短命死矣。今也則亡，未聞好學者也。】 하였다.

663) 아 …… 하였다 : 《논어》〈선진(先進)〉 안연사(顏淵死)장에 나오는 말이다. 안연(顏淵)이 죽자, 공자가 말하기를, “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다.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였다.[噫，天喪予，天喪予。]” 하였다.

664) 진본(晉本) : 1926년 10월에 오진영(吳震泳)과 김정호(金楨鎬) 등이 진주(晉州)에서 활자(活字)로 간행한 간재의 문집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665) 노론(魯論) : 《노논어(魯論語)》를 말한다. 이것 외에《제논어(齊論語)》, 《고문논어(古文論語)》 등이 있는데, 현재 전해지는 《논어》는 《노논어》에 기초한 것이다.

666) 신장(愼狀) : 신의목(愼宜默, 1768~1821)의 행장(行狀)인 〈석성현감신공행장(石城縣監愼公行狀)〉을 말하는 것으로, 《고산집(鼓山集)》에 실려 있다.

667) 서(徐) 어른 : 서정순(徐政淳)을 말한다. 임헌회(任憲晦)의 문인으로, 신의목의 외손자이고, 임헌회의 맏아들 임진재(任震宰)의 장인이며, 둘째 아들 임감재(任坎宰)의 스승이다. 전우(田愚)와 함께 《고산집(鼓山集)》 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문집총간 고산집 해제》

潤萬)에게 답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신장은 전용(全翁 임헌회)께서 임종하실 때에 삭제토록 명하신 것인데, 선사께서 《집촉록(執燭錄)》⁶⁶⁸⁾에 실어 놓으신 것은 오히려 부득이한 사정 때문이었고, 논의하여 속편(續編)에 넣으셨다가 뒤에 또 결국 원편(原編)에 넣으셨다. 그런데 음성의 오진영은 도리어 선사께서 손수 교정하신 신도비(神道碑)⁶⁶⁹⁾를 바꾸어 묘갈(墓碣)로 고쳐 일컬으면서 이는 국전(國典)에 있다고 하였지만 끝내 국전에서 보지 못했다. 여기에서 타고난 천성이 괴이하고, 일 처리가 망령된 것이 원래 보통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전을 빌려 핑계를 대며 사람을 압도할 구실로 삼은 악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유상준(柳相俊) 군이 영형(令兄) 동만(動萬)⁶⁷⁰⁾과 사사로이 상의하여 결정하고 마침내 초고(草稿)를 사사로이 판각하여 덕이 높은 어른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게 했으니, 이것이 무슨사체(事體)인가? 비록 전에 정한 간행소의 공임(公任)과 장재(掌財)를 그대로 따랐다고 하지만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몰래 간행한 것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네. 서 어른께서 그 소식을 듣고 전담 심부름꾼을 통해 편지를 보내어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따르지 않자 어쩔 수 없이 통문을 발송하여 성토했던 것이었네. 【편지를 보내 중지시켰으나, 따르지 않은 뒤에야 성토했었으니, 또한 인의(仁義)가 함께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선사께서는 전재(全齋) 문하의 여러 공들이 선사의 유고를 사사로이 간행하려 했던 유경당(柳敬堂 유상준)을 성토했던 일에 대해 마지못해 한 것이라 하셨고, 다시 “편지를 보내 중지시켰으나, 따르지 않은 뒤에야 성토했었으니 인의(仁義)가 함께 행해졌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668) 집촉록(執燭錄) : 《성전집촉록(星田執燭錄)》을 말한다. 1876년 임헌회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죽은 뒤의 일에 대해 전용(田愚)에게 당부한 것을 기록한 글이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669) 신도비(神道碑) :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를 말한다.

670) 동만(動萬) : 임헌회의 맏아들 임진재(任震宰)의 호이다.

것이 이와 같다. 오진영이 선사의 절개를 무함한 경우는 선사의 유고를 사사로이 간행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죄가 백배가 될 뿐만이 아닌데, 또한 편지를 보내 고치도록 권면하자, 사양하고 따르지 않은 뒤에야 성토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한쪽의 의론은 인의를 함께 행하였다고 칭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중(過重)함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기까지 하는 것인가? 매우 괴이하다.

두 공으로서도 형편없는 사람이면 선사께서 못 사람 중에서 두 공을 가려 뽑아 그들을 고제(高第)의 제자로 세운 것이 어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을 하신 것이 되지 않겠는가.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의 도당들이 선사의 이 편지를 인용하여 오진영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배척하는 것은 선사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으로 귀결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유사함을 모르는 것이다. 오진영은 이미 스스로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쳤으며, 사림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압송하였으며, 누구의 집이나 비추는 해⁶⁷¹⁾를 떠받드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찌 사람이 그를 배척하기를 기다린 뒤에야 형편없는 사람이 되겠는가. 설사 그들의 말처럼 선사께서 못 사람 중에서 가려 뽑았다 하더라도 제요(帝堯)는 송곤(崇鯀)을 가려 뽑았고⁶⁷²⁾, 주공(周公)은 관(管)·채(蔡)를 가려 뽑았지만⁶⁷³⁾ 모두 사람을 알아보지

671) 누구의 …… 해 : ‘누구의 집이나 해와 달이 비추네.[誰家日月照臨]’의 줄임말로, 세상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음을 비유한 말이다. 《후창집》 권14 <독송자대전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오진영이 크게 쓰고 특별하게 써서 말하기를,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왕래하고, 차표와 편지에 도장이 찍히며, 누구의 집이나 해와 달이 비추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震大書特書曰: ‘囊中紙貨往來, 車票書詞附印, 誰家日月照臨.’ 此豈非戴日本者乎?]”라는 구절이 보인다.

672) 제요(帝堯)는……뽑았고 : 송곤(崇鯀)은 송백(崇伯)에 봉해진 곤으로, 요 임금의 신하이며, 우왕(禹王)의 아버지이다. 요 임금 때에 홍수(洪水)가 나자 그에게 다스리게 하였는데, 9년이 되어도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書經 堯典》

673) 주공(周公)은……뽑았지만 : 관(管)·채(蔡)는 주 무왕(周武王)의 동생이자 성왕(成王)의 숙부인 관숙선(管叔鮮)과 채숙도(蔡叔度)를 말한다.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成王)이 즉위한 뒤에 주공이 섭정할 때에 그들을 관(管)과 채(蔡)에 봉하여 상(商)나라 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감독케 하였는데, 관숙선과 채숙도는 ‘주공이 어린 왕에게 나쁜 일을 저지를 것이다.[公將不利於孺子]’라는

못한 것에 귀결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선사께서 일찍이 도의를 헤아리지 않는다고 배척하신 적이 있고, 다시 말년에 그가 끝내 일을 만들까 우려하신 적이 있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선배들은 다른 사람의 악(惡)을 말하고 다른 사람의 선(善)을 말하지 않는 것을 천지가 만물을 성장시키는 마음과 서로 같지 않다고 여겼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만한 재물이 없으니, 우선 다른 사람의 선을 즐겨 말하고 다른 사람의 악을 드날리지 않는 것이 만물을 성장시키는 천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도와주는 것이네. 지금 우리들은 다시는 더불어 성리(性理)에 대해 말하지 말고, 망령되고 잘못된 심술과 언행은 털끝만큼도 입과 붓끝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이니, 이것이 심제(心弟)가 성사(性師)를 배우는 도이네. 나는 여기에서 이견(而見) 그대가 식견이 있는지 식견이 없는지, 덕이 있는지 덕이 없는 지를 증험하려고 하니, 이견이여, 이견이여, 공경히 듣고 삼가 지키게나. 【나는 본성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그대의 마음에 합당할 만한 것이 있지 않지만 이 한 마디 말은 이견 그대가 평생 스승으로 삼아도 무방할 것이네. 분수에 넘는 말을 했으니, 나의 죄를 잘 알고 있네.<오진영(吳震泳)에게보냄>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것은 선사께서 오진영에게 보내는 편지이다. 편지 끝과 소주(小註)의 말로 보건대 그를 염려하심이 깊고, 그를 경계하심이 절실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기꺼이 살펴 들어 공경히 따르지 않고 끝내 훗날 무한한 번고를 만들어낸 것인가? 또 진인(晉印)⁶⁷⁴⁾ 중에 이견(而見)을 두 번 부른 것과 소주 여덟 글자를 삭제한 것에서도 또한 그가 기쁘게 듣지 않았던 마음을 볼 수 있다.

내 스스로 정력을 헤아려보건대 세상에 오래있을 사람이 아니네. 평생 이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란을 일으켰다. 《書經 周書·金縢》 《史記 卷35 管蔡世家》

674) 진인(晉印) : 1926년에 문인 오진영(吳震泳)과 김정호(金楨鎬) 등이 진주(晉州)에서 간재의 문집을 활자(活字)로 간행한 진주본(晉州本)을 말한다.

것들이 전부 변변찮아서 일컬을 만한 것이 있지 않고, 오직 진심으로 소중히 여긴 것이 ‘성(性)’ 한 글자에 있기에 감히 못사람을 따라 깎아내리지 않았다네. 이로 인해 당시 유림(儒林)에 죄를 얻음이 바로 수미산(須彌山)처럼 높았지만 또한 끝내 원망과 후회가 없음은 서로 따르는 여러 군들이 들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네. 내 마음을 전적으로 그대 이견에게 부탁하니, 힘을 다해 주지(主持)하고, 매우 공경하고 삼가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면 노부의 눈이 감길 수 있을 것이네. 기미년(1919) 3월 상순(上旬) 79세에 계화도에 은둔하며 지내는 병든 늙은이가 공경히 말하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은 이 편지 중에 이견에게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문고에서 편지의 년월을 갖추어 쓴 것은 특별한 예에서 나오는 일이다 하여 의발을 전수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 또한 그를 경계한 말이고, 그를 인정한 말은 아니다. 또한 선사의 함자를 위조해 서명하여 선사로 하여금 목을 맬 생각을 하시게 했던 사건 전이었고, 그 뒤로 삼사 년의 오랜 세월이 이르도록 다시는 이 편지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글이 없었으며, 게다가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 “아무개가 일의 공적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과 권순명(權純命)의 <치명록(治命錄)>에 “이견이 끝내 일을 만들까 우려된다.”는 말씀이 있으니, 이 편지를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권순명은 그의 당인데도 오히려 이러한 기록을 두었으니, 더욱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 만약 이런 기록이 이쪽에서 나왔다면 그가 또 선사의 명을 무함하고 현혹했다고 말하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는가.】

집안사람 중에 아버이를 죽인 사람이 있다면 어찌 다시 집안사람으로 그를 대우할 수 있겠는가.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 또한 감히 말한다. “동문 중에 인허를 내라고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하여 대의(大義)를 더럽힌

사람이 있다면 어찌 다시 동문으로 그를 대우할 수 있겠는가.”

내가 신(申)과 절교한 것으로 신의 무리에게 무함을 받은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김의형제는 귀가 막히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아니면서 어찌하여 듣지 못한 것인가? 【<최병심(崔秉心)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이미 연서(聯書)로 김용승(金容承)과 절교하고, 또 그의 <고현천문(告玄阡文)>⁶⁷⁵을 변론하였다. 또 박진호(朴震鎬)에게 말하여 그 조부(祖父)의 글을 받지 말게 하여 박진호의 의심과 노여움을 받고 김용승의 무리인 박인규(朴仁圭)에게 무함을 당하는데 이르렀다. 이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오진영의 무리는 도리어 나를 김용승과 일당이 되었다고 단죄하고, 연서로 절교한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니, 매우 가소롭다. 이것은 진실로 그의 무리들이 비록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하였으니, 오직 사람을 밀쳐내는 일생의 장기(長技)이다.

김평묵(金平默)이 나의 제사문(祭師文)을 본 것이 병자년(1876, 고종13) 계동(季冬 12월)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리(文理)에 통달하지 못해 그것이 신기(新奇)한 것을 만들어 내고어려운 일을 구차하게 해내는 것인 줄 몰랐다가 정축년(1877)에 자신의 뇌문(誄文)이 물리침을 당한 뒤에야 문리에 비로소 통달하여 그것이 세 정승과 여섯 현인을 배척한 것임을 활연하게 깨달았던 것인가요? 그렇다면 나의 크나큰 죄는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를 공격한때에 있지 않고, 김평묵의 제문을 받지 않은 날에 있습니다. 【<아무개에게 보내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전(傳)·표(表)의 일로 오진영과 서로 관련된 것이 임술년(1922) 겨울이었다. 내가 만약 선사의 명을 현혹하려다 그의 다스림과 바로잡음을 받았다면 이 당시에 어찌하여 한 마디 하문(何問

675) 고현천문(告玄阡文) : 김용승(金容承)이 간재 묘소에 올린 <망고현천문(望告玄阡文)>을 말한다.

혈문(詰問)은 없고, 반대로 앞뒤의 논설이 다르다 하여 스스로 송구스럽다는 편지가 있고, 이어 갑자년(1924) 가을에 그의 선사에 대한 무함을 성토했던 뒤에야 비로소 명을 현혹시켰음을 깨닫고 그것을 단죄한 것인가? 그렇다면 나의 죄는 명을 현혹한 때에 있지 않고, 오진영을 성토했던 날에 있는 것이다. 병자년(1936) 여름 김세기(金世基)의 흉문(凶文)에 이르러서는 명을 현혹한 것이 또 선사를 무함한 것으로 바뀌었으니, 아, 선사를 무함하여 다른 사람의 성토했던 사람이 도리어 자신을 성토했던 자가 선사를 무함한 것이라고 말하니, 이는 도둑질해 놓았다가 주인이 찾아서 가지고 감을 당한 도둑이 도리어 주인이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선비들이 저 일본에게 청원하여 교궁(校宮 향교(鄕校))를 보존하고 오히려 스스로 성현을 높인 공으로 자처하니, 매우 부끄러움이 없다고 이를 만하다. 【〈화도만록(華島漫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교궁을 보존하는 것과 자기의 문고를 간행하는 것 중에 그 경중(輕重)과 대소(大小)가 과연 어떠한가? 선사께서 저 일본에게 청원하여 교궁을 보존하는 것을 오히려 매우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저 일본에게 청원하여 자기의 원고를 간행하여 매우 부끄러움이 없는 행위를 무릅쓰려고 하시겠는가. 흉악하고 흉악하도다. 무함하는 자의 말이며.

주자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만약 고상하고 신묘한 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인이 그것을 숨긴다면 이는 성인이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니, 불충(不忠)과 불신(不信)을 성인이 제일 먼저 범한 것이다.” 하였네. 【〈정세구(鄭世求)에게 답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주자의 이 말은 성인은 숨김이 없다는 것을 심하게 말한 것이다. 오진영은 자신을 성토했던 글 중에 선사께서 혼자 있을 때 명한 일이 없음을 심하게 말한 “만약 일을 비밀리에

해야 해서 몰래 한 사람에게 부탁하셨다고 한다면 이는 심술(心術)과 견식(見識)이 모두 매우 우매한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선사를 논박(論迫)하는 패악한 말이라 단죄하였고, 선사께서 인허를 받으라는 분부가 없었음을 심하게 말한 “선사께서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이는 두 마음을 품고 불충(不忠)을 반복하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위로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언급한 것이라 단죄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또한 주자의 이 말에 대해 논박하는 패악한 말이 위로 성인에게 미쳤다고 할 것인가?

한 가문을 일망타진하는 것은 아주 악랄한 소인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지 않을 것이네. 오늘날과 후세 사람들이 이견을 소인이라 이른다면 그대는 의심할 것이 없는 군자이네. 그렇지 않다면 그대가 어느 곳으로 가서 발을 붙이겠는가?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만약 선사께서 세상에 살아계셔서 오진영이 59명을 전주(全州) 검사국(檢事局)에 고소하고, 사손(嗣孫)을 진주서(晉州署)에 압송해 가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셨다면 반드시 이 말로 정세영(鄭世永)을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용흥(隆興) 초에 화의(和議)⁶⁷⁶가 결정된 뒤에 한무구(韓無咎) 한원길(韓元吉)·이덕원(李德遠)⁶⁷⁷이 모두 지킬 바를 잃었는데, 오직 왕가수(王嘉叟) 등 여러 사람만이 오히려 정론(正論)을 견지하였으니⁶⁷⁸, 선생이 위원리(魏元履)⁶⁷⁹에게 보낸 편지에 보인다. 【<주자대전표의(朱子大全標疑)>】

676) 용흥(隆興) …… 화의(和議) : 용흥은 남송(南宋) 효종(孝宗)의 연호(1163~1164)이며, 화의는 금(金)나라의 요청에 응해 맺은 강화(講和)를 말한다.

677) 이덕원(李德遠) : 송(宋)나라 문신 이호(李浩, 1116~1176)로, 덕원은 그의 자이다. 건창(建昌) 사람으로, 소흥(紹興) 고종(高宗) 연호 12년(1142)에 진사(進士)에 급제하여 태상승(太常丞), 사농소경(司農少卿), 이부시랑(吏部侍郎), 태상시주부(太常寺主簿) 등을 지냈다. 《宋史 권388 李浩列傳》

678) 오히려 …… 견지하였으니 : 저본에는 ‘尙指持正論’로 되어 있으나, 《간재선생문집 후편(艮齋先生文集後編)》 권21 <주자대전표의제일(朱子大全標疑第一)>에 근거하여 ‘指’를 ‘持’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679) 위원리(魏元履) : 송(宋)나라 문신 위섬지(魏揆之, 1116~1173)로, 원리는 그의 처음 자이다. 자는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한무구·이덕원은 모두 당시 명망을 지닌 사람임에도 또한 절개를 잃게 됨을 면치 못하고, 유독 왕가수 한 사람만이 있었으니, 나 택술은 오늘날 영남과 호남의 의론에서 진실로 느끼는 바가 있다. 아, 주자가 아니면 어느 누가 홀로 정론을 지키는 것이 귀중한 일인 줄 알겠는가.

나라가 이미 망하고 임금이 이미 폐해졌으니, 신하가 장례를 치르면서 어찌 길흉을 논하겠는가. 자손과 문학생들은 단지 다툼이 없는 땅을 구하여 매장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효도이며 도의(道義)이다. 【다른 사람과 뒷자리로 송사를 벌여 저 일본에게 나아가 판결하는 것이 어찌 아버지와 스승에게 욕을 끼치는 죄가 아니겠는가.<경구에 부치고 아울러 제생에게 보이다[寄敬九并示諸生]>】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선사께서는 이미 뒷자리로 송사를 벌여 저 일본에게 나아가 판결하는 것을 아버지와 스승에게 욕을 끼치는 죄로 여기셨으니, 어찌 문고를 간행하기 위해 저 일본에게 나아가 청원하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허를 낼 생각을 하시고 인허를 내는 분부를 하셨겠는가. 이것이 일찍이 문고의 간행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유서(遺書)를 남기신 이유이다.

《송자대전》을 읽고 느낌이 있어 표출하고 삼가 안설을 붙이다 【1938년】

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戊寅】

하늘에는 음(陰)과 양(陽)이 있고, 땅에는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이 있으며, 사람은 군자와 소인이 있으니, 사방의 만물은 종류에 따라 모이고

자실(子實)이고, 호는 간재(艮齋)이다. 건양(建陽) 사람으로, 호헌(胡憲)에게 사사하였으며, 주희(朱熹)와 교류하였다. 《宋史 권459 魏拔之列傳》

무리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이 갈려 나누어진 뒤에는 이쪽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모두 옳은 것도 아니고, 저쪽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모두 그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돕고 그른 것을 억제하는 도리에있어서는 엄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원우(元祐)의 제현(諸賢)이 채확(蔡確)을 억제할 수 없을까 걱정하여 그의 시구(詩句)로 죄를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한 것같지만 주자(朱子)가 그다지 그르게 여기지 않고 도리어 범충선(范忠宣)을 옳지 않다고 여겼던 것은 어찌 선악의 큰 구분이 이미 정해진 까닭에 주선하는 도리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⁶⁸⁰ 【〈안은봉(安隱峯)에게 올림〉】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음성 오진영은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쳐 사림에 재앙을 준 사람이고, 호남 사람은 무함을 변론하고 문고를 바로잡다 재앙을 입은 사람이니, 선악의 큰 구분이 이미 정해졌다. 그런데 설자(說者)들은 오히려 “호남이 반드시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영남이 반드시 다 그른 것도 아니다.”고 하니, 대체로 우옹(尤翁)의 이 의리를 모르는 것이다.

오늘날 의론하는 사람들이 “저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감히 운선거를 공격하는 것인가?”라고 한다면 신도 또한 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주자가 말하기를, “사특한 말로 정도를 해치면 누구나 공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성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의 행위도 또한

680) 원우(元祐)의……아니겠습니까 : 원우는 송(宋)나라 철종(哲宗)의 연호로, 조모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수렴청정을 했던 시기이다. 제현은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반대하고 사마광(司馬光)의 구법(舊法)을 지지했던 문인(文人)과 학자들을 말한다. 채확(蔡確)은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적극 지지했던 인물로, 일찍이 안륙현(安陸縣)에 있는 거개정(車蓋亭)에서 노닐 때에 “높도다 이름난 신하 학증산이며, 상원 연간에 말은 충직했고 지조는 곧았네(矯矯名臣郝龜山, 忠言直節上元間.)”라는 시구를 지어, 선인태후를 축천무후에 비하고, 자신을 축천무후(則天武后)를 세우도록 간하여 정권을 잡은 학처준(郝處俊) 증산(龜山)은 봉호임))에 가탁하였다. 이에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 범조우(范祖禹), 우정언(右正言) 유안세(劉安世) 등이 이 시구를 논박하여 그에게 죄를 물어 귀양 가게 했는데, 범순인(范純仁) 충선(忠宣)은 시호임이 귀양은 너무 지나친 일이라고 말하여 채확을 구원하려고 하자, 주희가 그를 비판하여 “훗날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계책이다.”고 하였다. 《宋史 권471》《宋子大全隨劄 권3》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上疏)〉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늘날 의론하는 사람들도 또한 말하기를, “김택술 그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노성(老成)하여 명망을 지닌 오진영을 공격하는 것인가?” 하였다. 대저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친 것이 어찌 사특한 말로 정도를 해친 것을 사람이면 누구나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사문의 제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찌하여 우옹의 말에 조금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인가.

설사 신의 이런 뜻이 폄악(貶惡)을 감추고자 하는 말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양호(陽虎)가 말하기를, “부자(富者)가 되려면 인(仁)을 행하지 못하고, 인을 행하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⁶⁸¹⁾ 고 했습니다. 양호의 의도가 진실로 부자가 되려는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가 인을 행한다는 말은 진실로 천리(天理)입니다. 그런 까닭에 맹자가 특별히 취하여 표장(表彰)한 것입니다. 저 무리들이 과연 효묘(孝廟 효종)의 덕이 참으로 세실(世室)⁶⁸²⁾로 삼기에 마땅하다고 여겼다면 어찌 감히 이런 의론이 신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말하며 배척할 수 있었겠습니까?⁶⁸³⁾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논자(論者)들이 또 말하기를, “모(某)가 오진영을 배척한 것은 혐의를 꾸미려는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나는 오진영에 대해 본래 혐의할 만한 것이 없으니, 이는 진실로

681) 부자(富者)가 …… 못한다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나오는 말로, 맹자가 등 문공(滕文公)에게 나라 다스리는 법을 설명하면서 인용한 말이다.

682) 세실(世室) : 공덕(功德)이 있는 임금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지 않고 대대로 종묘(宗廟)의 신실(神室)에 봉안하는 것을 말한다. 1683년(숙종9)에 당시 영종추부사였던 송시열은 명(明) 나라에 대한 의리를 드러내고자 친진(親盡)에 이르지도 않은 효종의 신실(神室)을 세실로 삼도록 상소하여 숙종이 허락한 일이 《국역 숙종실록》 9년 2월 21일 기사에 보인다.

683) 저 …… 있었습니까 : 세실(世室)은 공덕(功德)이 있는 임금의 신주를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지 않고 대대로 종묘(宗廟)의 신실(神室)에 봉안하는 것을 말한다. 1683년(숙종9)에 당시 영종추부사였던 송시열은 명(明) 나라에 대한 의리를 드러내고자 친진(親盡)에 이르지도 않은 효종의 신실(神室)을 세실로 삼도록 상소하여 숙종이 허락한 일이 《국역 숙종실록》 9년 2월 21일 기사에 보인다.

전혀 온당하지 않는 것이다. 설사 그러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선사를 위해 무함을 변론하는 것은 진실로 천리이다. 논자들이 과연 선사에 대해 인허를 낼 의향과 인허를 내라는 분부가 없다고 여겼다면 어찌 감히 이런 변론이 나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그 말을 아울러 폐기할 수 있겠는가.

삼가 듣건대 근래에 헌신(憲臣)이 소를 올려 이이(李珥)가 머리를 깎았다는 설을 제기하면서 김장생(金長生)을 끌어다 증거로 삼았다⁶⁸⁴)고 합니다. 신도 또한 일찍이 고(故) 문충공(文忠公) 신(臣) 장유(張維)의 문집(文集)에 고(故) 지사(知事) 신(臣) 조위한(趙緯韓)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⁶⁸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과연 신의 스승이 운운한 바가 있었다고 하는데, 신은 이에 대해 항상 매우 의아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장유는 김장생의 뛰어난 제자인데, 그가 조위한의 말을 듣고서 어찌하여 김장생을 위해 그것이 무함을 통렬하게 변론하지 않고, 단지 이이만을 위해 조목조목 나누어 해명했겠습니까.

설사 이이가 참으로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또한 김장생은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물며 전혀 그런 일이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옛적에 섭공(葉公)이 말하기를, “우리 무리에 몸가짐을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그것을 증언했다.” 하니, 공자가 말하길, “우리 무리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 다르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숨겨 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 주니, 정직함은 그 가운데 있다.” 하였습니⁶⁸⁶). 가령 김장생이 그런 말을 했다면 아버지가 양을 훔친 것을

684) 헌신(憲臣)이 …… 삼았다 : 헌신은 홍수주(洪受疇: 1642~1704)를 가리킨다.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이이(李珥)와 송익필의 문인이며,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과 노론계 인물들의 스승이다. 이 상소는 《숙종실록》 권16 11년 5월 26일 3번째 기사에 보인다.

685) 고(故) …… 것 : 《국역 계곡만필》 제2권 <세상에서 울곡이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世傳栗谷剃髮者妄也]>에 “조 승지 지세(趙承旨持世 지세는 조위한(趙緯韓)의 자(字)임)가 나에게 말하기를, ‘울곡(栗谷)이 입산(入山)할 때에 머리를 깎았다고 말하는 이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도 있기에, 내가 일찍이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호임)에게 물어 봤더니, 사계는 머리를 깎은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 하였다.” 라는 내용이 보인다.

686) 옛적에……하였습니⁶⁸⁶)다 : 《논어》 <자로(子路)>에 나오는 말이다.

증언한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또 헌신(憲臣)이 장유의 설을 인용하여, “머리를 깎은 일은 행적이 확실하지 않아 변론할 것도 못 된다. 그런 까닭에 김장생도 또한 그 일을 말한 것이다.” 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하여 또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깎지 않은 실상을 상세히 진달했다.”고 말했겠습니까. 여러 신하들이 머리를 깎지 않은 실상을 상세히 진달했는데, 김장생만은 그 일을 말했다고한 것은 또한 무슨 마음일까요? 신은 내심 김장생을 위해 원통하게 여깁니다. 고명(高明)한제자로서 그 일을 증언했다면 이이가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끝내 변론할 수 없게 될 것이니, 이이가 당한 무함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암(尤庵)은 울곡(栗谷)이 머리를 깎았다는 무함과 사계(沙溪)가 스승이 머리를 깎았음을 증언했다는 무함에 대해 입이 고달프도록 변론하여 밝혔고, 심지어 이처럼 임금에게 아뢰는 글까지 있었다. 이것을 끌어와 오늘날 우리 문하의 일을 논한다면 변론을 기다릴 것도 없이 절로 분명하다. 설사 간옹(艮翁 전우(田愚))께서 참으로 인허를 내도록 분부하셨다 하더라도 오진영은 그것을 증언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전혀 그런 분부가 없음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오진영은 오히려 강력하게 그것을 증언하기를, “죽음에 이를지언정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는 아버지가 양을 흠치지도 않았는데 그 자식이 흠쳤다고 증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를 깎는 일은 당시에 행적이 확실하지 않아 변론할 것이 못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우옹은 오히려 이와 같이 말했는데, 하물며 인허를 내도록 분부하셨다는 말은 대의(大義)에 관계된 것임에랴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아, 오진영은 한쪽에서 일컫는 고명한 제자인데, 고명한 제자로서 증언했다면 간옹께서 인허를 내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은 끝내 변론할 수 없게 될 것이니, 간옹께서 당한 무함이 얼마나 혹독하겠는가.

옛적에 범조우(范祖禹)는 이천(伊川 정이(程頤))을 순전한 스승으로 섬긴 것은 아니었지만, 이천이 무함을 당했을 때에 범조우가 즉시 변론하여

바르게 하지 않자, 주자가 오히려 이를 꾸짖었습니다.⁶⁸⁷⁾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순전한 스승으로 섬긴 분이 아니었는데도 주자는 오히려 즉시 변론하여 바르게 하지 않았다 하여 꾸짖었다. 오늘날 간옹을 순전한 스승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도리어 해가 갈수록 스승의 무함이 더욱 깊어지는데도 끝내 변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변론하여 바르게 하는데 종사하는 동문을 꾸짖으니, 주자에게 죄를 얻음이 도리어 어떠한가.

천지 사이에 음(陰과 양(陽) 두 사물은 서로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군자가 있으면 반드시 소인이 있고, 바른 의론이 있으면 반드시 샅된 의론이 있으니, 그 강약(強弱)과 승부(勝負)의 형세는 서로 갈마들고 변화하여 군자와 바른 의론이 반드시 약해지고 지게 되며, 소인과 샅된 의론이 반드시 강해지고 이기게 됩니다. 이것이 소자(邵子)의 시에서 이른바 “양은 하나이고 음은 둘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이른바 “다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해지고 졌던 것이 항상 펴지고, 강하고 이겼던 것은 반대로 굽혀지게 되니, 이 또한 필연(必然)의 이치입니다. 대저 이른바 “다하여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도는 오르내림이 있고, 운행하는 기운은 오르고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펴져야 할 것이 크게 펴지지 못하고, 굽혀져야 할 것이 반드시 완전하게 굽혀지지 않으니, 이 또한 이치가 간혹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이 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진실로 옳음과 그름,

687) 옛적에……꾸짖었다 : 범조우(范祖禹, 1041~1098)는 북송(北宋) 때의 문신(文臣)으로 자는 순부(淳夫)몽득(夢得)이며, 화양(華陽) 사람이다. 정호(程顥, 1032~1085)정이(程頤, 1033~1107) 형제를 사사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사마광(司馬光, 1019~1086)의 문인으로 역사학에 뛰어나 사마광과 함께 《자치통감(資治通鑑)》을 편수하였다. 주희(朱熹)가 여백공(呂伯恭)에게 답한 편지에서 범조우에 대해 논하기를, “일이 일어난 당시에 변론하지 못하고 몇 년 지난 뒤에 밝혔으니, 이는 강직함이 부족하여 정이(程頤)와 소동파(蘇東坡) 양쪽 모두를 따르려는 사심을 면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중하게 여긴 것이 정이에게 있었던 까닭에 끝내 의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 [不能辨之於當時, 而發之於數年之後. 此則剛強不足, 不免乎兩徇之私者. 而其所重在此, 故卒不能其義理之公也.]”라고 하였다. 《宋史 卷337 范鎮列傳》《晦庵集 권35 答呂伯恭》

삿됨과 바름의 근원을 밝혀 삿되거나 그른 것은 억누르고, 옳거나 바른 것은 높여서 군자를 위해 꾀하고 소인을 위해 꾀하지 않는다면 천지를 본받아 치도(治道)를 닦아 이루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천하에 춘추(春秋)의 의리가 없고, 간옹(良翁)이 춘추의 학문이 아니라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날 영남과 호남의 일에 대해 누가 군자이고, 누가 소인이며, 어느 쪽이 바른 의론이고, 어느 쪽이 삿된 의론인지는 변론하지도 않아도 분명하니, 그 승부와 굴신(屈伸)도 또한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다. 다만 밝은 하늘은 돌아오지 않고, 강물은 맑아질 기약이 없으니, 이른바 “이 도(道)를 주장하는 사람이 옳고 그름의 근원을 밝혀서 그른 것은 억누르고 옳은 것은 높인다.”는 것이 과연 어느 때나 나올지 모르겠다. 아아!

음류(陰類 소인)와 양류(陽類 군자)는 하나의 큰 편론(偏論)이고, 삿됨과 바름은 하나의 큰 봉당(朋黨)이니, 편론을 좋아하여 굽은 것을 바로 잡으려다가 지나치게 곧게 하는 것은 진실로 말할 것이 못 되지만 봉당을 싫어하여 모호하게 양쪽 다 옳다고 하는 것은 더욱 일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편론과 봉당 중에도 또한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의 구분이 있으니, 작은 것은 하지 않아야 하지만 큰 것은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벼운 것은 생략해도 되지만 무거운 것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백강(白江) 이상국(李相國)에 올린 편지〉】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옹(尤翁)의 이 말을 기준으로 하면 편당(偏黨)은 본래 좋지 않은 제목은 아니다. 다만 편당한 것이 삿된지 바른지를 볼 뿐이다.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이른바 “중립(中立)”이란 것이 어찌 이른바 “봉당을 싫어하여 둘 다 옳다고 하는 것이 더욱 일을 해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크고 작음, 가볍고 무거움의 구분을 말한다면 선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인허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치는 것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을 수 없고 생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인과 관련된 부분 위에서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다툼은 하지 않아야 하고 생략해도 되는 것이다.

그가 주자의 문하에 죄를 얻었으니, 바로 스스로 하늘의 벌을 받을 난적(亂賊)인데, 그의 무리들이 끝내 창을 거꾸로 돌려 귀순할 줄을 모르고 있네. 【<유무중(與兪武仲)에게 보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여휴(驪鑪 윤휴(尹鑪))가 주자를 업신여기고 거만스럽게 대하면서 《중용》을 고쳐 주를 달았기 때문에 우옹(尤翁 송시열)이 주자의 문하에 죄를 얻은 난적이라 한 것이다. 오늘날 음성의 오진영은 겉으로 간옹을 존송하면서 이미 인허를 내도록 분부하셨다는 것으로 무함하고 게다가 대고(大稿)의 본문(本文)을 고쳤으니, 그의 업신여김과 거만스러움이 심하다. 이를 간옹의 문하에 죄를 얻은 난적이라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의 무리들이 창을 거꾸로 돌려 귀순할 줄 모르니, 어쩌면 그렇게도 미혹된 것인가.

미촌(美村 윤선거(尹宣擧))이 윤휴의 당이 된 것을 배척한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지나쳤다고 여기지 않겠는가. 그러나 스스로 그것이 지나친 줄 모르겠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여기네. 【<조사달(趙士達)에게 보냄>】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내가 음성의 오진영 및 오진영의 당이 된 사람들을 배척한 것은 스스로 그것이 지나친 줄 모르는 것도 또한 우옹에게 받은 바가 있다.

주자가 일찍이 당시의 재상(宰相)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충사(忠邪)의 구분을 살피는 것이 밝지 못하고, 소장(消長)의 경계를 믿는 것이 독실하지 못하며, 게다가 자기 한 몸의 이익과 손해의 사사로움으로 그 사이에서 뒤엉킨다면 오늘날 이른바 ‘공평함을 지킨다.’는 것이 도리어 소인의 세력을 깊이 도와 군자의 병통을 만드는 것이니, 끝내 저쪽 당은 나날이 성대해지고 이쪽 세력은 나날이 고립되어 천하의 일이 머지않아 행해질 수

없게 됨을 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오늘날 노형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도 주자의 말과 모든 것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인가요. 【〈민태수(閔兌叟)에게 답함〉】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늘날 이른바 “중립(中立)”이란 사람들이 샅됨과 바름의 구분을 살피지 않고, 게다가 자기 한 몸의 사사로움으로 뒤엎킨다면 공평을 지킨다고 말하는 것이 도리어 저들을 돕는 것이다. 하물며 겉으로는 중립을 하면서 마음은 사실 저들을 돕는 데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영남의 당이 나날이 성대해지고 호남의 세력이 나날이 고립되는 이유이다.

저쪽과 이쪽을 화합시키는 것은 오직 정명도(程明道)와 같은 덕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사람은 타니대수(拖泥帶水)⁶⁸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네. 이것이 바로 천리(天理)와 인욕(人欲)이 서로 비슷하나 실제로는 다른 것이니, 주자의 말이 상세하네. 【〈이계주(李季周)에게 보냄〉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근래에 아무개와 아무개가 나와 오진영이 화합하기를 바라면서도 그 말하는 것이 명백하게 분별한 조건이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타니대수(拖泥帶水)를 면치 못하여 천리와 비슷하지만 인욕이다.⁶⁸⁹”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말하기를, “만약 이 높지 않았다면 주자는 우리 나라에서 아성(亞聖)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여흥

688) 타니대수(拖泥帶水) : 진흙을 끌고 물을 띠는 뜻으로, 질퍽거리는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물쭈물 망설이기만 할 뿐 명확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689) 천리와 …… 인욕이다 : 저본에는 ‘似天理而非人欲’으로 되어있으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 ‘非’는 연문(衍文)인 듯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驪兪 윤휴)은 참다운 유자(儒者)가 되었을 것이며, 홍타시(洪打豕)⁶⁹⁰는 천하의 정의로운 군주가 되었을 것이다.” 하였네. 집사께서 말을 듣는다면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리라 생각하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나는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속삭이며 말하기를, “만약 이 늙이 없었다면 간옹은 참으로 인허를 내라는 분부가 있는 것처럼 되어 대현(大賢)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음성의 오진영은 선사의 문고를 간행한 큰 공적이 있게 될 것이며, 일본(日本)은 천하에 정의로운 군주가 될 것이다.” 하였다. 【오진영이 크게 쓰고 특별하게 써서 말하기를,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왕래하고, 차표와 편지에 도장이 찍히며,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네.⁶⁹¹”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는 이것을 장난삼아 한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래에 또 말하기를, “신중히 처신하여 다른 사람의 왜삭(倭朔)⁶⁹²을 함부로 꾸짖지 말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말을 바로 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 유생의 갓을 쓰고 유생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유생의 갓을 쓰고 유생의 옷을 입은 동문의 사람을 일본의 관아에 나아가 고소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머리로 떠받들며 정의로운 군주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주자는 원우(元祐)⁶⁹³의 인물을 논하면서 원성(元城)⁶⁹⁴을 중도(中道)로 여겼습니다. 지금 살펴보건대, 원성이 소인을 공격한 것이 너무나 강하여

690) 홍타시(洪打豕) : 금한(金汗)의 이름으로 청(淸) 나라 태종(太宗)을 말한다.

691) 주머니 …… 비추네 : 화폐와 도장, 해와 달은 모두 일제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일제의 세상에 살고 있음을 자각하고 일제의 통치에 순응해야 함을 나타낸 말이다.

692) 왜삭(倭朔) : 왜의 정삭(正朔 책력(冊曆)) 즉, 일본의 연호를 말한다.

693) 원우(元祐) : 북송(北宋) 철종(哲宗)의 전반기(1086~1093)의 연호로, 철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조모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수렴청정하면서 왕안석(王安石)의 신법당(新法黨)을 물리치고 사마광(司馬光) 등을 등용하여 훌륭한 치적을 이루었던 시기이다. 《宋史 권242 后妃列傳》

694) 원성(元城) : 송(宋)나라의 유안세(劉安世)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원성(元城)으로 좌천되어 원성 주부를 역임한 바 있기에 이렇게 칭하였다. 《宋史 권345 劉安世列傳》

만사(萬死)의 지역에 이르게 되었으니,⁶⁹⁵⁾ 너무 심했다고 이를 만하지만 주자는 중도로 허여하였으니, 어찌 당시에 처리한 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 오늘날에는 단지 편의만 차지한 채 스스로 중도를 얻었다고 여기니, 이런 풍습이 한번 성대해질까 매우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박화숙(朴和叔)에게 답함> 아래도 같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주희(朱熹)와 송시열(宋時烈)의 의론이 이와 같은데도 오늘날 간옹의 문도들은 오히려 음성의 오진영을 변론하여 성토하는 데 죽을힘을 다하는 것을 중도에서 지나침이 너무 심한 것으로 여긴다. 내가 앞의 말을 고려하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대해 어찌하겠는가. 한탄스러운 따름이다.

맹자는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을 것을 말하는 사람을 성인(聖人)의 무리라 하였고, 주부자(朱夫子 주희(朱熹))도 또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반드시 사사(士師)⁶⁹⁶⁾가 아니더라도 그들을 주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⁶⁹⁷⁾ 하물며 오늘날 존형 같은 분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도리어 지언(知言)과 양기(養氣)⁶⁹⁸⁾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러나 핑계를 대며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반드시 지언하고 양기하여 반드시 맹자와 같은

695) 원성이 …… 되었으니 : 소인은 장돈(章惇)과 채경(蔡京) 등 간신들을 가리키고, 만사의 성은 원성처럼 한번 귀양 가면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을 말하는 듯하다. 원성은 유안세(劉安世)로, ‘전상호(殿上虎)’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국사를 논함에 강직하였고, 장돈(章惇)이나 채경(蔡京) 등 간신들을 신랄하게 탄핵했다가 광동과 광서 등 영외(嶺外)로 일곱 번이나 귀양 갔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宋史 권345 劉安世列傳》

696) 사사(士師) : 고대 중국에서 법령과 형벌, 옥사 등을 관장했던 관직의 이름이다.

697) 맹자는 …… 하였습니다 : 《맹자》〈등문공 하〉에 “양주(楊朱)와 묵적(墨翟)을 막을 것을 말하는 사람은 성인의 무리이다.[能言距楊墨者，聖人之徒也.]”에 대한 주자의 주석에 “《춘추》의 법에 난신적자는 사람이면 누구나 토벌할 수 있으니, 꼭 사사(士師)일 필요는 없다는 것과 같다.[如春秋之法，亂臣賊子，人人得而討之，不必士師也.]”라는 말이 나온다.

698) 지언(知言)과 양기(養氣) : 지언은 말이 도리에 맞는지를 파악하여 말의 이치와 마음의 병폐를 아는 것이고, 양기는 인의(仁義)를 쌓아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 《맹자》〈공손추 상(公孫丑上)〉에 부동심(不動心)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손추의 물음에 맹자가 “나는 말을 알며, 나의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我知言，我善養吾浩然之氣.]”라고 대답한 데서 나온 말이다.

뒤에야 비로소 이단(異端)을 물리칠 수 있다면 이는 반드시 사사인 뒤에야 비로소 임금의 시해한 역적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 다 사라지지 않을 인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늘날에 또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했음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또 “그렇긴 하지만 나는 스스로 나의 학문을 닦아야하기 때문에 옳으니 그르니 하는 곳에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 이외에 다시 무슨 학문이 있는지 모르겠다. 또 학문을 하고서 선사의 무함조차 변론하지 않는다면 학문을 어디에 쓰겠는가. 이는 지언과 양기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물러나 핑계대는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니, 천리(天理)와 인심(人心)이 어찌 어두워지고 이지러져 남아 있는 것이 없게 되지 않겠는가.

이 사람이 주자를 공격해 배척했으니, 이는 사문난적(斯文亂賊)이며, 그의 당이 되어 도왔던 사람은 《춘추(春秋)》의 법으로 논한다면 먼저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선사의 문고를 고쳐 어지럽혔으니, 이는 간옹 문화의 난적이며, 그의 당이 되어 도왔던 사람은 춘추의 법으로 논한다면 또한 먼저 죄를 받아야 할 것이다.

집사께서 이해(利害)와 화복(禍福)의 기미에 밝아 머뭇거리고 관망하면서 기꺼이 몸소 맡으려 하지 않고, 이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이 일을 맡게 하시니, 이것이 어찌 인자(仁者)의 대단히 공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집사께서는 단지 이 책임을 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저들의 세력을 돕고 계시니, 한때의 영화와 명예는 기뻐할 만하지만 훗날의 공의(公議)는 어찌하시겠습니까.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 말은 선사께서 신앙여(申仰汝)에게

보내 편지 속의 말뜻이고 게다가 더욱 엄중하기까지 한다. 오늘날 호남과 영남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지키며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읽는다면 마치 차가운 물을 등에 끼얹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양주(楊朱)는 의(義)를 행하는 것을 배운 자였으나 위아(爲我)에 치우쳤고, 목적(墨翟)은 인(仁)을 행하는 것을 배운 자였으나 겸애(兼愛)로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쓰는 근본을보면 어찌 샅됨이 있겠습니까. 모두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미세하게 털끝만큼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맹자가 그 화를 미루어 말하여 부모도 없고 군주도 없게 되어 짐승이 되는 데로 빠질 것이라고 하면서 말로 그들을 물리치는 데 조금의 관용도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⁶⁹⁹⁾ 맹자가 어찌 그들의 본정을 살피지 않고 이런 가혹한 의론을 했겠습니까.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설자(說者)는 “오진영도 또한 선사를 존중한 사람이니, 그 마음 쓰는 것을 근본을 따져보면 어찌 샅됨이 있겠는가.” 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본적인 부분에서 공적(功績)을 기뻐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끝내 선사를 무함하여 다른 사람의 입을 막았고 문고를 고쳐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였으며, 동문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일본의 관아에 구속시킴으로써 세력을 확장하여 스승도 없고 군주도 없는 지경에 귀결되는데 이른 것이니, 또 그 화를 미루어 볼 것도 없이 자신이 직접 범한 것이다. 어찌 말로 물리치는 데 조금이라도 관용을 베풀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그의 본정을 살피지 않고 이런 가혹한 말을 했겠는가.

들으니 집사께서 오늘날 의론은 차라리 모호하게 했으면 한다고 했다는데

699) 양주(楊朱)는 …… 것입니다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양씨(楊氏)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는 군주가 없는 것이요, 목씨(墨氏)는 똑같이 사랑하니 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고 군주가 없으면 이는 금수(禽獸)이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 라고 하여 양주의 자기중심주의와 목적의 겸애주의를 모두 비판하였다.

내심 깜짝 놀라고 비통하게 탄식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대체로 집사께서 주자에 대한 믿음은 부족하고 운에 대한 믿음은 너무나 지나친 때문일 것입니다. 대저 혼연(渾然)하여 모남이 없는 것이 어찌 주자가 바라지 않는 바가 아니겠으며, 또한 할 수 없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세상이 쇠퇴하고 도가 미약하여 피음사둔(誣淫邪遁)⁷⁰⁰이 함께 일어나 서로 내달리면서 하늘에 닿고 길을 막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담언(談言)과 논설(論說)이 어쩔 수 없이 명백하고 통절하여 세상의 정도에 어둡고 사도에 빠진 자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비록 이로 인해 거짓된 학문이 되고 역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거의 면치 못했지만 또한 후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혼연(渾然)하여 모남이 없는 것이 어찌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겠으며, 또한 어찌 할 수 없는 바가 아니겠는가. 다만 천리가 더욱 어두워지고 인심이 더욱 사특해져서 선사를 믿지 못하고 오진영을 너무나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만약 유서(遺書)의 내용처럼 인허를 내는 것을 금지했다고 한다면 선사는 일절(一節)의 선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석농(石農 오진영)의 말처럼 반드시 홀로 계실 때 인허를 내도록 분부함이 있는 뒤에야 비로소 도(道)가 크고 의(義)가 정밀한 참된 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자가 명옥(明玉)인 서진영(徐鎭英)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크게 말한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 휩쓸리듯 그 말을 따랐다. 이것이 피음사둔이 하늘에 닿고 길을 막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명하게 논설하고 통절하게 변론했던 것이고, 이것으로 노비가 되고 간교한 사람과 풍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었으며, 또 거의 검사국(檢事局)의 옥에서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면치 못했으나 또한 후회하지 않았던 것이다.

700 피음사둔(誣淫邪遁) : 부정(不正)한 말의 네 가지 대표적 병폐로, 편벽된 말[誣辭]·방당한 말[淫辭]·부정한 말[邪辟]·도피하는 말[遁辭]를 가리킨다. 말을 안다[知言]는 것에 대한 물음에 맹자(孟子)가 “편벽된 말에 그 가리운 바를 알며, 방당한 말에 빠져 있는 바를 알며, 부정한 말에 괴리된 바를 알며, 도피하는 말에서 논리가 궁핍을 알 수 있다.[誣辭知其所蔽, 淫辭知其所陷, 邪辭知其所離, 遁辭知其所窮.]”라고 대답한 데에서 나온 말이다. 《孟子 公孫丑上》

주자가 일찍이 순숙(荀淑)의 도가 매우 성대함을 논하였고⁷⁰¹, 순상(荀爽)과 순욱(荀彧)이 역적(逆賊)에게 붙은 것⁷⁰²에 대해서는 또 그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하여 말하기를, “당시 부형(父兄)과 사우(師友) 사이에도 또한 자연히 일종의 의론을 두어 꾸미고 덮음으로써 갑작스럽게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그른 줄 깨닫지도 못하고 참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게 하였으니, 샅된 말이 마구 유행하는 것이 이 때문에 흉수나 사나운 짐승의 해보다 더 심한 것이다. 근래에 책을 읽다가 이 생각이 분명함을 깨닫게 되니 앞이나 서나 자연히 놓을 수 없었다. 비록 이것으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끝내 곤궁하여 죽을 줄 알지만 진실로 달게 여기며 스스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 오늘날 집사의 이른바 “모호(糶糊)함”이 어찌면 그렇게도 주자의 이른바 “덮어버림[蓋覆]”과 딱 맞는지요. 이것이 아마 병통이 든 근원일 것입니다.

나 택술은 삼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순상과 순욱이 역적에게 붙은 일로 인해서 거슬러 올라가 그의 부형과 사우에게 본래 일종의 샅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렇다면 문인이 인허를 낸 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의 스승이 혹 인허를 낼 생각이 있었다고 의심하는 것도 또한 염려할 만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짊어지고 변론하였으니 선사의 마음을 밝힐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문인들의 입으로 크게 말하기를, “우리 선사께서 일찍이 인허를 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다.” 하고, 또 인허를 내지 말라는 유서는 위조(僞造)라 하니, 사람들이 이것을 근거로 곧장 선사를 논하는 것이 어찌 다만 자손으로 인해 그 부조(父祖)까지 거슬러 올라가 논하는 것에 비할 뿐이겠는가.

701) 주자가……논하였고 : 순숙(83~149)은 순자(荀子)의 11세손으로, 자는 계화(季和)이고, 낭릉후상(朗陵侯相)에 봉해졌다. 그의 검(儉)·곤(綱)·정(靖)·도(燾)·왕(汪)·상(爽)·숙(肅)·부(敷) 등 여덟 아들이 모두 명망이 뛰어나 ‘순씨팔룡(荀氏八龍)’이라 일컬어졌다. 《後漢書 권62 荀淑列傳》 주희(朱熹)는 순숙의 어짊을 지극히 칭찬하여 ‘추월한강(秋月寒江)’이라고 하였다. 《晦庵集 권85 聚星亭畫屏贊》

702) 순상(荀爽)…… 것 : 순상은 순숙의 여덟 아들 중에 한 명으로, 동탁(董卓)이 전횡하던 조정에 몸담았고, 순욱은 순숙의 손자로, 당형(唐衡)의 사위가 되고 조조(曹操)의 신하가 된 것을 말한다. 《後漢書 卷62 荀爽列傳》 《後漢書 권70 荀彧列傳》

오준선⁷⁰³ 씨의 유고 중에 어떤 사람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40년】

觀吳氏駿善稿中答人書【庚辰】

모인(某人)의 ‘성은 스승이고 심은 제자이다[性師心弟]’와 ‘기를 밝힌다[明氣]’는 의론이 혹 제 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더불어 논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된 학설이 정도를 해치는 것이 어느 시대인들 없었겠습니까. 심(心)·성(性)·정(情)의 구분은 매우 명백한데, 지금 “성은 높고 심은 낮다.[性尊而心卑]”고 말하여 둘로 나눈다면 심에는 ‘미발(未發)’과 ‘이발(已發)’이 있어 성과정이 이미 구분되는 것과 ‘심이 성과정을 통솔한다[心統性情]’는 말을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를 밝힌다”는 학설은 형의 의론이 명백합니다. 다만 저 사람이 애써 전대의 사람을 뛰어넘고자 하여 새로운 학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본래의 재주인데, 그와 쟁변(爭辨)하는 것이 또한 수고롭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도리(道理)는 보기 어려운 까닭에 의론이 같지 않으니, 예로부터 그러했다. 그러나 그 극처(極處)가 존재하니, 진실로 마음을 공정하게 하여 찾는다면 절로 의론이 하나로 정해질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퇴계(退溪) 선생이 말하기를, “뜻이 도를 밝히는 데 있어 사사로운 생각이 없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로 일치할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이 이기는 것을 추구하고 도를 헤아리지 않는 자라면 끝내 합치할 리가 없을 것이다.”⁷⁰⁴⁾ 하였다. 지금 이 글을 보니 그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다. ‘성이 스승이고 마음은 제자이다.’와 ‘기를 밝힌다.’는 설은 우리 선사께서 창조해서 논한 것이 아니라, 선성현(先聖賢)께서 이미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니, 내가 우선 간략하게 그것을 말해 보겠다.

703 오준선 : 1851~1931. 자는 덕행(德行)이고, 호는 후석(後石)이며,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광주 광산(光山) 출신으로,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이며, 저서로는 《후석유고(後石遺稿)》가 있다.

704 뜻이 …… 것이다 : 《퇴계선생문집(退溪先生文集)》 권16 <답기명언(答奇明彦)>에 보인다.

맹자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찾는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⁷⁰⁵⁾”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이 말을 해석하기를, “성분(性分) 안에 만 가지 이치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니 스승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돌아가서 스승으로 삼는 것이 마음이라면 이는 성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도를 배우니, 도는 성이다.” 하였으니, 그것을 배우는 것이 마음이라면 이는 성이 스승이고 마음이 제자가 아니겠는가. 공자가 말하기를, “명덕을 밝힌다.[明明德]⁷⁰⁶⁾” 하였는데, 주자가 이 말을 해석하기를, “명(明)은 밝힘이요, 명덕은 허령(虛靈)하고 어둡지 않아서 이치를 갖추고 있고 만사에 응하는 것이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허령이 기의 밝은 곳이다.” 하였으니, 이는 기를 밝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맹자가 논한 “아침녘의 기 [平朝之氣]”를 주자는 ‘기가 청명한 때에 양심(良心)이 발현한다.’는 것으로 해석했으니, 이는 기를 밝힌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성현께서 이미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태양과 별처럼 분명하니 눈만 있으면 모두 보았을 것이고, 선사의 학설도 또한 어찌 깊이 헤아려 봄을 기다린 뒤에 그것이 이치의 극치를 본 정론(定論)임을 알겠는가. 그러나 이 글은 조금도 헤아려보거나 신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번에 샅된 학설이 정도를 해친다는 것으로 배척하고, 다시 새로운 학설을 창조하는 것이 본래의 재주라고 결말을 지으니, 공자·맹자·주자 세 성현의 가르침에 대해 어떻게 구분해 처리할지 모르겠다. 이는 비단 이김을 추구하는 사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배제시키려는 생각이 있음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먼저 객기(客氣)에 혼란하여 눈이 있어도 성현의 가르침을 보지 못한 것이니, 이른바 “사슴만 쫓고 태산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애석하구나, 그가 일생동안 학문을 하고도 기를 밝히고 성을 스승으로 삼아, 도리를 보아 정론에 함께 돌아갈 수 없음이여.

705) 돌아가서 …… 것이다 : 《맹자》〈고자 하(告子下)〉에 “도(道)는 대로(大路)와 같으니, 어찌 알기 어렵겠는가. 사람들이 구하지 않는 것이 병통일 뿐이니, 그대가 돌아가서 찾는다면 남은 스승이 있을 것이다.[道若大路然, 豈難知哉? 人病不求耳. 子歸而求之, 有餘師.]”라는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다.

706) 명덕(明德)을 밝힌다 : 《대학장구》경1장에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지선에 그짐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간재 선생 사고 습유 편집 범례 【1940년】

艮齋先生私稿拾遺編輯凡例【庚辰】

하나. 선사(先師) 간재(艮齋) 선생의 문고(文稿)는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⁷⁰⁷⁾에 전편(前編)·후편(後編)·재후편(再後編)이 있는데, 이 세 편에 들어가지 않은 것들을 지금 거두어서 습유(拾遺)를 만든 것은 대체로 비록 세 편의 밖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정밀하고 상세하며 절실하여 세상의 교화에 보탬이 될 만한 글들이 많은데, 끝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매우 슬프고 안타깝게 여긴 때문이다.

하나. 이편에 실린 글들은 처음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이 많고, 또한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들도 있다. 애초에 문고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대체로 선생께서 한 때에 응대한 것이 스스로 검양하여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겨 굳이 문고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당시에 어수선하고 바빠서 훗날에 필사해 넣으려고 했다가 끝내 그만두게 된 것들이 있다. 이미 들어갔다가 삭제된 것은 대체로 똑같은 하나의 의리인데 말이 각기 중첩되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나 간혹 일가(一家) 글이 과다하게 들어간 까닭에 남겨두고 빼는 것을 알맞게 헤아려서 권질(卷帙) 너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지 모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글이든 막론하고 본래의 사실이 잘못되거나 실제의 행적과 어긋나서 바로 찢어버리고 다시 거두었던 것들을 제외하고는 감히 버려서 취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 선생의 글이 나라 안에 가득한데 다만 귀와 눈이 치우쳐 있고 족적(足跡)이 좁아서 단지 듣거나 보는 것만 기재하고 얻는 대로 수록하기를 기다려서 마침내 전본(全本)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감히 지금 편집한 것만으로도 오히려 책을 완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707)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 : 1924년에 간재의 문인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집(艮齋集)》을 필사(筆寫)한 것을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하나. 이편을 모을 때에 흑 글을 보관하고 있는 집에 직접 찾아가서 원본의 초고(草稿)를 옮겨 베끼기도 하고, 혹은 오래 사문(師門)의 사람을 기다린 끝에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드시 그 사의(詞義)와 문법(文法), 필적(筆跡)을 살펴서 참으로 선사께서 지으신 것임을 안 뒤에만 넣어 기재하였고, 감히 세속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 나라에 널리 알려 우편으로 부치게 해서 쉽게 진짜와 가짜가 뒤섞이도록 하지 않았다.

하나. 선생께서는 평소 문인이나 친구, 절개를 바꾼 사람에게는 직접 ‘모에게 답하다[答某]’·‘모에게 보이다[示某]’·‘사람에게 답하다[答人]’·‘사람에게 보이다[示人]’ 등으로 쓰고 성명은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편에 기재된 ‘모(某)’·‘사람[人]’의 부류는 반드시 모두 절개를 바꾼 것은 아니지만 아울러 이와 같이 한 것은 글은 있지만 답하거나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열람하는 사람은 이 점을 자세히 살펴서 의아해하거나 의혹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 매편 제목 아래의 연조(年條)는, 상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년(某年)으로 기록하고, 대략 알 수 있는 것은 모년 이전·이후로 기록했으며, 상세히 알 수 없는 것은 쓰지 않았다.

간재 선생 연보 편집 범례 [1951년]

艮齋先生年譜編輯凡例【辛卯】

하나. 갑술년(1934) 겨울에 선사 간재(艮齋) 선생의 둘째 아들인 정재공(靜齋公)【화구(華九)】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선인(先人)의 연보 초고(年譜草稿)는 신축년(1901)에 봉서사(鳳棲寺)에 가신 때 이후는 그대가 자세히 알고 있어 이어 완성할 수 있을 것이기에 연보 초고를 그대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네.” 하였다. 내가 내심 생각하기에 비록 적합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이 사문에 관련되어 또한 감히 끝까지 사양할 수 없었다. 이런 뜻으로 답장을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재공이 세상을 떠나고 연보 초고는 전전하다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오늘날

오진영·유영선(柳永善)⁷⁰⁸이 편집한 간본(刊本)은 이것을 저본으로 하여 지어진 것이다. 선생의 초중년(初中年)은 일이 이미 저본으로 삼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오류가 없어야 함에도 간혹 오류를 면치 못했는데, 하물며 모두 저본으로 삼을 것이 없는 만년(晩年)의 일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또한 기록하는 것이 마땅한데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데 기록한 것들이 있었으니, 이 바르지 못한 것이 선생에게 누가 될까 걱정스러웠기 때문에 정재공의 평소 부탁을 따라 간재 선생의 연보를 짓는다.

하나. 이미 연보라고 했다면 그 체재(體裁)는 마땅히 사가(史家)의 연표(年表)와 같아야하기에 대부분 일과 행적을 주로 하고, 의론(議論)을 주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연월일(年月日) 아래에 간단하게 일과 행적을 기록하는 것 이외에 모인(某人)에게 답한 편지와 모(某)의 일을 기록한 것, 모변(某辨)·모논(論)을 지은 것과 같은 부류는, 의론한 바가 있는 것은 전고(前稿) 혹은 후고(後稿) 혹은 재후고(再後稿)에 보인다고 기록하였고, 문고(文稿)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주된 뜻을 간략하게 나타냈다.

하나. 길을 나설 때에 따라 갔던 문인과 평소에 찾아오거나 찾아갔던 사람의 성명, 아무개 집에 가서 관례에 계빈(戒賓)한 것 따위는 관련하여 고찰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일체 간략함을 따라 기록하지 않았다.

하나. 선생께서 소유하셨던 장덕(長德)⁷⁰⁹ 이외의 친구나 문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제문(祭文)·만사(挽辭)·지(誌)·장(狀)·명(銘)·서(序)가 있는 것은 그 글을 보면 자연히 그 인품(人品)을 알 수 있으니, 감히 망령되게 찬평(贊評)을 더하지 않았고, 글이 없는 것도 또한 부고를 들었다는 것을

708) 유영선(柳永善) : 1893~1961. 자는 희경(禧卿)이고, 호는 현곡(玄谷)이며, 본관은 고흥(高興)이다. 전북 고창(高敞) 출신으로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1905년에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체결되자 전우를 따라 서해(西海) 고군산 외딴섬 왕등도(旺燈島)·계화도(繼華島) 등지에서 근 20년간 갖은 고초를 극복하면서 유학에 전념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09) 장덕(長德) : 나이가 많고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이른다.

기록하지 않았다.

하나. 선생께서 돌아가신 뒤에 각처에서 사당을 세워 향사(享祀)하였는데, 삼가 선생께서 성기운(成璣運)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조령(朝令)으로 철폐된 서원의 단(壇)에서 지내는 제사를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다. 단에서 지내는 제사도 오히려 온당하지 않게 여기셨는데, 하물며 새로 설립한 것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 기록하지 않았다.

정미재의 문집⁷¹⁰을 보고나서 [1924년]

觀鄭薇齋集【丙子】

미재(薇齋) 정공(鄭公)에 대해 선사의 문집 중 《성전집축록(星田執燭錄)》에 “전재(全齋 임헌晦(任憲晦)) 선생이 임종하실 때에 보고 싶어 했던 정국언(鄭國彦)”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그의 어짊을 알 수 있다. 지금 그의 문집을 보니 <사기감부(師忌感賦)>에서

아, 사람의 식견이 각기 다름이여	嗟人見之各異兮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말이 어긋나네.	未及朞而言違
문호가 나뉘어 따로 존립함이여	分門戶而別立兮
저쪽에 반이 있고 이쪽에 반이 있구나.	半于彼而半此
모두 내가 스승을 위한다고 말함이여	具曰余於爲師兮
과연 누가 그르고 누가 옳은가.	果誰非而誰是
사람의 마음을 좋지 않게 함이여	令人意而不佳兮
마침내 만 가지 일이 와해되었네.	遂萬事之瓦解
서로 거짓말을 지어 내고 비방함이여	相興訛而造訕兮
바깥의 모욕을 받음이 적지 않네.	受外侮之不少

710 정미재의 문집 : 정미재는 정재필(鄭在弼)로, 미재(薇齋)는 호이고, 자는 국언(國彦)이며, 본관은 광주(光州)이다. 문집은 《미재집(薇齋集)》을 말하는 것으로, 1902년 아들 방현(邦絃)이 편집·간행하였으며, 권두에 전우(田愚)의 서문이 있다. 《호남기록문화유산》《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모두 창랑 물 맑고 흐림을 스스로 취함이어 ⁷¹¹⁾	都滄浪之自取兮
나의 마음 근심스럽네.	而我心之惛惛
만약 존령께서 지각이 있다면	如尊靈之有知兮
반드시 이 일을 즐거워하시지 않을 것이네.	必不樂於此舉

라고 하였다. 이는 우리 간재(良齋 전주(田愚)) 선사께서 김평묵의 제문을 물리치고 정(鄭)·이(李)를 배척한 일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선사께서 지으신 이 문집의 서문에서 이른바 “국언이 병으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세상에 살아 있었다면 학문은 더욱 깊어지고 도는 더욱 높아졌을 것이고, 나와야 사림도 또한 더욱 깊어졌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하신 것은 이 때문이다.

김평묵이 제문으로 전용을 은밀히 기롱한 것은 더 이상 여지가 없는 사실이고, 정·이는 스승을 잊어버리고 원수와 가까이 지냈으니, 그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진실로 문리에 통달하지 못하고 의성(義性)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 그 제문을 물리쳐야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의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공과 같은 분은 사문(師門)의 어진 사람으로서 간옹(良翁 간재)께서 편벽된 행동을 막고 사악한 말을 물리치며, 도의에 근거하여 죄를 성토했던 일에 대해 누가 옳은지 모르겠고 만 가지 일이 와해되었으며, 모욕을 받음이 적지 않고 창랑의 물결을 스스로 취하였으며, 선사의 신령이 즐거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르렀다.

어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도의를 밝히고 인륜을 정하기 때문인데, 만약 정공의 식견과 같다면 도리어 도의에 어둡고 인륜을 잃어버리지 않을 사람이 거의 드물 것이니, 어디에 귀하게 여기는 바가 있겠는가. 정공의 이 의론은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록 혼후(渾厚)하고 축은한 말인 것 같지만 오늘날에는 애석하게 여길 만하니 도리어 어떠한가. 이것이 유가(儒家)가

711) 모두 …… 취함이어 : 창랑은 물 이름으로, 스스로 허물을 자초했다는 의미이다. 춘추 시대에 한 동자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거든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발을 씻으리라. [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 하자, 공자(孔子)가 그 노래를 듣고 “소자들아, 들어보거라. 맑으면 이에 갓끈을 씻고, 흐리면 이에 발을 씻게 되는 것이니,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小子聽之. 淸斯濯纓, 濁斯濯足, 自取之也.]”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맹자(孟子) 이루상(離婁上)》

비록 덕선(德善)을 숭상하기는 하지만 식견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이것으로 인해 근래 우리 문화를 생각하면 음성의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해친 변고에 대해 훈후하다고 일컬으면서 그의 죄를 성토했던 것을 지나친 행동이고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거나 양 쪽 다 그르고 서로 잘못된 것이라는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한결같이 정공이 당시의 일을 논한 것과 같은 것인가. 훗날에 붓을 잡는 자가 나온다면 어찌 우리 문화의 훈후한 자들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오늘날에 정공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과 같지 않을 줄 알겠는가. 아!

오진영이 찬술한 <정절사⁷¹²전>의 뒷부분 의론에 대하여 논하다 【1935년】

論吳震泳所撰〈鄭節士傳〉後論【乙亥】

초야의 선비는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이 없으니, 나라가 망할 때에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지만 몸을 지켜 깨끗한 데로 귀결하는 의리는 오랑캐와 중화의 경계에 관계됨이 중하여 천하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된다. 만약 천하 사람이 오랑캐가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오랑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천하는 중화의 천하가 되고, 천하 사람이 중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중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는 오랑캐 천하가 되니, 그 중함은 단지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의 정도일 뿐만이 아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선비가 절개를 지키는 것이 하늘을 꺾는 것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선비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개를 잃어 중화를 망하게 하는 것은 죄가 간언의 책임과 관직의 지킴이 있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절개를 잃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 더 심한 점이 있으니, 얼마나 엄중한가.

712) 정절사(鄭節士) : 정승원(鄭升源, 1868~1934)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는 덕여(德汝)이고, 본관은 영일(迎日)이다. 일제가 강제로 머리를 자르려고 하자 1934년(67세) 10월에 “이 백의(白衣)와 백발(白髮)을 보존하여 지하로 돌아가 부모를 뵈 것이다.[存此白衣白髮, 歸見父母地下.]”라는 말과 절명시(絶命詩), 절명사(絶命詞)를 남기고 목을 매어 순절하였다고 한다. 《石叢集 권31 鄭節士傳》

절사(節士)께서는 아마도 이러한 의리를 들었나보다. 아, 위대하고 장열하다.

무릇 말이란 효험에 앞서는 것이니, 말이 있으면 반드시 이런 효험이 있게 되어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있고, 오늘날에 있지 않으면 훗날에 있게 된다. 말이 있고서 효험이 없는 경우는 아직 있지 않았다. 장자(張子 장횡거(張橫渠))가 “말에 잘못이 없는 뒤에야 일을 결단함에 실수가 없다.”⁷¹³⁾”라고 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입언(立言)할 적에 조심하고 신중하였다.

내가 보건대 오진영이 <정절사전>에서 말하기를, “만약 천하 사람이 오랑캐가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오랑캐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천하는 중화의 천하가 된다.” 하였는데, 이러한 논리는 가능하다. 이어서 말하기를, “천하 사람이 중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선비가 중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천하는 곧 오랑캐 천하가 된다.” 하였는데, 이것은 선비가 중화 사람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으며, 중화 사람이 선비도 될 수 있고 오랑캐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중화 사람이나 오랑캐가 선비가 될 수도 있고, 선비나 오랑캐가 중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뒤섞어버리면 선비와 중화 사람의 본래 진면목이 모두 어디에 있겠는가. 이름을 따라 실재를 구한다면 선비가 구덩이에 묻히고 중화가 어지럽게 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망하고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을 것이다.

겸애(兼愛)는 목자(墨子)의 한마디 말이었지만 끝내 부모와 군주가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⁷¹⁴⁾, 사람의 본성이 버드나무와 같다는 것은 고자(告子)

713) 말에 …… 없다 :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권14 <관성현(觀聖賢)>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張子)가 일찍이 문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학문이 마음에 얻어지면 말을 닦아야 한다. 말에 잘못이 없는 뒤에야 일을 결단하고, 일을 결단함에 실수가 없어야 내가 비로소 패연(沛然)하게 되니, 의리를 정밀하게 하여 신묘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미리 대비할 뿐이다.[吾學既得於心, 則修其辭, 命辭無差, 然後斷事, 斷事無失, 吾乃沛然, 精義入神者, 豫而已矣.]” 하였다.

714) 겸애(兼愛)는 …… 이르고 :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목적(墨翟)의 겸애주의와 자신만을 위한다는 양주(楊朱)의 개인주의의 유폐(流弊)를 지적한 맹자의 말로, 《맹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양주는 자신만을 위하니, 이것은 군주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목적은 모두 사랑하니, 이것은 부모를 없이 여기는 것이다. 부모와 군주가 없다면 이것은 금수와 다를 바가 없다.[楊氏爲我, 是無君也, 墨氏兼愛, 是無父也. 無父無君, 是禽獸也.]”라는 구절이 보인다.

의 한마디 말이었지만 끝내 천하 사람을 이끌어 인의(仁義)에 화를 끼치는 지경에 이르는 것⁷¹⁵)이 세도(世道)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성현(聖賢)이 이미 말했다. 이것으로 그의 말을 헤아려보면 그의 한마디 말의 매서운 화가 어찌 이미 효험으로 드러났던 목자와 고자 두 사람의 말보다 덜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붓을 떨쳐 논한다.

오진영이 김윤청에게 답한 편지를 보고나서 [1935년]

觀吳震泳答金允淸書【乙亥】

그에게 묻노니 과연 중화 사람이 오랑캐이고 오랑캐가 유자(儒者)인가? 어찌하여 “유자가 중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중화가 곧 오랑캐이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중화 사람이나 유자가 오랑캐와 구별이 없음을 지극하게 말한 것이고, 유자가 중화에 근본을 두고 있는 것을 지극하게 말한 것이 아니며, 임무가 크고 책임이 무거움을 자처하여 천하의 희망이 되기에 자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희망이 되어 자중한 바를 알만 하다. 이것이 과연 ‘하루라도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禮)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仁)을 허여할 것이다.’⁷¹⁶)’라는 성인의 말과 터럭만큼이라도 비슷한 것이 있는가. 정자(程子)가 불교의 학설을 논하여 말하기를, “다만 본령(本領)이 옳지 못하여 일제히 잘못된 것이다.”⁷¹⁷) 하였는데, 지금 그가 허다하게 말한 것들이 모두

715) 사람의 …… 것 : 고자(告子)가 “사람의 본성은 버드나무와 같고, 의는 버드나무로 만든 그릇과 같으니, 사람의 본성으로 인이나 의를 하게 하는 것은 마치 버드나무를 구부려서 버들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性猶杞柳也, 義猶柎椽也, 以人性爲仁義, 猶以杞柳爲柎椽.]”라고 하자, 맹자가 “만약 버드나무를 상하게 하면서 그릇을 만든다면 또한 장차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 인의를 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천하 사람을 몰아 인의를 해치게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이 말일 것이다.[如將戕賊杞柳而以爲柎椽, 則亦將戕賊人以爲仁義歟? 率天下之人而禍仁義者, 必子之言.]”라고 하여 그 유폐(流弊)를 지적하였다. 《孟子 告子上》

716) 하루라도 …… 것이다 : 인(仁)에 대한 안연(顏淵)의 물음에 공자가 대답한 말이다. 《논어(論語)》〈안연(顏淵)〉에, “자기의 사욕을 이겨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극기복례(克己復禮)하면 천하가 인(仁)을 허여할 것이다.[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라는 내용이 보인다.

717) 정자가 …… 하였는데 : 불교의 학설이 유가와 같은 점이 많다는 사현도(謝顯道)의 물음에 이천

좋은 것 같지만 일제히 잘못된 것들이니, 하나하나 대응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다.

중화 사람이나 오랑캐가 유자가 되고, 유자나 오랑캐가 중화 사람이 된다고 뒤섞어 말을 세운 사람은 그 사람뿐이다. 그래서 내가 목자와 고자 두 사람의 단지 한마디 말의 잘못된 폐단을 끌어와 단지 이 한마디 말의 폐단도 또한 그보다 덜함이 없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그는 자기의 말을 여기에 해당시키지 않고 성현의 말을 들어 올려 대신 여기에 해당시키니, 이는 성현의 말을 크게 모욕한 것이다.

절사(節士)는 중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자인데, 그는 도리어 중화·오랑캐의 유자와 뒤섞어 견주었으니, 절의(節義)를 배척한 사람이 누구인가? 도리어 내가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이를 빌려 자신의 명성을 올리고자 한 것이다.

아, 권세를 무서워했다는 것으로 매옹(梅翁)⁷¹⁸을 무함하고, 세속과 화합했다는 것으로 전옹(全翁 임헌회(任憲晦))을 무함하며, 선사에게 절의(節義)를 배척했다는 죄목을 더한 사람은 가평의 김평묵이다. 인허를 받도록 분부했다는 것으로 선사를 무함하고, 나에게 절의를 배척했다는 죄목을 더한 사람은 음성의 오진영이다. 다만 이렇게 변변찮은 사람이 외람되게 선사의 뒤를 따라 이런 죄목을 얻은 것은 분수에 영광이다. 거짓으로 절교하는 편지를 써서 김용승(金容承)의 소매에 넣어주며 “절교라고 썼으나 마음은 절교하지 않았네.”라고 말한 것과 화도(華島)의 사당(祠堂) 일이 불가하자 뒤이어 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기에 변론할 것이 못 된다. 다만 내가 10여 년간 김용승을 쳐우한 것과 사당을 세운 전후의 의론을 보면 저절로 그의 말이 무함임을 알 것이다. 대체로 그는 이미 선사를 무함하는 데 거리까지 않았으니, 또 나머지 사람에 대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그의 평생을 총괄하면 무함[誣]이라는 한 글자로 끝을 맺어 습관이 본성이 되었으니, 애처로울 뿐이다.

(伊川) 선생이 “이처럼 같은 부분이 비록 많으나 다만 본령이 옳지 못하여 일제히 잘못된 것이다. [恧地同處雖多, 只是本領不是, 一齊差却.]”고 답한 내용이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13권 <변이단(辨異端)>에 보인다.

718) 매옹(梅翁) :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을 가리키는 듯하다.

전사견⁷¹⁹이 김세기⁷²⁰의 편지를 조목별로 변론한 것을 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다 [1931년]

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辛未】

세기의 편지에서 “문고를 합치는 것에 전(田)·최(崔)가 일치하였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合稿田崔歸一”云云

이미 전고(前稿)와 후고(後稿)라 각각 명명하시고, 또 후고가 뛰어나다고 한 것은 선사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다. 이미 “자기가 교정했던 전고보다 뛰어나다.”고 하셨으니, 어찌 다시 교정하고 산삭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나 오진영에게 정본(定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던 것이 그가 말한 대로 무오년(1918)에 있었다면 이는 임술년(1922) 5월에 편정(編定)하기 전이니, 교정하고 산삭해야 하는 것들은 이미 편정할 때에 선사께서 직접 스스로 교감을 마치셨다. 그런데 오진영은 때가 지난 편지를 근거로 고치거나 더하고 빼는데 못 하는 것이 없었고, 전고를 아울러 혼합하고 어지럽혀서 그의 사사로운 속임수를 이루었다. 이것이 선사를 무시한 죄로 피할 길이 없는데, 그는 도리어 문고를 합치자는 의론에 전(田)과 최(崔)가 일치하였다는 것으로 핑계를 대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는 깨닫지도 못하고 속임을 당하였다가 마침내 생각을 고쳐 바름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잘못하였으나 잘못을 고쳤으니, 이는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이를 수 있는데, 어찌 그가 핑계로 삼는 실마리가 될 수 있겠는가. 전고에 분부에 따라 옮기거나 빨 것이 있으면 분부대로 빼면 그만이지만, 고친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예컨대 신혁균(申赫均)에게 답한 편지에서 ‘여(與)’자를 ‘여(歟)’자로 고치고 그 아래에 있는 열여덟 글자를 삭제하여 상복(喪服)을 입었다는 글로 만들었고, <분언(體言)>에서는 친(親)자를 ‘서(庶)

719) 전사견(田士狷) : 간재 전우의 손자인 전일중(田鎰中)을 말한다.

720) 김세기(金世基) : 간재의 문인이었다가 간재가 죽은 뒤에 오진영(吳震泳)의 문인이 되었다.

자로 고치고 소주(小註) 다섯 글자를 삭제하여 예(禮)의 뜻이 명확하지 않게 하였으며, <전불관전(田不關傳)>은 편 전체를 고치거나 삭제하였으니, 이 모든 것이 분부에 의한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전고만을 가지고 대략 말한 것이고, 후고와 같은 경우는 더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자합일론(藉合一論)>은 청본(淸本)⁷²¹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藉合一論賺取淸本”云云

당시 현본(玄本)⁷²²에 없었던 것은 단지 신임(辛壬)년의 원고 및 <중용기의(中庸記疑)>·<대학기의(大學記疑)>·<논어기의(論語記疑)>·<맹자기의(孟子記疑)>·<주서표의(朱書標疑)>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전사인(田士仁)⁷²³의 편지에 ‘현본에 경신년(1920)의 글과 <화도만록(華島漫錄)>이 없다.’고 한다.” 하였다. 만약 김세기가 전사인의 편지를 무함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전사인의 편지가 현본에 어두운 것이다. 현본 조차 어둡다면 어찌 정재(靜齋) 어른의 마음에 어둡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른 변론을 쓸 것도 없이 이것으로 몰래 청본(淸本)을 취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도를 전수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先師傳道”云云

도란 무엇인가? 《춘추》의 의리가 그 큰 것이 아니겠는가. 선사의 도는 “간행·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 욕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721) 청본(淸本) :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와 오진영(吳震泳) 등이 경북(慶北) 청도군(淸道郡)에서 간행하고자 했던 《간재집(良齋集)》을 말하는 듯하다.

722) 현본(玄本) : 1924년에 김택술(金澤述), 최병심(崔秉心) 등이 간재(良齋)의 묘소가 있는 전북 익산시 현동(玄洞)에서 간재(良齋)가 직접 편수한 화도본(華島本)을 필사한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을 말한다.

723) 전사인(田士仁) :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장손 전일효(田鎰孝)이다.

이것인데, 오진영의 도는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은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니, 오히려 도가 존재한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이것을 통해 선사께서 전한 바가 없고, 오진영이 받은 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오진영에게) 실제로 전하여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진영의 낭패(狼狽)는 선사의 허물이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애초에 임종 뒤의 일을 부탁한 적이 없고, 일찍이 만년에 일을 만들어낼까 염려까지 하였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신년(1902) 복월(復月 11월)에 오진영의 도당 권순명(權純命)의 <화도치명록(華島治命錄)>에 “이견(而見 오진영)이 끝내 일을 만들어낼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였고, 선사께서 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⁷²⁴⁾”라고 하였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홍(洪)·김(金)에게 답한 것은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先師答洪金，非許解”云云

선사께서 지산(志山)⁷²⁵⁾에게 답한 편지에서 “나도 또한 기쁘게 들었다.” 등의 말이 있으니, 이것이 양해를 허여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편지는 부고와 함께 지난날을 아울러 가장 뒤의 글이니, 그의 이른바 “여섯 가지 증거가 있다.”는 것은 더욱 말이 온당하지 않다. 선사께서는 지산에 대해 일찍이 의리를 끌어들이 절교를 통고한 적이 없고, 더욱이 가장 뒤에 보낸 편지에서 양해를 허여하시기까지 하셨으니, 선사께서 절교하지 않으신 지산을 자손과 문인이 어찌 절교할 수 있겠는가. 송(宋)의 편지에서 변론한

724) 아무…… 받았다: 저본에는 ‘某人以事功爲人所矣’로 되어 있으나 <독선사문고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근거하여 ‘矣’를 ‘笑’로 교감하여 번역하였다. 오진영이 파리장서(巴里長書)에 간재의 이름을 거것으로 서명한 일을 말한다.

725) 지산(志山) : 김복한(金福漢, 1860~1924)의 호이다. 충청남도 홍주 출신으로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원오(元五)이다. 1892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홍문관교리사서성군관대사성형조참의 등을 거쳐 승지에 제수되었으나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들어가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것은 정재(靜齋)⁷²⁶에게 있어서 본래 절교할 만한 의리가 없다는 것인데, 그가 운운한 것은 이것을 버려두고 답하지 않은 채 널리 여섯 가지 증거를 끌어와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선사께서 이미 절교하셨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장 뒤에 답한 편지와 초종(初終) 때의 부음을 통지한 것, 김성구(金聖九)⁷²⁷에 대해 가마(加麻)⁷²⁸를 한 것들은 모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선사께서 비록 편지를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은 절교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원한을 숨기고 사람을 벗하는 것은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한 것이며⁷²⁹, 마음과 자취가 같지 않는 것은 율옹(栗翁 이이(李珣))이 기롱한 것이니, 이리저리 헤아려 봐도 모두 통할 수 없다. 오진영은 이미 선사께서 지산과 절교했다고 하였고, 최(崔)를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의 문인 정윤영(鄭胤永)⁷³⁰이라 단죄하였는데, 뒤로는 도리어 김성장(金聖章)⁷³¹에게 답한 편지에 안면을 바꾸고 아양을 떨면서 평소에 지산의 뜻을 우러러 앙모한 뜻을 말하면서 김성구가 부음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여겼다. 세기가 이 편지를 보았다면 반드시 깃발을 돌리고 창끝을 거꾸로 하여 스승을 무함하고 가르침을 배반했다고 오진영을 공격하였을 것인데 오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 관계된 글을 발췌하고 발췌하지 않는 것은 애초에 말할 것이 못 된다.

726 정재(靜齋) : 간재(良齋) 전우(田愚)의 둘째 아들인 전화구(田華九)의 호이다.

727 성구(星九) : 김북한의 차자(次子)인 김노동(金魯東)이다.

728 가마(加麻) : 애도의 표시로 겉옷에 삼베 형질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의례(儀禮)》〈상복(喪服)〉에 “봉우의 상(喪)에는 마(麻)를 입는다.[朋友麻]”라는 구절이 있다.

729 원한을 …… 것이며 : 《논어》〈공야장(公冶長)〉에서 공자가 한 말로, “원망을 감추고서 그 사람을 벗하는 것을 좌구명(左丘明)이 부끄러워했는데, 나 역시도 그것을 부끄러워한다.[匿怨而友其人,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라는 구절을 인용한 말이다.

730 전재(全齋)의 …… 정윤영(鄭胤永) : 정윤영이 윤봉래(尹鳳來)에게 비밀리에 보낸 편지에서 전우(田愚)를 조조(曹操)와 사마의(司馬懿)에 비유하면서 그와 절교하지 않으면 순욱(荀彧)이나 가충(賈充)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신계(申桂)와 이승욱(李承旭)의 말을 가져와 전우를 욕하고 꾸짖은 일이 있었는데, 윤봉래가 대의와 관계된 것으로 여겨 전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전우가 어쩔 수 없이 동문들에게 알리고 여러 사람들과 연명으로 절교를 통고하는 세 편의 편지를 써서 정윤영과 신계, 이승욱에게 보냈다. 《良齋先生文集後編續 권2 答李活俊兼示北省諸賢》

731 김성장(金聖章) : 김북한의 장자(長子)이다.

무릇 사람의 글은 전후가 본래 있게 마련이니, 가령 서로 절교했다 하더라도 전날에 찬양했던 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애초에 해가 되지 않고, 가령 원한을 풀었다 하더라도 또한 전날에 폄하하거나 배척했던 글을 발취하지 않는 것에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회옹(晦翁)은 오백풍(吳伯豐)이 한탁주(韓侂胄)에게 붙었다고 의심하였다가 곧바로 오해를 풀었지만 오히려 전날에 “환사마(桓司馬)의 가신(家臣)”이라는 말은 삭제하지 않은 이유를⁷³²⁾ 여기에서 알 수 있다. 김세기는 식견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구구하게 발취하고 발취하지 않은 것을 큰 관건으로 여기니, 어쩌면 그렇게도 미혹된 것인가. 금재(欽齋)⁷³³⁾도 또한 다 발취해주기를 요청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 지산이 위문이 있었음에도 그는 없었다고 말하니, 이것으로 믿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김세기의 편지는 그도 또한 애초에 문고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니, 발취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예로 문고에 넣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세기의 편지에서 “송자(宋子)의 계권(契券)⁷³⁴⁾”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宋子契券”云云

계권의 일은 본문(本文)에서 이미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매우 정당한 도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수홍(金壽弘)이 축사(祝

732) 회옹(晦翁)은 …… 이유를 : 회옹은 주희(朱熹, 1130~1200)의 호이고, 백풍은 주희의 문하의 고제(高弟)인 오필대(吳必大, ?~1198)의 자이다. 간신 한탁주(韓侂胄)가 집권할 때에 오백풍이 벼슬에 임명되자 주희가 편지를 보내어 그를 규경(規警)하였는데, 뒤에 한탁주가 주자의 학문을 위학(僞學)으로 규정하자 곧바로 벼슬을 그만두었다. 환사마(桓司馬)는 공자를 죽이려 했던 송(宋)나라 사마(司馬) 상퇴(尙雉)를 말한다.

733) 금재(欽齋) : 최병심(崔秉心, 1874~1957)의 호이다.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경존(敬存)이다. 이병우(李炳宇)·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명릉참봉(明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왜정(倭政)의 토지수용령에 반대하여 단식 투쟁을 했고, 만동묘(萬東廟) 철페로 인한 정향(丁享) 문제로 항거하다 구속되기도 하였으며, 한말 독립투사들의 비사(秘史)를 엮은 조희제(趙熙濟)의 《엄재야록(念齋野錄)》에 춘추대의적(春秋大義的)인 민족자존의 의지를 밝힌 서문을 쓴 일로 조희제와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전주의 옥동사(玉洞祠)에 봉향되었으며, 저서로 《금재문집(欽齋文集)》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34) 계권(契券) : 문서(文書)나 증서(證書) 따위를 말한다.

詞)에서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자, 우옹(尤翁 송시열)이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에게 대의(大義)를 위해 친족의 정을 끊을 것을 권면하였으니⁷³⁵⁾, 이것은 바로 매우 정당한 도리이다. 대체로 제사의 축문에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에 굳이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한 것인가. 이것이 우옹이 문곡에게 권면한 이유이다. 그리고 만약 김수항이 선원(仙源)⁷³⁶⁾을 나의 제문에 오랑캐의 연호를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으로 무함했다면 그의 죄가 또 어떠하겠는가. 지금 이 문고는 인허를 받지 않으면 간행되지 못할 뿐, 전답이나 토지처럼 법을 위반하여 빼앗기는 일이 있는 것이 아닌데, 무슨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인허를 받아 간행하는 것을 의리로 여기겠는가. 게다가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펴 따랐다는 것으로 무함까지 하였으니, 이것이 우리들이 오진영을 성토한 이유이다. 내가 그래서 “문고는 제사처럼 내 자유에 달려있는 부류이지, 전답이나 토지처럼 어찌할 수 없는 부류가 아니다.”고 말한 것이다. 저 오진영과 김세기의 무리들은 분수에 어두운지라 어록(語錄)에 집착하여 《대전(大全)》⁷³⁷⁾을 폐함으로써 우옹(尤翁)의 큰 의리로 하여금 명백하게 구별되지 않게 하였으니, 이것으로 우옹을 무함했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는가.

함재(涵齋)⁷³⁸⁾는 분명히 초종(初終) 때에 습(襲)⁷³⁹⁾을 하였고, 유사(有司)로서 책임을 함께 한 사람은 고재봉(高在鵬)·황일순(黃鎰淳)·송인건(宋寅健)이다. 이는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보았던 것인데도 오히려 그렇게 말한 것은

735) 김수항(金壽弘)이……권면하였으니 : 김수항은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손자이고, 김수항은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손자로, 김수항과 김수항은 6촌 형제간이다. 김수항은 조부(祖父) 김상용이 병자호란 때 강화에서 순국했으며, 숙조부(叔祖父)인 김상헌이 청나라에 저항하다 심양에 끌려갔던 척화의 상징이었음에도 송시열이 명나라 숭정(崇禎) 연호를 쓰는 것을 반대하면서 청나라 강희(康熙) 연호를 쓰자고 주장하였다. 이에 송시열은 김수항에게 강희옹(康熙翁)이란 별명을 붙이기까지 하였다.

736) 선원(仙源) : 김상용(金尙容)의 호이다. 김수항의 조부이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형이다.

737) 대전(大全) : 《송자대전(宋子大全)》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저서인 《우암집(尤庵集)》을 새롭게 편차(編次)하여 1787년(정조11) 9월 평안 감영에서 간행한 것이다.

738) 함재(涵齋) : 김낙두(金洛斗)의 호이다.

739) 초종(初終) …… 습(襲) : 초종은 초상부터 졸곡(卒哭)까지를 말하고, 습은 애도의 표시로 옷을 꺼입는 것을 말한다.

그의 무리들이 대상(大祥) 때에 거짓으로 망곡(望哭)⁷⁴⁰한 사람의 숫자를 더했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렸기 때문이다.

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형용하기 어려워하신 것이다.” 운운에 대해

世基書“先師所難形”云云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저 무리들은 처음에는 “인허를 내는 것”과 “인허를 받지 말라는 것” 두 가지 경우로 간주하더니, 다시 특별히 가리키는 바가 있다고 하였다가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 인허를 말하는 것이라는 힐난을 당함에 미쳐서 더 이상 운신할 수 없게 되자 갑자기 문고를 압수하는 변고를 들어 거기에 해당시켰다. 만약 문고를 압수하는 일이 없었다면 또 무슨 일을 들어서 거기에 해당시켰겠는가. 오진영이 선사를 무함하고 문고를 고치며, 사림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는 것은 변고로 여기지 않고, 다만 다른 사람이 문고를 압수하는 것만 변고로 여기니, 다시 그들이 분수에 어둡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록 그렇긴 하지만 만약 오진영이 말씀하시기 어려운 가르침을 지켜 인허를 내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오직 뜻을 속여 인허를 내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니, 이 때문에 끝내 화를 빚어낸 것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께서 간발(簡拔)하여 뒷일을 부탁하셨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先師簡拔託後”云云

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기록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곳으로 던진 것은 죄가 비록 무겁긴 하지만 그가 말했듯이 방몽(逢蒙)이 스승을 시해(弒害)한 일⁷⁴¹

740) 망곡(望哭) : 곡을 할 자리에 직접 가지 못할 때 그쪽을 향하여 애곡(哀哭)하는 일을 말한다.

741) 방몽(逢蒙)이……일 : 하(夏)나라 때 방몽이 유궁국(有窮國)의 군주인 예(羿)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운 뒤에 천하에 자기보다 궁술(弓術)이 뛰어난 사람은 오직 예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스승인 예를 쏘아 죽인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고사가 《맹자》〈이루하(離婁下)〉에 보인다.

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것이 선사께서 그를 거부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기를 마치 순(舜) 임금이 곤(鯀)을 가두었지만 적(籍)을 그대로 두고 보의(補劑)할 것을 허락하셨던 것⁷⁴²과 같이 한 이유이다. 그러나 어찌 일찍이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한 채 크게 웃으시면서 그를 우리 당의 제일류라 일컬었던 적이 있었던가.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서명했을 때에는 오히려 의혹을 풀지 못했다는 것으로 핑계 댈 수 있다. 비록 그가 말한바 “의혹을 풀은 뒤”로 말한다 하더라도 신유년(1921) 복월(復月 11월)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인 중에 기대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아무 사람이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으니, 성정(誠正) 공부⁷⁴³가 멀어졌네. 이것은 물을 것도 없이 단지 식견이 부족해서이네. 식견이 낮고 짧으면 일이 하찮고 초라해지니, 모름지기 토사법(吐瀉法)⁷⁴⁴을 써야만 비로소 나아갈 곳이 있을 것이네.” 하셨다. 이미 일의 공적으로 사람의 비웃음을 받았다고 그를 배척하셨으니, 의혹을 풀고 얼굴을 마주하며 크게 웃으셨다고 말한 것은 절로 선사를 무함하는 것으로 귀결됨을 알 수 있고, 이미 식견이 낮고 짧다는 것으로 그를 폄하하셨으니, 우리 당의 제일류라고 말한 것도 또한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선사께서 일찍이 그에 대해 의혹을 풀지 못하고 그가 다시 옛 전철을 밟을까 염려하신 것이 이와 같은데, 오히려 어찌 그에게 뒷일을 부탁했음을 논할 수 있겠는가.

742) 순(舜) …… 것 : 임금이 우산(羽山)에서 곤(鯀)을 가두었지만 그의 아들 우(禹)를 중용(重用)하여 치수(治水)를 담당하게 한 일을 이른다. 《書經 虞書 堯典》 보의(補劑)는 식경보의(息黥補劑)의 줄임말로 개과천선(改過遷善)을 의미한다. 《장자》〈대종사(大宗師)〉의 “조물자가 내 이마에 가해진 묵형(墨刑)의 흔적을 없애 주고 나의 베어진 코를 보완해 주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선생의 뒤를 따르게 해 주지 않을 줄 어떻게 알겠는가.[庸詎知夫造物者之不息我黥而補我劑, 使我乘成以隨先生耶?]”라는 구절에서 온 말이다.

743) 성정(誠正)의 공부 :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장구(大學章句)》의 팔조목(八條目)에 속하는 성의(誠意)와 정심(正心)을 가리킨다.

744) 토사법(吐瀉法) : 한의학(韓醫學)에서 병을 치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토하거나 설사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써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기존의 나쁜 습관을 깨끗이 없애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잘못 부탁했다면 어찌 덕에 혐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운운한것에 대해

世基書“誤託則豈不可爲慊德”云云

울곡(栗谷)의 통달과 명철함으로도 오히려 두 정(鄭)의 흉악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신재(愼齋 김집(金集))·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은 강도(江都)에서 대운(大尹 윤선거(尹宣擧))의 일⁷⁴⁵⁾이 있는 뒤에도 여전히 그와 더불어 학문을 강론하면서 스승과 제자, 붕우 사이의 인륜에 틈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윤선도(尹善道)와 윤휴(尹鑣)의 실상⁷⁴⁶⁾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후세의 군자들이 일찍이 이것으로 네 현인이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허물하지는 않았다. 정인홍(鄭仁弘)을 거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퇴계(退溪)와 남명(南冥)의 우열을 정하는 것⁷⁴⁷⁾도 또한 옳지 않다. 이천(伊川)의 문하에 오히려 형서(邢恕)⁷⁴⁸⁾가 있었지만 이천의 명철함이 퇴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그 말이 옳겠는가. 가령 그의 말처럼 선사께서 오진영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찌 덕에 혐의가 될 수 있겠는가.

745) 강도(江都)에서 …… 일 :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성(江華城)이 청나라 군사에 함락되었을 때 윤선거(1610~1669)는 함께 순절을 약속했던 친구 김익겸(金益兼)권순장(權順長)이 모두 죽고, 처(妻) 이씨(李氏)도 자살하였으나, 자신은 아버지의 봉양을 위한다는 핑계로 진원군(珍原君)의 말을 끄는 하인을 자청해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도망쳐 나온 일을 말하는 듯하다.

746) 윤선도(尹善道)와 …… 실상 : 윤선도(1587~1671)와 윤휴(1617~1680)는 남인의 대표적 인물로 예송(禮訟) 논쟁 때 송시열의 서인과 대립하였으며, 특히 윤선도는 서인의 기년복설을 효종의 정통을 부정하는 설이라고 주장하여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747) 정인홍(鄭仁弘)이 …… 것 : 정인홍(1535~1623)이 퇴계(退溪) 이황(李滉) 문하에 들어가지 않고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하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듯하다.

748) 형서(邢恕) : 북송(北宋) 때의 사람으로, 자는 화숙(和叔)이다. 본래 정호(程顥)의 제자였는데 벼슬에 나간 뒤 스승을 배반하고 사마광(司馬光)의 문객(門客)이 되었다가 다시 사마광을 무함하고 장돈(章惇)에게 붙었으며, 또 다시 장돈을 배반하고 채경(蔡京)의 심복이 되는 등 번복(反覆)을 잘하여 후세에 배사(背師)의 표본으로 일컬어진 인물이다. 《宋史 권471 邢恕列傳》

세기의 편지에 “선사께서 뒷일을 부탁하신 것에 관한 허다한 글이 있다.”

운운한 것에 대하여

世基書“先師託後有許多文字”云云

그의 이른바 “허다한 문자”는 모두 기미년(1919)에 거짓으로 선사의 함자를 서명하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기미년에서 임술년(1922)까지 세월이 오래 되었으니, 주고받은 편지도 또한 많을 것인데, 어찌하여 대고(大稿)의 증책을 부탁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인가? 도리어 식견이 낮고 째다는 탄식이 신유년(1921)에 이기환(李起煥)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끝내 일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또한 그의 당인 권순명(權純命)의 경신년(1920) <치명록(治命錄)>에 보인다.

세기의 편지에서 “소윤(少尹)의 비갈(碑碣)” 운운한 것에 대하여

世基書“少尹碑碣”云云

임금과 스승은 일체(一體)이고 임금은 또 스승이 높이는 바이다. 그래서 스승의 글은 국전(國典)에 근거하여 고칠 수 있지만, 국전에 근거가 없다면 누가 감히 스승의 글을 고칠 수 있겠는가. 최공(崔公)의 비(碑)⁷⁴⁹는, 이품(二品)이 아니면 대비(大碑)를 세우지 못한다는 내용이 국전에 이미 보이지 않고, 선사께서 《울곡전서(栗谷全書)》의 증 통정대부 도승지(贈通政大夫都承旨) 김공(金公)의 비(碑) 중에 “이에 신도비(神道碑)를 세운다.”라는 글에 근거하여 지은 것인데, 누가 감히 보이지도 않는 국전에 근거하여 선사께서 근거를 가지고 지으신 완전한 글을 파괴한 것인가.

749) 최공(崔公)의 비(碑) : 간재(艮齋)를 대신해서 최병심(崔秉心)이 지은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를 말한다. 《한국문집총간 간재집 해제》

**세기의 편지에서 “비(碑)에서 강등시킨 것은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降碑非罰賂”云云

성기운(成璣運)⁷⁵⁰이 서병갑(徐柄甲)에게 답한 편지에서 말하기를, “최 아무개가 거짓을 행한 것이 여기에 이를 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결정하기 어려워 미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비(碑)를 갈(礪)로 강등시킨 것은 그 일을 주관한 사람이 오진영입니다.” 하였으니, 성기운이 어찌 오진영의 뜻을 모르고 이 편지를 썼겠는가. 이것이 뇌물을 벌한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선사께서 비문을 찬술하신 것은 지을 만해서 지은 것으로, 애초에 둘째 아들의 간절한 청 때문에 지으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전(田)과 최(崔)가 주고받은 것은 본래 전과 최의 일에 속한 것이니, 최공의 비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런데 도리어 “뇌물”과 “거짓”, “삭제”, “강등” 등의 말을 하여 위로는 선사의 맑은 덕에 누를 끼치고, 아래로는 사람을 천 길 구덩이 속으로 밀어 넣었으니, 통탄스러울 뿐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비문을 고쳐 문고를 완전하게 한 것과 선사를 지키고
적도를 성토한 것, 국법을 높이고 어진 사람을 보호한 것은 인의(仁義)이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改碑完稿，衛師討賊，尊國護賢，仁義”云云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이 임금과 부모를 없이 여긴 것은 그 폐단을 궁구하여 말한 것이고, 직접 자신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실로 인의(仁義)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었지만, 어찌 오진영 자신이 직접 스승을 해치고 문고를 어지럽히며, 사림(士林)에 화를 끼치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했던

750) 성기운(成璣運) : 1877~1956.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인으로, 자는 순재(舜在)이고, 호는 덕천(德泉)이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경상북도 청도군 출신으로, 1917년 5월 24일 호적령(戶籍令)에 반대하여 호적을 거부하였다.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불인(不仁)과 임금을 잇고 누구의 집에나 비추는 해와 달⁷⁵¹)을 떠받든 불의(不義)를 행한 것과 같겠는가. 이것으로 말하건대 오진영은 진실로 양주와 목적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니, 양주와 목적의 신령이 있다면 반드시 구원(九原 저승)에서 일어나 그를 주벌할 것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매질꾼[杖手]”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杖手”云云

전사순(田士順)⁷⁵²이 김희숙(金希淑)을 대하여 말하기를, “대상(大祥) 날 저녁에 오진영이 호남 사람이 망곡(望哭)에 참여한 모두를 쫓아내려고 장정 수십 사람을 모집하여 몽둥이를 쥐고 매복하고 있을까 두려워했다.” 운운하였다. 매질꾼을 매복시키는 것은 진실로 오진영의 무리들이 했던 일인데 반대로 호남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니, 이와 같은 것들은 모두 저 무리들의 제일 장기(長技)이다.

세기의 편지에 “고문(告文)⁷⁵³하지 못한 이유”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不告文之由”云云

오진영이 당시에 금재(欽齋)와 함께 자신의 죄를 아뢰고자 하였다가 할 수 없게 되자, 또 함재(涵齋)에게 연명(聯名)을 청하였다. 대저 사람이 자신을 수양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짓고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꾸짖는 데 겨를이 없는 것은 심군(心君 마음)에 스스로

751) 누구의……달: 일본을 비유하는 말이다. 《후창집(後滄集)》 권14〈독송자대전유감이표출지근부안설(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에 “오진영이 크게 쓰고 특별하게 써서 말하기를, ‘주머니 속의 화폐가 왕래하고, 차표와 편지에 도장이 찍히며,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추네.’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일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震大書特書曰: ‘囊中紙貨往來, 車票書詞附印, 誰家日月照臨.’ 此豈非戴日本者乎?]

752) 전사순(田士順):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손자인 전일건(田鎰健)을 말한다.

753) 고문(告文): 제문(祭文)과 같은 것으로, 여기서는 아래 김택술의 변론을 보건대 오진영이 스승인 간재 영전에 자신의 잘못을 아뢰고 사죄하는 글인 듯하다.

부끄럽기 때문이다. 하물며 부모와 스승에게 죄를 지었는데도 사죄하고 자복하겠다고 알리지 않는다면 천리(天理)가 바르지 않게 되고 인심(人心)이 편안할 수 없음에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가령 자기와 다른 사람이 함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도리를 다할 뿐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않아야 한다. 하물며 자기는 실제로 스승을 무함한 죄가 있음에도 도리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동귀(同歸)하려고 하다니, 이것이 무슨 마음인가. 내가 들으니 오진영이 죄를 자복하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호남 사람이 자신의 죄를 줄까 걱정하여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생각하지 못함이 심한 것이다. 공자가 말하기를, “잘못하고서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⁷⁵⁴⁾” 하였는데, 나 또한 말하기를, “죄를 짓고서 자복하지 않는 것, 이것을 ‘죄’라 한다.” 하겠다. 죄를 자복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오히려 죄를 준다면 죄를 준 자가 나쁜 것이다. 공자가 어찌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⁷⁵⁵⁾”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 생각하지 못함이 심하도다.

세기의 편지에서 “영남과 호남은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嶺湖不可苟合”云云

영남과 호남이 구차하게 화합할 수 없는 것은 향기로운 풀과 악취 나는 풀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점이 있으니, 그의 말도 또한 옳다. 그러나 만약 오진영이 스승을 무함한 죄를 뉘우치고 선사의 묘에 아뢰어 자복한 다음에 가시나무 매를 등에 지고 무함을 변론했던 여러 공들의 문에서 죄를 청했다면 지난날의 잘못은 마음에 담아 두지 않는다는 의리로 헤아렸을 것이다. 여러 공들이 어찌 끝까지 배척해서 절교하겠는가. 그러나 이것은

754) 허물을 …… 한다 :《논어》〈위령공(衛靈公)〉에 나오는 말이다.

755) 옛날에 …… 않았다 : 《논어》〈공야장(公冶長)〉에 “백이(伯夷)와 숙제(叔齊)는 다른 사람의 지난날 잘못을 마음에 담아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드물었다.[伯夷叔齊, 不念舊惡, 怨是用希.]”라는 공자의 말이 보인다.

재차 인허를 받아 문고를 어지럽히고 강태걸(姜泰杰)로 하여금 고소한 일⁷⁵⁶이 있기 전으로 말한 것이고, 이후로는 늦었다.

세기의 편지에서 “강의 고소를 만류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姜訴挽之不得”云云

강태걸(姜泰杰)의 일을 말하려니 속이 썩는다. 처음 강태걸이 《절요(節要)》를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는 널리 알리는 글에서 “오석농(吳石農 오진영) 선생의 명을 받들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은 언급하지 않았고, 끝에 강태걸이 고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정재(靜齋)가 오진영에게 보낸 편지가 검국(檢局)⁷⁵⁷에 들어가 강태걸의 증서(證書)가 되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함께 하여 두 사람이 한 마음이었다는 실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송(宋)이 좌시한 채 구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진영을 성토했던 것은 엉성한 잘못이 있다. 사림(士林)에 화를 끼친 진상(眞狀)이 이와 같으니, 그의 같은 집안인 각 군(郡)의 변론이 어찌 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강대창(姜大昌)의 일도 또한 그러하다. 선사의 손자가 진주서(晉州署)에 잡혀 갈 때에 권순명(權純命)이 앞뒤에서 기각(掎角)⁷⁵⁸하고, 좌우에서 회유하고 협박함으로써 압수한 문고를 풀게 하고 손해본 돈을 보상하게 하였으니, 권순명은 세상 사람이 일컫는 소진영(小震泳)이 아니겠는가. 진주에서 인허를 내 간행할 때에 오석농이 실제로 그것을 주장한 것은 발송한 통문 중의 말이 아닌가. 선사의 손자를 구속한 죄는 오진영이 또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전에는 강태걸을 지휘하여 사림에 화를

756) 재차 …… 일 : 오진영의 제자인 강태걸이 간재(良齋) 문고(文稿)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절요(節要)》를 간행하려고 할 때, 김택술(金澤述)과 최병심(崔秉心) 등이 통문(通文)을 발송하여 저지하자, 강태걸이 이들을 명예훼손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한 일을 말한다. 《後滄集 卷14 震泳禍士日修行日記》

757) 검국(檢局) : 일제 강점기, 검사가 일을 보던 검사국(檢事局)을 가리킨다.

758) 기각(掎角) : 사슴을 잡을 때 사슴의 뒷발을 잡고 뿔을 잡는다는 뜻으로, 앞뒤에서 힘을 모아 적을 공격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끼치고, 뒤에는 강태걸을 부추겨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였으니, 이것이 그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내가 섬긴 사람” 운운한 것에 대하여

世基書“世基之所事”云云

스승을 배반한 진상(陳相)은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했기 때문에 맹자가 그를 배척한 것이다.⁷⁵⁹ 스승을 배반한 김세기는 “만겁토록 끝까지 한국의 선비로 남겠다.”는 선사를 버리고 “누구의 집에나 해와 달이 비춘다.”는 사람을 섬겼으며, “간행·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선사를 버리고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르는 것이다.”고 말한 사람을 섬겼다. 이는 중화에서 오랑캐로 변절한 것보다 더욱 심한 것이니, 어찌 공론의 배척을 받지 않겠는가. 전재(全齋 임헌회) 문하의 사람이 선사를 스승으로 섬긴 것은 바로 도로써 도에 귀의한 것이니, 애초에 그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기의 편지에 “석옹(石翁 오진영)이 화를 입었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石翁受禍”云云

사류(士類)를 일망타진한 사람은 오진영이고, 선사의 손자를 구속하여 가둔 사람도 오진영이다. 나는 오진영이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았지만, 다른 사람이 오진영에게 화를 끼친 것은 보지 못했다. 오진영이 한창 누구의 집이나 비추는 해와 달을 머리로 떠받들었지만 사람 중에 감히 뭐라고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어느 누가 그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었겠는가.

759) 스승을 …… 것이다 : 유학자(儒學者)인 진량(陳良)을 스승으로 섬겼던 진상이 등(藤)나라에서 만이(蠻夷) 출신 농가자류(農家者流) 허행(許行)을 만나고서 스승의 도를 배반하고 허행의 제자가 되자, 맹자가 “나는 중화의 법을 써서 오랑캐의 도를 변화시켰다는 말은 들었지만, 오랑캐에게 변화되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라고 진상을 비난한 고사가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보인다.

세기의 편지에서 “남곤(南袞)·윤휴(尹鑄)”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南袞尹鑄”云云

원수의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고 사림에 화를 끼쳤으니, 바른 사람을 해친 남곤(南袞)⁷⁶⁰은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선사를 무함하여 해치고 대고(大稿)를 고쳤으니, 어진 사람을 배척한 윤휴(尹鑄)⁷⁶¹는 오진영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런데 그는 도리어 오진영에게 스승을 지키고 도통을 계승한 공적을 차지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사직(社稷)을 부지했다는 남곤이나 우(禹) 임금과 같은 공적을 이루었다는 윤휴와 똑같다고 이를 만하다.

세기의 편지에서 “나의 스승과 생도는 애초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世之師生，初無誣師之罪”云云

위에서는 “은행나무 아래에 홀로 계실 때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인허를 내게 한 많은 증거들을 끌어와 이를 실증하였으며, 위에서는 “인허를 내는 것이 제일 불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아래에서는 “사실 선사의 말없는 가르침을 살피 따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유서(遺書)에서 “간행·배포하는 것을 청원하는 것은 결단코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부디 힘써 따르지 말라.”라고 한 것과

760) 정대한 …… 남곤(南袞) : 정대한 사람은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가리키는 듯하다. 남곤(1471~1527)은 중종(中宗) 때 대궐의 나뭇잎에 꿀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서 곤충이 파먹게 하여 조광조(趙光祖, 1482~1519)가 왕이 된다고 모함하고, 희빈(熙嬪)을 통해 조정의 권세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등의 말이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중종으로 하여금 조광조를 능주로 귀양 보낸 후 사사하게 만들었다.

761) 윤휴(尹鑄)처럼 …… 자 : 어진 사람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을 가리키는 듯하다. 윤휴(1617~1680)는 대표적 남인으로 1차 기해예송(己亥禮訟) 때에는 참취 삼년복(斬衰三年服)을 주장하여 송시열의 기년복설(期年服說)을 비판하였고, 2차 갑인예송(甲寅禮訟) 때에는 기년복(期年服)을 주장하면서 대공복(大功服)을 주장한 송시열을 역적으로 다스리고 종묘에 고해야 한다는 고묘론(告廟論)을 폄하며, 경전(經傳)의 주해(註解)에 대해 주희의 학설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송시열로부터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비판을 받았다.

정반대이다. 이것이 선사를 무함했다고 하는 이유인데, 그는 도리어 “애초에 선사를 무함한 죄가 없다.”라고 한다. 이것이 끝내 선사를 무함한 것이며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세기의 편지에서 “선사의 대고(大稿)를 감히 ‘예본(穢本)·난본(亂本)’이라 한다.” 운운한 것에 대해

世基書“先師大稿，敢曰‘穢本亂本’”云云

선사의 본고(本稿)를 일러 “난본(亂本)·예본(穢本)”이라 하니, 이것은 진실로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는 것이다.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오진영이 바꾸고 어지럽힌 본(本)이다. 주자(朱子)는 호오봉(胡五峰)⁷⁶²이 정자(程子)의 편지 중에 “연질(沿姪)” 두 글자를 고친 것을 오본(誤本)이라 하여 보고자 하지 않았으며, 우암(尤庵 송시열)은 박현석(朴玄石)⁷⁶³이 울곡(栗谷)의 편지를 교수(校讐)한 것이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심지어 목판을 부수어야 한다는 의론까지 하였다. 만약 그의 말과 같다면 주자와 송자(松子 송시열) 두 분이 먼저 불인(不仁)하고 불경(不敬)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죄목을 받아야 할 것이니, 어찌 오싹하지 않는가. “스스로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받을 것이다.”고 한 것은 그도 또한 이런 말을 했던 것인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라면 어찌하여 “은행나무 아래에서 홀로 계실 때 명했다.”는 무함과 “말없는 가르침”의 무함을 날날이 선사의 묘에 고하여 죄를 자복하지 않는 것인가? 헤아려서 하라는 명과 말없는 가르침이 만약 “무함이 아니다.”고 한다면 “청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는

762) 호오봉(胡五峰) : 호굉(胡宏, 1105~1161)을 말하는 것으로, 오봉은 그의 호이며, 자는 인중(仁仲)이다. 정호(程顥)·정이(程頤)의 문인(門人)인 양시(楊時)와 아버지 호안국(胡安國)에게 배워 그 학문을 전하였다. 《宋史 卷435》《宋元學案 권42》

763) 박현석(朴玄石) : 박세채(朴世采, 1631~1695)를 말하는 것으로, 현석은 그의 호이다. 본관은 반남이고, 자는 화숙(和叔)이다. 문묘(文廟)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문순(文純)이다. 천거로 벼슬을 시작하였으나 희빈 책봉문제로 남인이 재집권하자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1694년 갑술옥사 이후 우의정·좌의정 등을 역임하였다. 《삼례의(三禮儀)》·《사례변절(四禮變節)》·《가례요해(家禮要解)》·《남계예설(南溪禮說)》·《남계시무만언봉사(南溪時務萬言封事)》·《남계기문(南溪記聞)》 등 많은 작품을 남겼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유서는 그의 무리들이 이른바 “위조(僞造)”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어찌하여 또 유서를 받들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는 것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겠다. 인허를 내서 간행하는 사사로운 공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헤아려서 하라는 명이나 말없는 가르침”을 말하고, 《춘추(春秋)》의 성토를 피하고자 할 때에는 “유서를 받들지 못한 죄를 스스로 받을 것이다.”고 말하여 정적(情迹)이 이도저도 아니고 좌우가 가로막혔으니, 그의 마음이 괴롭다 할 것이다. 그의 이른바 “광명(光明)하고 정직(正直)하다.”는 것이 도리어 이와 같은 것인가?

이편은 신미년(1931) 여름에 김세기의 편지에 대해 전사견이 변론한 것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였다가 휴지(休紙) 뭉치 속에 버려두었던 것이다. 오늘 우연히 이것을 보았는데, 고찰할 만한 것이 많고, 전사견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슬퍼서 수록하였다. 기묘년(1939) 가배일(嘉排日 8월15일)에 기록하다.

《신라 김씨 세보》중 의심스러운 점을 논변하다 【1937년】

《新羅金氏世譜》中辨疑【丁丑】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이 뒤섞여 어지러운 것은 성인의 도로 절충해야 한다.⁷⁶⁴⁾”고 하였는데, 나는 반신반의한 역사는 이치로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릇 사람이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면 정력이 쇠퇴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이치이다. 비록 장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백 년이 지나지 않아 죽게 되니, 만약 “백 년이 지나 자식을 두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치가 아니다. 지금 우리 김(金)씨 중에 《신라김씨세보(新羅金氏世譜)》중 “이부상서공(吏部尙書公)은 경순왕(敬順王)의 증손(曾孫)이고, 마의태자(麻衣太子)의 손자이며, 기로(箕輅)의 아들이다.”는 문구를 가져와 우리 족보의 상계(上系)로 기재해 넣고, 옛 가첩(家牒)에 기재된 “상서공은 경순왕의 육세손(六世孫)이다.”는 문구와 나란히 세워 대치시켜 뿌리를 둘로 함으로써 반신반의하면서 결정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시험 삼아 나의

764) 말이 …… 한다 : 한나라 양웅(揚雄)의 《양자법언(揚子法言)》〈오자편(吾子篇)〉에 나오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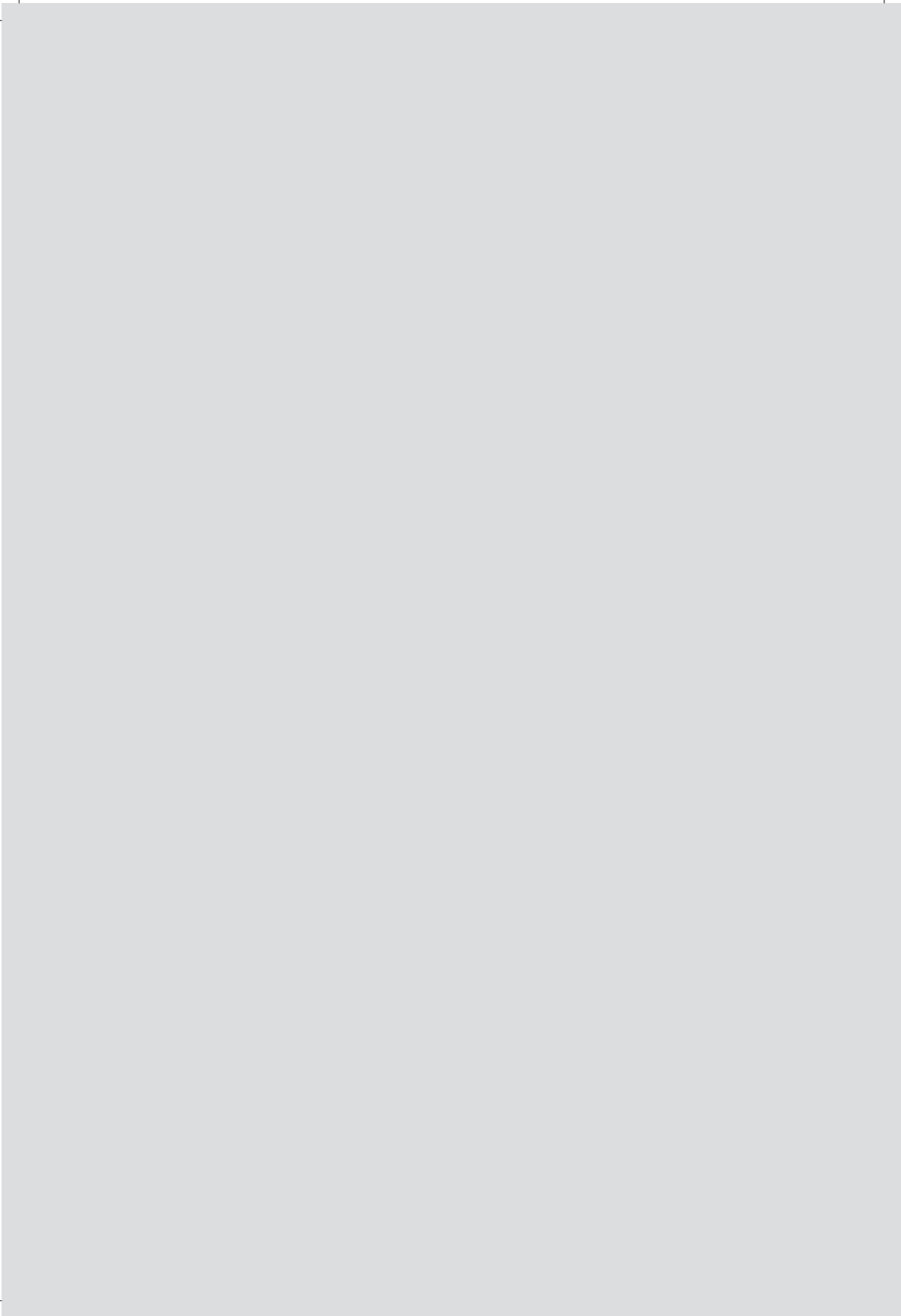
변론을 들어보기 바란다.

태자가 입산(入山)한 때가 고려 태조(太祖) 을미(乙未)년이 아닌가. 상서공이 과거에 급제한 때가 선종조(宣宗朝)가 아닌가. 을미년부터 선종 초말(初末)까지 백오륙십 년이 아닌가. 가령 상서공이 나이 오십이 되었을 때에 선종 원년(元年) 갑자(甲子)년에 처음으로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한다면 충성한 해로부터 위로 태자가 입산한 을미년까지의 세월이 백년이 아닌가. 《신라보》에 “기락이 아버지를 따라 입산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당시의 나이가 적어도 10세 이상보다 낫지는 않겠는가. 가령 오십에 아들을 낳았다면 아래로 상서공이 과거에 급제한 갑자년까지의 세월이 백 년이 아니겠는가. 천하에 어찌 백십 세에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있겠는가. 오십에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기준하면 “그 아버지가 백십 세에 아들을 낳았다.”고 말한 이후에야 가능하니, 어찌 이치이겠는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힐난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대는 《신라보》를 믿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시기는 증거로 취한 것인가?” 하니, 내가 말하기를, “그대는 《맹자》를 읽지 않았는가? 맹자는 <무성(武成)>에서 ‘하늘을 받들어 포악한 사람을 정벌했다. [奉天伐暴]’는 말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기 때문에 취하였고, ‘피가 흘러 절굿공이가 떠내려갔다.[血流漂杵]’는 말은 이치로 결단하여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⁷⁶⁵⁾ 내가 《신라보》에서 증거를 취하여 우리 김 씨가 태자의 종파(宗派)이지만 태자 이하 상서공 이상 대서(代序)를 믿지 못한 것과 부령(扶寧)⁷⁶⁶⁾·부안(扶安)의 선계(先系)를 나누어 둘로 한 것은 맹자에게 받은 바가 있어서이다.” 하였다. 【고려 선종의 재위(在位)는 십일 년이다.】

765) 맹자는 …… 않았다 : 《맹자》 <진심 하(盡心下)>에 나오는 말이다. 맹자가 말하기를, “《서경》의 내용을 모두 믿는다면 《서경》이 없는 것만 못하니, 나는 《서경》의 <무성>에서 두세 쪽만을 취할 뿐이다. [盡信書, 則不如無書. 吾於武成, 取二三策而已矣.]” 하였는데, 집주(集註)에서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하늘을 받들어 포악한 사람을 정벌한 뜻과 정사를 돌이켜 인을 베푸는 법을 취할 뿐이다. [取其奉天伐暴之意反正施仁之法而已]”하였다. 이어서 맹자가 말하기를, “인자한 사람은 천하무적이데, 지극히 인한 사람이 지극히 불인한 사람을 정벌하였으니 어떻게 그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내려가게 할 수가 있겠는가. [仁人無敵於天下, 而至仁伐至不仁, 而何其血之流杵也?]” 하였는데, 집주에서 “맹자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孟子言此則其不可信者.]” 하였다.

766) 부령(扶寧) : 부안의 옛 이름으로, 백제시대에는 개화현(皆火縣)이라 칭했다가 나당연합군에 백제가 망한 뒤 신라 경덕왕 때부터 부령현이라 칭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후창집》 제15권

《後滄集》卷之十五

잡저

雜著

《간재선생사고》진주본⁷⁶⁷ 고변록

良齋先生私稿晉州本考辨錄

권1

卷一

진주본 28판(板) 좌(左) 5행(行) : <김혼천에게 답한 편지[答金混泉]>

화도수정본⁷⁶⁸ : <혼천 김공께 답한 편지[答混泉金公]> 【《전고(前稿)》⁷⁶⁹.

이하 같다.】

○변(辨) : 혼천(混泉 김만수(金萬壽))은 계미(1823, 순조23)생으로 선사보다 열여덟 살이 많으므로 ‘공(公)’자를 붙여서 그를 공경한 것이다. 지금 ‘공’자를 빼는 것은 선사의 뜻이 아니다.

진주본 36판 좌 11행 : 지난번 유림의 소장에 이것을 인용한 것은 대개 장자(張子 장재(張載))⁷⁷⁰를 끌어다가 자기편에 넣어 타인이 자기를 비난하는

767) 진주본(晉州本) : 1924년 문인 오진영(吳震泳, 1868~1944), 권순명(權純命, 1891~1974) 등이 주도하여, 1926년 10월 진양인쇄소(晉陽印刷所)에서 연할자본으로 간행한 것을 말한다. 원편(原編) 43권, 속편(續編) 16권 합 30책의 《간재사고(良齋私稿)》로, 전우 문집의 초간본이다.

768) 화도수정본(華島手定本) : 전우가 직접 수정(手定)한 것으로 문인 김택술(金澤述, 1884~1954)이 필사하여 보존하다가 김택술의 아들 김형관(金炯觀)이 1984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전우전집(田愚全集)》으로 영인하였다.

769) 전고(前稿) : 전우가 고부(古阜) 백천재(百千齋)에 머무르던 1906년 3월, 김준영(金駿榮)에게 초고를 수습하게 하여 문고 36책으로 산정(刪定)해 두었고, 1912년 11월에는 1906년에 산정해 두었던 문고 36책에 성기운(成璣運)이 1906년 이후에 수집해 둔 글을 합하여 성기운, 권순명, 유영선(柳永善, 1893~1961) 등이 편집하고 전우가 직접 25책으로 산정하여 ‘전고(前稿)’라고 하였다.

770) 장재(張載) : 1020~1077. 자는 자후(子厚), 호는 횡거(橫渠)이다. 이 구절의 앞뒤에 장재(張載)의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向來儒疏引之, 蓋欲援張子而入於己, 以拒他人之非己.] 【<심참판에게 답한 편지[答沈參判]>. 이하 같다.】

진주본 37판 우 3행 : 지금 유림 소장(疏狀)의 말과 같은 경우[今如儒疏之言] 화도수정본 : ‘유소(儒疏)’는 둘 다 ‘소유(疏儒)’로 되어있다.

○변(辨) : 한 글자가 도치되면 글이 가리키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권2

卷二

35판 좌 5행 : 제가 충정을 다해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그칠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기신다면, 청컨대 각자가 들은 바를 존중하고 각자가 아는 바를 행하는 것을 일삼기를 바랍니다. 더는 꼭 의견이 같아지기를 바랄 수 없으니, 주자가 한탄한 것과 같습니다. 【<유치정(柳穉程)⁷⁷¹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擬與柳穉程]>】

화도수정본 : 각 단락이 한 칸 내려와 있다.

○변(辨) : 단락을 달리하여 내려서 쓴 것은 특별히 간절한 뜻을 드러낸 것인데, 지금 이어서 한 단락으로 만든 것은 선사의 의도를 놓친 것이다.

권3

卷三

17판 우 7행 왼쪽.

화도수정본 : <김정사에게 물은 편지[問金正斯]>.

《서명(西銘)》을 언급하고 있다.

771) 유치정(柳穉程) : 유중교(柳重教, 1832~1893)이다. 자는 치정(穉程), 호는 성재(省齋),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김평묵과 함께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852년 이항로의 명으로 《송원화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편수했다.

지난 편지에서 저에게 말씀하신 국상(國喪) 중에는 삼베옷과 무명 갓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가르침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선달 상제(祥祭) 후에도 그대로 흰 갓과 흰 의대(衣帶)를 착용하려고 한 것은, 대개 망한 나라 유민(遺民)의 한을 빚댄 것입니다. 자손과 문하생 같은 경우는 꼭 그럴 필요가 없으니, 이 의리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두익(徐斗益)이 전한 바를 들으니 위(韋)공은 제가 상제(祥祭) 후에도 그대로 흰 갓과 흰 의대를 입겠다고 한 말을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후고(後稿)》⁷⁷²⁾. 이하 같다.】

○변(辨) : 선사께서 생전에 시회(時諱) 시대에 용납되지 않는 언행)에 크게 관련된 것을 골라 별집(別集)으로 만들었는데 그나마 관련이 적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물며 이러한 글들은 단지 시의를 논한 것이지 시회에 관련된 것이 아닌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별집에 넣었는가? 이런 경우가 매우 많은데 결코 선사의 평소 뜻이 아니다. 그리고 의리(義理)와 관계된 글을 원집(原集)에 보이지 않게 하였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바이다.

27판 우 11행 : 집에는 부형(父兄)이 있는데도 존중하지 않고, 세상에는 성현이 있는데도 존경하지 않으며, 하늘에는 상제(上帝)가 있는데도 무람없이 굴고, 자신에게는 천성이 있는데도 폄훼합니다.[家有父兄而也不尊, 世有聖賢而也不尊, 天有上帝而也可褻, 身有天性而也可貶.] 【<박정단⁷⁷³⁾에게 답한 편지[答朴正端]>】

화도수정본 : 4개의 ‘야(也)’자가 없다.

○변 : 자기 견해로 선사의 문장에 글자를 더하였으니 이 무슨 번고란 말인가.

772) 후고(後稿) : 1921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권순명과 유영선 등이 1913년 이후 모아 둔 전우의 초고를 정리하였다. 이것을 전우가 직접 산정한 뒤 문인들에게 선사(繕寫)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후고’이다.

773) 박정단(朴正端) : 박만환(朴晩煥)이다. 전우의 제자이다.

권4 卷四

17판 우 6행 왼쪽.

화도수정본 : <노인오에게 답한 편지[答盧仁吾]> 1편이 있다.

제가 죽은 뒤에 누가 그 도통을 전수(傳受)할 사람인지 여쭙셨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소견이 없으니 그 밖에 또 무엇을 묻겠습니까? 정자(程子) 문하의 여러 사람에 대해 회옹(晦翁 주자) 이 또한 ‘그 스승을 저버리고 이단에 빠졌다.’⁷⁷⁴⁾라고 하였으니, 도를 전하기 어려운 것이 심합니다. 병암(炳菴)⁷⁷⁵⁾이 병이 없을 때, 저는 그 학문이 깊고 지식이 바르며, 지조가 견고하고 덕이 두터워 위로 전옹(全翁 임헌회(任憲晦))의 실마리를 이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불행히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머지 제군들 중에는 마땅히 기대하거나 바랄만한 사람이 없으니, 저는 선숙(禪宿)⁷⁷⁶⁾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변 : 이것은 선사께서 떠난 이를 애도하고 앞날을 걱정한 글인데 차마 없앨 수 있는가?

20판 우 3행 : 본생가(本生家)⁷⁷⁷⁾의 가모(嫁母) 아버지가 죽고 개가한 어머니)는 당연히 대공복(大功服 9개월 복)을 입어야 합니다. 대개 한편으로는 출계(出系 양자로 감)하고, 한편으로는 개가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이 다하기 전까지는 백립(白笠)⁷⁷⁸⁾을 착용하고 이후에는 목립

774) 정자(程子) …… 빠졌다 : 주자는 <중용장구서(中庸章句序)>에서 “스승의 말을 저버리고, 노불(老佛)에 빠진 자가 또한 있었다.[倍其師說而淫於老佛者, 亦有之矣.]”라고 하였다.

775) 병암(炳菴) : 김준영(金駿榮)이다. 전우의 제자이다.

776) 선숙(禪宿) : 노선(老禪)과 같은 말로, 학식이 높은 노숙한 선승(禪僧)을 일컫는다. 간재를 두고 이른 말로 보인다.

777) 본생가(本生家) : 양자로 간 사람의 생가를 말한다.

778) 백립(白笠) : 흰 베로 만든 것이다. 국상(國喪) 때 일반 백성이 쓰거나, 대상을 지낸 뒤에 상주(喪主)가 썼다.

(墨筥)⁷⁷⁹과 묵대(墨帶)⁷⁸⁰를 써서 심상(心喪)⁷⁸¹을 마치면 될 듯합니다.

【<유선일에게 답한 편지[答柳善一]>】

화도수정본 : 없다.

○변 : 이것은 정론(定論)이 아니므로 친히 삭제하신 것이다. 김익용(金益容)이 <김택술(金澤述)에게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본생가의 개가한 어머니에 대해 마땅히 대공복을 입어야 한다는 설은 《매산집(梅山集)》⁷⁸²에 실려 있는데 선사께서 붙여둔 찌지로 살펴보면, 기년복이 합당한 듯합니다. 말씀하신 대공복 설은 진주본에는 실려 있으나 화도본에는 없습니다. 아마 대공복으로 낮춘 것이 미안하여 친히 삭제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⁷⁸³이 말하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우의 첩자(妾子)를 취하여 양자로 삼아 적통을 이었다면, 이른바 ‘첩자의 어머니’는 곧 아버지가 데려다 데리고 산 사람이 아니므로 마땅히 재가한 어머니는 자취(齊衰)⁷⁸⁴ 장기(杖葦)⁷⁸⁵를 입어야 합니다. 양자로 삼았으면 마땅히 복제(服制)를 낮추어야 하므로 부장기(不杖葦)⁷⁸⁶를 입어야겠지요. 부장기를 입는다면 본생가의 적모(嫡母)와 차이가 없으니 대공복을 입고 심상(心喪) 3년을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⁷⁸⁷라고 하였다.

779) 묵립(墨筥) : 상례에서 먹물을 칠한 것으로, 묵쇠(墨衰)의 심제인(心制人)이 쓰는 것이다.

780) 묵대(墨帶) : 상례에서 먹물을 들인 베띠로, 묵쇠의 심제인이 띠는 것이다.

781) 심상(心喪) : 상복(喪服)을 입지 않으면서 화려한 의복과 주육(酒肉)을 금하는 것이다.

782) 매산집(梅山集) : 홍직필(洪直弼, 1776~1852)의 문집이다.

783) 홍직필(洪直弼) : 1776~1852. 홍직필의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이고, 호는 매산(梅山)이며,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주리파로 한원진의 심선악설(心善惡說)과 임성주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를 반대하였다.

784) 자취(齊衰) : 오복(五服)의 하나로 굵은 삼베로 짓되 아래 가를 좁게 접어서 꿰맨 상복이다.

785) 장기(杖葦) : 상례(喪禮)에서, 상주가 상장(喪杖)을 짚고 자취로 1년 동안 입는 상복(喪服)이다.

786) 부장기(不杖葦) : 상례에서 1년 동안 상복만 입고 지팡이는 짚지 않는 것을 말한다.

787) 여기 …… 듯합니다 : 《매산집(梅山集)》 권10 <답이자강(答李子岡 乙酉八月初吉)>에 보인다.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적모와 차이가 없으니 구애받아서 안 될 듯하다. 대개 서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적모와 첩모(妾母)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장기하니 두 어머니가 차이가 없는데 어찌 굳이 구애받겠는가? 그렇다면 매옹(梅翁 홍직필(洪直弼))이 대공복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다만 적모와 구별하고자 한 것이다. 적모가 없으면 낮추지 않고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였다.

권6 卷六

19판 우 11행 : 지금처럼 …… 족하께서 의를 지키고 학문에 힘쓰는 자세한 사정(如今 …… 足下守義力學之詳) 【〈최근술(崔近述)⁷⁸⁸에게 답한 편지 [答崔近述]〉】

화도수정본 : 지금처럼 오로지 문사만 숭상하고 의관을 벗어던지는 세상에서 이런 지극한 논의를 들으니 진실로 우러러 감탄합니다. 이윽고 또 변순하(邊舜何)·전평중(田平中)으로부터 족하께서 의를 지키고 학문에 힘쓰시는 자세한 사정을 들었습니다.[如今專尙文辭, 擺脫衣冠之世, 得聞此至論, 固已敬歎. 既而又從邊舜何, 田平中, 聞足下守義力學之詳.]

○변 : ‘문(聞)’자를 삭제하면 ‘상(詳)’자가 마땅치 않다. 산삭(刪削)에 급급하여 선사의 글이 문리가 통하지 않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아주 괴이한 일이다.

20판 우 1행 : 선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위도 검고 아래도 검어⁷⁸⁹ 도무지 자신을 드러낼 곳이 없다.[士生斯世, 上黜下黷, 靡所於自見.] …… 【〈허암경(許巖卿 허업(許業))에게 답한 편지[答許巖卿]〉】

화도수정본 : ‘자현(自見)’이 ‘왕(往)’자로 되어있다.

788) 최근술(崔近述) : 최인자(崔仁字)이다.

789) 위도 …… 검어 : 이적(夷狄)의 의복을 말한다. 《간재집 전편(艮齋集前篇)》 권2 〈여송동옥(與宋東玉)〉에는 ‘上’ 앞에 ‘또 불행히도 이적의 번고를 만나[又不幸而值夷狄之變]’라는 문장이 있다.

권10

卷十

41판 우 : <권영손에게 보낸 편지[與權永巽]> ‘언어수요(言語須要)’ 조목.

【경신년(1920)】

화도수정본 : <김현순에게 답한 편지[答金玄淳]>에 있다. 【《전고(前稿)》. 을사년(1905)】

권11

卷十一

12판 좌 : <박란서에게 보낸 편지[與朴蘭緒]> ‘사습과 민속[士習民俗]’ 운운한 1개 조목.

화도수정본 : 없다.

○변 : 망령되이 한 편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사사로운 안면에 구애되어 다시 변통(變通)을 행하는 것은 썩은 백골을 속이는 것이며 선사께서 남긴 글에 무지한 것이다.

권12

卷十二

7판 좌 7행 : 도체(道體)가 사람들에게 공경을 받지 못하면 뒤에는 곧 자립하지 못할 것입니다.[道體被人不敬, 後便不立.] 【<이희진에게 답한 편지[答李喜璣]>】

화도수정본 : ‘후(後)’자가 없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

권13

卷十三

28판 좌 12행 : 저 사람이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참으로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 괴이한 일이고 괴이한 일입니다.[彼之強拗, 固不足責也. 怪事怪事.]【〈박대현에게 답한 편지[答朴大鉉]〉】

화도수정본 : ‘책(責)’ 아래에 ‘야(也)’자가 없고, ‘우리 형문(亨文)⁷⁹⁰처럼 탁 트이고 호방한 사람이 어찌하여 다시 여우처럼 의혹하여 깨우치지 못하십니까?[若吾亨文之疏通豪爽者, 何復狐惑而莫之醒也?]'라는 19자가 있다.

○변 : 이미 “참으로 꾸짖을 가치도 없습니다.[固不足責也.]”라고 하고서 다시 어떻게 ‘괴이한 일[怪事]’이라는 말을 하겠는가? 이 사이에 반드시 ‘약오형문(若吾亨文)’ 이하 19자가 있어야만 문리가 성립된다. 지금 형문의 괴이하게 여길 만한 일은 삭제하고 다만 ‘괴사(怪事)’라는 글자만 남겨둔 것은 무슨 의도인가? 참으로 괴이하고 괴이한 일이다.

378판 : 그의 설(說)은 그래도 침잠하여 생각해볼 만하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서 어긋난 경우, 어찌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며 결단하지 못하는 태도를 용납하겠소? 대저 우리 낙중(洛中)의 선현이 조술(祖述)한 정주(程朱 정자와 주자)의 ‘기품(氣稟)은 혹 다르지만, 성(性)·리(理)는 하나이니, 기질을 맑게 다스려 본성을 회복한다.’는 설은, 그 천명(天命)·인심(人心)·성학(聖學)·세도(世道)에 있어 어디 걸리거나 막히는 데가 있다고 사서집주(四書集註) 장구(章句)의 철판(鐵板) 정본(定本)을 버리고 이에 스스로 ‘태극이 음양 속에 있으면 곧 본연이 아니다. 천성이 기질 속에 있으면 곧 본연이 아니다.’는 설을 지어 스스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정전(正傳)’이라고 하며 천하를 바꿀 것을 생각하시오? 나는 슬며시 이러한 설을 세운 것이 성리학에 무슨 도움이 되며, 심술(心術)의 쓰임에 무슨 개명(開明)이 된다고 기력을

790) 형문(亨文) : 박대현(朴大鉉)의 자(字)로 추정된다.

모조리 쏟고 예의와 겸손을 버려가며 스스로 호락(湖洛)을 뛰어넘고 사우(師友)를 깔보는 잘못을 저질러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괴이적소.

고금 천하에 음양(陰陽)이 있지 않은 태극(太極), 기화(氣化)가 있지 않은 천명(天命), 형기(刑器)가 있지 않은 도(道)를 본 적이 있소? 지금 ‘천지(天地)의 성(性)’이라고 말하면 비록 백 명의 정제경(鄭濟卿)이라도 반드시 ‘기질을 성(性)으로 여기지 않는 성(性)’⁷⁹¹이라고 지칭하지 못할 것이오. 그러나 ‘천지(天地)’ 두 글자가 이미 천기(天氣)와 지질(地質)을 가리켜 말하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천명지성(天命之性)’을 말하면서 또한 일찍이 인(人)·물(物)의 형기에서 벗어나 말한 적이 없소.

이것은 또 《중용》 첫 구절의 주석에 갖추어져 있소.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풀이하기를 “주자가 기로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부여되었다고 하였으니, 이(理)와 기(氣)는 원래 서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기에 나아가면 이(理)는 그 속에 있다.”⁷⁹²라고 하였소. 이러니 이것이 어찌 이(理)가 기(氣)에 있다고 해서 본연(本然)을 얻지 못한 것이겠소?

《성리대전(性理大全)》 해석에서 풀이하기를 “타고난 것을 성(性)이라 한다.”⁷⁹³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것은 인(人)·물(物)이 타고난 기를 품부 받아서 천명의 성이 거기에 있는 것이오. 이는 《중용장구(中庸章句)》와 《성학집요(聖學輯要)》의 소주(小註)가 한 판에서 찍어낸 것처럼 같고, 세 살 먹은 어린아이도 모두 아는 것이오.

그런데 유독 정제경만 다른 눈을 갖고 다른 혀를 놀려 이미 자신을 그르치고 또 남까지 잘못되게 하였다고.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이 뱃속에

791) 기질은 …… 성(性) : 장재(張載)가 《정몽(正蒙)》 제6 <성명(誠明)>에 이르기를 “형이 있는 다음에 기질의 성이 있나니, 이것을 잘 회복시키면 천지의 성이 그대로 보존되므로, 기질의 성을 군자는 성으로 여기지 않는다.[形而後有氣質之性, 善反之則天地之性存焉, 故氣質之性, 君子有弗性者焉.]”라고 하였다.

792) 기로서 …… 있다 : 이 말은 원래 《중용》 1장에 나오는 주자(朱子)의 주(註)이다. 이이(李珥)가 《성학집요》 제1절 <통설(統說)>에 인용하였다.

793) 타고난 …… 한다 : 이 말은 《성리대전서(性理大全書)》 권30에 “장자가 말하기를 ‘타고난 것을 성(性)이라고 하니, 성은 곧 기(氣)이고 기(氣)는 곧 성(性)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을 이르는 것이다.[程子曰: 生之謂性, 性卽氣, 氣卽性, 生之謂也.]’”라고 하였다.

잉태된 처음부터 진실로 이렇게 어긋난 이치를 품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소?〔獨鄭濟卿，具得別眼，掉得異舌，既以自誤又以誤人。此豈其人胚胎之初，真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

내가 경산(磬山) 강대집(姜大集)⁷⁹⁴에게 말하기를 “기질로부터 말하면 비록 인·물의 품부 받은 성(性)이 같지 않다고 말하더라도 실로 무방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니, 바로 지금 정제경의 말과 같오. 이윽고 그 오류를 이내 깨닫고 예전의 견해를 통렬히 버리고 그 뒤로는 감히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소. 지금 그 사람이 비록 힘껏 옛 견해를 주장하지만, 또한 그가 잘못을 깨닫고서 바른 데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어찌 단정하겠소?

만약 타인이 그가 급히 고치기를 바라서, 있는 힘껏 함께 변론하여 배척하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을 더 고집하게 하여 더욱 구제할 수 없을 것이오. 원컨대 이견(而見 오진영(吳震泳))이 다만 노주(老州 오희상(吳熙常))⁷⁹⁵의 인물성론(人物性論)을 스스로 믿고 친한 친구들과 마주하고서 대략 큰 원두(源頭)를 들어서 설명하여, 그들이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다시는 함께 설왕설래하여 성문(聖門)의 차분하고 순후한 기풍을 훼손하지 마시오. 【〈오진영⁷⁹⁶에게 답한 편지 [答吳震泳]〉.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소주(小註)에는 ‘독정제경(獨鄭濟卿)’ 이하 ‘리이연야(理而然耶)’ 까지 39자⁷⁹⁷가 삭제되었다.

794) 강경산(姜磬山) 대집(大集) : 강영직(姜永直)이다. 대집(大集)은 자, 경산(磬山)은 호이다.

795) 오희상(吳熙常) : 1763~1833.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1800년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818년 은거하여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황과 이이의 양설을 절충적 입장에서 취하였으며,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저서로 《독서수기》·《노주집》 등이 있다.

796) 오진영(吳震泳) : 1868~1944. 자는 이견(而見), 호는 석농(石農)이다. 충북 진천에서 태어났다. 전우의 제자로 1926년 진주본인 《간재사고(良齋私稿)》의 간행을 주도하였고, 1929년 《추담별집(秋潭別集)》을 간행하였다. 1943년에 간재의 〈행장〉을 지었다.

797) 39자 : “유독 정제경(鄭濟卿)은 다른 눈을 갖고 다른 혀를 놀려 이미 자신을 가르치고 또 남까지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사람이 뱃속에 잉태된 처음부터 참으로 이렇게 어긋난 이치를 품부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소?〔獨鄭濟卿，具得別眼，掉得異舌，既以自誤又以誤人。此豈其人胚胎之初，真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변 : 소주를 본문으로 만들고, 삭제한 것을 도로 남겨둔 것은 선사의 지극한 의도와 매우 어긋난다.

권14

卷十四

6판 우 3행 : 그 언행과 심술의 망령되고 어긋남[妄錯]은 털끝만큼이라도 입이나 붓끝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 심제(心弟)가 성사(性師)를 배우는 도리라고. 내가 이에 장차 이견이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 덕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볼 것이니, 이견은 공경히 듣고 삼가 지킬지이다. 【내 성품이 평소 어리숙하여 그대 마음에 들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이 한 마디는 이견의 평생 스승이 되기에 무방할 것이다.】

화도수정본 : 아래의 ‘이견(而見)’ 아래에 또 ‘이견(而見)’ 2자가 있다. 소주(小註) 끝에 ‘주제님께 말하여 거듭 죄송합니다.[僭越之言, 知罪知罪.]’ 8자가 있다.

○변 : 재차 ‘이견’을 부르고 나서 ‘주제님다.’, ‘죄송하다.’고 하며, 간곡하고 엄중한 뜻을 다하였다. 지금 그것을 삭제하였으니, 어쩌면 그리 듣기 싫어한단 말인가.

권16

卷十六

11판 : <정세영에게 답한 편지[答鄭世永]>.

만약 ‘인(人)·물(物)의 기(氣)가 비록 만 가지로 다르더라도 이(理)의 품부(稟賦)받은 것은 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찌 단번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아끼겠소? 만약 말하기를 “성인과 범인은 기가 이미 다르니 이(理)의 품부 또한 다르다. 【인·물(人物)과 성·범(聖凡)이 호문(互

文)이다.】”라고 하면, 비록 그와 함께 종일토록 말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⁷⁹⁸⁾은 할 수 없으니, 다시는 말하지 않겠소. 우선 ‘동수이품(同受異稟)’의 설을 잠시 내려두고 서둘러 심술(心術)에 나아가 공사(公私)와 득실(得失)의 분변(分辨)을 정밀히 살펴주길 바라오. [如曰人物氣 雖萬別而理之稟受則同. 則愚於言下. 何惜一唯. 若曰聖凡氣 既不同則理之稟受亦異. 【人物聖凡互文.】 則雖與之言終日. 亦莫能不違如愚矣. 請不復也. 請且少置同受異稟之說. 急要就心術. 精察公私得失之辨焉也.]

화도수정본 : <정세영·박창현에게 답함[答鄭世永朴昌鉉]> ‘여왈(如曰)’ 위에 ‘이공(二公)’ 2자가 있고, ‘청(請)’과 ‘차(且)’ 사이에 ‘이군(二君)’ 2자가 있으며, ‘변(辨)’자 아래는 ‘언야(焉也)’ 2자가 없다.

15판 우 13행 왼쪽.

화도수정본 : <정세영에게 답한 편지[答鄭世永]>.

훗날 이 몸이 죽고 난 뒤에는 눈을 감았는지 물을 필요가 없소. 경(卿)과 이견(而見 오진영)이 기운을 낮추어 이치를 따르고 논쟁을 풀고서 화해하면 내 눈을 감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비록 치전(致奠)⁷⁹⁹⁾을 해도 내 흠향하지 않을 것이오. 【나는 두 사람이 이기(理氣)에 대한 소견을 억지로 바꾸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심기가 화평하여 성정의 덕에 어그러지지 않는 것을 구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798) 비록 …… 것 : 《논어》〈위정(爲政)〉에 “내가 안회와 더불어 온종일 이야기를 함에 내 말을 어기지 않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더니, 물러간 뒤의 사생활을 살펴보건대 또한 충분히 발명(發明)하니, 안회는 어리석지 않구나.[吾與回言終日, 不違如愚, 退而省其私, 亦足以發, 回也不愚.]”라고 한 구절을 원용한 것이다.

799) 치전(致奠) : 사람이 죽은 때 친척이나 스승 또는 벗이 제물(祭物)과 제문(祭文)을 가지고 조문하는 것이다.

권17

卷十七

35판 9행 : 매일 날이 저물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간략히 점검하여라.[每至夕陽, 簡此一日所爲.] 【<최종문에게 답한 편지[答崔鍾文]>】

화도수정본 : ‘차(此)’가 ‘점(點)’으로 되어있다.

○변 : 이런 경우는 아마 착오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저들 판본의 정오표(正誤表)에는 보이지 않으니 또한 이것으로 간주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또 교정이 미진하다면 굳이 깊이 논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다만 결국 그만두면 화도수정본의 본 문장을 알 길이 없으므로 마침내 기록한다.

권19

卷十九

39판 좌 1행 : ‘호론제현(湖論諸賢)’ 【<김택술에게 답한 편지[答金澤述]>】

화도수정본 : ‘호론제선생(湖論諸先生)’으로 되어있다. 【《전고(前稿)》】

권20

卷二十

6판 우 11행 :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은 음양(陰陽)과 심령(心靈)을 형이상으로 여겼으니 기욕(氣慾)의 폐해를 살피지 못한 것이다.[象山以陰陽心靈爲形而上, 爲不察氣慾之害.] 【<전기진에게 답한 편지[答田璣鎮]>】

화도수정본 : 아래 ‘위(爲)’자는 ‘이(而)’로 되어있다. 【《후고(後稿)》】

17판 좌 : <천하운에게 보낸 편지[與千河運]> 【을묘(1915)】

29판 좌 : <노헌구에게 답한 편지[答盧憲九]> 【병진(1916)】

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

권23

卷二十三

1판 우 12행 : 선비로서 한가로이 세월만 보내는 자가 유독 궁색하고 추한 부끄러움이 없겠소? 후배에게 삼가 권하노니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오.[士子而悠泛者, 獨無窮醜之恥乎? 奉勸後輩, 宜加惕念.]
【〈유영선에게 답한 편지[答柳永善]〉.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후배(後輩)’가 ‘희경(禧卿 유영선(柳永善))’으로 되어있다.

【《전고(前稿)》】

7판 좌 10행 : ‘목상(穆上)’

화도수정본 : ‘이모(李某)’로 되어있다. 【《후고》. 이하 같다.】

26판 좌 7행 : 다만 평소 소견을 무릎 꿇고 고명(高明)께 올립니다.[只對平昔所見者, 跪進於明者之前.] 【〈김효술에게 답한 편지[答金孝述]〉】

화도수정본 : ‘대(對)’가 ‘장(將)’으로 되어있다.

29판 : 〈구연직에게 답한 편지[答具然直]〉

화도수정본 : 〈아무개에게 답한 편지[答某]〉

○변 : 문인 중 변절자는 《관선록(觀善錄)》⁸⁰⁰과 《사고(私稿)》에서 이름을 삭제하였다. 선사께서 평소 법문(法門 문하)을 엄정히 하셨는데 지금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에 멋대로 고쳤으니, 이것은 스승을 속이는 것이며, 아주 무지한 것이다.

33판 〈윤하명에게 답한 편지[答尹夏明]〉 【기미년(1919)】

화도수정본 : 없다.

800) 관선록(觀善錄) : 전우(田愚)의 문인록(門人錄)이다.

권24

卷二十四

2판 우 10행 왼쪽.

화도수정본 : <최원에게 답한 편지[答崔愿]>

모문(某門)은 우리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 선생의 유파가 아닙니까. 설사 그들이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도리로는 다만 애석히 여기는 마음과 화평한 말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본래 마음으로 이치를 따르는 학문이니, 어찌하여 서로 더불어 면려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와 서로 배격하여 유기일(柳基一)⁸⁰¹·홍재구(洪在龜)⁸⁰² 등 여러 사람이 유지평(柳持平)⁸⁰³을 원수로 본⁸⁰⁴ 잘못된 전철을 다시 밟지 마십시오. 저는 스스로 저의 이 마음은 매옹을 대하고 의당(毅堂 박세화(朴世和))⁸⁰⁵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상 1개 조목이 있고, 한 칸을 내렸다.

15판 좌 12행 : 요즘 《송자대전(宋子大全)》의 조포저(趙浦渚 조익(趙翼)⁸⁰⁶)가 선조에게 고한 말을 읽어보았습니다.[比讀宋子大全趙浦渚告宣

801) 유기일(柳基一) : 1845~1904. 자는 성존(聖存), 호는 용계(龍溪)·용서(龍西), 본관은 문화(文化)이다. 출신지는 경기도 포천이다. 일찍이 이항로의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이항로 사후에는 김평목을 사사하였다.

802) 홍재구(洪在龜) : ?~1898. 자는 사백(思伯)이고, 호는 손지(遜志),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출신지는 강원도 춘천(春川)이다. 화서 이항로, 중암 김평목에게서 배웠으며 김평목의 사위이다.

803) 유 지평(柳持平) : 유중교를 말한다. 유중교는 1882년에 사헌부 지평에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설악산으로 들어갔다.

804) 유기일(柳基一) …… 본 : 유기일(柳基一)과 홍재구(洪在龜)는 김평목의 제자로 유기일은 1876년 개항 문제를 두고 개항 반대 연명(聯名) 상소를 올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맨 처음에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중교를 비난하며 관계를 끊었다. 홍재구는 유중교가 화서의 심설을 수정한 안을 김평목에게 올린 일에 대해 ‘대변(大變)’이라고 하며 유중교를 비난하였다.

805) 박세화(朴世和) : 1834~1910. 함남 출신으로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에게서 수학하였으며 충북 제천(월악산)에서 활동하였다.

806) 조익(趙翼) : 1579~1655. 자는 비경(飛卿), 호는 포저(浦渚)·존재(存齋),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廟之言.] 【〈박동신에게 답한 편지[答朴東信]〉】

화도수정본 : 요즘 《송자대전(宋子大全)》을 읽고 조포저가 선조에게 고한 말을 얻었습니다. 【조포저의 말은 〈신도비문(神道碑文)〉에 보인다.】

26판 좌 : 〈김식원에게 답한 편지[答金植沅]〉 【정사년(1917)】

30판 좌 : 〈양정호에게 답한 편지[答梁正鎬]〉

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

권25

卷二十五

9판 왼쪽 : 〈김종현에게 답한 편지[答金鍾玄]〉 “사군자(士君子)”, “인혹가기(人或可欺)”, “알의즉(曰義則)” 3개 조목.

화도수정본 : 없다.

권26

卷二十六

3판 우 11행좌 1행 : 김평묵(金平默)은 유중교(柳重敎)의 개안(改案)⁸⁰⁷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객기(客氣)를 부려 그 깊이 허여(許與)한 고제(高弟)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중교가 김평묵에게 답장한 편지에

장현광(張顯光)·윤근수의 문인이다.

807) 개안(改案) : 유중교가 화서 이항로의 심설에 대하여 제기한 수정안인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말한다. 화서의 핵심적인 사상인 명덕주리설(明德主理說)은 마음은 이(理)를 위주로 한다는 설이다. 유중교는 만년에 스승의 설에 회의를 품고 명덕주기설(明德主氣說)의 입장을 취하였다. 유중교는 55세 때인 1886년에 김평묵에게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내, 이항로의 심설(心說)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여, 화서학파 간의 논쟁 즉 김평묵의 제자와 유중교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었다.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배척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일로⁸⁰⁸⁾ 지목하여 대의멸친(大義滅親)⁸⁰⁹⁾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⁸¹⁰⁾라고 하였다.⁸¹¹⁾】 유증교는 김평묵의 비난에 대해 결코 구차하게 승낙하여 억지로 그 불안정한 정안(正案)⁸¹²⁾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⁸¹³⁾ 【유증교는 김평묵의 말을 마지못해 따라 정안을 세웠다가 김평묵이 죽고 나서 환수하였다.】⁸¹⁴⁾ 【〈관서의 제생에게 보낸 편지[與關西諸生]⁸¹⁵⁾】

화도수정본 : 김평묵은 유증교의 개안(改案)에 대해 결코 객기에 휘둘러 그가 깊이 허여한 고제를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증교가 김평묵에게

808) 아버지를 …… 일에 : 흥노의 선우(單于) 두만(頭蔓)이 태자(太子) 목탁(冒頓)을 폐하고 후처(後妻)에서 난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목탁을 죽이려 하였다. 목탁은 명적(鳴鏑)이라는 화살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와 후모(後母), 후모에서 난 동생까지 모두 쏘아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았다. 《史記 匈奴傳》

809) 대의멸친(大義滅親) : 큰 도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와 형제도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810) 스승을 …… 보이셨습니다 : 유증교(柳重敎)의 《성재집(省齋集)》 권7 〈상중암선생(上重庵先生) 【戊子八月十九日】〉에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지목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데 빗대어 대의멸친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目之以陷師而發拍地慟哭之語, 喻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라고 하였다. 《후창집》에는 ‘목(目)’자가 ‘척(斥)’자로 되어있고, ‘유(喻)’자가 ‘목(目)’자로 되어있다.

811) 유증교가 …… 하였다 : 유증교가 만년에 이항로의 심설(心說)에 이의를 품고 자신의 견해를 세우자, 김평묵으로부터 함사사부(陷師射父 스승을 모함하고 아버지를 쏘다)라는 흑평을 받기에 이르렀다.[柳於晚年, 改定心說, 始被金斥, 至謂陷師射父.]”라고 하였다. 《良齋集 後編 권3 答徐柄甲》

812) 정안(正案) : 유증교가 1888년에 두 가지 설을 절충해서 김평묵에게 보낸 〈화서선생심설정안(華西先生心說正案)〉을 말한다. 이 이후 잠정적으로 심설 논쟁은 중단되었다.

813) 김평묵(金平默)이 …… 것입니다 : 이 편지의 앞 구절과 대조하여 보아야 글의 뜻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다. 주기(主氣)를 주장한 간재는 김평묵과 유증교의 논쟁을 비판하여 화서의 심즉리설(心卽理說)이 갖는 문제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814) 유증교는 …… 환수하였다 : 유증교는 만년에 스승의 설에 회의를 품고 명덕주기설(明德主氣說)의 입장을 취하였다. 유증교는 55세 때인 1886년에 김평묵에게 〈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보내, 이항로의 심설(心說)을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후 김평묵과 많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57세인 1888년 10월에 김평묵을 찾아가서 〈화서선생심설정안(華西先生心說正案)〉을 올린다. 이후 62세인 1893년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3월 18일에 〈화서선생심설정안〉을 환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튿날 돌아가셨다.

815) 관서의 …… 편지: 진주본에는 〈관서의 제생에게 답한 편지[答關西諸生]〉로 되어있다.

답한 편지에 이르기를 “스승을 죄에 빠뜨렸다고 배척하여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말을 하였으며, 아버지를 쏘았던 일로 지목하여 대의멸친(大義滅親)하겠다는 뜻을 보이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유중교는 김평묵의 비난에 대해 결코 사사로운 뜻에 이끌려 도로 그 불안정한 구설(舊說)에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중교가 화서의 상(像)에 고한 글⁸¹⁶에서 스스로 이전에 조정하고 보완했던 것을 오류로 여기고 그 정안을 환수하였다. ○《전고(前稿)》】

21판 우 13행 : ‘즉기(卽氣)’는 …… 【누락】 이(理)를 해칠 뿐만 아니라, 결코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과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의 본뜻이 아닙니다. [卽氣【缺】非惟害理, 亦絕非農巖老洲之本旨也.] 【《김용승에게 답한 편지 [答金容承]》.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즉기(卽氣)’와 ‘비유(非惟)’ 사이에 “‘즉호기(卽乎氣 기에 나아가다)’로 본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즉시기(卽是氣 곧 기이다)’로 본다면 …… [作卽乎氣看, (則)⁸¹⁷無碍, 若作卽是氣看, (則)]”이라는 15자가 있다. 【《후고》. 이하 같다.】

○변 : 억지로 삭제하여 글을 망쳐놓고, 어찌하여 누락되었다고 하는가?

22판 좌 4행 : ‘유위(有爲)’ 두 글자에 대해 또한 “이(理)는 자연히 주재가 되니 신(神)이 정의(情意)와 조작(造作)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 한 구절은 노주의 말이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有爲二字, 亦曰自然爲主宰, 非如神之有情意造作. 【此一句. 老洲語.】 則可無疑矣.]’의 아래.

화도수정본 : ‘즉기(卽氣)’의 ‘즉(卽)’을 ‘취(就)’자로 보면 글이 명료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卽氣之卽, 如作就字看, 尤覺灑然矣.] ”라는 14자가 있다.

816) 유중교가 …… 글 : 유중교(柳重教)의 《성재집(省齋集)》 권40 <고화서선생유상문(告華西先生遺像文)>을 말한다. 상(像)은 초상에 고하는 글을 말하는데 원문 ‘상(象)’은 ‘상(像)’과 통용되는 글자이다.

817) 즉(則) : 실제 화도수정본에는 ‘즉(則)’자 두 글자가 더 있는데, 《후창집》에는 빠져있다. 이 두 글자를 넣어야 15자가 되므로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변 : ‘취(就)’자로 보는 것과 상단의 ‘즉호기(卽乎氣 기에 나아가다)’로 보는 것을 서로 조응(照應)하면 한 편의 주안점이 된다. 그리고 선사께서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어찌 명료하지 않다고 삭제하는가.

권27

卷二十七

43판 우 3행 : 소주(小註) ‘청안현(淸安縣) 문방리(文芳里) 최동준가(崔東峻家)’ 10자. 【〈성산서사의 제군에게 보임[惺山書社示諸君]〉】

화도수정본 : 없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

○변 : 관련이 있는 본래 주석은 또 대부분 삭제하고, 있으나 없으나 무관한 자신의 주석은 도리어 함부로 넣었으니 이 무슨 심보란 말인가?

권28

卷二十八

1판 좌 8행 : 제현들은 모름지기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자기에게 있는 도를 지키며, 남을 애달피 여기는 마음을 베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누락】[切望諸賢須存得畏天之心, 守得在己之道, 施得悲人之情. 此不是小事. 【缺】] 【〈제군(諸君)에게 보임 [示諸君]〉】

화도수정본 : ‘소사(小事)’아래 ‘결(缺)’ 자가 없다.

○변 : 말이 이미 끝난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글이 없는 것인데 누락[缺] 되었다 하니 괴이하다.

권29

卷二十九

2판 우 : 다시 살펴보건대, 퇴계(退溪) 옹이 고봉(高峯 기대승)에게 답한 편지⁸¹⁸)에는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라고 말하고 나서, 하단에 또 ‘이(理)가 타니 기(氣)가 간다[理乘氣行]’라는 말이 있으며, ‘사람은 말이 아니면 출입하지 못한다.[人非馬不出入]’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김이정(金而精)⁸¹⁹)의 편지에는 먼저 ‘동(動)하는 것은 심(心)이고 동하게 하는 소이는 성(性)이다.’⁸²⁰)라고 말하고 나서, 하단에 다시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굉중(李宏仲)⁸²¹)의 편지⁸²²)에도 ‘이가 발하여 기가 따른다.[理發氣隨]’, ‘성(性)과 이(理)는 형태가 없다.[性理無形影]’, ‘심(心)과 정(情)이 두루 실어 발용(發用)한다.[心情該載發用]’⁸²³)라는 말을 앞뒤로 아울러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는 것은 선생의 생각엔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이 자연스러운 동(動)이고 또한 그것을 일러 ‘이발(理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 ‘이(理)가 스스로 발하여 기(氣)가 뒤를 따른다.[理自發氣隨]’고 보면, 이른바 ‘출입하지 못한다.[不出入]’나 ‘형태나 그림자가

818) 고봉(高峯)에게 …… 편지 : 이황(李滉)의 《퇴계집(退溪集)》 권16 <답기명언(答奇明彦)논사칠정제이서(論四端七情第二書)>를 말한다.

819) 김이정(金而精) : 김취려(金就礪, 1526~?)이다. 자는 이정(而精), 호는 잠재(潛齋)·정암(靜庵), 본관은 경주이다. 퇴계 선생의 문인이다.

820) 동(動)하는 …… 성(性)이다 : 김이정이 퇴계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말로 이 글은 《퇴계집(退溪集)》 권29 <답김이정(答金而精)>에 보인다.

821) 이굉중(李宏仲) :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이다. 자는 굉중(宏仲), 호는 간재(良齋), 본관은 영천(永川)이다. 저서로 《간재집》이 있다.

822) 이굉중(李宏仲)의 편지 : 이덕홍(李德弘)의 《간재집(良齋集)》 권3 <상퇴계선생(上退溪先生)>에 보인다.

823) 심(心)과 …… 발용(發用)한다 : 《주자어류》 권5 <성리 2(性理二)성정심의등명의(性情心意等名義)>에 “성(性)은 이(理)이고, 심은 포함하여 두루 싣고 널리 베풀어 발용하는 것이다.[性是理, 心是包含該載, 敷施發用底.]”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없다.[無形影] 등의 말과 저절로 서로 모순되어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읽는 분께 청컨대 깨우치는 말 한마디 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퇴계 옹이 임종하기 몇 달 전에 고봉에게 답한 편지는 이(理)의 묘용(妙用)을 ‘살아서 드러나 행하는 것[活而顯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야대(夜對)에서 말한 것이 미정된 논의가 아니라는 걸 또 어찌 알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야대에서 말한 것은 사단(四端)에 나아가서 이 마음[心]이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을 가리키고, 고봉과 왕복한 글은 도리어 물격처(物格處)에 나아가 이 이(理)가 심(心)을 따라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피차 뚜렷하게 빈주(賓主)의 구분이 있어서 서로의 잣대를 가지고 의문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고봉의 회신 편지에 ‘이 이(理)는 자재(自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계는 이 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더는 논의가 없었으니,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우옹(尤翁 송시열) 또한 주자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누차 말하였거늘 후학이 이 점에 대해 어찌 하나만 고집하여 그 나머지를 폐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회·퇴·울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

화도수정본 : 그렇다면 ‘이(理)가 발하여 기(氣)가 따른다.[理發而氣隨之]’를 그대로 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아마 이(理)를 따라서 발한 것이 자연(自然)의 동(動)이며 그것을 일러 ‘이발(理發)’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고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퇴계가 《성학십도(聖學十圖)》를 임금께 올린 후 여러 번 고친 것을 편치 않게 여긴 점이 문집에 자주 보입니다. 지금 옛날 그대로 둔 것은 아마 이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고 기필코 이(理)가 이(理)를 따라서 발하여 【이발(理發)】 타는 바의 기틀[所乘之機]이 따라서 동(動)한다는 【이기수(而氣隨)】 의미로 간주하여 정한다면 아마 결코 퇴계의 본지는 아닐 겁니다. 이에 고명에게 답합니다. 【《후고(後稿)》】

○변 : 이 제목을 ‘질의’⁸²⁴라고 명명한 것은 결단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824) 질의 : 이 논지의 제목인 〈회퇴울삼선생설질의(晦退栗三先生說質疑)〉를 말한다. 대개 ‘질의’는 ‘의심나는 것을 묻다.’는 뜻으로 쓰는데 여기에서는 간제가 ‘질의’라는 제목을 쓴 의미를 ‘의심나는 것에

“결코 퇴계의 본지가 아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갱안(更按)’이하의 설은 의심이 담겨있는 미정된 말이니 어디에 제목을 명명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선사께서 친히 서두에 쓰기를 “경신년(1920)에 다시 보아도 의심이 없고, 임술년(1922) 정월 보름날 세 번째 보아도 의심이 없으니 삭제하지 말아야 옳다.”라고 하시며 후인이 고치고 삭제하여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폐단을 엄격히 막은 까닭이다. 저쪽에서는 ‘갱안~’ 이하를 선사가 남진영(南軫永)⁸²⁵의 말을 써서 최병심(崔秉心)에게 대신 초안을 잡으라고 명한 것이라 여기고, 남진영이 보내고 청도(淸道)⁸²⁶에서 첨입(添入)하였다. 대개 잠시 초안을 잡은 것을 폐기하여 원고에 넣지 않은 것인데, 남진영이 보내고 오진영이 첨입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정밀히 검토해보시고 의심이 없으니 삭제하지 말라고 재삼 간곡하게 하신 말씀을 깨뜨리고 무너뜨렸다. 아, 무엄하도다!

권30 卷三十

6판 우 4행 : ‘용포(用布)【누락】’【<최복설략(衰服說略)>】

화도수정본 : ‘용포(用布)’ 아래에 누락된 글자는 없고, ‘사방 8치로, 접으면 4치가 된다.[方八寸, 摺爲四寸.]’라는 7자가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

○번 : 《주자대전(朱子大全)》 <주숙근에게 답한 편지[答周叔謹]>에

답한 결단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제목을 명명하였다고 보고 있다.

825) 남진영(南軫永) : 1889~1972. 자는 정함(靜涵), 호는 무실재(務實齋), 본관은 영양(英陽)이다.

826) 청도(淸道) : 1922년 10월에 청도(淸道)에 소재한 성기운(成機運)의 서재인 덕천재(惠泉齋)에 설치된 간소(刊所)를 말한다. 그러나 간역(刊役)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병심(崔秉心)이 저자를 대신하여 지은 <소윤최공신도비(少尹崔公神道碑)>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오진영이 문제를 제기하여 오진영과 최병심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문인들이 오진영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파(嶺南派)와 최병심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파(湖南派)로 양분(兩分)되어 반목하였고, 오진영은 결국 1923년 10월에 청도의 간소(刊所)를 철수하였다.

이르기를 “베를 폭 4치, 길이 8치를 쓰는 것은 그 양쪽 끝을 접으면 곧 사방 4치가 되니, 옷깃 옆에 붙인다.”라고 하였다. ‘베는 사방 8치를 사용하고 접으면 4치가 된다.’는 문장은 없다. 그러니 지금 이 ‘방팔촌(方八寸)’의 ‘방(方)’은 ‘장(長)’자의 오기이다.

대개 선사께서 인용한 <답주숙근서(答周叔謹書)>는 ‘벽령(辟領)⁸²⁷⁾은 옷깃 옆에 붙인다.[綴於領旁]’는 것을 주로 증명하였다. 《가례(家禮)》와 대강 같지만, 그 앞뒤로 각각 2치, 4치의 장단·득실은 상세히 논하지 않다가 이희진(李喜璣)의 편지⁸²⁸⁾에서 비로소 이를 언급하였다. 두주(頭註)에 “‘방팔촌(方八寸)’의 ‘방(方)’은 《주자대전》을 고찰해보면 마땅히 ‘장(長)’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일부러 원문 7자를 삭제하고서 누락되었다고 하는가?

39판 좌 7행 : 이것은 인물을 평하는 사람⁸²⁹⁾이 마땅히 조심해야 할 바이다. 또 매산(梅山 홍직필)의 자인소(自引疏 자신의 허물을 스스로 밝힌 소)에 이르기를 “신의 헌의(獻議 윗사람에게 아뢰는 의견)는 지극히 망령되고 경솔하였으니,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수실(首實)⁸³⁰⁾의 의리에 부처 해당 형률을 적용하시길 외람되이 청합니다.”⁸³¹⁾라고 하였다. 이것은 명백하게 바로잡아 고친 것인데도 지금 연재(淵齋 송병선)가 ‘앞뒤가 서로 끊어진다[前後相截]’, ‘반쯤 올라가다 아래로 떨어진다[半上落下]’, ‘양쪽으로 잘린 의리[兩截義理]’ 등의 말로 비방하니 무엇 때문인가?

827) 벽령(辟領) : 삼베로 만든 상복 윗옷의 양어깨에 붙이는 베 조각이다.

828) 이희진(李喜璣)의 편지 : 《간재집 후편》 권3 <이희진에게 답한 편지[答李喜璣 을미(乙卯)]>에 보인다.

829) 인물을 …… 사람 : 원문 ‘월조(月朝)’는 ‘월단(月旦)’과 같은 말로 인물평을 가리킨다. 이성계의 이름이 ‘단(旦)’이라 피휘(避諱)한 것이다.

830) 수실(首實) : 관아에서 자신이나 남의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831) 신의 …… 청합니다 : 이 글은 유증교의 《성재집(省齋集) 별집》 권1 <제왕승통고(帝王承統考二)>에 보이는데, 일부만 간간히 발췌하여 기록한 것이다. 홍직필이 기유년 헌종의 부묘(祔廟) 때 헌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송병선이 <수문잡지>에 평하였다. 매산이 처음 기유년에 올린 헌의의 오류를 깨닫고 스스로 자인소를 올려 다시 바른 설을 제시하였는데도 연재가 비평하였다.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이 퇴계가 복제(服制)를 개정한 일을 논하여 말하기를 “온 나라가 도움을 입었으니, 그 이로움이 크도다!”⁸³²⁾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우암이 둔촌(屯村)⁸³³⁾에게 답한 편지⁸³⁴⁾에 있다. 어찌하여 지금의 군자는 옛날의 군자와 다른가. 【<연재의 「수문잡지(隨聞雜識)」를 보고 지은 글[看淵齋雜識]>】

화도수정본 : 이것은 인물평을 하는 사람이 마땅히 조심해야 할 바이다. 《숙재집(肅齋集)》⁸³⁵⁾의 <홍오곡(洪鰲谷)⁸³⁶⁾에게 보낸 편지[여홍오곡서(與洪鰲谷書)]>를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선생의 헌의(獻議)와 상소문 초안을 공경히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초 임금을 감히 친척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매번 사계(沙溪 김장생)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의 설을 의심 없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곧 이 일로 인해 축식(祝式)을 이정(釐正) 글을 정리하여 바로잡음)하면, 이 이후 시기하는 사람의 떠들썩한 비방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필코 그 정도(正道)를 더럽히려는 간계를 부리려는 자를 단번에 쓸어버려 후환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832) 온 …… 크도다 : 이 글은 윤두수의 《오음잡설(梧陰雜說)》에 보인다.

833) 둔촌(屯村) : 민유중(閔維重, 1630~1687)이다.

834) 우암이 …… 편지 : 《송자대전(宋子大全)》 권61 <여민지숙(與閔持叔) 병오오월(丙午五月)>을 말한다.

835) 숙재집(肅齋集) : 조병덕(趙秉憲, 1800~1870)의 문집이다. 자는 유문(儒文), 호는 숙재(肅齋), 본관은 양주(楊州)이다.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를 출입하였다. 이 글은 《숙재집》 권8 <여홍헌문(與洪憲文)>에 보인다.

836) 홍오곡(洪鰲谷) : 홍일순(洪一純, 1804~1856)이다. 자는 헌문(憲文), 호는 오곡(鰲谷), 본관은 남양(南陽)이다. 홍직필(洪直弼)에게 입양(入養)되었으며, 오희상(吳熙常)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오곡집(鰲谷集)》 4책이 있다.

권32

卷三十二

123판 : <전씨보도(田氏譜圖)> 소주(小註)의 관계(官階 벼슬의 등급).

화도수정본 : 관계(官階)가 없다.

23판 우 12행 : ‘구창주(仇滄柱)’ 조목 위 【<쇄묵(瑣墨)>】.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윤철규(尹喆圭)가 임금의 칙령이라고 거짓으로 전하여 빈사(賓師)를 띄어 쫓아내었다.⁸³⁷⁾ 조정에서 비록 자세히 조사하지 않을지라도 선비들은 도리어 소리 높여 규탄해야 한다. 주자가 지은 <진 정헌공(陳正獻公) 【준경(俊卿)】 행장>⁸³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이 주청하여 말하기를 “왕기(王琪)가 망령되이 임금의 뜻을 전하여 변방의 신하에게 격문을 보내 성벽을 증수(增修)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국가의 중차대한 이해와 조정의 중대한 기강에 관계되고 폐하의 중대한 호령(號令)입니다. 지금 왕기가 범한 이와 같은 일은 삼가 율문(律文)을 살펴보건대 ‘거짓으로 칙서를 만드는 자는 교살(絞殺) 목매달아 죽임’ 한다.”⁸³⁹⁾고 되어있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속히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에 왕기의 관작(官爵)을 삭탈하고 파직하라는 유지가 있었다.

지금 윤철규의 죄는 왕기와 비교하여 가볍지 않으며 무거운 것이 분명하다. 마땅히 이 진장(陳章 임금께 올린 글)을 끌어오면, 비록 교살(絞殺)하고 삭직(削職)할 수 없을지라도 죽히 세계에 대의(大義)를 밝히고 적의 무리의

837) 윤철규(尹喆圭)가 …… 쫓아내었다 : 빈사(賓師)는 송병선(宋秉璿, 1836~1905)을 말한다. 송병선이 을사늑약의 체결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려고 하자, 경무사(警務使) 윤철규가 거짓으로 띄어 강제로 수레에 태워 대전(大田)까지 쫓아 버리고, 칙명을 받들어 보호한다는 말로 핑계를 대었다.

838) 진 정헌공(陳正獻公) 【준경(俊卿)】 행장 : 《주자대전(朱子大全)》 권96 <승상위국진정헌공행장(丞相魏國陳正獻公行狀)>에 실려 있다. 진 정헌공(陳正獻公)은 송(宋) 나라의 진준경(陳俊卿, 1113~1186)이다. 자는 응구(應求)이며, 정헌(正獻)은 시호이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8년(1138) 진사시에 급제하여 출사하였으나 당시 재상인 진회(秦檜)와 화목하지 못하여 한직에 있다가, 진회가 죽자 효종(孝宗) 건도(乾道) 4년(1169)에 상서우복야 겸 추밀사(尚書右僕射兼樞密使)로 재상의 지위에 올랐다.

839) 거짓으로 …… 교살한다 : 《고당율소의(故唐律疏議)》 25권 사위(詐僞) 조(條)에 이르기를 “모든 거짓으로 칙서를 짓거나 글자를 증감한 자는 교살한다.[諸詐爲制書及增減者, 絞.]”라고 하였다.

간담을 서늘하게 하며 유림이 조금 진작될 것인데, 아직도 하지 않으니 안타깝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동판(同板) 좌 12행 : ‘학자수선(學者須先)’ 조목 위.

화도수정본 : 듣자니 서당에 군수를 초치(招致)하여 강좌(講座)에 오르게 하고 제생들에게 나와 강좌에 나오게 했다고 한다. 옛날 송(宋)나라 고향(高閑)⁸⁴⁰의 자(字)는 억송(抑崇)인데 구산(龜山)⁸⁴¹과 화정(和靖)⁸⁴²을 종유(從遊)하였다. 고종(高宗)이 태학(太學)에 행차하였는데, 진희(秦熺)⁸⁴³가 집경(執經)하고, 고(高)공은 당시 국자사업(國子司業)으로서 《주역》〈태괘(泰卦)〉를 강론하였다. 그러자 호오봉(胡五峯)⁸⁴⁴이 편지로 꾸짖어 말하기를 “합하(閣下)는 국자감 수장이 되어 능히 대론(大論)을 세우고 천인(天人)의 이치를 밝히지 않고, 이에 도리어 권신에게 아부하고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태평(太平)한 시대의 전례(典例)를 거행하기를 구하여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니 평생의 지행(志行)이 모두 사라질 것이오.”라고 하였다. 지금 곤재(髡宰 머리 깎은 군수)에게 경전을 잡고 가숙(家塾)에서 강(講)을 듣게 하였으니 오봉이 다시 살아난다면 뭐라고 하겠는가.

전조망(全祖望)이 <장춘서원기(長春書院記)>⁸⁴⁵를 지어 이르기 “진(秦)씨가 나라를 맡아 사릉(思陵)⁸⁴⁶이 태학에 행차할 때, 헌민(憲敏)이 【고향

840) 고향(高閑) : 1097~1153. 송나라 학자로 자는 억송(抑崇), 호는 식재(息齋)이다. 절강(浙江) 영파(宁波) 사람이다.

841) 구산(龜山) : 송나라 학자 양시(楊時, 1053~1135)의 호이다. 자는 중립(中立), 시호는 문정(文靖)이며 검남(劍南) 사람이다.

842) 화정(和靖) : 윤둔(尹焞, 1071~1142)의 호이다. 자는 언명(彦明) 또는 덕충(德充), 낙양(洛陽) 사람이다.

843) 진희(秦熺) : 1117~1161. 자는 백양(伯陽)이고, 남송의 간신 진회(秦檜)의 양자이다.

844) 호오봉(胡五峰) : 송(宋)나라 학자 호굉(胡宏)의 호이다.

845) <장춘서원기(長春書院記)> : 전조망(全祖望)의 《길기정집(鮑琦亭集)》 권16에 실려 있다.

846) 사릉(思陵) : 송나라 고종(高宗)의 능이다. 여기서는 고종을 말한다.

(高閎)의 시호이다.】《주역》〈태괘〉를 강한 것을 호오봉이 의심하였다. 그러다가 진재(秦梓)⁸⁴⁷가 헌민에게 혼인을 요구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헌민이 결국 미움을 받아 파직되고서야 오봉은 비로소 의심이 풀렸다. 대개 명절(名節)이 잘 닦여진 대유(大儒)는 한 걸음도 구차하지 않다. 헌민이 현량(賢良)한 친구에게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곧 그는 스승의 문하에서 통서(統緒 한 갈래로 이어온 계통)를 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선비들에게 때때로 〈장춘서원기〉를 외우게 하여 스스로 수립할 수 있게 하려고 하였다. 【고공은 구산(龜山 양시(楊時)) 문하의 고제(高弟)이다. 그의 《춘추집주(春秋集註)》는 호문정(胡文定)⁸⁴⁸보다 훨씬 낫고, 그의 《후종례(厚終禮)》는 주자가 많이 채용하였다. 이 또한 사산(謝山 전조망)의 말이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24판 우 7행 : ‘건곤십변(乾坤十變)’ 조목 위.

화도수정본 : 1) 시배(時輩)들이 인력거꾼에게 머리를 깎으라고 명하니 모두 반대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머리를 깎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다시 명하여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들 영업은 일본 사람이 대신할 것이오.”라고 하였다. 인력거꾼들이 글을 지어 통지하여 말하길 “차라리 영업을 못 할지언정 머리는 절대로 깎지 않겠소.”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신년(1908) 8월 11일 신문에 실려 있다.⁸⁴⁹ 이 말은 위로 천성(天聖)⁸⁵⁰에 합치되니, 기특하구나.】

847) 진재(秦梓) : ?~1146. 자는 초재(楚材)이다. 진희(秦熹)의 양아버지인 진회(秦檜)의 맏형이다.

848) 호문정(胡文定) : 호안국(胡安國)의 시호이며, 그가 지은 《춘추호씨전(春秋胡氏傳)》을 말한다.

849) 무신년 …… 실려 있다 : 1908년 8월 11일은 음력으로, 실제로는 1908년 9월 6일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를 확인한 결과 9월 6일 자 신문의 내용은 단발했다는 것이고, 9월 8일 자 신문에 실린 것이 여기에 나온 것과 비슷한 내용이므로 날짜의 오류로 보인다. 1908년 9월 8일 자 《대한매일신보》의 한글판에 〈인력거꾼의 삭발반대〉라는 제목으로 “근일에 각 경찰서에서 인력거꾼을 삭발하라고 신칙하였다는 말은 이미 게재하였거니와 일전에 중부 묘동에 사는 인력거꾼 신태윤, 김경춘, 조덕규 등이 발론(發論)하기를 차라리 영업을 폐지할지언정 부모의 유발은 깎지 못하겠다고 극히 반대함으로 중부 경찰서에서 잡아다가 속히 삭발하라고 신칙하였다.”라는 내용이 보인다.

850) 천성(天聖) : ‘하늘의 명과 성인의 가르침[天命聖教]’이라는 말이다.

아, 저 수레 위에 높이 앉아 머리 깎고 오랑캐 옷을 입은 아무개 대신(大臣), 아무개 대신은 부끄러워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관찰사, 군수, 고을 수령, 관리가 성명 아래에다 삭발 여부를 기재한 것을 보면 삭발하지 않았다고 쓴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저들이 평소 인력거꾼 보기를 얼마나 천대하고 멸시하였는데 지금은 곧 이와 같으니, 어찌 부끄러워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우리 학자들은 마땅히 이를 크게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맹세코 인력거꾼의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

2) 사산 전씨(謝山全氏)⁸⁵¹⁾가 송나라 유학자 왕후재(王厚齋)의 상기(像記)⁸⁵²⁾를 지었는데, 거기에 명나라 유학자가 논한 ‘후재(厚齋)가 원나라에 들어가 산장(山長 서원의 장)이 되었다.’라는 한 구절로 변론을 세워 이르기 “이 일은 사전(史傳), 가전(家傳), 지승(志乘 지리서)에 모두 없으니 그 출처를 모르겠다. 그러나 명령에 응하였다 해도 산장은 임명하는 관직이 아니니 굽힌 것이 없다.”라고 하였다. 【여기까지이다.】

내가 생각건대 말세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무고가 많다. 예를 들어 목은 이색이 본조(조선의 조정)에 들어갔다는 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는 당시 절개를 지키지 못한 무리가 현인의 명예를 더럽혀 자기의 치욕을 면하기를 바란 것이다. 몇 년 전 신문에 최(崔)공이 머리를 깎았다고 무함(誣陷)하여 신고서 개화된 신식 모자를 지어 올리자고 비웃은 적이 있었다. 【정미년(1907) 6월 25일 자 신문】

지난해 신문에 또 <남쪽 유학자, 개명(開明)으로 향하다[南儒向明]>⁸⁵³⁾,

851) 사산 전씨(謝山全氏) : 전조망(全祖望, 1705~1755)이다. 청대의 역사가이자 문학가이다. 자는 소의(紹衣) 호는 사산(謝山)이다.

852) 왕후재(王厚齋)의 상기(像記) : 전조망(全祖望)의 《길기정집(鮑埼亭集)》 권19 <송왕상서화상기(宋王尙書畫像記)>를 말한다. 왕후재는 왕응린(王應麟, 1223~1296)이다. 자는 백후(伯厚), 호는 심녕거사(深寧居士) 또는 후재(厚齋)이다. 송나라가 망한 뒤(1276) 고향에 은거하면서 20년 동안 경사(經史)를 강술했다.

853) 남쪽 …… 향하다 : 《황성신문(皇城新聞)》 1908년 1월 21일자 논설에 “南中에 山林學者들이 頑固의 陋習을 未改하여 新學文을 反對하더니 近日에 有志某氏가 飲冰室文集數十卷을 買得하여 該學者先生에게 寄付하앗더니 此를 着味하여 閱覽한지 幾月에 思想이 一變하여 開明目的을 悟得한 者가 多하다니 忝膺는 先生을 爲하여 賀하노라.”라고 실려 있다.

〈무엇을 깎았다고 어디로 피하였나(削何避何)〉⁸⁵⁴⁾ 돌을 실어 암암리에 나를 지목하였다. 이것은 모두 변절한 자들이 허위로 떠드는 것인데도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또한 기쁘게 듣고 즐겁게 이야기한다. 그들 무리는 선비의 무리를 원수처럼 보면서도 오히려 의지하려고 하니 참으로 가증스럽고 또한 가소롭다.

이상 2개 조목이 있다.

25판 우 10행 : ‘성인지심(聖人之心)’ 조목 위.

화도수정본 : 1) 윤색(尹穡)⁸⁵⁵⁾이 처음 발탁되어 기용되었을 적에 “다만 오랑캐와 평화롭게 지내면 23개월 만에 기강이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공실지(龔實之)⁸⁵⁶⁾가 이르기를 “틀림없이 그 사람이 귀가 먹었구나.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하였다.⁸⁵⁷⁾ 몇 해 전 아무개 인사가 말하기를 “일본 사람은 우리에게 진심으로 호의적이니, 우리가 능히 서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힘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저들이 우리의 병영과 진영을 철거하고 병기를 모조리 거두어 갔으며, 일체 도움이 되는 일도 아울러 없애는 데까지 이르렀는데도 아직도 그들에게 호의가 있다고 믿으니 이 사람은 참으로 눈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주자어류》에 기록된 윤색의 말을 보면 귀머거리와 장님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54) 무엇을 …… 피하였나 :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6일자 논설에 “數月前에 何許一進會員이 忠南觀察使 梁在翼에게 某學者들이 倡義하러 陰謀한다고 嗾囑하여 田良齋를 捉囚하였더니 終無事實인지라 放送할 際에 梁氏가 言호되 此輩를 仍置하여서는 畢竟에 禍胎를 構成하리라 하여 髮放送코자 하거늘 田山林及其門弟子의 倉皇히 會集하였던者 數百名이 寧死인정 髮不可斷이라고 抵死反抗하여 僅得無事하였는데 田氏는 近日에 不知去處라고 南來人의 傳說이 有하더라.”라고 실려 있다.

855) 윤색(尹穡) : 북송의 관료이다. 자는 소릉(少稷)이다. 산둥성 연주(兗州) 사람이며, 강서성 옥산(玉山)에서 우거하였다. 저서로 《방재집(方齋集)》이 있다.

856) 공실지(龔實之) : 공무량(龔茂良, 1121~1178)을 말한다. 자는 실지(實之)이며, 포전(莆田) 공둔(龔屯) 사람이다. 무고를 당하여 영주(英州)에 귀양 가서 죽었다.

857) 윤색이 …… 하였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2에 실려 있다.

2) 호담암(胡澹菴)⁸⁵⁸이 《춘추해(春秋解)》를 지은 다음, 정억년(鄭億年)에게 서문을 지어달라고 하고 범직각(范直閣)⁸⁵⁹ 【여규(如圭)】에게 편지를 보내 알렸다. 범(范)공이 답하기를 “정억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유예(劉豫)⁸⁶⁰의 좌상(左相)이 아닙니까? 빼버리십시오. 호(胡)공의 식견이 이 정도라니 매우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였다.⁸⁶¹

3) 《주자어류》에 이르기를 “범촉공(范蜀公)⁸⁶²이 <온공묘지(溫公墓誌)>를 지을 적에 소동파가 지은 행장을 전용(全用)하였는데, 명(銘)에는 당시 간사한 무리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많았다. 소동파가 고치라고 명하자, 촉공이 소동파에게 직접 짓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촉공의 이름이 빠졌고 그 후 도리어 무사하였다. 만약 범촉공이 지었다면 아마 소인들에게 파헤쳐지는 것을 면치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본조 인물 130권 9판 청국본(淸國本)⁸⁶³에 보인다.】

858) 호담암(胡澹菴) : 호담암은 남송(南宋) 고종(高宗) 때의 명신(名臣) 호전(胡銓, 1102~1180)이다. 자는 방형(邦衡)이고, 담암은 그의 호이다. 저서로 《담암문집》, 《담암사(澹菴詞)》가 있다.

859) 범직각(范直閣) : 범여규(范如圭, 1102~1160)이다. 중국 송(宋) 고종(高宗) 때의 문신으로 자는 백달(伯達)이고, 직각은 호이다.

860) 유예(劉豫) : 송(宋)나라 부성(阜城) 사람으로 자는 언유(彦游)이다. 제남 지부(濟南知府)로 있을 때 금인(金人)에게 항복하고 금 고종(金高宗)으로부터 황제(皇帝)의 책립(冊立)을 받아 대명(大名)에 도읍을 정하고 국호를 대제(大齊)라 하였다. 소흥(紹興) 연간에 송(宋)의 변경(汴京)을 쳐들어가다가 송병(宋兵)에게 대패하였다. 《宋史 卷475》

861) 호담담이 …… 하였다 : 이 내용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1에 보인다.

862) 범촉공(范蜀公) : 송(宋)나라 범진(范鎮)의 봉호이다. 자는 경인(景仁)이다. 왕안석(王安石)과 뜻이 맞지 않아 은퇴했다가 철중(哲宗)이 즉위하여 단명전 학사(端明殿學士)로 불렸으나 나가지 않았다.

863) 청국본(淸國本) : 청국본은 청나라 판본을 말하고 이 글은 《주자어류(朱子語類)》 권130 <본조사(本朝四)>에 실려 있다.

주자가 위원리(魏元履)의 묘지(墓誌)⁸⁶⁴를 지었는데 증적(曾覲)⁸⁶⁵의 권세가 한창 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리가 증적을 소환하는 일에 대해 상소하여 논한 일⁸⁶⁶을 신지 않고 말하기를 “무덤에까지 화가 미칠까 두려워서이다.”라고 하였다. 남헌(南軒)⁸⁶⁷이 묘표를 지은 것 또한 이런 의도와 비슷하다. 나중에 주자는 묘표에다 발문⁸⁶⁸을 써서 비로소 다 드러내었다.

○내가 전옹(全翁 임헌회) 묘문(墓文)에 기록하기를 “예수의 사설에 대한 폐해는 반드시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난 뒤에야 그칠 것이다.”라고 하였다. 윤만(潤萬 임헌회의 아들 임감재(任坎宰))은 사악한 무리가 온 나라에 두루 가득하고 그 기세 또한 매우 두려워할 만한 것을 걱정하고 그 비석을 헐어버릴까 염려되어 삭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마음이 몹시 불쾌하다. 지금 주자가 논한 범(范)공의 저작과 주자가 지은 위(魏)공의 묘지(墓誌)⁸⁶⁹를 살펴보면 또한 어쩌면 하나의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신년(1908, 순종 융희 2년) 11월 5일, 나는 왕등(旺燈)⁸⁷⁰에 있다. 오늘이 마침 선사의 기일이라 돌아가신 선사를 그리는 마음⁸⁷¹을 주체할 길이 없다.

864 위원리(魏元履)의 묘지(墓誌) : 위원리는 송나라 건양(建陽) 사람 위섭지(魏挾之, 1116~1173)이다. 자는 자실(子實)이다. 처음의 자는 원리(元履)였다. 호는 간재(良齋)이다. 호헌(胡憲)을 사사하였으며, 주희(朱熹)와 교류하였다. 위원리 사후에 주자는 그의 묘지명을 지었는데, 《주자대전》 권91에 <국록 위공 묘지명(國錄魏公墓誌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865 증적(曾覲) : 1109~1180. 자는 순보(純甫), 호는 해야노농(海野老農)이다. 고종(高宗) 소흥(紹興) 30년(1160)에 건왕내지객(建王內知客)을 역임하였고, 효종(孝宗)이 즉위한 뒤에는 효종 동궁 시절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권세가 컸는데, 충애를 믿고 정사에 간여하였으며 뇌물을 많이 받았다.《張撝之·沈起煒·劉德重 主編, 中國歷代人名大辭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下冊 2354쪽》

866 증적을 …… 일 : 증적은 관직에 있던 20여 년 동안 용대연(龍大淵) 등과 무리를 이루어 온갖 비리를 자행했기 때문에 탄핵을 받아 각각 복건 총관(福建總管), 절동 총관(浙東總管)으로 축출되었는데, 얼마 후 용대연이 죽자 효종이 증적을 가련히 여겨 소환(召選)하려 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그만두었다.《宋史》 권470 曾覲龍大淵列傳》

867 남헌(南軒) : 장식(1133~1180)의 호이다. 남송(南宋)의 도학자로, 자는 경부(敬夫)·흠부(欽夫)·낙재(樂齋)이며, 장준(張浚)의 아들이다.

868 발문 : 주희(朱熹)의 《회암집(晦庵集)》 권83 <발위원리묘표(跋魏元履墓表)>를 말한다.

869 위(魏)공의 묘지(墓誌) : 《주자대전》 권91 <국록 위공 묘지명(國錄魏公墓誌銘)>이다.

870 왕등(旺燈) : 전북 부안의 왕등도이다. 간재가 1908부터 3년간 머물다가 계화도로 옮겨갔다.

871 돌아가신 …… 마음 : 원문은 ‘갱장지묘(羹牆之慕)’이다. 국과 담장을 보면서 옛사람을 떠올리며

이상 3개 조목이 있다.

권33

卷三十三

6판 우 13행 왼쪽. 【〈분언(体言)〉.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오늘날 서양의 각 나라 중 영국이 가장 부강하다고 이름이 났다. 그러나 천주교도가 결당(結黨)하고 반란을 도모하여, 의회의 전당 아래에 구멍을 파고 화약을 숨겨 왕(제임스 1세)이 오면 폭파하여 죽이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되었다.⁸⁷²⁾ 찰스의 둘째 동생(제임스 2세)이 직위를 이었는데 평소 천주교에 익숙하여 억지로 백성을 따르게 하였다. 백성은 예수교에 익숙하여 오래도록 변치 않으려 하였다. 바다 건너편 네덜란드 총독(윌리엄 3세)을 불러 국왕으로 삼았다.⁸⁷³⁾ 또 국민이 예수교를 신봉하였으나 메리는 【여성스러운 자태가 세상에 다시없이 뛰어났다.】 여전히 천주교를 고집하였는데 남편을 죽인 사특한 행실이 있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재물을 따로 하여 굶주림과 추위에도 서로 구제하지 않았고, 빚을 쳐도 서로 갚지 않았으며 죽을 때까지 길에 지나다니는 남처럼 대하였다. 삼강이 무너진 것이 이와 같은데 그 외에 또 무엇을 논하겠는가? 진실로 그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 ‘이(利)’ 한 글자에서 나온 것이다. 심하구나, 이익의 폐하여! 어찌하여 집정자는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워한다는 말로, 죽은 선왕(先王)이나 현인(賢人)을 경모(敬慕)하고 추념(追念)함을 뜻한다. 《후한서(後漢書)》 권63 〈이고열전(李固列傳)〉에 “옛날 요 임금의 돌아가신 뒤에 순 임금은 3년 동안 우러러 그리워하였으니, 앉으면 담장에서 요 임금을 보았고, 밥을 먹으면 국에서 요 임금을 보았다. [昔堯殂之後，舜仰慕三年，坐則見堯於墻，食則睹堯於羹.]”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872) 천주교도가 …… 처형되었다 : 1604년 11월에 있었던 일명 ‘화약음모사건’을 말한다. 영국의 천주교도가 성공회와 왕 제임스 1세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반발로 의사당을 폭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873) 바다 …… 삼았다 : 1688년 명예혁명에 따라 영국 의회의 초청으로, 1689년 제임스 2세의 장녀 메리 2세와 그 남편인 네덜란드의 총독 윌리엄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권리장전’을 수락하고 남편과 공동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14판 좌 13행 왼쪽.

화도수정본 : 국가의 환란이 극에 달하고 위망(危亡)이 경각에 달려있다. 가령 임금이 ‘구하여 밝음을 향해 간다.[求而往明]⁸⁷⁴⁾’는 의리를 알고서 지극한 정성으로 현인을 구하여, 극진히 공경하여 맞이하되 진실로 믿어 임용한다면, 현자(賢者)는 그 출처가 마땅히 어떠해야겠는가? 나가서 세상에 쓰인다면 각 나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겠는가? 그들과 함께 같은 조정에서 있는 것은 화(華)·이(夷)가 뒤섞여 살 수 없는 의리며, 묘(苗 벼)·유(莠 피)가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이치이다. 만약 배척하여 몰아내고자 해도 저들의 세력은 성대하고 우리 힘은 부족한데 어찌 능히 정직한 도로서 대놓고 쫓아낼 수 있겠는가? 만약 현자가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 《주역》 둔괘(遯卦)의 ‘때와 더불어 행하다.[與時行]⁸⁷⁵⁾’와 비괘(否卦)의 ‘뜻이 임금에게 있다.[志在君]⁸⁷⁶⁾’, 건괘(蹇卦)의 ‘국가의 어려움에 힘을 다하다.[蹇蹇]⁸⁷⁷⁾’ 등등의 말은 진실로 이미 맞지 않을 것이다. 또 성인이 도가 없다고 해서 천하를 버리지 않는 마음⁸⁷⁸⁾과는 같지 않으니, 어떤지 모르겠다. 또 음(陰)이 성하여 양(陽)에 대항하면 군자 또한 행할 수 없을 것이로다! 아마 성인이 천하를 보면 할 수 없는 때가 없으니 또한 반드시 대처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묘용(妙用)은 보통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내 견해를 말하자면, 오늘날 마땅히 수용할 것은 오직 둔괘(屯卦)

874) 구하여 …… 간다 : 《주역》〈둔괘(屯卦) ䷂〉 육사(六四) 상(象)의 구절로, 아래 사람을 구하여 앞으로 나아가 어려움을 해소할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875) 때와 …… 행하다 : 《주역》〈둔괘(遯卦) ䷠〉 단전(象傳)에 “둔형(遯亨)은 물러나서 형통하나 강한 것이 자리에 마땅하여 응함이라. 때와 더불어 행한다.[遯亨, 遯而亨也, 剛當位而應, 與時行也.]”라고 하였다.

876) 뜻이 …… 있다 : 《주역》〈비괘(否卦) ䷋〉 초육(初六)에 “띠풀을 뽑는 것이 곧고 길함은 뜻이 임금에게 있어서이다.[拔茅貞吉, 志在君也.]”라고 하였다.

877) 국가의 …… 다하다 : 《주역》〈건괘(蹇卦) ䷦〉 육이(六二)에 “왕의 신하가 국가의 어려움에 힘을 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王臣蹇蹇, 匪躬之故.]”라고 하였다.

878) 도가 …… 마음 : 《논어》 미자(微子) 제6장에 나오는 정자(程子)의 주석이다.

의 ‘조금 바르게 함의 길하다.[小貞之吉]’⁸⁷⁹⁾이다. 이른바 ‘정(貞)’이라는 것은 뜻을 세워 강학하고, 현인을 등용하고 사특한 사람을 물리치며, 의를 숭상하고 이익을 낮게 보며, 상벌(賞罰)을 공정하고 엄중히 하며, 쓰임새를 조절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종류가 이것이다. 이 몇 가지를 진실로 능히 깊이 밝혀 실행할 수 있다면 저 각국의 사람들이 반드시 두려워 복종하고 감히 침범하여 갈보지 못할 것이다. 각국이 이미 세운 조약은, 하루아침에 모조리 바꾸려고 한다면 다만 재앙만 불러오고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선 국가 경영과 민생에 심히 불편한 몇몇 조항을 골라 지성으로 그 이익과 손해를 개선하여 점차 변통할 길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저들이 만약 자기 편한 대로만 하고 우리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곧 교린(交隣)의 도리가 아니다. 또한, 반드시 외교적 응대를 잘해서 그 시비를 판가름하여 저들에게 잘못을 돌리면 저들이 비록 강하고 사나울지라도 끝내 잘못으로 인하여 세계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저들의 기이한 기술과 괴이한 기교 따위는 배운들 어디에 쓰겠느냐? 그런데도 이런 것을 저들에게 구하여, 저들이 이것으로 우리에게 교만을 떨게 하겠는가? 이제부터 단칼에 두 동강을 내어 다시는 뜻을 두지 않고 저들에게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을 보인다면, 우리가 비록 작고 약하지만, 또한 정도를 지켜 스스로 강하게 될 것이다. 정자(程子)가 어려움[蹇]에 대처하는 도리를 논하여 말하기를 “무릇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은 반드시 곧고 바름을 지키는 데 달려있다. 설사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바른 덕을 잃지 않을 것이니, 이 때문에 길하게 된다. 만약 어려움을 만나 굳건히 지키지 못하여 사특함과 참람(僭濫)함에 빠진다면, 비록 구차히 어려움을 면하더라도 또한 악덕(惡德)이니, 의리와 천명을 아는 자는 하지 않는다.”⁸⁸⁰⁾라고 하였다. 오늘날 선왕의 옛

879) 조금 …… 길하다 : 《주역》〈둔괘(屯卦) ䷂〉 구오(九五)에 “은택을 어렵게 함이니 조금 바르게 함은 길하고 크게 바르게 함은 흉하다.[屯其膏, 小貞吉, 大貞凶.]”라고 하였는데, 그 주석에 “뜻을 굳게 하고 함께 좋아하여 다른 사람이 그 사이에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 조금 바르게 함은 길하고 크게 바르게 함은 흉한 것이다.[固志同好, 不容他間, 小貞之吉, 大貞之凶.]”라고 하였다.

880) 무릇 …… 않는다 : 《주역전의(周易傳義)》 하(下) 권14에 나온다. 《주역》〈건괘(蹇卦) ䷦〉에 “건은 서남이 이롭고 동북은 불리하며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로우니 곧으면 길하리라.[蹇, 利西南; 不利東北; 利見大人, 貞, 吉.]”라고 한 말을 해석한 것이다.

법도를 행하지 않고 도리어 오랑캐의 새로운 법칙을 본받으며, 우리 백성은 도외시하고 도리어 승냥이를 도성 안에서 기른다. 이것이 이른바 ‘사특함과 참람함에 빠지는 것’으로 의리와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16판 우 9행 왼쪽.

화도수정본 : 지금 시대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 이미 쇠퇴하고 성현의 도(道)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랑캐와 금수(禽獸)가 나라 안에 마구 돌아다니고 다른 종족과 사설(邪說)이 사람들 마음을 잠식하고 있다. 우리 유자(儒者) 몇 사람은 곤궁하고 낮은 자리에 있지만 더불어 서로 칼끝을 겨눴서는 안 된다. 【이천(伊川) 선생⁸⁸¹이 말하기를 “시대의 성쇠와 세력의 강약에 대해 《주역(周易)》을 배우는 사람은 응당 깊이 알아야 한다.”⁸⁸²라고 하였다.】 또 모름지기 친구들과 함께 침잠하여 서로 강론하며, 묵묵히 더불어 만회(挽回)하는 것이 부모가 남겨준 몸을 지키고 선사의 도학을 전수하며 우리 임금의 교화를 보조하는 길이다. 거의 하나 남은 열매를 먹지 않고 남겨놓는 것⁸⁸³처럼 다시 생겨나는 근본이 될 것이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22판 좌 4행 왼쪽.

화도수정본 : 1) 근래 한 가지 의론을 듣건대, 이르기를 “오랑캐도 사람이니 외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 이것은 언뜻 인자하고 후덕한 인상을 준다. 그러나 저들이 비록 사람의 형상이지만 그 기운은 진실로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것을

881) 이천(伊川) 선생 : 정이(程頤, 1033~1107)이다. 중국 송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학자의 한 사람이다. 자는 정숙(正叔)이다. 저서에 《이천역전(伊川易傳)》이 있다.

882) 시대의 …… 한다 : 《주역전의(周易傳義)》 상(上) 권10에 보인다.

883) 하나 …… 것 : 《주역》〈박괘(剝卦) ䷖〉 상구(上九)에 “하나 남은 과일은 먹지 않고 남겨 놓는다. [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이는 다섯 개의 효(爻)가 모두 음(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양(陽)인 것을 석과로 비유한 것으로, 하나 남은 양의 기운이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일러 ‘우리 동족이 아니면 반드시 그 마음이 다르다.’⁸⁸⁴⁾라고 하였고, 이 때문에 그것을 일러 ‘인간과 금수 사이에 있어서 끝내 교화하기 어렵다.’⁸⁸⁵⁾라고 말한 것이다. 옛날부터 이적과 함께 섞이면서 끝내 무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선왕이 그들을 물리친 것은 저들이 물리침을 당할 만한 이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쫓아내 물리쳤을 뿐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이른바 “사물은 각각 그 사물에 맡기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또 천지는 무엇인들 포용하지 않으며 성인은 무엇인들 사랑하지 않겠는가마는 다만 대처하는 데 도리가 있으니 일찍이 그 이치 하나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베풀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다스리는 공부에 있어 전혀 천리(天理)와 인욕의 분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논하는 것 또한 이렇게 혼잡한 말을 거듭 꺼낸 것이다. 그 처음에 ‘외면할 필요가 없다.[不必外之]’라는 말을 한 것은 그래도 빈주(賓主)의 구분이 조금 있지만, 그 중국에 가서는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스스로 오랑캐가 된 것을 알지 못한다. 무릇 ‘풍속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단은 공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이런 부류이다.

2) 나는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비록 ‘동포(同胞)’라고 할지라도 산과 바다가 막혀 있고 풍속이 통하지 않으면 지역이 이미 나누어지고 풍속도 각기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곧 천지자연의 이치이다. 오늘날 시론(時論)은 모두 만국이 통용하는 공법(公法)을 핑계로 삼는다. 그러나 화이(華夷)의 구분은 음양(陰陽)의 분변(分辨)처럼 참으로 혼동하기 어려운 것이다. 화(華 중화)와 화(華)가 함께 하고 이(夷 오랑캐)와 이(夷)가 함께 하면서 각 나라의 풍속 또한 각기 달라졌다. 내가 헤아려보건대, 천하만국의 법은 반드시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고 다만 인민을 어지럽힐 뿐이다. 어찌하여 제공(諸公)들은 이렇게

884) 우리 …… 다르다 : 《좌전(左傳)》 성공(成公) 4년 조에 보인다.

885) 인간과 …… 어렵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4에 “이적은 곧 인간과 금수 사이에 있어서 끝내 교화하기 어렵다.[到得夷狄, 便在人與禽獸之間, 所以終難改.]”라고 하였다. 본문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면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고, 군병이 강해질 수 있고, 백성이 보호되어 태평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가? 그러나 각국이 서로가 끌어당기면, 저들은 모두 저들의 욕망을 채우겠지만, 오직 우리나라만 조금도 이익이 없을 것이다. 군대는 혼란스럽고 백성은 흩어져, 끝내 위망(危亡)한 형세가 머지않아 닥칠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아, 생각지 못함이 심하도다!

3) 일전에 삼가 전교(傳敎 임금의 하교)를 보니 강약이 다르므로 일본과 서양의 기술을 배우라는 말씀이었다. 이는 틀림없이 제공(諸公)들이 건의한 내용일 것이다. 내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오랑캐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백성의 사력(死力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힘을 쏟음)을 얻느니만 못하다. 만약 백성의 마음이 뒷사람과 굳게 결속되어 풀 수 없다면 저들의 증기기관과 전선(電線)은 그 공교함을 베풀 데가 없을 것이다. 만약 백성의 마음이 흩어져 수습하지 못하면 비록 날카로운 병기가 있더라도 장차 누구와 함께 적을 막겠는가? 훌륭한구나, 주자(朱子)의 말이어! 이르기를 “옛날 성왕(聖王)이 이적(夷狄)을 제어하는 도리는 그 근본이 위강(威強)에 있지 않고 덕업(德業)에 있으며, 그 방비는 변경에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그 도구는 병사와 식량에 있지 않고 기강에 있다.”⁸⁸⁶⁾라고 하였다. 아, 오늘날 제공들 가운데 우리 임금 곁에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는가?

4) 황준헌(黃遵憲)⁸⁸⁷⁾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결탁하고 미국과 연합하여 러시아의 환난을 막아주기를 바랐으나 나라 안에 식견이 있는 선비는 모두 불가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한 무리 의론은 도리어 ‘신묘한 책략(神策)’이라고 말한다. 심지어 도성에서 이류(異類)를 기르고, 직언하는 사람은 영해

886) 옛날 …… 있다 : 주희(朱熹)의 《회암집(晦庵集)》 권13에 보인다.

887) 황준헌(黃遵憲) : 1848~1905. 청(淸)나라 사람으로 주일 청국 공사(駐日淸國公使) 하여장(何如章)을 따라 참찬관(參贊官)으로 일본에 있었다. 고종 17년(1880)에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일본에 갔을 때 서로 국제 관계의 의견을 교환하고, 김홍집에게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조선이 중국·일본·미국 등과 협상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적힌 《조선책략(朝鮮策略)》을 주었다. 김홍집이 복명과 함께 그 책을 왕에게 올렸다. 1882년 한·미 조약을 체결할 때 이홍장의 명령으로 조약문을 기초하였다.

(嶺海)로 귀양을 보낸다. 한비자가 말한 “가까이 있는 현자의 지모(智謀)를 쓰지 않고 천 리 먼 곳과 외교를 맺으니 회오리바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외교를 맺은 먼 나라는 오지 못한다.”⁸⁸⁸라고 한 것이 어찌 오늘날을 두고 이른 것이 아니겠는가!

5) 오랑캐는 하루도 친해서는 안 되며 중화의 제도는 하루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 천지 불변의 도리요, 춘추대의(春秋大義 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큰 의리)이다. 오늘날 시대를 논하는 제공들은 곧 천하의 대세를 누군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오랑캐가 도성에 함께 거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응당 행해야 할 오랜 일처럼 여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예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적에 선비들의 마음을 잃고 백성의 뜻을 거스르면서 무사한 적은 없었다. 지난번 중전이 궁을 탈출한 변란⁸⁸⁹은 실로 일본 오랑캐가 도성에 머무른 것으로 인한 일이니, 어찌 구법(九法)이 무너지고 삼강(三剛)이 몰락한 것⁸⁹⁰이 아니겠는가? 지금 사론(士論)이 들끓고 민심이 흩어져 위망(危亡)한 형세가 경각에 닥쳤는데도 제공들은 세상에 쓰이는 데에 경솔하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급급하여 유학자의 몸으로 진상(陳相)의 행동⁸⁹¹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어찌 성인의 문하에 죄를 짓는 것이

888) 가까이 …… 못한다 : 《한비자(韓非子)》〈용인(用人)〉에 “가까이 현인의 지모를 쓰지 않고 천리 밖에 있는 만승의 나라와 외교를 맺는다. 회오리바람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맹분(孟賁)과 하육(夏育)이라도 구제할 수 없고 외교를 맺은 나라도 이르지 못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화가 없다.[不用近賢之謀, 而外結萬乘之交於千里, 飄風一旦起, 則賁, 育不及救, 而外交不及至, 禍莫大於此.]”라고 하였다.

889) 중전이 …… 변란 : 1882년 임오군란으로 명성왕후가 궁궐을 탈출하여 피신한 일을 말한다.

890) 구법(九法)이 …… 것 : 구법은 《서경》〈홍범(洪範)〉의 ‘구주(九疇)’를 가리킨다. 이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대법(大法)으로, 곧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五福)이다. 한유(韓愈)의 〈여맹간상서서(與孟簡尚書)〉에 “양주와 목적이 서로 어지럽히매 성현의 도가 밝아지지 못하고, 성현의 도가 밝지 못하면 삼강이 몰락하고 구법이 무너지며 예악이 무너지고 이적이 횡행할 것이니, 어찌 금수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楊墨交亂而聖賢之道不明, 聖賢之道不明, 則三綱淪而九法斁, 禮樂崩而夷狄橫, 幾何其不爲禽獸也.]”라고 한 말이 보인다.

891) 진상(陳相)의 행동 : 진상은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 나오는 인물로 진량(陳良)에게 배우다가, 허행(許行)의 학설에 미혹되어 스승을 배반하고 허행에게 들어갔다. 성현의 학문을 배우지 않고 이단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아니겠는가? 또 그 말처럼 천하의 대세는 비록 어쩔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출처(出處)와 거취(去就)의 도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누가 그들에게 이렇게 한 자[尺]를 굽히고 한 길[尋]을 굽혀 주저하며 떠나지 못하게 하였는가?

6) 천하에 오랑캐가 있는 것은 인심(人心)에 이욕(利欲)이 있는 것과 같다. 진실로 천리와 인욕이 마음속에 병립하면서 끝내 무사한 경우는 있지 않고, 또한 제하(諸夏 중원의 나라)와 오랑캐가 한 나라 안에 섞여 있으면서 결국 무사한 경우는 있지 않다. 그러므로 《춘추》의 법은 중원의 나라를 안으로 삼고 오랑캐를 밖으로 삼았다.⁸⁹²⁾ 학문의 도는 자기를 극복하여 예를 회복하는 것[克己復禮]이다. 이것은 천지 사이에 치우치거나 기댐이 없이 위로도 곧고 아래로도 곧은⁸⁹³⁾ 바른 이치이니, 하루 한때라도 고쳐서는 안 된다. 오늘날 제공들이 일본과 서양과 프랑스와 미국에 대처하는 것은 모두 이와 반대니 이는 무슨 이치인가? 올해 6월의 변란⁸⁹⁴⁾은 곧 천하 만세에 처음 보는 일이며, 천하만국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국모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역도를 토벌하자고 논의를 낸 사람도 없다. 또 한 사람도 이것을 찬탈이라 여기고 적을 물리치는 계책을 세우는 사람도 없다. 하나같이 만국공법(萬國公法)을 핑계의 단서로 삼고서 원칙을 지키자는 의론에 대해서는 시골뜨기의 무식한 부류라고 손가락질한다. 아, 나는 늘 속으로 만국공법은 만세의 정법(正法)만 못하다고 생각하였다. 춘추의리(春秋義理)를 쓸모없는 물건으로 여기지만 향리의 무지한 눈에는 중하니, 무릇 성인의 사도(使徒)가 된 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892) 중원의 …… 삼는다 :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성공(成公) 15년 조(條)에 “《춘추》에서는 본국을 안으로 삼고 중원의 나라들을 밖으로 삼았으며, 중원의 나라들을 안으로 삼고 이적을 밖으로 삼았다.[春秋內其國而外諸夏, 內諸夏而外夷狄.]”라는 말이 있다. 《춘추》에서는 본국 → 중국의 제후 → 그 밖의 다른 나라 순으로 비중을 두어 기록한다는 뜻이다.

893) 천지 …… 곧은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95에 주희(朱熹)가 정정당당의 뜻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고 “이것은 속어이니, 대개 치우치거나 기댐이 없이 위로도 곧고 아래로도 곧다는 뜻이다. [此俗語也, 蓋不偏不倚直上直下之意也.]”라고 대답한 말이 나온다.

894) 6월의 변란 : 갑오변란을 말한다.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여 왕실을 농락하고 국권을 무너뜨리고, 이후 일본의 주도하에 갑오개혁이 단행되었다.

차마 관대를 쓴 몸으로 승냥이와 이리의 무리가 되기를 달가워하지 않겠다.

7) 지금 천하는 모두 오랑캐로 변하였다. 오직 우리나라만 의관을 지키니 박괘(剝卦)의 상구(上九) 일효(一爻)만 변하지 않은 것⁸⁹⁵과 같다. 그러므로 옛날 철인이 말하길 “우리들의 생은 오늘날 중국에 있지 않고 한 조각 깨끗한 땅에 있으니 이것이 매우 기특하다.”라고 하였다. 지금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른바 ‘한 조각 깨끗한 땅’도 시대를 논하는 제공들이 또 따라서 더럽혔다. 심하도다, 그 불인함이며! 우리 유자(儒者)된 사람들이 마땅히 화이(華夷)의 분별을 엄격히 하여 만세의 대방(大防 법도)을 보존해야 하니 그래야 거의 상제(上帝)와 공자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지금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8) 예로부터 이단은 그 설이 복잡하였지만, 그 주장은 하나였다. 하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이 이것이다. 우리 성현의 천 마디 만 마디 말이 ‘성(性)’을 주로 말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상 8개 조목이 있다.

○변 : ‘윤철규(尹喆圭)’ 조목 이하부터 여기까지 여러 조목은 오랑캐와 시배(時輩)를 두루 논변한 것이지 직접 왜적을 배척한 것이 아닌데, 어찌 감히 선사의 수정본(手定本)을 고쳐서 모조리 별집(別集)에 넣었는가? 【아래 ‘근견청인(近見淸人)’ 1개 조목, <김중옥에게 보내는 편지[答金重玉]>의 별지(別紙) 2개 조목, <화·경 두 아이에게 보내는 편지[寄華敬二兒]>의 3개 조목, <자서조동변(自西徂東辨)>, <양집제설변(梁集諸說辨)> 역시 그와 같다.】 ‘종고이단(從古異端)’ 조목이 별집에 들어간 것은 더욱더 괴이하다.

895) 박(剝)괘의 …… 것 : 《주역》 <박괘(剝卦)> 상구(上九)에 “큰 과일은 먹지 않으니, 군자는 수레를 얻고 소인은 짐을 허물리라.[碩果不食, 君子得輿, 小人剝廬.]”고 하였다. 박괘의 상(象)은 다섯 개의 음(陰) 위에 하나의 양(陽)이 자리 잡은 형상이다. 즉 여러 양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오직 상구 한 효만 남아 있는 것이 마치 큰 과일은 먹지 않아 다시 생겨날 가능성을 지닌 것과 같다는 뜻이다.

25판 좌 9행 : ‘양명(陽明)’ 이하.

화도수정본 : 각각의 단락이다.

31판 우 4행 왼쪽.

청나라 유자(儒者)들 가운데 대다수가 《가례(家禮)》는 주자의 저작(著作)이 아니라고 하며, 그 설이 매우 장황하다. 그러나 내가 고찰해보건대, 전혀 그렇지 않다. 《가례》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입곡(入哭)한다.”⁸⁹⁶⁾라고 하였는데, 그 주(註)에 “주인이 성복(成服)⁸⁹⁷⁾하기 전에 와서 곡을 하는 자는 마땅히 심의(深衣)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면재(勉齋)가 말하길 “《예기(禮記)》〈단궁 상(檀弓上)〉에 공자가 ‘막 세상을 떠났을 때 검은 갓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쓴 사람은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병든 이를 봉양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이고, 《가례》에 실린 것은 조문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으로 글은 같지만, 뜻이 다르다.”⁸⁹⁸⁾라고 하였다. 면재는 주자 문하의 고제(高弟)로서 《가례》 운운하였으니, 어찌 《가례》가 주자의 저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례》의 주(註)에 이르기를 “선조를 제사 지낼 적에 조고(祖考)와 조비

896) 친분이 …… 입곡(入哭)한다 : 《가례》 권4 〈상례(喪禮)〉에 “친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은 이에 이르러 입곡해도 괜찮다.[執友親厚之人, 至是入哭, 可也.]”라고 하였다. 입곡은 우제(虞祭), 졸곡(卒哭), 소상(小祥), 대상(大祥) 등의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신주(神主) 앞에서 슬프게 우는 것을 말한다.

897) 성복(成服) : 초상이 났을 때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일로 보통 나흘 되는 날 입는다.

898) 면재(勉齋) …… 다르다 : 면재(勉齋)는 주자의 제자이자 사위인 황간(黃幹, 1152~1221)을 말한다. 이 글은 황간의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권8 조복(助服) 조(條)의 주(註)에 “살펴보건대 《예기(禮記)》〈단궁(檀弓)〉에 ‘막 세상을 떠났을 때 검은 갓옷을 입고, 검은 관을 쓴 사람은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병자를 봉양하는 사람은 조복(朝服)을 입는다. 검은 갓옷과 검은 관은 곧 조복이다. 막 세상을 떠났을 때는 조복을 벗고 심의를 입는다. 그러므로 ‘바꾸어 입어야 한다.’고 하였다. 〈단궁〉의 주는 병자를 봉양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이고, 《가어(家語)》에 실린 것은 공자가 자유(子游)에게 답한 말로 조문하는 사람을 근거로 말한 것이다. 글은 같으나 의미는 다르다.[按《檀弓》曰: “始死, 羔裘玄冠者, 易之而已.”云, 養疾者, 朝服. 羔裘玄冠, 即朝服也. 始死, 則易去朝服, 著深衣. 故云“易之而已.”《檀弓》注, 據養疾者, 言之. 《家語》所載, 孔子答子游之言, 據弔者言之, 文同而意則異.]”라고 한 말을 가리킨다. 면재가 《가어(家語)》라고 한 것을 간재는 《가례(家禮)》로 잘못 인용하였다.

(祖妣)의 위패는 사당 안의 동서(東西)에 둔다.”⁸⁹⁹⁾라고 하였다. 《주자어류》 권90 39판 하손(賀孫)의 기록⁹⁰⁰⁾에 용지(用之)⁹⁰¹⁾가 묻기를 “선생님의 제례는 입춘(立春)에 고조(高祖) 이상 제사 지낼 적에 단지 두 개의 위패만 놓습니다. 만약 옛날 사람의 협제(禘祭)⁹⁰²⁾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모름지기 신위마다 제사를 지내야 할 듯합니다.”라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나는 다만 정이천(程伊川 정이(程頤))의 설을 따랐다.”라고 하였다. 이른바 ‘선생님의 제례’란 실지 《가례》의 이 주(註)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하면 《가례》가 주자의 저작이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후대 유자의 수많은 설을 한 마디로 단정 지을 수 있다.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35판 우 11행 왼쪽.

화도수정본 : 근래 청나라 사람 채이강(蔡爾康)이 지은 <송유이화중국론(宋儒貽禍中國論)>을 보건대, 대개 한(漢)나라와 당(唐)나라가 흉노(匈奴)와 돌궐(突厥)에 딸을 시집보내고 신하를 자처한 일을 인용하여 “2대의 치욕이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곧이어 말하기를 “송나라 유자(儒者)는 옛 교훈을 건강부회하여 이적(夷狄)을 배척했다. 그러나 ‘내하외이(內夏外夷) 안쪽은 중화, 바깥쪽은 오랑캐’는 《노론(魯論 논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의 시속(時俗)은 송나라 유자의 고독(蠱毒)에 깊이 중독되어 걸핏하면 ‘외인(外人)은 오랑캐니 마땅히 배척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899) 《가례》의 …… 둔다 : 저본의 ‘《家禮》는 《가례》 권5 <제례(祭禮) 전일일설위진기(前一日設位陳器)> 조목의 주(註)를 말한 것으로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그 주에 이르기를 “시조와 선조를 제사 지낼 적에 다만 조고(祖考)의 신위는 사당 안 서쪽에 두고 조비(祖妣)의 신위는 사당 안 동쪽에 둔다.[如祭初祖之儀, 但設祖考神位于堂中之西, 祖妣神位于堂中之東.]”라고 하였다.

900) 하손(賀孫)의 기록 : 섭미도(葉味道)가 편집한 《주자어록(朱子語錄)》을 말한다. 하손은 섭미도의 초명이다. 자는 지도(知道). 호는 서산(西山), 시호는 문수(文修)이며, 절강성(浙江省) 온주(溫州) 사람이다. 주희(朱熹)를 사사(師事)하였는데, 당시 주자학(朱子學)을 금하고 있던 터라 지공거(知貢舉) 호굉(胡紘)의 배척을 받았다. 《주자어록(朱子語錄)》을 편집하였다.

901) 용지(用之) : 유려(劉礪)의 자이다. 호는 재헌(在軒)이며, 복건성(福建省) 장락(長樂) 사람이다. 유지(劉砥)의 동생으로 형과 함께 주희(朱熹)에게 수학하였다. 황간(黃幹)과 절친하였다.

902) 협제(禘祭) : 협(禘)은 합(合)의 뜻이니, 즉 여러 선령(先靈)을 한자리에 합하여 지내는 큰 제사를 말한다. 《禮記 曾子問》

말한다.”라고 하였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서경》에 이르기를 “오랑캐들이 중국을 어지럽히며, 도적들이 안팎으로 간악한 짓을 한다.[蠻夷猾夏, 寇賊姦宄.]”⁹⁰³라고 하며 오랑캐와 도적을 아울러 말하였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오랑캐를 이에 정복하였다.[戎狄是膺]”⁹⁰⁴라고 하고, 《맹자》에 이르기를 “우임금은 홍수를 막고 뱀과 용을 몰아내었으며 주공은 오랑캐를 정복하였다.”⁹⁰⁵라고 하며 오랑캐를 뱀과 용, 홍수와 나란히 말하였다. 맹자는 또 일찍이 왜가리 소리를 한다면 남만(南蠻)을 배척하였다.⁹⁰⁶ 과연 가령 공자에게 ‘내하외이(內夏外夷)’의 뜻이 없었다면 또 무엇 때문에 관중(管仲)의 공로를 칭찬하여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게 되었을 것이다.”⁹⁰⁷라고 하였겠는가? 또 “오랑캐에게도 군주가 있다.”⁹⁰⁸라고 한 것과 “비록 이적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⁹⁰⁹라고 한 것, “비록 오랑캐의 나라일지라도 행해 질 수 있다.”⁹¹⁰라고 한 것들이, 또한 모두 오랑캐를 도외시하는 의미인데 ‘논어’에서 기록되어 있지

903 오랑캐들이 …… 한다 : 《서경(書經)》〈우서(虞書) 순전(舜典)〉에 보인다.

904 오랑캐를 …… 정복하였다 : 《시경》〈비궁(閼宮)〉에 보인다.

905 우임금은 …… 정복하였다 : 《맹자》〈등문공 하(滕文公下)〉에 “옛적에 우왕이 홍수를 억제하자 천하가 평해졌고, 주공이 이적을 겸병하고 맹수를 몰아내시자 백성들이 편안해졌고, 공자께서 춘추를 완성하시자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하였다.[昔者, 禹抑洪水而天下平, 周公兼夷狄驅猛獸而百姓寧, 孔子成春秋而亂臣賊子懼.]”라고 하였다.

906 계설(缺舌) …… 배척하였다 :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지금 남만(南蠻)의 왜가리 소리를 하는 사람은 선왕의 도를 그르게 여긴다.[今也南蠻鳩舌之人, 非先之道.]” 하였다.

907 이 사람이 …… 것이다 : 《논어》〈헌문(憲問)〉에, 공자(孔子)가 관중(管仲)의 공을 찬양하면서 “만약에 관중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머리를 풀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라고 하였다.

908 오랑캐에게도 …… 있다 : 《논어》〈팔일(八佾)〉에 공자가 “오랑캐에게도 군주가 있으니, 중국에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夷狄之有君, 不如諸夏之亡也.]”라고 했다.

909 비록 …… 안 된다 : 《논어》〈자로(子路)〉에 번지(樊遲)가 인(仁)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거처할 적에 공손히 하며, 일을 집행할 적에 공경하며, 사람을 대할 적에 충성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적(夷狄)의 나라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雖之夷狄, 不可棄也.]”라고 하였다.

910 비록 …… 있다 : 《논어》〈위령공(衛靈公)〉에 “말이 충성스럽고 미더우며 행동이 독실하고 공경스러우면 오랑캐의 나라에서도 행할 수 있다.[言忠信, 行篤敬, 雖蠻貊之邦行矣.]”라고 하였다.

않았다.’라고 하니, 장차 누구를 속이겠는가. 하늘을 속이는 것이리라. 아니면 또한 오랑캐에 익숙한 지 이미 오래되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리라. 채이강이 또 말하기를 “복수는 공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송나라 유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 원수가 없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원수가 있다면 마땅히 그 일의 대소를 보고 조치해야 할 것이다. 소소한 침범은 비록 일일이 대처할 수 없을지라도 임금을 시해하고 아버지를 죽이고 위력(威力)을 빙자하여 우리를 신하나 첩으로 삼으려는 부류에게 또 어찌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탕(湯) 임금은 동자를 위해서 복수했다.⁹¹¹⁾ 공자는 ‘같은 하늘 밑에 살지 못한다.[不共戴天]⁹¹²⁾, ‘곧음으로 원한을 갚는다.[以直報怨]⁹¹³⁾’는 훈계가 있었다. 어찌 성현이 한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어떤 사람이 채이강의 아버지를 구타하거나 살해하였다면 그는 장차 복수는 송나라 유자의 이론(異論)이라 하고서 느긋하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겠는가? 오늘날의 이른바 ‘시무(時務)’를 안다는 자들도 소견이 대부분 이와 비슷하다. 이러한데도 사물의 이치를 열고 백성을 교화할 수 있겠는가. 크게 탄식할 만하다. 채이강의 의론은 임락지(林樂知)의 《중동전기(中東戰記)》 제7권에 실려 있다. 제1권 맨 처음에 조선의 궁내대신(宮內大臣)이 임락지에게 준 <중동전기를 준 것에 사례하다[謝贈中東戰記]>라는 편지가 실려 있는데, 이르기를 “이 책을 우리 폐하께 바쳤더니 다 읽고 나서 크게 칭찬하시고 이어 수놓은 병풍을

911) 탕(湯) 임금은 …… 복수했다 : 《서경》〈중휼지고(仲虺之誥)〉에 “갈백이 밥 먹이는 자와 원수가 되자, 처음 정벌을 갈 땅으로부터 시작했다.[乃葛伯仇餉, 初征自葛.]”라고 하였다. 《맹자》에 의하면, 갈백이 자기 선조에게도 제사를 지내지 않으므로, 탕 임금이 그를 도와서 제사를 지내게 하려고 박(亳) 땅의 민중을 거느리고 갈백의 들에 가서 농사를 지어 주게 하였다. 이때 노약자들이 밥을 내다 먹이는데, 갈백이 자기 민중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밥 내온 사람들을 강요하여 빼앗되, 주지 않는 자는 죽였으며, 심지어는 한 동자가 밥을 내와서 먹이자, 그를 죽이고 빼앗기까지 하자, 탕 임금이 비로소 갈백부터 정벌을 시작했다고 한다. 《孟子 滕文公下》

912) 같은 …… 못 한다 : 《예기(禮記)》〈곡례 상(曲禮上)〉에 “부친의 원수와는 하늘을 함께 이고 살지 못하고, 형제의 원수에 대해서는 복수하기 위해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니며, 친구의 원수와는 나라를 같이하여 살지 않는다.[父之讎, 弗與共戴天; 兄弟之讎, 不反兵; 交遊之讎, 不同國.]”라는 말이 나온다.

913) 곧음으로 …… 갚는다 : 《논어》〈헌문(憲問)〉에 “직(直)으로 원수를 갚고 덕으로 덕에 보답해야 한다.[以直報怨, 以德報德.]”라고 하였다.

하사하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임락지는 미국인이고, 채이강은 청나라 사람이다. 그들의 계책은 우리나라가 한결같이 오랑캐들과 친근하게 지내며 다시는 원수를 갚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대신 된 자가 군왕에게 바치고 포상을 받기까지 했더니 그 한심함은 논할 겨를이 있겠는가!

이상 1개 조목이 있다.

43판 우 11행 : ‘성인무특(聖人無特)’이하 2개 조목.

46판 좌 2행 : ‘애연사단(藹然四端)’ 1개 조목.

화도수정본 : 둘 다 <해상산필(海上散筆)>에 들어 있다. 【《후고(後稿)》】

○변 : 선사께서 친히 정하신 총목(總目)은 참으로 감히 멋대로 바뀌서는 안 될 것이다. 게다가 <분언(體言)>과 <해상산필(海上散筆)>은 초년작과 만년작이라는 차이가 있잖은가!

권34

卷三十四

17판 우 3행 : 그 추향의 차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不可不審其所趨之分]

화도수정본 : ‘지분(之分)’ 2자가 없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

19판 우 11행 : 서자(庶子)가 있는데도 족질(族姪)을 세워 뒤를 잇는 것은 벼슬아치 집안이 모진 마음으로 도리를 해치는 잘못된 관습이다. 그렇다면 그 자식 또한 남의 후사(後嗣)로 주는 경우가 없겠는가. 부자간에 이렇게 하는 자가 과연 임금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겠는가?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났으니 마땅히 천망(薦望 후보자 추천)을 멈추고 그 폐단을 통렬히 혁파해야 한다.[有庶子而立族姪爲嗣者, 是仕宦家忍心害理之悖習. 而爲之子者, 無亦爲與爲人後者耶? 父子而如此者, 果能盡忠於君乎? 明良相遇, 宜停薦停望, 而痛革其弊也.]

화도수정본 : ‘서(庶)’는 ‘친(親)’으로 되어있고, ‘폐야(弊也)’ 아래에 소주(小

註) ‘친자는 서자를 가리킨다.[親子指庶子]’라는 5자가 있다.

○변 : ‘서자(庶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친자(親子)’라고 하고서, 특별히 소주(小註)를 단 것은 자기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취한 것이 의리에 해가 됨을 밝힌 것인데 함부로 삭제하고 고쳐서 본의를 크게 잃었다.

21판 좌 9행 ‘시문천하(試問天下)’ 조목.

화도수정본 : <해상산필(海上散筆)>에 들어 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

동판 우 10행 : 아니면 기질이 선하지 않음이 있어서 지사(知思)가 선하게 운용되지 않는다.[抑氣質有不善, 而知思不善運用.]

화도수정본 : ‘이(而)’자가 없다.

30판 좌 2행 : 성(性)은 본디 지(知)도 없고 능(能)도 없지만, 그것을 일러 유독 태극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면 또한 오류일 것이다. 심(心)은 본디 동정(動靜)과 감응(感應)이 있지만, 곧바로 ‘태극’이라고 하면 그 또한 오류이다. [性固無知無能, 而謂之不可獨當太極, 則亦誤矣. 心固有動靜感應, 而謂之直是太極, 則亦誤矣.] 【<해상산필(海上散筆)>.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앞의 ‘역(亦)’자는 없다.

권35

卷三十五

1판부터 6판 우측의 ‘인성전성(人性全善)’ 조목 위까지.

화도수정본 : <잡기(雜記)>에 들어 있다.

○변 : 조목의 단락을 바꾸어 두기 위해 선사가 손수 정한 <잡기>의 총목을 삭제하기까지 하였으니, 마음이 편한가?

36판 좌 89행 : ‘불가(佛家)는 심(心)에 나아가 성(性)으로 인식하니[佛

家卽心認性] …… ’라고 운운하고, ‘고증가(考證家)는 심에 천착하여 성을 업신여긴다.[考證鑿心蔑⁹¹⁴性]’ 운운한 부분.

화도수정본 : ‘고증(考證)’ 아래에 ‘가(家)’ 자가 있다.

37판 좌측 ‘맹자귀구(孟子歸求)’이하부터 47판 우측 ‘피욕살시(彼欲殺時)’ 조목, 51판 좌측 ‘성신타극(性是太極)’이하 3개 조목까지.

화도수정본 : <잡기>에 들어 있다.

권36

卷三十六

38판 우 12행 : ‘정모내이(鄭某乃以)’【<해옥병화(海屋病話)>】

화도수정본 : ‘내(乃)’가 ‘매(每)’로 되어있다.

권37

卷三十七

42판 우 11행 : 공자(孔子)의 은거하고 침묵하라는 가르침⁹¹⁵은 또한 한때라 하고, 묵자(墨子)의 발을 싸매고⁹¹⁶ 가는 것은 한 ‘중도(中道)’라

914) 蔑 : 진주본의 원문에 따라 ‘蔑’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

915) 공자(孔子)의 …… 가르침 : 《논어》〈계씨(季氏)〉에 “숨어 살면서 자신의 뜻을 구하고 의를 행하여 자신의 도를 이룬다.[隱居以求其志, 行義以達其道.]”라고 하였고, 공자가 “말없이 속으로 기억해 두며,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으며, 사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나에게 있는가.[默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라고 겸허하게 말한 내용이 《논어》〈술이(述而)〉에 나온다.

916) 발을 싸매고 : ‘발을 싸맨다.[裹足]’라는 것은 발이 부르르고 물집이 생기거나 군살이 박혔을 때에 옷을 찢어 발을 감싸고 달려간다는 뜻이다. 《회남자》에 “옛날에 초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하려 하자, 묵자가 듣고서 딱하게 여겨 노나라에서 달려갔다. 열흘 밤낮을 달려 발이 누에고치처럼 부르짖는데도 쉬지 않고, 옷을 찢어 발을 싸매고 달려갔다. 영에 이르러 초나라 왕에게 유세하였다.[昔者楚欲攻

하며 ……【〈화도만록(華島漫錄)〉】

화도수정본 : 공자의 은거하여 침묵하라는 가르침 또한 ‘한계를 짓는 것 [畫]’이라 하고, 묵자의 발을 싸매고 가는 것은 또한 ‘중(中)’이라 하며 ……

권38

卷三十八

23판 좌 2행 : ‘저 광의 무리[彼光輩]’【〈영모재기(永慕齋記)〉】

화도수정본 : ‘광(光)’ 아래에 ‘돈(墩)’자가 있다.

권39

卷三十九

9판 우 10행 : 화서의 여러 설은 이미 성현의 본지가 아니다. 유종교가 드러내 밝힌 것⁹¹⁷도 화서의 본지와 어긋나지만, 또한 이미 회수하였으니 논할 것이 없다. 내가 보지 못하고 희령(希寧)⁹¹⁸이 본 것⁹¹⁹은 화서의 진정안(真正案)이 아니라 곧 김평묵의 가정안(假正案)일 것이니, 무덤에서 일으며 서로 함께 한바탕 웃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기타 심(心)·성(性)을 물(物)·칙(則)으로 나누고, 영각(靈覺)을 기(氣)에 분속(分屬)하고 신명(神明)

宋, 墨子聞而悼之, 自魯趨而十日十夜, 足重繭而不休息, 裂衣裳裹足. 至於郢, 見楚王.]”라고 하였다.

917) 유종교가 …… 것 : 유종교가 화서 선생의 심설에 대하여 제기한 정안(正案)인〈조보화서선생심설(調補華西先生心說)〉을 말한다.

918) 희령(希寧) : 한유(韓愈, 1868~1911)의 자이다. 호는 우산(愚山),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한택동(韓擇東)의 아들이고, 연재(淵齋) 송병선(宋秉璿)·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간재(良齋) 전우(田愚)에게 수학하였으며, 백운정사(白雲精舍)에 모셔졌다. 저서로는 《우산집》, 《백곡지(柏谷誌)》 등이 있다.

919) 내가 …… 것 : 한유(韓愈)의 〈운가왕복서후론(雲柯往復書後論)〉에 “구산(전우)은 다만 성재(유종교)의 초년의 이론만 보고 이 말을 하였다. 만년의 정론은 …… 아마 구산이 다 보지 못한 듯하다. [白山 只見惺齋初年之論而有此說, 若其晚歲定論 …… 恐白山皆未之見也.]”라고 하였다.

을 형이하(形而下)라고 한 것들은 구학(舊學)의 틀에서 벗어나 도로 주자와 율곡의 정안을 얻었으니 사문에 공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나는 만세의 학자들과 함께하고자 한다. 희령의 혼령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운·가⁹²⁰왕복후론발(雲·柯往復後論跋)⁹²¹】

화도수정본 : 자기를 세우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하고 아무렇게나 서로 ‘네네’하는 것은 다만 직도(直道)에 흠이 되지 않겠는가. 정안(正案)의 본설은 이미 성현의 종지를 잃었고, 유증교가 드러내 밝힌 설은 또 화서의 본지와 어긋지만, 또한 이미 환수하였다. 나 또한 감히 망령되어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이외에 다른 설은 또한 심·성을 몰·척으로 나누는 것, 영각을 기에 분속한 것, 신명을 형이하라고 한 것 등은 구학의 틀을 벗어나 다시 주자와 율곡의 정전(正詮)을 얻었으니 사문에 공이 있다고 이를 만하다. 그러므로 내가 슬며시 만세 학자와 함께하고자 한 것이다. 희령이 지각이 있다면 내가 서술한 의견을 착오라고 하지 않을까.

31판 좌 6행 왼쪽.

화도수정본 : <제조주백문(祭趙周伯文)> 1편이 있다. 【《재후고(再後稿)》】

권40

卷四十

1판 : <죽천 박 선생 신도비명(竹川朴先生神道碑銘)> 위.

화도수정본 : <울헌 최공 신도비명(栗軒崔公神道碑銘)>, <연촌 최 선생 신도비명(烟村崔先生神道碑銘)> 2편이 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

920) 운·가(雲·柯) : 운(雲)은 김평목을 가리킨다. 경기도 영평(永平)의 운담(雲潭)으로 이거하여 운담정사를 짓고 살았다. 가(柯)는 유증교를 가리킨다. 1882년 춘천 남면 가정(柯亭)리로 이거하여 가정사(柯亭社)를 열어 후학을 양성하였다.

921) 운·가왕복후론발(雲·柯往復後論跋) : 한유(韓愈)가 주용규(朱庸奎)의 《운담가정양문심설왕복시말(雲潭柯亭兩門心說往復始末)》을 필사하여 그 뒤에 <운가왕복서후론(雲柯往復書後論)》을 썼다. 이 글은 한유가 쓴 <운가왕복서후론>에 간재가 발문을 쓴 것이다.

○변 : 두 비문에 대해 저들은 《국전(國典)》에 ‘2품 이상이 아니면 신도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여 삭제하였다. 그러나 《국전》을 두루 고찰해보았지만 이런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 또 선사는 도암(陶菴)이 교감한 《울곡전서(栗谷全書)》 <증 통정대부 승지 김공 신도비(贈通政大夫承旨 金公神道碑)>⁹²²⁾ 안의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碑.]’라는 문구를 근거로 이 두 비문을 지었으니 그 국전에 어긋난다고 하여 삭제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별도로 비문에 대한 변론이 있으나 문장이 길어서 수록하지 않는다.

동판(同板) 우 13행 : ‘진사직장(進士直長) 【<죽천 박 선생 신도비명(竹川 朴先生神道碑銘)>.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진사(進士)’ 아래 ‘사위(仕爲)’ 2자가 있다.

동판 좌 7행 : ‘고의(古義)를 토론하여 부지런히 애써서 학업을 돈독히 하다.[討論古義, 勤苦篤業]’

화도수정본 : ‘고의(古義)’ 아래 ‘아침저녁으로 서로 경계하도록 꾸짖다.[朝夕相警責]’라는 5자가 있고, ‘독업(篤業)’ 아래 ‘자삼년(者三年)’ 3자가 있다.

2판 우 4행 : ‘한결같이 가례에 의거하여[一依家禮] …….’

6행 : ‘헌릉(獻陵)’

화도수정본 : ‘가례(家禮)’ 아래 ‘선생(先生)’ 2자가 있고, ‘헌릉(獻陵)’ 아래 ‘참봉(參奉)’ 2자가 있다.

동판 우 7행 : ‘기희(妓戲)’

9행 : 응선(膺選)

922) 증 통정대부 승지 김공 신도비(贈通政大夫承旨 金公神道碑) : 이이(李珣)의 《울곡전서(栗谷全書)》 권17 <정언 증 도승지 김공 신도비명(正言贈都承旨 金公神道碑銘)>을 말한다. 제목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에 신도비를 세운다.[爰樹神道之碑]’라는 문구가 있다. 대개 2품 이상 벼슬한 이만 신도비를 세울 수 있는데 김계(金啓)의 조부 김직손(金直孫)이 3품인 승지에 추증되고 신도비를 세웠다.

좌 2행 : ‘장원(掌苑)’ 아래의 소주(小註) 중 ‘실(失)’ 자.

3행 : ‘여민쟁송(與民爭訟)’

좌 4행 : ‘감사노지(監司怒之)’

화도수정본 : ‘기(妓)’ 아래 ‘유지(類之)’ 2자가 있다. ‘응(膺)’ 아래 ‘시(是)’ 자가 있다. ‘실(失)’은 ‘일(逸)’로 되어있다. ‘민(民)’ 위에 ‘촌(村)’ 자가 있다. ‘노(怒)’ 아래 ‘책(責)’자가 있다.

속 권1

續卷一

11판 우 9행 : ‘정식(精識)’【<송회경에게 답한 편지[答宋晦卿]>】

화도수정본 : ‘정(精)’이 ‘고(高)’로 되어있다.

38판 우측 : <윤명숙에게 답한 편지[答尹明肅]>【정사년(1917)】

화도수정본 : 없다.

속 권2

續卷二

1판 우측 : <김기범에게 답한 편지[答金起帆]>【기해년(1899)】

화도수정본 : 없다.

15판 우 11행 좌측.

화도수정본 : <김중옥⁹²³에게 답한 편지[答金重玉]>.

<별지(別紙)>에 다음 2가지 조목이 있다.

923) 김중옥(金重玉) : 김환각(金煥珪)이다.

1) 문(問) : 근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을 보건대, 한나라 소열제(昭烈帝) 장무(章武) 3년⁹²⁴ 5월에 후주(後主 유비(劉備)의 아들 유선(劉禪))가 즉위하였습니다. 개원(改元 연호를 고침)의 예에 준거해보면, 선제(先帝)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비록 하루일지라도 계묘년(223)은 마땅히 장무 3년에 속하는데, 곧 ‘건흥(建興) 원년(元年)’이라고 크게 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당나라 중종(中宗) 경용(景龍) 4년⁹²⁵ 6월에 예종(睿宗)이 즉위하였는데 그대로 ‘경용 4년’이라고 쓰고 그 아래에 ‘예종 경운(景雲) 원년(元年)’이라고 분주(分註 본문 옆을 두 줄로 나누어 주석을 닦)하였고, 도리어 이듬해에 이르러 ‘경운 2년’이라고 크게 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난 정미년(1907, 융희 1년)은 곧 광무(光武) 11년인데, 그해 7월에 새 황제에게 선위하여 융희(隆熙)⁹²⁶라고 개원하였습니다. 후세의 병필자(秉筆者)는 정미년을 광무 11년이라고 쓰고 융희 원년이라고 분주(分註)해야 합니까? 아니면 광무 11년을 세지 않고 융희라고 써야 합니까? 다만 본조(本朝)에서 이미 행해진 것으로 말하자면, 태조는 무인년(1398, 태조 7년)에 정종(定宗)에게 선위(禪位)하였는데, 이듬해인 기묘년(1399, 정종 1년)을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정종은 경진년(1400, 정종 2년)에 태종에게 선위하였는데, 역시 이듬해인 신사년(1401, 태종 1년)을 원년으로 삼았습니다. 지난번 개원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답(答) : 후한(後漢)과 당(唐)나라의 예는 아마 모두 정례(正禮)가 아닐 것이다. 마땅히 본조의 정종과 태종이 행한 것을 정례로 삼아야 한다. 정미년(1907, 융희 1년)을 후주(後主)의 예를 따르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병필자는 《자치통감강목》처럼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쓰면 그뿐이다.

924) 장무(章武) 3년 : 장무는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 소열제(昭烈帝) 때의 연호(221~223)이고, 장무 3년은 223년이다.

925) 경용(景龍) 4년 : 경용은 중국 당나라 중종(中宗)의 두 번째 연호(707~710년)이고, 경용 4년은 710년이다.

926) 융희(隆熙) :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純宗)의 연호(1907~1910)이다.

2) 문 : 아무개 어른이 지금까지 백립(白笠)을 쓰면서 《춘추(春秋)》의 법이라며 스스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춘추》의 주(註)를 고찰해보니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가 《춘추》의 글을 망령되이 첨가하였다고 험뜯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옛날 사람 중에도 이러한 예를 행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답 :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라는 문구를 근거로 하였다면 백립을 쓰는 것을 어찌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만 송나라 때 휘종(徽宗)⁹²⁷의 부음이 이르자 이일역월(以日易月)⁹²⁸ 하였다. 그러자 호치당(胡致堂)⁹²⁹이 상소하여 말하길 “《예기(禮記)》에서 말하길 ‘원수를 갚지 않으면 상복을 벗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복상(服喪) 3년 동안 묵취(墨衰)⁹³⁰를 입는 것은 곧 오랑캐입니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상복을 벗지 않는다.[服不除]’는 글을 인용하고서 오히려 ‘복상(服喪) 3년’이라고 한 것은 어째서이겠는가? 그 뒤 흠종(欽宗)⁹³¹의 부음이 이르렀을 적에 주희(朱熹)와 장재(張載) 등 여러 선생은 종신토록 흰 옷과 관을 쓰라는 규제가 없었다. 어찌 고금이 달라서 그런 것이겠는가? 송나라 덕우(德祐 공종(恭宗))⁹³²가 세상을

927) 휘종(徽宗) : 1082~1135. 중국 북송(北宋) 제8대 황제(재위 1100~1125)로, 성명은 조길(趙佶)이다. 신종(神宗)의 제11째 아들로써 형인 철종이 사망하자 신종왕후의 지지로 즉위하였다. 처음에는 신·구양법의 균형을 취한 정치를 했으나 섭정인 상태후(尙太后)가 사망(1101)한 후에는 신법을 부활하고 채경(蔡京), 동관(童貫) 등에게 정치를 맡겨 실정이 많았다. 선화 7년(1125) 금나라 군이 남쪽으로 침공하자 황태자(흠종)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었다.

928) 이일역월(以日易月) : 달을 하루로 쳐서 복(服)을 입는 제도로, 참취(斬衰) 3년인 경우 27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하는데, 27일 동안만 상복을 입고 탈상(脫喪)한다.

929) 호치당(胡致堂) : 송(宋)나라 사론가(史論家) 호인(胡寅)을 말한다.

930) 묵취(墨衰) : 다듬은 베로 만든 직령(直領)에 묵립(墨笠 검은 갓), 목대(墨帶 검은 띠)를 갖춘 복제이다.

931) 흠종(欽宗) : 1100~1156. 중국 북송(北宋) 9대 황제(재위 1125~1127)로, 이름은 환(桓)이다. 정강(靖康)의 변으로 아버지 휘종(徽宗)이 퇴위하게 되어,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으나 당시 금(金)나라의 압박이 심하여 마침내 변경(汴京)이 함락되고 흠종은 아버지와 함께 북쪽 오국성(五國城)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생애를 마쳤다.

932) 덕우(德祐) : 중국 남송(南宋) 공종(恭宗)의 연호로 1275~1276년까지 2년 동안 사용되었다. 여기서는 공종을 말한다.

떠나자 벼슬아치 중 종신토록 쇠복(衰服)을 입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은 《방정학집(方正學集)》⁹³³⁾에 보인다. 전현(前賢)이 행한 것이 각기 달라 감히 딱 잘라 말하지 못하겠다. 【우리나라의 이택당(李澤堂)⁹³⁴⁾은 정축년(1637) 남한산성에서 내려온 뒤 검은 칠이 된 패랭이를 썼다. 신주촌(申舟邨)⁹³⁵⁾은 어머니의 원수를 갚지 못하자 종신토록 패랭이를 썼다.】 이상 2개 조목이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

17판 좌측 : <박사문에게 답한 편지[答朴士文]> 【무오년(1918)】

19판 우측 : <전사성에게 답한 편지[答田士誠]> 【기미년(1919)】

22판 우측 : <조동손에게 답한 편지[答趙東孫]> 【기미년(1919)】

28판 좌측 : <송순희에게 보낸 편지[與宋順會]> 【경신년(1920)】

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

38판 우 11행 : 굴신왕래(屈伸往來)하여 이기(理氣)가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다.[屈伸往來, 理氣自然能如此.] 【<어떤 사람에게 답한 편지[答或人]>】

화도수정본 : ‘이기(理氣)’가 ‘이기(二氣)’로 되어있다.

933) 《방정학집(方正學集)》: 명(明)나라 초기의 학자 방효유(方孝孺, 1357~1402)의 문집이다. 방효유의 자는 희직(希直)·희고(希古), 호는 정학(正學)·손지(遜志), 시호는 문정(文正), 절강성 영해현 출신이다. 문풍이 한유(韓愈, 768~824)와 비슷하다고 하여 ‘소한유(小韓愈)’로 불리었다. 후일 영락제(永樂帝)가 된 연왕(燕王) 주체(朱棣)가 제위를 찬탈한 다음 등극 조서를 쓰라고 강요한 것을 거절했다가, 그의 일족 800여 명과 함께 살해되었다. 또 다른 저서로는 《손지재집(遜志齋集)》이 있다.

934) 이택당(李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이다.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이다. 좌의정 이행(李荇)의 현손(玄孫)이다. 1642년에 김상헌(金尙憲)과 함께 청나라를 배척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중국의 심양(瀋陽)으로 잡혀갔다.

935) 신주촌(申舟邨): 신만(申曼, 1620~1669)이다. 자는 만정(曼情), 호는 주촌(舟村).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영의정 신홍(申欽)의 증손이다. 시직(侍直) 신익룡(申翊隆)의 아들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두 차례의 호란으로 부인과 어머니를 모두 잃었다.

속 권3

續卷三

7판 우 : <한경춘에게 답한 편지[答韓景春]>【경신년(1920)】

19판 우 : <최명희에게 답한 편지[答崔命喜]>【무오년(1918)】

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

속 권4

續卷四

5판 우 12행 : 체일과 용수를 띠다.[帶體一用殊”【<이희진에게 답함[答李喜璣]>】

화도수정본 : ‘체일(體一)’ 앞에 ‘용수를 띠다.[帶用殊]’가 있다.^{936) 【《후고(後稿)》. 이하 같다.】}

8판 좌측 : <조홍순에게 답한 편지[答趙弘淳書]>의 ‘정(鄭)’ 자 3개.

화도수정본 : ‘모(某)’자로 되어있다.

23판 좌측 : <어재원에게 답한 편지[答魚在源]>

33판 우측 : <어재원에게 답한 편지[答魚在源]>【기미년(1919)】

33판 좌측 : <오진영에게 답한 편지[答吳震泳]>【갑인년(1914)】

화도수정본 : 모두 없다.

936) 체일(體一) …… 있다 : 화도수정본에는 ‘帶用殊體一’으로 되어있다는 말이다.

속 권5

續卷五

5판 우 7행 : ‘자야(子也)’ 아래. 【〈안병도에게 답한 편지[答安炳道]〉】

화도수정본 : 소주(小註) ‘이한재(二韓齋)의 유자(儒者)가 나중에 다시 사이가 어그러졌다. 그러므로 비문을 오래도록 버려두었다.[二韓齋儒, 後復相戾. 故永棄碑文.]’라는 13자가 있다.

41판 좌 11행42판 우 3행까지 : 의효전(懿孝殿)⁹³⁷의 상사(喪事)에 신하와 백성은 원래 무복(無服 상복을 입지 않음)인데, 지금 기제(碁制 일년복)로 정한 것은 비록 예에 합당하지 않지만 이미 시왕(時王)의 제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따릅니다.제가 수취(受衰)⁹³⁸한 것은 종전에는 미호(漢湖)⁹³⁹의 전례(前例)에 따라 행한 것이고, 지금은 무복(無服)인데도 유복(有服 상복을 입음)을 행한 것입니다.[懿孝殿喪事, 臣民原來無服, 而今定以碁制, 雖未合禮, 既是時王之制, 不得已而從之.鄙人受衰, 從前依漢湖已例行之, 今則無服而爲有服歟.] 【〈신혁균에게 답한 편지[答申赫均]〉】

화도수정본 : ‘여(歟)’는 ‘여(與)’로 되어있다. ‘여(與)’자 아래에 ‘대상(大喪

937) 의효전(懿孝殿) : 1904년 11월 5일(음력 9월 28일)에 승하한 순종(純宗)의 세자 시절의 부인 순명비(純明妃) 민씨(閔氏, 1872~1904)의 혼전(魂殿)이다. 여기서는 순명비 민씨를 가리킨다. 1905년(광무 9) 1월 4일 초우제를 시작으로 순명효황후의 혼전 의례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1907년(융희 1)까지 혼전 의례가 지속되었다. 혼전은 22개월 동안 의례가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왕이 살아 있는 동안 비(妃)가 죽은 경우 신주를 계속 모시고 있다가 왕이 승하하여 종묘에 부묘되는 시기에 함께 신주를 종묘에 봉안할 수 있다. 따라서 순명효황후의 신주를 모시는 의효전은 순종이 종묘에 부묘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938) 수취(受衰) : 상례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슬픔을 줄여나가는 절차에 따라 상복을 거친 것에서 점차 고운 것으로 바꾸었다. 옷을 바꾸어 새로 지어 입는 것을 수취, 혹은 수복(受服)이라고 한다.

939) 미호(漢湖) : 김원행(金元行, 1702~1772)의 호이다. 김창협(金昌協)의 손자로, 자는 백춘(伯春)이고 운루(雲樓)라는 다른 호가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722년(경종2) 신임사화(辛壬士禍)에 종조(從祖)인 김창집(金昌集)이 노론 사대신(老論四大臣)의 한 사람으로 사사(賜死)되고 일가가 모두 유배될 적에 모친의 배소(配所)에서 공부하였으며, 1725년(영조1)에 부조(父祖)가 신원(伸冤)된 뒤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학문에만 힘썼다. 당시 호락(湖洛)의 학파 중에서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을 주장하는 낙론(洛論)을 지지하였으며, 그의 학풍은 주리(主理)와 주기(主氣)를 절충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서에 《미호집(漢湖集)》이 있다.

국왕의 상)과 내상(內喪 왕비의 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복일(成服日)에는 다만 백립(白笠)을 쓰고 흰옷을 입었습니다.[大喪內喪有間. 故成服日, 只用白笠白衣已矣.]라는 18자가 있다. 【《전고(前稿)》】

변 : 선사께서 의효전의 상에 다만 백의를 입고 백립을 쓰고 수취(受衰)하지 않은 것은 그 무복(無服)인데도 유복(有服)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여(與)’를 ‘여(歟)’로 고치고 그 아래문구를 삭제하여 ‘수취한다.’는 문구를 만들었으니, 선사의 사실과 예의(禮意)를 바꾸고 어지럽힘이 곧 여기에 이르렀구나!

속 권6

續卷六

11판 우 2행 : 하물며 부모가 남기신 …… [況且父母所遺]. 【〈노병준에게 답한 편지[答盧秉準]〉】

화도수정본 : ‘차(且)’가 ‘차(此)’로 되어있다. 【《후고(後稿)》. 이하 같다.】

속 권7

續卷七

30판 우측 : 〈김식원에게 답한 편지[答金植沅]〉 【정사년(1917)】

화도수정본 : 없다.

36판 좌 12행 : 스스로 그 명을 재촉하다.[自促其命] 【〈이동윤에게 보낸 편지[與李東潤]〉】

화도수정본 : ‘명(命)’이 ‘망(亡)’으로 되어있다.

41판 좌측 : 〈김세기에게 답한 편지[答金世基]〉 【임술년(1922)】

화도수정본 : 없다.

42판 좌측 : <한성석에게 보낸 편지[與韓性錫]>

화도수정본 : <아무개에게 보낸 편지[與某]>

속 권8

續卷八

1판 좌 : <정태수에게 답한 편지[答丁兌秀], <정영조에게 답한 편지[答鄭瑛朝]>

5판 우 : <범희엽에게 답한 편지[答范熙暉]>

동판 좌 : <범희원에게 답한 편지[答范熙元]>

11판 좌 : <변경원에게 답한 편지[答弁敬源]>

22판 우 : <박용길에게 답한 편지[答朴鏞吉]>

화도수정본 : 모두 <아무개에게 답한 편지[答某]>로 되어있다.

38판 좌 1행 왼쪽.

화도수정본 : <화·경 두 아이⁹⁴⁰⁾에게 부치는 편지[寄華敬二兒]>.

일전에 인보(仁父)⁹⁴¹⁾와 이견(而見 오진영)이 나가서는 나라를 보존하라고 권하였으니 이것은 공적을 중시하여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않는 것으로 곧 가릉(嘉陵 경기도 가평)의 여러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 남헌(南軒)⁹⁴²⁾의 설 한 단락을 떠올려보건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업(功業)에 뜻을 둔 자가 진실로 그 공적을 이루어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또한 기꺼이 할 것이다. 이는 남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도의에는 미치지 못한다. 옛날 사람은 오직 도를 지키고 의리를 밝힐 뿐이었다. 비록 세상을 덮을 만한 공적이 눈앞에 있어 할 만하더라도,

940) 화·경 두 아이 : 간재의 둘째 아들 화구(華九)와 셋째 아들 경구(敬九)이다.

941) 인보(仁父) : 김사우(金思禹)의 자이다.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거주지는 청주이다. 전우의 문인이다.

942) 남헌(南軒) : 중국 남송의 유학자 장식(張栻, 1133~1180)이다.

나에게 있는 것이 털끝만큼이라도 편치 않으면 감히 따르지 않았다. 천민(天民 하늘의 백성)인 자는 반드시 현달하여 그 도가 천하에 행할 만함을 분명히 알고 나서 행한다.⁹⁴³⁾ 대개 그 주로 삼는 것은 도(道)에 있으며 행함을 기필하지 않는다.⁹⁴⁴⁾

고루한 내가 진실로 천리를 온전히 다한 대현(大賢)을 감히 논할 수는 없으나 그 뜻은 도의를 주로하고 공적에 얽매이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이견은 평소 다소 공적을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인보(仁父)는 견지하는 것이 반드시 그와 같지는 않다. 다만 사세가 이미 극에 달하고 화(禍)와 욕(辱)이 이미 임박하여 적잖이 동요할 수밖에 없다. 진실로 견해를 정하기도 어렵고 고수(固守)하는 이도 드물다. 다만 이것으로 또한 타고난 자질이 비록 아름다울지라도 사우의 강명(講明)이 그야말로 적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자는 《주역》 혁(革) 괘의 육이(六二)⁹⁴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시기가 알맞고, 지위를 얻었으며, 재주가 충분하니, 【나는 과연 이 세 가지가 있는가?】 개혁에 대처하기를 지극히 잘하는 자이다. 그러나 신하의 도리는 개혁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 또 반드시 상·하가 믿어 주기를 기다려야 한다. 【나는 과연 상·하의 믿음을 얻었는가?】 그러므로 하루가 지나서야 개혁하는 것이다. 이(二)와 같은 재주와 덕은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나아간 시기가 천하의 폐해(弊害)를 개혁하고 천하의 정치를 혁신할 만하니 마땅히 나아가 도를 행하면 길하다. 나아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때를 놓쳐 허물이 있게 된다.⁹⁴⁶⁾

여기에서 두 군(인보와 이견)의 강권(強勸)과 나의 견지를 비교해보면 어찌

943) 천민인 …… 행한다: 《맹자》〈진심상(盡心上)〉에 “맹자가 이르기를 “천민인 자가 있으니, 현달하여 천하에 도를 행할 만한 다음에 행하는 자이다.[有天民者, 達可行於天下而後行之者也.]” 한 데서 온 말인데, 몇몇 글자를 첨삭되어 있다.

944) 공업에 …… 않는다: 이 내용은 장식의 《맹자설(孟子說)》 권7에 보이는데, 원문에 차이가 있다. 간재가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945) 육이(六二): 원문 ‘사(四)’는 ‘이(二)’의 오자로 수정 번역하였다.

946) 시기가 …… 된다: 《주역전의 하(周易傳義下)》〈혁괘(革卦)〉에 보인다.

손바닥에서 보는 것처럼 흰하지 않겠느냐? 퇴(退) 대감⁹⁴⁷)은 비록 내 말을 옳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지난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라고 하였으니, 도리어 두 사람의 견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른바 ‘지난번’이라는 것은 곧 작년 가을 임성무(任聖武)를 보내어 유림이 마땅히 나아가서 행해야 한다고 말한 그것이다. 작년 가을을 올봄에 비교하자면 유자(儒者)가 상하가 믿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출각(出脚)한 의리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송강재(宋强哉)⁹⁴⁸)가 편지를 보내와 퇴 대감 설의 잘못을 힘껏 변론하며 도리어 종전에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해하였는데, 여기서 아마 퇴 대감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듯하다.

예전에 이견이 처음 왔을 적에 맹사간(孟士幹)⁹⁴⁹)의 뜻을 전하며 “모 어른이 한번 일어나면 국내의 사류(士流)가 모두 호응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서울은 모모가 있어 의지할 만하고, 대궐 안은 모 궁이 있어 통할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길 “사군자(士君子)가 일을 하는데 어찌 모 궁이 하는 일을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견이 다시 와서 문득 말하기를 “모 인사가 요사이 이미 머리를 잘랐습니다. 참으로 의외입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현인들이 헤아려 의지할 만하다고 여기는 자가 이러니 참으로 가소롭구나.”라고 하였다. 비록 그렇다 해도, 가령 내가 그 말에 따라 문을 나서서 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고, 각국 공사관에 통지하여 열국의 공사(公使)와 한 차례 논쟁 끝에 진격하는 형세를 약간 물리고 급박한 재앙을 조금 늦춘다면 일시에 반드시 백성의 칭송을 두터이

947) 퇴(退) 대감 : 우국지사(憂國之士) 이성렬(李聖烈, 1865~?)을 말하는 듯하다. 호는 회암(晦菴), 또는 퇴암(退菴)이다. 1905년(광무9)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자, 여주(驪州)에 은거하여 민종식(閔宗植), 이시영(李始榮) 등과 협의하여 의병(義兵)을 규합했는데, 그 후 의병의 명부(名簿)가 압수되어 많은 동지가 체포되자, 결국 단식 끝에 자결하였다.

948) 송강재(宋强哉) : 송의섭(宋毅燮, 1865~?)이다. 자는 강재(强哉), 호는 춘계(春溪)이다.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부단리에서 태어났다. 전우의 제자이다.

949) 맹사간(孟士幹) : 맹보순(孟輔淳, 1862~1933)이다. 자는 사간(士幹), 호는 동전(東田)이다.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나 9세에 신갈 김수운에게 한학을 배우고 15세에 서정순(徐正淳)에게 수학하였다.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군자의 출처어묵(出處語默)⁹⁵⁰의 정밀한 의미겠는가? 작년 내가 퇴 대감의 설을 들어서 서장(徐丈)⁹⁵¹에게 물으니 나에게 답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어찌 시비를 알지 못하여 이런 침포(侵暴)한 행동을 하였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맹사간은 어찌하여 그 스승이 이런 선견(先見)이 있음을 듣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가?

이상 3개 조목이 있다. 【《전고(前稿)》】

44판 우 5행 : 비천한 이는 조문할 적에 마땅히 사배(四拜)를 해야 한다.[卑賤之弔, 當有四拜.] 【〈일정에게 부친 편지[寄鎰精]〉】

화도수정본 : ‘사(四)’는 ‘사(謝)’로 되어있다.

속 권9

續卷九

19판 우측 : 〈남진영·이휘재에게 써준 편지[贈南軫永李徽在]〉【경신년(1920)】

화도수정본 : 없다.

20판 우 10행 : 올해 나와 제현들이 호남의 영주산(瀛洲山 정음의 두승산(斗升山))에서 독서를 하였다.[今年, 余與諸賢, 讀書于湖南之瀛洲山中.] 【〈유영선에게

950 출처어묵(出處語默) : 주희(朱熹)의 《이락연원록(伊洛淵源錄)》 권13 〈호문정공(胡文定公)〉과 《송사(宋史)》 권435 〈유림열전(儒林列傳)〉 등에 보이는 말로, 주진(朱震)이 소명(召命)을 받고 출처(出處)의 마땅함에 대해 묻자, 호안국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학문을 강마하는 것과 정사를 논하는 문제는 응당 절절하게 물어 강구해야 하겠지만, 몸가짐의 대체인 떠날지 나아갈지 말할지 침묵할지의 기미에 대한 문제는, 마치 사람이 먹고 마실 때 그 배고픈지 배부른지 추운지 따뜻한지를 반드시 스스로 짐작해야 하는 것과도 같아 남에게서 이를 결정해서도 안 되고 또한 남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출처만큼은 송녕(崇寧) 이후 모두 안으로 마음속에서 결단하였기에 비록 유작(游酢)이나 사양좌(謝良佐) 같은 어른들도 모두 이 문제를 꺾지 못하였다.[世間惟講學論政, 則當切切詢究. 至於行己大致去就語默之幾, 如人飲食, 其饑飽寒溫, 必自斟酌, 不可決之於人, 亦非人所能決也. 安國出處, 自崇寧以來, 皆內斷於心, 雖定夫, 顯道諸丈人行, 皆不以此謀之也.]”라고 하였다.

951 서장(徐丈) : 맹사간의 스승 서정순(徐正淳, 1831~1905)을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자는 유철(幼七)이고 호는 야우(野愚)이며, 본관은 달성(達城)이다.

훈시하다[訓柳永善]. 이하 같다.】

화도수정본 : 나는 영주산에서 독서를 하였다.[余讀書瀛洲山中]【《전고(前稿)》. 이하 같다】

동판 좌 12행 :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준거로 삼는다. 박문약례(博文約禮) 운운[所受於函席者爲準 博文約禮云云].

화도 수정본 : ‘위준(爲準)’ 아래 권점(圈點)이 없고, ‘박문(博文)’ 이하 모든 크고 작은 글자는 모두 소주(小註)로 되어있다.

25판 좌측 : <유영설에게 보이다[示劉永濬]>【신해년(1911)】

화도수정본 : 없다.

37판 우 9행 : 천하는 인의(仁義)를 이야기하기를 꺼렸다.[天下之談仁義爲諱]

화도수정본 : ‘지(之)’가 ‘이(以)’로 되어있다. 【《후고(後稿)》】

속 권13

續卷十三

21판 좌 2행 : ‘손군(孫君)’

화도수정본 : ‘손회은(孫晦隱)’으로 되어있다. 【《재후고(再後稿)》】

속 권14

續卷十四

13판 좌 : <수당 유공 묘갈명(遂堂柳公墓碣銘)>⁹⁵²⁾

952) 수당 유공 묘갈명(遂堂柳公墓碣銘) : 《간재집》에는 <수당거사 유공【지성】묘갈명(遂堂居士柳公【志聖】墓碣銘)>으로 되어있다.

14판 좌 : <유인 오씨 묘갈명(孺人吳氏墓碣銘)>

화도수정본 : 모두 ‘묘명(墓銘)’으로 되어있고, 묘명의 총목차가 있다. 【《후고》】

18판 우 10행 : <운가 심공 묘지명(雲稼沈公墓誌銘)> 위.

화도수정본 : <동돈녕 오공 묘지명(同敦寧吳公墓誌銘)>이 있다. 【《전고(前稿)》. 이하 같다.】

속 권15

續卷十五

41판 : <전불관전(田不關傳)>. 최성범(崔性範)⁹⁵³ 군이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내게 말해준 것이다.

전불관(田不關)이라는 사람은 만포(滿浦)⁹⁵⁴ 기생이었다. 첩사 전(田) 아무개가 기녀를 총애하여 낳은 아이인데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에게 길러졌다. 자태가 아주 뛰어나고 삼가, 외간 남자를 보지 않았다. 16세에 첩사 구(具) 모가 처음으로 가까이 모실 것을 명하였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특별히 기생 명부에서 빼주었다. 불관은 가까운 친척에게 가서 의탁하였다.

그 뒤 첩사 조명철(曹明喆)⁹⁵⁵이 그 미모를 듣고 불렀으나 따르지 않았다. 조명철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너는 비록 전관(前官)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나 곧 진영(鎭營)의 노비일 뿐이다. 어찌 감히 명을 거역하느냐?” 라고 하고, 여러 날 가두어 두었다. 단옷날이 되자 조명철이 여러 기생을

953 최성범(崔性範) : 최명희(崔命喜, 1851~1921)이다. 본관은 경주, 자는 성범(性範), 호는 노백(老栢)이다. 전우의 문인이다.

954 만포(滿浦) : 조선 시대 평안도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에 있던 압록강(鴨綠江) 가의 마을 이름이다. 군사 방어 진지인 진(鎭)이 설치되어 그곳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955 조명철(曹明喆) : 당시 만포(滿浦) 첩사인 조명철(曹命喆)인 듯하다. 본관은 창녕이고, 수원에 거주하였다. 이 일은 《승정원일기》 정조 11년(1787) 1월 19일 기사에 보인다. 1787년 1월 19일에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되고 이후 조명철은 의금부로 압송되어 곤장 100대 형을 속전(贖錢)하고 황해도 장연현(長連縣) 박산역(朴山驛)으로 유배갔다. 1789년 8월 10일에 해배(解配)되었다.

모아놓고 그네뛰기를 하였는데, 불관을 풀어주면서 함께 즐기며 놀게 하였다. 불관은 이모와 작별하며 “기생 팔자 참으로 애통합니다. 저 스스로 요량이 있으니, 오늘 이후로 아침저녁 밥은 준비하여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날 밤 조명철은 불관을 불러 저포놀이를 하였다. 불관은 조명철에게 취하도록 권하였다. 조명철이 곱아떨어졌다가 밤이 깊어서야 깨어보니 불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관노를 시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다만 상자 속에서 그 친척의 편지만 발견하였다. 편지에 ‘네가 만약 정절을 잃는다면 한번 죽은 뒤에 물어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다시 동기로 대하겠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 밖까지 찾던 중 세검정(洗劍亭)⁹⁵⁶⁾ 아래에서 밭 없는 가체를 발견하였다. 치마는 강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 무렵에야 물속에서 시신을 찾았다.

그날 밤 불관은 완전히 수중에서 걸어 나와 노래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 곡을 하였는데 듣는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면 밤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슬프게 원망하니 온 진영(鎭營)이 떠들썩해졌다. 조명철은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 불관이 허공에서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그 때문에 병이 들었다. 당시 수령이 들고 임금께 아뢰자, 어사(御使)에게 명하여 진영 장수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최성범이 또 말하였다.

희천(熙川)의 역평서재(驛坪書齋)에 이르러 병이 나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함(咸) 아무개가 글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이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펼쳐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병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계(江界) 군수 이(李) 아무개를 만나 말을 하니, 이 아무개가 “나 또한 그러한 사실을 익히 들었소. 아주 가상하고 탄복할 일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소자가 읍지에 기록할 것을 권하고, 그리하여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956) 세검정(洗劍亭) : 평안북도 강계군 만포의 압록강 기슭에 있는 조선 시대 누정이다. 관서팔경의 하나로 일컬어졌으나 1938년 일제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만포 기생 중 불관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滿浦妓生有不關
불관이 당시 무슨 관계가 있었겠는가.	不關當日有何關
멀리서도 알겠구나 세검정 앞 물이	遙知洗劍亭前水
천고토록 향기로운 건 불관 한 사람 때문임을.	千舌偏芳一不關

화도수정본 : 최성범(崔性範) 군이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내게 말해준 것이다.

전불관(田不關)이라는 사람은 만포(滿浦) 기생이었다. 첩사 전(田) 아무개가 기녀를 총애하여 낳은 아이인데 9세 때 어머니를 잃고 이모에게 길러졌다. 16세에 자태가 아주 뛰어나고 마음가짐을 삼가, 외간 남자를 쳐다보지 않았다. 첩사 구(具) 모가 처음으로 가까이 모실 것을 명하였고,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특별히 기생 명부에서 빼주었다. 불관은 가까운 친척 집에 가서 의탁하였다.

그 뒤 첩사 조명철(曹明喆)이 그 미모를 듣고 불렀으나 불관은 따르지 않았다. 조명철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너는 비록 전관(前官)에게 보살핌을 받았으나 그저 한 진영(鎭營)의 노비일 뿐이다. 어찌 감히 관명을 거역하느냐?”라고 하고, 여러 날 잡아 가두었다. 단옷날이 되자 조명철이 여러 기생을 모아놓고 그네뛰기를 하였는데, 불관을 풀어주면서 함께 즐기며 놀게 하였다. 불관은 이모와 작별하며 “기생 팔자 참으로 애통합니다. 저 스스로 요량이 있으니, 오늘 이후로 아침저녁 밥은 준비하여 보내지 마세요.”라고 하였다.

그날 밤 조명철은 불관을 불러 저포놀이를 하였다. 불관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조명철에게 취하도록 권하였다. 조명철은 꿀아떨어졌다가 밤이 깊어서야 깨어보니 불관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다음날 관노를 시켜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였고 다만 상자 속에서 그 친척의 편지만 발견하였다. 편지에 ‘너는 우리 집안의 뼈와 살을 나눈 혈육이다. 네가 만약 정절을 잃는다면 한 번 죽은 뒤에 물어줄 뿐이다. 하지만 어찌 다시 동기로 대하겠는가?’라고 쓰여 있었다. 수문 밖까지 찾던 중 세검정(洗劍亭) 아래에서 밭 없는 가체를 발견하였고, 치마는 언덕 위에 있었는데 강을

따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서야 물속에서 시신을 찾았다.

그날 밤 불관은 수중에서 걸어 나와 완연히 원한에 찬 통곡을 하였는데 노래하는 듯 하소연하는 듯하여 듣는 사람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밤이면 밤마다 오가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슬프게 원망하니 온 진영이 떠들썩해졌다. 조명철은 잠들 때나 깨어 있을 때 불관이 허공에서 나타난 것을 여러 번 보았는데, 하소연하는 듯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하여 이 때문에 병이 들었다. 당시 수령이 듣고 임금께 아뢰자 여사(御使)에게 명하여 진영 장수의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최성범이 또 말하였다.

올봄 희천(熙川)의 역평서재(驛坪書齋)에 이르러 병이 나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 함(咸) 아무개가 글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참으로 세상에 드문 기이한 일 하나가 있었는데 펼쳐보는 동안 저도 모르게 병이 몸에서 사라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계(江界) 군수 이(李) 아무개를 만났습니다. 말이 여기에 미치자 이공이 말하기를 “나 또한 여기 와서 그 일을 익히 들었소. 아주 가상하고 탄복할 일이오.”라고 하였습니다. 소자가 읊지에 기록할 것을 권하고, 이어 시를 한 수 지었습니다.

만포 기생 중 불관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滿浦妓生有不關

불관이 당시 무슨 관계가 있었겠는가.

不關當日有何關

멀리서도 알겠구나 세검정 앞 물이

遙知洗劍亭前水

천고토록 향기로운 건 불관 한 사람 때문임을.

千舌偏芳一不關

○변 : 이 전(傳)은 진주 사람은 최명희가 대신 짓고 고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설령 대신 지었다고 해도 이미 친히 명(命)하고, 또 친히 감수(監修) 하였다면 곧 선사가 직접 지은 것과 같으니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 더구나 대신 지은 것이 아니라 친히 짓는 걸 국영환(鞠瑛煥)⁹⁵⁷이 당시 목격한 적이

957) 국영환(鞠瑛煥) : 1874~1954. 자는 영옥(英玉), 호는 연합재(鍊緘齋), 본관은 담양(潭陽)이다. 전북 완주군 비봉면(飛鳳面) 수선리(水仙里) 출신이다. 전우(田愚)의 문인이다. 문집으로 『연합재사고(鍊緘齋私稿)』 필사본(筆寫本) 2책이 전한다.

있었음에랴. 이에 국영환의 기록을 아래에 덧붙인다.

선사께서 태안에 계실 때 내가 곁에서 모시고 있었다. 최명희가 관서(關西)에서 돌아와 알현하고 소매에서 책 한 권을 꺼내 꿰어앉아 올리며 말하기를 “이것은 만포의 기생 전불관의 사실(事實)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다 보고 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천한 기생으로서 이런 절의가 있다니 또한 기특한 일 중 하나로다.”라고 하시고, 그날 저녁에 <전불관전>을 지었다. 제생이 모두 베껴서 송독하였다. 나는 숙독하며 입에 올라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때는 무술년(1898) 봄 3월이다.

화도수정본 《간재선생문집사차(私笱)》 상·하권에 <여신앙여(與申仰汝) 장편 편지, <수현재우기(守玄齋偶記)>, <자서조동변(自西徂東辨)>과 <양집제설변(梁集諸說辨)>이 있다.【《전고》】 이미 진주본에는 <신앙여에게 보낸 편지(與申仰汝)>와 <수현재우기(守玄齋偶記)>는 원편(原編)에 옮겨 두고, 변(辨) 두 편은 《별집(別集)》에 넣었다.

김용승⁹⁵⁸⁾의 <망고현천문>에 대한 변론 [1931]

金容承望告玄阡文辨【辛未】

문하(門下) 한광(韓狂) 김용승은 금마(金馬 전북 익산)로 길을 나서 땅을 자리 삼아 위패를 모시고, 술을 따르고 두 번 절하며 고합니다.

‘문하(門下)’는 김용승이 일찍이 선사에게 칭한 것인데 지금 갑자기 취하여 자칭하고 또 ‘한광(韓狂)’이라는 별호를 썼으니 이려고도 문인으로 자처했다고 이를 수 있는가? 묘소 아래를 지나다니면서도 10년 동안 한 번도

958) 김용승(金容承) : 처음에는 오진영을 성토하는 쪽에 가담했으나 뒤에 배반한 사람이다. ‘김씨의 일’이란 김용승이 간재 묘소에 올린 <망고현천문(望告玄阡文)>의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을 말하는데, 전일중(田鎰中)이 쓴 이에 대한 변척과 김택술(金澤述)이 그 내용을 조목조목 나누어 문제를 지적한 글이 《사백록(俟百錄)》 권2 <승문변척(承文辨斥)>에 실려 있다.

묘소에 절을 올리지 않았는데 제문을 아뢰는 데 이르러서도 여전히 20리 밖 남의 집 안마당에 땅을 자리 삼아 멀리서 술잔을 드리며 ‘스승에 대한 예’라고 말하지 않았다. 벗에 대한 도리도 오히려 이렇지 않거늘, 아! 그 마음이 어떤지 알 만하다.

고제에게 의발을 전하였습니다.

선사는 오진영에게 애당초 의발(衣鉢)을 전하지 않았고 더욱이 도의(道義)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배척이 있었으며, 【〈화(華)·경(敬) 두 아이에게 보낸 편지〉에 보인다.】 끝내 일을 벌이기를 좋아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권순명의 〈화도치명록(華島治命錄)〉에 보인다.】 김용승이 이것을 모르지 않는데도 의발을 전했다고 특별히 쓴 것은 분명 조롱한 말이다.

애당초 유서(遺書)가 나오기 전부터 문하(門下)는 ‘독대하여 명한 것[獨命]⁹⁵⁹이 선생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무함(誣陷)을 변론하는 일에 심력을 다하여 필설(筆舌)이 설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배움을 청한 지 겨우 6일밖에 되지 않았고, 일찍이 수업을 받아 제자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일찍이 수업을 받아 제자가 된 적이 없었다. [未嘗受業爲弟子.]’는 7글자는 삼주(三洲 김창협(金昌協))의 말⁹⁶⁰이다. 삼주는 우암 송시열과 4대에 걸친 사우(師友)의 교분이 있었다. ‘선생(先生)’이라 칭하고, ‘소자(小子)’라고 칭한 것이 저토록 오래되었는데도 이렇게 칭한 것이다.】

959) 독대하여 …… 것 : 김택술의 《사백록(俟百錄)》에 따르면 간재가 은행나무 아래[杏下]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오진영에게 《간재집》 간행에 대해 “헤아려서 하라.”고 명하였다고 오진영이 말하였다.

960) 김창협의 말 : 김창협(金昌協), 《농암집(農巖集)》 권20 〈여신무일(與愼無逸) 계미(癸未)〉에 “비록 수업을 받아 사제 간이 된 적은 없지만, 그분의 문하에 출입한 지 수십 년이 되어 정의(情義)가 돈독하네. [雖未嘗受業爲師弟子, 而出入門下數十年. 情義篤矣.] 삼주는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호이다. 자는 중화(仲和), 호는 농암(農巖)삼주(三洲),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부친 김수항이 신원되어, 이조참판대제학예조판서 등에 임명되나 사직하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학문은 이황과 이이의 설을 절충하였다. 양주 석실서원, 영암 녹동서원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농암집》 등 다수가 있다.

스승과 문인의 의리는 진실로 한 번 본분(本分)이 정해지면 집지(執贄)한 지가 오래되었는지 아닌지는 마땅히 논할 바가 아니다. 하물며 김용승은 선사를 10년 동안 모시고 배웠으니 오래되지 않은 것도 아니며, 여러 차례 서신을 올렸으니 많지 않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전에 김용승이 선생에게 올린 편지에 이르기를 “소자는 문하에서 망극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 생성(生成) 낳고 이루어줌해 주신 은혜 각골난망이나 깊은 길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배움을 청한 지 겨우 6일밖에 되지 않았고, 수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은혜를 받지 않았으므로 제자가 아니라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이런데도 사람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삼주가 이른바 “일찍이 수업을 받아 문인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우암에게 은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또 제자가 되지 않았다는 말도 아니다. 바로 은혜를 받은 것이 적지 않아 제자로 자처한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글귀 위에 ‘수(雖)’자를 쓰고 나서, 이 글귀 아래에 바로 “문하에 출입한 지 수십 년이 지나 정의가 돈독합니다.”라고 하였고, 그 아래 문장에 또 맹자가 말한 유공지사(庾公之斯)⁹⁶¹의 일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으니 그 뜻이 이미 명백하다.

다시 이 말을 가지고 <중구(仲舅)에게 올린 편지>⁹⁶² 속의 “저는 우옹(尤翁)에 대하여 실로 4대에 걸친 사우(師友)의 교분이 있으니 비단 잠시 학업을 배우고 가르침을 청하는 관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라는 말과 표리(表裏)로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이동보(李同甫)⁹⁶³에게 답한 편지를 보면 “우리는 우암을 대종사로

961) 유공지사(庾公之斯) : 전국 시대 위(衛)나라 장수 유공지사가 처음에 윤공지타(尹公之他)에게 활쏘기를 배웠는데, 윤공지타의 스승인 정(鄭)나라 장수 자탁유자(子濯孺子)가 지휘하는 군대와 대적하게 되었다. 이때 자탁유자가 병이 들어 활을 잡을 수 없다고 하자, 유공지사는 “소인은 활쏘기를 윤공지타에게 배웠고 윤공지타는 선생에게 배웠으니, 나는 차마 선생에게 배운 공술로 선생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살촉을 빼버린 화살을 쓰고 돌아갔다. 《孟子 離婁下》

962) 중구(仲舅)에게 …… 편지 : 김창협(金昌協)의 《농암집》 권11 <상중구(上仲舅) 갑신(甲申)>을 말한다.

963) 이동보(李同甫) : 이희조(李喜朝, 1655~1724)이다. 자는 동보, 호는 지촌(芝村), 본관은 연안(延安)이다. 송시열의 문인이다.

여깁니다.”라고 하였고, 그의 우옹에 대한 제문을 보면 처음에도 ‘소자’라 하였고, 두 번째도 ‘소자’라 하였다. 이것은 제자로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 삼주는 배움을 청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로서의 예는 살아서든 죽어서든 다르지 않았다. 김용승은 오랫동안 섬겼는데도 【여기에서 구두를 끊어야 한다.】 생전에는 ‘소자’라고 하고서, 세상을 떠난 뒤에는 일찍이 수업을 받아 제자가 된 적이 없었다고 하니, 삼주의 경우로 김용승을 견주어보면 그 죄는 더욱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에 감히 이것을 인용하여 증거로 삼았으니 더욱 놀랄 만하다.

이미 얼굴을 마주하고 명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근거가 될 만한 사실이 없고 또 한 사람도 옹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서가 나오기 전부터 선생께서는 일찍이 ‘관을 나무에 매달고 시신을 바다에 빠뜨려라.[懸棺沈尸]⁹⁶⁴⁾’는 맹세가 있었다. 문인 중 몸소 받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는데 김용승만 유독 귀가 없는 것인가? 자기 원고를 부모에게 물려받은 몸보다 더 아끼고 중히 여겨 독대하여 인교(認教)⁹⁶⁵⁾하라는 명을 하였을 리가 결코 없으니, 곧 이것이 얼굴을 마주하여 명한 근거가 된다고 이를 수 있다. 그런데도 지금 없다고 말한다. 김용승의 성토가 나오기 전부터 양호(兩湖 호서와 호남)의 문인들은 혹 글로써 비난하고, 혹 논변하여 물리친 사람이 많다 뿐이었겠는가. 그런데도 지금 한 사람도 옹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이것은 안으로 그 마음을 속이고, 밖으로 남의 이목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혜가(歸兮歌)>⁹⁶⁶⁾를 한 곡조 부르고 영원히 떠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어쩔

964) 관을 …… 빠뜨려라 :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강제로 개인묘지를 일절 금지하고 공동묘지만을 허용하며 화장을 장려하는 칙령을 내렸는데, 간재가 여기에 대항하여 한 말이다.

965) 인교(認教) : 간재 선생이 자신의 유고의 출간과 관련하여 인가 여부에 관한 언급을 말한다.

966) 귀혜가(歸兮歌) : 김용승의 《우당집습유(尤堂集拾遺)》에 실려 있다.

수 없는 일이었으나 끝내 시호(市虎)⁹⁶⁷의 의심을 스스로 풀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독대하여 명한 것[獨命]이 선생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한 이상, 어찌하여 오진영이 무함하는 말을 믿어 선사를 더럽게 보고 스스로 그 자신을 깨끗이 한다고 하는가? 아버지처럼 섬기는 분에 대해 비방과 칭찬에 따라 관점을 고치고, 생사에 따라 절개를 바꾸어 명교(名教 유교)에 죄를 얻는 것에 거리낌이 없다. 나는 그 이른바 ‘스스로 깨끗이 한다.’는 것이 마침 족히 자신을 더럽힐까 저어된다.

사우의 설은 《노론(魯論 논어)》을 상고해 보면, ‘선생(先生)’은 본래 부형(父兄)을 일컫는 말이고 ‘사우(師友)’는 곧 부형을 말합니다. 천하에 우리 임금 이하 어찌 내 아버지 내 형제보다 높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순의 도는 효제(孝悌)일 뿐이라는 것은 진실로 까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70명의 제자가 공자(孔子)에게 심복(心服)한 것도 이것에 불과합니다.

공자의 《논어》를 언급하기에 앞서, 관중(管仲)의 <제자직(弟子職)>⁹⁶⁸에 이르기를 “선생이 가르침을 베풀면 제자는 이를 본받는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원래 사문(師門)을 지칭한 것으로 그 존귀함이 부형(父兄)과 같다. 그러므로 공자가 대개 이것을 빌려 부형을 지칭한 것이다. 그러나 공자 이후 백 년도 채 안 돼, 이미 맹자는 송경(宋輶)⁹⁶⁹을 선생이라고 칭한 일이 있었다. 이후 송대(宋代)에 이르러 주자는 진동보(陳同甫)⁹⁷⁰를 선생이라고

967) 시호(市虎) : 《회남자(淮南子)》 <설산훈(說山訓)>에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세 사람이 똑같이 말하자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하였다.

968) 제자직(弟子職) : 《관자(管子)》의 편명이다.

969) 송경(宋輶) : 선진(先秦) 때의 사람으로, 송견(宋鉞) 또는 송영(宋榮)이라고도 한다. 진(秦)나라와 초(楚)나라가 전쟁하고 있을 때 양국의 제후를 만나서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 이롭다는 것[利]으로써 달래어 화해시키려 하자, 맹자가 그에게 인의(仁義)로써 달랠 것을 권하였다. 《孟子 告子下》

970) 진동보(陳同甫) : 송(宋)나라 영강인(永康人)으로 이름은 량(亮)이고, 자는 동보(同甫)이며, 시호는 문의(文毅)이다. 패도(霸道)를 쓴 고조(漢高祖)나 당 태종(唐太宗) 등도 권도(權道)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자와 왕패(王覇) 논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칭한 일이 있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거의 으레 편지 안에 쓰는 존칭이 되었다.

무릇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 가지 근본이 있다. 아버지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고, 임금이 아니면 보살핌을 받을 수 없으며, 스승이 아니면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나란히 열거하여 ‘삼존(三尊)’으로 삼았다. 후세의 선비 중에 도를 배워 제자로서 본분이 정해진 자는, 생전에는 반드시 ‘사문(師門)’이라 칭하고, 사후에는 ‘선사(先師)’라고 칭하였다. 그런 뒤에야 부모·임금·스승을 똑같이 섬기는 의리⁹⁷¹)를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고 다만 ‘선생’이라고만 칭하면 분수(分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존귀함이 전일(專一)하지 못한 점이 있다.

만약 김용승이 스승이 순수한 스승이라는 데 흠잡을 것이 없다면, 어찌하여 ‘선사(先師)’ 두 글자를 아끼고 우회하여 선생이라는 호칭을 빌린 ‘부형(父兄)’이라는 말과 부형이라는 호칭을 빌린 ‘사우’라는 말을 마지못해 꺼내어 자기 죄를 면하길 구하려 하는가? 그리고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心服)한 것도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데 이르면, 이것은 또한 칠십 제자를 무함하여 사우로 부형을 대한 것이고 사우간으로 공자를 대한 것이다.

김용승이 갑자년(1924) 여름 유서(遺書)를 보기 전에 지은 <백천재기언(百千齋記言)>에 “도의(道義)가 없다면 선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였고,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선생이라는 호칭은 춘추의리(春秋義理)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이르기를 “오직 고산(鼓山 임헌회)이 강재(剛齋 송치규)⁹⁷²)에게 있어서와 매산

971) 부모 …… 의리 :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도리를 말한다. 《국어(國語)》〈진어(晉語) 1〉에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게 마련이니, 그분들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어버이는 낳아 주신 분이고, 스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임금은 먹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民生于三, 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라는 말이 나온다.

972) 강재(剛齋) : 송치규(宋耜圭, 1759~1838)이다. 자는 기옥(奇玉), 호는 강재(剛齋), 본관은 은진이다. 송시열의 6대손으로 김정목의 문인이며, 이이와 김장생·송시열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것을 지키는 데 전념하였다. 저서로 《강재집》이 있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梅山 홍직필)이 성담(性潭 송환기)⁹⁷³)에게 있어서 서로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것이 사우간으로 대우하는 설을 세운 연유이다. 지금 유서를 보고 나서는 춘추의리가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우’라는 말은 고치지 않고, 극구 순수한 스승이 되는 데 해(害)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예전에 ‘도위가 없고, 춘추의리가 없는 사우’라고 한결같이 말한 것은 어찌하겠는가? 그런데도 애써 부르짖으며 “춘추의리에 어찌 흠을 잡을 데가 있겠는가? 70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이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니,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참으로 이런 것이란 말인가?

그래서 자양(紫陽 주자)은 연평(延平 주자의 스승)에게 사우라 하였고 북산(北山)⁹⁷⁴)은 면재(勉齋)⁹⁷⁵)에게 사우라 하였으며, 노재(魯齋)⁹⁷⁶)는 북산에게 사우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양(華陽 송시열)은 신노(愼老 김집(金集))에게 사우라 하였고 삼주(三洲 김창협(金昌協))는 우옹(尤翁 송시열)에게 또한 사우라고 하였습니다. 문하가 사우(간재)에게 유독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주자가 이성보(李誠父)⁹⁷⁷)에게 보낸 편지에 연평(延平)을 ‘노선생(老先生)’이라 칭하고 스스로를 ‘문인’이라 칭하였다. 가령 ‘사우(師友) 이연평(李延平)’이라는 말은 후인들이 만들어낸 것인지 주자 자신이 한 말이 아니다.

973) 성담(性潭) :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이다. 자는 자동(子東), 호는 심재(心齋)·성담(性潭)이다. 송시열(宋時烈)의 5대손이며, 송인상(宋寅相)의 아들이다. 저서로는 《성담집(性潭集)》이 있다.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974) 북산(北山) : 하기(何基, 1188~1269)이다. 자는 자공(子恭), 호는 북산(北山), 시호는 문정(文定)이며, 금화(金華) 사람이다. 주자의 문인인 황간에게 수학하였다. 금화산(金華山) 북쪽에 은거하여 강학과 저술에 전념하며 주자학을 널리 전파하였다.

975) 면재(勉齋) : 송(宋)나라 황간(黃榦)의 호이다. 자(字)는 직경(直卿)이며, 주희(朱熹)의 문인이자 사위로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976) 노재(魯齋) : 송말 원초의 경학가 허형(許衡, 1209~1281)으로, 자는 중평(仲平), 호는 노재, 시호는 문정(文正)이며, 하내(河內) 사람이다. 저서로는 《독역사언(讀易私言)》, 《노재심법(魯齋心法)》, 《허노재집(許魯齋集)》 등이 있다.

977) 이성보(李誠父) : 주희의 스승인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아들이다.

그러나 그 의미는 다만 ‘동지(同志)’라는 말로 ‘상우(尙友)⁹⁷⁸⁾와 같은 의미로 말하였을 뿐이지, 사우간(師友間)이라는 호칭을 순사(純師 순수한 스승)에게 붙여 칭호로 삼아도 된다는 것을 이룬 것은 아니다. ‘복산’과 ‘노재’가 말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데에 불과하다. 화양이 말한 것은 아래에 보이고, 삼주가 말한 것은 위에 보인다.

지난 정사년(1917) 봄을 떠올려보니, ‘이·신(理神), 도·심(道心)이 같은가 다른가.’에 대해 선사께서 문하에게 이르기를 “나는 퇴계가 될 것이니, 자네는 율곡이 되며, 나는 연평(延平)이 될 것이니, 자네는 주자(朱子)가 되오.”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였다면, 이것은 선사께서 김용승의 논의를 정론으로 여기고 파란색이 쪽보다 나은 것을 허여한 것이다.⁹⁷⁹⁾ 그렇다면 어찌하여 대고(大稿 간재집) 안에 김용승의 논설에 대해 변정(辨正)한 것이 한 둘에 그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이 때문에 선사께서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

김용승이 선사께 올린 편지⁹⁸⁰⁾에 말하기를 “이(理)와 성(性)이 비록 분변이 없을지라도 ‘성을 기른다.[養性]’고 하면 맞지만 ‘이를 기른다.[養理]’고 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心)과 신(神)은 분변이 없으므로 ‘마음을 기른다.[養心]’고 해도 맞고, ‘정신을 기른다[養神]’고 해도 맞습니다.”라고 하였다.

978) 상우(尙友) : 위로 올라가서 옛사람과 벗을 하는 것, 혹은 벗으로 삼을 만한 뛰어난 옛사람을 말한다. 《맹자》〈만장 하(萬章下)〉에 “천하의 선사(善士)와 벗하는 것을 부족하게 여겨서, 다시 위로 올라가 옛사람을 논하니, 그의 시를 낭송하고 그의 글을 읽으면서도 그의 사람됨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그래서 그의 당세(當世)의 삶을 논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상우인 것이다.[以友天下之善士爲未足, 又尙論古之人, 頌其詩, 讀其書, 不知其人可乎, 是以論其世也, 是尙友也.]”라는 말이 나온다.

979) 파란색이 …… 것이다 : 후생(後生)과 제자가 전인(前人)이나 스승보다 나은 것을 말하는데, 《순자(荀子)》〈권학(勸學)〉에 “얼음이 물에서 나되 물보다 차고, 파란색이 쪽[藍]에서 나되 쪽보다 푸르다[氷生於水寒于水, 靑出於藍靑於藍.]”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980) 김용승이 …… 편지 : 《간재집(艮齋集) 후편(後編)》 권6 〈답김용승(答金容承) 기미(己未)〉를 말한다.

선사께서 답하기를 “선현의 ‘천리를 보존하고 기른다.[存養天理]’는 말이 있으니, ‘리를 기른다.[養理]’고 해도 관계없소. 대개 ‘순하여 해치지 않는 것을 양(養)’⁹⁸¹⁾이라고 하기 때문이오. 심(心)과 신(神)은 비록 같은 부위(部位)이지만, 그러나 신(神)은 심의 지극히 정밀하고 지극히 미묘한 곳이기 때문에 악(惡)이 없소. 심에 이르면 혹 저절로 악을 행하기도 하니,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소.”라고 하였다.

김용승이 편지에 또 말하기를 “이(理)와 성(性)이 분변(分辨)이 있다는 것은 호론(湖論)의 설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대답하시길 “주자는 ‘이(理)가 같다고 하면 옳지만, 성(性)이 같다고 하면 옳지 않다.’라고 하였소. 율곡 또한 ‘만물의 이(理)는 곧 우리 사람의 이(理)이지만 사람의 성(性)이 물(物)의 성은 아니다.’라고 하였소. 이것은 이(理)와 성이 분변이 있는 듯한데, 호론의 설과 가리키는 것의 동이(同異)가 어떻게?”라고 하였다.

김용승이 편지에서 또 이르기를 “오진영은 단지 ‘성통심국(性通心局 성은 통하고 심은 국한된다)’만을 말하였고, ‘리통신국(理通神局 리는 통하고 신은 국한된다)’은 말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신과 심이 분변이 있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답하기를 “심(心)이란 사람의 신명(神明)이니, 심 또한 통한다고 말할 수 있소. 단지 신(神)은 지극히 정묘하고, 심(心)은 정조(精粗)를 겸하였으니, 여기에는 분변이 없을 수 없소. ‘신국(神局)’ 두 글자는 그대 스스로 만든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근거가 있는 것이오? 주자가 《통서(通書)》⁹⁸²⁾ <동정장(動靜章)>을 논변하여 말하기를 ‘신(神)은 곧 이 이치이다.’라고 하였고, 또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면서 고요하지 않으니, 움직이지 않은 것도 아니고 고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⁹⁸³⁾고 하였소. 이것은 형이상의 이치를 말한 것이오. 이에 의거하면 신(神)은 아마도 곧바로

981) 순하여 …… 양(養) : 《맹자》 <진심 상(盡心上)> 1장의 집주(集註)에 나오는 말이다.

982) 《통서(通書)》: 주돈이(周敦頤)의 저작으로 1권 40편이다. 본래 《역통(易通)》이라 칭하여 《태극도설(太極圖說)》과 표리(表裏) 관계나 도설이 우주론(宇宙論)을 설명한 데 반해, 이 책은 오로지 윤리설(倫理說)을 가리키고 있다.

983) 신(神)은 …… 아니다 : 《통서》에 “움직이면서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면서 고요하지 않은 것이 신(神)이다.[動而無動, 靜而無靜, 神也.]”는 말을 논한 것이다.

가리켜 국한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듯하오. 몇 해 전 내가 ‘상제는 하늘의 신인데, 그대는 상제도 국한된다고 여깁니까?’라고 물었소. 그대가 다짜고짜 말하기를 ‘이는 감히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였고. 그렇다면 신(神)에 통(通)·국(局) 두 신이 있단 말이오? 【《맹자》에서 “성스러워서 알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聖而不可知之謂神]”라고 하였으니 국한된다고 할 수 없고, 《중용》의 ‘귀신(鬼神)’은 조금 더 거친 개념이지만 또한 국한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러 한바탕 웃음을 면치 못하였으니 꾸짖지 않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김용승이 편지에 또 말하기를 “노주(老洲 오희상(吳熙常))⁹⁸⁴가 이르기를 ‘이기(理氣)는 원래 이물(二物 두 가지 종류)이 아니다. 이물(二物) 속에 저절로 이 기(氣)를 주재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 곧 그 형체가 없으면서 행위가 있고 기(氣)이지만 기가 아닌 오묘함이다.⁹⁸⁵⁾’⁹⁸⁶⁾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원두(原頭)를 미루어 지극히 하면, 이기(理氣)는 결국 일물(一物)이다. 주자가 환히 본 것인데 정암(整菴)⁹⁸⁷⁾은 혼벽(混關) 기미의 시작과 생성의 드러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주자가 이기를 이물(二物)로 여겼다고 인식하였다.’⁹⁸⁸⁾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답하여 말하기를 “‘이기(理氣)는 일물(一物)이다.’라는

984) 오희상(吳熙常) : 1763~1833.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사경(士敬), 호는 노주(老洲), 시호는 문원(文元)이다. 1800년 천거로 관직에 나아가,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818년 은거하여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이황과 이이의 양설을 절충적 입장에서 취하였으며, 주리설을 옹호하였다. 저서로 《독서수기(讀書隨記)》·《노주집》 등이 있다.

985) 기(氣)이지만 …… 오묘함이다 : 이 말은 《농암집(農巖集)》〈잡지(雜識) 내편 이(內篇二) 논세(論世)〉에 나온 말인데, “그 형체가 없으면서 행위가 있고 기(氣)이지만 기가 아닌 오묘함이다.[無形有爲, 卽氣非氣之妙.]”라고 하였다.

986) 이기(理氣)는 …… 오묘함이다 : 김용승에게 보낸 편지에는 오희상의 글에서 빠진 글자가 있으며 글의 순서도 약간 다르다. 《노주집》에 이르기를 “대개 이기(理氣)는 원래 이물(二物 두 가지 종류)이 아니다. 이물 속에는 저절로 이 기(氣)를 주재하고 다스리는 것이 있다. 곧 이른바 기(氣)이지만 기가 아니고 형체가 없으면서 행위가 있는 오묘함이다.[大抵理氣元非二物. 二物之中, 自有主宰綱紀于此氣者. 卽所謂卽氣非氣, 無形有爲之妙也.]”라고 하였다.

987) 정암(整菴) : 명나라 때의 학자인 나흠순(羅欽順, 1465~1547)의 호이다.

988) 원두(原頭)를 …… 여겼다 : 오희상(吳熙常)의 《노주집(老洲集)》 권11 〈담홍백응(答洪伯應)〉에 보인다.

말은 신(神)과 리(理)가 한데 섞여 틈이 없는 곳으로부터 말한 것이지, ‘이(理) 또한 음양불측(陰陽不測)의 신(神)’이라거나, ‘신(神) 또한 충막무짐(沖漠無朕 지극히 고요하여 아무런 연관이 없는 상태)한 이(理)’라거나, ‘이(理) 또한 지각(知覺)이 있는 인심(人心)’이라거나, ‘심(心) 또한 작위(作爲)가 없는 도체(道體)’라고 이른 것이 아니라오. 나정암(羅整庵)과 임헌회(任憲晦)가 ‘이기일물(理氣一物)’ 설에 대해 《노주집(老洲集)》 안에서 분별하고 논박한 것이 한 둘이 아니오. 그 외에 ‘도(道)는 형이상(形而上)이고, 신(神)은 형이하(形而下)이다.’라거나, 또 ‘이(理)와 기가 합하였으되 분별이 있어 이(理)는 주가 되고 기는 짝이 된다.’⁹⁸⁹⁾라거나, 또 ‘신(神)은 거의 이(理)와 하나이다. 다만 정의(情意)와 조작(造作)이 있어서 그 이(理)가 순일하고 무망(無妄)한 것과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理)는 신(神)을 바탕으로 하고 신은 이(理)를 짝으로 한다.’⁹⁹⁰⁾라거나, 또 ‘녹문(鹿門 임성주)은 기(氣)가 중하다고 보되, 이기(理氣)를 일물(一物)로 여기고 진망(眞妄 진실과 거짓)의 분별이 없다.’⁹⁹¹⁾라거나, 또 ‘정암(整菴)은 말에 따라 이해하여 이기일물(理氣一物)의 증거가 된다고 강경하게 말하였지만, 말의 조리가 험난하고 횡설수설한 느낌을 면하기 어렵다.’⁹⁹²⁾라는 말 등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종류가 아주 많소. 그리고 일찍이 정제경(鄭濟卿 오희상의 제자)이 매번 노주에게 자못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나는 실로 자신의

989) 이(理)와 …… 된다 : 오희상의 《노주집》 권24 <잡지 이(雜識二)>에 “이것은 이(理)와 기가 합하되 분별이 있어, 이(理)는 주가 되고 기는 짝이 됨을 알 수 있다.[此可見理與氣合有分別, 而理爲主而氣爲配也.]”라고 하였다. 글자가 생략된 부분이 있다.

990) 신은 …… 한다 : 오희상의 《노주집》 권15 <잡지 사(四)>에 “신은 편정(偏正)도 없고 청탁(淸濁)도 없고 거의 이(理)와 하나가 된다. 다만 이에 비하여 정의와 조작이 있어서 이가 순일하여 무망한 것과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이는 신을 바탕으로 하고 신은 이를 짝으로 한다.[神則無偏正無淸濁, 幾與理爲一. 但比理有情意造作, 不似他純一無妄. 故理資乎神, 神配乎理.]”고 하였다. 몇몇 글자에 차이가 있다.

991) 녹문은 …… 없다 : 오희상의 《노주집》 권25 <잡지 삼(三)>에 보인다.

992) 정암은 …… 어렵다 : 오희상의 《노주집》 권25 <잡지 삼(三)>에 보인다. 그러나 빠진 글자가 있다. 《노주집》에 이르기를 “정암이 말에 따라 해석을 만들어 내어 이렇게 억지로 해석하며 그 일물(一物)의 증거로 만든 것은 단지 많은 힘을 쏟은 것을 보았지만, 말의 조리가 험난하고 횡설수설한 느낌을 면치 못하였다.[整庵之隨語生解, 如是硬說, 做成其一物之證者, 只見其多少費力, 而不免乎辭理之崎嶇拗橫.]”고 하였다. 몇몇 글자에 차이가 있다.

견해가 그다지 밝지 못하면서 또 전현(前賢)이 평생토록 의론한 것의 주편(周偏 쪽)과 정밀함을 살피지 않고, 일단(一端)에 치우쳐 고집하여 비난하고 의심하는 빌미로 삼는 것이 안타깝소. 명화(明華 김용승의 자)가 또다시 그런 습속을 따를 줄 미처 생각지 못했소. 나는 밝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옆에서 냉소할까 저어되니 부디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이 말을 들으시오. 이 늙은이가 결코 제군(諸君)을 오도(誤導)하지는 않을 것이오.”라고 하였다.

김용승이 편지에서 또 말하기를 “주자는 일찍이 ‘이기(理氣)는 일물(一物)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으나 이른바 ‘태극과 음양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한 것을 끌어와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점은 아마 다만 ‘이(二)’라는 글자에 있을 듯합니다.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사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소씨(蘇氏 소동파)가 ‘성인은 음양을 빌려 도(道)에 비유하였다.’라고 하자, 주자가 비난하며 말하기를 ‘도와 음양은 각각 일물(一物)이다.’⁹⁹³⁾고 하였소. 또 ‘도(道)는 곧 기(器)이고, 기는 곧 도이다.’⁹⁹⁴⁾라고 하였소. 또 ‘도와 기는 하나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도와 기의 이름이 비록 다르지만 실지 일물(一物)이다.’⁹⁹⁵⁾라고 하였소. 주자가 ‘도와 기가 일물(一物)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렇게 많소. 그러니 지금 운운한 것이 어찌 고찰이 상세하지 않고 말이 지나치게 거칠다 하지 않겠소? 주자는 훗날 또 일찍이 ‘이(理)와 기는 결단코 이물(二物)이다.’⁹⁹⁶⁾라고 하였고, 또 ‘다만 음양을 형이상(形而上)으로 여긴다면 도와 기의 구분에 모호한 것이다.’⁹⁹⁷⁾라고 하였소.

내가 슬며시 생각해보건대, 여러 노선생(老先生)들은 이기(理氣)에 대하여

993) 소씨(蘇氏)가 …… 일물(一物)이다 : 이 말은 주희(朱熹)의 <잡학변(雜學辨)>에서 <소씨역전(蘇氏易傳)>을 논변한 말이다.

994) 도(道)는 …… 도이다 : 《주역대전(周易大傳)》에 이르기를 “형이하는 기가 되고 형이상은 도가 된다. 도는 곧 기이고 기는 곧 도이다.[形而下爲器, 形而上爲道. 道卽器, 器卽道.]” 하였는데, 주자는 이 말이 공자가 한 말이라고 하였다.

995) 도와 …… 일물(一物)이다 : 이 말은 <주자변소황무노자해(朱子辨蘓黃門老子解)>에 보인다.

996) 이(理)와 …… 이물(二物)이다 : 이 말은 주자의 <유숙문에게 답한 편지(答劉叔文書)>에 보인다.

997) 다만 …… 것이다 : 이 말은 <송원학안(宋元學案)> 권58 <상산학안(象山學案)>에 보인다.

혹은 일물(一物)이라고 하고, 혹은 이물(二物)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나름대로 취지가 있소. 통달한 사람은 모두 통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막힐 것이요. 그런데 명화처럼 고명한 사람이 곧 일(一)과 이(二) 사이에서 ‘이(二)’ 자만을 주장하여 요점으로 삼고, 유독 ‘일(一)’ 자를 그다지 긴요하게 여기지 않고 혈후어(歇後語)⁹⁹⁸)로 만들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소. 청컨대, 다시 율곡 옹이 임신년(1572)에 우계(牛溪)⁹⁹⁹)에게 답한 편지에서 일이 (一)의 의미를 논설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고 자세히 음미해보면,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도 노주(老洲) 문하에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할 것이요.” 라고 하였다. 【율곡 옹이 말하기를 “이미 이물(二物)도 아니고, 또 일물(一物)도 아니다. 일물이 아니기에 하나이면서 둘이고, 이물이 아니기에 둘이면서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그 말씀이 평온하고 둘이 서로 균형이 잡혀 있으니 우리 문하의 이기(理氣)의 정안(正案)이 될 수 있다. 어찌 일찍이 보내준 편지에서 말한 ‘한쪽에 편중하여 다른 한쪽을 경시한 것’과 같겠는가? 이상은 모두 선사의 《후고(後稿)》 기미(己未)¹⁰⁰⁰)에 보인다.】

‘사우간(師友間)’이라는 말은 동춘당(同春堂 송준길)이 말하고 우암이 이를 따라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의 상(喪)에 복(服)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선생에 대한 복례를 3개월까지 했는데, 이것이 트집 잡을 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우암과 동춘당 두 분께서는 일찍이 이것으로 신독재 문하에서 죄를 얻지 않았습니다.

우암과 동춘당은 이미 사계(沙溪 김장생)를 순수한 스승으로 모셨고, 신독재에게는 사우간(師友間)으로 처우(處遇)하였으니 참으로 마땅하다. 어찌 김용승 또한 일찍이 전재(全齋 임헌회)를 순수한 스승으로 모시고 나서

998) 혈후어(歇後語) : 말의 뒷부분을 생략하고 앞부분만으로 그 뜻을 암시하는 말을 일컫는다.

999) 우계(牛溪) : 성혼(成渾, 1535~1598)의 호이다. 자(字)는 호원(浩原), 본관은 창녕이다.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000) 후고(後稿) 기미(己未) : 《간재집(艮齋集) 후편(後編)》 권6 <답김용승(答金容承) 기미(己未)>를 말한다.

다시 선사에게 배웠겠는가? 우암과 동춘당의 일과는 사체(事體)가 현격히 다르니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기에는 충분치 않다. 또 동춘당이 이른바 ‘우리가 이 노사(老師)에게 사우간으로 처우하였다.’라고 한 것은 평소의 처우한 바를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가마(加麻 상복을 입다)를 3개월 동안 하였음에도 단지 우도(友道)로 처우한 것이 편치 않아서 다시 몇 달 더 심상(心喪)을 하였다. 이것은 사도(師道)로 처우한 것이다. 비록 ‘사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師)’자에 비중을 둔 것이다.

지금 김용승은 생전의 ‘순사(純師)’라는 호칭을 버리고, 세상을 떠난 뒤에 갑자기 ‘사우’라고 불렀다. 비록 ‘사우’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우(友)’ 자에 중점을 둔 것이다. ‘사우’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실지는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남을 막는 칼자루로 삼아 감히 누구도 어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니, 남은 혹 속일 수 있을지라도 혼자 속으로 부끄럽지 않겠는가?

또 만약에 일찍부터 평소 ‘사우’라고 불렀다면, 똑같이 섬기는 분¹⁰⁰¹에 매우 외람되고 망령되지만, 오히려 스승이 봉우의 윤리에 속하는 것¹⁰⁰²에 근거하여 그 의도가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선사께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오진영의 인무(認誣)¹⁰⁰³에 현혹되어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한답시고 호칭을 바꾸었다. 그렇다면 무함한 사람은 오진영이지만, 그 무함을 실천한 사람은 김용승이니 이에 변론하지 않을 수 없다.

평소 서간문에서 스스로 이르기를 “사생영욕(死生榮辱)은 의리상 혼자만 다를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위태로울 때는 모두 눈을 뒤집으면서

1001) 똑같이 …… 분 : 부모와 임금과 똑같이 섬기는 스승을 말한다. 《국어(國語)》〈진어(晉語) 1〉에 “사람은 세 분의 은혜로 살게 마련이니, 그분들을 똑같이 섬겨야 한다는 성인의 말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낳아 주신 분이고, 스승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임금은 먹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民生于三,事之如一. 父生之, 師教之, 君食之.]”라는 말이 나온다.

1002) 스승이 …… 것 : 오륜에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봉우의 윤리만 있고 스승의 항목이 없으므로 스승은 봉우의 윤리에 속한다고 보았다.

1003) 오진영의 인무(認誣) : 원문 ‘음오(陰吳)’는 ‘음성(陰城)의 오진영’이라는 말로, 오진영이 충청도 음성 사람이어서 ‘음인’이라고 불렀다. 오진영은 간재가 세상을 떠나기 전 행하(杏下)에서 독대하여 문집의 출간을 인가했다는 주장을 하였다.

서로 모르는 듯이 하다가 셋길로 음(陰 오진영)에게 가서 몰래 스스로 모략을 꾸며 김(金 김용승 자신)과 한패라는 지목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생영욕(死生榮辱)은 의리상 혼자만 다를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대상일(大祥日)에 내가 오진영을 만나려고 했다가 만나지 못하였으니 ‘셋길로 음(陰 오진영)에게 갔다.’는 나를 지칭하여 말한 것이다. 저쪽 생각으로는 마땅히 가야 할 바른길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 ‘간로(間路 셋길)’라고 하였지만 마치 진짜 셋길로 간 사람과 같은 듯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음해하는 독필(毒筆)이다.

대개 내가 오진영을 만나 깨우쳐주려고 할 때는 왕복하는 중으로 성토했기 이전이었고, 의론이 정재(靜齋 간재의 둘째 아들 전화구(田華九))와 여러 사우에게 이르렀는데 이를 두고 ‘셋길로 음(陰 오진영)에게 갔다.’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김(金 김용승)과 한패가 되는 것을 피하고 아울러 오(吳 오진영)의 개복(改服)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로는 하늘이 굽어보고 있고 옆에는 천 사람의 눈이 있으며 뒤에는 공론이 있으니 삼가 공경히 두 손을 맞잡고 기다리겠다. 【김용승은 글을 공포하여 오진영을 토죄하고 나서 친히 음성으로 가 오진영을 만났다. 나는 선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일찍이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정재(靜齋) 전화구(田華九)의 「우기(偶記)」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셋길로 오진영에게 갔다.’는 말은 김용승은 그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데 전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흉악한 무리에게 행패를 당해 분노와 격정을 이기지 못하여 사실과 상반된 말을 하는 것인가? 갑자년(1924) 7월 3일에 모인 사람 수천 명이 모두 성심으로 바란 것은 오진영이 잘못을 뉘우치고 연석에 알려 선친이 처음부터 인교(認教)하지 않았음을 밝히기를 바랐고, 또 한 문하의 원수 간이 된 사이를 풀고 손잡고 함께 돌아갈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었다. 그러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우치고 달랜 사람이 백 사람 천 사람뿐 아니었다. 그러나 간인 오진영은 이것이 도리어 그를 토죄하는 빌미가 될까 두려워서 단호히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날이

저물도록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의 무리 중 최원(崔愿)¹⁰⁰⁴이라는 자가 곁에서 몰래 오진영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찔러 함께 구석진 데에서 귀를 맞대고 소곤거렸다. 한참 있다가 자리로 돌아와서는 큰소리로 이르기를 “최병심(崔秉心)이 고문(告文)에 함께 서명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병심은 먼저 고문이 있었으므로 고집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이 기회를 놓쳐 당장 결렬되면 영원히 무함(誣陷)을 씻고 화합하는 날이 없을 것이기에 나와 여러 사우가 최병심에게 응하길 권하였으나 또 따르지 않았다. 날이 이미 저물고 제사를 지내려는데 오진영이 처소로 가버렸다. 나는 노심초사 간담이 타는 듯하였다. 어쩔 수 없이 사우와 함께 논의하여 김택술에게 내일 아침 오진영의 처소로 가서 다시 좋은 말로 타일러 결렬되지 않도록 한다면 더없이 다행이라고 하였다. 김택술이 오진영의 처소에 다다르기 전에 오진영이 이미 배를 타고 떠나버렸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다. 천하의 일이란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단지 다른 사람의 비방과 칭찬만 듣고, 어찌 그 사실 여부를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믿을 수 있던 말인가?

사우의 복례(服禮)는 이미 죄가 되지 않았는데 사우의 설이 별안간 큰 죄가 되었습니다.

스승의 복례가 3개월에 이른 것은 선현의 의론이었거니와, 김용승이 3개월간 상복을 입었을 때는 애초 ‘사우간’이라는 말은 없었다. 단지 그가 스승의 복례를 행한 줄로만 알았지, 어떻게 ‘사우간’의 복례를 행한 한 것 때문에 죄로 삼을 줄 알았겠는가? 그러나 지금도 김용승의 말에 따라 말한 것일 뿐이지, 사실은 그 당시 김용승은 부친의 참취(斬衰) 기간이었고 마음으로 슬퍼한[心喪] 개월 수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상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다.

1004) 최원(崔愿) : 1896년~1943. 본관은 해주이고, 자는 의숙(毅叔), 호는 경암(敬庵) 또는 수양자(首陽子)이다. 전우(田愚)와 오석농(吳石農)의 문하에서 성리학을 공부하였다.

많은 사람이 모여 절교를 고할 적에 저에게 글을 청하였습니다.[請文] 그러나 제가 거절하였습니다. 글이 몇 줄 완성되자 저에게 삭제를 청하였습니다.[請削] 저는 또 거절하였습니다. 절교하면 절교할 것이지 오직 절교하는 사람이 마음을 상할까 걱정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절교라고 썼으나 마음은 절교하지 않는다.[書絕心不絕]”는 것입니다.

절교할 사람에게 청문(請文)과 청삭(請削)을 하는 것이 과연 조금이라도 이치에 닿는가? 그날 글을 써서 김용승에게 보이면서 이르기를 “만약에 억지로 강요한 것이 있다면 말 하시오.”라고 하였다. 대개 그것은 해당하는 죄를 밝힌 것이지 억압한 것이 아니다. 또 ‘잘못을 고친다면 끝내 절교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김용승은 이런 말로 허황되고 어지럽게 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평소 편지에서는 누차 ‘소자 망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고서도, 남에게는 생전에 ‘소자’라고 칭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김용승이 최민렬(崔敏烈)에게 한 말이다.】 고문(告文 망고현천문)에서는 또한 일찍이 수업을 받아 제자가 된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오히려 세상을 떠난 스승에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다시 다른 사람을 무함하는 데에 무엇을 꺼리겠는가? 보는 사람이 참작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열재(悅齋) 소학규(蘇學奎)가 변론한 글¹⁰⁰⁵은 다음과 같다.

선사의 대상(大祥)을 치르고 돌아가는 길에 십여 명이 김씨(金氏)의 병사(丙舍) 묘지 근처에 있는 방)에 모여 오진영을 토죄(討罪)할 일을 논의하였는데 마침 김용승이 그 자리에 있었다. 김창암(金鬯庵 김낙규(金洛奎))이 이르기를 ‘김 진사(김용승)는 어찌하여 공경하게 말하지 않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대개 김용승을 애석히 여겨 개과천선하길 바란 것이다. 김용승이 떠들썩하게 다투어 변론한 것은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가운데 가장 골이든기 힘든 것은, “오 아무개를 높이는 【노주(老洲) 오희상(吳熙相)의 함자를 바로 불렀다.】 사람을 내 어찌 스승으로 섬기겠소. 나는 우리 가학을 할

1005) 열재(說齋) …… 글 : 소학규(蘇學奎)의 《열재집(說齋集)》〈제김중헌변김용승망고문후(題金鍾賢辨金容承望告文後)〉를 말한다.

것이오.”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사우간으로 처우한다는 말이 입에서 끊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 사람과 절교해야 한다.’는 말은 먼저 내가 꺼냈다.

김창암 또한 “김용승은 절교하고 오진영은 토죄합시다.”라고 하자, 여러 사람이 이견이 없어서, 마침내 자리를 달리하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다. 김종현(金鍾賢 김택술의 자(字))이 글을 짓고 내가 글씨를 썼다. 그 당시의 전말이 이와 같으니 그가 말한 ‘청문(請文)’과 ‘청삭(請削)’, ‘서절심부절(書絕心不絕)’은 이치에 있어 천부당만부당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이 밖의 횡설수설은 또 어찌 깊이 변론할 필요가 있겠는가?

신현(愼軒) 이기환(李起煥)이 변론한 글은 다음과 같다.

청문(請文)과 청삭(請削)의 설은 기억하기로 그날 절교서를 지어 김용승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보고 부당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라고 하였다. 대개 절교하는 것이 당연함을 보인 것이다. 그가 이것을 근거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서절심부절(書絕心不絕)’ 운운한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대개 그 글에서 트집을 잡는 것은 단지 ‘사우간’ 석 자뿐, 조용히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연명(聯名)으로 절교를 고한 글에 이미 이르기를 “선사를 모욕하고 연원을 배격하였다.”라고 하였고, 인하여 말하기를 “사우간(師友間)이라는 설을 고치지 않는 것이 스승을 배반한 것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제목인데 “조용히 다른 말이 없다.”라고 하는가. 아마 모욕과 배척이 일상사가 되어서 그런 것인가.

‘간로(間路)’의 ‘간(間)’은 족히 죄가 되지 않는데 ‘사우간(師友間)’의 ‘간(間)’은 유독 죄가 됩니까?

‘간로’의 ‘간’은 일이 사실이 아니고 ‘사우간’의 ‘간’은 스승을 배반하는 데에 귀결된다.

무릇 ‘마음과 행적이 판이하다.’¹⁰⁰⁶는 논지는 왕문중(王文中)¹⁰⁰⁷의 견해로 이천(伊川 정이(程頤))의 문하에서 바로잡은 것입니다.¹⁰⁰⁸

속으로는 사실 스승을 배반하고, 겉으로는 배반하지 않은 것처럼 꾸몄다. 이는 마음과 행적의 판이함이 대륜(大倫 인륜의 큰 도리)과 관계된 것이니 당연히 사람마다 바르게 할 수 있다.

문하는 일찍이 시(詩)에서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나의 글을 읽는다.[先生沒後讀吾文]’라고 하였는데, 또 ‘독오문(讀吾文)’ 석 자를 커다란 죄목으로 삼으니 그 절교하지 못하는 자의 마음이 이렇습니까? 유서(遺書)는 오진영이 꺼리는 것이고, 제 글 또한 미움을 받으니 선생의 글이 곧 문하의 글이고, 문하의 글이 곧 선생의 글입니다. 여기에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제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선생이 세상을 떠난 뒤 나의 글을 읽는다.[先生沒後讀吾文]’고 하거나 혹 ‘그 글을 읽는다.[讀其文]’고 하는 것이 본래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굳이 “나의 글을 읽는다.”라고 하였으니, 뜻을 두고 있는 데가 있어 일부러 말한

1006) 마음과 …… 판이하다 : 왕통(王通)이 동상(董常)에게 “마음과 행적이 다른 지 오래되었다. [心迹之判久矣.]”라고 말한 것으로, 왕통의 저서인 《중설(中說)》 권5 <문역편(問易篇)>에 보이는데, 이 주장은 정이(程頤)에게 난설(亂說)로 배척되었다.

1007) 왕문중(王文中) : 수(隋)의 대학자 왕통(王通)이다. 자는 중엄(仲淹), 시호는 문중자(文中子)로 당나라의 천재시인 왕발(王勃)의 조부이다. 문제(文帝) 인수(仁壽) 연간에 장안(長安)에 와서 태평십책(太平十策)을 상주했는데, 채택되지 않자 하분(河汾) 일대로 돌아와 제자를 가르쳐 설수(薛收)와 방교(房喬), 이정(李靖), 위징(魏徵), 방현령(房玄齡) 등 1천 명이나 되는 제자를 길렀으며 《중설》 10권을 남겼다.

1008) 이천의 …… 것입니다 : 정이(程頤)가 말하기를 “석씨의 학설을 만약 그 말을 연구하여 취사선택하려 하면 그 말을 궁구하기 전에 진실로 이미 화하여 불자가 될 것이다. 다만 우선 자취상에서 상고하여야 할 것이니, 그들이 이처럼 가르침을 베풀었다면 그 마음이 과연 어떠한가. 진실로 그 마음만 취하고 그 자취를 취하지 않기가 어려우니, 이 마음이 있으면 이 자취가 있는 것이다. 왕통은 ‘마음과 자취가 다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바로 어지러운 말이다.[釋氏之說, 若欲窮其說而去取之, 則其說未能窮, 固已化而爲佛矣. 且且於跡上考之, 其設教如是, 則其心果如何? 固難爲取其心, 不取其迹, 有是心則有是迹. 王通言心迹之判, 便是亂說.]” 하였다. 《近思錄 권13 辨異端》

것이다. 지금 “유서는 오진영이 꺼리는 것이고, 제 글은 또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며, 나란히 칭하고 짝을 지어 거론한 것은 사람들을 오진영과 같은 죄과로 몰아가는 계략이니, 흉악하다.

문하가 만약 선생이 “사우 임고산(師友任鼓山)”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또한 장차 “우리 선사를 스승을 배신한 죄인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우(師友) 임고산(任鼓山)’이라는 말이 만약 ‘사우 이연평(李延平)’라는 의미에서 나왔다면, 위에서 논의한 것은 괜찮다. 그렇지 않고 그가 선사를 처우한 것과 같다면 그는 선사를 배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선사가 고산(임현회)을 배신하였다고 무함한 것이니 그 죄는 열 배가 더 된다.

선생께서 평소에 부지런하고 정성스럽게[勤勤懇懇] 말씀하신 문·행·충·신(文行忠信)의 가르침이 지금은 털끝만큼도 비슷한 점이 없고 말류(末流)의 폐단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실을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선생의 도(道)가 영영 전할 수 있는 날이 없을까 저어됩니다.

정자가 이르기를 “지나치면 점점 겸애(兼愛)에 이르게 되고, 미치지 못하면 곧 위아(爲我)에 이르니, 그 끝은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에 이르게 된다.”¹⁰⁰⁹라고 하였다. 주자가 이르기를 “양주는 의(義)를 배우다가 위아에 치우쳤고, 목적은 인(仁)을 배우다가 겸애에 빠졌으니 본원(本原)에 있어서 미세한 흠결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논하자면, 무릇 ‘말류에

1009) 지나치면 …… 된다 : 《근사록집해》 권13 <변이단(辨異端)>에 “사(師 자장(子張))는 지나치고 상(商 자하(子夏))은 미치지 못한 것은 성인(聖人)의 중도(中道)에 있어, 사(師)는 다만 지나침이 과하고 상(商)은 다만 미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치면 점점 겸애(兼愛)에 이르고 미치지 못하면 곧 위아(爲我)에 이르니, 과불급(過不及)이 똑같이 유자(儒者)에게서 나왔으나 그 끝에 가서는 반드시 양주(楊朱)와 목적(墨翟)에 이르는 것이다.[如師也過, 商也不及, 於聖人中道, 師只是過於厚些, 商只是不及些. 然而厚則漸至於兼愛, 不及則便至於爲我, 其過不及, 同出於儒者, 其末, 遂至楊墨.]”고 하였다.

폐단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그 본원에 흠결이 있는 것이다. 만약 본원의 바름이 증자(曾子)의 학문과 같고 자사(子思)와 맹자를 보면 전함에 폐단이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말류의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게 있으며 영영 전할 수 있는 날이 없겠는가?

그렇다면 김용승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암암리에 선사의 학술이 흠결이 있다고 배척한 것으로 정자와 주자가 양주와 목적을 논변한 것과 같다. 선사의 본원이 어디에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함이 있으며, 어디에 미세한 흠결이 있다고 감히 이렇게 말하는가? 그가 <기언(記言)>에서 이미 선사가 이치를 강론하는 데 있어 의혹이 풀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이 글에서 또 선사의 본원을 흠결이 있는 양주와 목적에게 귀결시켰다. 사우라는 칭호로 시작하여 말류의 폐단이라는 말로 끝맺으니 의도가 매우 음험하고 악독함을 알 수 있다.

‘근근간간(勤勤懇懇)’ 네 글자는 우암이 대윤(大尹 윤선거(尹宣擧))이 윤휴(尹鑄)¹⁰¹⁰를 가까이 한 것을 논변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속으로는 비방하지 않은 말이 없으니 이 또한 유심히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에 변론을 하니 혹자가 이르기를 “김용승은 거칠고 망령된 사람입니다. 비록 스승을 배반한다고 말한들 선사에게 무슨 손해가 된다고 이렇게 애를 태웁니까?”라고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승은 선정(先正)의 손자이고 명경(名卿)의 아들이며 기절(氣節) 기개와 절조(절조)을 지닌 사람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세덕(世德) 대대로 내려온 덕과 기절이 실학(實學)과는 무관하나 죽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김용승은 선사를 십 년 동안 스승으로 모신 사람으로서 갑자기 오진영의 무함이 있는 뒤에 배반하고, 스스로 자신을 깨끗이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차 이것을 구실로 삼으면 선사께서 어떤 사람이

1010) 윤휴(尹鑄) : 1617~1680. 자는 희중(希仲), 호는 백호(白湖)·하헌(夏軒)이다. 1656년 재학(才學)으로 천거되어 우참찬·이조판서·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기해예송 전까지 남인과 서인 모두와 교류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실각하자 갑산에서 사사되었다. 종래 주자의 해석방법을 배격하고 《중용》, 《대학》 등 경전을 독자적으로 해석·수정하여 당시 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문집에 《백호집》이 있다.

되겠습니까? 또 신명에 제사를 지내고 아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전에는 도의가 없고, 춘추대의가 없는 사우라고 줄곧 주재님께 칭하였고, 지금은 아울러 학술과 본원마저 남김없이 배척하고 있습니다. 비록 빛나는 영령께서 그의 죄를 환히 볼 것이나 저승에서는 일어날 수 없으니 아직 죽지 못한 문인들이 어찌 차마 유명(幽明)을 달리한 애통함을 억누르며 입 다물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사(先師)께서 김평묵이 지은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¹⁰¹¹과 전재(全齋 임헌회(任憲晦))¹⁰¹²의 제문을 분변(分辨)하여 본분을 다한 까닭입니다.¹⁰¹³ 제가 일찍이 선사의 원고 안에 실린 김용승이 스승을 정하는 날 그의 부친 대감(台監) 확재(確齋) 김학수(金鶴洙) 공이 그 아들을 부탁한 글을 보았는데, 이르기를 ‘이 녀석이 보고 느껴 오랑캐와 금수로 귀결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르기를 ‘하늘의 신령함에 힘입어 난적(亂賊)이라는 이름을 면하였으니 부자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더없이 중대하고 더없이 간절한 말입니다. 지금은 감히 부친의 당부를 저버리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아니 대체 무슨 마음이란 말입니까? 어찌하여 스승을 배반하는 것이 아울러 부친을 배반하는 것이 될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뉘우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 참으로 괴이합니다.”라고 하였다.

1011) 홍직필(洪直弼) : 1776~1852.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홍경필(洪敬弼)이다. 자는 백응(伯應)·백림(伯臨), 호는 매산(梅山),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17세에 박윤원에게 ‘오도유탁(吾道有托)’의 찬사를 받고, 원로 명사들과 연령을 초월해 교류하며, 오희상에게 유종(儒宗)이라 불리었다. 주리파로 한원진의 심선악설(心善惡說)과 임성주의 “성선(性善)은 곧 기질(氣質)이다.”를 반대하였으며, 개천 경현사(景賢祠)에 배향되었다.

1012) 임헌회(任憲晦) : 1811~1876. 본관은 풍천, 자는 명로·중명, 호는 고산·전재·희양재, 시호는 문경(文敬)이다. 이조참판·대사헌 등에 임명되기도 했다. 경학과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고, 낙론으로 이어·송시열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제자로는 전우가 있고, 저서로는 《전재집》이 있다.

1013) 이것이 …… 까닭입니다 : 간재는 <논가김제매산선생문(論嘉金祭梅山先生文)>을 지어 김평묵(金平默)이 매산(梅山) 홍직필(洪直弼)의 문인으로 자처하면서도 홍직필에게 올린 제문에 기롱(譏弄)하는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 <관홍재구소찬기사행장(觀洪在龜所撰其師行狀)>에서 임헌회에 대해, 김평묵이 ‘송백하혜(松栢荷蕙)’라고 기롱한 것과 김평묵의 문인 홍재구(洪在龜)가 ‘왜양혈당(倭洋血黨)’이라고 비난한 사실을 말하였다. 《간재집 후편(良齋集後編)》 권30에 있다.

김용승의 〈백천재기언〉¹⁰¹⁴을 보다 [1935]

觀金容承百千齋記言【乙亥】

이 글은 “도의가 존재하지 않으면 선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시작하여 “자네¹⁰¹⁵ 할아버지가 우암(尤菴)이 되고 난 뒤에야 내가 이윤(尼尹)¹⁰¹⁶이 될 것이네.”라고 끝을 맺었다. 그 스승을 배반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다. 너무나 놀랍고 애통하였지만, 이때는 유서가 나오기 전이라 의안(疑案) 의심나는 안건)을 변파(辨破)하지 못하여 감정이 격해져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르렀다. 외부 사람으로서 보면 그래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유서가 이미 나와 대의가 밝게 드러나고, 선생도 이미 우암이 되셨다. 그런데도 묘소에 고하는 글에 여전히 ‘선사’라고 부르지 않고, ‘문인 소자(門人小子)’라고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학술과 본원마저 극렬하게 배척하였다. 비록 이윤에 귀결되지 않으려 해도 그게 되겠는가? 비록 외부 사람이라도 마땅히 죄를 다스리고 공공연히 배척해야 하거늘, 명색이 간옹(良翁)의 문인 된 자가 그를 위해 법을 지킨다며 ‘스승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이르는 자가 있으니 나는 그것이 무슨 의리인지 모르겠다.

“책을 잡고 세 번 뵈었으며 상복(喪服)을 입고 한 번 곡하였다. 정(情)을 말하면 세월이 얼마 안 되고, 이치를 말하면 의혹을 풀지 못하였다. 예컨대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는 말은 오직 고산(鼓山)의 강재(剛齋 송치규(宋禱圭))에게 있어서와 매산(梅山)의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에게 있어 서로 비유할 수 있다.”¹⁰¹⁷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사우간으로 처우하는 말이다. 선사께서 생전에 듣지

1014) 백천재기언(百千齋記言) : 이 글은 간재의 손자 전일건(田鎰健)이 간재의 죽상(竹床)에 대해 김용승에게 따지러 갔다가 벌어진 언쟁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1015) 자네 : 간재의 손자 전일건(田鎰健)을 말한다.

1016) 이윤(尼尹) : 윤증(尹拯)을 말한다. 윤증은 아버지 윤선거(尹宣擧)의 묘갈명을 생전 친구였던 송시열에게 부탁하였다. 생전의 윤휴를 두둔한 일로 양금을 갖고 있던 송시열은 병자호란 때 자결한 처를 두고 도망쳐 나온 일을 조문에 적었다. 윤증이 송시열에게 사제를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윤증은 송시열을 비판하고 사제관계가 끊어졌다. 1669년에 있었던 회니논쟁을 말한다.

1017) 책을 …… 있다 : 이 말은 김용승이 〈백천재기언(百千齋記言)〉에서 한 말이다.

못하였는데,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꺼낸 말이다.

정자가 이르기를 “안자(顔子)와 증자(曾子)는 공자에게 비록 참취(斬衰) 3년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자신을 이루어준 스승의 은혜는 자신을 낳아 준 부모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김용승이 평소 선사에게 올린 편지에 “소자가 문하에서 망극한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낳아 주고 이루어준 은혜 마음 깊은 곳에 깊이 새겼으나 값을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선사의 은혜가 부모와 같음을 이른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소위 ‘안자와 증자가 참취를 입은 것’과 어찌 일찍이 다른 점이 있는가? 그런데 지금 갑자기 “칠십 명의 제자가 공자에게 심복한 것은 마음을 속인 것이다.”라고 하는가. 그는 이것에 대해 장차 무슨 말로 해명하겠는가.

“문인록에 이름을 넣은 사람이 누구입니까?”라는 말에 대답하여 말하기를 “모든 군자는 겸양하는 자리에 있거늘 어찌 생전에 문인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는 자기 자신이 일찍이 문인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사의 문인록을 아울러 비방한 것이다. 애통하도다! 선사께서 평소 배우는 자를 가르칠 때 동일한 정성을 보이셨고 차별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스승과 문인의 본분은 대륜(大倫)에 관계되어있다. 그러므로 이미 본분이 정해진 자는 《관선록(觀善錄)》에 이름을 적었다. ‘문인’이라고 하지 않고 ‘관선’이라고 한 것이 이미 겸양의 의미니 이것이 어찌 의리(義理)에 해가 되겠는가? 그는 이미 부친의 명(命)을 받들어 집지(執贄)하고 《관선록》에 이름을 올린 지 십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명백한데도, 도리어 감히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며 애초부터 문인록이 있는 줄 몰랐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흑수(黑水 윤휴(尹鑣))가 주자가 영종(寧宗)¹⁰¹⁸을 섬긴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도리어 감히 말하기를 “주자가 어찌 영종을 섬겼을 리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과 똑같은 어법이고 똑같은 심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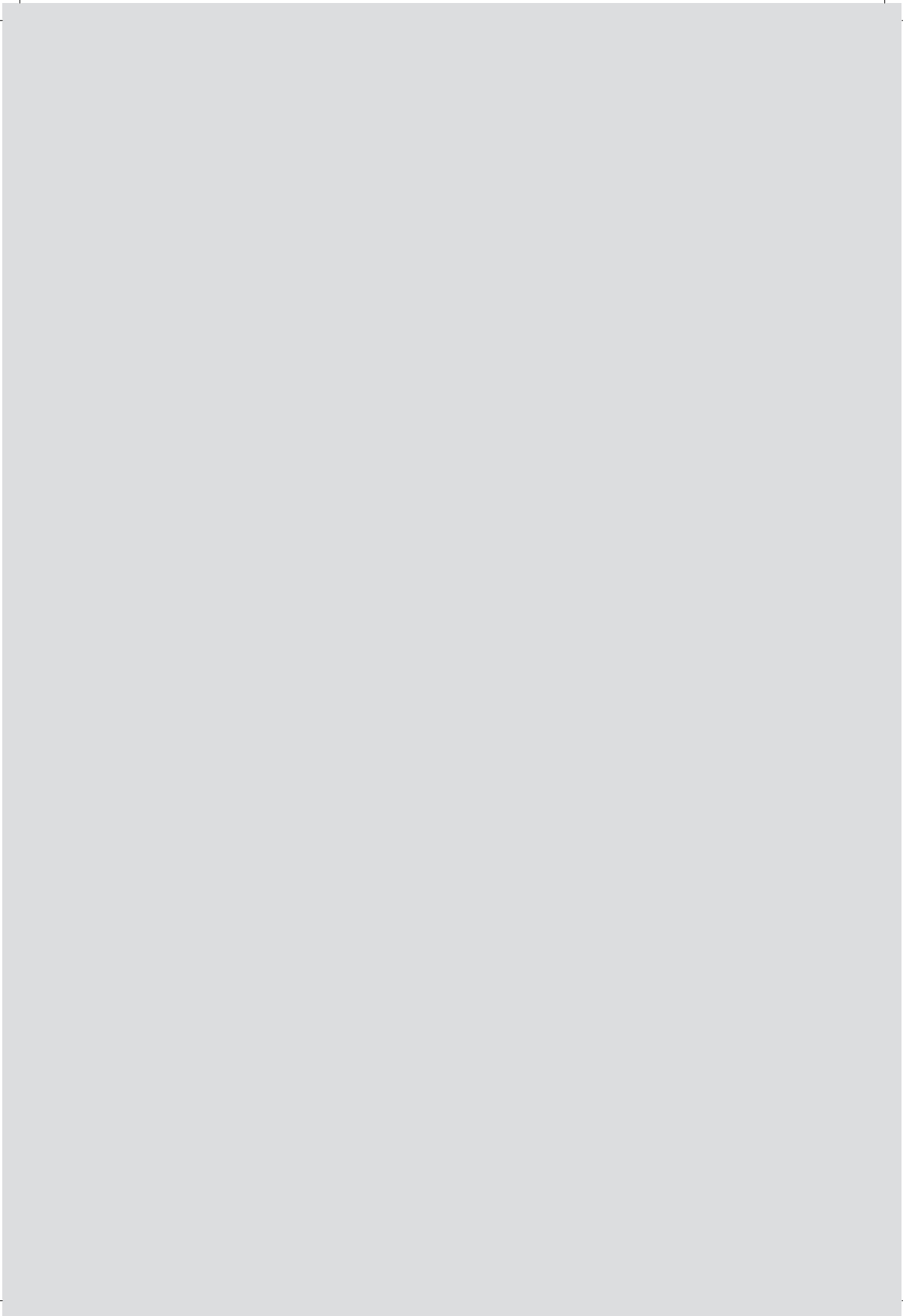
아! 김용승이 간옹(良翁)의 문인이 된 데는 더욱 남다른 점이 있다. 그의 부친

1018) 영종(寧宗) : 중국 남송(南宋)의 제4대 황제(1168~1224)로, 이름은 조확(趙擴)이다. 그의 치세 동안 황후 한(韓)씨의 인척인 한탁주(韓侂胄)가 권력을 잡았고, 금(金)나라에 대한 대규모 북벌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재위 기간은 1194~1224년이다.

대감(台監) 황재(確齋) 김학수(金鶴洙) 공이 글을 써서 부탁하며 말하기를 “제 자식이 보고 느껴 오랑캐와 금수로 귀결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하늘의 신령함에 힘입어 ‘난적(亂賊)’이라는 이름을 면할 수 있으면 부자(父子)가 받은 은혜가 크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정중한 말인가. 근래 김용승과 친한 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예(禮)에 있어 봉우간에도 집지(執贄)의 예를 하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반드시 전해 받은 바와 가리키는 바가 있는 것이니, 더욱 애통하다. 그러므로 나는 “김용승이 스승을 배반한 것은 자기도 모르게 부친의 명을 거역한 것이니, 더욱 애석하다”라고 말한다.

《후창집》 원문

《後滄集》原文



《後滄集》

卷之十三

主理主氣對【艮齋先生作主理主氣問，令置對。癸卯】

夫正學主理，異學主氣，然主理者未嘗棄氣。故自孔子至宋儒，皆以心屬氣，而又有心爲主宰之論。主氣者未嘗不言理，故佛氏曰：“如來是性。”，告子曰：“生之謂性。”，又曰：“食色性也。”，象山有此理已顯之說，陽明有心之本體即天理之說，即其言而觀之，主理者反似主氣，主氣者反似主理。然究其實，則空明靈覺，佛氏之所謂性，知覺運動，告子之所謂性，象山之所謂此理，指心之澄瑩而言，陽明之所謂天理，指心之良知而言，彼四家之所認爲理也性也者，即吾儒之所謂氣也心也者也。故吾儒處彼以主氣。吾儒雖以性屬理，以心屬氣，而發揮運用做得事者，全藉此氣，此所以心爲一身之主宰也。雖心之爲主也，未嘗自主，必本原乎性，而主宰于身，又豈不爲主理耶？老佛之所以不說著氣者，專以氣爲理，故更無可說之氣也。栗翁之所謂檢束其氣者，所以復氣之本然也，氣復其本，則性不待復而自復矣。然則復其性者爲主理，而以氣爲理者爲主氣，昭然可知也，欲辭主氣之名，而爲主理之實，自見其所可適從矣。

氣質性問答【乙卯】

客有問於余曰：“成湯以後，群聖賢之論性，只言其純善本然之性而已。自程張二先生，始有氣質性之說焉，所謂氣質之性者，果何性耶？”，余曰：“所謂氣質性者，只是本然性之隨氣質而自爲一性者，非本然性之外，復有氣質之性也。蓋人之生也，受天地之理以爲性，受天地之氣以爲氣質。理者無形之物，故在人爲性，渾然至善而無所猷爲。氣者有形之物，故在人爲氣質，有萬不齊而作用無常。至善而無爲者，爲不齊而作用者之所運，而無管攝檢制之術。於是渾然至善之體，因而不著，而只見其隨氣質而有萬不齊，故目之以氣質

之性。其名雖肇自程張而立，其實孔子之性相近，韓子之性三品，周子之性剛柔善惡三言，已道破程張之前矣。”曰：“然則本然性之隨氣質而爲不齊之性也，其純善之本體，亦桎梏鑿喪而無餘矣乎？”曰：“非也。蓋嘗觀乎中天之太陽乎？至明至熱之體，如彼其光且熾也，而及其雲翳霧塞，氣肅寒凝也，至明者或昏或暗，至熱者或涼或冷。然昏暗涼冷之不齊者，乃雲霧氣寒之所致，太陽明熱之體固無損也。是故知人之偏全善惡，皆氣質之所爲，性之本體，固自若也。朱子曰：‘理如何得惡？所謂惡者却是氣。’，臨川吳氏曰：‘稟氣清濁，材質昏明，是則告子所謂生之謂性，是性也實氣也。’，栗谷先生曰：‘氣之偏則理亦偏，所偏非理也，乃氣也，氣之惡則理亦惡，所惡非理也，乃氣也。’，此三說者，竊以爲不易之論也。”曰：“然則氣質只可言氣質而已，不必曰氣質性，只可言於發用處而已，不可言於稟受時，何程子有天性柔緩剛急所稟受之訓，栗翁有元初稟賦氣質性之說耶？”曰：“偏全善惡，雖是氣質之所爲，氣質之偏全善惡，性亦隨而偏全善惡，故和性而混淪說則曰氣質性。性之偏全善惡，雖於發用處可見，所以偏全善惡者，以其稟濁駁不齊之氣，故主氣而推原說則曰元初稟賦。由此言之，則程栗二先生之訓，庶無所礙也。”客曰：“近有論氣質性者乃曰：‘人之始生，隨其氣質而各稟異理者，是爲氣質性，就其中單指，則是爲本然性。’，吾嘗信其說而不疑矣。若如子之言，論者此說，終不免違理而亂真耶？”曰：“天之生物也，使之一本，若如此說，則是二本也。本然之性，天下一原之性也，氣質之性，萬物不齊之性也，一原之性，不齊之性，均可言於稟受時，則是非二本而何？非惟二本之是，慮先稟不齊之性，後指一原之性，是氣質性爲本，本然性爲末，本末易置，天下事顛倒猖披，何所不有不寧？惟是既稟異理之性於始生之時，則所謂性者人人各異矣，物物各異矣。既異之性，安得忽地換形，霎時幻胎，人人皆同，物物皆同於單指之際乎？然則其單指則本然性云者，不過爲附肉之疣，加鹽之鯨，何足爲有無哉？大抵言性而以稟異理者爲主，則大聖君子中人下愚，皆一定於有生之初，矯揉克治之功，無所可施也。孔子克己復禮之教，孟子必稱堯舜之旨，程子勝氣復性之訓，張子變化氣質之說，不免一切破綻矣，天下安有是理哉？以此究之，則論者之說，雖欲免違理亂真之科，得乎？”

自警十則【戊申】

勉齋有言曰：“自訟而見於言，不若不言而責於心之切。”余嘗味此語，竊笑世人纔欲有爲，輒立文出案矣。今因有警于心者，忽自思銘以寓戒，自湯武來，未之或廢。我非生知，則安用一切法？遂書目下所務及躬所未逮者十則，庸驗他日進退之實。戊申六月晦日書。

大志第一

志者聖人之始，孔子曰：“吾十有五而志于學。”，後來不踰矩，只是終其始也。張子曰：“志大則才大，事業大。”，志大而未大成者有矣，未有志不大而能大成者也。

豈若小丈夫之爲志也？耀文夸世，樹功顯名，而沾沾充盈也。

勤勵第二

凡事勤則立，不勤即廢，聖人憂勤惕厲全之，衆人懈怠荒寧失之。耕者暑雨艱難而廩困實，織者夙夜孜孜而丈疋得，匠者終日砢砢而輪輿成，商者趨時奔逐而貨貨贏，士之能勤，作聖之基。故天地間斷，萬物熄，學問間斷，百行墮。《易》曰：“天行健，君子以，自強不息。”。

讀書第三

道惡乎載？載乎書，書宜乎讀。讀惡乎用？用以致其知，致知者欲行之也。不知而行，瞽之無相，舟之失師，鮮有不敗者。周公朝讀百篇，仲尼韋編三絕，何？夫夫反思暇逸。《易》曰：“君子，多識前言往行，以畜其德。”。

孝友第四

人皆曰：“我欲孝于親，友于兄弟。”，鮮能之者，何？孔子蓋曰：“順乎親有道，反諸身不誠，不順乎親。”，盍自反乎誠乎？至誠所到，金石可透，而況乎天屬之易感者乎？詩云：“夙夜匪懈，以事二人。”，是非孝乎親乎？“兄弟既翕，和樂且湛。”，是非友乎兄弟乎？孝孰爲大？養志爲大。服其勞，先生饌，仲尼不謂之孝，而況乎此猶未能者乎？

昔者有虞封象于有庠，牛弘脯牛而不問，而況乎處常者乎？

改過第五

太上無過，其次不貳過，其次改過而欲無過，猶不免貳過，小人文過。

改過學者事也，改之又改，馴致於無過，過而不改，必至於文過。

故孔子曰：“過則勿憚改。”

檢身第六

心內也，身外也，內斯可矣，奚以身爲？曷嘗見袒裊攘臂而心不暴，箕踞偃臥而心不慢者乎？

故君子不可以不檢身，身不檢則心不正，心不正則行敗度，行敗度則身且從而亡。

曾子以三貴，顏氏以四勿，仲弓以二如，皆從檢身上起。

恢量第七

聖人者，與天地相似，日月星辰，山嶽河海，人物鳥獸，容乎其中，出而無外，入而無內，以量言天地者，小天地者也。

爲一得一喪，一毀一譽，而動心增氣，哀哉！

謙卑第八

《易》曰：“天道虧盈而益謙，地道變盈而流謙，鬼神害盈而福謙，人道惡盈而好謙。”甚哉！人之不可不謙也。

自高者人卑之，自卑者人尊之，彼少有才而輒高大者，不思甚也。

是故海之長百川，以其卑也，山之見崩頽，以其高也。

剛毅第九

負千斤之重者，不剛則不能起，不毅則中途而止。

仁者士之千斤，柔弱解弛者，未如之何也已。

尊攘第十

《春秋》之義，數十，尊攘爲大。

今也夷狄盛，我將爲其所攘，如之何？曰：“但不從其制，有死而已，便是攘也。”

己未生朝自警

余幼以夙成稱，而稟質實虛，未三十有老蒼色，作醜之荼毒，精魄既實，執徐之荐禍，氣血亦竭，加以十年間，貧病相仍，經人不堪，以至今日之敗業，漂泊而極矣。是歲之六月六日，余懸弧辰也，悲切蓼莪，不堪家居，前一日入華陽，陪聽良翁緒論而自遣。翌朝巾櫛之際，忽見一白物在右鬢邊，意爲塵芥也，而拭之不去，意爲絲縷也，而抽之不出，歷歷是一箇白毛。余聞人之髮白，容有非真者，惟鬢白非時至不白，乃真白也。噫！毛白者老徵也，老者死候也。人生則老，老則死，理之常也。顏淵之德焉，而廿九而白，潘岳之文章焉，而卅二而白，余今年三十六，烏足悲也？所悲者無德與文之似古人者，惟早白古人是似爾。且念家世短祚，自高曾以下，皆壽不滿周甲，先父祖之秀俊，壯完尚如此，況如不肖之孱庸，飽經憂禍者，安敢望假年進修，成遺體而無生乎？是重可悲也。雖然，孟聖不云乎？“夭壽不貳，修身而俟之，所以立命也。”今日之務，惟在勉遵典訓而飭身禮禔，繼述先志而獲免不孝已矣。傍有勸以掃白者，而余故不聽者有二道，公道不可以人強一也，存之以備把鏡警惕之資一也。

先君諱日書感自警兼示兒輩【甲戌元月二十一日】

余今年五十一。雖卽溘然，已得免夭，復何所恨？且念父祖以上四世無壽，不肖現齡恰滿先君卒年，先君之厚實，猶未享回甲之壽，以不肖之孱劣，豈敢求多於先君哉？但先君臨終，握不肖手謂曰：“吾父加吾祖壽十一，今吾之壽，加吾父八歲，汝若加吾一甲，則當踰六旬，汝子又當踰七旬。”，此言絕悲，蓋痛累代之短壽，而冀以延於後世也。推是心也，則又豈不願少須臾無死，延十許歲，俾驗先君之言也？然則其於愛養精力，無損遺體之道，宜不敢忽矣。顧今夷狄制命，薙禍迫頭，生靈艱食，溝壑在前，此正仁人，志士，不能理形兩全之秋也。吾雖無成，是三十年讀書人，汝輩雖力田幹家，救急目前，亦爲儒門子孫，吾若惜軀命而從夷狄之制，汝輩若怕餓死而食不義之物，認此以

爲保愛遺體，雖壽至六七旬而驗先君之言，反不若無年之爲愈，而其驗猶不驗也。然則如之何其可也？孟子不云乎？“二者不可得兼，舍魚而取熊。”免夷制，却汙物，而得老死牖下則幸矣，如其不然，當舍生而取義。此又先君平日所以教不肖之意，吾與汝輩所當聽於無聲而分外猛省也。誠然者庶有辭於來世，而其不壽之壽，不但如先君所期，而其不驗猶驗也，曷敢不勸哉？今日先君下世之辰，故有感而書之。

師喪時輪告同門【壬戌】

夫人而無教，則非人也，而教我以道而成人者，豈非師乎？是以與生我食我之君父同爲一體，而致方心三喪，并著禮書。然則師喪三年，乃萬世不易之典。然世風有古今之殊，禮俗有通變之宜，先賢斯有隨情量力之論，蓋爲其無實強從，反以犯禮致罪，故不得已而遷就之也。斯文不幸，我先生奄棄後學，安仰之痛，曷有其極？今我同門未能齊循乎正典之不可易者，或從乎遷就之不得已者，如有三年而未盡禮者，固爲可罪，既不三年而復有失，則尤可罪也。正宜盡心交勸，恐恐乎壞禮而負師也。似聞近日入而錄名於加麻，出而酒肉於市肆者或有之，此若謬傳則幸矣。如其未然，則目下如此，將來可知，昭昭既然，冥冥奚論？其爲欺心，欺師，欺人，欺天，取譏笑，敗名教，果何如哉？古人云：“士君子失此一著，餘無足觀。”又云：“立身一敗，萬事瓦裂。”念到于此，豈不悚然？茲以輪告于僉座，惟願猛省實踐，有改無勉？毋至陷身名，乖人紀之地，幸甚。

偶書

余每應事失宜，悔懊之心，累日不已，此一舉而得二病，何者？初既有不審之病，後復有有所之病也。凡應事，須要精審而不錯者上也，事雖失宜，只當警悔而已，不長留在心胸，猶爲其次也。【丙午】

勤者起家之福祿，怠者亡身之鴆毒。

敬心一立，則百邪退聽，怠心一萌，則百事無成。敬怠之間，興亡之機，可不懼哉？齊家之難，甚於治國，治國者導之以教化而不行，則有刑罰，可以補其不足。至於齊家，教化不行而欲用刑罰，則恩愛先離矣，恩愛既離，則何齊家之有？故曰齊家之難，甚於治國。

上天之行，剛健不息，能生萬物，而無不周徧，聖人之心，勤勵不懈，能應萬事，而無所遺漏，人能體天而與天爲一，然後，始可謂人矣。

與人交盡在我之道，而不合則亦已矣，必要回互，得他人道好，是枉己徇人也。孟子曰：“無欲其所不欲。”，此之謂也。【戊申】

乘喪嫁娶者，宋司馬溫公以爲國有正法，此不復論，而近世喪紀全壞，以有喪而不嫁娶者，十無一二。人亦不惟恬不爲怪，反獎其及時行權，其或有不行者，則人亦不惟不善其守禮，反笑其失時迂闊，此豈我國初，無定法而然哉？特緣君相未嘗實心施行，馴致於此耳。

曆法不置閏，則寒暑失節，歲功不成。此帝堯所以“咨！羲和也。”。今所謂陽曆不置閏，而一歲閏，率分入於十二月中。故一歲恰滿三百六十六日，而節氣亦無差。然堯曆之分十二月者，日行二十九半強，與月合而爲朔。故以其一合朔而謂之一月，再合朔而謂之二月。彼則不取合朔，而日自日，月自月矣，猶且強名之曰一月二月，無謂甚矣。

彼以我曆之取月之朔望而定十二月故，謂之陰曆，以彼曆只以日計數故，謂之陽曆，殊不知天地之道，陰陽相資，乃能生成，而獨陽不能生物也。且彼欲并我國，故取陽兼陰之義而名之，我人不之覺，隨以從其稱號。甚至簿牒書詞，用彼年月日，加我國年號於其上，迷惑甚矣。

《論語》中仁字，有專指性理者，如爲【行也】仁，成仁，利仁之仁是也，此以自在而不涉人爲言。有指人心所成之德者，如鮮矣仁，三仁，焉得仁，未知其仁之仁是也，此并包爲之成之安之利之之功而言。此兩款之義，不啻明白，非惟《論語》，凡經傳中許多仁字，只從兩義看破，便省得多少事。

性理之仁，是具於心之理，朱子所釋心之德，愛之理是也。成德之仁，是見存於心之理，朱子所釋無私欲而有其德，當理而無私心之類是也。或疑仁五性之一原，是形而上者，若謂成德之仁，是理之見存於心者，是屬於形而下也，

豈非未安耶？曰：“此不須疑也。若以之主德而論其成仁之功，則固心之所能也，可屬於形而下者，若以之主仁而論其見存之理，則乃是具於心之本性也，自當屬於形而上也。”

《論語集註》之道體無爲，是就理氣界分上，說道體之本色，《語類》之理動靜，是就理氣流行上，說理爲氣宰也。雖曰無爲，而不害爲不宰之宰也，雖曰動靜，而其無爲之體，固自在也。【甲寅】

‘人非堯舜豈能盡善？’八字，以之恕人則可，以之自恕，則戕身之鳩毒。【丙辰】所失稍重，出於無心，則不害其爲過，其失雖輕，出於有心，則難免其爲惡。富莫富於畜德，貧莫貧於寡聞，樂莫樂於無忤，悲莫悲於自賊。

訟罪責己，雖不可無，若因一失而生沮廢之心，是一蹉而止千里之行，點汙而棄全襲之衣，世多有若此者謬哉。

我東先賢論說學問，使人有感發之趣者，莫如退溪，洞明性理，使人知源委之詳者，莫如栗谷。以余觀於白山翁，其剖析名理，固發於真知的見，而必就治心省己上體貼出來，使學者有依據下手處，退溪之論學，栗谷之明理，合一而有之者，其曰翁乎。

窮當益堅其志，貧當益守其廉，世亂當益勵其節。

治國少一仁字，是無國，治家少一禮字，是無家，治身少一敬字，是無身。

鶉結耒腹，不足悲也，所可悲者，養生不極滋味，送終不得悅心。子路之歎，實自身親經歷來，孔子盡歡稱財之訓，使人隨分竭誠，順境合理，聖人立言教人之法則固也。若其傷哉之情，雖使聖人當之，安得無是哉？

昔人云：“常養喜神，獨尋樂處。”此言雖有恐懼憂戚，不可以此累其心，當以道義爲喜樂也。然若至覺得言違乎道，行悖乎義之時，方且悔懊慚忿，所謂喜樂者，又何處見得？曰：“過而能知，便可喜也，知而能改，便可樂也。”

士君子令名，得於生平竭心積力之餘，而或失於一言一行不加思省之際，可不慎哉？

外過內慝，省到極，察到密時，此心夔夔遯遯，如坐針氈漏船，似覺有拘速不寧之病然，與其泯泯沓沓，以致悔吝而罔覺，以此易彼，孰得孰失？而況由此而熟之，終有廣胖之樂者乎？

富達而行義，如順流行舟，事半而功倍，貧窮而行義，如逆流行舟，力勤而獲

少，行之有失，由於知之不明，知之不明，由於講之無素。

言人之過，欲何爲哉？爲其人之改之也，則何不於其人親告之乎？此不忠也。爲恐己亦有是也，則何不內省于心，而必言之于口也？此不誠也。爲其貶彼而尊己也，則彼我品藻，自有公論，非吾言之所得而高下，非惟險也，亦癡也。一舉而衆惡備，莫如言人過。

惡莫備於言人過固也。但人之爲世宗仰者，言行有過誤，而衆莫之悟，且爭慕效有害世道，則不得不言之。

富而日奉三牲於其親者，不能養其志，則或有之，貧而親極滋味者，未有不能養志也。

同一名也，而有名利名節之異，假仁飭義，矯情干譽以求人知者，爲名利也，“好名之人，能讓千乘之國”者是也。樹忠服孝，淑身立德，可傳後世者，爲名節也，疾沒世而名不稱者是也。每事欲求第一等道理而處之，第一等雖未必得，而不失爲抑其次者。若道我何敢望第一等？不如且做第二等，則第二等決不可得，而歸於最下品，立志可不高哉？

郭巨埋子，方遜志以爲“陷親不義，罪莫大焉”，余謂巨信有罪矣，罪其迹而不罪其心可也。巨之爲此也，但知有親而不知有子，并無感天要名之意，其心何嘗有罪乎？由其未聞道，而徑情自遂，有此悖理之舉，於是乎跡則有罪矣。孔子曰：“觀過斯知仁。”，又曰：“好仁不好學，其蔽也愚。”，巨之謂也。

無實之名，天必忌之，必有破綻之日，無罪之誣，天必寃之，必有雪白之時。

只知有親而不知有他，然後爲孝子，只知有國而不知有他，然後爲忠臣，只知有夫而不知有他，然後爲烈女，只知有道而不知有他，然後爲真儒。

士生衰世，欲學道義，當先學忍飢。

有過而人知之，是可喜也，有過而自知之，猶可幸也。不幸而可悲者，其有過而不自知乎。人知之過，得以受責而改之，自知之過，得以內訟而改之，不知之過，永無可改之日矣。

一時之奮始易，中途之不廢難，中途之不廢易，畢生之克終難，質美而爲善易，改過而徙義難，改過而徙義易，變質而成德難。

聖人合天，賢者奉天，君子畏天，學者求天，衆人昧天，小人違天。

一友人謂余曰：“世變日甚，吾輩只怕餓死。”。余曰：“士當此世，只怕不餓死，

不餓死則其辱有甚於餓死者。”，友人深以為然。

庚辰生朝識感

今歲庚辰，余年五十七，今朝六月六日，即余弧辰。昔余年二十餘，先考召相者，令觀不肖，相者略言平生，終曰：“壽不過五十七。”，先考不樂而罷。今年正當其時，歲且將半，未知其言信驗乎否。然而竊念人之為生，心者身之主也，心身俱久生，然後可謂之壽，身死心生而成仁取義，名可久傳亦壽也。心死而身生，雖永百年，徒蠢物耳，可云壽乎哉？何謂心之有死生？心能自主而循夫性理禮法，謂之生，不能自主而役於氣慾習染，謂之死。余質之不美，學又疏繆，心不自檢，咎惡日積，心不自制，言動倍戾，心纏憂愁，疾病侵尋，心汨懶惰，凍餓切身，心不容物，怨嫉滿前，心乏德化，妻子違令，靈臺之中，生意不敷，未知果不至全死否。且時變日極，所遭難測，亦未知前頭樹立，亦能如古人成取否。嗚呼！生吾非不喜，必心生而後可喜，死吾非不惡，必心死而後可惡，吾之心苟能懲前毖後，而卓然有主一切氣慾習染，莫干其間，斷然惟以性理禮法，準的乎思慮言動之際，則一日歸仁，朝聞夕可，聖人有言，雖即使相者言驗死之日，猶生之年也。非惟吾所自期，亦先考所望於平日者，不昧之靈，動喜於冥冥。如或反是，雖壽躋耄期，使相者不驗，究無補於心死矣，何足道哉？

自欺說【己未】

凡人之可施於人，而反之以自施者，如自責自治自怨自笑之類固多矣。獨自欺者何說焉？欺者以此昧彼之謂也。一人焉，而果誰昧之？果誰受昧？乃取《大學》經文及《章句》，反覆熟讀然後，知自欺者以吾心欺吾心也，曷謂焉？善當為，惡當去，非知之所已識乎？而所謂意者不能充其知而實之，斯非意欺知乎？然知亦心之知也，意亦心之意也。故曰：“心欺心也。”。然則知果為

意所昧乎?”，曰：“知自知意自意，焉得昧?”。“爲不昧，胡謂之欺?”，“吾雖不昧，彼實昧之，安得不謂之欺?如見肺肝之君子，不見欺於閒居小人，謂小人不欺君子可乎?”。曰：“然則意之不實也，知可以管他而不能，何也?”，曰：“當是時也，意方用事，知則成功者去，不在其位，如何管得他?”。曰：“此知也果十分盡而無一點累者乎?”，曰：“然。誠意是格致以後事。故不曰所謂誠其意在致其知，而只曰誠其意者毋自欺也，於是乎自欺與否定，定是誠意中事，雖欲貽累於知，得乎?”。曰：“是則然矣，子盍觀乎《語類》，《或問》乎?知之未盡，至於自欺，自欺是半知半不知底人，不知善之真可好，惡之真可惡，則不免於自欺諸。如此類，將何以區處?”，曰：“此則果有難言者，但以《章句》自欺云者，知爲善而去惡，心之所發，有未實之文觀之，終有不然。既云知爲善而去惡，則是知也，何嘗是虛假未盡之知乎?又云心之所發，有未盡則是未實也，果非意之自作孽而可分罪於知者乎?故若以《章句》爲定論，則後學於此，自有所適從矣。且以工夫次序事理究竟推之，亦有可說者。凡世之知未盡而不能誠意者，固多有之矣，是則欲而未能者。君子以爲無心之失而恕之也，至於自欺者，乃已知而不自實者，此則當歸之於有心之私，而在不恕之科也。故妄意以爲知未盡者，固不能誠其意，至謂有私之自欺，出於知之未盡，則誠不能無疑也。獨《章句》章外註心體之明未盡，則所發不實而自欺云者，終似重知一邊說。然此則正以其誠意之別立單傳，而不連致知，恐人不承上章而通考之，或不先致知而徒欲誠意，則爲害大矣。故從上推原說知未盡，則意不可得以誠，而自欺者乃不誠之真贓也。故自然連帶說去，非以心明之未盡語自欺之實病也。以其不入首節《章句》自欺訓釋之中，而置之章外者觀之，可見若乃自欺之實病，則其下文所謂已明而不謹乎此一句，正可以當之矣。”。

自欺說第二【己未】

余既爲前說，有難余者曰：“子以爲自欺，非知之過，恐知之於誠意，了沒干涉。”，曰：“惡!何言?天下焉有知不至之誠意?余又何嘗道意未誠，非知之過?”

蓋古今學者，有知之不至而不能誠其意者，亦有知之雖至，而不實用其力者。知不至而不誠者，不誠則不誠矣，而自欺則非也，何也？以其見之未到而實無所欺也。至於知雖至而不實用力者，乃自欺也，何也？以其已知而不爲，爲欺其本心之明也。吾故曰：‘自欺者非知之過，乃意之私也’。苟謂自欺是知不至之故，則知之至者，自當無自欺矣，無自欺者，豈非意已誠者乎？如此則《大學》格致一章已足矣，何復用誠正以下許多工夫乎？朱先生固曰：‘知既盡則意可得而實矣。’，不曾曰：‘知既盡則意自誠矣。’”。

憂說自戒【庚辰】

憂於七情，以類求之，當屬乎懼，人之所不能無也。其憂有君子小人之分，孔子蓋曰：“君子憂道，不憂貧。”。然則憂貧者非小人乎？如堯之憂值洪水，舜之憂民爲獸，孔子之憂德不修，子思之憂失傳，孟子之憂不如舜，是憂道也。若世人之憂官不高，憂家不富，憂名不揚，憂年不長，是憂貧之類也。學者當有憂之時，須自省我之此憂，爲憂道乎，爲憂貧乎，力與扶抑，務求向君子而背小人。且雖出於憂道，亦當察其太過而致有所之病，不及而疏應之之方，力與加減而中節，然後乃爲有益也。汝於近日，憂世變夷，憂道不明，憂學不進，憂師受誣，憂家未保，憂子孫無教，憂疾病交侵。蓋不勝其多，憂至於心肝焦燬，形容枯槁，未知此果斷然盡出於爲世道，爲自修，爲尊師，爲承先裕後，爲愛親遺，而爲君子之憂乎？抑或雜出於身名之私，而爲小人之憂乎？此宜猛省而痛勘，縱使皆出於道心，焉有君子因憂，而至於內煎外枯如此者乎？非惟病於有所，卽此戚戚，反不爲小人乎？《易》曰：“終日乾乾，夕惕若。”，此真君子之憂也。汝其勸哉！

辨字說【庚辰】

自《說命》始以知行對舉，人皆曰：“聖門之學，知與行而已。”。然而孔子大聖人也，博學，審問，慎思，明辨，篤行，學之大目也。以大聖立學之大目，不

以知與行二字相對，乃以學問思辨四字對一行字，而學問思三字，又皆所以爲明辨地也。然則辨字卽知字之代辭，乃行字之對，辨卽知，知卽辨，而亦可曰聖門之學辨與行而已。吾故曰：“《中庸》之明辨卽《大學》之致知也。”行只一目，辨合四目者，何也？行單係於一心之樞機，辨多事於萬理之頭緒。故論致知之方，則天下物理無不窮之，語誠意之要，則不過毋自欺三字。是故學者一生，讀書，講義，潛心，研幾，從師，問學，資友，廣聞，立論，陳見，記疑，待悟許多事，無非辨字工夫。至於行則舉此而措之，只得心力專一則斯可已。故及其成德也，不曰行道者，而曰知道，《易》之〈文言〉語君子，則以知之一字冒始終。凡世之語聖人者，必曰無不通知，《中庸》稱舜爲大知，其意思歸趣可知矣。至於從古以來聖賢所自爲之事業，則孔子之修《春秋》，惡鄉原，孟子之闢楊墨，斥齊東，朱子之編《綱目》，論陸陳，以至我先師艮翁之駁心宗，逐金誅，無一非辨字主義。蓋其平日心上意念，誠僞之幾，邪正之分，細勘之，不使纖慝之或藏，目前應接，得失之係，當否之關，精察之，不欲過錯之或留。故亦於人之善惡，德之真假，學之正異，言之虛實，自不容放過以昧我是非之本心，此之謂內外相合，心事一致也。若其關於君父聖賢師友者，則事又自別而尤不容已也。異哉！今之學者，非惟不以古昔賢聖所爲自勉，更於人之辨父師誣也，歸之爭心勝氣而鄙夷之，豈此輩人不曾辨心之淑慝，事之可否於平日，故亦於此，自不能不爾歟。孟子曰：“是非之心，智之端。”，又曰：“無是非之心，非人。”，人而無是非，安能以致其知？亦安有不知而能行者乎？於此人乎，尙難以語恒言之知與行，況可與言聖門之學辨與行而已之創聞者乎？噫！

百拙說【己卯】

心不可兩用，才不能兼成。是故巧於世情者，拙於心功，巧於謀利者，拙於明理。世間勢利不啻百途，吾身心理只是一途，顧人皆巧其多，而拙其少亦可異也。惟崔君汝重則不然，欲其拙於百而巧於一，扁其居以百拙，其於用心成才，可謂知所輕重矣。且夫拙於百者，雖不足於目前，而統算則常裕如，何也？有一巧之能，以簡制煩爾。今百拙庶幾於斯，吾知其百拙不拙。

四子名字說【己卯】

嗟! 爾復泰觀謙! 復是王考面命, 泰觀未生先命, 謙則未及而父錫. 暨爾字修中孚鳴, 三是艮翁所定, 鳴乃吾作. 唯爾名字義卦是本, 文象是用, 取周孔之象, 而受父師之命, 其重矣乎! 復乎其修身而不遠復也, 泰乎其光大而尚中行也. 觀乎其有孚而使顯若也, 謙乎其心得貞吉而鳴於世也. 修也不修而荒非復, 中也不中而偏非泰, 孚也不孚而僞非觀, 鳴也無可鳴之實非謙. 是則侮聖賢訓, 慢父師命, 美名嘉字反爲罪具, 可不畏哉? 可不戒哉?【炯泰字克中, 避本郡青霞權公諱, 改以克成.】

蝙蝠說【己卯】

余之新築茅堂在松林中, 書童於牆壁間, 獲一動物, 謂之羽族則無羽然而能飛, 謂之毛族則無足然而能走. 蓋身之兩傍, 有薄肉掌廣, 而間以勁筋, 張則爲兩翅而飛, 斂則爲四足而走, 奇乎異哉! 族之羽毛, 名之飛走, 不可得而定矣. 余嘗聞昔者崑崙之山, 羽毛二族大起戰爭, 互有殺傷, 因成仇隙, 久而不解. 有一蟲焉, 雖能走能飛乎, 於羽於毛, 一無助戰, 惟自保身是謀. 一日, 毛蟲聞其能飛, 往詰之曰: “爾非吾仇乎?”, 則斂其兩翅, 分作四足, 銳然而走曰: “吾豈是羽族? 吾與爾一也.”. 又一日, 羽蟲聞其能走, 亦往詰之, 則張其兩翅, 奮然而飛曰: “孰謂吾毛族, 與爾何仇?”. 是以於羽於毛, 俱無嫌隙, 其名曰蝙蝠. 爾則是耶? 爾真是也. 嗚呼! 今之士之依違於是非爭論者, 其亦取法於爾歟?

溪隱說【丁亥】

客有過余而問者曰: “孔子曰: ‘天地閉, 賢人隱.’, 又曰: ‘隱居以求其志, 吾未見其人.’. 賢人既世不常有, 其人者又不可見, 則所謂隱者, 豈非至難做底事乎? 而夫何近世以來, 自學士大夫至匹庶市井, 以隱標榜者之多也.”. 余爲之解而

喻之曰：“是不可以得其說乎？賢人雖曰不常有，以《論語》所稱大師以下八人適齊入漢及作者七人而觀之，則在當時亦已多矣。蓋皆足爲一世之賢才，豈必謂亞於聖人之大賢也？至於吾未見其人，則并舉行義以達其道而言，非但指隱居者也。夫世之標榜自銜，無實盜名者，固不足道，若乃生乎叔季而心存古昔，所慕者賢人之德，所求者道義之志，身既不出，則隨所處而以隱自名，有何不可？”問者幡然悟曰：“唯唯。是不熟讀《論語》之過也。苟以是也，他不暇言，如扶風金公之居乎溪而謂溪隱，豈非其人耶？”余曰：“正吾意也。是公也貌古而心厚，與物無競，性好經籍，德孚鄉黨，雖視古八人七人者流，孰爲優劣？而足使末劫僞學貪漢之冒居者，知所愧死，則信其無辭也。”

耕隱說【丁亥】

余過扶風之富谷，見鄭友德重扁居而以耕隱，問之曰：“耦耕沮溺，古隱之過中失正者，子何慕焉？”主人瞿然曰：“吾自昌平來，耕茲土已三十年，只以記實，并非偶意。然如其嫌於沮溺也，請亟去之。”余曰：“毋傷也。事固有名同而實異者，同一學問而有爲己爲人之分，同一仁政而有以行以假之殊，彼之隱耕而鳥獸同群，何與於吾之隱耕而事有盡責乎？且子今亦倦矣，方舍野田之耕，而專硯田之耕，用紹文清家學，適茲邦國維新，心力不衰，壯行素志，展步有日，安知不以所嘗用功於禮學者，助成大宗伯辨上下定民志之治也乎？苟如是也，雖欲久隱於耕，亦不可得矣，請書而俟之。”

啖松說【丙寅】

夷齊採薇，經傳無見，有疑馬《史》之非其實者，其信太深責太苛者，至有愧食周草之語，要之俱非通論，無經傳而輒疑之，《史》可以無作，盡信《史》又不如無《史》。蓋所不食者周祿也，非粟也。粟且無傷，況乎草乎？人非菽粟，不生，薇可以常食乎？疑與信之間，可以知夷齊之心與事矣。然獨疑根莖皮

葉，何所不宜，而必味苦之薇，採爲是必薇，爲首陽之產而取其適然，又不肯屑屑求他物爾。噫！顧今日何日也？惟附賊食料者，臍臍然豕肥，餘皆頹頹然蠶殭，而士尤甚焉者，以彼竭財源絕食道而魚肉我也，是不待有夷齊之節，而自不得不草木食矣。余比年多旅山齋，到處是萬株松林中，嘗聞服松葉，令人輕身益氣，清心少睡，治風去濕，消痰殺蟲，安臟腑壯筋骨，誠不費之良藥，最是荒年可以療飢，遠路可以代糧者，正作吾人今日無量大用。故閒嘗試服，每食少遠細切，數匙納口，飲清水吞下，灑灑然腸滌塵，習習然腋生風，既而腹果然過時不乏，可供窮餓者間助，而信前聞之不誣也。乃告同志曰：“人既非夷齊，地又非首陽，松與薇均爲可食則同。且無味苦不常食之患，而有衛生去疾之益，是則人雖不倫，物復反勝，詎非吾人福幸？抑有一焉，孟子曰：‘奮乎百世之上，百世之下，聞其風者，莫不興起。’吾於是敢曰：‘苟能不食彼食而啖此松者，未始非聞夷齊之風者也。’同志乎！勉乎哉！”

金聲遠字說【甲子】

維歲甲子陽復之月望日甲子，從余遊者金氏秀堯鍾突弁之辰也。既冠，奉其重堂之命，問字於余，余以聲遠欽之，且告之曰：“夫鍾器之大者也，器大則聲長，聲長則聞遠，理之固然也。其存乎人者亦然，道積於厥躬，教加於天下，令聞長乎百世者，詎非人中鍾乎？蓋自生民以來，集群聖之大成而賢堯舜，光湯文者，惟孔子也，可謂人鍾之大者。故曰：‘天將以夫子爲木鐸。’韓愈氏以爲‘其聲大而遠。’，其信然矣。自是以後，群賢哲之鍾，若大若小，雖有不同，就其大者而言之，三綱八條，一誠三德，明道學之準的者，曾思之鍾也。遏欲存理，閑聖闢異，七篇雄辯，煌煌百世者，孟子之鍾也。啓言湮於太極之圖，訂群頑於《西銘》之作，周張之鍾也。得不傳於遺經，洙泗之統復續，折衷百家之論，經傳之旨，日星乎天者，程朱之鍾也。至若徹道源而抱王佐，秉《春秋》而正人心者，栗尤其鍾，爲左海孔朱也。後栗尤而鳴乎近世者，白山翁，尊德性破心宗之鍾是已。聲遠頌然而秀，才敏而志敦，聲氣清和可樂，豈終作小器者哉？今其所讀者孔孟程朱栗尤之書也，所私淑者白山翁之旨教也，吾望其

鎔鑄乎古人之模範，而厚積乎虛受之中，發之爲洋洋昌言，颯颯文章，當此乾坤長夜，萬姓昏夢之日，鏘鏘然一撞清晨洪鍾於百尺樓上，嘹唳聲聲，遠逮乎六洲八字，喚醒天下人聾聵者，將有日也，方且向風側耳而俟之。雖然，吾嘗聞之，真正英雄從戰兢臨履上，做來雷聲之發，未嘗不自淵默中出，此又非洪其鍾遠其聲者之所當知乎？戰兢淵默四字中，蓋自有無限事在，而向所謂範古而積厚者，非此乎？聲遠乎！勉哉！剛其體宏其中而充其量，勿自戕其器而少之。孔子不云乎？‘立身揚名以顯父母。’詩不云乎？‘永言配命，自求多福。’配命成身，垂令聞而顯親，天斯錫其祚矣。故於聲遠之冠而字也，作此說而勸之，用替眉壽景福之賓祝。”

崔以求以貫字說【乙丑】

孔子曰：“好古敏以求之。”，名敏烈而字以求者此也。又曰：“吾道一以貫之。”，此一變名而以貫字也。蓋敏求者心不踰矩之功也，一貫者心理無間之妙也，一貫體，敏求用也，一貫誠，敏求敬也，一貫敦化，敏求川流也。然敏求通乎上下，一貫造其極至，學者當用力乎敏求而馴致乎一貫也。然則敏求始之事，一貫終之事，始終相資，有如人之兄弟相須，今兄以以求，弟以以貫者，不亦宜乎？以相須之兄弟講相資之學，宜無不至之理，二崔君勸哉！

許正老而中名字說【丁卯】

許君正老其名，其大人肇錫之後，自改呼以明甲，或元瑞，并非有取義也。日許君復其初名而曰：“是吾親之命。”，舉實質於余。余曰：“善哉！已孤更名且非禮，親在而棄其錫名，其將謂何子其免矣夫？吾則欽之以而中，其可乎？”。因爲之說曰：“正者天下之直道，中者天下之至善。孔子曰：‘人之生也直。’，劉子曰：‘人受中而生。’，均之爲人生命脈，而非有二焉。然正就淑慝兩塗，對邪而言，中就善一路上，對過不及說。故正而不中者容有之，未有中而不正者

也，斯義也，昔賢已言之矣。吾願君之母或有不中之正，而必正而中也，欲正而中，非義之精，仁之熟，不能與此。吾願而中之自劇讀實踐而始也。嗚呼！父錫之正，師欽之中，勸哉而中！”

李士進字說【己巳】

十五而志學，七十而不踰矩，雖爲聖人，謙己誨人之言。然朱子斷之以必有獨覺其進而人不及知者，此蓋云年彌高則德彌邵也。然則雖謂聖人之學，亦隨年而進，不爲過矣，而況平常人乎？古者二十而冠，冠而後始責成人者，待其學隨年而稍進也。李氏子康年，年十四而冠，其師可石朴公字之以士進，俾余替述其意。余惟士進固頎然秀而夙成者，但未知博學惇孝悌，亦如古人弱冠時乎？夫年進而學與進者，不失天地賦與之理氣，不負父母生成之恩愛，圓顛方趾，挺然直立，俯仰無愧者也。年進而學不進者，積費麻絲，梁肉，喫著無盡之養，而無行能之益人，久視日月之光明，聽風霆之鼓動，而昧見聞乎物理，靠負天地父母生成教養之恩，自棄靈心善性萬理皆備之稟，徒以曹交之長，原壤之老，偃然自尊而不知恥者也。人之擇所以自處者，將奚居焉？今士進年雖少，尚及聖人志學之時，雖氣稟之不齊，未能循序精進，一如聖人之爲顧心與性，則與聖人一也。苟能自少而壯，自壯而老，循循孜孜，竭吾才而變吾質焉，則雖不中，不遠矣。石師所以命字之意，豈不在斯歟？士進勸哉！

龜姪克範字說【壬戌】

龜乎！爾非四靈之一乎？洛書理之大者也，天必於爾焉著之，禹箕之聖，取以衍《洪範》，異哉！炯龜乎！爾非萬物中最靈者乎！人之道大備於《洪範》，而必能盡乎此然後，不愧爲最靈，易乎哉？故於炯龜之名，字之以克範乎爾，其克乎此範，出拔於人衆，如靈龜之於昆蟲也。範之道廣大，難以要領，切近下手，當自二五事始，是又不可不知也。噫！龜者壽物也，壽爲《洪範》五福之首，龜

而克範, 所謂永言配命, 自求多福, 其在斯歟. 於是乎作此說, 用替眉壽宜嘏之祝.

正統論上【甲申】

正者得天下以正也, 統者統一天下也, 雖統一, 而得不以正 則不得爲正統, 雖得之以正, 而不能統一則不得爲正統矣. 試質千人萬人, 此言不當乎理則已, 不然, 三代以外, 可得爲正統者, 惟漢明而已. 如唐之明政治, 宋之尙寬仁, 而享國長久, 其得不以正則均矣, 亦不可與於正統也. 曰: “然則子違乎《綱目》之例, 柰何?”. 曰: “義理者天下之公, 故善觀理者惟是是從, 不問其言之出自何人. 《綱目》既於秦晉隋之得不以正者, 以其能統一, 與以正統, 推是例也.” “若使新莽身不受誅, 而傳之子孫, 亦將與以正統耶?”. 吾故曰: “《綱目》未成之書, 朱子固以未修正爲恨矣. 夫詩之不得爲正者, 爲變風變雅, 秦晉隋唐宋謂之變統則固可矣. 夫士君子立論, 當以十分至當者爲歸, 使善有所勸, 惡有所懲, 彼以私智強力, 無所不至而取天下者, 猶憚後世史策之譏誅, 如曹操者徘徊漢鼎之傍, 而不敢直取, 士之秉筆者, 顧不究正與不正, 但視其所成與以正統, 則何所勸戒乎? 如使編《綱目》之日, 有人以此說明白稟質, 則安知朱子不莞爾而從之也耶?”. 曰: “如子之言, 後世更無正統, 而幾千年變統中過了矣, 豈有是理?”. 余曰: “九十之春, 晴景常少, 從古以來, 亂日常多, 世之多變少正亦是理也. 且莫說變統. 雖無統, 柰何? 若六朝五季與今之天下直無統耳. 然自漢亡至明興, 千有餘年, 始有正統, 亦何憂後世之終無正統乎? 使今世有以正得天下而王者, 豈不爲正統乎?”. 曰: “此則然矣. 朱子又以不能一天下, 亦不得爲正統, 而《綱目》蜀漢之正統, 無異辭, 何也?”. 曰: “雖失區宇而僅保一隅, 其先世之正統猶在, 苟不至於亡, 則不可得而奪之也, 吾何間焉? 但於《綱目》, 東周君之不與正統, 深疑之也.” “東晉南宋, 如之何?”. 曰: “此亦當與其繼西晉北宋之變統矣.”

正統論下【甲申】

若夫中國生靈，盡爲魚肉，而夷狄之君入主，能以仁德，除暴亂治萬姓，而盡有天下，衆推以爲帝矣。又能遵先王之道，倫常禮樂一出於正，則當與以正統乎否？曰：“《春秋》之義，不然乎？夷狄而進於中國，則中國之，中國而入於夷狄，則夷狄之，此可以斷之。蓋華夷之分，在於道與不道，禮與非禮，非以地方別也。人者天之所生，地之所養，自天地而視之，均是人也。五性七情九竅百骸，非一全一闕，豈有內外遠近之殊乎？苟合道禮，雖夷種，猶華也，不合道禮，雖華種，猶夷也，能正統矣，而惟地與種是別而不與之，是豈天地至公之心乎？”女后則如何？曰：“天之所賦男女之形陰陽已定，大小長短動靜強弱，元自有尊卑之勢，安得以女子，加於丈夫之上而爲主乎？是則不待呂雉武曩，而後爲大變也，雖有賢智，正當補佐夫與子之爲天子者而已。自立爲主，已是變之大者，又何論正統與否？”

叔孫通論【戊申】

蘄氏有言曰：“士之品有三，志於道德者，功名不足以累其心，志於功名者，富貴不足以累其心，志於富貴而已者，則亦無所不至而已矣。”孔子所謂鄙夫也。漢之叔孫通，欲制禮樂，以魯生之不從謂鄙儒，以余論之，魯生非鄙儒，通眞鄙儒也。夫自道學衰，列國之世，銜玉求售，乞墦求飽之士，踵相尋也。朝臣於魏而夕於秦，今日事齊而明日於楚，彼權謀辯說之徒，固未可一一責之以道。至若通以誦法聖賢之身，事焚書坑儒之朝，而獻鼠竊狗盜之諛，屈於洩溺儒冠之人，而變短衣楚製之衣，苟趨祿利，若蠅之逐臭，犬之舐糠。其未得之也，諛於秦而得之，恐其不得於終則歸於楚，不得於楚，而又歸漢。觀鼠竊狗盜之語，則苟死生逼前，雖弑父與君，將可從也，觀短衣楚製之爲，則苟富貴可得，雖被髮左衽，亦不憚也，向所謂鄙夫之無所不至者，非通之謂耶？魯生所責公事十主，面諛得貴之云，正是勘罪得情，彼苟有良心，將愧死之不暇，乃反謂鄙儒而笑之。蓋徒知魯生不肯趨時之爲鄙，而不知自己汗行

之爲鄙，不亦笑哉？余故曰：“叔孫通之制禮樂，乃屠家之禮佛，娼家之讀《禮》也。”噫！先儒有以通爲盜儒者，余於盜儒，又何足論？但太史公之言曰：“叔孫通希世度務，制禮進退，與時變化，卒爲漢家儒宗，大直若誦，道固委蛇，蓋謂是乎！”余竊怪夫太史公之謬獎也，未知事焚坑之秦而面獻阿諛者，是可謂儒宗乎？朝事秦而夕事楚，夕事楚而朝事漢者，是可謂儒宗乎？棄法服而服短衣者，是可謂儒宗乎？又未知董仲舒，劉向諸儒，其亦尊以爲漢家儒宗乎否？余謂後人之希覬時勢，行同犬彘，自以爲制定法度，利澤天下而覲然無恥，實自太史公贊叔孫通啓之也。余之論此也，非爲叔孫通也，爲太史公也。

漢文帝不相竇廣國論【丙寅】

普同之謂公，一偏之謂私，循理之謂公，循情之謂私，公固公，私固私，亦有似公而非公，似私而非私者，有意爲公，似公而非公，不避嫌疑，似私而非私也。若漢文帝不相竇廣國，其有意之公，避嫌之私乎！夫天下之治亂，係乎相，相之臧否，係乎德，其用舍任罷，當與天下共公之。苟其人之賢也，親亦用，疏亦用，其人之不賢也，親亦勿用，疏亦勿用，固不可以親而枉用不才，陷一偏循情之私，亦不可以親而舍賢不用，歸有意避嫌之私也。廣國之賢，吾不可知，文帝既云賢有行，則其心以爲朝臣無出其右，而但以皇后弟故，恐人以爲私，而久念不用，此枉屈莫重天下治亂所係之相國，曲徇區區一箇計較商量之意，其欲爲公者實不公，其欲無私者乃真私，自家一副身子，尙此柰何不下，烏足以盡群賢之用，躋天下於隆治乎？盍觀堯之傳天下於其甥乎？武王之任冢宰於其弟乎？弟甥之親，非后弟之可比，天下不以堯武爲有私，不以舜周爲冒受者，以舜周之才可任，而堯武之心無愧也。吾以爲文帝之避嫌而舍廣國，由其未嘗問道明善，無得乎心而內自不足故也。或曰：“戚畹之禍，國勢所必至，文帝之爲此，所以鑑乎諸呂之亂，而防微杜漸也。以此爲防，猶有王莽之禍，文帝其可謂先見乎？”曰：“未然也。慮後世之患而不用賢而致治，是憂他日之噎而先自廢食也，豈可乎？且宗室而有管蔡，疏遠而有卓

操，從古禍國家者，豈皆戚畹乎？然文帝之慮，若出於此，則其見雖未必是，其心則可知已，吾何苟訾？但不過爲一私字所崇，擺脫不得，此其所以爲文帝而已，而吾議之到也。

漢文帝得玉杯改元論【丙寅】

元可改乎？元而可改，名實紊。玉可寶乎？玉而可寶，所寶非賢。壽可延乎？壽而可延，妖壽亦貳，其害道貽弊大矣。時君世主固不足責，漢文帝古今所稱賢君也，乃得一玉杯，刻延壽字者，輒改元年，余嘗惜其昧於實理而惑於神異也。夫祥善壽仁，雖理當如此，非天諄命付與也，堯舜三王之德，如彼其盛，何曾見一般神異延壽錫福，著於經傳者乎？假使文帝親見神物之天墜而地湧，可付諸冥漠不可知已矣。如或信之爲天賜，益思謙恭勉勵，卒副神惠可也，乃驀見此物，輒謂帝鑑我德，降茲大瑞，不暇察新垣平之詐而充然自滿，至於壞破舊典，倒改元祀，何其迷且泰哉？自是以後，元鼎神爵之屬，紛然而起，武帝之末，仙掌屹於柏梁，玉趾遍於海上，糜費財幣，天下虛耗，幾致喪亡，未始非文帝啓之也。人徒知文帝躬修玄默，節儉愛民，爲漢家第一善治主，不知其惑神寶異，祈福破典，啓後世無窮之弊也，故著論如此。然此豈有心之惡哉？以其失問學而不知道也。噫！王者之不可不學，有甚於他人也，有如此夫。

直不疑償金論【丙寅】

君子之應萬事，直而已，是曰是，非曰非，有謂有，亡謂亡曰直。直不疑買金償同舍郎，古今稱長者，然余則以爲非直道也。孔子以微生高乞醢借人爲不直，不疑之買金償郎，其心雖非曲意徇物，掠美市德者，以無謂有，不告人以直則同也。蓋亡金郎非市井無賴之人，不疑非素有汙行之稱，館舍是出入頻煩之所，當亡金郎之疑不疑也。不怒不恥，告之以實曰我初無是也，則彼應

不強迫人亦斟量。少間端緒乃見，乃纔見致疑，即謝有之而償之，何也？無乃其質之優於不校，而忽於應直之功歟？雖然，睚眦以爭仇隙成，錙銖是利，獄訟興常情也。人方加我以惡名，而報之以金財，使慚服於當時，歆動乎後世，其雅量高風，卓乎難哉！長者之贖，不亦宜乎！然寬柔仁厚之謂長者，當理盡道之謂君子，不曰君子，而曰長者者，可以知其意矣。

鄧攸棄子論【戊申】

父子天定之倫，生則俱生死則俱死，子而棄父，父而棄子，皆逆天者也。故余嘗以鄧攸之棄子保姪爲逆天不仁者，而又怪夫上下千餘載，秉筆論人者，無有一言貶斥也。或曰：“子者一己之私恩也，兄弟者父母之子也。鄧攸之棄其子，所以全亡弟之子，是可謂不以己之私恩，害兄弟之倫者也。若程子所謂愛父母之子，却輕於己子者，正逆天而不仁也，今反加攸以是罪，不亦過乎！”夫攸之棄子，固出於愛弟之心，但於其間處之失理，不覺自陷於大罪，豈不惜哉？蓋父母之子，雖重於己子，若以天地之大經言之，則子之與姪，亦自煞有輕重，況於死生存亡之地，尤何忍反輕其子而舍之，重其姪而保之也？夫君子之處事，不問未來之成敗，惟觀義理之當否，當其時也，爲攸計之，不如并取子姪而兩全之，子姪俱得全生則固好矣。如使子生而姪死，既非負於亡弟，姪生而子死，亦無憾於天倫也，雖不幸而兩不得全，是乃所以盡吾之道而無愧也。顧不出此，乃割一體之愛，棄之於盜賊兵戈之中，是可忍哉！是可忍哉！如使其姪是亡兄之子，而爲宗廟祭祀之主者，則義之所在，情有時而奪，容或可爲，而猶有爲攸分疏之地，今既不然，則雖不欲加以逆天不仁之名，豈可得乎？此朱子所以不欲載於《小學》，而劉子澄竟載之者也。

買牛山論【庚辰】

人有恒言皆曰：“聖人必前知。”，豈其然乎？聖人必前知也，堯不用四凶，周公

不任管蔡，孔子不遭厄陳宋也。難之者曰：“聖人無前知也，《中庸》之書，何以曰：‘至誠之道，可以前知。’乎？”曰：“是知也，異乎人所謂知也。朱子釋前知也，以禎祥妖孽著龜四體爲理之先見而曰：‘惟誠至者察焉。’然則此不過因理之先見而知之，非有一種神異之術也。故理無所見，雖堯與周孔，亦有所不能於前知也。顧世之人，乃謂學而至於前知然後，道通而爲聖爲賢，於是尊祖崇賢者，轉相慕效，至或不究事理，傳會流傳，遂成實蹟，反歸所尊於不誠不知之科，豈非惑乎？余於世所稱晚六崔先生買牛山事，竊嘗疑之，以爲使太祖有異志於是時也。太祖大略也，宜恐樞機不密，謀洩事敗矣，乃反歌大風而預露真情者，語不成說，使見其有異志也，先生忠臣也，宜思所以除患保國，無所不至矣。乃不惟縱之，使任爲，而又請買國土，先自許心屈節，而取他日隱遁之地，不臣之名者，尤不近理。且先生儒者也，儒門善行，忠爲大節，若先生而有是，豈儒門明善擇善，以致至誠前知之道乎？且使太祖實歌大風，其有異志，可謂聲明國中，不但理之先見，何獨先生知之，而以是爲足貴乎？亦可見其說之不通也。吾於是斷然以爲先生決無是事也。信其說而稱述之者，無乃不免世風而反累先生歟！究其由，蓋緣不知聖賢，雖有前知之道，而容有人事之不能前知者，不害爲聖賢也。嗚呼！此可與知者道也。”

難之者曰：“是說也出於李芝村瑣語，而後人多遵用，子何敢乃爾？”曰：“古人不云乎？據史不如據經，據經不如據理。是故梅山據罔僕之語而辨馬史之封箕子，孟子據至仁之理而疑武成之漂杵，況於一時隨聞漫錄，非史非經之瑣語乎？此義也，吾亦有所受焉。”先生後裔將重刊實紀，問余以是案，念事係講義，不容含默，忘其僭率，謹論而答之如右云爾。

不得罪於巨室論【庚辰】

孟子有言：“不得罪於巨室。”，朱子釋之曰：“得罪，謂身不正而取怨怒也。”，鄧退菴解之曰：“不得罪，謂合理而不致怨，非曲法以奉之也。”。今之士子則不然，於斯文是非者，既心知其曲直矣，亦復時見於辭色，而旋輒諉之曰：“孟子不云乎！不得罪於巨室。雖使彼曲且非焉，年長也，識博也，黨衆也，則亦

士林中巨室，我何以得罪於彼也？”嗚呼！巨室巨室，豈其尊於父師者，而父師可棄，巨室不可貳乎？此乃不正其身而避怨怒，舍正理而不致怨，曲法而奉之也，是豈孟子之意哉？將聖訓而美之以濟己私，其罪豈但為侮聖乎？於斯人也，又何足責以士子？

家規【甲申】

祭祀者萃子孫之誠，致祖考之神靈，而子孫所為，常若聽命於祖考然。乃人倫之究竟，有家之大關，故祭祀誠則子孫昌，祭祀無誠則子孫衰替，可不慎哉？

祠堂者祭祀之所也，祭祀不可不誠，則祠堂不可不建。故君子將營宮室，先立祠堂，雖甚貧，期於極力營建，不可苟安祀版於居室一隅之壁龕也。

祭莫重於時祭，雖貧，當行時祭，萬不得已，而只行春秋二次為可。祠堂朔望參，若貧甚則依古者士無月半奠之禮，只行朔參亦可。

奉祠堂之主人，每晨早起，行拜謁禮，然後命家眾各執其業。

昏定晨省，子孫事父祖之疏節，本不足為大事，而近世以來，倫理墜地，行此者亦絕少，甚可寒心。此猶不行，安得為子孫？必須惕念行之，而當先於主人晨謁之前。

《禮》云：“祭也者必夫婦親之。”，今俗於喪中祭以外，主婦行亞獻禮者甚鮮。此不可效，尤必須依禮行之。

喪不執禮，何可謂人子？人必稱貧窮服役，不能執禮，此不成說。士農工商，各有其業，士以外，安得衰經塊坐？但心有哀戚，而自不犯禮防則斯可矣。至於聽樂嫁娶者，雖謂之非人類可也，司馬溫公固曰：“國有正法。”，此不復論。冠婚喪祭，俱是小事，而俗語獨稱婚姻為大事者，良亦有理，其不可以盡心乎？求婚之方，如溫公所論察壻婦性行及家法何如，勿苟慕其富貴等說，蔑以加矣。此當遵行，至於無先世閥德而徒然富溫者，目下雖有小小稱譽，切勿與婚，至可。

人必稱婚姻，當觀生氣，不問其先世，所謂生氣者，指子孫繁衍，食道豐裕而

言也。噫！常微之家，獨專生氣，而士夫之家，獨萃死氣乎！

吾聞夫婦二姓之合，未聞同姓之合也。東方之自羅麗以降至今，猶有同姓之婚，而未變夷狄之俗者，實所痛恨。國既有禁，先輩亦胡爲而冒行也？吾自主婚以來，截然不行，已成家法，後日子孫，若不遵守，是幸其父祖之死而自甘夷狄之歸也。

葬地勿買掘塚賣渡之山【曾已掘去者勿論】，切勿偷葬於他人先山當禁之地，至於平葬者，與棄尸同，名之曰賊子。

先世誌狀，毋得妄託於人，此是先師家規中語，而實爲理到者，故表而出之。宗孫是奉祖廟者，敬宗孫，所以尊祖也。凡干生養死送，皆當先宗孫而後支庶，至於言語拜揖，亦當一層加敬。

庶子庶孫亦同受吾父祖血氣，不當賤而疎之，乃其名分，天之所定，非人之容私也。待遇之節亦不可太沒斟量，使之越防犯閑，竟至凌嫡也。

托於貧窮而不教子以文字者，是賊其子，而自絕於父道也，安可望其子之行子道，不賊其父乎？

宗族男女通內外之限，當至於三從叔姪之妻，自四從嫂叔不許相見。

今俗於出嫁姑姊妹女死後，其夫再娶之妻謂之芽姑芽姊芽妹芽女，相見而往來頻煩，彼又呼其夫前室之黨，而父兄弟姪而無愧，甚則視爲親庭，而課歲覲寧者有之，其爲妄悖醜褻莫甚矣，切宜戒之。

朋友十年以上，不可呼字，而歲後一拜可也。《禮》不云：“十年以上，則兄事之。”乎？

施惠於人所不報之地，謹禮於人所不見之處。是爲陰德至行，天必佑之，可不勉哉？

先蹟思問

麗制郡事，非與郡守同，乃統知十餘郡，或七八郡。郡則自有其守，在湖南則有益山郡事，靈光郡事，古阜郡事等，官如本朝觀察使，乃重任也，《明隱集》謂官微，此失考也。

壬午譜云：“僉知公世宗朝登文科，李施愛亂，以簡才更占武科。”施愛之亂，在世祖朝，壬譜世宗之云誤矣。丁譜仍之，失於不察也。

壬午譜云：“梅竹堂公隱德不仕。成宗曰：‘如是之人，若不揚其高潔，一世儒風將滅。’畫其梅竹，取其玉杯，雕其象劍以賜之曰：‘我國君子，惟金宗而已。’”此非惟不見於癸巳譜，在癸譜百三十年前，去公時不甚遠之雙柏堂李公所撰墓碣，亦無見焉。此若實事，豈有不載墓文之理？故澤述於丁譜曰，稟門長老而刪之矣。

梅竹堂公配蔡氏，外祖校理南平曹彙也，而癸壬兩譜，書以大提學朴仲林，主簿公配趙氏，外祖生員南原楊均也，而書以永膺大君琰。考蔡趙兩譜，則朴公仲林，蔡氏父碩卿之外祖，永膺大君，趙氏父淑琦之外祖，此固不察誤書之故，而其必上越一世而取錄者，兩處皆同，何其妙也？其或乍見名位著顯之人，不覺欽慕，而未及致察於上下世系歟。朴公則丁譜已改正，永膺則未及耳。

參奉公配清州金氏，父進士敬一。嘗見咸平李氏世系，竹陰萬榮，竹谷長榮之父碩，有女婿金敬一，而年代相當。故丁譜曰，金氏外祖，書以咸平李碩矣。更思李系，不書清州之貫於金敬一，則安知其必然耶？故後復刪正於家藏譜耳。聞高敞郡造山里金子順爲清州之金，專往而見其譜，則是爲派譜而非大同者，故無考焉，可嘆。

直節公之父諱鏘，壬譜云被選南臺，丁譜仍之，此四字何謂也？臺者司憲府也，南臺者不以文科出身，以隱逸南行爲司憲府官職也。我國甚重南臺，人家所罕有也。既臺官則若掌令持平執義監察，何不據名直書，只云被選，使人沈吟也？抑以只入選望而未得實職歟？

直節公子諱瓚之嶺伯戶參，亦始出壬譜，而丁譜仍之者。舊譜之官，錄於後譜，必明書其所據文字，然後乃可無後人之疑，今不能者何也。

西溪公之孫坐忘公諱灝，字浩浩，壬譜錄以沙溪金先生門人，此必見《尤菴集》有代旌善郡守，金灝祭沙溪先生文題目而然也。觀於譜錄所云先生之葬，爲文祭之者，可知矣。余亦少時見《尤集》，而信壬譜之錄，請竹溪先祖墓碣於參判金公鶴洙之日，至載坐忘公師沙溪事於文中，備說竹溪公餘韻所及及兩家世誼矣。後復廣考，則尤菴所代作文之金公，乃貫光山，字止彥，而與

尤菴爲戚兄弟者，若據《尤集》，而認坐忘公之爲沙溪門人則誤矣。抑沙溪明宗戊申生，坐忘宣祖癸巳生，坐忘之於沙溪，少四十五歲，可當師生之年？且能文章，登巍科，遊宦京師，其或出入溪門，亦未可知也，世固有同姓名而爲同門者矣。

梅堂公家狀中有云：“慕齋金公贈詩曰：‘不見梅堂久，胸中鄙吝生。滌心亭下水，一樣古今清。’”，而不見於《慕齋集》。故余嘗見慕齋後孫炳菴丈駿榮而誦之，則炳菴收錄於《慕齋續集》草件中矣。後每遇人問慕齋先進，梅堂後進，一樣古今清之詩，似有梅堂身後作之意，是何故耶？余因此問而考思之，則梅堂生年，雖不可知，然其於四兄弟序居三，想於季弟雲江公，多不過長五六歲，而雲江嘉靖戊子生，慕齋成化戊戌生，雲江少慕齋五十歲，而梅堂則少四十四五歲矣。年既踰等，位亦懸殊，何得贈詩，若朋儕間之爲？且況家狀云晚年築滌心亭，則是時慕齋，豈得生存乎？且況古今清之詩，意可以身後看，誠如人問，豈不尤無當乎？竊意是詩他人所作，而誤認爲慕齋詩也。嘗見東湖許公震童集有贈梅堂詩，上聯與所謂慕齋詩者純同，亦未知其何故也。下聯則云今宵相對話，心肺豁然清矣。夫梅堂之於慕齋，年代相後先如是，而洗馬李公度中不察，而載詩語於銘狀，炳菴以慕齋本孫而亦然，二公皆以博雅稱猶如此，況如余之鹵莽而又在少時乎？

世傳礪巖公丙子亂，隨父參奉公，入旺登島。故本孫記聞說中，既載此語，又至有我先師良翁《觀礪巖金公遺墟記》之作。然以金公聖甲所撰行狀考之，公萬曆己未生，十七丁外艱，十七卽丙子前年乙亥也，丙子隨父入島之云，豈不自歸浮說乎？蓋世間傳聞之不足信，有如此者矣。

徧告國中諸金氏文【辛未】

竊惟人之生也，有男女之分，有男女，故有夫婦，有夫婦，然後有父子君臣長幼朋友，夫婦者人倫之始，萬福之源。故聖人重之，制爲婚姻之禮，必使求諸異姓者，爲其防淫佚而恥與禽獸同也。考諸史策，雖治亂不一，污隆無常，上自帝王下至士庶，未聞有踰犯防閑者。惟魯昭公娶於同姓之吳，而知非禮之

恥，諱之爲吳孟子，至於王莽妻王氏，篡賊所爲，初不足言也。然莽既篡漢之後，凡劉氏皆改爲王氏，其子婦劉氏則不改，是莽猶知同姓爲嫌也。然則先聖禮法之嚴，爲何如哉？我國素稱禮義之邦。然至於此事，不甚嚴正，同姓之婚，多諉異貫而行之，蓋因羅麗陋習而餘俗尙存也，取夷風之譏於華人宜矣。《國朝大典》既有貫異姓同，毋得爲婚之文，則宜若一切革舊貫，咸與維新而不能者，上不實施，下不實行，徒有名而無事，因仍苟且，泯泯棼棼，雖號名家碩德，亦不免同歸，可勝歎哉？尤菴宋先生有言曰：“貫異姓同，東俗不嫌通婚，得罪禮法深矣。朝家行禁條，以禮法導民，而民乃不從可乎？”此言峻正可法。惟我金氏，本貫雖多，舉同出於敬順王，上下長季之分，昭穆之次，明在史牒，其最相遠者，不過四十世以內同祖，雖以得貫前無稽之家言之，究皆本於大輔公，而其爲同源則明甚，與他姓之姓同，而容有異源者有異，尤不可諉以異貫而通婚也審矣。雖異源，如首露王之後，在遠嫌之道，亦一切勿論可也。蓋此禮禁既定於聖人，亦著於國典，決不可曰先世已行，名碩通例，而從其未違改正者又審矣。澤述蒙陋，自少時常以是爲未安矣，及至身主子女弟姪嫁娶者累次也，皆必求異姓，永爲家法，頗覺心下穩貼。區區非敢異衆自矜，特以國中諸姓同源明而通婚多者，未有如我金氏，則非禮之恥，華人之譏，亦應我金氏多受。故不揆僭率，敢以已所先行者，徧告全國金氏僉座，欲同歸於遵禮守典之地。伏願僉尊深究精察，齊聲相應，同心力行，成一世之美俗，洗千古之陋風，千萬幸甚。

通告宗中文【丁丑】

竊以夫人之生，必本於祖，本之所在，豈敢以久遠而或忘之而不報之也？是故三閭紆高陽之苗裔，周人舉帝嚳之禘事，後人於此，寧不思所以法之乎？昔夫新羅之末，敬順王以國讓麗，太子諫曰：“當與忠臣義士，以死自守，力盡而後已。柰何以一千年宗祊，數千里疆土，一朝與人乎？”及其不聽也，則痛哭入皆骨山，麻衣草食，以終餘年者，載在羅史，皆骨卽今之金剛山也。其炳然之忠，凜然之氣，光日月，亘天地，曠千古而無儔，惟後漢之北地王，可

比并焉。所以東京義烈，北地英風，出於梅月堂金公之手刻，凜凜一王子，令名獨千春，出於四佳徐公之詩句，而爲百世之不刊，萬口之公論也。我扶寧之金，爲其裔孫，家牒所載，既是世傳，加以國中文獻之多有明徵，其不可以爲久遠難詳而不本之也審矣。夫以教養之有所受，孟子謂人樂有賢父兄，則義烈特絕之祖在上，而子孫儀刑之有所自，則又當如何？竊意吾金正學直道純忠卓節之賢，連世不絕者，本自是祖而來，亦不可誣矣。惟是亂亡之際，事多未遑，逃竄之餘，嗣承遠居，而皆骨之山，天下之僻處，毗盧之北，觀音之西，皆骨之僻處，陵墓所在，儀物不備，苾芬久闕，幾乎叔梁之葬難知，信陵之墟易泯，無足怪者。然忠義所慕，靈異所感，寺僧峽氓爭先芟掃，以敬以護，不啻若〈召南〉之棠，峴山之碑者，爲千餘年矣。至于近日，金剛名勝益聞萬國，汽電通車，探賞輻湊，流峙奇絕之外，古名人遺跡，尤競先覩之爲快，則莫不曰於名山見金剛，於名人見太子遺跡。於是一邱之閔，萬年之藏，聲聞于世，盈人之耳目，若孔書之出壁，周袞之來東，皆驚聽而願見，矧在吾金之爲裔孫者乎？送相駿奔，後先展省，則斧堂無恙，精魄永安，當日之忠諫痛哭，如聞其聲，千里之鷄林月城，若在此地。夫過大梁者或佇想於夷門，遊九原者亦徊徨於隨會，彼賢非絕特親，非族類，尙因其地而起感想，矧在吾一氣相傳，高風滿世之顯祖，而省其墓者，豈不惻怛追慕，謀所以虔奉哉？前此十數年，近居慶州後人金永弼金永日，釀金略祀，歲以爲常曰：“是祖也，不忍以直傍而異視。”，又因高城倅寄助，而立契取息以立表石，其心孔仁矣。近又有兩湖人士，將議豐碑之樹曰：“入此山而不記念此事，是不免虛到。”，其義亦高矣。夫好德之心，人之同然，而無間於親疏，彼仁義者之爲此舉，自是美事。然在本孫奉先思孝之道，非但有好德之同然而已者如何？不盡誠於儀物苾芬之方，而讓於傍孫與他姓，則是不可使聞於人，亦將羞愧而自死也。昔者晦菴朱先生痛制置瑩之失守，訟之於官而崇土，尤齋宋先生恨進士墳之無傳，築之以壇而行祀，曩哲之於先事，靡不用極蓋如是。今此元自有墓，而又無可訟者，視朱宋之日，事之緩急，勢之難易，有相倍半而不待言矣。迺者鄙等諒情度禮，博詢爛議，以置田立碣爲歲事遠計之意，敬告于僉宗。惟願諸位，重追遠報本之道，奮慕烈念德之義，樂出誠金，克竣大事之地，千萬幸甚。

示家衆【己卯】

值此大無，溝壑之憂，人人關心，流離之慘，在在滿目，死生大矣。常情，安得不然？然孔子不云乎？“自古皆有死，民無信不立。”。信者何？人所以爲人之道，以一家而言，則子孝父慈夫婦義兄弟友是也。今觀鄉里無知之人，先動其心於死生之際，棄父母兄弟妻子，自求就食之方，政使得食而生，已失所以爲人之道，何以立於世乎？蓋無信而生則生而猶死，有信而死則死而猶生。願我家衆，深究此理，堅定其心，以孝慈友義爲命脈，聚首一室，同心協力，以根莖皮葉作食料，寧可有信而死，毋求無信而生也。且死生有命，聚居而未必皆死，分散而未必皆生，則何苦而先犯生而猶死之無信，而竟失有信而生之兩得矣乎？其亦惕念乎哉！

讀雙柏堂李忠肅公所撰梅竹堂府君墓碣銘【壬午】

竊惟靖陵之世，靜菴趙先生之當朝也，群賢彙征，期興至治。時則有若老泉金公，實與靜菴同德同功，而府君爲其所薦，則其爲可與同一彙征之賢審矣。及其禍作，金公又首與靜菴同嬰，而府君初不出仕。故不與靜泉同禍，于以見見機恬退一著，反或優焉。蓋府君從初一隱者，家牒所記己卯士禍後，隱居自廢者，以其從此永斷世念，并息交遊而言也。銘序只言金公薦，而不言己卯者，所以著超然獨免之意，不待於言也，覽者詳之。

告字音義【甲申】

先師平日據《論語》告朔章大文下小註告古篤反謂：“告朔是告廟之禮，則祭祀祝文敢昭告之告字音，當如此讀之，凡下告上之告，皆當如此也”。故及門之士，遵行無異。澤述嘗舉堯曰章敢昭告于皇皇后帝之告字以質之曰：“此爲直指祝辭，非但請行禮之比，而無古篤反之註，恐不必然。”。先

師曰：“告朔章既有此註，凡於所尊可知，餘皆倣此，豈必再註？”對曰：“然則朋友是同儕也，而忠告善道章註，以工毒反，何也？”先師曰：“朋友當相敬，豈非所尊乎？”對曰：“朋友是所尊，則告朔章既有此註可知，餘皆倣此，而復以工毒反註之，何也？”先師不復答，于時嚴不敢再問。退而考諸《字書》經傳之間，則有未達而滋惑者，庸是蓄疑爲三十年矣。《奎章全韻》告字，註報也啓也古到切，請也示也古沃切。《玉篇》，《字典》，報也啓也同，而請告也亦去聲，謁請也則入聲，而引《曲禮》出必告之文而證之，此爲告所尊而入聲則然矣。至於報也啓也，《字典》既引《廣韻》告上曰告，發下則誥之說，又引《書》之告厥成功，《詩》之言告師氏而證之，此亦非所尊乎？而去聲何也？若乃《詩》〈南山〉之必告父母，既曰告之之入聲，固爲所尊，〈干旄〉之何以告之，尚可謂用於大夫之尊，其餘若〈考槃〉之永矢不告，何所尊乎？又如〈既醉〉之公尸嘉告，《易》〈蒙〉之初筮告，瀆則不告，是神告於人，則上之告下者而爲入聲。〈葛覃〉之言告師氏，〈江漢〉之告于文人，是下之告上者而爲去聲，何也？《書》〈禹貢〉之告厥成功，〈湯誥〉之并告無辜于上下神祇，敢昭告于上天神后，〈盤庚〉之汝曷不告朕，乃祖乃父，告我高后，〈西伯戡黎〉之祖伊奔告于王，〈武成〉之告于皇天后土，〈金縢〉之乃告太王王季文王，我無以告我先王，〈立政〉之告嗣天子王，乃敢告教厥后，咸告孺子王，〈康王之誥〉之敢敬告天子，《易》〈益〉之告公用圭，告公從，《論語》之告於哀公，不敢不告，子路以告，《孟子》之有司莫以告，克告於君，公都子以告，陳子以時子之言告，高子以告，徐子以告，告齊宣王之類，或爲告君告師，或爲告父祖告天地，其爲所尊莫重於此，而并皆爲去聲，何也？凡此亦當曰以告朔章註爲例，而不必再註乎？竊恐無是理矣。故區區妄意以爲“告字去入，元無分於上下，但以經傳求之，則行其所無事矣。告朔出告忠告，請也示也之義，《詩》，《易》之入聲者，取其同韻而無他意，其餘皆元無分於上下者也。”然則祝文之必作入聲讀，吾斯之未能信者，謹記所疑，爲異日更加思索，卒悟師教之資焉。

見冬菊識感

甲子冬，余留兩日之南山齋。時值十月上旬，山月皎皎，朔風射人，彷徨庭際，叵耐歲暮之感。適金君長煥贈余以一朶黃菊，金葩粲粲，不減重陽色態。余喟然而嘆曰：“秋風一起，群芳摧盡，霜菊已爲可貴，況雪菊乎？士之今日，菊之雪天，疇能歷盡層層變難，而節操彌厲，與爾同歸？夫菊之愛，靖節之後，我何敢言？顧今人類翔走，倫理灰盡，豈但寄奴僭竊之禍？吾願海內志士，抱香持節，九死不變，誓作今天下冬菊，于以有光靖節之秋菊。”

世俗文字稱號誤用辨

孔子答仁而不佞之問曰：“焉用佞？禦人以口給，屢憎於人。”，則不佞乃美德也。古今文人多以不佞自稱，是以美德自居也，烏在其爲謙辭也？非惟文人，中世以降，賢儒亦多如此，然後之人決不可襲用。

稱人之姪曰咸氏令咸從咸堂咸，是爲何等義意？阮咸自是阮籍之姪，他人何關？且籍咸叔姪，自放禮法之外，則本非可慕之賢，借用生光者，何以是稱人而累之也？至於稱其姪爲咸氏，稱其叔爲阮丈從阮丈堂阮丈，一舉其名，一舉其姓，尤極可笑。

曾子易箦，雖云得正，而終其未易之前，自是未察之事，若非執燭童子，或幾乎不得正矣。後之人只當慕其得正而學之，不必論其前之未察。然終是曾子獨行之事而已，胡爲乎後世儒賢之沒也，非有此事而例稱易箦也？

喪之易戚，皆失中者也，今人稱人之善居喪也，乃曰易戚備至，此何謂也？當曰情文備至。

哭子喪明，子夏之過處，今人稱人之喪子，乃曰喪明之痛，此不可用。喪妻叩盆而歌，莊子之放狂也，亦不可稱人喪妻，曰叩盆之痛。

馬氏五兄弟，良字季常，居長而眉白。時人語曰：“馬氏五常，白眉最良。”。以是今人稱人之伯兄曰白眉，取其最良之義，則似爲美稱。然白眉終是人形之變異者，則是稱非敬人兄之道也。

上古之有頓首於青梅查上，而定子女婚者，此未知出於何書，而今俗婿婦之父母，相稱曰查頓云，此無意味之說。若頓首不於查上而於花下，則當稱花頓乎？

胤《字書》繼也嗣也。然則胤是長子之稱，今俗書札言語間，稱人之子，不問長次，通謂胤友胤君誤也。十年前，吾鄉林博士書于朴某，語及其次子曰：“胤君來學云云。”適朴之長子，有犯避外，日人探索家中文書，得林札來詰，林曰：“吾指其次子，其長子初無關。”日人曰：“《字書》胤長子之稱，公爲博士，豈有不知字義之理乎？此是臨時易辭，吾不信。”其後得朴之長子，然後林得無事，彼雖夷虜，猶精於字學如此。

內舅之子爲內從，姑之子爲外從，今俗舉多換稱，此何以故？俗呼內舅爲外叔，故呼其子爲外從。既呼此爲外從，則自當呼姑之子爲內從矣。雖然，此大不然。母之兄弟爲舅，著於禮經，而其云內舅者，別於外舅也。既云內舅，則爲其子者，豈不爲內從乎？此既爲內從，則嫁外之姑之子，豈不爲外從乎？

父之妻曰母，父之姊妹曰姑，姑只當稱姑，若稱姑母，未安。

俗呼妻之兄弟曰處甥，甥《字書》無見，當曰妻兄妻弟，而今乃稱妻之姊妹曰妻兄妻弟，何也？此則當曰妻姊妻妹。

女子之先己而生者爲姊，後己而生者爲妹，今俗不甚分別，稱姊之夫曰妹夫妹兄，姊家曰妹家。非惟婦孺，丈夫而壯者亦然，大是妄發，妹兄之云，尤可笑。既云妹，又何兄？當曰姊夫矣。若姊妹兄弟之云，僅成說。

嫂兄妻也，俗稱弟嫂者妄也。當云弟婦。

詩文間，俗稱京城爲長安洛陽者非也。長安洛陽自有其地，何所當乎？至於記實之文及狀碣之作，則尤不可用。

芑地黃也，地黃性沈下，故從艸從下。今作，例曰生，熟，卞介也，於藥性，何所當乎？

魯祔衛祔，〈檀弓〉以壙內棺槨離合而言，今人以墳墓之合封各封而言，用於人家墓道文字，非本實也。

古人有訪人不遇，只見其子，其子凡庸，故題鳳字於門上而歸者。字雖外好，而其實凡鳥也。故唐詩云到門不敢題凡鳥。今人書札題鳳而歸，無難用之，是以凡鳥，待人之子也。

謂出後爲過房，經傳無見，而始見於曹操爲夏侯嵩之後，意其但用於爲後異姓，而不可用於爲後同姓也。

秦康公送其舅，至涇陽，故稱人之舅曰涇陽丈。朱子畫獅子，贈外孫，故稱外孫曰獅孫，皆不可用也。若使送舅至洛陽，則當曰洛陽丈，畫贈外孫以虎子，則當曰虎孫乎？

左太冲作《三都賦》，得皇甫謐序文，然後文章之名益盛。皇甫謐世稱玄晏先生，故稱文集序爲玄晏之託，玄晏之役，今人於墓道文字，亦用之此誤也。

孔子遇舊館人之喪，脫驂而賻之，門人疑其已重。孔子曰：“吾遇於一哀而出涕，吾惡夫涕之無從者，小子行之！”此言吾既哭之而出涕，若不賻則此涕爲無來歷而徒出，是豈人情之當然乎？故必行賻禮，然後乃當於人情也。今人挽人之詞，乃用涕無從之語而曰：“涕淚忽然而出，故曰無從。”其錯解誤用可憫。大抵涕之無從，孔子之所惡者，烏可用於悼人之詞乎？

南山齋喻諸君【甲子】

夫人之生稟乎天者，有純粹之性，靈昭之心，正秀之身焉，倫屬乎己者，有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焉。性之當養，心之當存，身之當修，父子君臣之慈孝仁敬，夫婦長幼朋友之別序信，皆吾切身之職務，而不容不盡者也。然自非生知上聖之資，必學之於先覺，問之於師友，然後乃能知盡分之方，此學問之名，所以立也。世之人不知學問之本意，以爲是求聞達也，干利祿也，希覬玄妙也。纔讀得幾部經傳，喫得些少勤苦，而名祿不昌，奇效不至，輒拋棄之，趨而之權術功名之途，千載實學之廢，皆坐乎此，而況乎今之世乎？大聖之加罔赦罪科，倫綱之歸殺人鳩毒，廣天地之恢恢，一尺袖之蹙蹙諸君，乃以此時，聚首劇讀於寂寞之濱，非深知職分之當盡而無所希求者，能若是乎？顧未有相觀之善，喜在空谷之登，豈闕一辭之贊？吾聞君子之學，有其始之非難，克其終之爲難，奮發銳氣之非徒貴，至誠透徹之真可畏，須知無此性無此心無此身，方可無養之存之修之之功，無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方可

無慈孝仁敬別序信之道，天下無無身心無倫屬之人，則道與功之當學當問，而不得暫捨也決矣。朱子不云乎？“一息尚存，此志不容少懈。”此爲諸君與生俱死之靈符真訣，其寶藏之，抑又念之。譬之五穀樂歲之多藏厚蓄，尙可易力也，至於凶年饑歲，能儲得多少穀種，以待來歲布播，其功爲尤難。諸君前頭成就之多少，惟在材之高下，功之淺深，吾不敢預言。雖使未能大就，止於孔子所稱三士中品，孟子所稱二中四下，其裨益世道之功，豈遽下於治教休明之時一大君子哉？余故曰：“今日諸君幾箇人，異時萬姓生活種子。”念到于此，豈不十分關重？豈敢一畧虛徐？

惟其學問之實之在身心倫理也。故孔子曰：“行有餘力，則以學文。”孟子曰：“學問之道無他，求其放心而已。”此聖賢之萬世準的也。挽近以來，重外而輕內，棄實而尙虛，幾款名理之畫蘆依樣，幾篇辭章之雕蟲施巧，便巍然自處以先覺，人亦以巍然先覺待之，更不問其心術德行之如何，嗚呼！此學問之賊也。願諸君痛心疾首於學賊，竭誠盡力於聖的，從事乎孝弟忠信之上，實體乎省察克復之際，孜孜無怠，真積力久，則下學之至，豈無上達之日？而況所謂文辭，又其餘事哉！

朋友德業之所須而成者，故居五倫之一，後世友道喪盡，不惟不相須而成，反或相擠而敗，可勝痛哉？今諸君以同道同志同業于同堂之中，其誼顧不重歟？惟願互相勸勉，各自策省，勿恃學而矜人，勿愧恥於下問，勿見過而不規，勿見善而厭忌。連峯對起而增高，麗澤互資而益深，一洗末俗之惡習，各敬爾身之美德也。

法服之先於言行，孔子也，衣冠之先於瞻視，朱子也，此固學問之首題也。平世之猶謹，值此卉氈之日乎！燕處之不放，對讀經傳之時乎！請諸君恒著廣袖上衣，一以確師古絕今之志，一以爲制外養中之方，勿以標榜而忌之，外飭而輕之。吾將以衣服之謹不謹，驗諸君之進修也。

禮一失則入於夷狄，再失則入於禽獸，今日之謂也。吾願諸君檢身而謹坐尸立齊足重手恭之曲禮，居家而盡冠首迎相慎終追遠之四禮，馴致異日動容周旋之中禮，倡明邦國之經禮，洗斯世之污而升之隆，安知不出諸君乎？勉之哉！

爲學之道，固在乎誠思實踐。然前此又有靜養工夫爲之本源，然後動而得以

品節不差。若論其極，固不可驟語，至於隨分施功，漸次見效，則不可已者。思索煩惱之餘，講誦勤勞之後，閉目端坐，澄存此心，不緊不歇，勿忘勿助，是其功也。此而到熟，庶見如月當空，四面皆徹，如淵無波，一泓自在底氣象，好不快活？

字形本諸天地之理象，字音協諸陰陽之聲律，若其小差一點畫一脣舌之間，便成別字異音，文義之橫決，人事之誤敗，猶是小事。甚或至於天地之翻覆，倫理之倒錯，如卯酉通塞之換，日月之出入易路，夫與婦平去之混，男女之名稱異位，豈非大可憂懼者乎？

天地之所以生萬物，聖人之所以應萬事，皆誠也，天地聖人亦然，而學者可不誠而成哉？故曰：“誠者物之終始，不誠無物。”以上所告，雖甚粗淺，果諸君之以誠行之，亦足以修身行法，無愧學問之實。如其未也，言者歸虛，聽者如遺，彼此無補，反貽人譏，可不念哉！

德川書社規約【乙丑】

居處

居者居吾身也，處者處吾身也。吾身乃天地之所生，父母之所遺，若處乎難亂塵穢之中，而棄其整肅潔淨之道，非惟慢其身而褻帝親之命，亦病其身而絕帝親之恩也。故孔子以居處不莊爲不孝，栗翁以居處不病訓門人，凡志學修身者，可不戒哉？

每日早起，掃拭室堂，揮拂牕壁，灑除庭階，皆務令淨潔。

每人各有定位，凡於執業，燕居，對賓，恒於其處，不得離次易位。

几案，書冊，紙硯，衣巾，其他什物，整齊收置，各從部類，各有常處。

各人脫履，必有定處，一列齊排【東上】，毋得誤穿他人履，毋得無履行階砌。

紙物雖零片爛寸，慎勿棄地。【字紙尤慎】如有遺落，隨輒收拾，不可用則焚之。墨筆點牕壁唾洩污階砌之類，切宜戒之。

威儀

敬以持身，則有威而人自畏，有儀而人自象，是之謂威儀，非謂莊矜，修飾，

必欲人之畏象也。蓋制乎外，養其中也，容貌辭氣，德之符也。故務實德者必慎威儀，威儀無觀，必其無德者也。是以孔子以不重不威爲學不堅固，可不謹乎？不惟爲德學之符驗，亦禍福壽夭之所以分也。故《儀禮》以“敬爾威儀，永受胡福”祝冠者，北宮文子以令尹之無儀，知其不返，可不尤謹乎？

每日早起，盥櫛衣冠，行應行禮數，各就座執業。

諸生必著廣袖上衣，非有疾病，服役及就寢時，勿脫。

坐則跪坐盤坐【盤坐即便坐，兩足斂入膝下，使不見。】外，不許他法。肩背竦直，去倚俯之態。立則平正端直，拱手比足，絕倚跛之習。行則勿輕遽勿緩慢，并勿掉臂負手，左右顧瞻。

言語要安詳分明，勿疾高，亦勿低迷。儕輩間，勿雜以戲笑，至於俚語悖談，決非士類。

南草之害，前輩論之詳矣，至於讀書者，尤當痛絕。慢習之對聖賢，惡臭之觸師長，焚蕪之及書冊，皆不可頃刻之近者。

凡此姑以目下所急者言，其詳則《曲禮》，《少儀》，《玉藻》，《弟子職》等篇，自當一一遵行。

禮數

禮者，出乎天而立乎人者也，無禮則非人。故不可須臾去身，在朝廷有朝廷之禮，在鄉黨有鄉黨之禮，在家庭有家庭之禮，在學舍，豈無學舍之禮乎？宜其有師長，生徒，長幼，冠童，相與之禮矣。且念“學爲忠孝，久不省親”，陽元宗所戒，“讀數十卷書，凌忽長者。”，顏之推所惡，所謂禮者，若謹於學舍而忽於家庭鄉黨，其可乎哉？宜虔心戒勉。

每日早起，諸生行揖禮于社長，又分班對揖，夕亦如之。【儀見笏記。】經宿以上未至學舍，則進退時，皆拜于社長，單日則揖之。社長有事出入，或拜，或揖，亦以經宿，單日爲準。同業人經宿以上不相見，會別時，皆相揖。

凡拜揖于社長，一列序立東上，【人多則重行。】一齊致敬，無或錯亂後先。【尊長前亦然。】同業人十年以上，特加敬禮，言語有等。童之於冠，雖齒相敵，不敢呼名通朋。

宿于學舍者，翌朝歸家，必拜其父母，無以前或不行，因循不果。

凡見尊長，不分學舍與他所，極其敬遜，毫無慢態，平日納拜處，雖路上亦拜

之。【俗或以道路上除禮，甚不可也。】

賓客之來，恭勤乎拜揖，迎送之節，溫款乎寒暄，酬酌之際，若是學問文雅人，則又講論問質以取其益，至於尋常逆旅工商之見過者，亦不敢少存慢想。

交道

朋友之在五倫，如五行之土，父子，君臣，夫婦，長幼之倫，無不待是而絃，此所以爲人道之重，而自天子至於庶人，未有不須友而成者也，知此義，則知今人取友之太輕，而不以資之而成己也。孔子曰：“益者三友。”，曾子曰：“以友輔仁。”，孟子曰：“責善，明友之道。”，知此義，則知今人相交之非其道矣。諸君所志者道，所求者仁，聲氣感應，風雲聚從，相取者不可謂不重也。顏勿，曾省，鹿法，藍約，朝規夕講，諷誦洋洋，不可謂無其道矣。但所難者，相下不倦久而敬之，而要在乎誠之一字，一有不誠，所爲如無，可不戒哉？

年長而學高者，年少而學下者及年相敵而學有高下者，宜其相視無間，相長有得也。其或年長而學下，年少而學高者之相與，每患牴牾不相入，要當以不耻下問爲心，恃學自高爲戒。

友者友其德也，知者知其心也，要當洞通城府，不飾邊幅。人有善，內實慕悅而勿徒當面溢贊，其有過，誠心面諭，勿退而語人。己有善而人獎之，勿過爲謙退以沮人好意，有過而人規之，勿外從而厭以負人德意。

會既衆矣，性何盡齊？常以吾事有時不滿，人事豈能盡？協爲心可也，所謂休休有容者如此。

課程

呂舍人曰：“學業須是嚴立課程。”，韓文公曰：“業精于勤，荒于嬉。”，孔子曰：“富有之謂大業。”，惟其惟嚴，惟勤，所以致富有之大業也。天地之至誠不已而造化以行，聖人之勤勵無息而大德以立，況在於吾人乎？嗚呼！《易》曰“乾乾”，《庸》曰“慥慥”，《書》曰“孜孜”，斯可以爲法矣。講誦記寫之類，修業之不可闕者，故定式如左。

每日寅正，起寢衣冠，卯時受課，辰初朝飯。辰正寫字，巳時讀書，午初休息討論，午正讀書，未初點心。未正寫字，申時讀書，酉初休息討論，酉正讀書，戌初夕飯。戌正亥初，或論文，或講禮，或談史，或賦詩文，各隨宜，亥正讀書就寢。【秋冬，申時夕飯，酉時論文，講禮，談史，賦詩文，戌時讀

書, 亥時就寢。】

每日各就所讀書, 立課毋闕, 少行多讀,【少不下百遍。】須要成誦。

每月望晦, 設講社長, 各抽一章於一望課中, 定通略粗不, 音義俱通者爲上, 義通者次之, 音通者又次之。【講規別見。】每月初七日, 連讀六日課, 十四, 二十二, 二十九日, 皆如之, 小月則二十八日, 連讀五日課。

每一冊讀畢, 數日溫讀, 誦于社長前。

冠者限七日內, 作長文一篇, 每月四次, 連讀宿課, 日斤正社長前。童子每日作日記數行, 至於夏至後處暑前。盛暑時, 冠者減誦讀, 加著述, 限三日內, 作長文一篇, 童子則依前。

讀書要正坐勿搖身, 徐讀思義, 勿高, 勿低, 明白音讀, 必從本音。寫字要楷正典重, 勿輕尖潦草, 必遵六書本形。作文要義理通暢, 意趣深長, 勿尚奇, 勿麗華。

休養

《中庸》曰: “中也者, 天下之大本也。”《論語》曰: “興於詩, 成於樂。”湛一惺寂, 本體之中, 立於靜時也, 感發和順, 詩樂之效, 著於德性也。自後世之廢詩樂, 俗士之昧靜功, 力疲於辨質鈔筭, 心汨於昏昧紛擾, 矻矻滾滾, 終晷通夕, 絕不見澄清本原, 酬酌萬變, 優遊涵泳以造其極之功, 可勝歎哉! 今欲諸君勤攻困搖之暇, 久蟄鬱惱之餘, 或閉目靜處, 安淨方寸以立虛明純一之體, 或登高迎風, 唱和詩歌以求蕩滌消融之效。

每日午前午後兩次讀書後, 各習靜坐, 澄心之功, 其方則輕輕照顧, 平平存在者是也。【程子有半日靜坐, 半日讀書之訓, 有意靜功者, 豈但兩次而已?】。每月望晦應講後, 初七, 十四, 廿二, 廿九, 連讀宿課後, 每日夕飯後, 或上山灑風, 或庭前步月, 并唱〈關雎〉, 〈鹿鳴〉, 朱子〈招隱操〉, 退溪〈陶山六曲〉, 栗谷〈石潭九曲〉等歌, 又各賦詩, 擇其清絕者, 唱之亦好。

講規

講生齋會, 着道袍, 或廣袖周衣。設講長席于堂北壁下南向, 講生席于東西壁下北上。講生行相揖禮于庭中, 禮畢, 講長升席坐, 講生亦上堂以次分詣

東西，升席坐。直日，於講長之右隅，坐書講錄，置案冊子于講長前。講生以次就講長前，作揖斂衽端坐。講長抽一章於一望課中，命背講。講生容無作，心無恐，聲無澁，身無搖，舒心朗誦，須要明白清徹。講長聽畢，問文義，講生隨所知奉對。又問質疑晦處，講長詳喻之，【在傍者，亦許參同問討。】乃定通略粗不。音義俱通者通，義通者次之，音通者又次之，而俱爲略，艱誦多錯粗，不成誦者不。講生又揖而退。直日，錄各人所誦章於講錄，并錄通略粗不，收斂每次講錄，用備後考，以各人參與不參，通略粗不之多寡，驗學業之勤慢進退。

教課規則【乙丑】

一. 分社生學業高下，定甲乙丙丁四班。甲班教課書，《大學》，《論語》，《孟子》，《中庸》，《詩經》，《書經》，《易經》，《春秋》。【原課】《近思錄》，《性理大全》。【性理課】《儀禮》，《禮記》，《家禮》。【禮課】《左傳》，《馬史》，《綱目》，《續綱目》，東史諸書。【日本，西洋史亦看。史課】《聖學輯要》，《磻溪隨錄》。【政治課】《大典通編》。【時行法律亦看。法課】八大家。【文章課】乙班教課書，《大學》，《論語》，《孟子》，《中庸》。【原課】《禮記》，《四禮便覽》。【禮課】《綱目》，《續綱目》，東史諸書。【史課】《古文真寶》。【文章課】丙班教課書，《小學》，《大學》，《論語》。【原課】《四禮便覽》。【禮課】東史諸書。【史課】丁班教課書，《要訣》，《小學》，《大學》。【原課】《四禮笏記》。【禮課】東史諸書。【史課】

一. 原課用晝，間課【理禮史政法文】用夜。又有書數製述三課，書用晝，數製用夜。【夜課諸目，皆每夜輪課】

一. 古人成材之功，莫大於樂，而廢缺難復。今且只行唱歌以當樂課，庶助感發之思，有〈夫子頌德歌〉，〈勸學歌〉，〈五倫歌〉。

一. 社生早起行揖禮于社長，又分班相揖。社長授甲乙班原課，甲乙班分授丙丁班原課。

一. 朝飯後上學時，社生中二人，堂上北向立，并唱〈夫子頌德歌〉，夕飯前下學時，唱〈勸學歌〉【二人亦於堂上。】。講日則輟講，試考後，連唱〈頌德〉，〈勸

學),〈五倫歌〉.

一. 每月初一日,十五日設講,行相揖禮.自甲班以下,就社長前,隨其指定,背誦一章於一望原課中,社長定通略粗不.【講規別見.】講罷,又試考理禮史政法文書數製,各課優等,行褒賞.

一. 置勤慢簿,善過籍,記諸生往來早晚,課程充闕,心志邪正,言動敬肆,驗取操行高下,用備試考日陞降.

試考規則

一. 試日,以每月初一日,十五日爲定.

一. 操行考其心身臧否,講誦視其通略粗不,理禮史政法數,抽問題,觀其供答合否,看文取其精密,作文取其命辭無差,書取楷正而準字學,并以所得點數多少爲等.

一. 操行點,特等十五,一等十二,二等九,三等六.

一. 講點,特等【音義俱純通.】十二,一等【音義俱通.】十,二等【音通而義略,音略而義通.】八,三等【音通而義粗,音粗而義通,音略而義略.】六,四等【音通而義不,音不而義通,音略而義粗,音粗而義略.】四,五等【音略而義不,音不而義略,音粗而義粗.】二.

一. 理禮點:特等十二,一等九,二等六,三等三.

一. 史政法文書數製點:特等十,一等八,二等五,三等二.

一. 甲班,得百二十一點者,施特等賞,別爲特班,得八十點以上者,施一等賞,得六十點以上者,施二等賞,得四十點以上者,施三等褒狀,得二十點以下者,降乙班.

一. 乙班,得八十九點者,施特等賞,陞甲班,得六十點以上者,施一等賞,得四十五點以上者,施二等賞,得三十點以上者,施三等褒狀,得十五點以下者,降丙班.

一. 丙班,得七十九點者,施特等賞,陞乙班,得五十三點以上者,施一等賞,得四十點以上者,施二等賞,得二十六點以上者,施三等褒狀,得十三點以

下者, 降丁班.

一. 丁班, 得六十九點者, 施特等賞, 陞丙班, 得四十三點以上者, 施一等賞, 得三十四點以上者, 施二等賞, 得二十二點以上者, 施三等褒狀, 得十一點以下者, 降戊班.

一. 甲班三考皆得一等者, 陞特班, 乙丙丁班三考皆得一等者, 亦各陞班.

臺巖書社示諸君【丙寅】

夫農者炙膚沐汗, 胼手胝足而不知勞者, 爲百畝易也. 百工居肆, 運思費力, 不善事不措者, 欲器物精也. 績女緝麻纒繭, 早興晏寢, 積尺寸以就丈匹. 商者用慮於道途, 弊精於較量而不憚者, 以行貨而贏利也. 漁與獵者馳深林, 入大洋, 幾爲虎鯨食然後, 有所獲也. 夫士者何爲者也? 安居而爲四民首, 不以泰乎? 講倫常之道, 究政教之術, 得之身而施之物, 俾百姓之安業遂性, 得其時, 其澤沛然, 雖窮焉, 風義緒論, 猶足以持世者士也. 故安且首焉, 而不爲泰也. 若考其實而無有, 食農者粟, 衣績者布, 工之器, 商之貨, 漁獵之味, 是資是用焉, 是爲民蠹, 厥罪罔赦. 諸君學爲士者, 名山傑舍, 齎糧而食, 適節而衣, 一應供具裕如也, 而以爲是固然而自安, 豈非謂業乎? 斯者窮經研理, 隆成名實, 將以峙頽流之獨柱, 扶一陽於純坤, 早晚天定, 大有猷爲於人世乎. 夫君子勞心, 小人勞力, 勞心者勞, 勞力者逸, 今以不逮之資, 酬大發願, 顧不勞而得乎! 竊覩諸君之用心, 反不若農工商賈小人之勞力, 吾恐諸君之難望乎民首而或歸乎民蠹也. 與其如此, 曷若歸而各作農工商賈之一業, 自食其功之爲無愧無罪也, 其各悚惕而知勸. 昔人云: “庸師誤人子弟, 與庸醫殺人同罪.” 此爲爲人師者頂門針. 余有一言足之曰: “弟子違師誤身, 與病人忌醫殺身同罪.” 此亦當爲人弟者頂門針. 由是反而論之, 良師成人子弟, 與良醫活人同功, 弟子從師成身, 與病人信醫濟身同功, 此又當爲爲人師爲人弟者天福音, 請淺拙與諸君之兢兢乎頂針, 進進乎福音也.

偶錄

今之世，喪紀壞盡，滔滔流俗，固不足言，至於儒流者，更無防閑，而人亦恬以爲常，有乘子喪，婚其孫，而不害爲某齋先生，刊集行世矣，有服闋生子，而爲立言君子，副走千里，請金石文字者矣，有喪中畜妾而亦爲爲師緬葬，出財之有功人矣。耳目之及己如此，其不見聞又可圖矣。噫！溫公所謂國有正法，陳壽坎圻者，無地可論，甚可寒心。至於葚服中不婚嫁，亦係大防，而見今士子絕無遵守者。甚則至曰：“此非三年喪之比，變通可也。”舍，曰：“吾心力不足。”，反謂禮過中，此真所謂不可與言者。嗚呼！天下皆變而士子不變，則將有陽復文明之日，今尚持峩冠博帶者，身行口言乃如此，豈可望舉世之不胥歸於夷獸乎哉？

初終之禮，既小斂焉，又大斂焉，非惟人子不忍薄寒其親，亦所以方正尸體，充滿棺中，使無運柩時搖動及他日骨節解散之弊。今人多襲而不斂，卽入棺中而曰：“絞束死者，有所不忍。”，轉相效尤，幾至成俗，此非不忍取利於不用絞衾之布也。苟爲不忍埋之厚壤之中，亦可以已乎？天下苟非乞丐之死道路者，焉有不斂之尸乎？

范忠宣公曰：“人若避好名之嫌，則無爲善之路。”，余足其下曰：“人若避取怨之嫌，則無惡惡之日。”。

學道以心術本原爲主，於斯有所不足，則雖有通天之學，絕人之行，謂之學道則未也。

一毫自占便宜心，畢境能作盜賊事。

萬惡皆從不食力生。

伊川之奪宗，不可以大賢所行而效之也。

爲賢者諱，未知出自何書，而究其弊則無所不至。

爲親者諱，以其親故當諱也，爲賢者諱，以其賢故不當諱也。所貴乎賢者，以其能盡義理也，賢者偶有未盡，而後人諱之以爲盡也，則亦豈無視以爲法乎？故學者雖當置之不言，然至於講論，窮格之際，則終不可得以諱之矣。

同一師心，而有指心中所具之性理而言者，所謂以己心爲嚴師是也，有但指靈覺而言者，所謂師心自用是也。

禮書有支子異居，各主其妻子喪之說，以此例之，支子異居者，亦各主其子女之昏，未爲不可歟。

金聖九嘗謂余曰：“我國之論文章者，有生西坡，死農巖之說，此言以前言，則西坡文名甚盛，而農巖無聞，以死後言，則《農巖集》盛行，而《西坡集》未然。吾以是如後人論文章者，亦必有死後滄之說也。”余曰：“惡！是何言也？吾之爲文，但欲辭達而未能也。”

誠語其極則至於不勉而中，不思而得，語其近則在於言必信，行必果。

敬語其極則至於篤恭而天下平，語其近則在於居處恭，執事敬，非但敬爲徹上下，成始終之道，誠亦爲徹上下，成始終之道矣。子思子曰：“誠者物之終始。”，學者要當勉其近而期其極也。

所惡於同姓昏者，非惟爲其同根，惡其姓字之同，所以別嫌，明微，防幾，杜漸也。姓字之同，雖明知非同根，不可婚也，姓字之不同，雖知其同根，無所嫌也。如中國三代以來，相婚諸姓，豈不舉同根於三皇五帝乎？以我東言之，孰復嫌於金權之通婚乎？若柳車金許之不通婚，恐涉過中也。

我東同姓之婚，在新羅則多在同堂之內，更不可言。高麗則在王家同於新羅，在士夫家則別其鄉貫。我韓則王家后妃無同姓，而駙馬有之，士夫則僅避同貫，而恣行於異貫，千餘年總不免夷虜之風矣。趙靜菴以後，舊俗大革，且累有同姓異貫禁婚之朝令，國中諸大姓絕無犯染夷風者，獨金李兩姓，多不免，可勝痛哉！說者諉以貫衆數夥，無可奈何，然國內各姓人數之夥，豈不尤多乎？魯昭公之娶同姓，不可謂知禮。然其必諱之爲吳孟子者，深知同姓婚之恥而然也，則終是知禮者矣，猶賢於認爲通行之禮而坦然無恥者也。

古者男子三十而娶，女子二十而嫁，則女妹之嫁，每先於男兄例也。今人謂女先兄而嫁者爲倒婚，甚不可也。若本禮意而論之，男兄年未三十，而先女妹年踰二十未嫁者而娶者，可謂倒婚也。

王戎居喪謹守禮，容顏無損，人謂之肉孝，阮籍飲酒數斗，舉聲一呼，毀瘠骨立，人謂之骨孝，比量二人，似有虛實優劣。然此殊不然。阮雖毀極，破棄禮法，王雖不毀，勉及禮制，爲人子者絕不可恥肉孝之名而慕骨孝之行也。且容顏無損，何害於孝，豈不逾於毀瘠傷生者乎？非惟是也，居喪之道，敬爲上，哀次之，若能敬生執禮，一一中節，則雖在憂中，豈不有仰不愧，俯不忤之內喜乎？

孟子稱臣於僭稱之齊王，朱子事臣虜之宋高宗，平生疑之，及讀先師文集，謂戰國諸侯之稱王，已成俗例，故孟子不以爲嫌而應其聘，高宗雖臣虜，畢竟是祖宗子孫，故朱子輔之。然小子之惑滋甚，以已成俗例而可以無嫌，則其究也，何所不至！如陽貨僭稱大夫，而孔子亦以大夫之禮待之，亦猶孟子之不嫌於齊王也。抑孔孟所處，自有妙道，而不但如先師所云歟？宋高之爲祖宗子孫固然，而畢竟是虜臣，則朱子豈不爲虜之陪臣乎？我韓丙丁以後，諸賢又皆取法於朱子矣，此皆聖賢必無未盡處，而以聖賢平日義理證之，則窒塞未通又如此，柰如之何？

禮說鎖錄

答人問

維歲次云云。伏以封修不虔，墓位失傳，薦享無所，情禮俱缺。茲遵先輩已定之論，謹就顯幾代祖考某官府君墓傍，築壇行祭。伏惟尊靈永世是依，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右先祖妣墓失傳，築壇考墓傍，行祭告辭。乙巳】

維歲次云云。伏以顯幾代祖妣某封某氏墳墓失傳，薦享無所，情禮俱缺。

將就府君墓傍，築壇行祭。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右考位告辭。】

天禍邦家，島夷陵踏，敵鋒所觸，人民竄亡，先世廟祠，莫克奉守，憤痛忙迫，罔知攸爲。先主權埋，前賢有說，今值大亂，敢行權埋，恭俟亂平，卽當還奉，至痛在內，臆塞無言。謹以酒果用伸，虔告謹告。【右臨亂埋主告辭。戊申】

先師襄禮時笏記【壬戌九月十三日，時余當執禮，因全齋先生襄禮時笏記，增損】

啓殯 外內五服之親及門人，各就位設奠。祝率執事者，盥手舉饌【先設卓子阼階東南，置奠饌及盞注于其上，巾之。設盥盆帨巾于饌東，別以卓，設潔滌盆新拭巾於其東。】，升自阼階，至靈座前，脯東醢西。祝焚香洗盞斟酒，訖北

向跪告云云，俛伏興。主人以下哭盡哀，再拜乃啓殯。

朝祖 執事者布席于祠堂前兩階間。祝詣靈座前，北向跪告云云，俛伏興。役者入，婦人退避。主人及衆主人輯杖【不拄地。】立視。祝奉魂帛前行，詣祠堂前。諸執事奉奠及椅卓次之，銘旌次之。役者舉柩次之，主人以下哭從。男右【西】，女【皆蓋頭。】左【東】。重服在前，輕服在後。無服之親，男居男右，女居女右，皆次主人主婦之後。至祠堂，開中門。役者致柩於兩階前席上，北首而出。祝帥執事者，設靈座及奠于柩西東向。主人以下柩東西向，主婦以下柩西東向，俱北上【主人有母，特位於主婦之左。】，立哭盡哀止。

遷于廳事 執事者設帷布席於廳事。役者入，婦人退避。祝北向跪告于靈座云云，訖奉魂帛導柩右旋。【從東而南。】主人以下哭從如前【男右女左。】，詣廳事。役者致柩于席上南首而出。祝設靈座及奠【即前奠。】于柩前南向。主人以下就位【如朝祖時而南上，藉以薦席。】坐哭。門人立於階下北向東上，重行哭，撤去靈床乃代哭【如未斂前，以至發引。】。親賓致奠賻。

陳器 方相，侍者，銘旌，椅卓，靈車，輓章，功布，大輦。【傍有嬰。夜則斂藏之，厥明更陳之。】

祖奠 日晡時【夕上食後。】設祖奠。【饌如前儀。】祝焚香斟酒訖，北向跪告云云，俛伏興。主人以下再拜，哭盡哀。宵設燎于門內之右。

遷柩就輦 厥明輦夫納大輦于中庭南向。執事者撤祖奠。祝北向跪告云云，遂遷靈座，致傍側。婦人退避。召役夫，遷柩就輦。乃載南首，以布索維之，令極牢實。主人從柩，哭降視載。婦人哭於帷中。載畢，祝率執事者，遷靈座于柩前南向。

遣奠 執事者設奠。【饌如前儀。】祝焚香斟酒訖，北向跪告云云。主人以下【婦人不在。】哭再拜，遂撤奠。【執事者以竹器盛餘脯。食時上食。】

祝奉魂帛，升靈車焚香。別以箱盛主，置帛後。執事者以遣奠餘脯納于靈車。婦人乃蓋頭，出帷降階，立哭盡哀，再拜。

柩行 方相，侍者，銘旌，椅卓，靈車，輓章，功布，大輦【嬰在大輦兩傍。】以次而行。主人以下哭從。【如朝祖之序。】無服之親次之，門人次之，賓客次之。

塗中宿舍 執事者設靈座於柩前。朝夕哭奠【夕奠時，撤遣奠餘脯。朝奠後，裹餘脯，納靈車。每日如此。】，食時上食，夜則主人及衆主人，皆宿柩傍，親戚門

人共守衛之，設燎于中庭。

及墓 未至，執事者先設靈幄於墓道西南向，有椅卓。親賓次在靈幄前十數步南向。

方相至 以戈擊壙四隅。

靈車至 祝奉魂帛，就幄座，主箱，置帛後。遂設奠而退。【朝奠餘脯，至是乃撤。】
柩至 執事者先布席於壙南，置兩凳。柩至脫載，置凳上北首，去結裏。祝以功布拭柩，幘用俛衾。執事者取銘旌，去杠置柩上，就位哭。主人及五服之親，立於壙東西向，北上重行，門人立於壙南北向，東上重行皆哭。

乃窆 主人及衆主人撤哭，臨視下柩，最須詳審用力，不可誤有傾墜動搖。先用木杠短者二，橫置灰隔上，又用長杠二，橫置壙口，不令搖動。徹銘旌柩衣，置傍側。別用長杠二，橫舉于柩上兩頭，用布二條摺之，兜柩底兩頭，以其布四端，直上懸係於所橫舉之杠腰。每一杠繫布兩端，齊舉其杠四頭，遷柩置壙口兩杠上，正其四傍，乃微舉所舉杠而去壙口兩杠，漸漸放下所舉杠，安柩於短杠上，更量懸柩布長，可到壙底然後，復係如初。令二人分立灰隔上下，以手按柩四隅，令不偏倚，而又微舉杠，去短杠，仍漸下之。已下，解布去杠，抽出其布，用素絲，長與棺同，縱置柩上，中央正當橫紙標墨處。用蠟粘絲，兩頭令不動，又於金井機面標墨處，以一條細繩引著而照看，令絲與繩相當，以審其正然後，去絲繩及柩上下標紙。用雪綿子，拭柩上塵。主人整柩衣銘旌，令平正，髮不入壙。

贈 主人盥帨。執事者奉玄纁授主人。主人奉以奠于柩上東邊，上玄下纁，哭再拜稽顙。在位者皆哭盡哀。

加灰隔蓋 以灰板加於灰隔上，以三物拌勻者，躡實之。【勿令震動柩中，但多用之，以俟其實。】

實土 下土每尺許，即輕手築之。

祠土地 祝帥執事者，設位於墓左近北南向，設饌於席南端，又設盥盆帨巾於其東南。告者【遠親或賓客。】吉服，立於位前北向。執事者在其後【西上。】，皆再拜。告者與執事者皆盥帨。告者進跪位前。執事一人取注西向跪，一人取盞東向跪。告者取注斟酒反注，取盞酌于地，又斟酒奠于神位前。俛伏興，少退跪。祝執板，立於告者之左東向，跪讀云云。訖復位。告者以下皆再拜徹出。

下誌石 壙內近南, 先布甗一重, 置石其上. 又以甗四圍之, 而覆其上. 復下土亦以尺許爲準, 密杵堅築.

題主 執事者設卓於靈座東南西向, 置硯筆墨於其上【硯滴亦具.】, 對卓置盥盆帨巾各二.【一在東有臺架, 祝所盥, 一在西無臺架, 書者所盥.】主人立於卓南北向. 衆主人在其左少前. 祝盥手出主, 臥置桌上. 善書者盥手西向【或坐書, 便於事.】, 先題陷中曰【故處士田公諱愚字子明神主.】. 粉面曰【顯祖考處士府君神主孝孫鎰孝奉祀.】. 題畢, 祝合主植趺, 奉置靈座, 帛箱置其後, 炷香斟酒. 執板, 出於主人之右, 跪【主人亦跪.】讀之. 畢懷之【留與初虞祝同焚.】, 興復位. 主人以下再拜, 哭盡哀止.

奉主升車 祝奉主, 納于櫛, 用藉而不復鞞, 不覆蓋, 升車. 帛箱在其後.【納題主, 奠餘脯.】焚香.

徹靈座而行 執事者徹靈座遂行. 主人以下及門人, 哭再拜辭墓, 哭從如來儀. 但留子弟一人, 監視實土成墳.

反哭 主人以下奉靈車, 在塗徐行哭, 至家哭. 執事者先設靈座. 祝奉主櫛, 升自西階, 奉置椅上, 帛箱置其後. 主人以下升自西階, 靈座前哭盡哀止.

《後滄集》

卷之十四

徧告同門僉公【五十九人聯名當日印布文，就此本而衆共添刪者，覽者詳之。甲子七月】

竊嘗聞節義者，道學之藩籬，道學者，節義之堂室，有節義而無道學者有矣，未有有道學而無節義者也。惟我先師艮齋先生之道學節義，自有一世之公論而無有間然者矣。一自吳震詠誣言誣筆之出，先師之藩籬幾乎破矣，堂室何得以獨全哉？嗚呼！先師窮而無位，未能展布所蘊，逮乎晚年，遭值不辰，瘴海萬里，一心獻靖，炳然之丹，凜然之義，可以質神明也。乃於山頽之未幾，欲以心神所寄之手稿，請認而刊之者，已是門人不思之甚，且雖慮遠圖久之或出於萬不得已，當曰：“先師有靈，必大罪我。我且負罪，爲之猶可說也。”噫，彼震詠欲伸己意，敢誣引先師爲證，答金洛斗討認之書曰：“今春三月，先師獨坐杏下竹床，命震詠曰：‘世不可知，文稿，君須自料量爲之。’”又書李炳殷曰：“先師嘗教小子曰：‘聞業印者自認則著書者無關云，如此則似不必深拘。’”此皆先師曾有認教之謂，而與癸亥三月十一日對先師仲子華九於華島倡言先師曾有認意者互相發也。其所謂“認意”者，卽“認教”之實也，“認教”者，卽“認意”之表也。以言以書，自空撰出，以成先師教人認刊之舉，是推諉先師，以禦討己也。於是嘲侮載路，譏罵漲天，皓皓我先師之日光玉潔，歸於窳窳黑地而莫之解。其陷師之罪，吁亦極矣。凡在及門之徒，孰不明目張膽，思所以辨討哉？夫愛莫愛於親遺，重莫重於先系。然先師沈尸之誓不譜之戒不啻峻巖者何哉？爲其大義之愛重有大乎此故也。獨於文稿也，不拘乞認之爲破義，而教人自量爲之，是稿之愛重，非惟加於親遺先系，又有大於大義之係也。吾知其先師之學，決不如是也。此其心跡上確證，既昭昭矣。且況晚年“勿急刊稿，勿干彼認”之訓，二度手筆，鄭重嚴截付之仲子而謹守之。一則曰：“若請願而刊布，決是自辱，慎勿勉從。”一則曰：“勿汲汲傳世，以自取辱。”吾輩之所以據而斥之者，實在於此。彼無據之誣言誣筆，安足以亂識者之耳目？但末俗好譏，流言難定，

千口成公，久傳成實，誠不無其慮，辨之討之，在所不已，而尚冀其息黥補劓，而自服其誣，自新厥躬矣。終是自是愈甚，少不萌悔，至被黜祀而終不服。其徒又有言“自辱之訓，彼一時也，料量之教，此一時也。”此所以先師之誣愈深而討學之不容緩也。茲敢仰通，伏願僉君子，齊聲共討，以明先師大義，以扶斯文一脈，千萬幸甚。

敬告同門諸公【百十九人聯名. 乙丑十一月】

嗚呼！斯文窮厄變怪疊出，至有晉州認印事而極矣。先師以文稿事有遺書嚴訓，一則曰：“請願刊布，決是自辱。誓守末命，慎勿勉從。此紙別藏，以俟後憑。”一則曰：“有可慮之端，奈何遽欲傳世，以自取辱？又有難言之事，幸惟精思而審處焉。”嗚呼！此先師一生所主，天地之經，《春秋》之義也。凡有彛性者，孰不信服？不幸有震泳者，急於認刊，援師誣證曰：“先師曾有認意。”又曰：“先師獨命文稿自量爲之。”又曰：“先師嘗教不必深拘。”使先師厚受人疑，及見遺書，猶不悔服，反憾公討所發認本未售，以至有告訴之變矣。今又使趙弘淳等，再犯遺訓，肆然認印，使先師道義，剗地埋沒，彼其怙終無憚之惡，固不可勝誅，而弘淳等棄訓附震以實認誣之罪，又可容乎？先師遺書又曰：“去取無準，以之了事者，事親不孝，事師不義。”又曰：“定本無得妄添一篇，若拘於顏私，復行通變，是忍死其父師，而欺其朽骨無知。”噫，彼震泳恣意改竄，拘私添入，時義文句，一一刪出，毀前後之稿，亂手定之本，其忍死師之心，胡寧至此？而弘淳等之聽用亂本而了事者，亦可曰“有師”乎哉？誣證者，誣師也，倍訓者，倍師也，一之大罪，況再之三之者，詎不爲師門之亂賊人人共討者乎？凡承震指嗾，奔走先後者，詎不爲亂賊之黨先治者乎？與同門之助金贊成者及不能自討而倡不必討者，安得不并爲其黨與也？伏願僉君子，齊討誣倍之罪，收洗變亂之本，恪遵遺書，謹守定本，毋同歸於違末命欺朽骨之罪，幸甚。

輪告同門同志【丙寅五月】

年來震泳之變，尚何言哉？一舉而誣先師以認意認教，再舉而訴檢局，構禍辨誣人，三舉而設晉印，以實其誣，噫，其凶極矣。吾輩之辨討斥絕，亦可謂庶得尊師之職矣。近聞彼又構訴先師冢孫田士仁，拘引之囚，係之徵金七百圓，真所謂虺蜴爲心，豺狼成性。陷師不已，至戕師孫。師孫尚如此，其禍士奚恤？道之汙口，寧可無言？然其所以致此者，士仁亦有罪焉。若士仁悟其見欺而斥震也，亟宜責己昧惑，數震罪狀，告之祠廟，喻之士友，奉據遺書，文討晉印，使之撤罷可也。然後師門種種大事，可有就緒也。計不出此，乃設龍刊而對敵之，對敵而不能破，則乃借時法而差押稿本，然且不能，則終亦不免效尤而出認，一何舛錯之甚也？嗚呼！龍晉之認刊并出，而先師之志事愈昧矣。然非吾力之所可如何，惟當謹藏玄鈔親定本，待時乘便，可圖則圖，否則抱此終身已矣。或疑終於此而已，則其於泯無傳焉何？噫，四書六經之時，何曾有印板法乎？以簡以漆，傳至于今，日星中天也。吾師之文，撥心宗之亂，反性理之正，洵可作四六階梯，天相神護，吾知其決無無傳之患也。況紙墨之易傳，非簡漆之比，況天運之所循環，所圖之易前期乎？是可以自信也。

輪告同門僉公【甲戌】

孟子曰：“我知言。”詖淫邪遁，皆舉之矣。蓋以苟不知言，則詖遁之來，其不以邪爲正者幾希矣。此孟子所以必先知言於養氣之前者也。凡其他日，關楊墨博好辯，功存聖門，德流後世，皆以知言一事也。否則終亦歸於淫邪而不自覺知矣，豈不危哉？向者震泳之稱師教而做出杏下之說也，人多不知其爲誣說。其有以誣說斥之者，則震謂“語欠區別，命辭疏忽。”人多不知其爲詖邪。其有以詖邪駁之者，則又以飾辭遊說，左右逃遁，人多眩於取舍。至有以聲討厥罪爲過學生事。至今此論猶未息也。此皆其初由於不知言，而卒至於護誣從賊也。震泳先答徐柄甲書有曰：“垂諭刊集事，三不可。其第一則誠有然者。故鄙欲越海。而來教雖謂賤子發論創始，其先諸友議定矣，其實

原從先師不言之教也。”又曰：“今春獨坐久之，若有所思。震趨而前。教曰：‘文稿欲何爲？’未及對，先曰：‘限五十年後爲之乎？’云云，且君輩老成人去盡，更沒人管，須自料量爲之。”既曰：“原從不言之教。”繼之曰：“須自料量爲之。”“料量爲之”之中，自有“不言之教”之意脈包在者，不其明乎？後答金洛斗書“杏下料量爲之”之說，原本於答徐書而來者。然且曰“語欠區別，命辭疏忽”者，肺肝如見，情狀畢露，何待知言之人而後知其如此也？此所以答徐書未出之前，早行聲討而無復有疑者也。答徐書既出之後，人猶有莫知其誣師誑遁飾遊之說，而曰：“彼亦尊師。”夫楊墨何嘗不尊堯舜？而孟子斥之，不遺餘力，如不共戴天之讐者何也？蓋其本原之際，微有差失，則其末流之弊，必至於無父君爲禽獸矣。向之所尊，尚復暇得以言哉？今震之所繆，已在千里，其弊之至，自不待末流而可見。卽謂僞遺書忍改師稿敢禍士流縛囚師孫等許多窮凶極惡，又不但爲尋常禽獸，而爲梟爲獍矣。然且人猶有以語言薄過了之者，此等人無乃有不是之心於其父師者耶？何今世之多賢也？吁亦異矣。凡我同志之士有志於不爲亂賊之歸誑遁之黨者，何不法鄒聖之明訓，以遍觀乎諸說而究竟其所至，可斥者斥之，可勸者勸之，以昭我先師好惡之正？千萬幸甚。

吳震泳擬與徐柄甲書辨【丁丑】

孟子曰：“聽其言也，人焉廋哉？”又曰：“遁辭知其所窮。”今觀震泳此書而益見其信然矣。渠謂“先師聞田壩說而教代認《炳庵集》，爲金持庵請而教代認《五粹》。爲五賢爲炳庵而代認，則爲先師代認，亦是後人自量而推用者。故曰‘不言之教’。”此爲一篇中最大緊關。然先師以田壩代認說云者，元不足信。且從渠說言之，前日渠黨崔愿之謂“泛論印書”【〈泣告文〉】，金世基之謂“丙丁年間，業者代認”【〈泣告文〉】，禹炯根之謂“古聖人書，如《詩》《書》《語》《孟》，今世刊行，而古聖人不爲累”【〈答玄通〉】，而并無《炳庵集》議印，震泳之謂“冊商自認印書”【〈答田靜齋書〉】，而亦無《炳庵集》說者。今焉猝然改頭曰：“不曰田壩說乎？爲《炳庵集》議印而有是教也。”巧引先師與李裕興壬戌

書承之，而書中無半點認意，則又自斷之曰：“此時若無田壩代認說，雖欲速印《炳集》得乎？”巧則巧矣。然前日泛論之書，安得爲今日之《炳集》？前日丙丁之年，安得爲今日之壬戌乎？且其時諸家簡少文集之刊行，亦多無認。則多見其說不去矣。《五粹》代認說云者，文既不見，則言非可證而無證矣，板主之不會行，則事非可行而不行矣，勘削之不當有，五賢之又非今人，則類例元自不同，而初不足爲據矣。以無證之言不行之事不同之例，強作實證實事實據，則多見其說不去矣。炳庵先師傳心之弟。己所不欲，勿施於人，仁者之心也。以請願刊布決是自辱，遺戒勿爲之，己所不欲者，施之於傳心之弟？先師之仁，決不如是。則爲炳庵代認之云，多見其說不去矣。且夫“代認”者，竟是代誰？代著書人乎？代其子孫乎？代其門人乎？先師於勿認之遺書，既云“異時”，則是以身後言者也。非當身之自認而猶云“自辱”者何也？文者，心之所存，心者，身之所主。故文之受制見勘，卽無異於身之見辱也。以此文以此時，則子孫認之也，是先師自辱，門人認之也，是先師自辱，業者認之也，是先師自辱。然則元來爲先師代認之云，早見其說不去矣。吾故曰：“聽其言，知其所窮也。”然而渠猶謂“因壩《粹》代認而自量推用。”故曰“不言之教”者，已極無當。渠於初答徐氏，既以認爲刊集之第一不可而謂欲越海，又曰：“原從先師不言之教”則其自居清楚，汙辱先師者，顧何如也？吾故曰：“撰此四字而彼誣益深，作此擬書而彼罪益重。”至若引先師許籍墓而作證，則又不足辨。墓不籍而遭掘塚焚尸之變固也，稿不刊而世無發之篋而焚之火者。則渠之比而同之，初不可以欺尺童。然其動引先師平日言與事之無相涉者，輒作認教之證者，爲可痛也。蓋渠遭辨討之初，猶時有掩諱之狀，今也則證成認教者，愈爲的確，少無忌憚，大書特書不一書者何也？以其所謂“不言教”之書，猝發於徐氏也，自知其誣視杏下料量說，益明難掩，而無地可容，則無寧了此既發之矢，而毫不念先師也，是可忍乎哉？余且怪夫彼既以不言之教爲不得不然之義，而爲先師之所不諱。則又何以讐視徐氏之發此書也？蓋以終無奈以無爲有，而又不欲服謝誣罪。然名則可惡，故自不覺讐視發之者也。是其情狀，焉可度哉？然則非可怪也，伊可哀也。指玄通中“若吾師教稿乞認，則是懷以心反覆不忠”語，謂上犯不敢言之地，而加以賊輩之名，則渠於朱子所言“若有高妙底道理而聖人隱之，是聖人大無狀，不忠不信”者，亦

將謂上犯不敢言之地，而加以云云之名乎？渠非不知玄通有所受於朱子，而猶且云爾者，欲以此亂人視聽，而作辨誣人賊渠之報復也。此又可惡而可誅者。然今與後之人，未必皆不通文理者，則適見其計太疏手太拙心太險，而至有謂可笑者矣。其他遊辭飾說悖言惡口，皆當以右辨諸說例之而可見。故茲并已之。

再辨【戊寅】

震之此書，引先師許籍墓事，推作認稿不言之教之的證而曰：“含認之訣，朱宋言之皮幣，先師言之墓籍。”，又曰：“不忍先墓之不守而籍之，則不忍師稿之不傳而認之，亦何罪？”然吾則以爲籍墓之於認稿，正燕越之不相值也。墓不籍之禍，先師謂“彼加陵夷掘移罔測之變。與父祖被殺同”，此所以含忍之訣不得已用之。稿不刊，則雖未廣布，無恙藏在，彼未嘗加以裂破焚燒罔測之變，初無與父祖被殺同者，則其云“用含忍之訣而不得已認之”者，何所當乎？吾故曰：“籍墓之於認稿，正燕越之不相值也。”渠乃既以籍墓推作認稿之教而又曰：“朱宋之之不諱，先師諱之乎？諱之苟義也，朱宋先已諱之矣。”此直以認教爲先師所受朱宋以來一副義理可不諱而公言者矣。然則何以深疾徐氏之發此書，而欲爲先師諱之也？又何以云“倡刊主認，鄙若自引，便都無事”，而欲爲先師諱之也？於欲諱不諱之間，知有事在。蓋渠不諱而言：“先師曾有認意。”【對靜齋言】欲諱而言：“諸公不聞吾口語，不見吾手筆。”【〈答湖南書〉】不諱而言：“先師獨命料量爲之。”【〈答金涵齋書〉】欲諱而言：“不及認否。語欠區別。”【〈答湖南僉座書〉】不諱而言：“先師嘗教不必深拘。”【〈答李子乘書〉】欲諱而言：“泛論他書非指大稿。”【金世基〈泣告文〉】此固乍此乍彼閃奸打僞之長技，而今又一文之內，朱宋以來一副義理之不諱，深疾發書自引無事之欲諱。一彼一此之閃打者如此，此何以故？始之不諱而惡聞誣師之罪名也，則暫轉身而欲諱，中之欲諱而莫脫真贓之被捉也，則又終之寧露面而不諱。然則渠之情狀，竟如何也？盍觀渠與徐氏初書乎？其曰：“刊集事，三不可，其第一則誠有然者。”則渠亦知出認之不可矣。其曰：“鄙欲越

海而不得。”則渠又無出認之心矣。而終之曰：“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也。”渠亦知其不可者，謂先師不知其不可，渠亦無其心者，謂先師有其心，而曰“原從不言之教”者，果成說乎？渠既知其不可，則宜知先師之尤知其不可矣。渠既無其心，則宜知先師之尤無其心矣。然猶且爲此者，明明是援師禦人脫罪加師之計。渠既於出認，以誠有不可立箇題目，則凡此書中代認籍墓含忍之訣朱宋言之等許多云云，皆題外之荒說。非不知其如此，而猶且爲之者，明明是眩亂視聽瞞過世人之計。此其所以爲誣師之賊也。然人猶有謂之非誣而爲之分疏者。此等人正中眩瞞之計。吾誠爲之憫然。若曰：“其明足以知是非而猶然。”則吾又未如之何也已。

傳鉢說辨【乙卯】

夫儒門所謂“傳鉢”者何也？借佛家語，謂傳統爲傳鉢也。道統可相傳受若堯舜之於天下乎？曰“非然也。孔子之於周公異時也，程子之於孟子曠世也。”曰“此則然矣。在并世而師老而歿，弟賢而最焉，則其所相傳受者是統也。勉齋之於朱子，寒水之於尤庵，非此乎？”曰“不盡然也。曾子尤庵之於孔子沙溪歿也，年既少而賢亦未必最也。”曰“然則竟如何？”曰“統在德，不在時先後傳親否。苟其人也，雖時後，統固存焉，如非其人，雖親受，無存焉。”吳震泳與其徒每謂先師傳鉢人不當辨討，此何說也？震嘗有言曰：“龜山鉢傳自伊川，而朱子謂淫於老佛。勉齋鉢傳自朱子，而果齋非其人道心說。議論之是非，不係於鉢之傳不傳。”此言良是。使先師之鉢實傳乎震，罪至於誣師改稿，不可不辨討，況初無傳鉢事乎？先師臨終，無託重門人如朱宋之爲者，世所共知。則乃引己未三月書，把作傳統之證。然是書也，勸勉而非許與，則未見其然。且自是年冬，冒署師銜，投之巴里之後，則先師即與書崔秉心曰：“鄙之前後不起與無書，亦有所受而然。今聞西洋與上海有東儒書，皆署鄙名云，天下豈有如許事耶？孟吳專使來請署名。余斷不許矣。”其不許名之時，與書權純命曰：“茶公事未及成而身先被髡，深用痛慨，如之何？某之勸余復蹈其轍，不知其何所見也。”至於庚申患重正慮後事之日，則有曰：“吳而見終是

有事爲底意。”今見載震黨權純命所記〈華嶠治命錄〉者是也。又與書李起煥曰：“從余遊者，惟金德卿一人，可望其不畔乎道而有待於後矣。不幸遽已逝矣。自餘諸君，各有一長，而未免於偏駁之病。不知異日果能不失正脈否？”又曰：“某人以事功爲人所笑，誠正工夫遠矣。無可問，此只欠見識，見識低矮，事皆卑陋。須用吐瀉法，乃有進處。”凡此先師所云“事爲”“事功”，皆指巴書事，而總之爲乙巳年間與華敬二子書斥震以功業爲重不計道義之結案也。如此而震與其徒尙敢訖先師傳鉢而自大凌人乎？噫，吾之辨此，非欲與渠輩對鬪，特以曉夫世之誤認而惜先師傳非其人者。

吾震泳答李遠齋書辨【丁卯十月】

先師於全翁集，刪正幾多文字？而爲沈李諸家仇對何也？至若李承旭之謂“良改全集。是良集，非全集。”之誣辱。執事其或未聞歟？

先師之刪正全翁集，當刪正者也，諸家之仇對，私而妄也。震泳之刪先師稿，固多不當刪者，而況添之改之乎？吾輩之辨討，公而真也。先師不曾改全翁文。旭說固多誣辱也。震泳則實改先師文，其所改者，豈非是震集非良集也乎？其妄刪添改處，有〈晉本考辨錄〉在。欲知其實者，自應取覽。今不暇枚舉。

執事雖曰：“先師親自修整。”先師則曰：“後稿僅能成冊，而定本則未也。”曰：“後稿神迷，不暇修整。”曰：“私稿釐正，專恃而見。”雅言不啻，而手筆鄭重。是何得爲自道？而非實如今來喻也。

雖使釐正之訓，非盡出於自道，其曰“釐正”云者，指辭語疊蔓考據爽實及漏誤舛錯等處而言，豈許其任自改撰之謂乎？先師仲子靜齋常曰：“先人草定朴竹川神道碑，命震泳修潤。震泳略無謙慎，改之刪之，減得幾半。震去後。先人曰：‘如此則爲墓碣，猶不足，皆還存’”先師嘗訓澤述曰：“而見文尙奇，慎勿效也。”觀此二者，可知先師心也。且渠每諉以後稿未成定本爲禦人櫛

柄。然則其於前稿有既成定本之訓者，亦多恣行手勢何也？【如改刪〈体言〉〈申赫均書〉〈田不關傳〉之類，皆前稿。】於此可見其說之窮也。

不當刪而刪，固罪也。當刪而不刪，亦罪也。不知當刪與否而惟刪之罪，固罪也，知其當刪而惟刪之罪，尤罪也。

渠於大稿，非惟刪不當刪，又無難添入忍犯，欺其朽骨之訓，又至於改之以己意，則罪又大於添也。吾輩辨討，非惟罪其刪不當刪，尤罪其添之改之也。渠乃譏譏然只說當刪不當刪而以張皇之，蓋以校文有刪之之例故也。此眩人手段也。

不有今辨，必有後辨，不有人辨，必有天辨。

吾所欲言，渠先道之，覺得省事。然晉本既出，手本又在，舉以照準，則渠之有罪無罪，不待後辨天辨而即可以辨乎今人矣。

改之一字，非吾所知也。以此誣先師者，承旭輩也，以此誣此漢者，執事側也。此漢猥從先師後而得此目，於分榮矣。

渠答徐柄甲書，分明說“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又答甕井書，分明說“先師獨命自量爲之”，及人之討以誣師有認意，則輒大言之曰：“不聞吾口語，不見吾手筆，何得誣吾以誣師也？”今此“改之一字，非吾所知，以此誣此漢”之云，卽同一口氣。乃渠恒習，何足對辨？但渠事事每自擬於先師者，絕可痛也。噫，王莽之學舜禹，曹操之托文王，何代無之？

後有隻眼巨擘，大書：“李某殺吳某。”執事冢中起來，却恐未易矣。

隻眼巨擘，手本是已，何待後日？人人誅之，《春秋》法也，豈但李某？皇天白日，赫赫臨之，休說冢中。

“心則性，性則心”，須就朱子大全七十卷末，一讀十讀百讀千讀，確然是程語而非王語。然後來打之，吾當恭受之。

此一款，不待百讀千讀而震泳之見却得是，不可以其亂稿而并與其得是者而論之也。竊怪夫遠齋，何故舍多改添真贓，而特舉此而質問也。

似聞以〈晦退栗三先生說質疑〉，全湖洗洗，七聖皆迷，雖欲獻還魂丹一粒，而恐爲明月珠之暗投耳。

辨見〈晉本考辨錄〉

鄙却自有怪笑者，自夫四五年來，湖南之欲埋我黃泉，而不見青天也。

誣師亂稿之時，果見頭上青天乎？自埋黃泉而謂人埋之，此真怪笑。且使愿世基雲翰輩誣遺書以女奴石書之偽造，誣辨誣人以窮凶絕悖之語，此時亦果見頭上青天乎？埋人黃泉而謂人埋渠，此又怪笑

田之認意，崔之答書，成之投稿，許多移兵之擊，改頭換面，迭出互生，擅改師稿之一大罪目踵生矣。

但就所謂“杏下說”觀之，已足以知誣師矣。而況“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者，果是誰書乎？而尙曰：“田之認意，崔之答書。”若非夢中囈語，正是欺人盡蠶，大可怪笑。成之投稿，且休說。并與禍士林押師孫而莫諉兩姜。靜齋與渠書，胡爲而入檢局？始謂絕姜，胡爲而不終絕也？“晉印吳某主張”之文，胡爲而出渠黨也？李祖遠之譏權純命以押師孫快否也，而胡爲面赤不能答也？

【李譏權之語李昌燠所傳】

天或假頑命，不知又生何罪，諸位之勞攘，恐無已時。多事化兒把我一縷頑命，玩弄許多膽男子。是以怪笑之不已耳。

既誣師矣，禍士林矣，押師孫矣，終又改稿矣。天若使渠老而不死，則又不知作得何許罪惡也。多事化兒生得一箇頑戾膽男子，弄出許多徒黨，貽禍世道，無已時也，天意何居？是則笑之無心，而只切怪嘆也已。

吳震泳答吳士益書辨【己卯】

純明妃服云云，先師無恙日，震奉質曰：“受服則受服，不受服則不受服，乃爲正當。前則自處以官人而受衰，後則自同於士民而不受衰，只用白衣冠，無乃前後徑庭乎？”

純明妃，在禮原來臣民無服，而自上令服之，故先師參酌於禮令之間，雖成白衣笠之服，而不受衰。禮無服，故不受衰。上令服。故白衣笠。此正處變而得其正者。前之受衰，以有服而當服故也，後之不受衰而只用白衣笠，以無服而爲有服故也，非以一人之身隨時處變，以官人士民而前後異之也。此正孟子所謂“皆是”者也。彼乃以前處官人後處士民之徑庭不正當駁之，非惟無識，亦甚不恭矣。

先師曰：“爾言似然。但今年病俱極，雖父母喪，莫能持衰。”

純明妃，喪非在高宗甲辰乎？是時，先師以年則六十四，以身則尚康強而出行湖南數百里外矣。方在洪大妃喪中，朔望服衰望哭於天巖禮川之間者，衆目共覩。然而不受衰於純明妃喪者，豈非有精義深意者存乎？彼乃云先師有“今年病俱極，雖父母喪，莫能持衰”之言，據之年條事實，已知其爲誣矣。且聖人制禮，雖七十者，亦衰麻在身矣。以若先師平日之謹禮，乃於七十前身無疾病之時，有“年病俱極，莫持親喪衰”之說者，萬不近理，尤知其爲誣矣。然則其曰“爾言似然”者，亦可知已。此之爲誣師，亦何下於認意認教？噫，彼誣師之習慣熟成性，觸處皆然，辨不勝辨，誅不勝誅矣。

震又稟曰：“然則只用白衣冠，恐不須立說以明其所以然也。”先師又曰：“似然矣。”

既告其所當然，又明其所以然，先師平日教人成法，況於處變禮而得精義也，尤豈有舍成法而不明教後人之理乎？此又可知“似然”二字，非先師言矣。

後人得無疑其前後徑庭，半上落下乎？

先師此事，既參酌禮令常變之間而得其中正者，則可謂百世以俟聖人而不惑矣。特彼自疑之，而意後人之亦與己同。此又誣後世以無賢聖也。

遂刪“只用白衣冠云云”。此刪而非改也，高明乃罪之以改之。雖然，其區區之心，真出於為師，而非誣師也。似此不難知之正當禮意，亦為此漢之罪案，他尚何說？

大凡文字，雖刪而不改，所刪者為肯綮眼目，則便成別意，而有甚於改之。今彼刪出“白衣笠”云云十八字，則讀者但見見在“鄙人受衰，從前依漢湖已例行之之語，豈不看作今喪亦為受衰之說乎？然則雖使刪而非改真如彼言，已是便成別意甚於改之者，而況改相與之與字，作語助之歟字，成結案之辭而掩中斷之跡，則彼所謂刪而非改者，將誰欺？欺天乎？天人竟不可欺，則自寫誣悖而已，豈不哀哉？而尚自居以真為師，是情可惡也。如此正當罪案，彼不自以為罪，則他尚何說？

權純命與李遠齋書辨【丁卯】

甕札撓刊

先師大稿，道義所載。勘削認刊，敗傷道義。故涵齋金丈之禁認，已發於華議，

復書於清刊，正欲完全稿事，何謂撓刊？吾見先師道義，被渠輩撓破，未見涵丈之撓刊也。

及夫祥時，湖之構逐石農以誣師

構者，構虛之謂也。震泳親筆先師獨命世不可知文稿自量爲之及著者無關不必深拘等說，果非誣師認意之實案乎？【震泳答徐柄甲書，又以出認刊稿爲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云云，當時未及發見。】逐者，被黜之謂。渠輩每辨震之被黜曰：“不可與金容承同列，故別行望哭。”今忽自口招出逐字。此欲掩不得者乎？

湖之對姜訴也，丈丈草其收錢文而勸之。然則謂丈丈非湖難也。

訴雖姜名，其實則吳權之爲也。訴出後，靜齋畏禍，遣書于吳，許姜以《節要》。吳以其書入檢局作證類。徐禹一【錫煥】之參通也。權質之曰：“能對下于訴場乎？”今又詰遠齋以題名〈急難錄〉，此其的據也。渠輩每言“姜訴於我不關”。今以此書觀之，豈非所謂誠中形外者？又非諺所謂春雉自鳴者？湖之對訴，是何說也？吾守吾義。彼自起自消。此內外國人之所共知也。

認許默許同一許，而清則討之，玄則新設，完認則無罪，京認則有罪。

此全誣事實，全乖義理。震泳答甕井書曰：“似聞有脫累之道，故已令金敬父完山一行。”答徐柄甲書曰：“先師之盛德，人固共尊。故今似有脫絆之機，如葬時無累。”成璣運累有奉稿專進之書。若玄與清同一認許則其所云脫絆無累者，果指何事？其所以舍清進玄者，亦爲何故？彼雖亂肆筆舌欲爲暫時眩人之計，豈可得乎？

震泳禍士日完行日記

乙丑六月初二日，與蒼巖朴丈族弟士毅同被檢局調查。檢問余曰：“事良齋幾年？”曰：“二十三年。”又問：“知吳震泳乎？”“知之。”“知姜泰杰乎？”“不知。”檢又問：“知姜泰杰營刊良齋私稿精選乎？”曰：“聞其營刊節要矣。”檢乃出示認許狀曰：“非節要，乃精選也。”又以通文示余曰：“作此文乎？”曰：“然。”檢曰：“崔秉心訂正然乎？”曰：“既吾作則吾文，何問訂正？”檢出先師辛亥癸丑遺書二度示之曰：“此誰筆也？”曰：“先師筆。”曰：“二紙字體不同何也？”曰：“雖似不同，同是先師筆。”曰：“胡爲發通禁姜印？”曰：“爲守先師遺訓也。”曰：“先師之教有不是者，亦可從歟？”曰：“師者以義理教人，元無不是之教也。”曰：“所謂‘守訓’者何也？”曰：“先師遺書曰：‘請願刊布，決是自辱，誓守末命，慎勿勉從。’吳震泳既誣先師以認意認教，又使其徒弟姜泰杰請願而刊布，是違先師訓，昧先師心。若不討罪禁刊，先師之道義永昧而無子孫門人一人也。”檢曰：“先生遺書出於一時之感情，姜泰杰認刊，傳文字於百世也。豈非好事乎？”余曰：“先師文字所以爲重者，以其有道義也。若悖訓昧心，使道義不明，則文稿雖傳，何益於先師？且文不依本，多所刪拔改竄。又標書曰‘著作者姜泰杰’，則是姜稿也，何以云良翁稿？”檢曰：“總督府認許狀如此，而曰‘悖賊’，曰‘切勿購讀’，一則名譽損害，一則業務妨害。”余曰：“悖賊是指吳震泳，非姜泰杰。泰杰認販廣告曰：‘告吳震泳，震泳諾之。’禁認通文曰：‘吳震泳使其徒姜泰杰。’事實如此，文理如此，吳，主也，姜，僕也。凡事主任其功罪，僕何與焉？且震泳是損害先師名譽者，損名之律，震泳可以當之。業務妨害亦不然。世間可營之業甚多，而其必以先師遺訓勿認之稿作營業物者何也？吾之禁止，守師訓也。不當謂害業也。”檢曰：“以道德上言之，守師訓，固美矣，以法律上言之，爲抵罪。”余曰：“法律因道德而立者，道德法律豈有二乎？”檢曰：“用處二也。”又曰：“吾爲忠告之言，請回心改見。不然，終至抵律，身受苦楚，傾家破產，後悔莫及。”余曰：“辨師誣守師訓而死，死亦何恨？”檢置紙筆於前曰：“請置名捺章。”余曰：“何事？”檢曰：“將書彼此同答之辭于此紙以證之。”余曰：“吾製通者也。吾之言皆在通文中，復何書證之？”爲檢無言，余乃出。士毅則略問如吾，而於通文印布事加詳，蒼丈則又略於士

毅，而皆不捺章而出。然前頭之事不可測。嗚呼！震賊之禍，乃至此乎？事已至此，但當順理而已，亦復何哉？

觀此檢之先問知吳震泳，次問知姜泰杰，則檢於此訴，已認做吳爲主矣。故此中諸人之被查時，皆言“胡不呼詰訴主吳震泳，而獨問我輩爲。”檢謂“雖則吳主，舉狀者，非其名，故不呼。若自此中反訴吳，則當呼問。此爲法律常例”云云。蓋檢亦明言：“訴主是吳也。”而護陰者強謂“姜也，非吳也。”是豈成說乎？是歲除日，追識。

又

余以爲師辨誣事，爲吳震泳血讐。使其門徒姜泰杰，舉行告訴。今年夏秋間，已被全州檢查局三呼問答，痛憤羞惡，何可勝言？雖然，吾之事，義也，非罪也。時之律，亦所謂‘法’也。意謂汔可已矣。不料震鋒益銛，時律叵測。乃於十一月二十七日，又有檢呼，可知其必有事在。同期被呼者，族叔鬯涵兩丈及族弟士毅蘇庠丈及欽齋兄弟。及期惟欽齋弟敬執【秉哲】與士毅先往而還曰：“檢曰：‘若不與姜泰杰圓滿和解，必有律。’使之退去協議。所謂‘圓滿和解’者，改作通文及取消‘切勿購讀’四字云。”余聞之，曰：“如此則所謂‘辨誣守訓’者反爲背訓實誣，寧死，不可許也。”乃作一小文，輪告同難諸公曰：“聞檢言不卽和杰，必有事在。此正吾人致死之秋也。致死有師，許和無師，有師無師之間，人獸判矣，可不畏哉？”乃十二月初四日也，而時見住本郡德川面萬宗書齋。至初十日鷄初鳴，有二人訪余。余方與學徒二十餘人并熟寢，驚寤起問曰：“如此黑夜，何人來訪？”彼曰：“吾等梨坪面駐在所日韓巡查，自全州檢事局有拿引通知，故來。”余思此震杰之禍也。檢令火急若此，今行必遭大辱。此辱我誓不受，則只得有死而已。爲師而死，死復何恨？但所恨者，世道之罔極也。乃謂巡查曰：“天黑雪積，彼此俱不堪行，待天明如何？”彼曰：“此固好矣。但檢令午前到達，違此罪我，幸見諒勿緩。”余又思既爲一行，何必爲若屬罪也？遂登道。行過永達峴，至匏子洞，謂巡查曰：“先墓在此近，吾拜省而來。”巡查許之。拱立墓傍，相與指點有言。余乃進拜八代祖妣六代祖考及祖

考妣，終至先考妣墓，則拜訖而不覺痛哭失聲，念先人之教育不肖而未見卒業，不肖之學未及成而先死師事，斗山爲嘸，達川欲咽。省畢又前行，路險天黑，雪沒足，風割耳，十顛九倒，千辛萬苦，到梨駐，東方未明。駐房如鐵，從行崔敏烈以下二十人及次兒炯泰，皆寒戰生粟。巡查使人溫突熾炭。余乃令進筆硯，大書衣帶曰：“今日之事，只有辨誣守訓，歸拜先師於地下而已，他無可言者”，以備答檢之辭，又作書分付三弟三子，又書告從學諸子及希淑子由。蓋以自分其必死也已。而天乃曙。汝昊汝直炯復及再從叔致賢三從兄京賓趙弟子貞來見。巡查又促行前進，至新泰仁驛，送家族歸之。惟崔敏烈金常洛金庸洛羅仁相崔丁柱李炳基及子貞炯復隨余上車。日過午，到全州。入檢事局。檢曰：“若與姜泰杰兩造相和，圓滿解決則已，不然有律。”余於和解之說，若不聞也者，但曰：“所謂‘律’者，何律也？”檢曰：“營業妨害律也。”余曰：“艮齋先生之遺書禁認義也。雖親門人子孫，不可壞義而刊稿。況姜泰杰以門人之門人，爲自己之牟利，違訓刊稿，而破艮齋先生之義，何所當乎？先生禁認守義之稿，元不當爲姜泰杰牟利之營業物也。稿既不當爲營業物，則妨害有無，不當問也。故吾則不知其爲律也。”檢曰：“被告思想則似然矣，法律家思想則不然也。”余曰：“造言誣師，違訓刊稿者，吳震泳也。所以發通討吳也。吳是損害先師名譽者也，損害名譽之律，吳可以當之也。”檢曰：“以道德上言，則守師訓，孰不曰‘不善’？以法律上言，則爲犯律。”余曰：“天下安有乖道德之法律乎？”檢曰：“用處則有異也。”最後檢曰：“若不解，必然有律。被告之意如何，請一言之。被告是製通而主謀者。故特呼問之。今日乃法律判決之日，二者之間，斯速一言。”余乃正色徐言曰：“吾則但知辨誣守訓而已。”以衣帶所書者示之曰：“欲知我意，請視此也。”爲之一讀，檢與書記相顧無言。初以受調，次設紙筆，終不錄一言，使之出去。蓋今日之無事，實意慮不到也。豈以將加大辱，故姑緩之歟？夕飯後，汝安倉皇顛倒而到。其焦心可想。又宋童基滄隨到，令人驚感。此童今年十五昨有微恙，夜不到齋，至朝始聞吾事，對案不食，失聲痛哭曰：“吾師志操，吾已竊覩矣。今行若不免遭辱，必然舍生。吾師殆已逝矣。”遂以廣袖泥鞋，隻行登道曰：“吾當與吾師同進退。”間關百里，黑夜抵此。其扶病觸寒，二頓不食，悲憂瘦瘠之狀，人皆嘖嘖賞曰：“異哉。此子幼齡，尊師之誠，何其篤也？”并賀於余曰：“行何教

術而致此感服?”是則可愧也。十一日。從行諸君及子貞炯復皆去。余爲昨日風寒所崇，殆難振作，因與敏烈基滄調理于旅館。族人明益文卿明中金君伯溫皆先後來見，蓋意我之遭拘辱也。十二日，余歸家。貞庵涵齋堅庵懶齋慎軒及崔哀汝重來待見余。希淑及林貞老，亦到完慰我，而交違未見。【追聞檢向人道余帶書事曰“道本廣大，金某如此狹隘，吾無如何”云】嗚呼！古今天下，寧有今日之稿耶？古之士禍在異類，今之士禍在同門，古之士禍在本國，今之士禍借外國，古之士禍，只有刀鋸竄謫，今之士禍，乃有髡首役身，古之士禍，猶可說也，今之士禍，不可說也，古之取義，尙可易也，今之取義，更可難也。噫，辨誣守訓，固弟子職分，巧爲逢此至險之震杰讐夷之執命，飽受萬端侮辱憤忿抑鬱，此何人事？雖然，尙有二事可勉，上不負先師，下不失吾身，曰“不許和解”也，“不受髡辱”也，于此二者，一或失焉，獸而非人，可不念哉？吾不過蒙士師也。宋基滄一童行也，尙能知吾之心。艮翁乃道學宗匠。震泳老於學者，而不憚誣倍艮翁。噫，人生善惡相懸，乃如此乎？

告汝安【乙丑十一月二十九日】

渡江若遂，則既不遭辱，亦不失義。無不可爲，但當事者不在，延及其餘。如張儉老泉事者可恥，百爾思之，只有從容自處一道而已。

告從學諸子【乙丑十二月十日】

聖賢之學，盡大倫大義而已，讀書者，所以明此也。君輩之所從學，吾也，吾之師，艮翁也。今日吾事，所以明艮翁之大義，盡師生之大倫也。君輩毋忘吾今日之言，孜孜兢兢，無或得罪於義倫也。此所以奉承艮翁之教而不墜聖賢之傳也。

告汝安及同難家子弟【乙丑十二月】

曾子曰：“吾得正而斃焉，斯而已矣。”此訓吾輩正合今日用。若爲父兄救難者，擅行改通乞和之事，則非所以救父兄也，乃所以戮父兄也。

告仲叔二弟【乙丑十二月十日】

安貧食力，教子訓姪，務持大節，無關瑣屑。

告長兒炯復【乙丑十二月十日】

革舊染，進新德。將死言，爾毋忽。

告次兒炯泰【乙丑十二月十日】

奉慈志，友弟兄，勤耕讀，繼家聲

告參兒炯觀【乙丑十二月十日】

勉聖賢學，卒乃父志

擬告震黨諸人【乙丑十二月十日】

震是大惡，非復可以人理責之者。其餘黨附諸人，或爲迷惑，或趨勢焰，至於

忘師附賊，究其情則可哀，非可惡。若能反省改悟，回旗倒戈，將功贖罪，則何必追念舊惡哉？吾以辨誣守訓，將至致死，可以藉手歸拜先師於地下矣。諸人本是先師腳下人，今於歸拜先師之日，有不可無一言而終棄，故茲以心告，尙其警悟。

擬與檢事書【乙丑十二月二十日】

初十日，所答已盡矣，而就中辨誣守訓歸拜先師八字，可見吾志，更呼何也？蓋良翁禁認之稿，初不當爲人營業物，則妨害有無，不當論也。辨誣守訓，弟子之職，而可臧不可否者，則犯律與否，尤不當言也。猶且強制處斷，則檢事之不明不公也。許和則無師也，反訴則同浴也。猶且苟且求免，則金澤述之悖倫悖義也。

吳震泳答吳士益書辨【戊寅】

鄙答徐書頭辭，因彼之有殺心而狂叫亂囂於一國，竊意其空然受了誣師亂賊之名，不若據實直言，爲引重鎮壓，遂有說話。

彼有殺心狂叫亂囂於一國，指何事而言？若指甲子秋發通聲討也，則震答徐書“原從先師不言之教”云云，在壬戌冬，是時孰有以誣師賊討之者乎？只有涵齋禁認之一書矣。蓋未聞“曾有認意”“自量爲之”“不必深拘”“不言之教”等說，時豈有以誣師賊罪之之理乎？渠之平生變幻事實舞弄文字之習，每每如此，此其胎疾之難醫者也。

彼雖假義，何嘗夢見義字面目之近似者？不過自寫誣悖，自累先師者也。【若無彼狂叫亂囂，則孰有以認爲罪者？觀沙尤諸先生集，可知也。】

先師“請願刊布，決是自辱”之遺書，非義乎？寫先師遺書而辨誣者，非義乎？謂寫遺書而辨誣者爲自寫誣悖，則語歸於何地？豈非逐鹿而不見泰山者耶？

辛亥遺書，必因生前請印稿者發。故鄙敢以爲然也。不然則壬戌三月十六日，何不以遺書見教，而乃曰“自量爲之”乎？

“請願刊布自辱”，自論當身生前事也。【聞諸田璣鎮，親侍於旺島日，有刊稿之請而有此訓也。】“業者代認不拘”，爲論炳庵身後事也。【此教鄙與二三人同爲親聽。如其誣也，天必殛之。】炳庵若生在，則亦必不爲此論矣。惟其炳庵身後也。故有此教。則先師身後，亦可然也。此爲不言之教也。既云不言，則後人之言也，何損於當身大節也？

震及其黨，始於辛亥遺書出也，或謂之“如此遺書，吾囊中多有”，或謂之“從天降耶？從地出耶？可疑之大者”，或謂之“靜齋遺書，不敢指以爲有”，或謂之“女奴石書習”，或謂之“先師門下，摹倣先師筆法者，一等善手多有”，則此非總之爲偽造乎？既而有不同聲討之李遠齋喜璣爲震扶護之宋春溪毅燮所藏者之繼出，則自知凶吻之妄奸謀之綻，而罪無所逃，故今忽變舌，謂辛亥遺書，因生前請印稿而發，又引稱聞田璣鎮者證之。然其於遺書中曰“異時”曰“末命”曰“後憑”之云，終不可以生前看者何？且若爲防田之請印而發，則遺書中至有“田璣鎮令看文稿”之語，而不及正爲所防田之請印者，何也？是其可信者乎？渠於是計窮矣，而猶復曰：“不然，壬戌三月十六日，何不以遺書見教，而乃曰：‘自量爲之’乎？”則莫重後憑之遺書無用，臨時捏無之獨命有力，甚可痛也。然獨命之反對遺書，則卽此而可見。於是渠所掩諱“自量爲之”“不及認否”之說又窮矣，“業者代認不拘”“爲論炳庵身後事”之云，計窮之餘，又生一計矣。雖然，“代認”之說，年前渠黨之謂“泛論印書”，謂“丙丁年間，泛論《詩》·《書》·《語》·《孟》，今世刊行，而古聖人不爲累”，渠之謂“冊商自認印書”，而并皆無《炳庵集》說者。今忽變舌，謂“爲論炳庵身後事”，則前日之泛論，不得爲今日之炳事，前日之《詩》·《書》·《語》·《孟》，不得爲今日之《炳集》，而人誰信之？然前日之謂泛論者，諱當身大稿，則猶有所忌憚也。今日之謂

炳庵後事而曰：“惟其炳庵身後也，故有此教。則先師身後，亦可然也。此爲不言之教也者。”渠又直以此論爲大稿有言之教，而不啻不言之教也，何也？先師炳庵同時人，其所云“許《炳庵集》”者，卽云“許當身稿”也。於是乎曲成渠所謂“認教”之計者，亦可謂奇矣。然終無奈遺書中“異時”“末命”“後憑”之云，元不可以生前看。如上所論，則其云“自辱”者，正以身後言，而謂以此文以此時而請願則爲自辱，初不分本家認代人認也。“己所不欲，勿施於人”，學問大節也。先師決不以“決是自辱”之己所不欲者，施於傳心之高弟。則多見其計之終窮也已。

先師親選時諱文字爲別集一冊者，是果爲百千世後天地清明之日刊行之意耶？是亦可謂不言之教也。義固有爲賢之諱，此事則不必諱，據朱宋之言行，可推而知矣。

未論刊與不刊。恐時諱文字之碍人耳目，邂逅生事，所以爲別集一冊。此先師慮患之意也。渠乃以之作“認刊之意”“不言之教”，則又不待《炳集》之借論而直言當身稿事者，和盤托出，更無餘隱，而令人省得多少事矣。何不早自如此，而勞心於《粹言》《禮說》《炳集》推用墓籍旁證遺書看以生前之許多窮計遁辭也？何不早自如此，費力於“語欠區別”“不及認否”“非指當身大稿”“不聞吾口語，不見吾手筆”之許多掩諱逃閃也？到此而一齊綻露，有何理說？噫！遺書“請願刊布，決是自辱”之義，固建天地而不悖，則渠之以此等說誣賊先師之罪，不容誅，而其間欺人欺天之罪，亦可誅也。朱宋何曾有請願於金清之言與行？而渠敢謂“此事，據朱宋言行，可推而知也。”若以所論皮幣言，則朱宋之皮幣，固所以圖復雪於金清。渠所謂“認意”，亦所以圖復雪於日本乎？類例不同，千不是萬不當。誣師不已，上及朱宋之罪，又如何可赦？

鄙於志山，只云陽類而惜其死，未嘗匍匐其門，納媚乞文，如某某之爲也，則安得不以負先師背淵源斥某某乎？

鄙答金聖章書，雖謂洪金爲陽類而惜其死，然無禮不恭於諸先生，則亦未嘗不并言之。惟其有無禮不恭。故承師訓而辨斥之。先師亦答金而辨責之，辨

責之中，寓以疏絕之意，亦未嘗告絕於其父子矣。雖有犯於吾門，與某某輩之得罪於師門與淵源有間也。其秉義守節於亂世，又何可不謂之陽類？

姑無論志山之陽類與否，無禮不恭之有無。但據渠答金聖章書，既謂志山以詆斥我淵源先賢矣，則其爲當絕明矣，而渠不惟不絕於其生前，乃謂“自諒平日，似不至爲見絕之罪。聖九輕信讒言，遭喪不訃。絕人不當，若是無據”，反欲區區自附其身後。若得聖九之致訃，渠豈不匍匐而哭志山之靈乎？若吾門諸人之生訪弔於志山者，以先師答書許解於志山以書自辨之後，故知其不詆斥淵源先賢矣。渠則既斥之以詆斥淵源先賢，而猶生不絕死自附，反罪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往見之崔敬存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其心尤險矣。納媚乞文，未知指誰，而負師背源之斥，與前日罪崔語同，恐亦指崔也。又云“某某”，則其一人誰也？渠於答金書謂“崔秉心金澤述援人同仇”，其一人者，或指余歟？蓋鄭胤永之乞文於祭文以誣全翁而當逐文齊絕之嘉金，固是罪也。吾門諸人之受文於先師所許解之志山者，有何罪焉？如在許解前則未安矣。余之以宗事受文，則在金世基山水話錄前一暮辛酉春，往弔則在其小祥後五朔乙丑秋耳。大抵此事，當看志山之詆斥淵源先賢與否當絕不當絕而決之。渠之既斥以詆斥淵源先賢，而生不絕死自附者，不得負師背源之罪於公論，而因先師許解，知其不詆斥淵源先賢而相從者，得負師背源之罪於渠可乎？誠不足多辨。至於“洪金雖犯吾門，與某某輩之得罪師門與淵源有間”之云，又全不成說。渠之所惡於某某者，豈非以相從於所謂“犯吾門”者乎？然則舍其犯之者而操其相從者可乎？然渠所謂“詆斥淵源”之云，既與先師許解之事相反，則又不足多辨。

觀世基凶文【丁丑】

觀人先論其大者，則其餘細行，可以類推，雖不論可也。余謂觀文論文亦然。世基此文劈頭，以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爲余第一大罪。渠又嘗於所作〈偶記〉，謂：“先師絕洪金，厥有六證，

田崔宋之謂已書解而萬端扶護者，雖欲免誣師背訓之名得乎？”渠之此案，可謂鐵板之定，而震泳所嘗大書特書不一書而傳授於渠者也。如罪欽齋之往洪城而曰“背先師負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也”者，其一也。然而震泳後來有答金聖章書一度，而曰：“震於志令有先世之誼，重以時義大節，嘗視爲洪流一柱而傾向之云云。若震則自諒平日，似不至爲見絕之罪，故聞志令之喪，屢與人書曰：‘痛斯世之無陽，傷吾輩之益孤。’時與人語曰：‘聖九輕信讒言，遭喪不赴，絕人不當，若是無據。’云云。”即使鄭雲翰特致於聖九，無異自達而求其相諒。若得聖九諒解，而致赴不絕，則震也往拜志山之靈必矣。今姑無論志山之可絕不可絕，先師之已解與未解，卽以震世之言，還治震泳之罪，則奴事爲上典於詬洛學亡國斥梅翁僞學罪先師亂人父子之金承旨者，震泳也，扶護洪金而不得免誣師背訓之名者，震泳也，背先師負淵源爲全門鄭胤永之一對者，震泳也。世基於此，何不以罪震而討之，布告國中也？尊淵源護先師之地，亦有親私之可容乎？若曰：“渠方師震，不無逢蒙之嫌，故不敢云爾。”則何可不復踵門，如渠〈偶記〉中所論“師生處變”者乎？在震則掩之不彰，在余則勒加罪案，而欲人之信渠言，其可得乎？此爲此文中大節拍。而不可信也，有如此則其餘許多誣人之說，可類推而知之。【既不知其人父喪母喪之先後者，何以知其人之有禮無禮乎？他皆類此。】余所謂“觀文若觀人，先論其大者，則餘可不論”者此也。全齋先生大碑，先師於入刻時，與衆門人累日商訂而親改之，大書十尺之貞珉，屹立周道之傍，有誰不知，有誰不見。渠乃謂“余〈晉本考辨錄〉中，勒震以改全碑之罪”，加以目可矐口可抉腕可斷之毒口。吾之〈考辨〉，成吾手，藏吾家，而不及印布。渠未嘗見而有此云云。吾知其世之君子，考〈考辨〉而無見此書之日，渠反受矐目抉口斷腕之刑，而無辭可供也。至於〈休言〉中云云，先師元作“有親子而立族姪爲嗣者，是仕官家忍心害理之習。”有小註“親子指庶子”五字。不曰“庶子”，必曰“親子”，而另懸小註，所以明言舍己子立他子之爲害理也，其義精矣，其意深矣。今何敢復容他說，必以震之改“親”爲“庶”刪小註爲是，而掩蔽其罪，昧却先師精深之義意乎？渠輩之分疏不改稿者，蓋不過如此，此亦可以類推其餘矣。世文又謂“余若使得勢，則衣冠之族必赤矣。”此震泳之已行於鎮川全州晉州之警署檢局，而網打土類，縛囚師孫者。渠今自寫渠輩之凶悖，豈非所謂“自

然不易之公論”歟？

觀吳震泳答金聖章書【戊寅】

朱子曰：“君子之治人也，卽以其人之道，治其人之身。”余於此書，卽以震泳之言，治震泳之罪，可乎。此書主意，發明渠本無見絕之罪於志山父子，而因崔某金某作仇行讒，以致聖九絕渠不計，更望聖九之釋疑，而欲趨附其門也。今姑未論某某之仇讒與否。渠於此書劈頭，既以詆斥我淵源，定志山罪目，又於與人書，罪崔之見志以負先師背淵源全門之鄭胤永一對。志山之罪如此，雖志欲不絕，渠當絕之，乃反稱冤於志山父子之絕渠，而欲區區自附，此何以故？志山儒林大家，懼其誣師之討也。則不念先師之許解，而罪之以詆斥淵源先賢。意聖九之年少而可誘也。則盛道其父之節義而自附。此奸宵反覆之常態，亦無足怪。君子但當以渠謂志山詆斥淵源先賢之言，治渠自附志山之罪已矣。渠又以某某行讒之說，連及於誣師之討，而謂“湖南二三人舌尖筆尖外，無可捉賊者。”然“先師曾有認意”“不必深拘”“自量爲之”“不言之教”等說，元是出於渠之舌尖筆尖者，則不待湖南人舌尖筆尖之辨討，而卽以渠舌筆之言，治渠誣師之罪已矣。

附田士狷<觀吳震泳答金聖章書>第二條【丙子】

吳震泳稱答金聖章書中所謂“自有吾門刊闢以來，震所得誣案，不啻齊終南。此雖不自敬慎所召，湖南二三人舌尖筆尖外，無可捉賊者矣”，是將前後渠事渠書，一歸之於無之，而總束全局，作湖南二三人一大罪案者也。今且從渠說除湖南二三人舌尖筆尖，直從渠今此書中捉賊，使渠伏辜，無冤可乎？既曰：“詆斥淵源先賢矣。”則宜其引義之不暇，而志令生前，既不聞有告絕，於其喪後，屢與人書曰：“痛斯世之無陽，傷吾輩之益孤。”又欲趨附於身後而曰：“聖九輕信讒言，遭喪不計，絕人不當，若是無據。”果可如此，則詆斥淵源之說，

又何以出於渠書也? 以此以彼, 罪有不容赦者. 從渠自手辦出, 非復湖南二三人舌尖筆尖而捉贓則在, 請世之月朝家下一評焉

觀田士順與李慎軒書【丁丑】

昨夏於堆紙中, 得昔年玄洞刊所時文簿一沓, 而得〈晦退, 栗三先生說質疑〉全編之刀割拔出於既編之冊子中者. 觀其朱點計字之貌樣, 則確是自文稿中割出者也. 遂與晉本對照, 則無一句相違, 此未知何故也. 此中所藏謄本私稿【亡弟所藏】〈体言〉中“有庶子云云有親子而立族姪爲嗣”一節, 墨括“有庶子云云”五字, 而末無“親子指庶子”五字之小註, 此又誰人所爲也? 晉本但削“子云云有親”五字, 而爲“庶子而立族姪云云”而已, 何嘗改一字耶? 以是類推, 則他亦可三隅反, 何必呶呶校長爭短, 以授卞莊子之窺隙耶?【丁丑三月三日】

玄洞本後稿鈔, 出於先師壬戌夏親編華島本者也. 若如此書中言, 是謂〈三先生說質疑〉“更按”以下三百三十四字之文, 本載華島本, 而玄鈔時, 既依華本寫入而旋割之, 乃以前本“然則”以下百二十二字之舊文載之者也. 然則南軫永之文, 何以不曰“改本元入大稿”, 而乃曰“改本藏在師宅”? 何以不曰“依原稿付鈔”, 而曰“相議付鈔”也? 吳震詠之書, 何以不曰“先師元入於稿”, 而曰“先師命之, 寫稿而手本付與南軫永, 今添入者是也”? 所謂“玄刊時文簿”, 靜齋士猗之所主也. 若於昨夏, 得刀割紙於文簿中, 則何以不敢問於士猗, 而今乃云云於士猗身後也? 若果刀割, 則何不以此邊亂稿罪罪晉本者, 反罪玄本, 而乃只曰“何必呶呶校長爭短耶?”也? 此可以知其情也. 順也嘗對人言辛亥遺書是僞造而曰: “吾祖考門下, 摹倣祖考筆法者, 一等善手多有.” 其人遺書, 是其父靜齋所出布者. 而其言如此, 是豈常情所及乎? 人也如是, 今此云云, 又何足深論? 慎軒見不及此而信其說, 先生避跡護身之計, 貽書于余, 自辨以不在玄洞全不識, 又問以此事未知緣何而然, 是可歎也. 〈体言〉云云, 先師不曰“庶子”而必曰“親子”, 所以明舍親子立他子之爲

害理之意，已詳於〈考辨錄〉。

慎軒前書謂“彼以‘私稿釐正，專恃而見’八字，號令於衆，此人此口，如何抗拒？”此殊不然。蓋在後稿，未及親勘之日，則容有此訓，自壬戌夏親勘以後，則已過時而不足爲據，而況於前稿乎？彼乃藉此而無難改於前後之稿，甚可痛也。且“釐正”豈改撰之謂乎？

讀先師文稿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戊寅】

學問之弊有兩端，一是苟偷，一是熱鬧。熱鬧者，胸中不安貼，凡事要自主張，不問前言往行如何，一任自己所見，胡叫妄作而已。苟偷者，又却只是謹身惜名，目見邪說詖行剝蝕正道，而不敢開口指陳，其行處亦多可觀，終是苟簡底意思在。【〈與鳳岵金丈〉】

澤述謹按：以近日吳震泳事論之，胡叫妄作之不已，而至於誣師節以認稿，改師稿以己見，熱鬧之弊一至於此。若其目見誣師悖行剝蝕正道，而不敢開口指陳者，不閑師道之罪與害師道之罪，相去不遠，苟偷之弊，一至於此。先師之言此兩弊，其慮遠哉。

專察利害之弊，至於遺君後親倍師賣友。【〈答晤堂李丈〉下同。】

澤述謹按：震泳不勝事功之心名利之念，其弊至於忘君戴讐陷師禍友，可不畏哉？

凡古來異學之士，由後人視之，固是門外，自當時觀之，猶在室中。且如墨氏宗堯舜，是墨氏在孔孟室中。陸氏尊鄒魯，是陸氏在程朱室中。惟其如是，故世人親聞儒者之辨闢，而猶認爲正學。聖賢目見世人之陷溺，而攻之如血讐。此在當時，不知孰爲得失，而後世知道之士，出而正之，然後始有中外邪正之分，而不可以復合矣。

澤述謹按：人多譏澤述辨陰震者，曰：“彼亦尊師，胡爲乎室中之鬪？”爲此言者，視先師此訓，謂如何哉？

凡吾儒之辨異端者，只認爲道理當然而爲之，不可較吾說之行否它人之從違彼勢之強弱，而爲之前却也。孟朱之時，彼固未嘗畏之。雖孟朱亦未敢便道舉天下無一人不從吾說者矣。

澤述謹按：人又有譏澤述辨陰震者，曰：“彼衆子寡，彼強子弱，子雖辨之，子說其能行諸？”爲此言者，視先師此訓，謂何如哉？

彼之間言長語誣辭惡聲，愈辨而愈甚，徒自憤懣耳，不若付之忘言。久則是非自明，縱人未明得，亦須有天在，正不當煩惱我心君也。此比年所受用。【答安渾齋】

澤述謹按：澤述於震承及其黨之誣辭惡聲，亦曾受用先師此訓而得力矣。但其事關先師者，則不容終已耳。

吾丈所謂“由前則以爲講論薄過而忍之，由後則爲師門大變而力討之，非但田某之不心服，亦恐傍觀者，以爲出於私心之作用，而非出於義理之當然”者，可謂刺著他痛處。

澤述謹按：震泳之於金容承討己誣師之後，曰：“此人年前呼漢農老。”又曰：“此人心中無先師久矣。”漢農老無先師，何等大罪？而由前則不惟以爲薄過而忍之。且多年敬信愛護，至定校正師稿有可望帖而聘之。至於討己之後，始乃發其罪而討之，豈非私心作用哉？雖然，承則終於倍師，非渠之所當不心服。但震之心術則然耳。

金之當初爲此怪論也，其心豈復有忌憚？而今乃爲此遮藏之計。此則某苦死排闢之說，不可謂全無其功也。

澤述謹按：震泳之當初“料量爲之”“不必深拘”“不言之教”“天地生物，聖人立極”“不諱公言”之說而誣師也，其心豈復有忌憚？後乃以“語欠區別”“命辭疏忽”等說爲遮藏之計。此則湖南之士苦死排闢之說，不可謂全無其功。

大抵先集是彼之手分現化，絕非先先生所以處於同門與門人之意。吾恐先先生之目，將不暝於地下，甚可痛哉。【〈答趙泰判〉】

澤述謹按：先師於肅齋，以其爲先師之同門，猶以文集之被人手分現化，深致痛恨，而至謂先生之目，不暝於地下。胡乃今之君子，於親師文集之被人無難改削也，恬視而曾無痛恨之意也？絕可怪也。

寧可無謚號，謚狀決不可使其人作也。【〈與任景孺〉下同。】

澤述謹按：年前，澤述聞田鎰孝使震泳作先師行狀之說，亦曰：“寧可無行狀，行狀決不可使誣師人作也。”

事係師門，一息未絕之前，豈容放過？

澤述謹按：澤述於辨師誣正稿亂，其心亦如此而已。或以事在年久，迄可已矣。規余者，視先師此言，謂如何哉？

嘗見明儒高景逸之言，曰：“氣節而不學問者有之，未有學問而不氣節者。若學問而不氣節，這一種人，爲世教之害不淺。”此言美矣，然而未盡。蓋若不氣節，原不足謂之學問，其曰“學問”，只是外面聲華而已。【〈與王司諫〉】

澤述謹按：使先師誠有認意認教，如陰震之說，是所謂“不氣節，原不足謂之學問”者。嗚呼！豈其然乎？或者護法陰震之不已，至有謂“雖有認教，不害爲先師”者，又至有謂“有認教，然後爲先師，若拘牽於區區之小諒細節，而不思道之傳後，不足謂大君子”者。噫！天理之晦，人心之邪，乃至於此乎？

今於彼人罔極之誣，反而求之吾心，如見些子怨恨恐恟底苗脈，卽此是窒碍，何等苦腦？豈所謂“無入而不自得”？豈所謂“坦蕩蕩”？竊自謂吾人正當於難處險處，默默加體道之功，不可只於文字上做家計也。【〈答李友明〉】

澤述謹按：澤述於陰震罔極之誣，反求吾心，雖自謂無怨恨恐恟，然要之至於“無入而不自得”“坦蕩蕩”，然後乃已，先師正當於難險處加功之訓，如承今日面命矣。

一番人以某之言士子喪中倡義似過中云者，指爲排節義而詬罵之。【〈答金光國〉】

澤述謹按：震泳以澤述論渠所作〈鄭節士傳〉後論中混華夷爲說者，指爲排節義而詬罵之。先師是直論倡義之人，以其只論居喪者之中否，而不論其事之是非。罵者之言，猶爲無當。況澤述但論其文議論之有害義，而初不論節士之事者，則罵者之言，豈非尤無當乎？嗚呼！澤述從先師後而得排節義之目，於分榮矣，只見彼用心之險也。

當此斯文分裂之日，朋友雖有小疵，苟非大故，亦可以含垢藏疾，以全交道，此實朱、宋兩先生之意也。

澤述謹按：人有引先師此書，謂吳震泳金容承不當絕。噫！誣師倍師非大故而是小疵乎？豈不觀先師絕鄭申李三人之事乎？此所謂“小疵”，指申梨山之知嘉金無狀而特不能顯然告絕而言耳。

梨每以斥逐祭文，爲激成惡心，挑發禍機。某竊謂此事，只論是與不是，不得說激觸，此似是利害上言論也。【〈答鄭命新〉下同。】

澤述謹按：吾門之謂討絕吳金爲激成惡心挑發禍機者，視此訓，謂何如也？

特以梨山有調停之論，使李讒益肆，金勢益盛，所以成今日之禍。今乃不以

自咎，反歸罪於直道而行者，不知此是何等見識議論也。

澤述謹按：吾門之變，特以中立者有調停之論，故使吳誣益肆，金倍益悖，以成大禍者，亦有如先師此說也。

向有一朋友，見謂“君之欲退其文，可謂疏矣。彼中氣勢，何可當也？”然則吾人臨事，不當視理之是非，以為進退，只看人之強弱，以為前却矣，此為何等學問？

澤述謹按：澤述始討陰震也，其後之累辨不已也，人固有以彼勢不可當勸止者矣。然吾只以當視理是非為進退，不看人強弱為前却，亦如先師之心已矣。果不免訴禍於前，誣辱於後。向之勸止者，自謂有先見之明。然我何有一毫怨悔於其間哉？

凡橫逆之來，除却關係世教與道術者外，且當容之。【〈答林爽榮〉】

澤述謹按：澤述於震邊橫逆之來也，除却關係誣師亂稿者外，只得一切受之，而不辨理矣。

子敬謂明道不絕王安石，伊川不校蘇東坡。鄙謂明道德量宏大，然使王氏譏侮父師，則其待之必別矣。且彼金柳門人以東坡自處。則某亦不與之校矣。今彼自謂孔朱正傳，而性理議論，出處事行，咸乖聖訓。則為儒者者，安得無言？【〈與崔鍾和〉】

澤述謹按：湖人之與陰震絕者，以其誣陷先師故爾。且彼若非平日高弟，而又不以傳鉢自處，則湖人之辨，亦不必如此之力矣。惟其自處以傳鉢之高弟而誣師，則人不能不信。故辨之不得不力也。

一正一偏，一公一私，必不免於有爭。傍觀者，須精察於所以是非之方，又須

細看彼此言辭之溫暴氣像之平險，而後以定吾向背之理，施吾扶抑之力可也。不然而或兩是之，或并非之，先賢所譏“洛也是，蜀也是，元祐也非，熙豐也非”之說也。是豈天命之理與聖人之法乎？【〈答林章佑〉】

澤述謹按：今之爲湖亦尊師，嶺亦尊師，嶺亦誤事，湖亦誤事之說者，胡不察所以是非之方，又看言辭溫暴氣像平險，而向背扶抑，如先師之說也？【鄭道鉉對金弘梓言：“議論則湖是。”田璣鋹對余言：“嶺湖之戰，湖勝。”余曰：“湖受嶺困，至遭訴禍，何謂湖勝？”田曰：“非謂戰勝之勝，謂理勝之勝。”余曰：“何謂？”田曰：“湖之文字主論事，嶺之文字主打人，是固公論也。故謂之勝。”鄭與田，俱居嶺而右嶺者，其言如此。則非不知所以是非之方及言辭溫暴氣像平險之分，而終不能知所擇於向背扶抑之間，是可歎也。】

但就奠章，條而皙之，以白其師心之無它可也。終無奈有心之於無心，有眚怙之別。於是舍其所以分裂之故，顧而之它，裝飾其疑，似掇拾其流傳，以爲汙巖賤身疑眩後進之計。可見用心之苟且勞矣。【〈答關西諸生〉】

澤述謹按：使陰震之說，苟無誣師之實，爲其徒者，但就震之本文，條皙其不爲誣師，可也。乃顧而之他，裝飾其疑，似抑勒其無據，以爲汙巖湖人疑眩一世之計。可見其用心之苟勞，而尤見其誣師之罪出於有心之怙也。

使華西之於栗翁，真有心悅誠服之意。則其高第弟子，豈敢有此語？此理外之事，似難謂其無些子苗脈矣。使華西之於朱子，真有篤信不貳之實。則其高第弟子，豈敢有此語？此理外之事，似難謂其無些子苗脈矣。【〈華門二子論〉】

澤述謹按：今與後人論震泳事者，亦豈不曰“使良齋真無認意認教，則其高弟，豈敢有此語？此理外之事，似難謂其無些子苗脈矣。”此余所以深懼而不得不辨者。或者指余爲過慮，何其無識慮也？

尹喆圭之詐傳勅令而誘逐賓師也，朝廷雖不勘核，章甫却當聲討。【〈瑣墨〉下同。】

澤述謹按：退溪所謂“通文上疏，非儒者之事”，以儒者干預朝政而言，非謂斯文中有事而不相告也。今有引此以非湖南之通文以討震者，已失退溪本旨矣。今又以先師說觀之，章甫之討尹喆圭，因朝廷不勘其罪而行之，則是不可謂非干預朝政者而亦許之，尤可以見謂通文討震非儒者事者之無識也。

儒者著書數十卷，不可用曲筆，冤枉古今一人，可謂承接天地好生之心，後世應得賢子孫。昔人言：“今之論人，有并跡而誣之，那能論心？此天譴鬼責所係，慎之。”

澤述謹按：陰震及其徒黨誣我以辨師誣出於文字之修嫌。我之於渠，使實有可嫌之跡，避嫌而不辨誣，非爲人弟子之職，固不可以此而誣其心，而況初無可嫌之跡，乃構捏抑勒，強成疑似之跡者乎？渠何不懼？然却顧於“并跡誣之，那能論心？天譴鬼責所係”之訓也乎。

歷數古今，萬般弊病，其源無一不出於吾儒之未晰乎聞達之辨，不審乎誠僞之幾，至於事求可功求成，而不以第一等十分道理自爲而爲人也。【〈告先師墓文〉】

澤述謹按：事求可功求成，已足以致萬般弊病，而況先師嘗斥陰震以事功爲重而不計道義者，非但事求可功求成而已，則宜其釀成後來“僞署師銜，投諸遠人”“誣師認教”“改亂師稿”“乞錢日雀”“網打同門”“押囚師孫”萬般罪惡也。

某亦有血肉之身，豈無自私之理？只爲見得尊師衛道，不容不爾，故目見仇謗溢世，而不敢變素守以徇之，其情良亦戚矣。苟得人地如執事者爲之，則斯文有扶植之助，而自身無拳踢之加。乃執事自占便宜，而無任事之心，使

此孤賤陋劣者代之，是豈君子公正之心乎？執事不惟不自任，乃或反助彼勢，無乃尤不可乎？【〈與申仰汝〉下同。】

澤述謹按：今於陰震之誣亂，如得同門老成有人地者，任辨討之事，則可以戢彼邊之恣肆，而明先師之道義。胡乃皆自占便宜，反助彼勢，使此人微言輕如澤述者任之，以致仇謗溢世，禍患加身也？雖以尊師衛道之不容不爾而然，然其情良亦戚矣。嗚呼！以伊昔先師之人地，猶有此歎，況於如今小子之卑微乎？

一番人又以某祭文有陰陽心迹之語，謂之慢神，以此爲大罪。然陰陽離合心迹矛盾之說，農翁嘗以擬之於文谷，以明其必不然也。用之於父者，謂不可施於師，某不識其何說。

澤述謹按：陰震以湖南通文中“先師若爾，則是懷二心反覆不忠之語，所以深明先師必無認教”者，謂上及不敢言之地，以此爲大罪。何不讀先師此訓，而自服勒人之罪乎？蓋其心術與先師所謂“一番人”者，一串貫來，殆若一氣而傳，同胎而生也。

惟是未嘗爲學，便都無事，今既從士友之後，與聞其說，便如此計較不得，才涉計較回互，便是靠負聖賢之教也。且孟子所以與人辨爭，只要人知聖人之爲是，異端之說爲非爾。

澤述謹按：今之辨師誣也，若恐其致禍，才涉計較回互，便是靠負先師之教也。其所以爲辨，只要人知先師之無是，而彼說之爲誣爾。

愚竊觀執事之意，似是懲創於懷尼之爭湖洛之辨。故凡於人物邪正之間講論同異之際，一切以和同爲主，殊不知分別邪正，剖判同異，令不相混淆，乃是自然之和，不然只是私意人欲而已矣。

澤述謹按：近日之勸澤述及田鎰中與吳震泳平和者，豈不竦然於先師私意

人欲之訓也乎?

執事亦非不知彼文之可惡, 而惟欲以彼自不是處之. 此若只關己事則可, 今乃父師受侮, 而只以此一句冷語了之.

澤述謹按: 震泳之誣, 只關己事者, 則固以彼自不是處之已矣, 其關於先師者, 則不敢以一句冷語了之, 以戾於先師心法也.

執事兄弟之處之也, 在自家則怒之, 在先師則安之.

澤述謹按: 震泳於容承年前, 呼漢農老, 心中久無先師也, 事在先賢先師則安之, 及其討己之誣師也, 事在自家則怒之, 始發其罪, 又使人拳踢於先師靈前. 先師此言, 若先見震之心迹而豫言之者矣.

昔之亂朱子者, 在朱門之外, 今之亂朱子者, 在朱門之內.

澤述謹按: 昔之誣師者, 在師門之外, 今之誣師者, 在師門之內. 在師門之內, 故其說有未易辨者, 其說有未易辨者, 故其辨之不得不力也.

吳伯豐, 朱門之顏淵也, 慶元間, 樹立卓然, 屢被師門之稱獎矣. 尤翁之作滄浪文字, 有李誠父吳伯豐等語, 後以大尹之言而削去之. 夫尤翁之比擬, 大尹之請刪, 豈以伯豐真有趨勢之累? 只爲其嘗有附韓之謗也.【〈守玄齋偶記〉下同.】

澤述謹按: 人有言“震泳雖誣師, 師實無是實, 則人誰信之?” 此不思之甚也. 吳伯豐雖無趨勢之累, 只爲其嘗有附韓之謗, 至削去於文字之作. 則先師雖無實地之累, 安知其不以嘗有認教之誣, 受後人之刪於文字如吳伯豐耶? 區區竊有是懼焉.

蓋其告絕之書，以爛漫參差之說爲主，而彼邊文字之分疏祭文者，無慮累萬言，而終無一句就此分明道破者，只須就宋朝四賢，巧爲辭說而張皇之，以爲眩惑一世之計。只以此觀之，其心所在，可見矣。

澤述謹按：湖南辨討陰震之文，以認意認教之說爲主，而彼邊分疏之言，無慮累萬言，而終無就此分明道破者，只就辨討人身上，巧爲辭說，勒成罪案而張皇之，以爲眩惑一世之計。只以此觀之，可見其心。不以先師爲無認教，而猶有所忌憚，而不敢放言謂有矣。及至震答徐柄甲書“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之說出，而湖人僅脫訴禍，垂頭喪氣，無更討之力。則於是震再與徐書，放膽大言明有不言之教，至於無所忌憚矣。

爲門人子弟者，見其如此，而避與人失和之小嫌，而忘爲師辨誣之大義。則師生之倫，自此廢矣。師生之倫廢，則三綱九法，亦無所賴而立矣。

澤述謹按：吾門諸人之避與震失和之小嫌而不辨師誣者，能不竦然心目於此訓矣乎？目見此訓，而猶不知竦然，此聖人所謂“吾未如之何也”者。復何言哉？

此而不關，程朱栗尤之道，將不得行矣。身爲士子，目見其然，而不敢出一語，以爲衛道之計，則靠負了聖賢教育之恩也。

澤述謹按：震誣而不關，良翁之道，將不得行矣。爲其弟子者，目見其然，而不敢出一語，以爲衛道之計，則是靠負了良翁教育之恩也。

其所以得罪於當世，正以不忍師門之誣，而謂之扶摘高文，遂至於戈戟相加，竄逐是擬。【〈答沈致大〉】

澤述謹按：澤述所以得罪於一邊，正以不忍師門之誣，而謂之勒執其文，遂至於訴之檢局，加以大禍。嗚呼！昔之先師今之小子同一所遭。

近世儒流議論誣人，則驅之以聖門亂賊王家凶逆，稱人，則推之爲古今一人孔朱齊等，余甚憫之。

澤述謹按：震之徒黨誣人，則驅之以滅父賊子千古小人，稱震，則推之以見識文章優於先師，又至并侔於尤翁。此其可惡之惡習。然其實困於私意客氣，不自脫出，爲是狂悖，則非可惡也，伊可憫也。

頃者，仁父而見以出而圖存見勸。此是功業爲重，不計道義者，却與嘉陵諸人，不甚遠也。【〈寄華敬二兒〉】

頃者而見之初來也，傳孟士幹之意云：“某丈一起，則國中士流皆響應。又京中則有某某可仗，闕內則有某宮可通。”余謂：“士君子有爲，詎可從某宮做事？”及而見再來却言：“某人比已剃髮，誠是意外。”余曰：“賢輩所擬以爲可仗者如此，誠可笑也。”

澤述謹按：觀此震詠【而見其字】之所爲先師之所斥，則其爲人何如也？爲其有此根子，所以後來致得僞錄師銜，投諸遠人，使師懷緘待變之變也。蓋此事以前，先師時致愛重之意，此事以後，則不復然。而更有渠黨權純命所記〈治命錄〉中“吳而見終有事爲之慮”之語矣。然而渠徒方且謂震是先師傳鉢之人，而指辨討者爲傷先師知人之明，殊不知先師知人之明，早已在“不計道義”之斥“終有事爲”之慮矣。

至於朱子，又以性理學問異同之故，遂遭林栗之彈章，又見陸門之仇視，而葉氏亦嘗以書誚其與人爭辨，而朱子猶以未盡其言自恨矣。然則須看他與人爭，是爭箇公道，爭箇私意，不問其所以爭，惟以爭爲非而已。則自古國家之征討及聖人君子之自守其正，而被人詆訾，被人擠陷，或見人害正，而立朝則舉劾，在野則擯斥，而反遭其害，此似獵取田禽而噬腊遇毒之象，奈何避之？雖以天地造化之氣，亦未免有陰盛之極，至與陽爭，兩敗俱傷之理。氣數盛衰，既如此，則人事是非，亦何獨不然？假使孔夫子居今之世，恐也不免。苟欲避與人爭競之嫌，則將見無禮於君父，貽禍於聖道，而不惟不能攻

討，而又有倡爲不必攻討以與彼角勝之說者。其爲國家世道之害，豈不百倍於與人爭競者乎？噫，其可痛也已。【〈爭有公私說〉】

澤述謹按：請我同門諸人試思之。震泳之誣以認教，亡師道義，奚但性理學問異同之故乎？彼之訴禍雖酷，爲門人者，豈可畏此，而不盡言而辨之乎？不問所爭之是公是私，惟以爭爲非而已乎？又試思之。師不與君父等乎？胡爲乎欲避與人爭競之嫌，見無禮於父師，貽禍於世道，非惟不能攻討，又倡爲不必攻討之說乎？諸人非不熟讀先師之書，猶然如此何哉？怪事怪事。無乃所謂“書自書，我自我”者耶？

豈忍效陳相之變於夷，而爲鄒聖之所斥？亦豈忍見無禮於父師，拱手坐視而不敢逐，以蹈閩翁之所惡乎？【〈祭全齋先生文〉下同。】

澤述謹按：吾同門千五百人中，其爲變夷之陳相者，固不足言，其見無禮於父師而拱手坐視者，又滔滔皆是，可勝歎哉？澤述之不敢自古便宜者，只爲懼蹈閩翁之所惡如先師之言而已。

今見其文字，直斥小子爲詖淫之說淫邪之黨，而又有行遣之論者矣。雖然，使先生之教，由小子而不墜於地，則雖竄死九荒，其心誠甘樂之，不自以爲悔也。

澤述謹按：今見震徒世基輩文字，直斥此身爲誣幻師命，抑勒人罪之奸凶，亂常無禮之悖類。亦已遭檢訴之禍而幾死僅生矣。雖然，使先師之道，由小子而不墜，雖死無悔，亦如先師當日盡分於全翁之心而已。

今之士多認墓籍爲損名節而不肯爲，爲自己名節，不顧父祖遺骸，恐非人情天理之所宜出也。彼始也，陵夷我人，不從則終必掘移矣。纔一破基，其禍不可言。《大典》：“汙穢尸體，與殺人同罪。”則子孫不籍，而至使體魄，遭罔測之變，是與父祖被殺同，此如何可忍？“忍痛含冤，迫不得已”之遺訣，不得已

而用之矣。【〈答宋晦淵〉】

澤述謹按：震每以先師許墓籍爲認稿教之證，此何所當也？墓不籍之禍，至於與父祖被殺同固也，稿不刊而寫藏，則斯無事已，豈有所謂“與父祖被殺同”之禍者耶？彼之強引掩罪，固其情態，人有眩於其說而不知辨者，豈不可笑之甚哉？

所詢“某身後，誰可得其傳？”者，某自無所見，其它更何問也？程門諸子，晦翁且謂其倍師而淫異，甚矣，傳道之難也。炳庵無恙日，某意其邃學正識，堅操厚德，可以上續全翁之緒。此友不幸遽九原矣。自餘諸子，未有可擬望者，區區不勝禪宿之淚爾。【〈答盧仁吾〉】

澤述謹按：此於悼人云亡，何等痛傷語？憂道無傳，何等深切語？正與孔子失顏淵而發“未聞好學”，“噫，天喪予”之嘆，千古同情，震何忍刪沒於晉本乎？噫，其不仁之甚矣。曾謂三千之徒，刪却哀公問顏淵死等章於魯論者，有是理也乎？亦可謂變之大者。

先師命削慎狀之意，非謂文字爽實，只因本家受文得書而無答，則疑其不以爲重而然也。尊先師徐丈言：“此是吾外家伸冤後一初儒賢文字，不容不傳後，何敢不重之？但外家貧甚無幣，難於空簡致謝，所以久無答也。先師在世，而稟此曲折，豈不見許？因而泣下。”某重其孝思，議入續編，而徐丈令某更思之。【〈答任潤萬〉下同。】

澤述謹按：慎狀是全翁臨終時命削，而先師至載於〈執燭錄〉者，猶以不得已之故，而議入續編，後又終入原編。陰震則乃變動先師所手定之神道碑，改稱墓碣，謂是有國典，而竟未見國典。於此可見賦性乖異，處事妄錯，元非常情所出，亦見其籍託國典，作壓倒人欄柄之惡心也。

柳君相俊與令兄動萬私相議定，遂將草稿暗地開板，不令長德一人知之。此

何等事體？雖仍前定刊所公任掌財，然事至於此，不得不歸於私印矣。徐丈聞之，專書令止之，不從，不得已發通聲討。【書止，不從，然後聲討，亦見仁義并行。】

澤述謹按：先師於全門諸公聲討柳敬堂私印師稿之舉，既以爲不得已，更謂“書止不從，然後聲討，見仁義并行”者如此矣。若震之誣陷師節，比私印師稿，其罪不啻百倍，而亦書勸改，謝不從，然後聲討。胡爲乎一邊議論，非惟不以仁義并行贊之，至謂過重已甚乎？絕可怪也。

二公而爲無狀人，則先師所以簡拔二公於衆人之中，而立之爲高第弟子者，豈不爲眼不識人之失矣乎？

擇述謹按：震黨有引先師此書，謂斥震爲無狀人，歸先師於眼不識人，此不知類也。震也既自爲誣師改稿，禍士林押師孫，戴誰日之人，則豈待人斥之而後爲無狀？假使先師簡拔衆中如彼之言，帝堯簡拔崇鯀，周公簡拔管蔡，而并不歸於眼不識人，而況先師早有不計道義之斥，更有末年終有事爲之慮者乎？

前輩以稱人之惡，不稱人之善，爲與天地生物之心不相似。我輩無財可以濟人，且樂道人之善，毋揚人之惡，爲少助天地生物之心。今我輩再勿與之言性理，若其心術言之妄錯，一毫不可掛於口頭筆尖，是爲心弟學性師之道矣。某於是將以驗而見之有見無見有德無德，而見！而見！其敬聽而謹守之哉。【某性癡昧，未有可以當盛心者。至此一言，不妨作而見平生之師也。僭越之言，知罪知罪。〈與吳震詠〉下同。】

澤述謹按：此先師與吳震詠書也。以書末及小註之語觀之，其慮之也深，戒之也切矣。其柰不肯審聽敬循，終致後來無限變怪何？又就晉印中刪再呼而見及小註末八字，亦可見其不喜聞之心矣。

某自量精力，非久於世者。平生成就，全然鹵莽，未有可以稱述者。惟赤心所重，在一性字，而不敢隨衆貶降，因以得罪於時儒，直與須彌高，而亦終無怨悔也。相從諸君，無不聞知，鄙心全託而見，極力主持，十分敬慎，得而不墜於地，則老夫之目，可以瞑矣。己未三月上旬，七十九歲，華遜病叟敬言。

澤述謹按：震以此書中有全託而見語，且備書年月於文稿，事出特例，作傳鉢之據。然此亦戒之之辭，非許之之辭。亦在僞署師銜，使師懷纒之前矣。其後日月至於三四年之久，而無復愛重文字如此書者，更有與李起煥書言“某人以事功爲人所笑”權純命〈治命錄〉“而見終有事爲之慮”之語，則其不可以此書爲據也明矣。【權是渠黨，猶有此錄，其爲可信益明。如使此錄出於此中，則安知渠又不以爲誣幻師命乎？】

同室有弑父者，豈復可以同室待之？

澤述謹按：澤述亦敢曰：“同門有誣師以認教而汙巖大義者，豈復可以同門待之？”

余以絕申爲申黨所構誣，無人不知，金之兄弟，非耳塞神昏者，如何不聞？【〈答崔秉心〉】

澤述謹按：澤述既聯書絕容承矣，又辨其告玄阡文矣。又言於朴震鎬，勿受其祖文字，而至遭震鎬之嫌怒，承黨朴仁圭之構誣矣。此無人不知，震黨乃罪余以黨承，而謂聯絕爲僞，絕甚可笑也。此固渠輩雖知之，若不聞也，而惟以擠人之一生長技也。

金之見余祭師文，在丙子季冬。此時文理未達，而不及知其爲創新苟難，乃至丁丑自家誅文見却之後，文理始達，而豁然覺其斥三相六賢者耶？然則余之大罪，不在於攻華西，而在於不受金文之日矣。【〈與某〉】

澤述謹按：澤述以傳表之事與震泳相關，在壬戌冬。我若幻師命，而被渠釐

正。則此時何無一言之何問，而反有以前後貳論自悚之書，乃甲子秋，討渠誣師之後，始覺其爲幻命而罪之耶？然則澤述之罪，不在於幻命，而在於討震之日矣。至於丙子夏世基凶文，則幻命又變爲誣師。噫，誣師而被人討者，反謂討之者爲誣師，是猶竊盜而被主人推去者，反謂主人爲盜也。

今之士，請願於彼，得存校宮，尙自居以尊聖之功，可謂無恥之甚者矣。【〈華島漫錄〉】

澤述謹按：存校宮之與刊己稿，其輕重大小果何如也？先師以請願於彼而存校宮者，尙謂無恥之甚，而況請願於彼，以刊己稿，而冒無恥之甚乎？凶矣凶矣，誣者之言也。

朱子嘗言：“若有高妙底道理，而聖人隱之，是聖人大無狀，不忠不信，聖人首先犯著。”【〈答鄭世求〉下同。】

澤述謹按：朱子此言，甚言聖人之無隱也。震泳以討文中“若謂事宜秘密，暗託一人，則是并與心術見識而昧昧”之甚言先師無獨命者，罪之以論迫先師之悖言，“先師若爾，則是懷二心反覆不忠”之甚言先師無認教者，罪之以上及不敢言之地。然則其亦將以朱子此言，爲論迫悖言上及聖人也乎？

網打一門，非小人之甚者，必不爲也。今與後之人，謂而見爲小人，則子爲君子無疑，不然，子向何處著脚？

澤述謹按：使先師在世，而目見震泳之告訴五十九人於全檢，押囚嗣孫於晉署，則必不以此言責鄭世永矣。

隆興初，和議已決，韓無咎李德遠，皆失所守。而獨王嘉叟諸人，尙持正論，見先生與魏元履書。【〈朱子大全標疑〉】

澤述謹按：韓、李皆當時負望之人，而亦未免失守，獨有王嘉叟一人。澤述今

日湖嶺之論，實有所感矣。嗚呼，非朱子，孰知獨守正論之爲貴也哉？

國已亡而君已廢矣，臣子之葬，何論吉凶？子孫門生，只求不爭之地而埋之，是爲孝且義矣。【與人訟山而就彼決之，豈非貽辱父師之罪乎？〈寄敬九并示諸生〉】

澤述謹按：先師既以訟山而就彼決之爲貽辱父師之罪，則豈有以刊稿而就彼請願，不以爲辱，而有其意有其教乎？此所以早有請願刊稿決是自辱之遺書也。

讀《宋子大全》有感而表出之謹附按說【戊寅】

天有陰陽，地有華夷，人有君子小人，方以類聚，物以群分。如此剖判之後，一番人所爲，未必盡善，一種人所爲，未必盡非。然扶抑之道，則不可不嚴。故元祐諸人，憂蔡確之不可制，至按以詩句。雖似已甚，然朱子不甚非，而反以范忠宣爲不是者，豈以淑慝之大分已定，則左右之道，有不得不然耶？【〈上安隱峯〉】

澤述謹按：陰震誣師改稿而禍士者也，湖人辨誣正稿而被禍者也，淑慝之大分已定矣。說者猶謂“湖未必盡是，嶺未必盡非。”蓋不知尤翁此義者也。

今之論者若曰：“渠是何人，而敢攻宣舉？”云爾。則臣亦有說焉。朱子曰：“邪說害正，人人得而攻之，不必聖賢。”然則臣之所爲，亦不爲全無所據矣。【〈上疏〉下同。】

澤述謹按：今之論者亦有曰：“金澤述渠是何人，敢攻老成負望之吳震詠也？”夫誣師改稿，豈非邪說害正，人人得而攻之者乎？況凡在師門弟子之列者乎？爲此說者，何不少致意於尤翁之言乎？

設使以臣此意爲出於欲掩貶惡之云，亦有所不然者。陽虎曰：“爲富不仁，爲

仁不富。”陽虎之意，實出於爲富之意，而其爲仁之言，則實天理也。故孟子特取而表章焉。渠輩果以孝廟之德爲果宜於世室，則何敢以此議之出於臣，而倡言排之哉

澤述謹按：論者又有謂“某之斥震，出於修嫌之私。”我於震本無可嫌，則此固萬萬不當。設有然者，其爲師辨誣，實天理也。論者果以先師爲無認意認教，則何敢以此辨之出於我，并與其言而廢之哉？

竊聞比者，憲臣投疏，提起李珥落髮之說，而引長生爲證。臣亦嘗見故文忠公臣張維文集，有記故知事臣趙緯韓之言矣。其言果以臣師有所云云也，臣於是常不勝甚疑訝也。維乃長生之高弟也，其聞緯韓之言，何不爲長生痛辨其誣，而只爲珥分疏耶？

設使珥真有此事，亦不當自長生證之，況萬萬無此乎？昔葉公曰：“吾黨有直躬者，其父攘羊，而子證之。”孔子曰：“吾黨之直者，異於是。父爲子隱，子爲父隱，直在其中。”使長生果爲此，則與證父攘羊者何異？

且憲臣引張維說，以爲“落髮是粗迹而不足辨，故長生亦言之。”若然則何以又曰：“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也。”諸臣備陳不落髮之實狀，而獨長生言之云者，亦獨何心也？臣竊爲長生冤痛也。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珥之落髮，終不可辨明，珥之所遭，何其甚也？

澤述謹按：尤庵於栗谷落髮之誣，沙溪證師落髮之誣，苦口辨明，至有告君之文者如此。引此以論今日吾門之事，則不待辨而自明矣。設使良翁真有認教，不當自震泳證之，況萬萬無此乎？然而震泳猶且強證之曰：“臨死不易辭。”是父不攘羊其子證之者也。且落髮之事，當時有以爲粗迹而不足辨者，尤翁猶如此說。況認教之說，爲大義之所關乎？嗚呼！震一邊之所稱高明，以高明之弟子而證之，則良翁之認教，終不可辨，良翁之所遭，何其酷也？

昔范祖禹於伊川，非純師也。伊川之被誣也，祖禹不卽辨理。則朱子猶且譏之。

澤述謹按：於非純師之地，朱子猶以不卽辨理譏之。今之純師良翁者，乃經

年閱歲，師誣益深，而不惟終不之辨，反譏同門之從事辨理者，其得罪於朱子者，顧何如也？

天地之間，陰陽二物，不能相無。故有君子，則必有小人，有正論，則必有邪議。其強弱勝負之勢，迭相推盪，而君子與正論，必弱且負，小人與邪論，必強且勝。此邵子詩所謂“陽一而陰二”者也。然於久遠之後，則有所謂“不泯”者存。故弱而負者常伸，強而勝者反屈，此亦必然之理也。夫所謂“不泯”者，何也？天理人心也。然世道有升降，運氣有騰倒。故當伸者，不能大伸，宜屈者，不必全屈，此亦理之或然者也。雖然，主張此道之人，苟明是非邪正之源，抑彼而尊此，為君子謀，而不為小人謀，則所以範圍天地，陶成治道也，無難矣。

澤述謹按：天下無春秋之義，良翁非春秋之學則已。不然，今於湖嶺之事，孰為君子？孰為小人？孰為正論？孰為邪議？不辨而明矣。其勝負屈伸，亦推此可知。然但皓天不復，河清無期，未知所謂“主張此道之人，明是非之源，而抑彼尊此”者，果何時而出耶？噫！

陰陽一箇大偏論，邪正一箇大朋黨，喜偏論而矯枉過直者，固不足道，惡朋黨而含糊兩可者，尤害於事也。然偏黨之中，亦有大小輕重之分焉，小者不當為，而大者不得不為也，輕者在所略，而重者不可略也。【〈上白江李相國書〉】

澤述謹按：準以尤翁此說，則偏黨本非不好題目，但看所偏黨者，是邪是正耳。湖嶺之間，所謂“中立”者，豈非所謂“惡黨兩可之尤害事”者耶？若言其大小輕重之分，則關先師分上，誣認改稿之辨，不得不為而不可略者也，關門人分上，互有得失之爭，不當為而在所略者也。

彼得罪於朱門，正是亂賊之自干天誅者。而其徒終不知倒戈而歸順。【〈與俞武仲〉】

澤述謹按：驪鑄侮慢朱子，改註中庸。故尤翁謂得罪朱門之亂賊。今陰震名

尊良翁，而既誣以認教，又改大稿本文，則其爲侮慢甚矣。此不可謂得罪良門之亂賊乎？而其徒終不知倒戈而歸順，何其迷也？

至於美村黨鑄之斥，則人孰不以爲過？然不自知其爲過，而猶以爲不及。【〈與趙士達〉】

澤述謹按：澤述於陰震及黨震者之斥，不自知其爲過者，亦有所受於尤翁矣。

朱子嘗責時宰曰：“忠邪之分，察之有未明；消長之誠，信之有未篤，而又以一身利害之私，參錯乎其間，則今之所謂‘持平’者，乃所以深助小人之勢，以爲君子之病。終見彼黨日盛，此勢日孤，天下之事，將有不可爲者。”今者老兄之言，何其與朱子說一切相反耶？【〈答閔台叟〉】

澤述謹按：今之所謂“中立”者，既不察邪正之分，又參以一身之私，則其云持平者，乃所以助彼，而況名爲中立，而心實在於助彼者，亦有其人乎？此所以嶺黨日盛，而湖勢日孤。

和合彼此，惟有明道之德者能之，其餘則未免拖泥帶水。此正天理人欲相似而實異者，朱子之言詳矣。【〈與李季周〉下同。】

澤述謹按：近日，某某之欲我與震和合，而其所以爲說者，無條件別白，此非所謂“未免拖泥帶水，而似天理而非人欲”者歟？

竊不自遜，私語於心，以爲“如無此漢，則朱子於東方，不得爲亞聖，而驪凶爲真儒，洪打豕爲天下義主矣。”執事聞之，想發一大笑。

澤述謹按：澤述竊不自遜，私語於心曰：“如無此漢，則良翁真有認教，不得爲大賢，陰震真有刊師稿之大功，日本爲天下之義主矣。”【震大書特書曰：

“囊中紙貨往來，車票書詞附印，誰家日月照臨。”此豈非戴日本者乎？渠以此爲戲言，然其下又言“慎勿妄罵人之倭朔”則此豈非正言者乎？且以冠儒服儒之人，就訴冠儒服儒之同門人於日府，則豈非頭戴以爲義主者乎？】

朱子論元祐人物，以元城爲中。自今觀之，元城攻小人太強，以至萬死之域，可謂已甚，而朱子許以中道，豈非以當時所處理當如是耶？今日只占便宜，而自以爲得中，此風一盛，甚可憂懼。【〈答朴和叔〉下同。】

澤述謹按：朱宋之論如此，而今爲良翁門徒者，猶以盡死力於辨討陰震，爲過中已甚。吾於此人之不恤前言何哉，可嘆也已。

孟子以能言距楊墨者爲聖人之徒。而朱夫子亦以爲弑君之賊，不必士師而誅之。況今日如尊兄，何等地位，而乃以未能知言養氣，退托而不爲之所耶？若必知言養氣，必如孟子而後，乃能攘斥異端，則是必士師然後乃治弑君之賊，人類幾何不盡哉？

澤述謹按：今又有明知震之誣師者，又謂“然而吾則自修吾學，故不參於是非之場。”吾未知明是非之外，復有何學。且學而不辨師誣，焉用學爲哉？此退托以未能知言養氣而加甚焉者，天理人心，其何不晦蝕而無餘哉

此人攻斥朱子，則是斯文亂賊也。其黨助者，論以《春秋》之法，則當先受罪矣。

澤述謹按：震也誣陷先師，改亂師稿，則是良門亂賊也。其黨助者，論以《春秋》之法，則亦當先受罪矣。

執事明於利害禍福之幾，依違觀望，不肯身任，而使愚妄者，代受此事，此豈仁者大公之心乎？執事不但不任此責，乃反助彼勢，一時榮名則可喜，而奈後世之公議何？

澤述謹按：此卽先師與申仰汝書中語意，而又加嚴焉。今湖嶺之間，間立依

違者讀此訓，得無如冷水澆背矣乎？

楊朱學爲義者也，而偏於爲我，墨翟學爲仁者也，而流於兼愛。本其設心，豈有邪哉？皆以善而爲之耳。特於本源之際，微有毫釐之差。是以孟子推言其禍，以爲無父無君而陷於禽獸，辭關之不少假借。孟子豈不原其情而爲是刻核之論哉？

澤述謹按：說者謂“震亦尊師者也，本其設心，豈有邪哉？”此非曰“不然。”但於本源之際，有喜功好名之差。是以終而至於誣師而禦人之口，改稿而銜己之能，禍同門拘師孫於日府，以張其勢，歸無師無君之境，則又不待推其禍而身親犯之。豈得不辭而關之不少假借乎？亦豈不原其情而爲是刻核之論哉？

聞執事以爲今日議論，寧爲模糊。竊不勝愕然而駭，蠢然而嘆也。此蓋執事以朱子信不及，而信尹太過之故也。夫渾然無圭角，豈非朱子之所不欲？亦非所不能爲也？只以世衰道微，詖淫邪遁，并起交馳，以至於滔天而塞路，故其談言論說，不得不明白痛切，以牖世之昏蔽陷溺者。雖以此爲僞學爲逆魁，幾不免而亦不悔。

澤述謹按：渾然無圭角，豈非我之所欲？亦豈不能？只以天理愈晦，人心愈邪，不信先師而信震太過者，至有謂“若如遺書之禁認，先師不過爲一節之士，必有獨命之認教，如石農之言，然後乃爲道大義精之真賢者。”【徐鎮英字明玉大言於衆中】，而人皆靡然從之。此非詖淫邪遁滔天塞路而何？所以不得不明論痛辨，而以此爲奴爲奸人敗俗人，且幾不免於檢獄之瘐死，而亦不悔矣。

朱子嘗論荀淑之道甚盛，而至於爽彘之附賊，則又溯其源而論之曰：“當時父兄師友之間，亦自有一種議論，文飾蓋覆。使驟而聽之者，不覺其爲非而真以爲是。邪說橫流，所以甚於洪水猛獸之害。年來讀書，只覺得此意思分

明，參前倚衡，自不能舍，雖知以是爲人所惡，終窮而死，誠甘樂，不自以爲悔也。”噫，今日執事所謂“糲糊”，何其與朱子所謂“蓋覆”者符合耶？此其受病之源也。

澤述謹按：因爽或之附賊，而溯而疑其父兄師友之自有一種邪論。則因門人之出認，而人之疑其師之或有認意，亦足可慮。然我負其罪而爲之，則足以明師之心。今乃自門人之口而大言之曰：“吾師曾有認教”，又以勿認之遺書爲僞造。則人之據此而直論其師者，豈但因子孫而溯論其父祖之比而已哉？

觀吳氏駿善稿中答人書【庚辰】

某人性師心弟與明氣之論，或入於賤者之耳，而非惟不與辯，亦不必辨也。邪說害正，何時無之？而心性情界分，則甚昭昭，今日“性尊而心卑”，判焉爲兩件，則心之有未發已發而性情已分與夫心統性情之語，何以區處？明氣之說，兄論之明矣。但彼人務欲突過前人，創爲新說，自是本來伎倆。與之爭辨，不亦勞乎？

夫道理難見，故議論不同，從古而然。然其極處有在，苟公其心而求之，則自有論定之日矣。是故退溪先生曰：“志在明道而無私意者，必有同歸之日，其心求勝而不揆諸道者，終無可合之理。”今觀此文，其心志可知已。‘性師心弟’‘明氣’之說，非吾先師之所創論，先聖賢已有訓，我且略言之。孟子曰：“歸而求之，有餘師”朱子釋之曰：“性分之內，萬理皆備，無不可師。”求而師之者是心也，則此非性師心弟乎？孔子曰：“君子學道，道是性也。”學之者是心也，則此非性師心弟乎？孔子曰：“明明德”朱子釋之曰：“明明之也。明德，虛靈不昧，具理應事者。”又曰：“虛靈是氣之明處。”此非明氣乎？孟子所論“平朝之氣”，朱子釋之以“其氣清明之際，良心發見”，此非明氣乎？凡此聖賢之所已言，昭如日星，有目皆覩。先師之說，亦何待深加

揣度而後，知其爲見理極處之定論哉？然而此文略不商量難慎，遽以邪說害正斥之，復以創爲新說本來伎倆結之。未知於孔孟朱三聖賢之訓，將何以區處？此非但有求勝之私，實不免有擠人之念。故先被客氣之所昏亂，而眼不見聖賢之訓也。所謂“逐鹿而不見泰山”者非耶？惜乎，其爲學一生，不能明其氣師其性，見得道理而同歸於定論也。

艮齋先生私稿拾遺編輯凡例【庚辰】

一. 先師艮齋先生文稿，華島手定本有前編後編再後編，凡不入於三編者，今收之爲拾遺，蓋雖在三編之外，亦多精詳切實，可補世教者，終致泯沒，深爲慨惜故也。

一. 此編所載，多初不入稿者，亦有既入而見刪者。初不入稿者，概以先生自謙以一時酬應，無甚關重，不必入稿而然，而或有以當日紛囂，待後寫入，而終於已之者。既入而見刪者，概以同是一義，辭語各出重疊而然，而或有以一家文字所入夥多，故量宜存刪，不欲卷帙浩大者，并非有他意也。故今勿論某文，其在失本事爽實蹟而旋扯還收者外，不敢棄之不取。

一. 先生之文，彌滿國中，顧耳目偏足跡狹，只載聞見所及，而容俟隨得隨錄，竟成全本，非敢謂今之所編，尙足爲成書也。

一. 是編之輯也，或親至藏文之家，移謄本草，或得於久侍師門之人，而必審其詞義文法筆蹟，信知爲先師作，然後入載，不敢廣告通國，俾寄郵便，易致真假相混，如世俗人之爲。

一. 先生平日於門人知舊變節者，親書以答某示某答人示人，而不露姓名矣。此編所載某人之類，未必皆變節，而并如此者，以其文則有之，而不知所答所示之爲何人而然。覽者詳之，勿致訝惑焉。

一. 每編題目下年條，可詳者，書以某年，概詳者，書以某年以前以後；不可詳者，不書。

艮齋先生年譜編輯凡例【辛卯】

一. 甲戌冬，先師艮齋先生仲子靜齋公【華九】，貽書澤述曰：“先人年譜草。至辛丑歲，往鳳棲寺時以後，則君所詳知，可續成也。當以譜草送之。”余竊惟雖非其人，事係師門，亦不敢終辭。以是答之，未幾靜公沒，譜草轉而至於他所。今吳震泳柳永善編刊本，本是而作者。先生初中年，事既有所本，宜其無誤，而或不免，況於晚年事之并無所本者乎？亦有當書而不書，不當書而書者。此不正之恐累先生。故遵靜公平日之託，作艮齋先生年譜。

一. 既云年譜，則其體裁，宜同史家年表，多主事行，不主議論。故年月日下，單錄事行者外，如與答某人書記某事作某辨某論之類，有所議論者，則錄云見前稿或後稿或再後稿，其不見於稿者，則不得不略著其主意。

一. 出行時從行門人及平日來訪所訪人姓名及赴某家冠禮戒賓之類，有關可考者外，一切從簡不錄。

一. 先生從遊長德以外知舊門人之沒也，其有祭文挽辭誌銘序者，觀其文，自當知其人品，不敢妄加贊評，若無文字者，亦不錄其聞訃。

一. 先生沒後，各處立祠享祀。竊見先生答成璣運書，以朝令撤院之壇享爲未安。壇享猶未安，況新設乎？故一并不錄。

觀鄭薇齋集【丙子】

薇齋鄭公，先師集中《星田執燭錄》所記“全齋先生臨終時所願見之鄭國彥也，其賢可知已。今觀其集，〈師忌感賦〉有曰“嗟人見之各異兮，未及朞而言違。分門戶而別立兮，半于彼而半此。具曰余於爲師兮，果誰非而誰是。令人意而不佳兮，遂萬事之瓦解。相興訛而造訛師門兮，受外侮之不少。都滄浪之自取兮，而我心之惘惘。如尊靈之有知兮，必不樂於此舉。”此指我艮齋先師却金文斥鄭李事而言者，而先師所作是集序所謂“國彥不病沒，而至今在世，則學益邃，道益尊，而與余相知，亦益深矣，惜乎其未也”云者，以是也。蓋金文之暗譏全翁，無復餘地，鄭李之忘師親讐，厥罪難容，苟非不通文理

失却義性者，皆知其文之當却，其人之當斥，而無疑矣。乃若鄭公，以師門之賢者，至謂良翁距諛閑邪，據義討罪之舉，爲未知誰是，萬事瓦解，受侮不少，滄浪自取，師靈不樂。夫所貴乎賢者，爲其明義而定倫也。若如鄭公之見，則其不反爲昧義而喪倫者幾希矣。烏在其所貴乎哉？鄭公此論，自當日觀之，雖若爲渾厚仁惻之言，然在今日，其爲可惜，顧何如也？此所以儒家雖尙德善而最貴識見也。因思近日吾門，陰吳誣賊先師之變，有以渾厚稱，而謂聲討厥罪爲過學生事及爲雙非胥失之說者，一何似鄭公之論當日事也？後有秉筆者作，安知不惜吾門渾厚者，亦如今之惜鄭公也耶？噫！

論吳震泳所撰〈鄭節士傳〉後論【乙亥】

野儒無言責官守，國亡不死無責。然其守身歸潔之義，關華夷防重而爲天下之望。使天下夷，而儒能不夷，則天下猶華也，天下華，而儒不能華，則天下卽夷也，其重不特言責官守。故古人謂“儒者守節爲拗天。”然則儒者畏死失節而亡華，罪有甚於言責官守畏死失節而亡國，其嚴乎。節士其有聞於此義者歟。嗚呼！偉哉烈哉。

夫辭者，效之先也，有其辭，則必有是效，不於身則於人，不於今則於後，未有有其辭而無其效者也。張子曰：“命辭無差，然後斷事無失。”蓋爲此也。故君子必於立言而謹慎焉。余觀吳震泳〈鄭節士傳〉有曰：“使天下夷，而儒能不夷，則天下猶華也。”此則可也，而繼之曰：“天下華，而儒不能華，則天下卽夷也。”則此以儒爲可華可夷者，以華爲可儒可夷者之說也。混華夷爲儒，儒夷爲華，儒華之本面，皆安在也？徇名求實，則儒華之不待坑狴而亡滅者，業已久矣。兼愛，墨子之一言也，終至於無父無君矣，性猶杞柳，告子之一言也，終至於率天下而禍仁義者。世道之卽事，聖人之已言也。以此準彼，彼其一言之禍烈，豈減於墨告二子之言之已效者耶？故余特奮筆論之。

觀吳震泳答金允清書【乙亥】

問渠果然華是夷，夷是儒乎？何以云“儒不能華，華即夷”也？是極言華儒之無別於夷耳，非極言儒者之有本於華也，而居以任大責重，爲天下望而自重云爾，則其爲望而所自重者，可知已矣。此果與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之聖言，有毫髮近似者乎？程子論佛說曰：“只是本領不是，一齊差却。”今渠許多爲說者，非不似好而一齊差却矣，不須逐一對辨也。

混華夷爲儒，儒夷爲華而立言者，渠而已矣。故吾引墨告二子只一言差失之弊，以明只此一言之弊，宜亦無減。渠不以己言當之，而擡起聖賢之言，替使當之，此侮聖言之大者也。

節士是能華之儒，渠乃以混華夷之儒擬之，排節義者誰也？反以我爲排節義，實是欲借以自鳴也。

嗚呼！誣梅翁以畏勢，誣全翁以諧世，而加先師以排節義之目者，嘉金也，誣先師以認教，而加我以排節義之目者，陰吳也。顧此無狀，猥從先師後而得此目，於分榮矣。僞作絕書，納承袖而曰：“書絕，心不絕。”不可華島祠事，而迫發通文，語不近理，不足辨。但觀吾十餘年間處承者立祠前後議論，則自知渠說之爲誣矣。蓋渠既不憚於誣先師，則又何難於餘人乎？總其平生，以一誣字結局，而習與性成，可哀也已。

觀田士狷條辨金世基書補其缺漏【辛未】

世基書“合稿田崔歸一”云云

既命前後各稿，又云後稿爲勝，先師雅言也。既曰“勝於已校之前稿”則何復待校刪乎？然其云語震以未定本者，渠之云在戊午，則是在任戊五月編定前矣。其當校刪者，已於編定時，先師親自了勘矣。震也乃據過時之書，改換添刪，無所不至，并前稿而混合變亂，以濟其私詐。是其無師之罪，無所逃矣。彼乃藉口以合稿之議，田崔歸一。然惟其始之不悟而見欺，乃能終之改圖而守正，此可謂過而改之，是無過者，何足爲彼藉口之端耶？○前稿有依教移

拔者，則依拔已矣，其改之者，又何事？如答申赫均書，改與以歟，而刪其下十八字，使成受衰之文，〈体言〉，改親以庶，而刪小註五字，使禮意不明，〈田不關傳〉，全篇改削，是皆依教歟？然只就前稿而槩言，若後稿，則尤不可勝言。

世基書“藉合一論賺取清本”云云

當時玄本所無，只辛壬稿及〈庸學論孟記疑〉〈朱書標疑〉也。今日：“田士仁書云‘玄本無庚申文字〈華島漫錄〉。’”若非世基之誣田書，必是田書之昧玄本也。玄本且昧，安得不昧靜丈心乎？不用他辨，卽此可見賺取清本之非其實也。

世基書“先師傳道”云云

道者何？《春秋》之義，非其大者乎？先師之道，“請願刊布，決是自辱”是也；震之道，“認刊原從不言之教”云者是也。尚可謂道之所存乎？卽此可知先師之無所傳，震之無所受也。假使於震實有所傳託，震之狼狽不足爲先師累也，況乎初無臨終後事之託，而曾有晚年事爲之慮乎？【庚申復月，震黨權純命〈華島治命錄〉曰：“而見終是有事爲底意。”先師又與李起煥書曰：“某人以事功爲人所笑”】

世基書“先師答洪金，非許解”云云

先師答志山書有“某亦喜聞”等語。此非許解而何？此書與訃書并往是最後文字也。彼所謂“厥有六證”，更不當說。先師之於志山，未嘗引義告絕，而更有最後之許解，先師所不絕之志山，子孫門人，安得以絕之？宋書所辨，在於靜齋，自無可絕之義，彼所云云，舍此不答，而廣引六證而張皇之。其謂先師已絕之云耶？則最後之答書初終時之通訃受聖九之加麻，皆無所當。其謂先師雖則通書心則絕之云耶？則置怨友人，左丘明之所恥，心迹不同，栗翁之所譏也。揆之左右，皆不可通。震也既謂先師絕志山，而罪崔以全門之鄭胤永，後乃答金聖章書，回面納媚，道平日慕仰志山之意，而憾聖九之不訃。世基而見此書，必回旗倒戈，攻震以誣師背訓之罪矣，久而無聞何也？○關係

文字，拔不拔初不足說。凡人文字，前後自在，使其相絕，初不害前日贊揚之仍存，使其解仇，亦何妨前日貶斥之不拔。晦翁之疑吳伯豐附韓侂胄而旋解也，猶不刪前日“桓司馬家臣”之語，此可知也。世也見不及此，而區區以拔不拔爲大關，何其惑也？欽齋亦請盡拔之云，不可信，志山有言，而彼云無，以此知其不可信也。至於世基書，渠亦云初不登稿，則其不可與不拔者同例而入稿也明矣。

世基書“宋子契券”云云

契券事，本文既曰：“無可奈何。”則可知其非十分正當之道矣。金壽弘祝詞用虜號。則尤翁勸文谷以大義滅親。此正十分正當之道也。蓋祭祀之祝，有何無可奈何，而必用虜號？此尤翁所以勸文谷也。且使弘誣仙源以祭我用虜號，則其罪又如何哉？今此文稿，不認則不刊而已，非有如田土之違格見奪，則有何無可奈何，而以認刊爲義乎？而又誣以原從先師不言之教，此吾輩所以討震也。吾故曰：“文稿是祭祀在我自由之類也，非田土無可奈何之類也。”彼震世輩昧於分數，執語錄而廢《大全》，使尤翁之大義不別白，以此而謂誣尤翁，不亦當乎？○涵齋分明爲初終時襲，有司同任，高在鵬黃鎰淳宋寅健也。此當日萬目所覩，而猶且云然者，以渠輩大祥日僞加望哭人數之心，度他人也。

世基書“先師所難形”云云

難言之訓，彼輩初作“出認”“勿認”兩般看，再作別有所指，及被別指謂認之詰，而轉身不得，則倉卒舉押稿之變而當之，如無押稿，則又舉何事而當之。不變震之誣師改稿，禍士林拘師孫，而但變他人之押稿，更見其昧數矣。雖然，震若守難言之訓而不認，則豈有此等事乎？惟其矯旨而作出認看，所以終於釀禍也。

世基書“先師簡拔託後”云云

僞錄師銜，投諸不測，罪雖重矣，不至如渠所稱逢蒙行弑之事矣。此先師所以不拒之不納，如舜之殛鯀，而猶許仍籍補劓也。何嘗解惑而面破相笑，稱之以吾黨第一流乎？己未僞書時，猶可諉以未解惑，雖以渠所稱“解惑後”言

之，辛酉復月與李起煥書，嘆門人無可望者而曰：“某人以事功爲人所笑，誠正功夫遠矣。無可問此，只欠見識。見識低矮，事爲卑陋，須用吐瀉法，乃有進處。”既斥之以事功爲人所笑，則可知解惑而面破相笑云者，自歸誣師矣，既貶之以見識低矮，則可知吾黨第一流云者，亦非其實矣。先師之未嘗解惑而慮其復蹈者如此，尙何託後之可論乎？

世基書“誤託則豈不可爲慊德”云云

以栗谷之通明，尙不料二鄭之凶情，慎齋同春尤庵，於大尹江都事後，猶尙與之講學，無間於師生朋友之倫，而其始終善鑷之實未及知也。後之君子未嘗以此咎四賢爲眼不識人也。以仁弘拒納定退冥優劣者，又不然。伊川之門，尙有邢恕，伊川之明有不及退溪云，則豈其然也？假如渠說而先師有所託震，此何足爲慊德乎？

世基書“先師託後有許多文字”云云

渠所謂許多文字，皆在己未僞署師銜之前矣。己未之於壬戌，日月久矣，往復亦多矣，而何無一言託重於大稿？而反有見識低矮之歎，不惟發於辛酉李起煥之書，終有事爲之慮，亦見於渠黨權純命之庚申〈治命錄〉矣。

世基書“少尹碑碣”云云

君師一體，而君又師之所尊。故師之文，或可據國典而改之，國典無據，則誰敢改師文乎？崔公碑，既不見非二品不大碑之國典，而先師據《栗谷全書》贈通政大夫都承旨金公碑中“爰樹神道碑”之文而作之者，誰敢據無見之國典，破先師有據之完文乎？

世基書“降碑非罰賂”云云

成璣運答徐柄甲書曰：“不料崔某之行詐至此也。持難數朔，但降碑爲碣，主其事者震也。”成豈不知震意而有此書乎？此非罰賂乎？蓋先師之撰碑也，以其可作而作之，初非爲仲子之懇請而作之者。則田崔之與受，自屬田崔事，於崔公碑乎何關？而乃有曰“賂”曰“詐”曰“削”曰“降”之說，上累先師之清德，

下擠人於千仞坑也，可痛也已。

世基書“改碑完稿，衛師討賊，尊國護賢，仁義”云云

楊墨之無君父，究其弊而言也，親於其身之所爲，則誠有疑於仁義者也，豈若震之身親爲賊師亂稿禍士林拘師孫之不仁，忘君而戴誰家日月照臨之不義者乎？由是言之，震實楊墨之罪人也，楊墨有靈，必起九原而誅之。

世基書“杖手”云云

田士順對金希淑言：“大祥之夕，震恐湖人之并與望哭而驅逐，募壯丁十數人，持杖埋伏云云。”埋伏杖手，實震輩所爲，而反嫁於湖人，此等皆彼輩第一長技也。

世基書“不告文之由”云云

震欲當日欲與欽齋同告而不得，則又請涵齋聯名。夫人不欲自修則已，不然，其有罪而自訟自責之不暇者，爲其自愧於心君也，而況得罪於父師而不告謝服，則天理不得正，人心不得安者乎？假使己與人俱有罪，惟當盡在我之道，而不關別人，而況己則實有誣師之罪，而乃欲引別人之無罪而同歸，此何心也？吾聞震非不欲服罪，而恐湖人之資罪而不爲，其亦不思之甚也。孔子曰：“過而不改，是爲過矣。”吾亦曰：“罪而不服，是爲罪矣。”服罪而人猶資罪，資之者非矣。孔子豈不曰“不念舊惡”乎？嗚呼，不思之甚也。

世基書“嶺湖不可苟合”云云

嶺湖之不可苟合，有如薰蕕之不可以同器，渠言亦是矣。然若震悔其誣師之罪，告墓而服之，負荊請罪於辨誣諸公之門，則揆以不念舊惡之義，諸公豈終斥絕哉？然此以再認亂稿，使姜告訴前言之，以後則後矣。

世基書“姜訴挽之不得”云云

姜泰杰事，言之腐心。始而姜之認印《節要》，廣告文云“承吳石農先生命”，而不及他人，終而姜之起訴，靜齋與震書，入於檢局而爲姜證書，則其始終同

事二人一心之實可見。宋之以坐視不揅討之者，失之疎矣。禍士之真狀如此，則彼同室各郡之辨，豈非一指遮天乎？姜大昌事亦然。師孫之被挈晉署也。權純命前倚後角，左誘右脅，使之解押稿償損金，權非世所稱小震泳乎？晉之認印，吳石農實主張之，非其發文中語乎？拘師孫之罪，震又如何逃得？前則指姜而禍士林，後則嗾姜而拘師孫，此其所以罪在罔赦也。

世基書“世基之所事”云云

陳相之背師，由夏而變於夷。故孟子斥之。世基之背師，棄“萬劫終歸韓國士”之師而事“誰家日月照臨”之人，棄“請願刊布，決是自辱”之師而事“原從不言教”云之人。此由夏變於夷之尤者，豈不見斥於公論乎？全門人之師先師，乃以道歸道，初非可以爲渠證者也。

世基書“石翁受禍”云云

網打土類者震也，拘囚師孫者震也。吾見震之禍人，未見人之禍震也。震方頭戴誰家日月，而人莫敢誰何者，孰能撻其一髮？

世基書“南袁尹鐻”云云

起訴讐庭而禍士林，袁之毒正，非震而誰？誣賊先師而改大稿，鐻之斥賢，非震而誰？渠乃居震以衛師繼統之功，真可謂袞扶社鐻禹功之一轍。

世基書“世之師生，初無誣師之罪”云云

上言“杏下獨命‘料量爲之。’”而下引許多認證而實之，上言“認之第一不可”，而下云“其實原從先師不言之教。”此與遺書“請願刊布，決是自辱，慎勿勉從”正相反。此所以爲誣師也。渠乃云“初無誣師之罪。”此所以終於誣師而罪不可宥也。

世基書“先師大稿，敢曰‘穢本亂本’”云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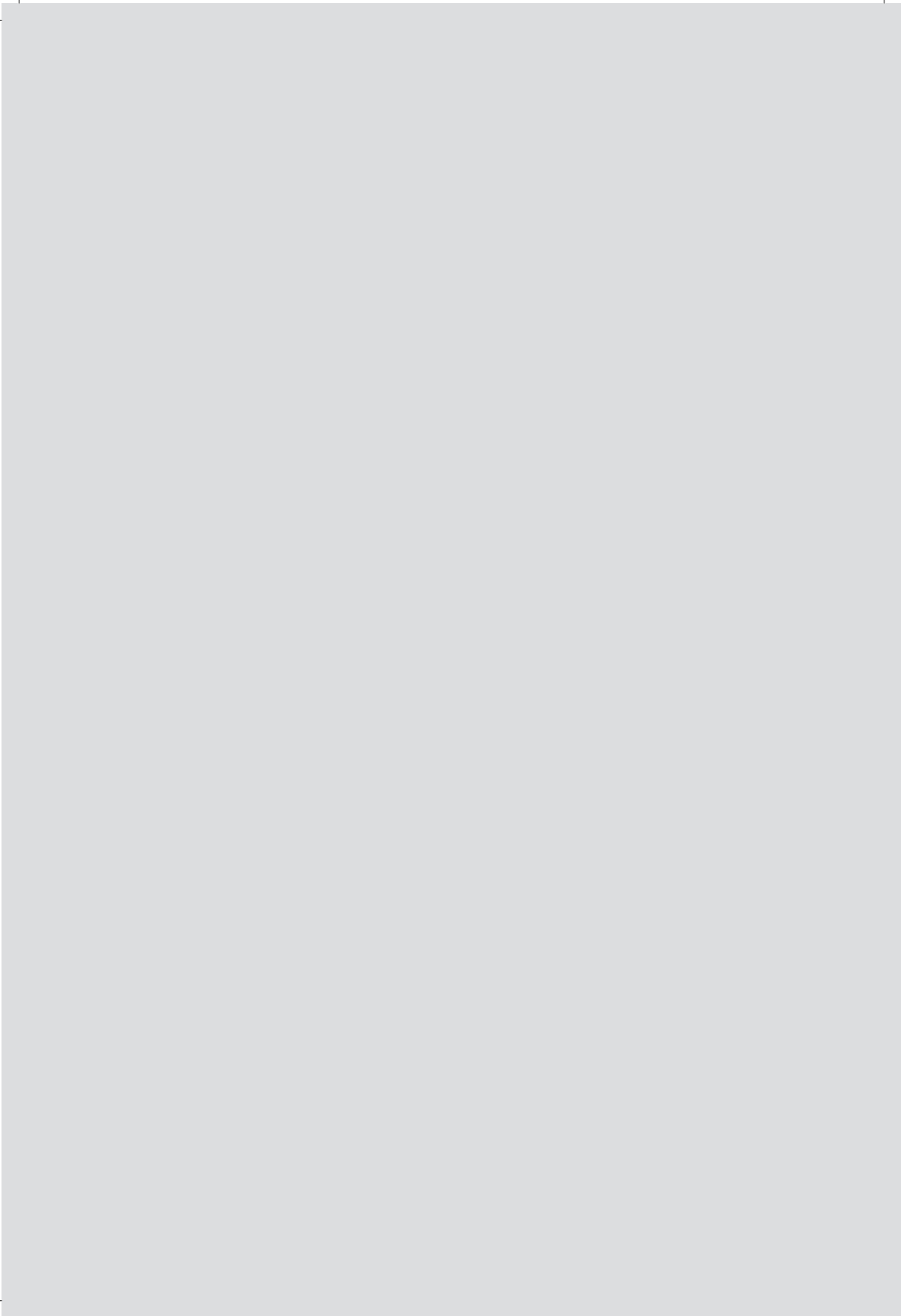
謂先師本稿而曰“亂本穢本”，是誠不仁不敬無忌憚。其所指乃震泳變亂本也。朱子以胡五峰改程書中“沿姪”二字，謂誤本而不欲看。尤庵以朴玄石校

讐栗書之未正，至有碎板之論。若如渠說，朱宋二夫子，當先被不仁不敬無忌憚之罪目矣。豈非凜然乎？○“自受不奉書之罪”云者，渠亦有是說乎？誠然者，胡不將“杏下獨命”之誣“不言之教”之誣，一一告墓而服罪也？料量之命不言之教，如曰“非誣”，“請願自辱”之遺書，不過爲渠輩所謂“偽造”者，又何以不奉書爲罪？吾知之矣。欲濟認刊之私也，則曰“料量之命，不言之教。”欲避《春秋》之討也，則曰“自受不奉書之罪。”情迹依違，左右遮欄，其心可謂苦矣。渠所謂“光明正直”者，乃如此乎？

此篇，辛未夏，爲田士狷所辨金世基書未備者而補之，棄於休紙堆中矣。今日偶得觀之，有可考者多，且悲士狷之不復得見也，而收錄之。己卯嘉排日識。

《新羅金氏世譜》中辨疑【丁丑】

古人云：“言之淆亂折諸聖。”余謂史之疑信決諸理。夫人壯有室而生子，老精衰而不生理也。雖壽者，不過百年而死，若曰：“過百年而有子。”則非理也。今於吾金之中，取《新羅金氏世譜》中“吏部尙書公，爲敬順王曾孫，爲麻衣太子孫，爲箕輅子”之文，而載入於吾譜上系，與古家牒所載“尙書公爲敬順王六世孫”之文，并立對峙，作爲二本，使之疑信莫決者，請試聽吾辨。太子入山，非麗太祖乙未乎？尙書公登科，非宣宗朝乎？乙未之於宣宗初末，非百五十六年乎？假使尙書公年五十，始登科於宣宗元年甲子，其生年上去太子入山之乙未，非百年乎？《新羅譜》云：“箕輅從父入山。”則時年非少不下十歲以上乎？假使五十生子，下去尙書公登科之甲子，非百十年乎？天下焉有百十歲而登科者乎？準以五十登科，則將曰“其父百十歲生子”而後可也，豈理也乎？決諸理而不合，故不可信也。難之者曰：“子不信《新羅譜》，則何以有時取證乎？”曰：“子不讀《孟子》乎？孟子之於武成，奉天伐暴之辭，則決諸理而合，故取之，血流漂杵之語，則決諸理而不合，故不信。吾於《新羅譜》取證，吾金之爲太子宗派而不信太子以下尙書公以上之代序及分扶寧扶安先系而二之者，有所受於孟子也。”【麗宣宗在位十一年】



《後滄集》

卷之十五

艮齋先生私稿晋州本考辨錄

卷一

二十八板左五行：《答金混泉》。

華本：《答混泉金公》。【《前稿》。下同。】辨曰：混泉癸未生，長先師十八歲，故加“公”字而敬之。今刪之，非先師意。

三十六板 左十一行：向來儒疏引之，蓋欲援張子而入於己，以拒他人之非己。【《答沈參判》。下同。】

三十七板右三行：今如儒疏之言。

華本：“儒疏”并作“疏儒”。○辨曰：一字倒置，人文所指迥異。

卷二

三十五板左五行：愚之獻忠，止於此而已。如曰未然，請以各尊所聞，各行所知爲事，無復可望於必同，如朱子之所歎也。【《擬與柳釋程》】

華本：各段低一格。○辨曰：別段低書，所以別致丁寧之意，今連作一段，失先師意。

卷三

十七板右七行左方。

華本：有《問金正斯書》。前書所教愚，“在國恤中 麻衣布笠外 無他道理”之

喻，固當然也。臘月祥後，欲仍著素笠衣帶。蓋用以寓亡國遺民之恨。若乃子孫門生，不必然，此義未知如何。【後聞徐斗益所傳，則韋公以余祥後仍著素笠衣帶之說爲善。】一條。【《後稿》。下同。】○辨曰：先師生前，擇大關時諱者爲別集，至其略涉者則否。況此等文字，只論時義，不涉時諱，何所關而入別乎？若此類者，甚多，絕非先師平日意。而使義理文字，不見於原集，誠所慨惋。

二十七板右十一行：家有父兄而也不尊，世有聖賢而也不尊，天有上帝而也可褻，身有天性而也可貶。【《答朴正端》】

華本：無四“也”字。○辨曰：以己見添字於先師文，是何變也。

卷四

十七板右六行左方。

華本：有《答盧仁吾書》。所詢愚身後誰可爲得其傳者，愚自無所見，其他更何問也？程門諸子，晦翁且謂“其倍師而淫異”，甚矣，傳道之難也。炳菴無恙日，愚意其邃學正識，堅操厚德，可以上續全翁之緒。此友不幸遽九原矣。自餘諸子未有可擬望者，區區不勝禪宿之淚爾。一篇。○辨曰：此爲先師悼往憂來之文。忍滅之乎？

二十板右三行：本生嫁母，當服大功。蓋一出一嫁，不得不然也。服盡前着白笠，自後用墨笠帶以終心喪，恐得。【《答柳善一》】

華本：無。○辨曰：此非定論，故親刪者。金益容《答金澤述書》曰：“本生嫁母，當服大功說，載《梅山集》，而以先師附籤觀之，服碁似宜。所示大功之說，載晉本而華本無者。或以降服大功之未安而親刪否？”梅山曰：“有人於此，取其弟之妾子而子之，因之承嫡，所謂妾子之母，乃父之不率育者。當服嫁母齊衰杖碁者也。過房則當爲之降服，服不杖碁乎。服不杖碁，則與本生嫡母，無差殊，服大功，伸心喪三年，恐宜。”先師曰：“與嫡母無差殊，似不當拘。蓋庶子父在而母亡，則不分嫡母妾母，同爲杖碁，則二母無差殊，何必拘乎？然則，梅翁之以大功爲宜云者，但欲別於嫡母也。若無嫡母者，則不降而服碁，可知也。”

卷六

十九板右十一行: 如今……足下守義力學之詳, ……【《答崔近述》】

華本: 如今專尚文辭, 擺脫衣冠之世, 得聞此至論, 固已敬歎. 既而又從邊舜何, 田平中, 聞足下守義力學之詳. ○辨曰: 刪“聞”字, 則詳字無所當. 急於刪削, 以致先師之文, 文理未通, 大是異事.

二十板右一行: 士生斯世, 上驂下驢, 靡所於自見, ……【《答許巖卿》】

華本: “自見”作“往”字.

卷十

四十一板右: 《與權永巽書》“言語須要”條.【庚申】

華本: 《答金玄淳》【《前稿》. 乙巳.】

卷十一

十二板左: 《與朴蘭緒書》.“士習民俗”云云一條.

華本: 無. ○辨曰: 毋得妄添一篇. 拘於顏私, 復行變通, 是欺其朽骨, 無知先師遺書也.

卷十二

七板左七行: 道體, 被人不敬, 後便不立.【《答李喜璉》】

華本: 無“後”字.【《後稿》. 下同.】

卷十三

二十八板左十二行：彼之強拗，固不足責也。怪事怪事。【《答朴大鉉》】

華本：“責”下，無“也”字，有“若吾亨文之疏通豪爽者，何復狐惑而莫之醒也。”十九字。辨曰：既云“固不足責。”，則復何言“怪事”？此間必有“若吾亨文”以下十九字，然後方成文理。今刪去亨文可怪之事，獨存怪事字，是何義意？真怪事怪事。

三十七八板：佗說猶或有沈吟之思，至於此等大頭腦差誤處，豈容有些依違不決之態也？大抵如吾洛中先賢所述，程、朱“氣稟或異，而性、理一同，澄治氣質，而復還性初”之說，則其於天命、人心、聖學、世道，何所礙滯，而棄却四書集註章句鐵板定本，乃自撰出“太極纔在陰陽之中，便非本然。天性纔在氣質之中，便非本然”之說，自謂“此是洛、閩正傳”而思以易天下也？區區竊怪夫如此立說，何所裨益於性理之學；何所開明於心術之用，而費盡氣力，棄了禮遜，以自歸於跨越湖、洛，輕蔑師友之科，使人苦痛苦痛。古今天下，曷嘗見不在陰陽之太極，不在氣化之天命，（不在氣質之性。）不在形器之道？來今言“天地之性”，則雖百濟卿，必不敢指為氣質弗性之性。然殊不知“天地”二字，已是指天氣地質而言也。又如言“天命之性”，亦未嘗外乎人物形氣而言。此又具在《中庸》首句註說矣。《聖學輯要》釋“氣以成形，理亦賦焉云，理氣元不相離。即氣而理在中。”此何嘗以理之在氣，不得為本然耶？《大全》釋“生之謂性”云。即此人物所稟以生之氣，而天命之性存焉。此與《中庸章句》、《輯要》小註，如印一板，三歲孩兒，亦皆知得。獨鄭濟卿，具得別眼，掉得異舌，既以自誤，又以誤人。此豈其人胚胎之初，真有稟得恁乖之理而然耶？愚與姜磬山大集語，“以為從氣質言，則雖說人物稟性不同，實亦無害。”，正如今濟卿之言。既而旋覺其誤，而痛舍舊見，自後不敢復如此說。今其人，雖力主舊見，亦安知其不覺誤而歸于正也。若他人欲渠急改，而力與辨斥，恐非惟無益，或反使之愈執而愈不可救也。願而見，但自信老洲人物性論，而對所親諸友，略舉大源頭以說與，使之不被其誤而已。勿復與之說往說來，以損聖門沈潛淳厚之風也。【《答吳震詠》。下同。】

華本：作小註“獨鄭濟卿”以下至“理而然耶”三十九字刪去。○辨曰：小註作

大文, 刪去者, 還存之, 大違先師用意之至.

卷十四

六板右三行: 若其言行心術之妄錯, 一毫不可掛於口頭筆尖. 是爲心弟學性師之道矣. 愚於是. 將以驗而見之有見無見, 有德無德, 而見其敬聽而謹守之哉!【愚性素癡昧, 未有可以當盛心者, 至此一言, 不妨作而見平生之師也.】

華本: 下“而見”下, 又有“而見”二字. 小註未有“僭越之言, 知罪知罪”八字. ○辨曰: 再呼“而見”, 及“僭越, 知罪”之云 以致丁寧嚴重之意. 今刪之, 豈其惡聞歟!

卷十六

十一板: 《答鄭世永書》如曰: “人物氣, 雖萬別, 而理之稟受, 則同.” 則愚於言下. 何惜一唯? 若曰: “聖凡氣既不同, 則理之稟受亦異.”【人, 物, 聖凡互文】, 則雖與之言終日, 亦莫能不違如愚矣. 請不復也. 請且少置“同受異稟”之說, 急要就心術, 精察公私得失之辨焉也.

華本: 《答鄭世永朴昌鉉》“如曰”上, 有“二公”二字, “請”, “且”之間, 有“二君”二字, “辨”字下, 無“焉也”二字.

十五板右十三行左方.

華本: 有《答鄭世永書》. 侂日此漢身後, 不須問瞑目與否. 卿與而見下氣以循理, 釋爭而得和, 則吾目瞑矣. 不然, 雖致奠, 吾不歆矣.【吾非欲二公強改理氣所見. 只望心氣和平, 以求無乖乎性情之德而已.】一條.

卷十七

三十五板九行: 每至夕陽, 簡此一日所爲.【《答崔鍾文》】

華本：“此”作“點”。○辨曰：此類意其錯誤。然既不見於彼之正誤表，亦難以此看做。而又恐正之未盡，則不必深論。但遂已之，則無以見華本本文，故竟錄之。

卷十九

三十九板左一行：“湖論諸賢”【《答金澤述》】

華本：“湖論諸先生”【《前稿》】

卷二十

六板右十一行：象山以陰陽心靈，爲形而上，爲不察氣慾之害。【《答田璣鎮》】

華本：下“爲”字作“而”。【後稿】

十七板左：《與千河運書》【乙卯】

二十九板左：《答盧憲九書》【丙辰】

華本：并無。

卷二十三

一板右十二行：“士子而悠泛者，獨無窮醜之恥乎。奉勸後輩，宜加惕念”【《答柳永善》。下同。】

華本：“後輩”作“禮卿”。【《前稿》】

七板左十行：“穆上”

華本：“李某”【《後稿》。下同。】

二十六板左七行：“只對平昔所見者，跪進於明者之前。”【《答金孝述》】

華本：“對”作“將”。

二十九板：《答具然直》

華本：《答某》○辨曰：門人變節者，割名於《觀善》之錄，《私稿》之編。先師平日嚴正法門，今擅改於既沒之後，此爲欺師，無知之大者。

三十三板：《答尹夏明書》【己未】

華本：無。

卷二十四

二板右十行左方。

華本：有《答崔愿書》某門非吾梅山先生流派乎？使其或未思而有過舉，在我之道，但當用愛惜之心和平之辭以待之。此自是將心循理之學，盍相與勉之？切勿與之兩相抵排，而復蹈柳洪諸人仇視柳持平之覆轍也。愚自謂吾之此心，可以對梅翁見毅堂而無愧矣。一條，而低一格。

十五板左一二行：比讀《宋子大全》趙浦渚告宣廟之言。【《答朴東信》】

華本：比讀《宋子大全》，得趙浦渚告宣廟之言。【趙浦渚語，見《神道碑文》。】

二十六板左：《答金植沉書》【丁巳】

三十板左：《答梁正鎬書》

華本：并無。

卷二十五

九板左：《答金鍾玄書》“士君子云云”，“人或可欺云云”，“曰義則云云”，三條。

華本：無。

卷二十六

三板右十一行【止】左一行。

金於柳之改案也，決不妄使客氣，惡詈其所深許之高弟矣。【柳答金書“斥之以陷師而發拍地慟哭之語；目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柳於金之惡詈也，決不苟爲唯諾，強立其所不安之正案矣。【柳勉從金說，立正案，逮金沒而還收矣。○《與關西諸生》】

華本：金於柳之改案也，決不被客氣所驅，而惡詈其所深許之高弟矣。【柳答金書曰：“斥之以陷師而發拍地痛哭之語；目之以射父而示大義滅親之意。”】柳於金之惡詈也，決不爲私意所牽，而還就其所不安之舊說矣。【柳告華西象文，自以前日之調補爲誤，而還收其正案矣。○《前稿》】

二十一板右十三行：卽氣【缺】，非惟害理，亦絕非農巖老洲之本旨也。【《答金容承》。下同。】

華本：“卽氣”下，“非惟”上，有“作卽乎氣看，(則)無碍。若作卽是氣看，(則)”十五字。【《後稿》。下同。】○辨曰：故刪而敗文，何云缺也？

二十二板左四行：“有爲”二字，亦曰：“自然爲主宰，非如神之有情意造作。”【此一句。老洲語。】則可無疑矣。下。

華本：有“卽氣之卽。如作就字看。尤覺灑然矣。”十四字。○辨曰：作就字看與上段卽乎氣看相照，爲一篇之眼目。而先師所灑然者，渠不灑然而刪之？

卷二十七

四十三板右三行：小註“清安縣 文芳里 崔東峻家”十字。【《惺山書社示諸君》】

華本：無。【《前稿》。下同。】○辨曰：有關之本註，且多刪，而有無無關之自註，乃冒入，是何心也？

卷二十八

一板左八行：切望諸賢須存得畏天之心，守得在己之道，施得悲人之情。此不是小事。【缺】【○《示諸君》】

華本：“小事”下，無“缺”字。○辨曰：語已斷矣。故本無文，而云缺，可異也。

卷二十九

二板右：更按，退翁答高峰書，既言“理發而氣隨之”，而下段又有“理乘氣行”之語，有“人非馬不出入。”之譬。金而精書，先言“動者是心，而所以動之故是性也。”而下段復有“理發而氣隨”之語。李宏仲書，亦以“理發氣隨”及“性理無形影”，“心情該載發用”之語，前後并用之。然則所謂“理發而氣隨”之者，先生之意，無乃以循理而發，是自然之動，而亦可謂之理發，故云爾歟！不然，而若作理自發氣隨後看，則與所謂“不出入”，“無形影”等語，自相矛盾而不相通矣。觀者，請下一轉語。

○或曰：“退翁臨終數句前，答高峰書以理用‘爲活而顯行’者。然則，夜對之云，又安知非未定之論乎？”余曰：“夜對說話，是就四端上，指此心之循理而發者；高峰往復，却是就物格處，指此理之隨心而到者。彼此顯有賓主之分，非可以相準而立疑者也。況高峰回書有‘此理不自在之累。’云，而退翁未及見此說而下世。故無復有之論，惜矣惜矣！至於尤翁，又累言與朱子意不同，則後學於此，何其執一而廢其餘乎？”【《晦退栗三先生說質疑》】

華本：然則理發氣隨之仍存，何也？豈非循理而發，是自然之動，而亦可謂之“理發”，故仍存而不必改歟？抑又念之，退翁以《十圖》進御後，頻數改易爲未安，屢見於文集。今之仍舊，豈或以是歟！不然而必欲作理循理而發【理發】，而所乘之機隨而動【而氣隨】之義看定。則恐決非退翁之本指也。茲以質於明者。【《後稿》】○辨曰：此命題以質疑者，決辭也。故以“決非退溪本指”終焉。若如“更按”以下說，則是爲設疑之未定辭，烏在其命題之義？此先師所以親書書頭曰：“庚申再看，無疑。壬戌上元三看，亦無疑，勿刪爲得。”，嚴防後人改刪失却本意之弊也。彼邊謂“更按”以下，先師用南軫永說，命崔秉心代草者。南送之，清道添入，蓋一時試草棄不入稿者。南則送之，吳則添之，破敗積年精檢無疑勿刪再三丁寧之訓。噫！其無嚴矣。

卷三十

六板右四行：用布【缺】【○《衰服說略》】

華本：“用布”下，無“缺”字，有“方八寸，摺爲四寸。”七字。【《前稿》。下同。】

○辨曰：《大全 答周叔謹書》云：“用布闊四寸，長八寸者，摺其兩頭，卽方四寸，綴於領旁。”無“用布方八寸，摺爲四寸”之文，則今此“方八寸”之方，是“長”字之誤寫。蓋先師所引周書，主證“辟領綴於領旁”。與《家禮》槩同，而其前後各得二寸四寸之長短得失未及詳論。至李喜璣書，乃言之。頭註當云“方八寸”之方，攷《大全》，當作長，可也。何故故刪原文七字而云缺也？

三十九板左七行：此月朝家之所宜兢兢。且梅山自引疏曰：“臣所獻議，極涉妄率，罪不勝誅。謹附首實之義，冒請當律。”此是明白改正，而今淵齋以“前後相截”，“半上落下”，“兩截義理”等語譏之，何也？梧陰論退溪改定服制事云：“一國賴之，其利博哉！”此尤菴答屯村書。胡爲乎今之君子異於古之君子也？【《看淵齋雜識》】

華本：此月朝家之所宜兢兢也。○附《肅齋集·與洪鰲谷書》：“先生獻議，及上疏草，敬覽。而愚見從初以不敢戚君爲主。故每謂沙溪，同春說，當遵無疑。今乃因事，釐正祝式，自此以後，媚疾者之嘵嘵不已，必欲售其醜正之計者。可以一掃而無虞矣。

卷三十二

十二三板：《田氏譜圖》小註官階。

華本：無官階。

二十三板右十二行：仇滄柱條上。【《瑣墨》。下同。】

華本：有尹喆圭之詐傳飭令，而誘逐賓師也。朝廷雖不勘核，章甫卻當聲討。朱子所作《陳正獻公【俊卿】行狀》云：“公奏曰：‘王琪妄傳聖旨，移檄邊臣，增修城壁。此事係國家大利害，朝廷大紀綱，而陛下之大號令也。今琪所犯如此，謹按律文：「詐爲制書者絞。」惟陛下早賜處分。’於是有旨削琪官而罷之。”

今尹罪視王琪，不輕而重，明矣。當引此陳章，縱不得絞削，亦足以明大義於世界，使賊徒喪膽，而儒林少振矣。惜乎其未也。一條。

同板左十二行：“學者須先”條上。

華本：有聞有致郡守于書塾，升講座，令諸生詣講。昔宋高閱字抑崇，從龜山，和靖遊。高宗幸太學，秦熺執經，高公時爲司業，講泰卦。胡五峯以書責之曰：“閣下爲師儒之首，不能建大論明天人之理，乃阿諛柄臣，希合風旨，求舉太平之典，欺天罔人，平生志行掃地矣。今使髡宰執經聽講於家塾，五峯復起，謂當如何？”全氏祖望作《長春書院記》云：“秦氏當國，思陵臨太學，憲敏【高公諡】講易之泰，五峯疑焉。及秦梓求昏于憲敏，不得。卒以見忤罷官，五峯始釋然。蓋大儒之砥礪名節，一步不苟。而憲敏之無愧良友，卽其所以得統師門者也。”余欲使士類時誦《長春院記》，以自樹立。【高公在龜山門爲高弟。其《春秋集註》遠過于胡文定。其《厚終禮》則朱子多采用之。此亦謝氏說也。】一條。

二十四板右七行：“乾坤十變”條上。

華本：有時輩令車夫削髮，則皆反對曰：“我輩不削髮。”復令曰：“然則，汝輩營業，日人代爲之。”車夫爲文通諭曰：“營業寧可失也，削髮決不爲也。”【此載戊申八月十一日新聞。此語上與天聖合，奇哉！噫！彼車上高坐某大臣某大臣之髡首夷裝者，能不愧死乎！見今觀察，郡守，令鄉曲，官人，就名姓下，註以削不削，則書不削者絕無。彼平日視車夫輩，何等賤侮，而今乃如此，豈不負醜入地乎！我輩學者，宜於此大加警惕，誓毋爲車夫之罪人也。謝山全氏作《宋儒王厚齋像記》，其中以明儒所議“厚齋入元爲山長”一節，立辨云：“此事史傳，家傳，志乘皆無之，不知其所出。然卽令應之，山長非命官，無所屈也。”【止此】余謂季世多此等誣妄。如李牧隱入本朝之說，亦其一也。然此是當日失身之輩，欲汗巖賢者。以冀免己恥也。年前新聞誣載崔公剃髮，仍有製進開明帽之嘲。【丁未六月二十五日新聞。】往年新聞，又立《南儒向明》、《削何避何》兩題，而暗指老拙。此皆爲改節者之所講張，而爲新聞者，亦喜聞而樂道之。渠輩于儒流，視爲讎敵，而猶欲藉重，眞可惡而亦可笑也。二條。

二十五板右十行：“聖人之心”條上。

華本：有尹穡初擢用，力言“但得虜和三二月。綱紀自定。”龔實之云：“便見

佗人耳聾，敢如此說”年前某人言“日人于我真心和好，我能相信，必得其力。”余曰：“彼使我撤兵營鎮營及盡收兵器而去，一切有助之事，并令罷休，而猶信其有好意，此真無目者。今見《語類》所記尹穡語，可謂聾瞽相對。”胡澹菴作《春秋解》，求鄭億年作序，而書報於范直閣【如圭】。范公答云：“鄭不知是何人？得非劉豫左相乎？請去之。胡公見識如此，極可歎也。《語類》范蜀公作《溫公墓誌》，全用東坡行狀。而銘多記當時姦黨事。東坡令改之，蜀公令東坡自作。因以蜀公名出，其後却無事。若范所作，恐不免被小人掘了。【見《本朝人物·百三十卷九板·清國本》】朱子作《魏元履誌》，而以曾覲勢方盛，不載魏公疏論覲召還事而曰：“恐貽丘隴之禍。”南軒撰表，亦倣此意矣。後朱子因跋墓表，而始盡發之。○愚作《全翁墓文記》“耶穌邪說之害，必至亡人之國而後已。”潤萬慮邪徒遍滿國中，而其勢，亦甚可畏。恐毀去其刻字，令刪之，然心甚未快。今以朱子所論范公作及所撰魏公誌，觀之，亦或爲一道耶。戊申至月五日，愚在咄嶝。是日適先師諱辰。不勝羹牆之慕云爾。三條。

卷三十三

六板右十三行左方。【《休言》下同。】

華本：有今日西洋各國，英吉利最號富強。而天主教之徒，結黨謀叛，睿公會殿下，藏火藥，侯王至，將轟殺之，事覺誅死。查理第二弟嗣位，素習天主教，強民從之。民習耶穌教，久不肯變。渡海招荷蘭王爲主。又國人競尚耶穌教，而馬理【女姿絕世。】仍執天主教，殺夫有邪行。又父子異財，飢寒不相恤，債負不相償，終其身，如路人。三綱之斃敗如此，其佗又何論也。苟鞠其源，咸出於利之一字。甚矣！利之爲害也。柰之何執政者之莫悟也？一條。

十四板左十三行左方。

華本：有國家之屯難極矣。危亡在呼吸間，使主上知求而往明之義，至誠求賢。致敬以迎之，誠信以任之，則爲賢者者，其出處宜如何？出而用世，則其于各國，何以待之？與之同朝共居，則華夷無混處之義，苗莠無相容之理。若欲攘斥而驅遣之，彼勢方盛，吾力未足，安能以正道顯然逐之乎？若謂賢者

不當出，則遯之“與時行”，否之“志在君”，蹇之“蹇蹇”，固已不然。又與夫聖人不以無道必天下而棄之之心，不同矣。未知如何？抑陰盛而抗陽，則君子亦不可以有行也歟！恐聖人之視天下無不可爲之時，則亦必有處之之術。而其妙用非常人所能揣度。姑以淺見言之，今日所當受用者，其惟屯之“小貞之吉”乎。所謂“貞”者，如立志講學，舉賢黜邪，尚義下利，信賞必罰，節用愛民之類，是也。此數者，苟能深明而實行之，則彼各國之人，必將畏服而不敢侵凌矣。至於各國已立之約，則欲一朝盡更之，徒致凶咎而事終不成。今且先擇其甚不便於國計民生者若干條，至誠陳其利害，漸圖變通之道。而彼若適己自便，不恤我邦，則便非交鄰之道。亦必善爲辭令，辨其是非，而歸曲於彼，彼雖强悍，終難據曲以爲壯。且彼之奇技淫巧之屬，學之何用？而乃以此有求於彼，而使彼得以此致驕於我也？自此宜一刀兩段，不復置意，以示無求於彼之意，則我雖寡約，亦將守正以自強矣。程子論處蹇之道曰：“凡處難者，必在乎守正。設使難不解，不失正德，是以吉也。若遇難而不能固守，入於邪濫，雖使苟免，亦惡德也，知義命者，不爲也。”今也不行先王之舊章，反效裔戎之新法，置吾民於度外，却養豺狼於城中。此所謂“入於邪濫”而知義命者之所不爲也。一條。

十六板右九行左方。

華本：有今之時，天地正氣已衰，聖賢道術寢弱。故夷狄禽獸，橫行中國；異類邪說，蠹食人心。吾儒幾人竊而在下，未可與之爭鋒。【伊川先生言“時之盛衰，勢之強弱，學《易》者，所宜深識。”】且須與知舊朋輩，潛相講辨，默與挽回，是爲持守父母之遺體，傳述先師之道學，以輔助吾君之風化。庶幾如碩果不食，以爲復生之本矣。一條。

二十二板左四行左方。

華本：有近聞一種議論，謂“夷狄亦人，不必外之。”此疑於仁厚。然殊不知彼雖人形，而其氣則固與物無異。是以謂之“非我族類，其心必異也。”是以謂之“在人與禽獸之間，而終難改也。”自古未聞有與夷狄混雜而終無事者。是知先王之攘之也，以彼帶得見攘之理來，從而攘之耳。是所云“物各付物我無容心者也。”且如天地何所不容，聖人何所不愛，但處之有道，未嘗以其理之一而槩施之也。余謂爲此說者，必其於自治之功，絕無天理人欲之辨。故

其論爲邦之道，亦復出此淆雜之言也。夫其始也，爲“不必外之”之言，是猶微有賓主之分，其終也，與之俱化，而不自知其爲夷也。凡謂“流俗不必憂，異端不必攻”者，皆此類也。愚謂凡生於兩間者，雖曰“同胞”，而山海爲之限隔，風氣爲之不通，則區域既分，俗尚各異。此非人之所爲，乃天地自然之理也。今日時論，咸以萬國通行之公法爲諉。然華夷之分，猶陰陽之辨，固難混同。至於華與華，夷與夷，其國俗亦各不同。以愚料之，天下萬國之法，必不可得而一。徒亂人民而已，奈何諸公，以爲如是，則國可富，兵可強，民可保，而享太平之樂？然殊不知各國相挺，彼皆滿其所欲，惟有我邦之無所益。而軍亂民散，終於危亡之勢迫在朝夕。噫！其不思之甚也。向者，伏睹傳教，以強弱之異，學倭，洋之技。此必諸公之所建白。愚竊謂效夷狄之奇技，不如得百姓之死力。苟百姓之心，固結於上而不可解。則彼之火輪電線，無所施其巧矣。若民心渙散，不可收拾。則雖有利器，將誰與禦敵哉。善乎朱子之言曰。“古昔聖王所以制御夷狄之道，（其本）不在乎威強，而在乎德業。其備不在乎邊境，而在乎朝廷。其具不在乎兵食，而在乎紀綱。”嗚呼。今日諸公，孰有以此警效於吾君之側也。

黃遵憲欲我國結日本聯美國，以防俄羅之患，而邦域之內有識之士，咸以爲不可。而一種議論，却謂之“神策”。至養異類於輦轂之下，竄言者於嶺海之間。韓非所謂“不用近賢之謀，外結千里之交，飄風一朝起，外交不及至者。”豈非今日之謂乎？裔戎之不可一日親，華制之不可一日變，天地之常經，春秋之大義。而今日時論諸公，乃謂天下大勢誰可如何，視諸夷之混處都城，若應行故事者然。然愚見竊謂自古爲國，未有失土類之心，拂百姓之情，而可以無事者。向來中殿出宮之變，實緣倭夷住城之由，是豈非九法數敗，三綱淪滅者耶？見今士論沸騰，民心渙散，危亡之勢迫在呼吸，而諸公輕於用世，急於榮身，不憚以儒學之身爲陳相之行。豈不得罪於聖人之門耶？且如其言，而天下大勢雖無奈何，而吾之所以出處去就之道，則可以自由。誰教佗如此枉尺枉尋而低回不去乎？天下之有夷狄，猶人心之有利欲。固未有天理人欲并立於方寸之間而終無事者，則亦未有諸夏裔戎雜處於一國之內而卒無事者矣。故《春秋》之（法），內夏而外夷；學問之道，克己以復禮。此天地之間亭亭當當直上直下之正理，不可一日一時而有所改易矣。今者諸公所以處倭，

洋,法,美者,一切反是,是何理也?今年六月之變,乃天下萬世之所創見,天下萬國之所未有也。而在廷諸臣,無一人爲國母死者,無一人發討逆之論者。亦無一人指此爲釁以爲卻敵之計者。而一味以萬國公法,爲藉口之端,若其守經之論,又指爲鄉人無識之流。噫!區區常竊以爲萬國公法,不如萬世正法。弁髦春秋之義,重於鄉里無知之目,則凡爲吾聖人之徒者,寧有死,不忍以冠帶之身,甘爲豺狼之群。今天下舉化爲戎。惟吾東獨保衣冠,有如剝之上九一爻未變。故曩哲言“吾輩之生,不在乎今日中州,而在乎一片乾淨之地,斯已奇矣。”自今觀之,所謂“一片乾淨之地”,時論諸公,又從而滓穢之。甚矣!其不仁也。爲吾儒者,正當嚴於華夷之辨,以存萬世之大防,庶不負上帝與孔聖焉爾。是爲目下時措之宜也。從古異端,其說多端,而其所主則一。一者何?心是已。吾聖賢千言萬語,無非是主性語。八條。○辨曰:自“尹喆圭”以下至此,諸條泛論夷狄時輩,非直斥倭虜者。何敢改手定而盡入別集乎?【下“近見清人”一條,《答金重玉書·別紙》二條,《寄華敬二兒書》三條,《自西徂東》,《梁集辨》亦然。】至於“從古異端”條之入別,尤可怪也。

二十五板左九行:“陽明”以下。

華本:各段。

三十一板右四行左方。

華本:有清儒多謂《家禮》非朱子作,其說甚長。然以余攷之,殊不爲然也。《家禮》“親厚入哭”註,“主人未成服而來哭者,當服深衣。”勉齋曰:“《檀弓》‘始死,羔裘玄冠者,易之而已。’據養疾者言之,《家禮》所載,據弔者言之,文同而意異。”勉齋,朱門高弟,乃有《家禮》云云之說,何可謂《家禮》非朱子作耶?《家禮》“祭先祖,設祖考妣位于堂中西東。”《語類·九十卷卅九板·賀孫錄》“用之問‘先生祭禮,立春祭高祖而上,只設二位。若古人祫祭,須是逐位祭。’曰:“某只依伊川說”云云。所謂“先生祭禮”實指《家禮》此註而言。據此則《家禮》之爲朱子作,不其明乎?後儒許多云云。可一筆句斷也。一條。

三十五板右十一行左方。

華本:有近見清人蔡爾康所著《宋儒貽禍中國論》,大槩引漢,唐之嫁女稱臣於匈奴,突厥,而謂“不足爲二代之恥。”乃謂“宋儒傳會古訓,攘斥夷狄。

然內夏外夷，《魯論》未著。今俗深中宋儒蠱毒，輒曰：‘外人夷也，當斥遠’云云。”噫！此何言也？《書》曰：“蠻夷猾夏，寇賊姦宄。”，以蠻夷與寇賊並言之。《詩》曰：“戎狄是膺”。《孟子》曰：“禹遏洪水，驅蛇龍，周公膺夷狄。”，以夷狄與蛇龍洪水並言之。孟子又嘗以鳩舌斥南蠻矣。果使孔子無內夏外夷之意，又何以稱管仲之功曰：“微此，吾其被髮左衽矣乎！”且如“夷狄之有君”及“雖之夷狄，不可棄”，“雖蠻，貊之邦行矣”之類，亦無非外夷之意，而今謂“《魯論》未著。”，將誰欺？欺天乎！抑亦習夷既久，與之俱化而不自覺也歟！爾康又謂“復讎孔子不言而出於宋儒。”余謂無讎則已，既有讎，則當視其事之大小而處之。小小侵陵，雖不可一一理會，若弑君殺父與憑威力以臣妾我之類，又豈可不報？湯爲童子復讎。孔子有“不共天以直報怨”之訓。安可謂非聖人所言？設有人于爾康之父，或毆打之，或殺害之，則渠將謂復讎宋儒之異論，而恬然無報復之心乎？今之所謂識時務者，所見多此類也。若是而可以開物化民乎？大可歎也。○蔡論。見載於林樂知《中東戰記》第七卷。而第一卷首，載朝鮮宮內大臣，與林樂知《謝贈中東戰記書》云：“此編，獻我陛下，已經乙覽，大加褒獎，仍賜繡屏”云云。林是美人。蔡是清人。其計欲我邦一味親附裔戎，不復理會讎怨也。乃爲大臣者獻之君上，至蒙褒賞，其爲寒心，又暇論哉！一條。

四十三板右十一行：“聖人無特”以下二條。

四十六板左二行：“藹然四端”條。

華本：并入《海上散筆》【《後稿》】○辨曰：師親定總目，固不敢擅換。況《休言》、《散筆》，有初晚之別乎！

卷三十四

十七板右三行：不可不審其所趨之分也。

華本：無“之分”二字。【《前稿》。下同。】

十九板右十一行：有庶子而立族姪爲嗣者，是仕宦家忍心害理之悖習。而爲之子者，無亦爲與爲人後者耶？父子而如此者，果能盡忠於君乎？明良相遇，

宜停薦停望, 而痛革其弊也.

華本: “庶”作“親”, “弊也”下有小註“親子指庶子”五字. ○辨曰: 不曰“庶子”, 必曰“親子”, 而特懸小註, 所以明舍己子, 取他子之爲害理也, 妄行刪改, 大失本意.

二十一板左九行: “試問天下”條.

華本: 入《海上散筆》.【《後稿》. 下同.】

同板右十行: 抑氣質有不善, 而知思不善運用.

華本: 無“而”字.

三十板左二行: 性固無知無能, 而謂之不可獨當太極, 則亦誤矣. 心固有動靜感應, 而謂之直是“太極”, 則亦誤矣.【《海上散筆》. 下同.】

華本: 無上“亦”字.

卷三十五

一板【止】六板右: “人性全善”條以上.

華本: 入《雜記》. ○辨曰: 爲換置條段, 至刪先師手定之《雜記》總目, 於心安乎?

三十六板左八九行: “佛家卽心認性”云云, “考證鑿心滅性”云云.

華本: “考證”下, 有“家”字.

三十七板左: “孟子歸求”以下【止】四十七板右“彼欲殺時”條, 五十一板左“性是太極”以下. 三條.

華本: 入《雜記》.

卷三十六

三十八板右十二行: “鄭某乃以”【《海屋病話》】

華本: “乃”作“每”.

卷三十七

四十二板右十一行：孔子隱默之教，亦謂之“一時”；墨子裹足之行，亦謂之“中道”。【《華島漫錄》】

華本：孔子隱默之教，亦謂之“畫”；墨子裹足之行，亦謂之“中”。

卷三十八

二十三板左二行：彼光輩【《永慕齋記》】

華本：“光”下，有“墩”字。

卷三十九

九板右十行：華西諸說，既非聖賢本旨，柳氏表章，又乖華西本旨，而亦已還收矣，則未論。愚之未見，而希甯之見者，非華西之真正案，乃金氏之假正案。惜不令起九原，而相與一笑也。他如心性分物則，靈覺屬氣，神明形下之類，可謂“脫出舊學窠臼，還得朱，栗正案，有功於斯文。”故區區欲與萬世學者，共之。希甯有知，儻以爲如何？【雲，柯往復後論跋】

華本：立我自是，固爲未當，而漫相唯諾，獨非有欠直道乎！正案本說，既失聖賢宗旨，柳氏表章之說，又乖華西本旨，而亦已還收矣。雖余亦不敢妄爲宣露，而外他諸說，亦心性分物則，靈覺屬氣，神明形下之類，可謂“脫出舊學窠臼，而復得朱，栗正詮，有功於斯文。”故區區竊欲與萬世學者，共之。希甯有知，儻不以述見爲差也歟？

三十一板左六行左方。

華本：有《祭趙周伯文》一篇。【《再後稿》】

卷四十

一板:《竹川神道碑》上.

華本:有《崔栗軒》,《烟村神道碑》二篇.【《後稿》.下同.】○辨曰:二碑,彼謂“《國典》有‘非二品以上,不得爲神道碑之文’,而刪去.然歷考《國典》,未見此文.且先師據陶菴所校《栗谷全書·贈通政大夫承旨金公神道碑》中,“爰樹神道碑”之文,而作此二碑,則其謂違《典》,而刪之者,妄矣.別有《碑辨》,而文多不錄.

同板右十三行:“進士直長”【《竹川神道碑》.下同.】

華本:“進士”下,有“仕爲”二字.

同板左七行:討論古義,勤苦篤業.

華本:“古義”下,有“朝夕相警責”五字,“篤業”下,有“者三年”三字.

二板右四行:“一依家禮”

六行:“獻陵”

華本:“家禮”下,有“先生”二字,“獻陵”下,有“參奉”二字.

同板右七行:“妓戲”

九行:“膺選”

左二行:“掌苑”下小註中“失”字.

三行:“與民爭訟”

左四行:“監司怒之”

華本:“妓”下,有“類之”二字,“膺”下,有“是”字.“失”作“逸”.“民”上,有“村”字.“怒”下,有“責”字.

續卷一

十一板右八行:“精識”【《答宋晦卿》】

華本:“精”作“高”.

三十八板右:《答尹明肅書》【丁巳】

華本:無.

續卷二

一板右:《答金起帆書》【己亥】

華本: 無.

十五板右十一行左方.

華本: 有《答金重玉書·別紙》

問: 近閱《綱目》, 漢昭烈·章武三年五月, 後主即位. 準以改元例, 則先帝之崩, 雖一日於癸卯, 當屬之章武三年, 乃大書建興元年, 何也? 又唐·中宗·景龍四年六月, 睿宗即位, 而仍大書四年, 其下分註睿宗·景雲元年, 乃至明年, 大書二年, 何也? 曩年丁未, 乃光武十一年, 而乃於七月, 禪位于新皇帝, 改元以隆熙. 後之秉筆者, 當於丁未書光武, 而分註隆熙乎. 抑不數光武十一年而書隆熙乎? 第以本朝已行者言之, 太祖以戊寅禪于定宗, 而以明年己卯爲元. 定宗以庚辰禪于太宗, 而亦以明年辛巳爲元. 曩之改元, 有何所據乎? 答: 後漢及唐例, 恐皆非禮之正. 當以本朝定宗, 太宗所行爲正. 丁未之從後主例, 不知是如何. 而秉筆者, 直書其實, 如《綱目》已矣. 問: 某丈至今戴白, 自據以《春秋》之法. 今考《春秋》註, 有“服不除”之文. 或毀以妄添《春秋》文, 何也? 又古人亦有行此者耶? 答: 據“服不除”之文, 則戴白者, 何可非之? 但宋時徽宗訃至, 以日易月, 則胡致堂上疏言“《禮》言‘讎不復, 則服不除.’ 願降詔旨. 服喪三年, 墨衰卽戎.” 此引“服不除”之文, 而猶曰“服喪三年.” 何也? 其後欽宗凶問至, 朱·張諸先生, 無終身素衣冠之制. 豈古今不同而然歟? 宋·德祐後, 摺紳先生, 有終身衰服者, 此見《方正學集》. 前賢所行各異, 不敢質言.【我朝李澤堂丁丑下城後, 用黑漆蔽陽子. 申舟卹以母讎未復, 終身戴蔽陽子.】二條.【前稿. 下同.】

十七板左:《答朴士文書》【戊午】

十九板右:《答田士誠書》【己未】

二十二板右:《答趙東孫書》【己未】

二十八板左:《與宋順會書》【庚申】

華本: 并無.

三十八板右十一行: 屈伸往來, 理氣自然能如此.【《答或人》】

華本: “理氣”作“二氣”.

續卷三

七板右:《答韓景春書》【庚申】

十九板右:《答崔命喜書》【戊午】

華本: 并無.

續卷四

五板右十二行: “帶體一用殊”【《答李喜璣》】

華本: “體一”上, “帶用殊”.【後稿下同】

八板左:《答趙弘淳書》三“鄭”字.

華本: 作“某”字.

二十二板左:《答魚在源書》

三十三板右:《答魚在源書》【己未】

三十三板左:《答吳震泳書》【甲寅】

華本: 并無.

續卷五

五板右七行: “子也”下.【《答安炳道》】

華本: 有小註“二韓齋儒, 後復相戾. 故永棄碑文.”十三字.

四十一板左十一行【止】四十二板右三行: 懿孝殿喪事, 臣民原來無服, 而今定以葦制, 雖未合禮, 既是時王之制, 不得已而從之, 鄙人受衰, 從前依漢湖已例行之, 今則無服而爲有服歟.【《答申赫均》】

華本: “歟”作“與”. “與”字下, 有“大喪, 內喪有間. 故成服日, 只用白衣白笠已矣.”十八字.【《前稿》】○辨曰: 先師於懿孝殿喪, 只用白衣笠而不受衰, 以其無服而爲有服也. 今改“與”以“歟”而刪其下, 以成“受衰”之

文, 變亂先師之事實禮意, 乃至此乎!

續卷六

十一板右二行: 況且父母所遺.【《答盧秉準》】

華本: “且”作“此”.【《後稿》. 下同.】

續卷七

三十板右: 《答金植沅書》【丁巳】

華本: 無.

三十六板左十二行: “自促其命”【《與李東潤》】

華本: “命”作“亡”.

四十板左: 《答金世基書》【壬戌】

華本: 無.

四十二板左: 《與韓性錫書》

華本: 《與某》

續卷八

一板左: 《答丁兌秀書》,《答鄭瑛朝書》

五板右: 《答范熙曄書》

同板左: 《答范熙元書》

十一板左: 《答弁敬源書》

二十板右: 《答朴鏞吉書》

華本: 并《答某》.

三十八板左一行左方。

華本：有《寄華敬二兒書》。頃者仁父，而見以出而存國見勸，此是功業爲重，而不計道義者，却與嘉陵諸人，不甚遠也。記得南軒說一段云：“志存功業者，苟可以成其功業而遂其志，則亦所屑爲。此與容悅者有間。然未及乎道義也。古之人惟守道明義而已。雖有蓋世功業在前可爲，而在我者，有一毫未安，不敢徇也。天民者，必明見夫達，而其道可行於天下而行之。蓋其所主在道，而非必於行也。”余之固陋，固不敢與議於全盡天理之大賢？然其志則主於道義而不欲爲功業所累也。而見平日未免有些事功爲重底意思。至於仁父，所執未必與之同矣。但被事勢已極，禍辱已迫，而不免少動了。信乎定見之難，固守之鮮也。只此亦可見天資雖美，而師友講明，正不可少也。程子論革之六二曰：“時可矣，位得矣，才足矣，【余果有此三者乎？】處革之至善者也。然臣道不當爲革之先。又必待上下之信。【余果得上下之信乎？】故已日乃革之也。如二之才德，所居之地，所進之時，足以革天下之弊，新天下之治。當進而行道則吉。不進則失可爲之時，爲有咎也。”此於二君之苦勸與余之堅執，豈不昭然如視諸掌乎？退台雖以吾言爲是，然其曰“向來失可爲之機者。”却與二君之見，不甚異也。所謂“向來”，卽昨秋遣任聖武，言儒林當出而有爲者也。昨秋之於今春，儒者不待上下之信，而遽然出脚之義，有何分別乎？宋強哉書來，力辨退說之非，而反疑其從前可以有爲而不爲者，此似退台之不得辭其責也。頃者而見之初來也，傳孟士幹之意云：“某丈一起，則國中士流皆響應。”又曰：“京中則有某某可仗，闕內則有某宮可通。”余謂“士君子有爲，詎可從某宮做事。”及而見再來，却言“某人比已剃髮。誠是意外。”余曰：“賢輩所擬以爲可仗者如此，誠可笑也。”雖然，使余從其言，而出門投書於外府，照會於各館，而與列國公使，一番爭詰。退得些子進勢，緩得些子急禍，則一時民譽必厚得矣。然是豈君子出處語默之精義乎？昨年余舉退台說，以問於徐丈，則答謂迂闊而曰：“彼豈不知是非，而爲此侵暴耶？”士幹豈不聞其師之有是先見而云爾歟！三條。【《前稿》】

四十四板右五行：卑賤之弔，當有四拜。【《寄鎰精》】

華本：“四”作“謝”。【《後稿》】

續卷九

十九板右:《書贈南軒永李徽在》【庚申】

華本: 無.

二十板右十行: 今年, 余與諸賢, 讀書于湖南之瀛洲山中.【《訓柳永善》. 下同.】

華本: 余讀書瀛洲山中.【《前稿》. 下同.】

同板左二行: 所受於函席者爲準. ○“博文約禮”云云.

華本: “爲準”下, 無圈. “博文”以下, 并大小字, 皆作小註.

二十五板左:《示劉永潔》【辛亥】

華本: 無.

三十七板右九行: 天下之談仁義爲諱.

華本: “之”作“以”.【《後稿》】

續卷十三

二十一板左二行: “孫君”

華本: “孫晦隱”【《再後稿》】

續卷十四

十三板左:《遂堂柳公墓碣銘》

十四板左:《孺人吳氏墓碣銘》

華本: 并作“墓銘”, 而有墓銘總目.【《後稿》】

十八板右十行:《雲稼沈公墓誌銘》上.

華本: 有《同敦寧吳公墓誌銘》.【《前稿》. 下同.】

續卷十五

四十一二板：《田不關傳》

崔君 性範，歸自關西，語余曰：田不關者，滿浦妓也。僉使田某，房妓幸愛所生，九歲喪母，被養於姨。頗有姿色，謹慎不見一人。年十六，僉使具某，始令昵侍，及遞歸，特除妓案。不關往依嫡親。後僉使曹明喆，聞其美召之，不從。曹怒曰：“汝雖前官所眄，卽鎮婢耳。焉敢違令？”囚多日。值端陽，曹集諸妓，爲鞦韆戲，釋不關，同娛遊。不關別姨母曰：“爲妓生八字，極切痛。自有料理，今後朝夕之飯，勿備送。”是夕曹召不關，賭樗蒲。不關勸醉曹，曹熟睡，夜闌方覺，不關無迹。翌日令官隸四求，但得其嫡親書篋中。云“汝若失行，一死之後，埋之而已，豈復以同氣待之乎？”尋到水門外，忽見洗劍亭下髻髻無足。裳在沿江上下。日暮於水中得尸。是夕不關宛然步水中，哭如歌如訴，聞者斷腸。夜夜久益哀冤，一鎮騷擾。曹寤寐間，屢見不關從空而至，如欲索命，因成疾。時宰聞而奏之，命御史勘罪鎮將。性範又曰：至熙川之驛坪書齋，病不能行。主人咸某，出示一編書。其中有此，眞曠世之一奇蹟，披閱之際，不覺疾痛之去體。歸途見江界郡守李某語之。李云“吾亦飽聞其事，深用嘉歎。”小子勸書于邑誌，因題一絕云“滿浦妓生有不關，不關當日有何關。遙知洗劍亭前水，千古偏芳一不關。”

華本：崔君 性範，歸自關西，語余曰：田不關者，滿浦妓也。僉使田某，房妓幸愛所生，九歲喪母，被養於姨。年十六，頗有姿色，持心謹慎，不見一人。僉使具某，始令昵侍，及遞歸，特除妓案。不關往依嫡親家。厥後僉使曹明喆，聞其美，以房妓召之，不關不從。曹怒曰：“汝雖前官所眄，卽一鎮婢耳。焉敢違逆官令？”牢囚多日。時值端陽，曹集諸妓，爲鞦韆戲，釋不關，使同娛遊。不關別姨母曰：“爲妓生八字，極爲切痛。自有料理，今日以後朝夕之飯，勿爲備送。”是夕曹召不關，賭樗蒲。不關度不免，勸醉曹，曹熟睡，夜闌方覺，不關無迹。翌日令官隸四求不得，但得其嫡親書篋中。有云“汝以吾家骨肉。汝若失行，一死之後，埋之而已，豈復以同氣待之乎？”尋到水門外，忽見洗劍亭下髻髻無足，裳在岸上。沿江上下，日暮於水中得尸。是夕不關步自水上，宛然冤哭。如歌如訴，聞者斷腸。夜夜往來，久益哀冤，一鎮騷擾。曹於寤

寐間，屢見不關從空而至，如有控訴，如欲索命，因成疾病。時宰聞而奏之，命御史勘處鎮將之罪。性範又曰：今春至熙川之驛坪書齋，病不能行。主人咸某出示一編書。其中有此事，真曠世之一奇蹟，披閱之際，不覺疾痛之去體。歸途見江界郡守李某。語次及之，李公云“吾亦到此，飽聞其事，深用嘉歎。”小子勸書于邑誌，仍題一絕云“滿浦妓生有不關，不關當日有何關。遙知洗劍亭前水，千古偏芳一不關。”○辨曰：此傳，晉人謂崔命喜代作而改之。然假使代作，既親命之。又親監之，便同先師親作，固不敢犯手，而況非代伊親，有鞠瑛煥當日目見乎！茲附鞠錄在下。○先師在泰安日，瑛煥侍側，崔命喜自關西歸謁，袖出一冊子，跪獻曰：“此滿浦妓田不關事實也。”先師看畢，曰：“以若賤妓，有此節義，亦一奇事。”卽夕作《田不關傳》。諸生皆登鈔誦讀。瑛煥熟讀上口，至今不忘。時則戊戌春三月也。

華本有《私笱》上下卷，《與申仰汝》長書，《守玄齋偶記》，《自西徂東》及《梁集諸說辨》。【《前稿》】是已晉本，移置申書守記於原編，二辨，入別集。

金容承望告玄阡文辨【辛未】

門下 韓狂 金容承，路出金馬，席地爲位，斟酒再拜而告之。

“門下”，金所嘗稱於先師者，今忽取而自稱，又書“韓狂”之別號，是尚可謂自處以門人乎？來往墓下，且十載一不拜墓。至於文以告之，猶且席地遙斟於二十里外人家中庭，舍曰“師禮”。友道尚不如是，噫！其心可知已矣。

傳鉢高弟。

先師於吳震泳，初無衣鉢之傳。更有不計道義之斥。【見《寄華敬二兒書》】終有事爲之慮【見權純命《華島治命錄》】矣。金非不知此，而特書傳鉢者，明是譏嘲之辭也。

當初遺書未出之前，門下決知獨命不出先生之口，而辨誣是事，竭盡心膂，筆舌無休日。然樞衣纔六日，未嘗受業爲弟子。【“未嘗受業爲弟子”七字，三洲語。三洲於尤庵 宋子，有四世師友之契。稱“先生”，稱“小子”，如彼其久，而猶如是稱之。】

師生之義，苟一定分，則樞衣久近，非所當論。況金於先師十年服事，不爲不久；累度書面，不爲不多。故金上師門書，有曰：“小子於門下受罔極之恩。”又曰：“其生成之恩也，刻肺銘肝，罔知攸報。”今乃曰：“樞衣六日，未嘗受業。”以示不受恩，非弟子之意。是可曰有人心乎哉！

三洲所謂“未嘗受業爲弟子”者，非曰：“不受恩於尤翁。”，亦非曰：“不爲弟子也。”正以示受恩不淺，弟子自處之意。故此句之上，既下“雖”字，此句之下，即曰：“出入門下數十年，情義篤矣。”，其下文，又引孟子所云“庾公之斯”事以明之，則其意已躍如矣。

更以此語，與其《上仲舅書》中“姪於尤翁，有四世師友之契，不止一時執業請益者，比而已。”者，表裏看，則尤可見矣。至其《答李同甫書》，則曰：“吾輩，以尤翁爲大宗師。”，其祭尤翁文，一則曰“小子”，再則曰“小子”。無間於弟子自處矣。三洲，雖不執業，而弟子之禮，無間於存亡。金則久事，【句】小子於生前，而未嘗受業爲弟子於沒後，以三洲而視金，則其罪益彰。乃敢引此爲證，更可駭也。

既無面命可據之實，又無一人應之者。

前乎遺書之出，而先生曾有懸棺沈尸之誓。及門者，莫不親承，而金獨無耳乎？必無愛重己稿，踰於親遺。而有獨命認教之理，則即此可謂“面命可據”，而今日“無之”。前乎金討之出，而兩湖門人，或書詰或辨斥者，不啻其多。而今日“無一人應之”，此非內謾其心外蔽人耳目者乎？

自潔之外，無他道理。故歸兮一闕，長往不返，是固萬萬不得已之事，而卒無以自解於市虎之疑也。

既云“決知獨命，不出先生之口”，則胡爲而信吳之誣說，汙視先師而自潔其身乎？父事之地，毀譽改觀，存亡易節，不憚於得罪名教。吾恐其所謂“自潔”者，適足以自汙也。

師友之說，考諸《魯論》，先生，本父兄之稱，而師友，乃父兄之謂也。天下吾君而下，安有過於吾父吾兄之尊乎？堯、舜之道，孝悌而已者，良有以也。而雖以七十子之服孔子，不過乎此矣。

先孔子《魯論》，而管仲《弟子職》，有曰：“先生施教，弟子是則。”先生，元是師門之稱，而其尊與父兄等。故孔子蓋借以稱父兄也。然自孔子後，不過百年，已有孟子，宋慤之先生。降及宋世，有朱子，陳君同甫之先生。至于近世，幾乎例爲書札間尊稱矣。

夫人生於世，有三本。非父不生，非君不養，非師無教。故并列君、師、父爲三尊焉。後世之士，爲學道定分之弟子者，必生稱“師門”，死稱“先師”。然後，可以見生三事一之義。不然而只稱“先生”，則分數有多般，其尊有不專矣。如使金而無間於純師也，何所慳惜於“先師”二字，而迂迴去，將借先生之父兄，借父兄之師友，艱辛說出，求免其罪乎？而至謂“七十子之服孔子，不過乎此。”，則是又誣七十子，而以師友待父兄，而以師友間待孔子也。○金於甲子夏，未見遺書之前，有《百千齋記言》曰：“道義不存，先生可易。”若曰“七十子之服孔子，是欺心也。”是先生無《春秋》之謂也。因以曰：“惟鼓山之於剛齋，梅山之於性潭，則可相喻也。”此師友間處之之說，所由立者也。今見遺書矣，謂有春秋矣，而猶不改師友之說，而極口明不害爲純師。其柰與前日“道義不存”，“無《春秋》之師友”，一串說來何？猶且強叫之曰：“於《春秋》，豈有間然乎？七十子之服孔子，不過乎此。”，不欺其心者，固如是乎？

是以，紫陽之於延平師友之，北山之於勉齋師友之，魯齋之於北山師友之。我東華陽之於慎老師友之，三洲之於尤翁亦師友之。門下之於師友也，抑獨何罪哉？

朱子《與李誠父書》，稱延平以老先生，自稱以門人矣。若乃師友李延平之語，是後人所作，而非朱子自言也。然其意，但以志同爲言，如尙友之意云爾，非謂以師友間之稱，可加於純師而爲名也。北山，魯齋之云，亦不過類此也。華陽云云見下，三洲云云見上。

憶昔丁巳春，理神，道心之同異也，先生謂門下曰：“吾爲退溪，爾爲栗谷；吾爲延平，爾爲朱子。”

若如此言，是先師以金說爲定論，而許其青勝於藍矣。然則何以大稿中，辨正金說者，不一而足也？吾以是知先師之無此言也。○金容承上先師書曰：“理，性，雖無辨，謂之‘養性’，則可，謂之‘養理’，說不去。心，神無辨，故謂之‘養心’，可；謂之‘養神’，亦可”。先師答曰：“先賢有存養天理語，則謂之‘養理’亦無礙。蓋‘順而不害曰養’故也。心，神，雖同一部位，然神是心之至精至妙處，故無惡。至於心，則或自爲惡，此不可不思也。”金書又曰：“理，性有辨，是湖家說也。”先師答曰：“朱子云：‘謂之理同，則可；謂之性同，則不可。’栗谷亦云：‘萬物之理，卽吾人之理；人之性，非物之性。’此似有理性之辨，與湖家說，其所指異同如何？金書又曰：“震泳，只言‘性通心局’，禁言‘理通神局’。故所以神心有辨。”先師答曰：“心者，人之神明，則心亦可言通。但神至精妙，心兼精粗，此則不得無辨也。‘神局’二字，高明自創歟？抑有據耶？朱子論《通書·動靜章》云：‘神卽此理也。’又云：‘動而無動，靜而無靜，非不動不靜。’此言形而上之理也。據此則神恐難直指爲局也。年前愚問：‘上帝天之神也，子謂上帝亦局歟？’高明遽曰：‘此則不敢然。’然則神有通局兩神歟？【《孟子》‘聖而不可知之謂神’，未可謂之局也。《中庸》鬼神較粗，而亦非可以局言者也。】說到此，不免一晒，可能無誅否？金書又曰：“老洲曰：‘理氣非二物，二物之中，自有主宰綱紀于此氣者。卽無形有爲卽氣非氣之妙也。’又曰：‘推極原頭，理氣畢竟是一物。朱子之所洞見，而整菴不知混關之義，反認朱子理氣爲二物。’云云。此未知如何？”先師答曰：“‘理氣一物’，從神理渾融無間處說，非謂‘理亦是陰陽不測之神’，‘神亦是冲漠無朕之理’，‘理亦是有覺之人心’，‘心亦是無爲之道體也’。羅，任理氣一物之說，《老洲集》中，有辨而駁之者，非止一

二. 其它如言‘道是形上’,‘神是形下’, 又言‘理氣合有分別, 而理主氣配’, 又言‘神幾與理爲一. 但有情意造作, 不似它純一無妄. 故理資乎神, 神配乎理.’, 又言‘鹿門看得氣重, 以理氣爲一物, 眞妄無別.’, 又言‘整菴隨語生解, 硬說主理氣一物之證, 而不免於辭理之崎嶇拗橫.’ 諸如此類甚多. 而曾聞鄭濟卿每於老洲頗懷不滿之意, 愚實憫其己見未甚明, 又未察前賢平生議論之周偏精密, 偏執一端, 以爲譏疑之資矣. 不謂明華, 又復追蹤其習. 吾恐明眼人, 從傍冷笑, 千萬聽此衷言. 老夫決不誤諸君.” 金書又曰: “朱子未嘗言‘理氣一物’, 而其所謂‘太極陰陽, 一而二, 二而一者’, 可以援據. 然其要, 恐只在二字上. 未知如何?” 先師答曰: “蘇氏謂‘聖人借陰陽以喻道.’, 而朱子非之曰: ‘是道與陰陽, 各爲一物.’ 又曰: ‘道卽器, 器卽道.’ 又曰: ‘道器一也.’ 又曰: ‘道器之名, 雖異, 然其實一物也.’ 朱子之言‘道器一物’, 如是之多. 而今日云云, 豈非考之未詳而言之太粗歟? 朱子它日, 又嘗言‘理氣決是二物.’, 又言‘直以陰陽爲形而上者, 則昧於道器之分矣.’ 愚竊謂諸老先生於理氣, 或曰一物, 或曰二物, 皆有其指. 達者皆通, 昧者皆窒. 不謂以明華之高明, 乃於一二之間, 偏主二字爲要. 而獨以一字爲不甚緊關, 可作歇後語, 何也? 請更取栗翁壬申答牛溪所說一二之義者, 虛心細玩, 不俟鄙言, 而悔過謝罪於老洲門下矣.【栗翁言“既非二物, 又非一物. 非一物, 故一而二; 非二物, 故二而一也.”云云. 其言平穩, 兩相均停, 可爲吾門理氣之正案. 何嘗如來喻之偏重一邊而放輕一邊耶? ○右并見先師《後稿》己未.】

師友間之說, 同春言之, 尤菴從之, 以服慎齋之喪. 故門下亦以是服先生止三月, 是可執之爲罪耶? 尤, 春兩正, 未嘗以是得罪於慎老之門也.

尤, 春既已純師於沙溪, 其於慎齋, 處以師友間, 固宜然也. 豈金亦曾純師於全齋, 而後復學於先師乎? 與尤, 春事, 事體懸別, 不足以爲據也. 且同春所謂“吾輩於此老, 處以師友之間”者, 言其平日所處也. 故既行加麻三月, 而不安於但以友道處之, 故更加數月心哀. 此則以師道處之也. 雖曰“師友”, 而其實重在師字. 今金則棄其生前純師之號, 而忽有身後師友之稱. 雖曰“師友”而其實注在友字. 同名師友, 而其實則殊. 欲以此作禦人欄柄而莫敢誰何,

人或可欺，獨不內愧乎？且若早稱師友於平日，則雖極猥妄於事一之地，猶足以據師居朋友之倫，而信其意則無它。不然而於先師百世之後，眩於陰吳之認誣，自潔其身，而改其稱號。然則誣之者，吳也；實其誣者，金也，於是乎不得不辨。

平常之時，書尺之間，自謂“死生榮辱，義無獨殊”者，危厲之際，比反眼若不相識，間路之陰，陰自爲謀，惴惴乎黨金之目。

“死生榮辱 義無獨殊”之云，不知指誰，而大祥曰，余欲見吳，而不遇，間路之陰，是指余而言也。彼意謂非當行正路，故謂之間路，而似若真由間路而行者然，此陷人毒筆也。蓋吾之欲面諭陰吳時在往復中聲討前也。議及靜齋與諸士友也，是可謂間路之陰乎？其爲謀避黨金與諭吳改服。上有天鑑，旁有千目，後有公論，謹拱手而俟之。【金則布文討吳後，親往陰城見吳。吾則以爲非關先師者，故不曾言之。】○田靜齋 華九《偶記》曰：“間路之陰之說，金容承未悉其事，而有傳者誤歟？抑遭凶徒悖習，而不勝忿激，有此事實相反之云耶？甲子七月三日，會者數千，皆誠心望震之悔罪告筵，以明先人之初無認教。又解一門之仇敵，携手同歸，則千萬大幸。故自朝至暮，諭之勸之者，不啻千人百人。而奸震恐以此還作討渠之資，牢拒不從。至晚有些意思，則其徒崔愿者，從傍暗裡，指撞震脇，與之僻處，附耳密語。良久乃還座，大言曰：“崔秉心同簽名告文，則可爲也。”崔則先有告矣，故堅不從。而若失此機，決裂在卽，而永無雪誣和同之日，華與諸士友，勸崔應之而又不從。日已昏矣，祀事將設，震投處所。華心焦肝焚。不得已與士友共議，使金澤述，明朝往震處，復善爲說辭而諭之，不至決裂之地，幸甚云云。澤述未至震處，震已乘船走矣。而有此云云。天下事類此多矣。聞人毀譽，豈可不審其實否，而遽信之哉？

師友之服，已無所罪；師友之說，忽爲大罪。

師服之至有三月，先賢有論，金服三月之時，初無師友間之說，但知其爲師

服，安得知其爲師友間之服而罪之乎？然今且從金說而言爾，事實則其時金方持父衰，而未嘗明言心哀月數，其服不服，亦不可得以知之矣。

衆會告絕之際，請文門下。門下却之。文成數行，請削門下。門下又却之。絕則絕矣，惟恐其傷絕者意，何意？其言曰“書絕，心不絕。”

請文，請削于當絕者，是果一分近理乎？當日作書示金曰：“如有抑勒者，則言之。”蓋明其當罪，而非勒也。且有“改之不終絕”之言。故金欲以此等說變幻眩亂也。然平日書疏，累稱“小子受罔極之恩”，而語人以“未嘗稱小子於生前”【金對崔敏烈言】至於告文亦云“未嘗受業爲弟子”。此猶無難於亡師，復何憚於誣餘人乎？觀者可以參悉。○蘇悅齋 學奎辨曰：“先師大祥後歸路，十餘人會金氏丙舍，議討吳震泳，適金容承在座，金鬯菴曰‘金進士胡爲不恭說話。’蓋爲承愛惜，冀其改遷也。承呶呶爭辨，不可盡記，最不忍正聽者，‘尊吳某【直斥老洲姓啣。】者，吾豈師事之？吾爲吾家學。’終始以師友間處之之說，口不絕聲。故‘當絕此人’之言，先出學奎。鬯菴亦曰：‘絕金容承，討吳震泳。’諸人皆無異辭，遂分席面絕。金鍾賢作文，學奎書之。其時顛末如此，渠所謂‘請文’，‘請削’，‘書絕心不絕’，於理萬萬不當。推此則外他橫豎之說，又何足深辨哉？”李慎軒 起煥辨曰：“請文，請削之說，記得當日作絕書與金曰：‘看其有不當事實者則言之。’蓋示其絕之之當然也。彼藉是而云然也歟？至於‘書絕心不絕’之云，全不當理也。”

蓋其書所執，只是師友間三字，寂寥無他語。

聯名告絕書既曰：“侮辱先師，侵斥淵源。”，因言“不改師友間說之爲倍師。”此爲何等重大題目，而曰“寂寥無他語。”豈以侮辱侵斥爲渠常事而然歟？

未知間路之間，不足爲罪；而師友間之間，乃獨爲罪耶？

間路之間，事非其實；師友間之間，歸於倍師。

夫“心迹判之”說，王文中之見，正於伊川之門者也。

內實倍師，而外飾不倍。此爲心迹判之係大倫者，當人人得而正之者。

門下嘗有詩言“先生沒後讀吾文”，又以“讀吾文”三字，爲大罪目，其不絕者之心，乃如是乎？遺書爲陰所諱，吾文又爲所惡，則先生之書，卽門下之文；門下之文，卽先生之書。於是而可分別乎？多見其不知數也。

“先生沒後讀遺文”，或“讀其文”，自是當然語。而必曰“讀吾文”，則意有所在故云云矣。今謂“遺書爲陰所諱，吾文又爲所惡。”，并稱對學者，驅人於與陰同科之計也，凶矣。

門下若爲先生言“師友任鼓山”，亦將曰：“使吾師爲倍師之罪人也。”，必矣。

“師友任鼓山”，若出於師友李延平之意，如上段所論，則可矣。不然而如渠所以處先師者，則非惟渠之倍先師，上而誣先師爲倍鼓山，其罪更加十倍矣。

先生平日，勤勤懇懇，文，行，忠，信之教，到今無毫髮近似，而未流之弊，有不可勝言者。竊恐先生之道不絕如縷者，永無可傳之日也。

程子謂“厚些，漸至兼愛；不及些，便至爲我，其末遂至楊，墨。朱子謂”楊朱學義，而偏於爲我；墨翟學仁，而流於兼愛，本原之際，微有差失。以此論之，凡“末流之有弊”者，必其本原之有差失也。若本原之正，如曾子之學，觀於子思，孟子，傳之無弊可見矣，何以有末流之弊不可勝言而永無可傳之日也？然則，金之爲此言也，暗斥先師學術之差明，如程，朱之論楊，墨也。先師本原，有何厚些，不及些，有何微有差失，而敢如此道乎？渠於記言，既以先師之講理，有未解惑，今於此文，又以先師之本原，歸之於有差之楊，墨。起以師友之稱，結以末流之弊，可見其用意之非常陰毒矣。○“勤勤懇懇”四字，出於尤菴論大尹親尹鑣語。此文全篇，無非外贊內譏之辭，則此亦不得不以有心

論。余爲此辨，或曰：“金是粗妄人。雖云倍師，何損於先師，而乃苦爲此也？”余曰：“否。不然。金是先正之孫，名卿之子，而稱有氣節人。世德，氣節，雖於實學無干，足以爲人藉重則有矣。金以十年師事之人，忽然倍去於吳誣之後，而云‘自潔其身’。人將藉以爲口，先師爲何如人哉？且祭告神明，何等重事，而敢以前日道義不存，無春秋之師友，一向冒稱；於今日，并與學術本原，而斥之無餘。雖赫靈之昭鑑其罪，九原不可作，則未死之門徒，豈忍按住幽明之痛而噤嘿自便乎？此先師所以辨嘉金祭梅，全文而盡其分者也。吾嘗見師稿中載金定師日，其先台監確齋公託子書，曰：‘此子能觀感而不爲夷獸之歸，則幸矣。’又曰：‘賴天之靈，得免亂賊之名，父子受恩，顧不大歟？’此爲何等重大，何等懇至語。今敢至於弁髦親託，抑又何心？胡不念棄師之并爲棄親，而一向不悛也？嗚呼！其可異也。”

觀金容承百千齋記言【乙亥】

此文始之以“道義不存，先生可易。”，終之以“君祖爲尤翁，然後吾爲尼尹。”其爲倍師也，蔑以加矣。已極駭痛，然此時遺書未出，疑案未破，氣節所激，不覺至此。自外人觀之，猶有可斟量。今則遺書已出，大義昭然，先生已得爲尤翁矣。然而告阡之文，猶不稱“先師”，不稱“門人小子”，甚而至於排斥學術本原而極焉。雖欲不歸於尼尹，安可得乎？雖外人，猶當執罪公斥，名爲良翁門人者，有爲之護法而謂不倍師者，吾不知其何義也。

“執書三見，加麻一哭。語情日淺，語理未解。若曰‘七十子之服孔子’是欺心，惟鼓山之於剛齋，梅山之於性潭，可相喻。”此正師友間處之之說。而先師生前所未聞，而始發於百世後者也。程子有曰：“顏、曾之於孔子，雖斬衰三年，可也。”此言成身之恩，與生身同也。金於平日，上師門書，有曰：“小子於門下，受罔極之恩。”，又曰：“生成之恩，刻肺銘肝，罔知攸報。”此非謂先師之恩，同於其父乎？然則，與所謂顏、曾斬衰者，何曾有異？今忽言“若七十子之服孔子是欺心”？渠於此，將何說而解之？

答“託名門人錄者，誰也”之語，曰：“有諸君子謙讓之地，安有生前門人錄

乎?”是則非但言自家不曾爲門人，并與先師門人錄，而譏破之。痛哉！先師平日，教授學者，一視其誠，而無厚薄。然師生之分，有關大倫。故其已定分者，書名于《觀善錄》。不云門人，而云觀善者，已是謙讓之意，此何害於義理乎？渠既明明奉親命，執贄入錄，爲十年之久，而乃敢曰“有諸？”，初若不知有門人錄者。然是猶黑水之明知朱子事寧宗，而乃敢曰“朱子豈有事寧宗之理”者，同一語法，同一心理也。

噫！金之爲良翁門人，尤有異於人者。其先台監確齋公書以託之曰：“此子能觀感，而不爲夷獸之歸，則幸矣。”又曰：“賴天之靈，得免亂賊之名，父子受恩，顧不大歟？”此爲何等鄭重語！近有金所親者，語人曰：“在禮，朋友間亦執贄。”此言必有所受所指，尤可痛也。吾故曰：“金之倍師，不覺至於倍親命，又可惜也。”



호남 선현문집 국역총서 5 『후창집』 3

김택술(金澤述) 지음

인쇄 2021. 2. 14

발행 2021. 2. 19

발행처 (재)한국학호남진흥원

주소 62383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로 152번길 53-27, 4층

연락처 tel. 062)603. 9600 fax. 062)941. 6705

홈페이지 <http://hiks.or.kr>

저자 김택술(金澤述)

역자 김성희 - 경상대학교 문학박사

신용권 - 완산역사문화연구회 연구원

최형태 - 전남대학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석사수로

편집·제작 (주)나무와달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37번길 8, 201호

tel. 062)529. 9179 fax. 062)529. 9178

<비매품/별매>

ISBN 979-11-90608-11-4 93910

본 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호남한국학진흥사업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으며,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한국학호남진흥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전재할 수 없습니다.